Policy Implications of Changes in Family Structure:
Focused on the Increase of Single Person Households in Korea

정경희 · 남상호 · 정은지 · 이지혜 · 이윤경 · 김정석 · 김혜영 · 진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1인가구의 증가로,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문화적 변화를 대변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가족구조는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점차 핵가족의 형태로 변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핵가족화를 넘어 혼로 가구를 구성하거나, 혼자 거주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1인가구 증가현상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의 규모는 2000년의 222만 가구에서 2010년에는 4,142가구로 증가하였고, 총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의 15.5%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세는 이어져, 1인가구는 연령구 13만 9천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1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양극화, 고령화, 여성화 등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이지만 우리의 각종 세제혜택, 사회보장 혜택, 주거혜택, 소비시장 등 사회의 제반 시스템이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1인가구가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1인가구는 노 후에 대한 두려움, 안전 등 삶의 영역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더 큰 위험
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1인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추세, 1인가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 1인가구의 구체적인 생활현황과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남상호 연구위원, 이윤경 부연구위원, 이지혜 전문연구원, 정은지 연구원과 원외의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해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진미정 서울대학교 이동가족학과 교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토 해주신 본 원의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과 김유경 연구위원, 소중한 검토의견을 주신 송유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연구위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사례연구에 도움을 주신 원내의 박종서 부연구위원과 원외의 김민철씨 및 인터뷰에 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1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29
  제1절 가족변화와 1인가구의 증가 ................. 29
  제2절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 .................. 31
  제3절 1인가구 증가의 국내외 동향 ............... 35
제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 43
  제1절 1인가구의 변화추이 ....................... 44
  제2절 1인가구 거주자의 인구학적 특성변화 .......... 71
제4장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 79
  제1절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 79
  제2절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인식 및 태도 비교 ... 100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 117
  제1절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인구주택총조사 ........................................ 117
  제2절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한국복지패널 ........................................... 124
  제3절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전화조사 ... 143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제1절 조사대상자(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 153
제2절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 156
제3절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 186
제4절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 216
제5절 종합 241

제7장 1인가구 대표유형의 삶과 생활세계

제1절 30대 미혼 1인가구 거주자의 삶과 생활세계 247
제2절 40~50대 이혼 1인가구 거주자의 삶과 생활세계 273
제3절 70대 이상 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삶과 생활세계 303

제8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35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353

참고문헌 371

부록 377
표 목차

〈표 1- 1〉 16개 시·도별 성·연령별 구성비(일반조사) …………16
〈표 1- 2〉 16개 시·도별 표본할당표(일반조사 완료자수) …………17
〈표 1- 3〉 16개 시·도별 성·연령별 구성비(1인가구 거주자 조사) …19
〈표 1- 4〉 16개 시·도별 표본할당표(1인가구 거주자 조사 완료자수) …20
〈표 1- 5〉 전문조사기관(KRC) 온라인 패널 규모 및 구성 …………21
〈표 1- 6〉 1인가구 거주자의 16개 시·도별 성·연령별 조사완료자수 …22
〈표 1- 7〉 1인가구 거주자의 대상자 선정 방법별 성·연령별 조사완료자수 …23
〈표 2- 1〉 가구규모별 구성비 변화(1980~2010년) …………………35
〈표 2- 2〉 연령대별 1인가구 가구주의 결혼상태 변화(1995년과 2010년) …36
〈표 2- 3〉 가구규모의 변동실태(2005~2009년) ……………………38
〈표 2- 4〉 2009년 기준 1인가구의 2005년도 기준 가구규모 분포 …38
〈표 2- 5〉 주요 OECD국가의 최근 가구형태분포 ……………………39
〈표 2- 6〉 미국, 스웨덴, 일본의 1인가구 변동추이 ………………40
〈표 3- 1〉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45
〈표 3- 2〉 연령대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 (1980~2010년) ………………………………47
〈표 3- 3〉 성·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49
〈표 3- 4〉 거주지역 및 연령군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비율(1980~2010년) ………………………50
〈표 3- 5〉 성 및 연령군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52
표 3-6 결혼상태 및 연령군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비율(1980~2010년) .......................... 54

표 3-7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별 15세 이상 가구주수와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80~2010년) .......................... 59

표 3-8 연령군별 15세이상 가구주수와 1인가구 가구주 비율
(1980~2010년) .......................................................... 61

표 3-9 성·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 15세 이상 가구주수와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80~2010년) .......................... 63

표 3-10 거주지역 및 연령군별 15세 이상 가구주수와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80~2010년) .......................... 64

표 3-11 성 및 연령군별 15세 이상 가구주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
(1980~2010년) .......................................................... 66

표 3-12 결혼상태 및 연령군별 15세 이상 가구주수와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80~2010년) .......................... 68

표 3-13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 분포(1980~2010년) ........................................ 72

표 3-14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연령3집단)
   분포(1980~2010년) ..................................................... 73

표 3-15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성·결혼상태 및
   교육수준 분포(1980~2010년) ........................................ 74

표 3-16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분포(1980~2010년) ........................................ 75

표 4-1 일반(20세 이상)조사 대상자의 성별 일반 특성 ............... 80

표 4-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구성 비교 ....... 81

표 4-3 일반특성별 '성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결혼 전이라도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 83
| 표 4-4 | 일반특성별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85 |
| 표 4-5 | 일반특성별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87 |
| 표 4-6 | 일반특성별 '미혼남녀가 집에서 통학·통근이 가능할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89 |
| 표 4-7 | 일반특성별 '이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91 |
| 표 4-8 | 일반특성별 '건강한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93 |
| 표 4-9 | 일반특성별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에도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95 |
| 표 4-10 | 일반특성별 1인가구 증가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97 |
| 표 4-11 | 혼자 살 경우 예상되는 힘든 점(연령대별) ........................................99 |
| 표 4-12 |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성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결혼 전이라도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102 |
| 표 4-13 |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103 |
| 표 4-14 |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104 |
| 표 4-15 |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미혼남녀가 집에서 통학·통근이 가능할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105 |
표 4-16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이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 106

표 4-17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건강한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 108

표 4-18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 109

표 4-19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1인가구 증가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 110

표 4-20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20~30대 청년층이 혼자 살 경우 예상되는 힘든 점 ...... 112

표 4-21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40~50대 중년층이 혼자 살 경우 예상되는 힘든 점 ...... 113

표 4-2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60대 이상 노년층이 혼자 살 경우 예상되는 힘든 점 ...... 114

표 5- 1)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연령3집단)별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 분포(2010년) ................................ 118

표 5- 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연령3집단)별
성·결혼상태 및 교육수준 분포(2010년) .......................... 119

표 5- 3)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연령3집단)별
점유형태·주택유형·거주지변동 및 거주층 분포(2010년) .. 120

표 5- 4)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사회활동참여율(2010년) ............................................. 122
〈표 5- 5〉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종사상의 지위 .............................................125
〈표 5- 6〉 1인가구와 비1인가구의 연령군별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127
〈표 5- 7〉 1인가구와 비1인가구의 연령군별 근로소득 유무
(소득원이 있는 비율) ....................................................................................129
〈표 5- 8〉 1인가구와 비1인가구의 연령군별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소득원이 있는 비율) .................................................................131
〈표 5- 9〉 1인가구와 비1인가구의 연령군별 가구의 월간 총가계지출 ..........133
〈표 5-10〉 1인가구와 비1인가구의 연령군별 가구의 총재산액과 총부채액 ......................................................................................................................134
〈표 5-11〉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135
〈표 5-1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만성질환율 및 주관적 건강상태 .................................................................137
〈표 5-13〉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우울 및 자아존중감 .................................................................................................139
〈표 5-14〉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주이용 의료기관 .............................................................141
〈표 5-15〉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건강보험 가입 실태 ..............................................................................................142
〈표 5-16〉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저축실태 ......144
〈표 5-17〉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경제상태 전망 .......................................................................................................145
〈표 5-18〉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삶의 만족도 ..........146
〈표 5-19〉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 .................................................................148
〈표 5-20〉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종류 ........................................149
〈표 6- 1〉 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별 제특성 ..........................155
〈표 6- 2〉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기간 ..........157
〈표 6- 3〉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사는 이유 .159
〈표 6- 4〉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힘든 점 및 좋은 점 있는 비율 .......................................162
〈표 6- 5〉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힘든 점 ........................................................................165
〈표 6- 6〉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좋은 점 ..169
〈표 6- 7〉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점 ..........................................................172
〈표 6- 8〉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여유시간 시
우선시하는 활동 .............................................................175
〈표 6- 9〉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가장 큰 걱정거리 ..178
〈표 6-10〉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생활 만족도 ..181
〈표 6-11〉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사는 이유 .184
〈표 6-12〉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기간 ..........187
〈표 6-13〉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사는 이유 ..190
〈표 6-14〉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힘든 점 및 좋은 점 있는 비율 ........................................192
〈표 6-15〉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힘든 점 ..196
〈표 6-16〉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좋은 점 ..199
〈표 6-17〉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점 .........................................................202
Contents

표 6-18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여유시간 시...
우선시하는 활동 ..................................................205
표 6-19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가장 큰 걱정거리 ....208
표 6-20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 생활 만족도 ....211
표 6-21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향후 독거 희망 ....214
표 6-22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기간 ..........217
표 6-23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이유 .......219
표 6-24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힘든 점과...
좋은 점이 있는 비율 ...........................................222
표 6-25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힘든 점 ..............................................................224
표 6-26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좋은 점 ..............................................................226
표 6-27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생활시...
가장 중요한 점 ...................................................229
표 6-28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여유시간 우선활동 ..232
표 6-29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걱정거리 ......234
표 6-30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생활 만족도 ..236
표 6-31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향후 독거 희망 ..239
표 7-1 30대 1인가구 집단면접(FGI) 참여 대상자의 특성 ..........249
표 7-2 30대 1인가구 심층면접 참여자의 기본 특성 .................250
표 7-3 40~50대 1인가구 집단면접(FGI) 참여 대상자의 특성 ..275
표 7-4 40~50대 1인가구 심층면접 참여자의 기본 특성 ...........276
표 7-5 70대 이상 고령 1인가구 집단면접(FGI) 참여 대상자의 특성 ..304
표 7-6 70대 이상 고령 1인가구 심층면접 참여자의 기본 특성 ....305
<표 8-1> 1인가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종합 ........................................338
<표 8-2> 연령군 및 1인가구 거주 여부별 1인가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종합 .................................................................338
<표 8-3> 연령군별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 및 특징 종합 ........346
<표 8-4> 독거노인의 유형 ..................................................................................................................369

부표 목차

<부표 1>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10세 간격)별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 분포(2010년) .........................383
<부표 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5세 간격)별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 분포(2010년) .........................384
<부표 3>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86
그림 목차

[그림 1-1] CATI 시스템을 이용한 표본추출과정 .......................... 18
[그림 1-2] 연구진행도 .................................................................... 25
[그림 1-3] 세부연구목표별 활용한 연구방법 ................................. 26
[그림 3-1] 연령군별 인구 대비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 48
[그림 3-2] 연령군별 가구주 대비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80~2010년) .. 62
Policy Implications of Changes in Family Structure: Focused on the Increase of Single Person Households in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we have experienced a wide range of dramatic socioeconomic changes, among which is the increase in single person households. It is a result of not only of demographic changes but also of changes in attitudes and in cultural atmosphere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growth in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its implications. To that end, this study presents the living profiles of persons living alone, based on the census and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Also, a telephone survey is conducted of 2,000 persons aged 20 and over and 4,000 persons living alone. In addition to these quantitative approaches, qualitative approaches are taken, such as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This study consists of six parts. The first part includes an analysis of census from 1980 through 2010. Treated both as household units and as individual persons living alone,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is part are examined in terms of their marital status, age, and place of residence. The second part, based on a telephone survey, illustrates the attitudes of Korean adults regarding single person households. The third part presents main characteristics of persons living alone compared to persons living with other family member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10. The forth part reviews living profiles and socioeconomic attitudes of people living alone in different age groups (20~30, 40~50, and 60 and over). The fifth part reports main themes and meaningful findings from in-depth interview, conducted 12 unmarried in their 30s, 12 divorced 40~50 years old, and 11 older persons who are 70 years and over.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nd policy measures are suggested.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가족구조는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점차 핵가족의 형태로 변모하여 왔으며, 최근 핵가족화를 넘어 홀로 가구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학술적‧정책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기존자료 분석(센서스 및 한국복지패널)을 진행하였고, 기존자료 분석으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조사(일반인 2,000명 조사, 1인가구 거주자 4,000명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양적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이들의 생활세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3회의 집단면접(FGI) 및 집중연구 대상자인 30대 미혼 13명, 40~50대 이혼 12명, 70대 이상 고령자 11명의 총 35명에 대한 1대1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II. 주요 연구결과

1. 1인가구의 증가추세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30년간 지역, 성, 결혼상태, 교육수준별 1인가구의 증가추이를 인구단위와 가구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980년에는 15세 이상 인구 중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현재에는 그 비율이 11.1%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가구단위로는 1980년의 5.1%에서 2010년 24.6%로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읍면부와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2. 1인가구에 대한 태도 및 인식

한국성인의 대다수가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1인가구 증가가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하는 사회적 이슈로 정립되어 있어 5점 만점에 4.3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상황별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이하여, '이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혼자 사는 것'은 2.99점, '미혼남녀가 집에서 통학, 통근이 가능한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2.72점이다. 노인독거의 경우, '건강한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3.33점),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아(1.98점) 노인의 상황별로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단별로는 여성, 도시 지역 거주자,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대체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과 생활실태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에 비해 1인가구 거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월세와 단독주택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사회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질병률 및 우울도가 높다. 이들은 1인가구의 좋은 점으로 자유로움을 들고 있다.

한편 연령군별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과 생활실태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대부분이 미혼으로 초혼연령 상승에 따른 의도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들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높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직장 또는 학업 때문에 혼자 생활하고 있어 주로 가사일 등 일상생활처리를 힘든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생계비 마련 및 주택구입 등의 경제적인 준비가 주요 관심사항이다. 이들은 결혼과 관련하여 막연한 부담감, 비현실적인 기대와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다.

40~50대의 경우 다수가 이혼한 사람이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혼자 생활하고 있으나 아들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과 노후준비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두드러지며 경제상황이 안정적일수록 재혼에 대한 기대가 낮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반대로 안정적인 경제상황일수록 재혼에 대한 기대가 높다.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며 대다수가 저축한 여유가 없이 생활하고 있어 미래 전망이 부정적이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심리적 위축과 사회활동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Ⅲ. 정책 제언

1. 정책적 기반 마련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해왔으며 향후도 그러한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정책의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재검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인가구를 포괄하기 위한 무엇보다 먼저 제도적 및 문화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1인가구라는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가족정책 개입대상으로 포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을 높여가도록 한다. 셋째, 1인가구가 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 또한 필요하다. 특히 1인가구 거주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상의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이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1인가구 거주자를 위한 지원방안

1인가구는 공동의 욕구와 연령별로 특화된 욕구를 갖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인가구는 공통적으로 주거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빈번한 거주지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이 뛰어난 측면에서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이 많은 단독주택 거주율이 높다. 따라서 주거의 안정과 편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1인가구 거주자는 모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1인가구 거주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질병률 및 우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1인가구 거주자가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어 정신적인 건강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함께 생활하지는 않아도 가족유대감이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과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감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정책과제는 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에 따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연령대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1인가구, 비혼, 독거노인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또한 1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양극화, 고령화, 여성화 등의 특성이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이처럼 1인가구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정보사회의 진전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심화, 청년세대의 결혼의 변화 및 초혼연령 상승, 노동시장의 경쟁구조로 인한 대도시 중심의 취업기회, 가족재생산비용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독거가구 및 혼자 생활하는 기간의 증가,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 또한 1인가구 역시 독거노인가구 뿐만 아니라 비혼가구, 이혼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이지만 우리의 각종 세제혜택, 사회보장 혜택, 소비시장 등 사회의 제반 시스템이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1인가구가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1인가구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 안전 등 다양한 생의 영역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1인가구가 일반가구와 구분되는 제특성과 1인가구의 다양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적절한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경제적 토대를 두텁게 할 필요성은 크다. 아직 1인가구 증대라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었을 뿐, 1인가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먼저 분절적인 관심에서의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1인가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인구학적 분석(통계청, 2012), 가족정책함의에 대한 고찰(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김영철 외, 2011),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파악(변미리 외, 2008)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1인가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1인가구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생애주기별 대표적인 1인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표적인 것이 비혼 1인가구에 대하여 관심을 둔 연구(김혜영 외, 2007)나 독거노인과 관련된 연구들(권중돈·오영희 외, 2005; 정경희, 2011; 조소영 외, 2011)이다. 이는 개별 연구로서 의미를 갖고는 있으나 1인가구 증대라는 큰 틀에서 이해될 때, 개별 대상에 대한 연구의 위상과 의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1인가구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대시키는 연구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1인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추세 파악, 둘째,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파악, 셋째, 비1인가구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비교, 넷째, 1인가구의 구체적인 생활현황 파악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1인가구 증대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갖는 정책적 함의와 과제 또한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1인가구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확보와 이해가 진행되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기존자료의 심층분석을 기반으로 진행하였고, 기존자료 분석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진행은 다음과 같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1. 가족자료의 심층분석

무엇보다 먼저 기존에조사된자료에대한심층분석을통하여1인가구의규모추이및특성을파악하고자하였다.활용된자료는통계청에서실시한각『인구주택총조사』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가공동으로수행하는『한국복지패널』이다.『인구주택총조사』는우리나라의모든인구와주택의총수는문론개별특성까지파악하여각종경제·사회발전계획의수립및평가,각종학술연구,민간부문의경영계획수립에활용하기위해실시하는전국적규모의통계조사이므로가구형태의변화라는측면에서1인가구의규모와특성을정확히파악할수있는자료이다.반면조사내용이다각적이지않다는점때문에1인가구의생활실태를구체적으로파악하기에는제한점이있다.이에본연구에서는『한국복지패널』자료를활용하여1인가구의특성을비1인가구와비교하여살펴보고자한다.『한국복지패널』은2006년1차년도조사를통하여7,000여가구를대상으로조사완료함으로써국내최대규모의패널을구축하였고,그이후매년조사를실시하여2012년7차조사까지실시하였다.그러나현재활용이가능한2010년도5차조사결과까지활용한분석을실시하였다.조사내용은대체경제활동,가구경제,주거,건강및의료,가족,사회보험및개인연금,사회복지서비스등이다.

『인구주택총조사』분석결과는1980~2010년까지지난30년간의1인가구의증가추세를10년단위로분석하고지역,성,결혼상태,교육수준별증가주체를파악하는데조점을두었으며제3장에주요결과가제시되어있다.한편『한국복지패널』은각연령군별로1인가구거주자와비1인가구거주자의생활실태를비교함으로써1인가구거주자의생활실태를포괄적으로이해하고자하였다.
2. 전화조사

본 연구를 위하여 두 가지 목적의 전화조사가 실시되었다. 첫째는 한국인들이 1인가구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20세 이상의 성인 2,000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전화조사는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세 이상의 1인가구 생활자 4,000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화조사는 2012년 8월 17일~9월 11일 기간 중에 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녹취검증 및 입력전용프로그램(Survey Craft)을 활용한 오류발생 제거 과정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전화조사 내용은 부록1과 같다.

가. 일반조사

1인가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조사의 표본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를 모집단으로 인구분포 비율에 따른 일반인 2,000명의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을 수행하였다. 지역, 성, 연령 비율을 비례할당한 2,000명 표본 설계는 다음과 같다(<표 1-1>과 <표 1-2> 참조). 이때 연령 구분은 분석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20대~60대 까지는 5세 단위로, 70대와 80대는 10세 단위의 연령으로 구분하였다. 표본설계는 성별과 연령만큼 고려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중에는 일부 1인가구 거주자도 포함되며, 전체 2,000명중 1인가구 거주자는 11.6%이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1-1〉 16개 시·도별 성·연령별 구성비(일반조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th>
</tr>
</thead>
<tbody>
<tr>
<td></td>
<td>만20-24세</td>
</tr>
<tr>
<td>만20-24세</td>
<td>0.70</td>
</tr>
<tr>
<td>만25-29세</td>
<td>1.20</td>
</tr>
<tr>
<td>만30-34세</td>
<td>1.20</td>
</tr>
<tr>
<td>만35-39세</td>
<td>1.20</td>
</tr>
<tr>
<td>만40-44세</td>
<td>1.10</td>
</tr>
<tr>
<td>만45-49세</td>
<td>1.05</td>
</tr>
<tr>
<td>남성 만50-54세</td>
<td>1.00</td>
</tr>
<tr>
<td>만55-59세</td>
<td>0.80</td>
</tr>
<tr>
<td>만60-64세</td>
<td>0.65</td>
</tr>
<tr>
<td>만65-69세</td>
<td>0.50</td>
</tr>
<tr>
<td>만70-79세</td>
<td>0.45</td>
</tr>
<tr>
<td>만80세이상</td>
<td>0.10</td>
</tr>
<tr>
<td>소계</td>
<td>9.95</td>
</tr>
<tr>
<td>총계</td>
<td>20.90</td>
</tr>
</tbody>
</table>
### 제1장 서론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서울</th>
<th>부산</th>
<th>광주</th>
<th>대전</th>
<th>인천</th>
<th>충북</th>
<th>충남</th>
<th>전북</th>
<th>전남</th>
<th>경북</th>
<th>경남</th>
<th>제주</th>
<th>소계</th>
</tr>
</thead>
<tbody>
<tr>
<td>20-24세</td>
<td>14</td>
<td>5</td>
<td>4</td>
<td>4</td>
<td>2</td>
<td>2</td>
<td>1</td>
<td>14</td>
<td>2</td>
<td>2</td>
<td>3</td>
<td>2</td>
<td>1</td>
</tr>
<tr>
<td>25-29세</td>
<td>24</td>
<td>7</td>
<td>5</td>
<td>6</td>
<td>3</td>
<td>3</td>
<td>2</td>
<td>22</td>
<td>2</td>
<td>3</td>
<td>4</td>
<td>3</td>
<td>2</td>
</tr>
<tr>
<td>30-34세</td>
<td>24</td>
<td>7</td>
<td>5</td>
<td>6</td>
<td>3</td>
<td>3</td>
<td>2</td>
<td>25</td>
<td>2</td>
<td>3</td>
<td>4</td>
<td>3</td>
<td>3</td>
</tr>
<tr>
<td>35-39세</td>
<td>24</td>
<td>7</td>
<td>5</td>
<td>7</td>
<td>3</td>
<td>4</td>
<td>3</td>
<td>30</td>
<td>3</td>
<td>3</td>
<td>4</td>
<td>4</td>
<td>3</td>
</tr>
<tr>
<td>40-44세</td>
<td>22</td>
<td>7</td>
<td>6</td>
<td>7</td>
<td>4</td>
<td>4</td>
<td>3</td>
<td>30</td>
<td>3</td>
<td>3</td>
<td>4</td>
<td>4</td>
<td>3</td>
</tr>
<tr>
<td>45-49세</td>
<td>21</td>
<td>8</td>
<td>6</td>
<td>7</td>
<td>3</td>
<td>3</td>
<td>3</td>
<td>28</td>
<td>3</td>
<td>3</td>
<td>4</td>
<td>4</td>
<td>4</td>
</tr>
<tr>
<td>남성</td>
<td>50-54세</td>
<td>20</td>
<td>8</td>
<td>5</td>
<td>6</td>
<td>3</td>
<td>3</td>
<td>3</td>
<td>24</td>
<td>3</td>
<td>3</td>
<td>4</td>
<td>4</td>
</tr>
<tr>
<td>55-59세</td>
<td>16</td>
<td>7</td>
<td>4</td>
<td>4</td>
<td>2</td>
<td>2</td>
<td>2</td>
<td>15</td>
<td>3</td>
<td>2</td>
<td>2</td>
<td>3</td>
<td>3</td>
</tr>
<tr>
<td>60-64세</td>
<td>13</td>
<td>5</td>
<td>3</td>
<td>3</td>
<td>2</td>
<td>2</td>
<td>1</td>
<td>11</td>
<td>2</td>
<td>2</td>
<td>3</td>
<td>3</td>
<td>3</td>
</tr>
<tr>
<td>65-69세</td>
<td>10</td>
<td>4</td>
<td>2</td>
<td>2</td>
<td>1</td>
<td>1</td>
<td>1</td>
<td>9</td>
<td>2</td>
<td>2</td>
<td>2</td>
<td>2</td>
<td>2</td>
</tr>
<tr>
<td>70-79세</td>
<td>9</td>
<td>4</td>
<td>3</td>
<td>2</td>
<td>1</td>
<td>1</td>
<td>1</td>
<td>9</td>
<td>3</td>
<td>2</td>
<td>2</td>
<td>4</td>
<td>3</td>
</tr>
<tr>
<td>80세이상</td>
<td>2</td>
<td>1</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3</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r>
<tr>
<td>소계</td>
<td>199</td>
<td>70</td>
<td>49</td>
<td>55</td>
<td>27</td>
<td>28</td>
<td>22</td>
<td>220</td>
<td>29</td>
<td>29</td>
<td>40</td>
<td>36</td>
<td>34</td>
</tr>
<tr>
<td></td>
<td>20-24세</td>
<td>19</td>
<td>6</td>
<td>4</td>
<td>5</td>
<td>3</td>
<td>3</td>
<td>1</td>
<td>18</td>
<td>2</td>
<td>2</td>
<td>3</td>
<td>2</td>
</tr>
<tr>
<td></td>
<td>25-29세</td>
<td>26</td>
<td>7</td>
<td>5</td>
<td>6</td>
<td>3</td>
<td>3</td>
<td>2</td>
<td>23</td>
<td>2</td>
<td>3</td>
<td>3</td>
<td>3</td>
</tr>
<tr>
<td></td>
<td>30-34세</td>
<td>24</td>
<td>7</td>
<td>5</td>
<td>6</td>
<td>3</td>
<td>3</td>
<td>2</td>
<td>26</td>
<td>2</td>
<td>3</td>
<td>4</td>
<td>3</td>
</tr>
<tr>
<td></td>
<td>35-39세</td>
<td>24</td>
<td>7</td>
<td>6</td>
<td>6</td>
<td>4</td>
<td>4</td>
<td>3</td>
<td>30</td>
<td>3</td>
<td>3</td>
<td>4</td>
<td>4</td>
</tr>
<tr>
<td></td>
<td>40-44세</td>
<td>23</td>
<td>8</td>
<td>6</td>
<td>7</td>
<td>4</td>
<td>4</td>
<td>3</td>
<td>29</td>
<td>3</td>
<td>3</td>
<td>4</td>
<td>4</td>
</tr>
<tr>
<td></td>
<td>45-49세</td>
<td>23</td>
<td>9</td>
<td>6</td>
<td>7</td>
<td>3</td>
<td>4</td>
<td>3</td>
<td>27</td>
<td>3</td>
<td>3</td>
<td>4</td>
<td>4</td>
</tr>
<tr>
<td>여성</td>
<td>50-54세</td>
<td>23</td>
<td>9</td>
<td>6</td>
<td>6</td>
<td>3</td>
<td>3</td>
<td>2</td>
<td>23</td>
<td>3</td>
<td>3</td>
<td>4</td>
<td>4</td>
</tr>
<tr>
<td>55-59세</td>
<td>17</td>
<td>7</td>
<td>4</td>
<td>4</td>
<td>2</td>
<td>2</td>
<td>2</td>
<td>15</td>
<td>3</td>
<td>2</td>
<td>2</td>
<td>3</td>
<td>3</td>
</tr>
<tr>
<td>60-64세</td>
<td>14</td>
<td>6</td>
<td>3</td>
<td>3</td>
<td>2</td>
<td>2</td>
<td>1</td>
<td>12</td>
<td>2</td>
<td>2</td>
<td>3</td>
<td>3</td>
<td>3</td>
</tr>
<tr>
<td>65-69세</td>
<td>10</td>
<td>4</td>
<td>3</td>
<td>2</td>
<td>1</td>
<td>1</td>
<td>1</td>
<td>10</td>
<td>2</td>
<td>2</td>
<td>3</td>
<td>3</td>
<td>3</td>
</tr>
<tr>
<td>70-79세</td>
<td>12</td>
<td>6</td>
<td>4</td>
<td>4</td>
<td>2</td>
<td>2</td>
<td>1</td>
<td>12</td>
<td>4</td>
<td>3</td>
<td>5</td>
<td>5</td>
<td>6</td>
</tr>
<tr>
<td>80세이상</td>
<td>4</td>
<td>2</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td>
<td>5</td>
<td>1</td>
<td>1</td>
<td>2</td>
<td>2</td>
</tr>
<tr>
<td>소계</td>
<td>219</td>
<td>78</td>
<td>53</td>
<td>57</td>
<td>31</td>
<td>32</td>
<td>21</td>
<td>230</td>
<td>30</td>
<td>30</td>
<td>42</td>
<td>40</td>
<td>39</td>
</tr>
<tr>
<td>총계</td>
<td>418</td>
<td>148</td>
<td>102</td>
<td>112</td>
<td>58</td>
<td>60</td>
<td>43</td>
<td>450</td>
<td>59</td>
<td>59</td>
<td>82</td>
<td>76</td>
<td>73</td>
</tr>
</tbody>
</table>

### 표 1-2 16개 시·도별 표본할당표(일반조사 완료자수)

(단위: 명)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그림 1-1] CATI 시스템을 이용한 표본추출과정

나. 1인가구 거주자 조사

지역, 성, 연령의 각 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표본을 얻을 수 있도록 1인가구 전체 표본을 4,000명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2010년 시행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1인가구 인구를 모집단으로, 1인가구 4,000명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의 지역, 성, 연령별 비례 할당을 수행하였다.

임의표집으로 조사된 2,000명 중 1인가구는 231명이다.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의 1인가구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높은 편이며, 여성의 경우는 10대 후반이 높고, 60대 이후부터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인가구의 조사 방법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CATI를 이용한 랜덤 샘플링으로 수행되었으나, 1인가구의 경우 전 인구 중 11.6% 수준의 낮은 분포로 인해 전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1인가구 거주자와 전화 연결이 된다 해도 조사 거부 등의 이유로 실제 조사에 응하는 비율은 훨씬 낮아서 실제로 1인가구 조사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견되었다.
따라서 일반인 가구와의 비교 분석 및 연령대별로 적용성별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가치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전체 표본수를 조절하였다. 결과적으로 2,000명 일반인 가구에 포함된 1인가구 이외에 별도 3,769명의 1인가구 거주자를 booster 개념으로 추가 조사하였으며, 총 4,000명의 1인가구 거주자를 조사하였다.

〈표 1-3〉 16개 시·도별 성·연령별 구성비(1인가구 거주자 조사) (단위: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th>
</tr>
</thead>
<tbody>
<tr>
<td>남성</td>
<td></td>
</tr>
<tr>
<td>만20-24세</td>
<td>0.63 0.20 0.15 0.10 0.10 0.23 0.03 0.43 0.20 0.20 0.25 0.15 0.05 0.28 0.15 0.03 3.15</td>
</tr>
<tr>
<td>만25-29세</td>
<td>1.88 0.33 0.25 0.30 0.23 0.28 0.15 1.50 0.20 0.25 0.35 0.20 0.15 0.40 0.38 0.05 6.88</td>
</tr>
<tr>
<td>만30-34세</td>
<td>1.75 0.30 0.25 0.35 0.23 0.23 0.18 1.65 0.15 0.20 0.28 0.18 0.18 0.35 0.40 0.05 6.70</td>
</tr>
<tr>
<td>만35-39세</td>
<td>1.35 0.30 0.25 0.35 0.18 0.18 0.15 1.45 0.15 0.18 0.23 0.18 0.25 0.38 0.35 0.05 5.75</td>
</tr>
<tr>
<td>만40-44세</td>
<td>1.00 0.30 0.23 0.28 0.15 0.15 0.13 1.18 0.15 0.20 0.15 0.15 0.25 0.30 0.05 4.80</td>
</tr>
<tr>
<td>만45-49세</td>
<td>0.83 0.33 0.23 0.28 0.13 0.13 0.10 1.00 0.18 0.15 0.20 0.18 0.28 0.30 0.05 4.48</td>
</tr>
<tr>
<td>남성</td>
<td></td>
</tr>
<tr>
<td>만50-54세</td>
<td>0.70 0.35 0.20 0.23 0.15 0.13 0.10 0.83 0.20 0.15 0.20 0.28 0.30 0.05 4.20</td>
</tr>
<tr>
<td>만55-59세</td>
<td>0.50 0.28 0.15 0.15 0.08 0.10 0.08 0.53 0.15 0.10 0.15 0.13 0.15 0.20 0.23 0.03 2.98</td>
</tr>
<tr>
<td>만60-64세</td>
<td>0.38 0.20 0.10 0.10 0.05 0.08 0.05 0.40 0.10 0.08 0.10 0.10 0.13 0.15 0.18 0.03 2.20</td>
</tr>
<tr>
<td>만65-69세</td>
<td>0.33 0.18 0.10 0.08 0.05 0.05 0.03 0.35 0.08 0.08 0.10 0.10 0.13 0.13 0.03 1.88</td>
</tr>
<tr>
<td>만70-79세</td>
<td>0.38 0.20 0.13 0.10 0.08 0.05 0.03 0.40 0.13 0.15 0.15 0.18 0.23 0.20 0.03 2.53</td>
</tr>
<tr>
<td>만80세이상</td>
<td>0.10 0.05 0.03 0.03 0.03 0.03 - 0.13 0.05 0.05 0.08 0.05 0.08 0.10 0.08 - 0.85</td>
</tr>
<tr>
<td>소계</td>
<td>9.83 3.02 2.07 2.35 1.44 1.64 1.03 9.85 1.74 1.72 2.29 1.72 1.70 2.93 3.00 0.45 46.40</td>
</tr>
</tbody>
</table>

| 여성   |                                               |                                               |
| 만20-24세 | 1.00 0.23 0.18 0.10 0.13 0.23 0.03 0.50 0.15 0.18 0.23 0.13 0.05 0.25 0.13 0.03 3.50 |
| 만25-29세 | 1.65 0.23 0.20 0.18 0.20 0.08 1.00 0.13 0.15 0.18 0.13 0.10 0.23 0.23 0.03 5.15 |
| 만30-34세 | 1.23 0.23 0.18 0.13 0.13 0.08 0.83 0.08 0.10 0.10 0.08 0.15 0.18 0.03 3.73 |
| 만35-39세 | 0.90 0.20 0.15 0.18 0.10 0.08 0.75 0.08 0.08 0.10 0.08 0.05 0.13 0.15 0.03 3.13 |
| 만40-44세 | 0.68 0.20 0.15 0.18 0.08 0.10 0.65 0.08 0.08 0.08 0.08 0.15 0.18 0.05 2.88 |
| 만45-49세 | 0.63 0.25 0.18 0.10 0.10 0.08 0.68 0.13 0.10 0.13 0.10 0.10 0.20 0.23 0.05 3.20 |
| 여성   |                                               |                                               |
| 만50-54세 | 0.68 0.33 0.20 0.18 0.10 0.13 0.10 0.70 0.15 0.13 0.15 0.15 0.15 0.25 0.28 0.05 3.70 |
| 만55-59세 | 0.63 0.38 0.20 0.15 0.10 0.10 0.08 0.60 0.15 0.13 0.15 0.18 0.15 0.28 0.25 0.05 3.55 |
| 만60-64세 | 0.70 0.40 0.23 0.18 0.13 0.10 0.08 0.65 0.15 0.13 0.18 0.20 0.25 0.30 0.33 0.05 4.03 |
| 만65-69세 | 0.75 0.43 0.25 0.18 0.13 0.10 0.08 0.75 0.23 0.18 0.25 0.28 0.38 0.43 0.43 0.05 4.85 |
| 만70-79세 | 1.33 0.83 0.53 0.38 0.28 0.23 0.15 1.48 0.50 0.45 0.70 0.80 1.13 1.18 1.10 0.15 11.18 |
| 만80세이상 | 0.53 0.28 0.18 0.15 0.13 0.08 0.05 0.55 0.20 0.20 0.33 0.35 0.58 0.50 0.50 0.10 4.75 |
| 소계   | 10.91 4.04 2.66 2.24 1.59 1.60 0.97 9.14 2.03 1.91 2.60 2.53 3.13 4.10 4.02 0.67 53.65 |

총계 20.60 7.00 4.68 4.53 2.95 3.18 1.93 18.90 3.73 3.58 4.85 4.20 4.78 6.98 6.95 1.08 100.0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1-4 16개 시·도별 표본할당표(1인가구 거주자 조사 완료자수)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소계</th>
</tr>
</thead>
<tbody>
<tr>
<td>남성</td>
<td>만20~24세 25 8 6 4 4 9 1 17 8 8 10 6 2 11 6 1 126</td>
</tr>
<tr>
<td></td>
<td>만25~29세 75 13 10 12 9 11 6 60 8 10 14 8 6 16 15 2 275</td>
</tr>
<tr>
<td></td>
<td>만30~34세 70 12 10 14 9 9 7 76 6 8 11 7 7 14 16 2 268</td>
</tr>
<tr>
<td></td>
<td>만35~39세 54 12 10 14 7 7 6 58 6 7 9 7 6 11 14 2 230</td>
</tr>
<tr>
<td></td>
<td>만40~44세 40 12 9 11 6 6 5 47 6 6 8 6 6 10 12 2 192</td>
</tr>
<tr>
<td></td>
<td>만45~49세 33 13 9 11 5 5 4 40 7 6 8 6 7 11 12 2 179</td>
</tr>
<tr>
<td>남성</td>
<td>만50~54세 28 14 8 9 5 5 4 33 8 6 8 7 8 11 12 2 168</td>
</tr>
<tr>
<td></td>
<td>만55~59세 20 11 6 6 3 4 3 21 6 4 6 6 5 6 8 9 1 119</td>
</tr>
<tr>
<td></td>
<td>만60~64세 15 8 4 4 2 3 2 16 4 3 4 4 5 6 7 1 88</td>
</tr>
<tr>
<td></td>
<td>만65~69세 13 7 4 3 2 2 1 14 3 3 4 4 4 5 5 1 75</td>
</tr>
<tr>
<td></td>
<td>만70~79세 15 8 5 4 3 2 1 16 5 5 6 7 9 8 1 101</td>
</tr>
<tr>
<td></td>
<td>만80세이상 4 2 1 1 1 1 - 5 2 2 3 2 3 4 - 34</td>
</tr>
<tr>
<td></td>
<td>소계      392 120 82 93 56 64 40 393 69 68 91 66 67 119 17 285</td>
</tr>
</tbody>
</table>

表 1-4 16개 시·도별 표본할당표(1인가구 거주자 조사 완료자수)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소계</th>
</tr>
</thead>
<tbody>
<tr>
<td>여성</td>
<td>만20~24세 40 9 7 4 5 9 1 20 6 7 9 5 2 10 5 1 140</td>
</tr>
<tr>
<td></td>
<td>만25~29세 74 11 9 8 7 8 3 40 5 6 7 5 4 9 9 1 206</td>
</tr>
<tr>
<td></td>
<td>만30~34세 49 9 7 7 5 5 3 33 3 4 4 3 3 6 7 1 149</td>
</tr>
<tr>
<td></td>
<td>만35~39세 36 8 6 7 4 4 3 30 3 3 4 3 3 5 6 1 125</td>
</tr>
<tr>
<td></td>
<td>만40~44세 27 8 6 7 3 4 3 26 3 3 4 3 3 6 7 2 115</td>
</tr>
<tr>
<td></td>
<td>만45~49세 25 10 7 7 4 4 3 27 5 4 5 4 4 8 9 2 128</td>
</tr>
<tr>
<td>여성</td>
<td>만50~54세 27 13 8 7 4 5 4 28 6 5 6 6 6 10 11 2 148</td>
</tr>
<tr>
<td></td>
<td>만55~59세 25 15 8 6 4 4 3 24 6 5 6 6 7 10 11 2 142</td>
</tr>
<tr>
<td></td>
<td>만60~64세 28 16 9 7 5 4 3 26 6 5 7 8 10 12 13 2 161</td>
</tr>
<tr>
<td></td>
<td>만65~69세 30 17 10 7 5 4 3 30 9 7 10 11 15 17 17 2 194</td>
</tr>
<tr>
<td></td>
<td>만70~79세 53 33 21 15 11 9 6 59 20 18 28 32 45 47 44 6 447</td>
</tr>
<tr>
<td></td>
<td>만80세이상 21 11 7 6 5 3 2 22 8 8 13 14 23 23 20 4 190</td>
</tr>
<tr>
<td></td>
<td>소계      435 160 105 88 62 63 37 365 80 75 103 100 124 163 159 262 145</td>
</tr>
</tbody>
</table>

| 총계       | 827 280 187 181 118 127 77 758 149 143 194 168 191 279 278 434 000 |

주: 16개시도·성·영령군별 표본할당은 제3장에서 이루어진 인구주택조사 자료상 나타난 16개시도·성·영령군별 분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

한정된 조사 기간과 비용으로 4,000명에 대한 1인가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랜덤 샘플링에 의한 전화조사 외에 전문조사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패널의 1인가구 리스트를 추출하여 1인가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온라인 패널은 패널 대상자 자발적인 패널 가입이 전제가 된 상태이며, 패널 전체 구성 자체가 주 민등록상의 인구 모집단 비율과 유사하도록 관리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이나 성질로 인한 쏠림 없이 임의의 표본과 유사한 대표성을 띠는 집단이다.
제1장 서론

이외에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눈덩이표집(Snow Ball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눈덩이표집(Snow Balling)은 오프라인 상의 유사 인맥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1인가구 거주자와 같이 탐색이 어려운 대상자를 찾는데 많이 활용되는 조사 방법이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 완료자와 조사 킭택원을 대상으로 주변의 1인가구를 소개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눈덩이표집(Snow Balling)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1명의 조사 대상자를 소개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표 1-5〉 전문조사기관(KRC) 온라인 패널 규모 및 구성

<table>
<thead>
<tr>
<th>구분</th>
<th>1인가구(모집단)</th>
<th>1인가구 조사 퀄터</th>
<th>KRC 보유 온라인 패널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td>
<td>case</td>
<td>%</td>
<td>case</td>
</tr>
<tr>
<td>전체</td>
<td>4,093,581</td>
<td>11.4</td>
<td>4,000</td>
</tr>
<tr>
<td>20-24세</td>
<td>272,226</td>
<td>11.1</td>
<td>266</td>
</tr>
<tr>
<td>25-29세</td>
<td>490,847</td>
<td>11.1</td>
<td>481</td>
</tr>
<tr>
<td>30-34세</td>
<td>426,747</td>
<td>11.6</td>
<td>417</td>
</tr>
<tr>
<td>35-39세</td>
<td>364,095</td>
<td>8.9</td>
<td>355</td>
</tr>
<tr>
<td>40-44세</td>
<td>313,421</td>
<td>7.6</td>
<td>307</td>
</tr>
<tr>
<td>45-49세</td>
<td>314,894</td>
<td>7.8</td>
<td>307</td>
</tr>
<tr>
<td>50-54세</td>
<td>323,209</td>
<td>8.6</td>
<td>316</td>
</tr>
<tr>
<td>55-59세</td>
<td>267,512</td>
<td>9.7</td>
<td>261</td>
</tr>
<tr>
<td>60-64세</td>
<td>254,265</td>
<td>11.7</td>
<td>249</td>
</tr>
<tr>
<td>65-69세</td>
<td>272,984</td>
<td>15.2</td>
<td>269</td>
</tr>
<tr>
<td>70-79세</td>
<td>562,864</td>
<td>21.6</td>
<td>548</td>
</tr>
<tr>
<td>80세 이상</td>
<td>230,517</td>
<td>25.9</td>
<td>224</td>
</tr>
</tbody>
</table>

조사완료된 4,000명의 지역·성·연령별 분포는 〈표 1-6〉과 같다. 남성 40~44세 연령군과 여성 40~44세 연령군의 경우 할당대비 완료율이 5%이상 초과되는 연령군으로, 해당 연령층이 40대 후반 이후의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1) 결혼경험이 없는 미혼자나, 2)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사람, 3) 자녀 교육을 위한 임시 비동거 상태인(기리기 어빠) 사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들어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들 가구는 주의의 인식이나 생활편의상의 이유로 실제 가구 등록을 하지 않아 통계상의 분포 보다 실제 분포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6〉 1인가구 거주자의 16개 시·도별 성·연령별 조사완료자수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서울부산대구안현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계</th>
</tr>
</thead>
<tbody>
<tr>
<td>남성</td>
<td>만20~24세 25 8 7 5 5 10 1 20 6 9 8 5 1 10 6 162</td>
</tr>
<tr>
<td></td>
<td>만25~29세 70 13 10 12 9 11 6 55 11 10 15 9 8 18 15 3 275</td>
</tr>
<tr>
<td></td>
<td>만30~34세 65 12 12 10 9 9 8 61 8 8 11 11 8 19 16 4 271</td>
</tr>
<tr>
<td></td>
<td>만35~39세 49 19 12 11 7 10 6 59 7 8 9 8 8 10 14 2 239</td>
</tr>
<tr>
<td></td>
<td>만40~44세 44 14 13 15 5 10 5 53 9 9 8 6 7 9 15 3 225</td>
</tr>
<tr>
<td></td>
<td>만45~49세 35 11 5 7 6 2 6 34 5 6 8 4 4 10 9 2 154</td>
</tr>
<tr>
<td>남성만50~54세</td>
<td>38 8 6 8 1 4 3 42 5 2 4 5 3 9 8 1 147</td>
</tr>
<tr>
<td></td>
<td>만55~59세 30 8 6 8 4 2 2 23 3 4 3 3 6 4 7 0 113</td>
</tr>
<tr>
<td></td>
<td>만60~64세 17 8 5 5 2 3 2 12 4 3 4 4 7 8 9 1 94</td>
</tr>
<tr>
<td></td>
<td>만65~69세 11 7 4 2 2 2 1 12 3 3 4 4 4 5 4 1 69</td>
</tr>
<tr>
<td></td>
<td>만70세이상 6 6 2 1 2 1 5 2 2 4 3 5 4 2 1 46</td>
</tr>
<tr>
<td></td>
<td>원래예상 9 3 3 3 1 1 1 1 1 3 3 3 4 6 8 - 62</td>
</tr>
<tr>
<td>소계</td>
<td>403 119 86 88 54 66 41 392 68 69 84 67 68 115 117 18 1 1855</td>
</tr>
</tbody>
</table>

여성       | 만20~24세 32 10 8 5 7 12 1 20 6 5 8 10 2 2 8 8 1 140 |
|           | 만25~29세 58 11 9 10 9 11 2 40 7 6 8 7 2 12 13 1 206 |
|           | 만30~34세 45 11 7 7 5 6 1 33 5 4 5 3 1 7 7 1 148 |
|           | 만35~39세 33 10 4 8 5 4 3 28 3 3 3 2 1 4 7 - 116 |
|           | 만40~44세 42 12 7 5 3 3 4 39 3 5 1 2 1 5 7 - 139 |
|           | 만45~49세 27 3 4 8 3 4 - 27 4 - 2 3 8 5 - 102 |
| 여성만50~54세 | 30 13 5 12 4 4 2 30 4 4 6 5 5 11 10 2 147 |
|           | 만55~59세 37 14 8 3 3 6 - 28 4 3 8 6 7 8 10 - 145 |
|           | 만60~64세 23 16 8 6 6 4 3 25 7 5 7 10 12 13 14 2 161 |
|           | 만65~69세 28 17 11 8 4 4 4 24 9 9 14 13 16 17 16 2 196 |
|           | 만70~79세 35 19 8 8 4 4 6 34 15 10 17 18 19 25 23 3 248 |
|           | 원래예상 15 14 13 7 7 5 1 16 6 9 16 16 29 26 21 4 205 |
| 소계       | 21 11 7 6 5 3 2 22 8 8 13 14 25 23 20 4 192 |
| 지역별조사량 | 426 161 99 93 65 70 29 366 81 74 110 100 123 167 161 202 415 |

이를 조사대상 확보별로 정리해보면 〈표 1-7〉과 같다. 랜덤 샘플링에 의해 조사된 1,102명(20세 이상 2,000명에 대한 일반조사 대상중 1인가구 거주자 231명 포함), KRC보유 온라인 페널로 조사가 완료된 응답자
가 2,245명, 눈덩이표집의 방법으로 확보된 응답자가 653명이다. 눈덩이 표집의 방법으로 확보된 응답자 653명의 성별 연령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며 50대~70대 이상과 20대 초반의 남성 1인이구 거주자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처럼 눈덩이표집은 50대 이상 여성처럼 또래 커뮤니케이션이 강하거나 외부 활동이 많아 조사 접근이 어려운 집단에 유용하다.

〈표 1-7〉 1인가구 거주자의 대상자 선정 방법별 성·연령별 조사완료자수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화 조사</th>
<th>KRC 보유 온라인 패널</th>
<th>Snow Balling</th>
<th>연령별 조사량</th>
<th>전화 조사</th>
<th>KRC 보유 온라인 패널</th>
<th>Snow Balling</th>
</tr>
</thead>
<tbody>
<tr>
<td>남성</td>
<td>306</td>
<td>1,407</td>
<td>142</td>
<td>1,855</td>
<td>7.70</td>
<td>35.2</td>
<td>3.57</td>
</tr>
<tr>
<td>만20-24세</td>
<td>8</td>
<td>125</td>
<td>7</td>
<td>140</td>
<td>0.20</td>
<td>3.13</td>
<td>0.18</td>
</tr>
<tr>
<td>만25-29세</td>
<td>13</td>
<td>193</td>
<td>-</td>
<td>206</td>
<td>0.33</td>
<td>4.83</td>
<td>0.00</td>
</tr>
<tr>
<td>만30-34세</td>
<td>8</td>
<td>139</td>
<td>1</td>
<td>148</td>
<td>0.21</td>
<td>3.48</td>
<td>0.03</td>
</tr>
<tr>
<td>만35-39세</td>
<td>5</td>
<td>109</td>
<td>2</td>
<td>116</td>
<td>0.13</td>
<td>2.73</td>
<td>0.05</td>
</tr>
<tr>
<td>만40-44세</td>
<td>6</td>
<td>96</td>
<td>37</td>
<td>139</td>
<td>0.16</td>
<td>2.40</td>
<td>0.93</td>
</tr>
<tr>
<td>만45-49세</td>
<td>9</td>
<td>60</td>
<td>33</td>
<td>102</td>
<td>0.23</td>
<td>1.50</td>
<td>0.83</td>
</tr>
<tr>
<td>만50-54세</td>
<td>19</td>
<td>44</td>
<td>84</td>
<td>147</td>
<td>0.48</td>
<td>1.10</td>
<td>2.10</td>
</tr>
<tr>
<td>만55-59세</td>
<td>23</td>
<td>40</td>
<td>82</td>
<td>145</td>
<td>0.58</td>
<td>1.00</td>
<td>2.05</td>
</tr>
<tr>
<td>만60-64세</td>
<td>69</td>
<td>18</td>
<td>74</td>
<td>161</td>
<td>1.73</td>
<td>0.45</td>
<td>1.85</td>
</tr>
<tr>
<td>만65-69세</td>
<td>111</td>
<td>14</td>
<td>71</td>
<td>196</td>
<td>2.78</td>
<td>0.35</td>
<td>1.78</td>
</tr>
<tr>
<td>만70-79세</td>
<td>362</td>
<td>-</td>
<td>91</td>
<td>453</td>
<td>9.06</td>
<td>-</td>
<td>2.28</td>
</tr>
<tr>
<td>만80세이상</td>
<td>163</td>
<td>-</td>
<td>29</td>
<td>192</td>
<td>4.08</td>
<td>-</td>
<td>0.73</td>
</tr>
<tr>
<td>소계</td>
<td>796</td>
<td>838</td>
<td>511</td>
<td>2,145</td>
<td>19.97</td>
<td>20.97</td>
<td>12.81</td>
</tr>
</tbody>
</table>

여성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화 조사</th>
<th>KRC 보유 온라인 패널</th>
<th>Snow Balling</th>
<th>연령별 조사량</th>
<th>전화 조사</th>
<th>KRC 보유 온라인 패널</th>
<th>Snow Balling</th>
</tr>
</thead>
<tbody>
<tr>
<td>만20-24세</td>
<td>8</td>
<td>125</td>
<td>7</td>
<td>140</td>
<td>0.20</td>
<td>3.13</td>
<td>0.18</td>
</tr>
<tr>
<td>만25-29세</td>
<td>13</td>
<td>193</td>
<td>-</td>
<td>206</td>
<td>0.33</td>
<td>4.83</td>
<td>0.00</td>
</tr>
<tr>
<td>만30-34세</td>
<td>8</td>
<td>139</td>
<td>1</td>
<td>148</td>
<td>0.21</td>
<td>3.48</td>
<td>0.03</td>
</tr>
<tr>
<td>만35-39세</td>
<td>5</td>
<td>109</td>
<td>2</td>
<td>116</td>
<td>0.13</td>
<td>2.73</td>
<td>0.05</td>
</tr>
<tr>
<td>만40-44세</td>
<td>6</td>
<td>96</td>
<td>37</td>
<td>139</td>
<td>0.16</td>
<td>2.40</td>
<td>0.93</td>
</tr>
<tr>
<td>만45-49세</td>
<td>9</td>
<td>60</td>
<td>33</td>
<td>102</td>
<td>0.23</td>
<td>1.50</td>
<td>0.83</td>
</tr>
<tr>
<td>만50-54세</td>
<td>19</td>
<td>44</td>
<td>84</td>
<td>147</td>
<td>0.48</td>
<td>1.10</td>
<td>2.10</td>
</tr>
<tr>
<td>만55-59세</td>
<td>23</td>
<td>40</td>
<td>82</td>
<td>145</td>
<td>0.58</td>
<td>1.00</td>
<td>2.05</td>
</tr>
<tr>
<td>만60-64세</td>
<td>69</td>
<td>18</td>
<td>74</td>
<td>161</td>
<td>1.73</td>
<td>0.45</td>
<td>1.85</td>
</tr>
<tr>
<td>만65-69세</td>
<td>111</td>
<td>14</td>
<td>71</td>
<td>196</td>
<td>2.78</td>
<td>0.35</td>
<td>1.78</td>
</tr>
<tr>
<td>만70-79세</td>
<td>362</td>
<td>-</td>
<td>91</td>
<td>453</td>
<td>9.06</td>
<td>-</td>
<td>2.28</td>
</tr>
<tr>
<td>만80세이상</td>
<td>163</td>
<td>-</td>
<td>29</td>
<td>192</td>
<td>4.08</td>
<td>-</td>
<td>0.73</td>
</tr>
<tr>
<td>소계</td>
<td>796</td>
<td>838</td>
<td>511</td>
<td>2,145</td>
<td>19.97</td>
<td>20.97</td>
<td>12.81</td>
</tr>
</tbody>
</table>

확보방법별 조사량 1,102 2,245 653 4,000 27.67 56.17 16.38 100.0
다. 집단면접(FGI) 및 1대1 심층면접

계량적 연구를 통하여 파악하지 못한 상세한 삶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3번의 연령군별 집단면접(FGI)과 1대1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집단면접(FGI)은 각 집단별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3월 중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각각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집단면접(FGI) 결과에 기초하여 각 심층면접의 초점과 주요 주제 등을 선정하여 2012년 5월~9월까지 기간 중 30대 미혼 12명, 40~50대 이혼 1인가구 거주자 12명, 70대 이상의 고령자 11명에 대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 연구진행도

<table>
<thead>
<tr>
<th>방법</th>
<th>인구주택총조사 분석</th>
<th>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th>
<th>일반전화조사</th>
<th>1인가구거주자전화조사</th>
<th>집단면접 및 1대1심층면접</th>
</tr>
</thead>
<tbody>
<tr>
<td>목적</td>
<td>1인가구의 증가추세 파악 연령군별비1인가구와비교한1인가구의제특성에대한일반인의인식및태도파악</td>
<td>연령군별1인가구의생활현황파악</td>
<td>연령군별대표적1인가구(30대미혼,40〜50대이혼,70대이상고령자)에대한심층적이해</td>
<td>연령군별비1인가구와비교한1인가구의제특성대상전인구(샘플자료)(15세이상)</td>
<td>15,625명(15세이상)2,000명(20세이상)4,000명(20세이상)</td>
</tr>
</tbody>
</table>

### 양적 접근

<p>| | | | | | |</p>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질적 접근

<p>| | | | | | |</p>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제간한 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그림 1-3] 세부연구목표별 활용한 연구방법

<table>
<thead>
<tr>
<th>세부 연구 목표</th>
<th>연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의 증가추세 파악 (제3장)</td>
<td>인구주택총조사 분석</td>
</tr>
<tr>
<td>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태도 및 인식 파악 (제4장)</td>
<td>일반 전화조사 실시</td>
</tr>
<tr>
<td>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과 생활실태 파악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비교) (제6장: 연령군별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파악)</td>
<td>인구주택총조사 분석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1인가구 거주자 전화조사 실시</td>
</tr>
<tr>
<td>대표적인 1인가구 유형에 대한 심층적 이해 (제7장: 대표유형의 삶과 생활실태에 파악)</td>
<td>집단면접 및 연령군별 대표적 1인가구에 대한 1대1 심층면접</td>
</tr>
</tbody>
</table>

- 30대 미혼 1인가구 거주자
- 40~50대 이혼 1인가구 거주자
- 70대 이상 고령 1인가구 거주자
2장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연구결문의 정립과 연구진행을 위하여 검토한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가족문화의 맥락에서의 1인가구 증가의 의미,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 1인가구 증가의 국내외 동향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1절 가족변화와 1인가구의 증가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의 변화를 거쳐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하나의 가족(Family)이 아니라 가족들(Families)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들 간의 다양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4; 문소정, 2008). 이러한 가족의 다양성을 규정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무자녀 가족 등과 같은 가족구조적인 측면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형태, 출산이 아니라 입양에 의하여 생식가족원이 생성되거나 가족원간의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경우와 같이 가족구성원들의 특성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형태, 동거가족, 동성애 가족, 공동체 가족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적 관계를 지향하는 탈 근대적 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문소정,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족이 다양화되는 원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변화, 개인주의, 세속화, 다원주의와 같은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세계화, 노동유연성과 같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 보건의료기술 및 정보기술 등의 기술적인 발전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가족정책을 비롯한 사회정책 등이 언급되고 있다(김두섭 외, 2005; 문소정, 2008).

그런데 1인가구의 증가는 이에 더하여 혼자 가구를 형성하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또는 ‘가족’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가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 민법에 따르면 가족은 호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된 자이다. 즉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결혼, 혼인, 입양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한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김승권 외, 2000; 유영주 외, 2000; 이경희 외, 1995), 공통적으로 가족은 생산기능, 소비기능, 성과 출산통제기능,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 정서적 유대 및 여가기능, 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기본단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1인가구는 가족이 아니다. 한편, 통계청의 정의에 의하면 가구는 혼연이나 비 혼연의 사람들이 끼니를 함께 하는 주거생활단위로서 혼연관계나 심리적 관계보다 공동생활의 주거단위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의에 의하면 1인가구는 주거단위로서의 가구로 파악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변화 및 사회경제문화적인 변화로 인하여 정서적 유대와 서로의 소속감을 느끼는 연대의식의 제공이나 사회보장의 기능 등이 꼭 동일 가구 내에 거주해야만 수행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수 있는 기능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또한 1인가구가 기존의 가족 형성과 해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과적인형태이기도 하다는 주장도 있고, 1인가구이지만 따로 또 함께 살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가족형성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존재한다. 따라서 1인가구를 가족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 논의와 무관하게, 1인가구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고, 기존의 가족형태가 오히려 내실이 있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주장은 가족을 동일한 가구를 유지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할 때 작동되는 유연한 친족관계로 보는, 잠재적인 친족관계(Latent Kin Matrix)로 보는 관점(Silverstein, Lawton and Bengtson, 1994; Riley, 1983)에 의하여 힘을 받는다. 많은 경우 1인가구는 가구를 공유하고 있지만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와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인가구는 가족형태 변화와 가족주기 변화에서 발생하는 현실으로 본다면, 1인가구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통해서 1인가구의 증가 기간 중대로 귀結되는 이혼, 사별, 비혼 및 이를 가져오는 가치관과 부양의식의 변화 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정책적 개입의 폭을 심화시키고 내용을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변미리 외, 2008; 정재훈, 2012).

제2절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

1. 선행연구의 주요 주제

1인가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1인가구의 용어 및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다. 1인
가구는 단독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1인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상, 취침 등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이다. 반면 독신가구는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비혼(非婚)상태인 즉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다(김혜영 외, 2007).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독신가구와 1인가구는 동일한 개념이라 볼 수 없다(차경욱, 2006). 또한 1인가구라는 용어와 1인가구 거주자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이용되고 있다. 1인가구는 엄밀히 말하면 가구단위의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가구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1인가구에 접근하고 있는 통계청의 각종 통계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라는 측면에서 즉 개인단위로 접근한다면 정확한 표현은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으로 1인가구 거주자의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1인가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1인가구와 1인가구 거주자 즉 가구단위와 개인단위의 통계와 함의 도출이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1인가구는 하나의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1인가구 내에 매우 큰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1인가구는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내부적인 이질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1인가구의 다양성은 성별, 연령, 소득, 계층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영 외 2007; 반정보, 2011; 변미리 외, 2008; 정재훈, 2012). 이러한 1인가구의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연령대별로 1인가구 거주자의 성별 구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경제상황에 상이하며,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 1인가구 또는 1인가구 거주자에 관한 선행연구는 1인가구의 다양성과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연구 대상과 관심 주제에 있어 편중현상이 심하다.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 중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제로는 주택 및 주거분야이다(변미리 외, 2008).
이는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독거노인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정책적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어왔기 때문이다.

2. 1인가구 형성과 생활 실태관련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1인가구 형성원인과 생활실태를 연령군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년기의 1인가구 형성과 생활 실태

20~30대의 1인가구는 대체적으로 학업 및 취업 등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기회가 대도시 중심으로 제공되고,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변화나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태도로의 변화뿐만 아니라(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이삼식 외, 2009) 기능적 및 정서적인 차원에서 독립이 가능한 여건, 결혼을 둘러싼 부모와의 갈등 상황 등이 1인가구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진하·최연실, 2006).

이들은 비교적 동일 연령대의 1인가구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자가 비중이 낮으며(반정호, 2012)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성을 중요시하는 층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위위로 인하여 사회적 부유(浮遊)층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은 층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변미리 외, 2008). 비교적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교류를 빈번하게 하고 있고, 독거기간이 길지 않고 대다수가 고착화된 독거생활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영 외, 2007).

나. 중년기의 1인가구 형성과 생활 실태

주로 이혼이나 유배우 상태이지만 직장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가족과 멀어져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로 이들은 다른 1인가구에 비하여 좀 더 그 다양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며(변미리 외, 2008), 상대적으로 여성은 자가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월세의 비중이 높은 등 주거실태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로 노동시장에서의 위상, 결혼상태 등의 차이가 있어 이들의 다양성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 1인가구에 비하여 이들은 독거생활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부모형제의 교류도 낮고 이성 파트너가 없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김혜영 외, 2007).

다. 노년기의 1인가구 형성과 생활 실태

급격한 고령화와 평균수명에 있어서의 남녀차이,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의 1인가구가 증대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 노인 중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남성에 비하여 여성노인에게서, 70대 후반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다(정경희, 2011; 정경희 외, 2012).


이렇게 다른 연령층의 1인가구나 비1인가구 고령자에 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 1인가구 거주자 내에서
도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다양성에 대응한 맞춤형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다(변미리 외, 2008; 정경희, 2011).

제3절 1인가구 증가의 국내외 동향

1. 한국의 동향


〈표2-1〉 가구모별 구성비 변화(1980~2010년)

<table>
<thead>
<tr>
<th>연도</th>
<th>1인 가구</th>
<th>2인 가구</th>
<th>3인 가구</th>
<th>4인 가구</th>
<th>5인 이상 가구</th>
<th>평균 가구원수</th>
</tr>
</thead>
<tbody>
<tr>
<td>1980</td>
<td>4.8</td>
<td>10.5</td>
<td>14.5</td>
<td>20.3</td>
<td>49.9</td>
<td>4.55</td>
</tr>
<tr>
<td>1985</td>
<td>6.9</td>
<td>12.3</td>
<td>16.5</td>
<td>25.3</td>
<td>39.0</td>
<td>4.09</td>
</tr>
<tr>
<td>1990</td>
<td>9.0</td>
<td>13.8</td>
<td>19.1</td>
<td>29.5</td>
<td>28.7</td>
<td>3.71</td>
</tr>
<tr>
<td>1995</td>
<td>12.7</td>
<td>16.9</td>
<td>20.3</td>
<td>31.7</td>
<td>18.4</td>
<td>3.34</td>
</tr>
<tr>
<td>2000</td>
<td>15.5</td>
<td>19.1</td>
<td>20.9</td>
<td>31.1</td>
<td>13.4</td>
<td>3.22</td>
</tr>
<tr>
<td>2005</td>
<td>20.0</td>
<td>22.2</td>
<td>20.9</td>
<td>27.0</td>
<td>10.0</td>
<td>2.90</td>
</tr>
<tr>
<td>2010</td>
<td>23.9</td>
<td>24.3</td>
<td>21.3</td>
<td>22.5</td>
<td>8.1</td>
<td>2.70</td>
</tr>
</tbody>
</tabl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해당년도

한편 1인가구의 결혼 상태의 변화도 발견된다. 1인 가구의 주된 결혼 상태가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유배우-사별(1995년)에서, 미혼-이혼-사별(2010년)로 이행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패턴 변화는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2005년에 최초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0년 40~44세 1인가구 가구주의 미혼비율은 54.0%이며, 2010년 50~54세 1인가구 가구주의 이혼 비율은 37.6%이다. 연령대별 주결혼상태는 1995년에 40세 미만군은 미혼, 40~49세군 유배우, 50세 이상은 사별에서 2010년에는 45세 미만군은 미혼, 45~59세군은 이혼, 60세 이상군은 사별로 변화하였다.

〈표 2-2〉연령대별 1인가구 가구주의 결혼상태 변화(1995년과 2010년)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15~19세</td>
<td>41,190</td>
<td>(99.7)</td>
<td>110</td>
<td>(0.3)</td>
<td>41,300</td>
<td>(99.8)</td>
<td>78</td>
<td>(0.2)</td>
</tr>
<tr>
<td>20~24세</td>
<td>192,382</td>
<td>(98.9)</td>
<td>1,946</td>
<td>(1.0)</td>
<td>177,421</td>
<td>(99.5)</td>
<td>1,003</td>
<td>(0.5)</td>
</tr>
<tr>
<td>25~29세</td>
<td>268,057</td>
<td>(95.6)</td>
<td>10,131</td>
<td>(3.6)</td>
<td>258,622</td>
<td>(97.0)</td>
<td>11,848</td>
<td>(4.0)</td>
</tr>
<tr>
<td>30~34세</td>
<td>141,928</td>
<td>(81.9)</td>
<td>10,131</td>
<td>(6.6)</td>
<td>131,197</td>
<td>(89.3)</td>
<td>12,506</td>
<td>(8.7)</td>
</tr>
<tr>
<td>35~39세</td>
<td>25,592</td>
<td>(29.1)</td>
<td>31,603</td>
<td>(35.9)</td>
<td>28,251</td>
<td>(31.8)</td>
<td>32,447</td>
<td>(36.0)</td>
</tr>
<tr>
<td>40~44세</td>
<td>66,621</td>
<td>(53.7)</td>
<td>4,958</td>
<td>(3.8)</td>
<td>63,847</td>
<td>(49.2)</td>
<td>32,447</td>
<td>(25.4)</td>
</tr>
<tr>
<td>45~49세</td>
<td>25,922</td>
<td>(29.1)</td>
<td>9,673</td>
<td>(21.1)</td>
<td>20,249</td>
<td>(48.5)</td>
<td>22,078</td>
<td>(54.8)</td>
</tr>
<tr>
<td>50~54세</td>
<td>2,986</td>
<td>(6.6)</td>
<td>20,503</td>
<td>(62.7)</td>
<td>235,981</td>
<td>(18.7)</td>
<td>12,078</td>
<td>(46.2)</td>
</tr>
<tr>
<td>55~59세</td>
<td>1,482</td>
<td>(1.1)</td>
<td>13,301</td>
<td>(91.0)</td>
<td>157,513</td>
<td>(59.6)</td>
<td>13,964</td>
<td>(53.1)</td>
</tr>
<tr>
<td>60~64세</td>
<td>817</td>
<td>(0.6)</td>
<td>7,676</td>
<td>(91.8)</td>
<td>8,493</td>
<td>(63.8)</td>
<td>34,871</td>
<td>(26.2)</td>
</tr>
<tr>
<td>65~69세</td>
<td>429</td>
<td>(0.4)</td>
<td>4,266</td>
<td>(94.7)</td>
<td>4,747</td>
<td>(38.9)</td>
<td>24,618</td>
<td>(61.1)</td>
</tr>
<tr>
<td>70~74세</td>
<td>154</td>
<td>(0.2)</td>
<td>1,875</td>
<td>(96.1)</td>
<td>2,030</td>
<td>(62.7)</td>
<td>13,416</td>
<td>(37.3)</td>
</tr>
<tr>
<td>75~79세</td>
<td>78</td>
<td>(0.3)</td>
<td>525</td>
<td>(97.5)</td>
<td>792</td>
<td>(57.2)</td>
<td>5,761</td>
<td>(42.8)</td>
</tr>
<tr>
<td>80~84세</td>
<td>30</td>
<td>(0.3)</td>
<td>142</td>
<td>(98.0)</td>
<td>172</td>
<td>(61.2)</td>
<td>5,036</td>
<td>(38.8)</td>
</tr>
<tr>
<td>85세 이상</td>
<td>35</td>
<td>(0.5)</td>
<td>10,329</td>
<td>(90.8)</td>
<td>10,684</td>
<td>(62.0)</td>
<td>7,060</td>
<td>(38.0)</td>
</tr>
<tr>
<td>전체</td>
<td>758,140</td>
<td>(46.2)</td>
<td>198,940</td>
<td>(12.1)</td>
<td>583,073</td>
<td>(35.5)</td>
<td>1,641,352</td>
<td>(100.0)</td>
</tr>
</tbody>
</table>

주: 1) 결혼상태 미상 제외, 인구-가구 테이블 미연계 및 미상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음영은 해당 연령대의 주된 결혼상태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 해당년도, 2012. 3. 21. 보도자료 인용
이러한 변화추이는 거시적인 차원의 통계이므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실태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한국복지패널 1~5차 자료를 통하여 가구규모의 이동성을 분석해 본 결과 2005년에서 2009년 기간에 있어서 가구규모의 변화가 없었던 가구는 전체의 65.4%이다. 이를 가구규모별로 비교하면 1인가구의 81.3%, 2인가구의 66.5%, 3인가구의 48.6%, 그리고 4인가구의 71.1%가 가구원수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가구의 경우가 가구규모의 변화율이 가장 낮다.

1인가구의 경우 9.9%가 2인가구로 변화하였고, 6.2%가 3인가구로 이동하였다. 2인가구의 경우 10.5%는 1인가구로 이동하였고, 13.8%는 3인가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인가구의 경우 2인가구로 이동한 비율이 21.3%, 그리고 4인가구로 이동한 비율이 22.7%로 나타나, 가장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가구는 16.9%가 3인가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9년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77.2%가 2005년부터 1인가구로 계속 생활을 하였으며, 16.5%는 2인가구에서 생활하다가 1인가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인 이상의 가구에서 생활하다가 1인가구가 된 비율은 4.5%에 불과하다(<표 2-4> 참조).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표 2-3 가구규모의 변동실태(2005~2009년)

<table>
<thead>
<tr>
<th>비율</th>
<th>계(가구)</th>
</tr>
</thead>
<tbody>
<tr>
<td>'05</td>
<td>'09</td>
</tr>
<tr>
<td>1</td>
<td>700</td>
</tr>
<tr>
<td>2</td>
<td>150</td>
</tr>
<tr>
<td>3</td>
<td>41</td>
</tr>
<tr>
<td>4</td>
<td>12</td>
</tr>
<tr>
<td>5</td>
<td>4</td>
</tr>
<tr>
<td>6</td>
<td>1</td>
</tr>
<tr>
<td>7+</td>
<td>1</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명</th>
<th>2명</th>
<th>3명</th>
<th>4명</th>
<th>5명</th>
<th>6명</th>
<th>7+</th>
<th>계(가구)</th>
</tr>
</thead>
<tbody>
<tr>
<td></td>
<td>81.3</td>
<td>6.2</td>
<td>1.8</td>
<td>0.6</td>
<td>0.1</td>
<td>0.2</td>
<td>100.0</td>
<td></td>
</tr>
<tr>
<td>(12.4)</td>
<td>85</td>
<td>53</td>
<td>15</td>
<td>5</td>
<td>1</td>
<td>1</td>
<td>(861)</td>
<td></td>
</tr>
<tr>
<td></td>
<td>10.5</td>
<td>13.8</td>
<td>7.8</td>
<td>0.9</td>
<td>0.4</td>
<td>0.1</td>
<td>100.0</td>
<td></td>
</tr>
<tr>
<td>(16.9)</td>
<td>955</td>
<td>198</td>
<td>112</td>
<td>13</td>
<td>6</td>
<td>2</td>
<td>(1,436)</td>
<td></td>
</tr>
<tr>
<td></td>
<td>3.3</td>
<td>48.6</td>
<td>22.7</td>
<td>3.2</td>
<td>0.9</td>
<td>0.1</td>
<td>100.0</td>
<td></td>
</tr>
<tr>
<td>(10.8)</td>
<td>266</td>
<td>607</td>
<td>283</td>
<td>40</td>
<td>11</td>
<td>1</td>
<td>(1,250)</td>
<td></td>
</tr>
<tr>
<td></td>
<td>0.7</td>
<td>16.9</td>
<td>71.1</td>
<td>6.3</td>
<td>0.3</td>
<td>0.1</td>
<td>100.0</td>
<td></td>
</tr>
<tr>
<td>(20.0)</td>
<td>75</td>
<td>267</td>
<td>1,128</td>
<td>99</td>
<td>4</td>
<td>1</td>
<td>(1,587)</td>
<td></td>
</tr>
<tr>
<td></td>
<td>0.9</td>
<td>2.8</td>
<td>7.5</td>
<td>22.0</td>
<td>60.5</td>
<td>5.8</td>
<td>0.5</td>
<td>100.0</td>
</tr>
<tr>
<td>(4.4)</td>
<td>11</td>
<td>31</td>
<td>90</td>
<td>247</td>
<td>24</td>
<td>2</td>
<td>(408)</td>
<td></td>
</tr>
<tr>
<td></td>
<td>0.9</td>
<td>3.9</td>
<td>8.6</td>
<td>8.9</td>
<td>18.5</td>
<td>54.8</td>
<td>4.5</td>
<td>100.0</td>
</tr>
<tr>
<td>(0.8)</td>
<td>3</td>
<td>7</td>
<td>7</td>
<td>15</td>
<td>45</td>
<td>4</td>
<td>4</td>
<td>(82)</td>
</tr>
<tr>
<td></td>
<td>0.0</td>
<td>8.5</td>
<td>0.0</td>
<td>13.0</td>
<td>20.1</td>
<td>19.8</td>
<td>38.7</td>
<td>100.0</td>
</tr>
<tr>
<td>(0.1)</td>
<td>1</td>
<td>0</td>
<td>2</td>
<td>3</td>
<td>3</td>
<td>5</td>
<td>5</td>
<td>(13)</td>
</tr>
<tr>
<td>계</td>
<td>16.1</td>
<td>24.8</td>
<td>20.6</td>
<td>29.1</td>
<td>7.5</td>
<td>1.7</td>
<td>0.3</td>
<td>100.0</td>
</tr>
<tr>
<td></td>
<td>907</td>
<td>1,398</td>
<td>1,163</td>
<td>1,638</td>
<td>422</td>
<td>93</td>
<td>16</td>
<td>(5,637)</td>
</tr>
</tbody>
</table>

주: 1~5차까지 모두 응답한 가구만 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 )의 %는 전체가구 5,637가구를 100%로 계산한 것임.

음영표시된 칸은 가구원수의 변화가 없는 경우임.


### 표 2-4 2009년 기준 1인가구의 2005년도 기준 가구규모 분포

<table>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명</th>
<th>2명</th>
<th>3명</th>
<th>4명</th>
<th>5명 이상</th>
<th>계(가구)</th>
</tr>
</thead>
<tbody>
<tr>
<td></td>
<td>77.2</td>
<td>16.5</td>
<td>4.5</td>
<td>1.3</td>
<td>0.5</td>
<td>100.0(907)</td>
</tr>
</tbody>
</table>


2. 국제 동향

1인가구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가구형태의 변화 관련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각 국가마다 사용된 자료의 제공
연도 및 가구분류형태의 차이가 있지만 1인가구의 비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지에서는 1인가구 비율이 20% 수준으로 다소 낮으나, OECD국가의 평균 비율은 27.7%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해당 비율은 독일이 35.8%로 가장 높고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2-5〉 주요 OECD국가의 최근 가구형태분포

<table>
<thead>
<tr>
<th>국가</th>
<th>부부가구</th>
<th>일인가구</th>
<th>한부모가구</th>
<th>기타일반가구</th>
</tr>
</thead>
<tbody>
<tr>
<td>프랑스</td>
<td>58.3</td>
<td>31.0</td>
<td>8.0</td>
<td>2.7</td>
</tr>
<tr>
<td>독일</td>
<td>55.4</td>
<td>35.8</td>
<td>5.9</td>
<td>2.9</td>
</tr>
<tr>
<td>그리스</td>
<td>64.9</td>
<td>19.7</td>
<td>8.7</td>
<td>6.6</td>
</tr>
<tr>
<td>이태리</td>
<td>62.3</td>
<td>24.9</td>
<td>8.9</td>
<td>3.9</td>
</tr>
<tr>
<td>일본</td>
<td>49.5</td>
<td>29.5</td>
<td>8.4</td>
<td>12.1</td>
</tr>
<tr>
<td>한국</td>
<td>72.6</td>
<td>..</td>
<td>9.4</td>
<td>18.6</td>
</tr>
<tr>
<td>스페인</td>
<td>62.9</td>
<td>20.3</td>
<td>9.9</td>
<td>6.9</td>
</tr>
<tr>
<td>스웨덴</td>
<td>63.9</td>
<td>..</td>
<td>..</td>
<td>..</td>
</tr>
<tr>
<td>영국</td>
<td>53.5</td>
<td>30.2</td>
<td>9.8</td>
<td>6.6</td>
</tr>
<tr>
<td>미국</td>
<td>51.7</td>
<td>27.3</td>
<td>9.2</td>
<td>11.8</td>
</tr>
<tr>
<td>OECD평균</td>
<td>57.6</td>
<td>27.7</td>
<td>9.1</td>
<td>7.0</td>
</tr>
</tbody>
</table>

주: 자료가용하지 않음
2) 부부가구는 적어도 부부이외 자녀 혹은 노부모 등이 함께 사는 가구도 포함한 것으로 보임.
4) This proportion includes potentially lone person households which can not be identified separately from the data.


2) 한국의 경우에는 가구형태분류가 OECD 통계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탓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힘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다음의 <표 2-6>은 미국, 스웨덴, 일본의 1인가구 비율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95년부터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1인가구의 비율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60년 13.1%로부터 2010년 26.7%로 매우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일본 또한 1960년과 2005년 사이에 1인가구 비율이 16.5%에서 29.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들은 주요 OECD 국가에서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미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주요 OECD 국가에서의 1인가구 증가의 원인으로는 저출산, 이혼의 증대, 고령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김영철 외, 2011).

〈표 2-6〉 미국, 스웨덴, 일본의 1인가구 변동추이

<table>
<thead>
<tr>
<th>연도</th>
<th>미국</th>
<th></th>
<th>스웨덴</th>
<th></th>
<th>일본</th>
</tr>
</thead>
<tbody>
<tr>
<td></td>
<td>총가구수</td>
<td>1인가구 비율</td>
<td>총가구수</td>
<td>1인가구 비율</td>
<td>총가구수</td>
</tr>
<tr>
<td>1960</td>
<td>52,799,000</td>
<td>13.1</td>
<td>-</td>
<td>-</td>
<td>22,538,645</td>
</tr>
<tr>
<td>1965</td>
<td>57,436,000</td>
<td>15.0</td>
<td>-</td>
<td>-</td>
<td>-</td>
</tr>
<tr>
<td>1970</td>
<td>63,401,000</td>
<td>17.1</td>
<td>-</td>
<td>-</td>
<td>30,297,014</td>
</tr>
<tr>
<td>1975</td>
<td>71,120,000</td>
<td>19.6</td>
<td>-</td>
<td>-</td>
<td>33,595,728</td>
</tr>
<tr>
<td>1980</td>
<td>80,776,000</td>
<td>22.7</td>
<td>-</td>
<td>-</td>
<td>35,823,609</td>
</tr>
<tr>
<td>1985</td>
<td>86,789,000</td>
<td>23.7</td>
<td>-</td>
<td>-</td>
<td>37,979,984</td>
</tr>
<tr>
<td>1990</td>
<td>93,347,000</td>
<td>24.6</td>
<td>-</td>
<td>-</td>
<td>40,670,475</td>
</tr>
<tr>
<td>1995</td>
<td>98,990,000</td>
<td>25.0</td>
<td>4,244,000</td>
<td>45.4</td>
<td>43,899,923</td>
</tr>
<tr>
<td>2000</td>
<td>104,705,000</td>
<td>25.5</td>
<td>4,363,000</td>
<td>46.5</td>
<td>46,782,383</td>
</tr>
<tr>
<td>2005</td>
<td>113,343,000</td>
<td>26.6</td>
<td>4,441,000</td>
<td>46.3</td>
<td>49,062,530</td>
</tr>
<tr>
<td>2010</td>
<td>117,538,000</td>
<td>26.7</td>
<td>4,660,000</td>
<td>48.6</td>
<td>-</td>
</tr>
</tbody>
</table>

스웨덴: Statistics Sweden(www.scb.se)
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본 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1인가구의 변화 현상을 가구 및 인구단위로 분석하고, 제특성별 변화추이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 원자료(Raw Data)의 일부로,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심층분석을 위해 전수조사 자료의 10% 수준에서 표본을 선정한 것이다.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인가구 거주자와 1인가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15세 이상 인구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1980년도 자료는 총 166,304가구와 484,9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인가구는 5.1% 1인가구 거주자는 1.7%를 차지하였다. 1990년 자료에서는 총 227,974가구와 총 616,224명 중에서 1인가구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각각 9.5%와 3.5%를 차지하였다. 2000년도 자료의 경우, 총 285,267가구 중에서 1인가구가 15.7%를, 총 690,111명 중에서 1인가구 거주자가 6.5%를 차지하였다. 2010년 자료에서는 총 322,145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이 24.6% 그리고 총 713,652명중 1인가구 거주자의 비율이 11.1%로 나타났다.3)

3) 본 자료는 전수조사의 대표성을 충분히 담보한 표본자료이므로 비율이나 분포상태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표본이므로 KOSIS에서 제공되는 전수자료 참고를 바라며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제1절 1인가구의 변화추이

한국사회에서 198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과 인구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15세 이상 인구를 준거집단으로 삼기로 한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15세 미만 연령 층에서는 1인가구를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앞으로 고려 할 인구학적 특성(예, 결혼상태)은 15세 이상 인구에 한정해서 그 정보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할 수 있고, 인구학적 특성 비교에 통일성을 마련할 수 있는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전 연령층 대비 1인가구 비율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1. 1인가구 거주자의 증가: 15세 이상 인구 중 비율

1인가구를 형성하는 가능성과 이유는 생애주기상의 단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생애주기상의 단계는 대체적으로 연령과 어느 정도 연계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인구학적 특성(연령포함)별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인구학적 특성별 1인가구 거주자 비율

인구학적 특성별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별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표 3-1>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인가구로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지난 40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는 해당 인구 중 1인가구에 거주하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는 비율이 1.7%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현재에는 그 비율이 11.1%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은 혼자살고 있는 셈이다.

표 3-1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 인구수</th>
<th>1990년 인구수</th>
<th>2000년 인구수</th>
<th>2010년 인구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해당 비율</td>
<td>해당 비율</td>
<td>해당 비율</td>
<td>해당 비율</td>
</tr>
<tr>
<td>전체</td>
<td>484,985</td>
<td>616,224</td>
<td>690,111</td>
<td>713,652</td>
</tr>
</tbody>
</table>

16개 시·도

서울  112,947  1.6  152,549  3.5  152,481  6.4  148,103  10.6
부산  41,594  1.4  54,814  2.8  56,822  5.5  55,715  10.3
대구  -  -  32,838  4.0  37,104  5.8  35,270  10.0
인천  -  -  25,568  2.7  36,536  5.3  40,826  9.5
광주  -  -  15,971  3.2  20,196  5.6  21,513  11.0
대전  -  -  14,838  2.9  19,635  6.6  23,016  11.3
울산  -  -  -  -  14,231  6.0  15,108  9.2
경기  64,900  1.9  85,164  3.2  128,270  5.1  148,813  8.9
경원  22,129  1.8  22,597  3.9  23,164  8.0  24,890  13.8
충북  18,541  1.4  19,318  3.3  21,943  7.3  23,735  12.6
충남  37,802  1.2  28,221  2.5  27,226  7.7  27,980  13.2
전북  28,429  1.6  29,217  3.3  29,253  7.7  29,204  13.5
전남  46,071  1.6  34,820  3.6  29,921  9.6  28,698  15.4
경북  64,384  2.2  41,659  4.9  41,422  8.1  39,536  14.9
경남  42,829  2.0  50,909  4.4  44,129  7.5  42,795  12.8
제주  5,359  4.9  7,741  5.3  7,778  7.8  8,450  11.7

지역

동부  281,537  1.7  456,197  3.4  543,729  6.0  581,498  10.4
중앙부  203,448  1.7  160,027  3.9  146,382  8.5  132,154  14.3

주: 15세 이상 인구 특성에 따라 비율을 추출
자료: 각 년도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표본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행정시도별로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에서 1인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지역에 남은 고령자들이 혼자 사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서도 1인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대 간 분가가 늘어나고 혼자 사는 미혼남녀와 이혼자들이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이상의 16개 시·도별 추이와 현황은 동부와 옐프부 구분에서 다시 확인된다. 동부와 옐프부 모두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증가하지만, 이 현상은 옐프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농촌에 남은 노부모 세대가 1인가구를 형성하는 현상을 도시지역에서도 미혼 남녀 및 이혼자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연령대별 세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와 5세 연령군별로 분류하여 1인가구 거주자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3-2>와 같다. 지난 40년을 통틀어 1인가구 거주자비율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21.5%에 이르고 있어, 노년층에서 1인가구 거주자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3-1]은 <표 3-2>에 제시된 10세별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을 각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2000년 이전에는 70대에서 80대로 넘어오면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8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오히려 상승하였다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년에도 건강한 인구가 늘어났다는 점과 함께, 세대 간 동거가 점차 약화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들어 30대 연령층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는 미혼자들이 혼자 사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  47

〈표 3-2〉 연령대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단위: 명, %)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th>
<th>1990년</th>
<th>2000년</th>
<th>2010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r>
<tr>
<td>전체</td>
<td>484,985</td>
<td>1.7</td>
<td>616,224</td>
<td>3.5</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305,464</td>
<td>1.4</td>
<td>381,159</td>
<td>2.9</td>
</tr>
<tr>
<td>40-64세</td>
<td>149,011</td>
<td>1.9</td>
<td>191,266</td>
<td>3.3</td>
</tr>
<tr>
<td>65세이상</td>
<td>30,510</td>
<td>4.8</td>
<td>43,799</td>
<td>9.5</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80,148</td>
<td>0.8</td>
<td>83,402</td>
<td>0.9</td>
</tr>
<tr>
<td>20-24세</td>
<td>67,636</td>
<td>2.2</td>
<td>69,834</td>
<td>4.1</td>
</tr>
<tr>
<td>25-29세</td>
<td>61,063</td>
<td>1.8</td>
<td>81,753</td>
<td>5.2</td>
</tr>
<tr>
<td>30-34세</td>
<td>51,317</td>
<td>1.0</td>
<td>82,467</td>
<td>2.5</td>
</tr>
<tr>
<td>35-39세</td>
<td>45,300</td>
<td>0.8</td>
<td>63,703</td>
<td>2.0</td>
</tr>
<tr>
<td>40-44세</td>
<td>44,160</td>
<td>0.9</td>
<td>50,940</td>
<td>1.8</td>
</tr>
<tr>
<td>45-49세</td>
<td>36,853</td>
<td>1.2</td>
<td>43,809</td>
<td>2.0</td>
</tr>
<tr>
<td>50-54세</td>
<td>27,508</td>
<td>2.1</td>
<td>40,420</td>
<td>2.7</td>
</tr>
<tr>
<td>55-59세</td>
<td>23,439</td>
<td>3.0</td>
<td>32,703</td>
<td>4.5</td>
</tr>
<tr>
<td>60-64세</td>
<td>17,051</td>
<td>4.4</td>
<td>23,394</td>
<td>8.1</td>
</tr>
<tr>
<td>65-69세</td>
<td>12,984</td>
<td>5.0</td>
<td>18,195</td>
<td>9.8</td>
</tr>
<tr>
<td>70-74세</td>
<td>8,939</td>
<td>4.9</td>
<td>12,050</td>
<td>10.4</td>
</tr>
<tr>
<td>75-79세</td>
<td>4,898</td>
<td>5.0</td>
<td>7,678</td>
<td>9.4</td>
</tr>
<tr>
<td>80세이상</td>
<td>3,689</td>
<td>3.7</td>
<td>5,876</td>
<td>7.2</td>
</tr>
</tbody>
</table>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그림 3-1 연령군별 인구 대비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자료: 각 년도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표본자료

성,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3-3>과 같다. 우선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어느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결혼상태별로는 대체로 사별이나 이혼한 사람들에게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40년간 미혼자들에게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의 증가는 눈에 띄게 투드러진다. 1980년 당시 미혼자 중의 2.3%가 1인가구에 거주하였는데, 2010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17.0%로 증가하였다. 이는 만혼과 비혼 등으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미혼자들의 상당수가 1인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이 보인다. 한편 사별자들에게 나타나는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은 인구고령화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노년기에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대체로 혼자 살아가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제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 49

〈표 3-3〉 성·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단위: 명, %)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r>
<tr>
<td>전체</td>
<td>484,985</td>
<td>1.7</td>
<td>616,224</td>
<td>3.5</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232,239</td>
<td>1.2</td>
<td>296,782</td>
<td>3.0</td>
</tr>
<tr>
<td>여성</td>
<td>252,745</td>
<td>2.2</td>
<td>319,442</td>
<td>4.0</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미혼</td>
<td>151,329</td>
<td>2.3</td>
<td>185,465</td>
<td>5.5</td>
</tr>
<tr>
<td>유배우</td>
<td>292,071</td>
<td>0.4</td>
<td>379,918</td>
<td>0.7</td>
</tr>
<tr>
<td>사별</td>
<td>38,896</td>
<td>8.3</td>
<td>45,862</td>
<td>16.4</td>
</tr>
<tr>
<td>이혼</td>
<td>2,660</td>
<td>16.8</td>
<td>4,979</td>
<td>26.1</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이하</td>
<td>213,767</td>
<td>2.1</td>
<td>155,655</td>
<td>5.5</td>
</tr>
<tr>
<td>중학교</td>
<td>101,269</td>
<td>1.3</td>
<td>107,688</td>
<td>2.4</td>
</tr>
<tr>
<td>고등학교</td>
<td>128,416</td>
<td>1.5</td>
<td>249,587</td>
<td>2.8</td>
</tr>
<tr>
<td>(전문대학이상)</td>
<td>41,533</td>
<td>1.8</td>
<td>103,292</td>
<td>3.5</td>
</tr>
</tbody>
</table>

자료: 각 년도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표본자료

교육수준별 차이도 어느 정도 뚜렷하다. 초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 중에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년층에서 사별한 사람들이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높은 현상과 연관된다. 한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혼자 사는 비율 또한 2010년 현재 10.0%에 이른다. 최근 고학력의 미혼자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연령군 및 인구학적 특성별 1인가구 거주자 비율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생애주기상의 단계에 따라 1인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이유는 서로 차이가 나고, 생애주기상의 단계는 연령으로 어느 정도 접근가능하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인구학적 특성별 추이와 현황을 연령대로 고려한 상태에서 다시 접근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 3-4>는 동읍면부 1인가구 거주자비율을 연령대별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동부의 경우, 젊은 층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읍면부에서는 노년층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은 동부의 경우 22.2%이지만, 읍면부의 경우는 36.0%에 이르고 있다.

〈표 3-4〉 거주지역 및 연령군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비율(1980-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th>
<th>1990년</th>
<th>2000년</th>
<th>2010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r>
<tr>
<td>동부 전체</td>
<td>281,537</td>
<td>1.8</td>
<td>456,197</td>
<td>3.4</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196,589</td>
<td>1.7</td>
<td>302,030</td>
<td>3.3</td>
</tr>
<tr>
<td>40-64세</td>
<td>73,265</td>
<td>1.6</td>
<td>130,732</td>
<td>2.8</td>
</tr>
<tr>
<td>65세 이상</td>
<td>11,683</td>
<td>3.3</td>
<td>23,435</td>
<td>7.0</td>
</tr>
<tr>
<td>연령 10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48,534</td>
<td>1.2</td>
<td>62,396</td>
<td>1.1</td>
</tr>
<tr>
<td>20-24세</td>
<td>44,441</td>
<td>2.8</td>
<td>55,349</td>
<td>4.7</td>
</tr>
<tr>
<td>25-29세</td>
<td>41,451</td>
<td>2.2</td>
<td>66,392</td>
<td>5.7</td>
</tr>
<tr>
<td>30-34세</td>
<td>34,049</td>
<td>1.1</td>
<td>66,883</td>
<td>2.8</td>
</tr>
<tr>
<td>35-39세</td>
<td>28,114</td>
<td>0.9</td>
<td>51,010</td>
<td>2.2</td>
</tr>
<tr>
<td>40-44세</td>
<td>24,403</td>
<td>1.0</td>
<td>39,767</td>
<td>1.9</td>
</tr>
</tbody>
</table>
제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th>
<th>1990년</th>
<th>2000년</th>
<th>2010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구수</td>
<td>비율</td>
<td>인구수</td>
<td>비율</td>
</tr>
<tr>
<td></td>
<td>인구수</td>
<td>비율</td>
<td>인구수</td>
<td>비율</td>
</tr>
<tr>
<td>45-49세</td>
<td>18,426</td>
<td>1.3</td>
<td>31,552</td>
<td>1.9</td>
</tr>
<tr>
<td>50-54세</td>
<td>13,017</td>
<td>1.9</td>
<td>26,353</td>
<td>2.5</td>
</tr>
<tr>
<td>55-59세</td>
<td>10,365</td>
<td>2.3</td>
<td>19,701</td>
<td>3.9</td>
</tr>
<tr>
<td>60-64세</td>
<td>7,054</td>
<td>3.4</td>
<td>13,359</td>
<td>6.6</td>
</tr>
<tr>
<td>65-69세</td>
<td>5,204</td>
<td>3.4</td>
<td>10,065</td>
<td>7.6</td>
</tr>
<tr>
<td>70-74세</td>
<td>3,540</td>
<td>3.8</td>
<td>6,477</td>
<td>7.5</td>
</tr>
<tr>
<td>75-79세</td>
<td>1,734</td>
<td>2.8</td>
<td>3,992</td>
<td>6.3</td>
</tr>
<tr>
<td>80세이상</td>
<td>1,205</td>
<td>2.2</td>
<td>2,901</td>
<td>5.0</td>
</tr>
<tr>
<td>읍면부 전체</td>
<td>203,448</td>
<td>1.7</td>
<td>160,027</td>
<td>3.9</td>
</tr>
<tr>
<td>연령 10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31,614</td>
<td>0.3</td>
<td>21,006</td>
<td>0.5</td>
</tr>
<tr>
<td>20-24세</td>
<td>23,195</td>
<td>1.1</td>
<td>14,485</td>
<td>1.7</td>
</tr>
<tr>
<td>25-29세</td>
<td>19,612</td>
<td>1.1</td>
<td>15,361</td>
<td>2.8</td>
</tr>
<tr>
<td>30-34세</td>
<td>17,268</td>
<td>0.7</td>
<td>15,584</td>
<td>1.4</td>
</tr>
<tr>
<td>35-39세</td>
<td>17,186</td>
<td>0.6</td>
<td>12,693</td>
<td>1.2</td>
</tr>
<tr>
<td>40-44세</td>
<td>19,757</td>
<td>0.7</td>
<td>11,173</td>
<td>1.8</td>
</tr>
<tr>
<td>45-49세</td>
<td>18,427</td>
<td>1.1</td>
<td>12,257</td>
<td>2.2</td>
</tr>
<tr>
<td>50-54세</td>
<td>14,491</td>
<td>2.3</td>
<td>14,067</td>
<td>3.2</td>
</tr>
<tr>
<td>55-59세</td>
<td>13,074</td>
<td>3.5</td>
<td>13,002</td>
<td>5.5</td>
</tr>
<tr>
<td>60-64세</td>
<td>9,997</td>
<td>5.1</td>
<td>10,035</td>
<td>9.9</td>
</tr>
<tr>
<td>65-69세</td>
<td>7,780</td>
<td>6.0</td>
<td>8,130</td>
<td>12.5</td>
</tr>
<tr>
<td>70-74세</td>
<td>5,399</td>
<td>5.7</td>
<td>5,573</td>
<td>13.8</td>
</tr>
<tr>
<td>75-79세</td>
<td>3,164</td>
<td>6.2</td>
<td>3,686</td>
<td>12.6</td>
</tr>
<tr>
<td>80세이상</td>
<td>2,484</td>
<td>4.5</td>
<td>2,975</td>
<td>9.3</td>
</tr>
</tbody>
</table>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표본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연령군별로 남녀간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5>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젊은층에서의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은 남성에게서 다소 높다. 그러나 노년층에서의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은 여성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이 많고, 또한 여성노인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음을 반영한다.

<table>
<thead>
<tr>
<th>연령군</th>
<th>1980년</th>
<th>1990년</th>
<th>2000년</th>
<th>2010년</th>
</tr>
</thead>
<tbody>
<tr>
<td>연령 3집단</td>
<td>남성 전체</td>
<td>232,239</td>
<td>296,782</td>
<td>330,847</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42,374</td>
<td>42,488</td>
<td>26,442</td>
<td>28,872</td>
</tr>
<tr>
<td>20-24세</td>
<td>30,037</td>
<td>30,903</td>
<td>24,750</td>
<td>19,392</td>
</tr>
<tr>
<td>25-29세</td>
<td>29,628</td>
<td>39,746</td>
<td>35,018</td>
<td>30,992</td>
</tr>
<tr>
<td>30-34세</td>
<td>26,137</td>
<td>41,473</td>
<td>40,012</td>
<td>32,579</td>
</tr>
<tr>
<td>35-39세</td>
<td>22,623</td>
<td>32,627</td>
<td>40,444</td>
<td>36,451</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r>
<tr>
<td>40-44세</td>
<td>22,079</td>
<td>25,974</td>
<td>41,480</td>
<td>36,787</td>
</tr>
<tr>
<td>45-49세</td>
<td>17,775</td>
<td>22,139</td>
<td>32,686</td>
<td>36,707</td>
</tr>
<tr>
<td>50-54세</td>
<td>12,613</td>
<td>20,017</td>
<td>23,461</td>
<td>33,983</td>
</tr>
<tr>
<td>55-59세</td>
<td>10,809</td>
<td>15,151</td>
<td>18,947</td>
<td>25,009</td>
</tr>
<tr>
<td>60-64세</td>
<td>7,569</td>
<td>9,978</td>
<td>17,805</td>
<td>19,994</td>
</tr>
<tr>
<td>65-69세</td>
<td>5,410</td>
<td>7,522</td>
<td>13,565</td>
<td>16,009</td>
</tr>
<tr>
<td>70-74세</td>
<td>3,392</td>
<td>4,706</td>
<td>7,951</td>
<td>13,187</td>
</tr>
<tr>
<td>75-79세</td>
<td>1,571</td>
<td>2,561</td>
<td>4,714</td>
<td>7,893</td>
</tr>
<tr>
<td>80세이상</td>
<td>952</td>
<td>1,513</td>
<td>3,572</td>
<td>5,351</td>
</tr>
</tbody>
</table>
제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 인구수</th>
<th>1990년 인구수</th>
<th>2000년 인구수</th>
<th>2010년 인구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해당 비율</td>
<td>해당 비율</td>
<td>해당 비율</td>
<td>해당 비율</td>
</tr>
<tr>
<td>여성 전체</td>
<td>252,745 2.2%</td>
<td>319,442 4.0%</td>
<td>359,264 7.4%</td>
<td>371,346 11.7%</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155,395 1.3%</td>
<td>193,922 2.4%</td>
<td>175,711 4.3%</td>
<td>151,486 7.9%</td>
</tr>
<tr>
<td>40-64세</td>
<td>78,165 2.9%</td>
<td>98,023 4.6%</td>
<td>136,644 6.1%</td>
<td>157,961 8.6%</td>
</tr>
<tr>
<td>65세이상</td>
<td>19,185 6.8%</td>
<td>27,497 13.1%</td>
<td>46,909 22.7%</td>
<td>61,899 29.1%</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37,774 0.8%</td>
<td>40,914 1.1%</td>
<td>24,740 0.6%</td>
<td>26,735 1.6%</td>
</tr>
<tr>
<td>20-24세</td>
<td>38,329 2.3%</td>
<td>38,931 4.0%</td>
<td>33,438 5.5%</td>
<td>23,966 10.9%</td>
</tr>
<tr>
<td>25-29세</td>
<td>31,435 1.3%</td>
<td>42,007 2.9%</td>
<td>36,889 6.9%</td>
<td>31,158 12.2%</td>
</tr>
<tr>
<td>30-34세</td>
<td>25,180 1.0%</td>
<td>40,994 2.0%</td>
<td>40,813 4.1%</td>
<td>32,801 8.5%</td>
</tr>
<tr>
<td>35-39세</td>
<td>22,677 1.0%</td>
<td>31,076 2.1%</td>
<td>39,831 3.5%</td>
<td>36,826 6.5%</td>
</tr>
<tr>
<td>40-44세</td>
<td>22,081 1.1%</td>
<td>24,966 2.0%</td>
<td>41,265 3.6%</td>
<td>37,424 5.6%</td>
</tr>
<tr>
<td>45-49세</td>
<td>19,077 1.5%</td>
<td>21,686 2.3%</td>
<td>32,013 4.5%</td>
<td>37,251 6.6%</td>
</tr>
<tr>
<td>50-54세</td>
<td>14,895 3.0%</td>
<td>20,403 3.6%</td>
<td>23,417 5.4%</td>
<td>35,174 8.4%</td>
</tr>
<tr>
<td>55-59세</td>
<td>12,630 4.8%</td>
<td>17,552 6.5%</td>
<td>19,817 8.4%</td>
<td>26,526 10.8%</td>
</tr>
<tr>
<td>60-64세</td>
<td>9,482 6.9%</td>
<td>13,416 12.0%</td>
<td>20,132 12.3%</td>
<td>21,586 14.7%</td>
</tr>
<tr>
<td>65-69세</td>
<td>7,574 7.6%</td>
<td>10,673 14.4%</td>
<td>16,950 19.1%</td>
<td>19,041 21.3%</td>
</tr>
<tr>
<td>70-74세</td>
<td>5,547 7.1%</td>
<td>7,344 14.7%</td>
<td>12,659 26.3%</td>
<td>17,371 28.7%</td>
</tr>
<tr>
<td>75-79세</td>
<td>3,327 6.3%</td>
<td>5,117 12.1%</td>
<td>8,852 27.4%</td>
<td>12,951 36.4%</td>
</tr>
<tr>
<td>80세이상</td>
<td>2,737 4.4%</td>
<td>4,363 8.7%</td>
<td>8,448 19.8%</td>
<td>12,536 34.3%</td>
</tr>
</tbody>
</table>

자료: 각 년도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표본자료

다음의 표 3-6은 연령군별로 결혼상태에 따라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젊은 중에서는 미혼과 이혼한 사람들 중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중년층에서의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은 미혼, 이혼, 사별 모두에서 높으나 특히 미혼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 경우는 미혼의 상태가 유지된 중년들의 경우, 1인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년층에서 해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당 비율은 사별자와 이혼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노년기의 사별과 이혼은 1인가구로 이어질 것을 보여준다. 노년층에서 미혼자들의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이 연령층에서 미혼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의 상태(이혼도 마찬가지)가 노년으로 이어질 경우, 1인가구 비율이 누적되어 노년층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표 3-6〉 결혼상태 및 연령군별 15세 이상 인구수와 1인가구 거주자비율: 1980~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th>
<th>1990년</th>
<th>2000년</th>
<th>2010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r>
<tr>
<td>미혼 전체</td>
<td>151,329</td>
<td>2.3</td>
<td>185,465</td>
<td>5.5</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150,872</td>
<td>2.3</td>
<td>184,227</td>
<td>5.3</td>
</tr>
<tr>
<td>40~64세</td>
<td>428</td>
<td>11.0</td>
<td>1,170</td>
<td>35.9</td>
</tr>
<tr>
<td>65세이상</td>
<td>29</td>
<td>20.7</td>
<td>68</td>
<td>39.7</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79,385</td>
<td>0.8</td>
<td>83,133</td>
<td>0.9</td>
</tr>
<tr>
<td>20~24세</td>
<td>51,314</td>
<td>2.8</td>
<td>60,523</td>
<td>4.7</td>
</tr>
<tr>
<td>25~29세</td>
<td>17,109</td>
<td>5.7</td>
<td>31,096</td>
<td>12.9</td>
</tr>
<tr>
<td>30~34세</td>
<td>2,477</td>
<td>10.3</td>
<td>7,515</td>
<td>20.1</td>
</tr>
<tr>
<td>35~39세</td>
<td>587</td>
<td>15.3</td>
<td>1,960</td>
<td>28.4</td>
</tr>
<tr>
<td>40~44세</td>
<td>220</td>
<td>13.2</td>
<td>599</td>
<td>33.2</td>
</tr>
<tr>
<td>45~49세</td>
<td>100</td>
<td>9.0</td>
<td>297</td>
<td>38.0</td>
</tr>
<tr>
<td>50~54세</td>
<td>48</td>
<td>10.4</td>
<td>154</td>
<td>40.9</td>
</tr>
<tr>
<td>55~59세</td>
<td>41</td>
<td>7.3</td>
<td>71</td>
<td>33.8</td>
</tr>
<tr>
<td>60~64세</td>
<td>19</td>
<td>5.3</td>
<td>49</td>
<td>42.9</td>
</tr>
<tr>
<td>65~69세</td>
<td>14</td>
<td>21.4</td>
<td>34</td>
<td>38.2</td>
</tr>
<tr>
<td>70~74세</td>
<td>8</td>
<td>37.5</td>
<td>21</td>
<td>47.6</td>
</tr>
<tr>
<td>75~79세</td>
<td>4</td>
<td>0.0</td>
<td>6</td>
<td>16.7</td>
</tr>
<tr>
<td>80세이상</td>
<td>3</td>
<td>0.0</td>
<td>7</td>
<td>42.9</td>
</tr>
</tbody>
</table>
제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2) 유배우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 인구수</th>
<th>해당 비율</th>
<th>1990년 인구수</th>
<th>해당 비율</th>
<th>2000년 인구수</th>
<th>해당 비율</th>
<th>2010년 인구수</th>
<th>해당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유배우 전체</td>
<td>292,071</td>
<td>0.5</td>
<td>379,918</td>
<td>0.7</td>
<td>435,649</td>
<td>1.2</td>
<td>427,345</td>
<td>2.4</td>
</tr>
</tbody>
</table>

연령 3집단

<table>
<thead>
<tr>
<th>연령</th>
<th>15~39세</th>
<th></th>
<th>40~64세</th>
<th></th>
<th>65세이상</th>
<th></th>
</tr>
</thead>
<tbody>
<tr>
<td>15~39세</td>
<td>151,478</td>
<td>0.3</td>
<td>165,954</td>
<td>0.9</td>
<td>109,909</td>
<td>1.5</td>
</tr>
<tr>
<td>40~64세</td>
<td>126,804</td>
<td>0.6</td>
<td>236,791</td>
<td>1.4</td>
<td>256,017</td>
<td>2.7</td>
</tr>
<tr>
<td>65세이상</td>
<td>13,789</td>
<td>0.9</td>
<td>41,979</td>
<td>1.4</td>
<td>61,419</td>
<td>3.0</td>
</tr>
</tbody>
</table>

연령 5세간격

<table>
<thead>
<tr>
<th>연령</th>
<th>15~19세</th>
<th></th>
<th>20~24세</th>
<th></th>
<th>25~29세</th>
<th></th>
<th>30~34세</th>
<th></th>
<th>35~39세</th>
<th></th>
<th>40~44세</th>
<th></th>
<th>45~49세</th>
<th></th>
<th>50~54세</th>
<th></th>
<th>55~59세</th>
<th></th>
<th>60~64세</th>
<th></th>
<th>65~69세</th>
<th></th>
<th>70~74세</th>
<th></th>
<th>75~79세</th>
<th></th>
<th>80세이상</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757</td>
<td>0.4</td>
<td>16,227</td>
<td>0.4</td>
<td>43,474</td>
<td>0.3</td>
<td>47,893</td>
<td>0.3</td>
<td>43,127</td>
<td>0.3</td>
<td>41,429</td>
<td>0.4</td>
<td>33,210</td>
<td>0.6</td>
<td>22,847</td>
<td>0.7</td>
<td>17,850</td>
<td>0.8</td>
<td>11,468</td>
<td>0.7</td>
<td>7,493</td>
<td>0.9</td>
<td>4,011</td>
<td>0.7</td>
<td>1,564</td>
<td>1.1</td>
<td>721</td>
<td>0.8</td>
</tr>
</tbody>
</table>
3) 이혼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th>
<th></th>
<th>1990년</th>
<th></th>
<th>2000년</th>
<th></th>
<th>2010년</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r>
<tr>
<td>이혼 전체</td>
<td>2,660</td>
<td>16.8</td>
<td>4,979</td>
<td>26.1</td>
<td>14,092</td>
<td>32.2</td>
<td>29,586</td>
<td>36.0</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1,282</td>
<td>15.4</td>
<td>2,211</td>
<td>22.5</td>
<td>3,413</td>
<td>23.5</td>
<td>4,579</td>
<td>23.5</td>
</tr>
<tr>
<td>40~64세</td>
<td>1,328</td>
<td>18.3</td>
<td>2,659</td>
<td>28.3</td>
<td>10,068</td>
<td>33.5</td>
<td>23,013</td>
<td>36.4</td>
</tr>
<tr>
<td>65세이상</td>
<td>50</td>
<td>16.0</td>
<td>109</td>
<td>45.0</td>
<td>611</td>
<td>59.1</td>
<td>1,994</td>
<td>60.2</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47</td>
<td>14.9</td>
<td>29</td>
<td>6.9</td>
<td>24</td>
<td>12.5</td>
<td>36</td>
<td>13.9</td>
</tr>
<tr>
<td>25~29세</td>
<td>237</td>
<td>12.2</td>
<td>242</td>
<td>15.7</td>
<td>299</td>
<td>18.7</td>
<td>299</td>
<td>20.1</td>
</tr>
<tr>
<td>30~34세</td>
<td>446</td>
<td>15.9</td>
<td>835</td>
<td>22.3</td>
<td>1,028</td>
<td>22.0</td>
<td>1,138</td>
<td>22.7</td>
</tr>
<tr>
<td>35~39세</td>
<td>552</td>
<td>16.3</td>
<td>1,105</td>
<td>24.6</td>
<td>2,062</td>
<td>25.1</td>
<td>3,106</td>
<td>24.3</td>
</tr>
<tr>
<td>40~44세</td>
<td>547</td>
<td>15.4</td>
<td>951</td>
<td>25.0</td>
<td>3,379</td>
<td>28.1</td>
<td>5,211</td>
<td>26.7</td>
</tr>
<tr>
<td>45~49세</td>
<td>384</td>
<td>18.5</td>
<td>790</td>
<td>24.9</td>
<td>2,957</td>
<td>31.1</td>
<td>6,258</td>
<td>31.7</td>
</tr>
<tr>
<td>50~54세</td>
<td>220</td>
<td>19.1</td>
<td>481</td>
<td>31.4</td>
<td>1,898</td>
<td>35.2</td>
<td>5,949</td>
<td>38.4</td>
</tr>
<tr>
<td>55~59세</td>
<td>117</td>
<td>28.2</td>
<td>283</td>
<td>33.6</td>
<td>1,169</td>
<td>43.0</td>
<td>3,563</td>
<td>46.1</td>
</tr>
<tr>
<td>60~64세</td>
<td>60</td>
<td>21.7</td>
<td>154</td>
<td>46.1</td>
<td>665</td>
<td>49.9</td>
<td>2,032</td>
<td>52.6</td>
</tr>
<tr>
<td>65~69세</td>
<td>24</td>
<td>16.7</td>
<td>64</td>
<td>45.3</td>
<td>329</td>
<td>58.4</td>
<td>1,104</td>
<td>57.3</td>
</tr>
<tr>
<td>70~74세</td>
<td>20</td>
<td>15.0</td>
<td>26</td>
<td>53.8</td>
<td>165</td>
<td>59.4</td>
<td>554</td>
<td>62.5</td>
</tr>
<tr>
<td>75~79세</td>
<td>6</td>
<td>16.7</td>
<td>12</td>
<td>50.0</td>
<td>71</td>
<td>60.6</td>
<td>229</td>
<td>65.1</td>
</tr>
<tr>
<td>80세이상</td>
<td>-</td>
<td>-</td>
<td>7</td>
<td>0.0</td>
<td>46</td>
<td>60.9</td>
<td>107</td>
<td>68.2</td>
</tr>
</tbody>
</table>
4) 사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th>
<th>1990년</th>
<th>2000년</th>
<th>2010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d>인구수</td>
<td>해당 비율</td>
</tr>
<tr>
<td>사별 전체</td>
<td>38,896</td>
<td>8.3</td>
<td>45,862</td>
<td>16.4</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1,816</td>
<td>4.5</td>
<td>1,701</td>
<td>6.4</td>
</tr>
<tr>
<td>40-64세</td>
<td>20,440</td>
<td>8.9</td>
<td>21,483</td>
<td>16.6</td>
</tr>
<tr>
<td>65세이상</td>
<td>16,640</td>
<td>8.0</td>
<td>22,678</td>
<td>17.1</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45</td>
<td>4.4</td>
<td>12</td>
<td>8.3</td>
</tr>
<tr>
<td>25-29세</td>
<td>239</td>
<td>3.8</td>
<td>115</td>
<td>8.7</td>
</tr>
<tr>
<td>30-34세</td>
<td>499</td>
<td>5.6</td>
<td>518</td>
<td>6.9</td>
</tr>
<tr>
<td>35-39세</td>
<td>1,033</td>
<td>4.2</td>
<td>1,056</td>
<td>5.9</td>
</tr>
<tr>
<td>40-44세</td>
<td>1,962</td>
<td>4.4</td>
<td>1,835</td>
<td>7.1</td>
</tr>
<tr>
<td>45-49세</td>
<td>3,154</td>
<td>5.6</td>
<td>2,729</td>
<td>8.3</td>
</tr>
<tr>
<td>50-54세</td>
<td>4,392</td>
<td>8.6</td>
<td>4,151</td>
<td>13.2</td>
</tr>
<tr>
<td>55-59세</td>
<td>5,428</td>
<td>9.8</td>
<td>5,836</td>
<td>18.3</td>
</tr>
<tr>
<td>60-64세</td>
<td>5,504</td>
<td>11.9</td>
<td>6,932</td>
<td>23.0</td>
</tr>
<tr>
<td>65-69세</td>
<td>5,452</td>
<td>10.5</td>
<td>7,136</td>
<td>22.5</td>
</tr>
<tr>
<td>70-74세</td>
<td>4,899</td>
<td>8.3</td>
<td>6,102</td>
<td>19.1</td>
</tr>
<tr>
<td>75-79세</td>
<td>3,324</td>
<td>6.8</td>
<td>4,873</td>
<td>14.0</td>
</tr>
<tr>
<td>80세이상</td>
<td>2,965</td>
<td>4.4</td>
<td>4,567</td>
<td>9.0</td>
</tr>
</tbody>
</table>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표본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2. 1인가구 증가: 가구 대비 비율

앞에서는 15세 이상 인구 대비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파악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전체 가구수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가구의 특성은 해당 가구의 가구주 특성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또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1인가구 비율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가구주의 연령대를 고려한 상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1인가구 비율

다음의 <표 3-7>은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별 가구수(15세 이상 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은 1980년 5.1%에서 2010년 24.6%로 급격히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현재 4가구 중 한 가구 정도가 1인가구임을 시사한다.
제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표 3-7) 16개 사·도 및 거주지역별 15세 이상 가구주수와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80~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th>
<th>1990년</th>
<th>2000년</th>
<th>2010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가구주</td>
<td>해당비율</td>
<td>가구주</td>
<td>해당비율</td>
</tr>
<tr>
<td>전체</td>
<td>166,304</td>
<td>5.1</td>
<td>227,974</td>
<td>9.5</td>
</tr>
<tr>
<td>16개 사·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서울</td>
<td>38,205</td>
<td>4.7</td>
<td>55,516</td>
<td>9.7</td>
</tr>
<tr>
<td>부산</td>
<td>14,369</td>
<td>4.0</td>
<td>19,973</td>
<td>7.6</td>
</tr>
<tr>
<td>대구</td>
<td>-</td>
<td>-</td>
<td>12,198</td>
<td>10.7</td>
</tr>
<tr>
<td>인천</td>
<td>-</td>
<td>-</td>
<td>9,643</td>
<td>7.2</td>
</tr>
<tr>
<td>광주</td>
<td>-</td>
<td>-</td>
<td>5,840</td>
<td>8.9</td>
</tr>
<tr>
<td>대전</td>
<td>-</td>
<td>-</td>
<td>5,354</td>
<td>8.0</td>
</tr>
<tr>
<td>울산</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경기</td>
<td>22,616</td>
<td>5.5</td>
<td>32,271</td>
<td>8.3</td>
</tr>
<tr>
<td>강원</td>
<td>7,703</td>
<td>5.0</td>
<td>8,504</td>
<td>10.4</td>
</tr>
<tr>
<td>충북</td>
<td>6,110</td>
<td>4.2</td>
<td>7,044</td>
<td>9.2</td>
</tr>
<tr>
<td>충남</td>
<td>12,396</td>
<td>3.6</td>
<td>9,644</td>
<td>7.2</td>
</tr>
<tr>
<td>전북</td>
<td>9,450</td>
<td>4.8</td>
<td>10,412</td>
<td>9.3</td>
</tr>
<tr>
<td>전남</td>
<td>15,873</td>
<td>4.7</td>
<td>12,564</td>
<td>10.1</td>
</tr>
<tr>
<td>경북</td>
<td>22,499</td>
<td>6.4</td>
<td>16,199</td>
<td>12.6</td>
</tr>
<tr>
<td>경남</td>
<td>14,997</td>
<td>5.7</td>
<td>19,999</td>
<td>11.1</td>
</tr>
<tr>
<td>제주</td>
<td>2,086</td>
<td>12.7</td>
<td>2,813</td>
<td>14.5</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동부</td>
<td>97,070</td>
<td>5.1</td>
<td>169,455</td>
<td>9.1</td>
</tr>
<tr>
<td>음양부</td>
<td>69,234</td>
<td>5.1</td>
<td>58,519</td>
<td>10.8</td>
</tr>
</tbody>
</table>

자료: 각 년도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표본자료
인구수 대비 1인가구 거주자 비율과 유사하게 1인가구 비율은 특별 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지에서는 10가구당 3가구 정도가 1인가구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젊은층의 이촌향도의 결과로 농촌에 남은 노부모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도 1인가구 비율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는 미혼남녀나 이혼 및 사별한 사람들이 1인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보았을 때, 1인가구 비율의 증가는 읍면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골에 남은 노부모 세대가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가구주의 연령군별로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3-8>과 같다. 지난 40년을 통틀어 1인가구 비율은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층과 65세 이상인 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 층에서 1인가구 비율은 1980년 5.7%였으나 2010년 현재에는 34.0%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최근 들어 39세 이하 가구주가 이끄는 가구의 1/3 정도가 1인가구임을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 3-2]는 <표 3-8>에 제시된 5세별 1인가구 비율을 10세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에 관계없이, 지난 40년간 1인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5~29세 사이의 가구주의 경우 지난 40년간 1인가구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세대 간 분가 경향과 함께 만혼, 비혼의 남녀가 혼자 살아가는 경향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166,304  5.1</td>
<td>227,974  9.5</td>
<td>285,267  15.7</td>
<td>322,145  24.6</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73,069  5.7</td>
<td>100,793 11.1</td>
<td>93,022  19.6</td>
<td>84,813  34.0</td>
<td></td>
</tr>
<tr>
<td>40-64세</td>
<td>81,999 3.5</td>
<td>107,723 5.8</td>
<td>152,558 9.3</td>
<td>175,212 16.0</td>
<td></td>
</tr>
<tr>
<td>65세이상</td>
<td>11,236 13.1</td>
<td>19,458 21.4</td>
<td>39,687 31.2</td>
<td>62,120 36.1</td>
<td></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2,239  29.5</td>
<td>1,797  43.9</td>
<td>559  52.4</td>
<td>1,228  71.3</td>
<td></td>
</tr>
<tr>
<td>20-24세</td>
<td>6,701  22.2</td>
<td>7,103  40.4</td>
<td>5,448  56.0</td>
<td>6,803  72.3</td>
<td></td>
</tr>
<tr>
<td>25-29세</td>
<td>17,384 6.4</td>
<td>22,770 18.6</td>
<td>15,577 39.4</td>
<td>16,369 54.0</td>
<td></td>
</tr>
<tr>
<td>30-34세</td>
<td>23,711  6.4</td>
<td>36,531  5.7</td>
<td>31,899 16.2</td>
<td>25,705 29.5</td>
<td></td>
</tr>
<tr>
<td>35-39세</td>
<td>23,034 1.6</td>
<td>32,592  3.8</td>
<td>39,539  9.0</td>
<td>34,708 14.6</td>
<td></td>
</tr>
<tr>
<td>40-44세</td>
<td>23,786 1.6</td>
<td>27,674  3.4</td>
<td>44,250  7.5</td>
<td>39,194 14.6</td>
<td></td>
</tr>
<tr>
<td>45-49세</td>
<td>20,391  2.2</td>
<td>24,743  3.5</td>
<td>36,765  7.6</td>
<td>41,622 14.4</td>
<td></td>
</tr>
<tr>
<td>50-54세</td>
<td>15,473  3.7</td>
<td>23,353  4.8</td>
<td>27,277  8.5</td>
<td>39,682 15.4</td>
<td></td>
</tr>
<tr>
<td>55-59세</td>
<td>13,307 5.3</td>
<td>18,782  7.9</td>
<td>22,646 11.1</td>
<td>30,049 17.3</td>
<td></td>
</tr>
<tr>
<td>60-64세</td>
<td>9,042  8.3</td>
<td>13,171 14.3</td>
<td>21,620 15.0</td>
<td>24,665 20.6</td>
<td></td>
</tr>
<tr>
<td>65-69세</td>
<td>5,964 10.8</td>
<td>9,698 18.3</td>
<td>17,312 22.6</td>
<td>21,032 26.5</td>
<td></td>
</tr>
<tr>
<td>70-74세</td>
<td>3,294 13.4</td>
<td>5,622 22.3</td>
<td>11,355 33.1</td>
<td>18,827 33.4</td>
<td></td>
</tr>
<tr>
<td>75-79세</td>
<td>1,317 18.5</td>
<td>2,733  26.3</td>
<td>6,752  40.7</td>
<td>12,893 43.2</td>
<td></td>
</tr>
<tr>
<td>80세이상</td>
<td>661  20.7</td>
<td>1,405 30.0</td>
<td>4,268 46.1</td>
<td>9,368 53.2</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그림 3-2〕연령군별 가구주 대비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80~2010년)

가구주의 성,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표 3-9>와 같다. 우선 남성 가구주들보다는 여성 가구주들에게서 1인가구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상당수가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홀로 사는 미혼여성, 이혼여성, 노년기의 사별여성을 반영한 것으로 2010년 현재 여성 가구주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51.4%에 이른다. 다시 말해 여성이 가구주인이 경우, 절반 이상이 1인가구임을 의미한다.
제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  63

가구주의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 이들이 1인가구를 형성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2010년 현재에는 해당 비율이 74.1%에 이르고 있다. 즉, 가구주가 미혼이면 4명중 3 사람은 1인가구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된다. 가구주가 사별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인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는 사별한 가구주들이 이혼한 가구주들에 비해, 1인가구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년층에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은 쪽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은 현상도 이해된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나. 가구주의 연령대 및 인구학적 특성별 1인가구 비율

다음의 <표 3-10>은 가구주의 연령군별로 동부와 읍면부의 1인가구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비율 또한 인구 대비 1인가구 거주자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가구주가 젊은층에서는 동부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다. 한편 가구주가 노년인 경우에는 읍면부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3-10〉 거주지역 및 연령군별 15세 이상 가구주수와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80~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th>
<th>1990년</th>
<th>2000년</th>
<th>2010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가구주 비율</td>
<td>가구주 비율</td>
<td>가구주 비율</td>
<td>가구주 비율</td>
</tr>
<tr>
<td>동부 전체</td>
<td>97,070 5.1%</td>
<td>169,455 9.1%</td>
<td>221,465 14.6%</td>
<td>257,269 23.5%</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50,897 6.6%</td>
<td>84,696 11.9%</td>
<td>79,296 20.6%</td>
<td>74,454 35.0%</td>
</tr>
<tr>
<td>40-64세</td>
<td>42,135 2.8%</td>
<td>75,272 4.9%</td>
<td>120,525 8.4%</td>
<td>144,656 15.3%</td>
</tr>
<tr>
<td>65세이상</td>
<td>4,038 9.5%</td>
<td>9,487 17.3%</td>
<td>21,644 27.5%</td>
<td>38,159 32.2%</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1,731 32.3%</td>
<td>1,528 45.0%</td>
<td>467 51.4%</td>
<td>1,076 72.5%</td>
</tr>
<tr>
<td>20-24세</td>
<td>5,122 24.1%</td>
<td>6,386 41.2%</td>
<td>4,801 56.0%</td>
<td>6,128 72.8%</td>
</tr>
<tr>
<td>25-29세</td>
<td>12,531 7.2%</td>
<td>19,497 19.5%</td>
<td>13,684 40.9%</td>
<td>14,705 55.1%</td>
</tr>
<tr>
<td>30-34세</td>
<td>16,462 2.3%</td>
<td>30,602 6.1%</td>
<td>27,247 17.1%</td>
<td>22,517 30.5%</td>
</tr>
<tr>
<td>35-39세</td>
<td>15,051 1.7%</td>
<td>26,683 4.1%</td>
<td>33,097 9.4%</td>
<td>30,028 19.5%</td>
</tr>
<tr>
<td>40-44세</td>
<td>13,873 1.7%</td>
<td>22,041 3.3%</td>
<td>37,018 7.5%</td>
<td>33,735 14.5%</td>
</tr>
<tr>
<td>45-49세</td>
<td>10,826 2.2%</td>
<td>18,492 3.3%</td>
<td>30,292 7.2%</td>
<td>35,383 13.9%</td>
</tr>
<tr>
<td>50-54세</td>
<td>7,716 3.2%</td>
<td>15,732 4.2%</td>
<td>21,755 7.9%</td>
<td>32,836 14.7%</td>
</tr>
<tr>
<td>55-59세</td>
<td>6,069 3.9%</td>
<td>11,559 6.6%</td>
<td>17,041 10.0%</td>
<td>24,072 16.0%</td>
</tr>
<tr>
<td>60-64세</td>
<td>3,651 6.6%</td>
<td>7,448 11.9%</td>
<td>14,419 12.5%</td>
<td>18,630 19.6%</td>
</tr>
<tr>
<td>65-69세</td>
<td>2,268 7.8%</td>
<td>5,055 15.0%</td>
<td>10,228 20.3%</td>
<td>14,723 24.6%</td>
</tr>
<tr>
<td>70-74세</td>
<td>1,190 11.2%</td>
<td>2,640 18.3%</td>
<td>6,133 29.6%</td>
<td>11,478 30.2%</td>
</tr>
<tr>
<td>75-79세</td>
<td>406 12.1%</td>
<td>1,196 21.2%</td>
<td>3,379 37.5%</td>
<td>7,117 40.1%</td>
</tr>
<tr>
<td>80세이상</td>
<td>174 14.9%</td>
<td>596 24.3%</td>
<td>1,904 41.7%</td>
<td>4,841 48.4%</td>
</tr>
</tbody>
</table>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 가구주 비율</th>
<th>1990년 가구주 비율</th>
<th>2000년 가구주 비율</th>
<th>2010년 가구주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읍면부 전체</td>
<td>69,234</td>
<td>58,519</td>
<td>63,802</td>
<td>64,876</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22,172</td>
<td>16,097</td>
<td>13,726</td>
<td>10,359</td>
</tr>
<tr>
<td>40-64세</td>
<td>39,864</td>
<td>32,451</td>
<td>32,033</td>
<td>30,556</td>
</tr>
<tr>
<td>65세이상</td>
<td>7,198</td>
<td>9,971</td>
<td>18,043</td>
<td>23,961</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508</td>
<td>269</td>
<td>92</td>
<td>152</td>
</tr>
<tr>
<td>20-24세</td>
<td>1,579</td>
<td>717</td>
<td>647</td>
<td>675</td>
</tr>
<tr>
<td>25-29세</td>
<td>4,853</td>
<td>3,273</td>
<td>1,893</td>
<td>1,664</td>
</tr>
<tr>
<td>30-34세</td>
<td>7,249</td>
<td>5,929</td>
<td>4,652</td>
<td>3,188</td>
</tr>
<tr>
<td>35-39세</td>
<td>7,983</td>
<td>5,909</td>
<td>6,442</td>
<td>4,680</td>
</tr>
<tr>
<td>40-44세</td>
<td>9,913</td>
<td>5,633</td>
<td>7,232</td>
<td>5,459</td>
</tr>
<tr>
<td>45-49세</td>
<td>9,565</td>
<td>6,251</td>
<td>6,473</td>
<td>6,239</td>
</tr>
<tr>
<td>50-54세</td>
<td>7,757</td>
<td>7,621</td>
<td>5,522</td>
<td>6,846</td>
</tr>
<tr>
<td>55-59세</td>
<td>7,238</td>
<td>7,223</td>
<td>5,605</td>
<td>5,977</td>
</tr>
<tr>
<td>60-64세</td>
<td>5,391</td>
<td>5,723</td>
<td>7,201</td>
<td>6,035</td>
</tr>
<tr>
<td>65-69세</td>
<td>3,696</td>
<td>4,643</td>
<td>7,084</td>
<td>6,309</td>
</tr>
<tr>
<td>70-74세</td>
<td>2,104</td>
<td>2,982</td>
<td>5,222</td>
<td>7,349</td>
</tr>
<tr>
<td>75-79세</td>
<td>911</td>
<td>1,537</td>
<td>3,373</td>
<td>5,776</td>
</tr>
<tr>
<td>80세이상</td>
<td>487</td>
<td>809</td>
<td>2,364</td>
<td>4,527</td>
</tr>
</tbody>
</table>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가구주의 연령대와 성에 따라 1인가구 비율이 어떻게 다르다는 다음의 <표 3-11>을 통해 알 수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가구주보다는 여성가구주에게서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15~29세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이 1인가구이지만, 그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1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15~29세 가구주의 66.4%가 1인가구에 속한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중간 연령층에서는 해당 비율이 다소 낮으나 노년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표 3-11 성 및 연령군별 15세 이상 가구주수와 1인가구 거주자 비율(1980~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 가구주</th>
<th>1990년 가구주</th>
<th>2000년 가구주</th>
<th>2010년 가구주</th>
</tr>
</thead>
<tbody>
<tr>
<td></td>
<td>나머지</td>
<td>비율</td>
<td>나머지</td>
<td>비율</td>
</tr>
<tr>
<td>남성 전체</td>
<td>140,104</td>
<td>2.0</td>
<td>191,756</td>
<td>4.6</td>
</tr>
<tr>
<td>연령 3세단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64,207</td>
<td>3.2</td>
<td>89,207</td>
<td>7.3</td>
</tr>
<tr>
<td>40-64세</td>
<td>67,674</td>
<td>0.9</td>
<td>89,479</td>
<td>2.0</td>
</tr>
<tr>
<td>65세이상</td>
<td>8,223</td>
<td>2.1</td>
<td>13,070</td>
<td>4.3</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1,262</td>
<td>29.1</td>
<td>884</td>
<td>40.3</td>
</tr>
<tr>
<td>20-24세</td>
<td>4,143</td>
<td>15.0</td>
<td>3,796</td>
<td>34.7</td>
</tr>
<tr>
<td>25-29세</td>
<td>15,855</td>
<td>4.4</td>
<td>20,350</td>
<td>14.8</td>
</tr>
<tr>
<td>30-34세</td>
<td>22,078</td>
<td>1.1</td>
<td>34,274</td>
<td>3.7</td>
</tr>
<tr>
<td>35-39세</td>
<td>20,869</td>
<td>0.7</td>
<td>29,903</td>
<td>2.0</td>
</tr>
<tr>
<td>40-44세</td>
<td>20,988</td>
<td>0.7</td>
<td>24,646</td>
<td>1.8</td>
</tr>
<tr>
<td>45-49세</td>
<td>17,111</td>
<td>0.8</td>
<td>21,310</td>
<td>1.8</td>
</tr>
<tr>
<td>50-54세</td>
<td>12,239</td>
<td>1.1</td>
<td>19,445</td>
<td>1.9</td>
</tr>
<tr>
<td>55-59세</td>
<td>10,365</td>
<td>1.0</td>
<td>14,676</td>
<td>2.2</td>
</tr>
<tr>
<td>60-64세</td>
<td>6,971</td>
<td>1.5</td>
<td>9,402</td>
<td>2.9</td>
</tr>
<tr>
<td>65-69세</td>
<td>4,499</td>
<td>1.5</td>
<td>6,733</td>
<td>3.6</td>
</tr>
<tr>
<td>70-74세</td>
<td>2,407</td>
<td>2.0</td>
<td>3,781</td>
<td>4.7</td>
</tr>
<tr>
<td>75-79세</td>
<td>892</td>
<td>4.0</td>
<td>1,760</td>
<td>5.6</td>
</tr>
<tr>
<td>80세이상</td>
<td>425</td>
<td>4.0</td>
<td>796</td>
<td>5.4</td>
</tr>
<tr>
<td>여성 전체</td>
<td>26,200</td>
<td>21.3</td>
<td>36,218</td>
<td>35.3</td>
</tr>
<tr>
<td>연령 3세단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8,862</td>
<td>23.3</td>
<td>11,586</td>
<td>40.5</td>
</tr>
<tr>
<td>40-64세</td>
<td>14,325</td>
<td>15.6</td>
<td>18,244</td>
<td>24.6</td>
</tr>
<tr>
<td>65세이상</td>
<td>3,013</td>
<td>43.1</td>
<td>6,388</td>
<td>56.5</td>
</tr>
</tbody>
</table>
제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가구주</td>
<td></td>
<td>가구주</td>
<td></td>
<td>가구주</td>
<td></td>
<td>가구주</td>
<td></td>
</tr>
<tr>
<td>15~19세</td>
<td>977</td>
<td>30.1</td>
<td>913</td>
<td>47.4</td>
<td>279</td>
<td>52.0</td>
<td>613</td>
<td>70.0</td>
</tr>
<tr>
<td>20~24세</td>
<td>2,558</td>
<td>33.8</td>
<td>3,107</td>
<td>47.0</td>
<td>3,176</td>
<td>58.3</td>
<td>3,649</td>
<td>71.5</td>
</tr>
<tr>
<td>25~29세</td>
<td>1,529</td>
<td>27.3</td>
<td>2,420</td>
<td>51.0</td>
<td>4,219</td>
<td>60.1</td>
<td>6,020</td>
<td>63.0</td>
</tr>
<tr>
<td>30~34세</td>
<td>1,633</td>
<td>16.0</td>
<td>2,257</td>
<td>36.2</td>
<td>3,357</td>
<td>49.3</td>
<td>5,624</td>
<td>49.5</td>
</tr>
<tr>
<td>35~39세</td>
<td>2,165</td>
<td>10.3</td>
<td>2,689</td>
<td>24.6</td>
<td>3,788</td>
<td>36.5</td>
<td>6,517</td>
<td>36.8</td>
</tr>
<tr>
<td>40~44세</td>
<td>2,798</td>
<td>8.5</td>
<td>3,028</td>
<td>16.5</td>
<td>5,421</td>
<td>27.7</td>
<td>7,697</td>
<td>27.3</td>
</tr>
<tr>
<td>45~49세</td>
<td>3,280</td>
<td>9.0</td>
<td>3,433</td>
<td>14.3</td>
<td>5,405</td>
<td>26.7</td>
<td>8,727</td>
<td>28.3</td>
</tr>
<tr>
<td>50~54세</td>
<td>3,234</td>
<td>13.7</td>
<td>3,908</td>
<td>19.0</td>
<td>4,532</td>
<td>28.2</td>
<td>8,602</td>
<td>34.3</td>
</tr>
<tr>
<td>55~59세</td>
<td>2,942</td>
<td>20.4</td>
<td>4,106</td>
<td>27.9</td>
<td>4,330</td>
<td>38.5</td>
<td>6,774</td>
<td>42.2</td>
</tr>
<tr>
<td>60~64세</td>
<td>2,071</td>
<td>31.4</td>
<td>3,769</td>
<td>42.8</td>
<td>4,811</td>
<td>51.4</td>
<td>6,098</td>
<td>52.1</td>
</tr>
<tr>
<td>65~69세</td>
<td>1,465</td>
<td>39.5</td>
<td>2,965</td>
<td>51.7</td>
<td>4,990</td>
<td>65.0</td>
<td>6,292</td>
<td>64.3</td>
</tr>
<tr>
<td>70~74세</td>
<td>887</td>
<td>44.3</td>
<td>1,841</td>
<td>58.6</td>
<td>4,504</td>
<td>73.8</td>
<td>6,936</td>
<td>71.8</td>
</tr>
<tr>
<td>75~79세</td>
<td>425</td>
<td>48.9</td>
<td>973</td>
<td>63.7</td>
<td>3,074</td>
<td>78.9</td>
<td>5,980</td>
<td>78.9</td>
</tr>
<tr>
<td>80세이상</td>
<td>236</td>
<td>50.8</td>
<td>609</td>
<td>62.1</td>
<td>2,046</td>
<td>81.9</td>
<td>5,254</td>
<td>81.8</td>
</tr>
</tbody>
</table>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다음의 <표 3-12>는 가구주의 결혼상태와 연령군별로 1인가구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비율이 높아지지만, 중년과 노년층에서 미혼자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구주가 사별 혹은 이혼한 상태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현상은 중년기 이후의 이별과 사별은 1인가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시켜준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3-12 결혼상태 및 연령군별 15세 이상 가구주수와 1인가구 가구주 비율(1980-2010년)

1) 미혼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미혼 전체</td>
<td>11,022</td>
<td>31.3</td>
<td>18,982</td>
<td>53.5</td>
<td>29,355</td>
<td>64.3</td>
<td>45,812</td>
<td>74.1</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10,884</td>
<td>31.2</td>
<td>18,272</td>
<td>53.1</td>
<td>25,377</td>
<td>63.7</td>
<td>35,420</td>
<td>73.6</td>
</tr>
<tr>
<td>40-64세</td>
<td>127</td>
<td>37.0</td>
<td>672</td>
<td>62.5</td>
<td>3,808</td>
<td>68.0</td>
<td>9,908</td>
<td>75.3</td>
</tr>
<tr>
<td>65세이상</td>
<td>11</td>
<td>54.5</td>
<td>38</td>
<td>71.1</td>
<td>170</td>
<td>81.2</td>
<td>484</td>
<td>84.5</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2,191</td>
<td>30.0</td>
<td>1,774</td>
<td>44.5</td>
<td>553</td>
<td>53.0</td>
<td>1,221</td>
<td>71.7</td>
</tr>
<tr>
<td>20-24세</td>
<td>4,752</td>
<td>29.9</td>
<td>5,894</td>
<td>48.2</td>
<td>5,055</td>
<td>59.9</td>
<td>6,529</td>
<td>75.0</td>
</tr>
<tr>
<td>25-29세</td>
<td>3,029</td>
<td>32.2</td>
<td>7,079</td>
<td>56.7</td>
<td>9,326</td>
<td>63.1</td>
<td>11,842</td>
<td>72.3</td>
</tr>
<tr>
<td>30-34세</td>
<td>710</td>
<td>35.9</td>
<td>2,604</td>
<td>57.9</td>
<td>6,919</td>
<td>65.6</td>
<td>9,142</td>
<td>73.5</td>
</tr>
<tr>
<td>35-39세</td>
<td>202</td>
<td>44.6</td>
<td>921</td>
<td>60.5</td>
<td>3,524</td>
<td>68.4</td>
<td>6,686</td>
<td>74.9</td>
</tr>
<tr>
<td>40-44세</td>
<td>72</td>
<td>40.3</td>
<td>325</td>
<td>61.2</td>
<td>2,026</td>
<td>68.1</td>
<td>4,286</td>
<td>73.4</td>
</tr>
<tr>
<td>45-49세</td>
<td>25</td>
<td>36.0</td>
<td>186</td>
<td>60.8</td>
<td>1,009</td>
<td>65.4</td>
<td>2,715</td>
<td>75.4</td>
</tr>
<tr>
<td>50-54세</td>
<td>14</td>
<td>35.7</td>
<td>92</td>
<td>68.5</td>
<td>384</td>
<td>70.6</td>
<td>1,664</td>
<td>75.9</td>
</tr>
<tr>
<td>55-59세</td>
<td>11</td>
<td>27.3</td>
<td>44</td>
<td>54.5</td>
<td>238</td>
<td>71.4</td>
<td>773</td>
<td>80.1</td>
</tr>
<tr>
<td>60-64세</td>
<td>5</td>
<td>20.0</td>
<td>25</td>
<td>84.0</td>
<td>151</td>
<td>70.9</td>
<td>470</td>
<td>82.1</td>
</tr>
<tr>
<td>65-69세</td>
<td>6</td>
<td>50.0</td>
<td>21</td>
<td>61.9</td>
<td>86</td>
<td>77.9</td>
<td>249</td>
<td>84.3</td>
</tr>
<tr>
<td>70-74세</td>
<td>4</td>
<td>75.0</td>
<td>12</td>
<td>83.3</td>
<td>51</td>
<td>86.3</td>
<td>134</td>
<td>82.8</td>
</tr>
<tr>
<td>75-79세</td>
<td>-</td>
<td>-</td>
<td>1</td>
<td>100.0</td>
<td>25</td>
<td>84.0</td>
<td>55</td>
<td>92.7</td>
</tr>
<tr>
<td>80세이상</td>
<td>1</td>
<td>0.0</td>
<td>4</td>
<td>75.0</td>
<td>8</td>
<td>75.0</td>
<td>46</td>
<td>80.4</td>
</tr>
</tbody>
</table>
제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2) 유배우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th>
<th>1990년</th>
<th>2000년</th>
<th>2010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가구주</td>
<td>비율</td>
<td>가구주</td>
<td>비율</td>
</tr>
<tr>
<td>유배우 전체</td>
<td>136,841</td>
<td>1.0</td>
<td>181,543</td>
<td>1.5</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60,078</td>
<td>0.8</td>
<td>79,676</td>
<td>1.1</td>
</tr>
<tr>
<td>40~64세</td>
<td>69,120</td>
<td>1.1</td>
<td>89,833</td>
<td>1.7</td>
</tr>
<tr>
<td>65세이상</td>
<td>7,643</td>
<td>1.6</td>
<td>12,034</td>
<td>1.9</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48</td>
<td>6.3</td>
<td>23</td>
<td>0.0</td>
</tr>
<tr>
<td>20~24세</td>
<td>1,914</td>
<td>3.0</td>
<td>1,195</td>
<td>2.0</td>
</tr>
<tr>
<td>25~29세</td>
<td>14,118</td>
<td>0.8</td>
<td>15,502</td>
<td>1.1</td>
</tr>
<tr>
<td>30~34세</td>
<td>22,391</td>
<td>0.6</td>
<td>32,997</td>
<td>1.0</td>
</tr>
<tr>
<td>35~39세</td>
<td>21,607</td>
<td>0.7</td>
<td>29,959</td>
<td>1.2</td>
</tr>
<tr>
<td>40~44세</td>
<td>21,685</td>
<td>0.8</td>
<td>24,938</td>
<td>1.5</td>
</tr>
<tr>
<td>45~49세</td>
<td>17,670</td>
<td>1.0</td>
<td>21,533</td>
<td>1.6</td>
</tr>
<tr>
<td>50~54세</td>
<td>12,493</td>
<td>1.2</td>
<td>19,582</td>
<td>1.8</td>
</tr>
<tr>
<td>55~59세</td>
<td>10,452</td>
<td>1.3</td>
<td>14,608</td>
<td>2.0</td>
</tr>
<tr>
<td>60~64세</td>
<td>6,820</td>
<td>1.2</td>
<td>9,172</td>
<td>2.1</td>
</tr>
<tr>
<td>65~69세</td>
<td>4,349</td>
<td>1.6</td>
<td>6,442</td>
<td>2.0</td>
</tr>
<tr>
<td>70~74세</td>
<td>2,209</td>
<td>1.3</td>
<td>3,456</td>
<td>1.8</td>
</tr>
<tr>
<td>75~79세</td>
<td>780</td>
<td>2.2</td>
<td>1,521</td>
<td>1.8</td>
</tr>
<tr>
<td>80세이상</td>
<td>305</td>
<td>2.0</td>
<td>615</td>
<td>1.5</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3) 사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 가구주 해당 비율</th>
<th>1990년 가구주 해당 비율</th>
<th>2000년 가구주 해당 비율</th>
<th>2010년 가구주 해당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사별 전체</td>
<td>16,781 19.3</td>
<td>23,762 31.7</td>
<td>30,636 53.0</td>
<td>38,970 62.8</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1,395 5.9</td>
<td>1,398 7.8</td>
<td>619 12.8</td>
<td>309 11.7</td>
</tr>
<tr>
<td>40~64세</td>
<td>11,829 15.5</td>
<td>15,048 23.7</td>
<td>14,362 33.7</td>
<td>13,371 40.9</td>
</tr>
<tr>
<td>65세이상</td>
<td>3,557 37.5</td>
<td>7,316 52.9</td>
<td>15,655 72.2</td>
<td>25,290 75.0</td>
</tr>
<tr>
<td>연령 5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 - - -</td>
<td>- - - -</td>
<td>- - - -</td>
<td>- - - -</td>
</tr>
<tr>
<td>20~24세</td>
<td>21 9.5</td>
<td>6 16.7</td>
<td>2 0.0</td>
<td>1 0.0</td>
</tr>
<tr>
<td>25~29세</td>
<td>142 6.3</td>
<td>78 12.8</td>
<td>21 28.6</td>
<td>11 0.0</td>
</tr>
<tr>
<td>30~34세</td>
<td>366 7.7</td>
<td>402 9.0</td>
<td>142 16.9</td>
<td>51 13.7</td>
</tr>
<tr>
<td>35~39세</td>
<td>866 5.0</td>
<td>912 6.8</td>
<td>454 10.8</td>
<td>246 11.8</td>
</tr>
<tr>
<td>40~44세</td>
<td>1,638 5.3</td>
<td>1,661 7.9</td>
<td>1,358 11.3</td>
<td>741 12.3</td>
</tr>
<tr>
<td>45~49세</td>
<td>2,419 7.4</td>
<td>2,372 9.5</td>
<td>2,168 16.5</td>
<td>1,552 22.2</td>
</tr>
<tr>
<td>50~54세</td>
<td>2,818 13.4</td>
<td>3,263 16.7</td>
<td>2,853 24.3</td>
<td>2,736 31.9</td>
</tr>
<tr>
<td>55~59세</td>
<td>2,774 19.1</td>
<td>3,895 27.4</td>
<td>3,414 37.5</td>
<td>3,651 43.0</td>
</tr>
<tr>
<td>60~64세</td>
<td>2,180 30.1</td>
<td>3,887 41.4</td>
<td>4,569 51.6</td>
<td>4,691 55.1</td>
</tr>
<tr>
<td>65~69세</td>
<td>1,595 35.7</td>
<td>3,194 50.3</td>
<td>5,131 64.9</td>
<td>5,913 67.2</td>
</tr>
<tr>
<td>70~74세</td>
<td>1,072 37.9</td>
<td>2,135 54.7</td>
<td>4,753 72.8</td>
<td>7,171 73.4</td>
</tr>
<tr>
<td>75~79세</td>
<td>535 42.2</td>
<td>1,202 56.9</td>
<td>3,358 77.8</td>
<td>6,354 79.1</td>
</tr>
<tr>
<td>80세이상</td>
<td>355 36.9</td>
<td>785 52.1</td>
<td>2,413 78.8</td>
<td>5,852 80.6</td>
</tr>
</tbody>
</table>
제3장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변화

4) 이혼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980년 가구주</th>
<th>1990년 가구주</th>
<th>2000년 가구주</th>
<th>2010년 가구주</th>
</tr>
</thead>
<tbody>
<tr>
<td>이혼 전체</td>
<td>1,658 27.0</td>
<td>3,687 35.2</td>
<td>11,432 39.7</td>
<td>23,912 44.5</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711 27.7</td>
<td>1,447 34.4</td>
<td>2,314 34.7</td>
<td>3,061 35.2</td>
</tr>
<tr>
<td>40~64세</td>
<td>923 26.3</td>
<td>2,170 34.7</td>
<td>8,655 39.0</td>
<td>19,255 43.5</td>
</tr>
<tr>
<td>65세이상</td>
<td>24 33.3</td>
<td>70 70.0</td>
<td>463 78.0</td>
<td>1,596 75.3</td>
</tr>
<tr>
<td>연령 5세 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19세</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14 50.0</td>
<td>8 25.0</td>
<td>8 37.5</td>
<td>13 38.5</td>
</tr>
<tr>
<td>25~29세</td>
<td>94 30.9</td>
<td>111 34.2</td>
<td>146 38.4</td>
<td>154 39.0</td>
</tr>
<tr>
<td>30~34세</td>
<td>244 29.1</td>
<td>528 35.2</td>
<td>627 36.0</td>
<td>692 37.3</td>
</tr>
<tr>
<td>35~39세</td>
<td>359 25.1</td>
<td>800 34.0</td>
<td>1,533 33.8</td>
<td>2,202 34.3</td>
</tr>
<tr>
<td>40~44세</td>
<td>391 21.5</td>
<td>750 31.7</td>
<td>2,796 34.0</td>
<td>4,190 33.2</td>
</tr>
<tr>
<td>45~49세</td>
<td>277 25.6</td>
<td>652 30.2</td>
<td>2,624 35.0</td>
<td>5,310 37.4</td>
</tr>
<tr>
<td>50~54세</td>
<td>148 28.4</td>
<td>416 36.3</td>
<td>1,672 40.0</td>
<td>5,021 45.5</td>
</tr>
<tr>
<td>55~59세</td>
<td>70 47.1</td>
<td>235 40.4</td>
<td>1,022 49.2</td>
<td>3,039 54.1</td>
</tr>
<tr>
<td>60~64세</td>
<td>37 35.1</td>
<td>117 60.7</td>
<td>541 61.4</td>
<td>1,695 63.1</td>
</tr>
<tr>
<td>65~69세</td>
<td>13 30.8</td>
<td>41 70.7</td>
<td>263 73.0</td>
<td>909 69.6</td>
</tr>
<tr>
<td>70~74세</td>
<td>9 33.3</td>
<td>19 73.7</td>
<td>121 81.0</td>
<td>429 80.7</td>
</tr>
<tr>
<td>75~79세</td>
<td>2 50.0</td>
<td>9 66.7</td>
<td>49 87.8</td>
<td>178 83.7</td>
</tr>
<tr>
<td>80세이상</td>
<td>-</td>
<td>-</td>
<td>1 0.0</td>
<td>30 93.3</td>
</tr>
</tbody>
</table>
| 자료: 각 년도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표본자료

제2절 1인가구 거주자의 인구학적 특성변화

본 절에서는 2인 이상의 가구의 가구원과 1인가구 거주자들의 인구학적 특성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전반적인 비교를 실시한 후, 연령대를 세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표 3-13>은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6개 시·도별 분포는 각 시도별 인구규모를 반영하고 있는데, 1인가구중 서울시
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들어 다소 낮아지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차이는 경기도의 경우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16.7%, 2인 이상 가구 거주자가 21.4%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다소 낮다는 점이다. 한편 동부와 읍면부의 분포를 보면,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들에 비해 1인가구 거주자 중 도시지역에 있는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난다.

〈표 3-13〉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 분포(1980~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인가구 거주자</th>
<th>2인0상 가구의 거주자</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21.3</td>
<td>24.8</td>
</tr>
<tr>
<td>부산</td>
<td>6.8</td>
<td>7.0</td>
</tr>
<tr>
<td>대구</td>
<td>-</td>
<td>6.0</td>
</tr>
<tr>
<td>인천</td>
<td>-</td>
<td>3.2</td>
</tr>
<tr>
<td>광주</td>
<td>-</td>
<td>2.4</td>
</tr>
<tr>
<td>대전</td>
<td>-</td>
<td>2.0</td>
</tr>
<tr>
<td>울산</td>
<td>-</td>
<td>1.9</td>
</tr>
<tr>
<td>경기</td>
<td>14.6</td>
<td>12.4</td>
</tr>
<tr>
<td>경원</td>
<td>4.6</td>
<td>4.1</td>
</tr>
<tr>
<td>충북</td>
<td>3.1</td>
<td>3.0</td>
</tr>
<tr>
<td>충남</td>
<td>5.2</td>
<td>3.2</td>
</tr>
<tr>
<td>전북</td>
<td>5.3</td>
<td>4.5</td>
</tr>
<tr>
<td>전남</td>
<td>8.8</td>
<td>5.9</td>
</tr>
<tr>
<td>경북</td>
<td>17.1</td>
<td>9.4</td>
</tr>
<tr>
<td>경남</td>
<td>10.0</td>
<td>10.3</td>
</tr>
<tr>
<td>제주</td>
<td>3.1</td>
<td>1.9</td>
</tr>
</tbody>
</table>

지역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58.2</td>
<td>71.0</td>
<td>72.4</td>
<td>76.2</td>
<td>58.0</td>
<td>74.1</td>
<td>79.2</td>
<td>82.1</td>
</tr>
<tr>
<td></td>
<td>읍면부</td>
<td>41.8</td>
<td>29.0</td>
<td>27.6</td>
<td>23.8</td>
<td>42.0</td>
<td>25.9</td>
<td>20.8</td>
<td>17.9</td>
</tr>
</tbody>
</table>

계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자료: 각 년도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표본자료.
다음의 <표 3-14>는 1인가구 거주자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본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1인가구 거주자들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에 비해 노년층에 좀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1인가구 거주자들이 노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다.

〈표 3-14〉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연령3집단) 분포(1980-2010년)

<table>
<thead>
<tr>
<th>연령 3집단</th>
<th>1인가구 거주자</th>
<th>2인 이상 가구의 거주자</th>
</tr>
</thead>
<tbody>
<tr>
<td>15~39세</td>
<td>48.9</td>
<td>51.8</td>
</tr>
<tr>
<td>40~64세</td>
<td>33.7</td>
<td>29.0</td>
</tr>
<tr>
<td>65세이상</td>
<td>17.4</td>
<td>19.3</td>
</tr>
</tbody>
</table>

연령 10세간격

<table>
<thead>
<tr>
<th>연령 10세간격</th>
<th>15~29세</th>
<th>30~39세</th>
<th>40~49세</th>
<th>50~59세</th>
<th>60~69세</th>
<th>70~79세</th>
<th>80세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5~29세</td>
<td>38.7</td>
<td>36.4</td>
<td>21.1</td>
<td>18.5</td>
<td>43.1</td>
<td>38.2</td>
<td>26.6</td>
</tr>
<tr>
<td>30~39세</td>
<td>10.2</td>
<td>15.3</td>
<td>19.5</td>
<td>17.9</td>
<td>20.1</td>
<td>24.0</td>
<td>23.6</td>
</tr>
<tr>
<td>40~49세</td>
<td>9.7</td>
<td>8.4</td>
<td>13.6</td>
<td>14.7</td>
<td>16.8</td>
<td>15.6</td>
<td>21.9</td>
</tr>
<tr>
<td>50~59세</td>
<td>15.1</td>
<td>11.9</td>
<td>10.8</td>
<td>14.3</td>
<td>10.4</td>
<td>11.9</td>
<td>12.5</td>
</tr>
<tr>
<td>60~69세</td>
<td>16.6</td>
<td>16.9</td>
<td>16.0</td>
<td>13.4</td>
<td>6.0</td>
<td>6.4</td>
<td>9.5</td>
</tr>
<tr>
<td>70~79세</td>
<td>8.1</td>
<td>9.1</td>
<td>14.5</td>
<td>14.9</td>
<td>2.8</td>
<td>3.0</td>
<td>4.3</td>
</tr>
<tr>
<td>80세이상</td>
<td>1.6</td>
<td>1.9</td>
<td>4.4</td>
<td>6.3</td>
<td>0.7</td>
<td>0.9</td>
<td>1.6</td>
</tr>
</tbody>
</table>

계 (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1인가구 거주자들의 성별, 결혼상태별,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5>와 같다. 1인가구 거주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40년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55.0%를 차지하고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거주자들에게서는 성별 분포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결
혼성태별 분포를 보면 1인가구 거주자 중에서는 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고, 사별의 비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2인 이상 가구 거주자들에 게사는 역시 유배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1인가구 거주자 중에는 초등학교이하 비율과 (전문)대학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미혼자들과 교육수준이 낮은 노년층의 1인가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5〉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성별결혼상태 및 교육수준 분포(1980~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인가구 거주자</th>
<th>2인이상 가구의 거주자</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33.8</td>
<td>40.9</td>
</tr>
<tr>
<td>여성</td>
<td>66.2</td>
<td>59.1</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r>
<tr>
<td>미혼</td>
<td>40.8</td>
<td>46.9</td>
</tr>
<tr>
<td>유배우</td>
<td>15.5</td>
<td>12.4</td>
</tr>
<tr>
<td>사별</td>
<td>38.4</td>
<td>34.8</td>
</tr>
<tr>
<td>이혼</td>
<td>5.3</td>
<td>6.0</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r>
<tr>
<td>초등이하</td>
<td>52.4</td>
<td>39.6</td>
</tr>
<tr>
<td>중학교</td>
<td>16.1</td>
<td>11.9</td>
</tr>
<tr>
<td>고등학교</td>
<td>22.6</td>
<td>31.9</td>
</tr>
<tr>
<td>(전문)대학이상</td>
<td>9.0</td>
<td>16.5</td>
</tr>
</tbody>
</table>

(단위: 명, %)

주: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4년제 미만은 대학, 4년제 이상은 대학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전문)대학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음.

자료: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주택의 점유형태와 주택유형별 분포는 다음의 <표 3-16>과 같다.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에 비해 1인가구 거주자들은 월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2인 이상 가구 거주자들은 대체로 자가 혹은 전세에 집중되는 반면 대조적이다. 한편 1인가구 거주자들은 단독주택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의 비율은 24.6%에 머문다. 이에 비해 2인 이상 가구 거주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표 3-16>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분포(1980-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인가구 거주자</th>
<th>2인이상 가구의 거주자</th>
</tr>
</thead>
<tbody>
<tr>
<td>점유형태</td>
<td></td>
<td></td>
</tr>
<tr>
<td>자가</td>
<td>37.9</td>
<td>31.7</td>
</tr>
<tr>
<td>전세</td>
<td>21.8</td>
<td>22.5</td>
</tr>
<tr>
<td>보증금있는 월세</td>
<td>35.0</td>
<td>15.2</td>
</tr>
<tr>
<td>보증금없는 월세</td>
<td>7.0</td>
<td>6.4</td>
</tr>
<tr>
<td>사글세</td>
<td>22.7</td>
<td>5.1</td>
</tr>
<tr>
<td>기타</td>
<td>5.3</td>
<td>7.9</td>
</tr>
<tr>
<td>주택유형</td>
<td></td>
<td></td>
</tr>
<tr>
<td>단독주택</td>
<td>86.0</td>
<td>80.4</td>
</tr>
<tr>
<td>아파트</td>
<td>4.4</td>
<td>8.0</td>
</tr>
<tr>
<td>연립주택</td>
<td>1.9</td>
<td>3.7</td>
</tr>
<tr>
<td>다세대</td>
<td>1.5</td>
<td>1.9</td>
</tr>
<tr>
<td>기타</td>
<td>7.7</td>
<td>6.3</td>
</tr>
<tr>
<td>계(명)</td>
<td>1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자료: 각 년도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
4장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제4장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본 장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실시한 20세 이상의 한국 성인을 대표하는 2,000명에 대한 제특성별 분석과 더불어 1인가구 거주자 4,00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인식 및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결과 또한 제시하였다. 이 때 1인가구의 증가의 급증이라는 변화추이를 볼 때 1인가구 여부와 더불어 연령군별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 거주여부와 연령군별 비교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제1절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조사대상자(20세 이상)의 일반특성

2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조사의 최종 응답자 수는 총 2,000명으로 20대 16.8%, 30대 21.7%, 40대 22.8%, 50대 18.3%, 60대 11.4%, 70대 6.9%, 80대 이상이 2.3%이다. 대도시 47.0%, 중소도시 35.9%, 농어촌 17.2%이며, 남녀 비율은 남성 47.9%, 여성 52.1%로 여성 비율이 약간 높다. 65.7%가 유배우 상태이며 27.7%가 고등학교, 55.2%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고 약 2/3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4-1〉 일반(20세 이상)조사 대상자의 성별 일반 특성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체</th>
<th>남성</th>
<th>여성</th>
</tr>
</thead>
<tbody>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47.0</td>
<td>46.9</td>
<td>47.2</td>
</tr>
<tr>
<td>중소도시</td>
<td>35.9</td>
<td>35.5</td>
<td>36.3</td>
</tr>
<tr>
<td>농어촌</td>
<td>17.2</td>
<td>17.6</td>
<td>16.5</td>
</tr>
<tr>
<td>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47.9</td>
<td>-</td>
<td>-</td>
</tr>
<tr>
<td>여성</td>
<td>52.1</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6.8</td>
<td>16.5</td>
<td>17.0</td>
</tr>
<tr>
<td>30~39세</td>
<td>21.7</td>
<td>22.3</td>
<td>21.0</td>
</tr>
<tr>
<td>40~49세</td>
<td>22.8</td>
<td>23.8</td>
<td>21.9</td>
</tr>
<tr>
<td>50~59세</td>
<td>18.3</td>
<td>18.8</td>
<td>17.8</td>
</tr>
<tr>
<td>60~69세</td>
<td>11.4</td>
<td>11.4</td>
<td>11.4</td>
</tr>
<tr>
<td>70~79세</td>
<td>6.9</td>
<td>5.7</td>
<td>7.9</td>
</tr>
<tr>
<td>80세이상</td>
<td>2.3</td>
<td>1.6</td>
<td>3.0</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65.7</td>
<td>65.0</td>
<td>66.4</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8.4</td>
<td>4.9</td>
<td>11.5</td>
</tr>
<tr>
<td>미혼</td>
<td>26.0</td>
<td>30.1</td>
<td>22.1</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9.9</td>
<td>6.8</td>
<td>12.8</td>
</tr>
<tr>
<td>중학교</td>
<td>7.2</td>
<td>6.3</td>
<td>8.1</td>
</tr>
<tr>
<td>고등학교</td>
<td>27.7</td>
<td>27.0</td>
<td>28.3</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55.2</td>
<td>59.9</td>
<td>50.8</td>
</tr>
<tr>
<td>근로 여부</td>
<td></td>
<td></td>
<td></td>
</tr>
<tr>
<td>한대(취업)</td>
<td>62.3</td>
<td>78.4</td>
<td>47.4</td>
</tr>
<tr>
<td>안한대(비취업)</td>
<td>37.8</td>
<td>21.6</td>
<td>52.6</td>
</tr>
<tr>
<td>종사상의 자격</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지영자</td>
<td>18.2</td>
<td>23.1</td>
<td>10.8</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지영자·사업주</td>
<td>11.8</td>
<td>14.6</td>
<td>7.5</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49.7</td>
<td>45.7</td>
<td>55.7</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6.7</td>
<td>5.9</td>
<td>7.9</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7.4</td>
<td>4.8</td>
<td>11.4</td>
</tr>
<tr>
<td>기타</td>
<td>6.2</td>
<td>5.9</td>
<td>6.7</td>
</tr>
</tbody>
</table>
제4장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81

가구소득

<table>
<thead>
<tr>
<th>가구소득</th>
<th>전체</th>
<th>남성</th>
<th>여성</th>
</tr>
</thead>
<tbody>
<tr>
<td>99만원 이하</td>
<td>13.4</td>
<td>11.4</td>
<td>15.4</td>
</tr>
<tr>
<td>100~199만원</td>
<td>14.8</td>
<td>15.5</td>
<td>14.2</td>
</tr>
<tr>
<td>200~299만원</td>
<td>18.0</td>
<td>20.9</td>
<td>15.2</td>
</tr>
<tr>
<td>300~399만원</td>
<td>18.1</td>
<td>18.2</td>
<td>18.0</td>
</tr>
<tr>
<td>400~499만원</td>
<td>12.8</td>
<td>11.5</td>
<td>14.0</td>
</tr>
<tr>
<td>500~599만원</td>
<td>10.2</td>
<td>9.6</td>
<td>10.8</td>
</tr>
<tr>
<td>600~699만원</td>
<td>3.5</td>
<td>2.9</td>
<td>4.1</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9.2</td>
<td>10.1</td>
<td>8.3</td>
</tr>
</tbody>
</table>

계 (명) 100.0 (2,000) 100.0 (959) 100.0 (1,041)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일반조사와 더불어 1인가구 거주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대상자의 연령군별 구성은 비교해보면 <표 4-2>와 같다. 4)

(표 4-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구성 비교

<table>
<thead>
<tr>
<th>연령군</th>
<th>전체</th>
<th>1인가구</th>
<th>비1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td>
<td>유배우</td>
<td>사별이혼별거</td>
<td>미혼</td>
</tr>
<tr>
<td>20~29세</td>
<td>18.7</td>
<td>4.6</td>
<td>0.1</td>
</tr>
<tr>
<td>30~39세</td>
<td>19.4</td>
<td>26.0</td>
<td>2.2</td>
</tr>
<tr>
<td>40~49세</td>
<td>15.5</td>
<td>34.7</td>
<td>8.7</td>
</tr>
<tr>
<td>50~59세</td>
<td>13.8</td>
<td>27.4</td>
<td>20.0</td>
</tr>
<tr>
<td>60~69세</td>
<td>13.0</td>
<td>7.3</td>
<td>26.2</td>
</tr>
<tr>
<td>70~79세</td>
<td>14.0</td>
<td>0.0</td>
<td>30.4</td>
</tr>
<tr>
<td>80세 이상</td>
<td>5.7</td>
<td>0.0</td>
<td>12.3</td>
</tr>
</tbody>
</table>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4) 1인가구와 비1인가구의 일반특성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푸표에 제시되어 있음.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1인가구가 가구여 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나, 1인가구 내의 결혼상태별 차이가 매우 커 41.6%로 매우 낮을. 결혼적으로 1인가구는 무배우상태의 사회구성원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주말부부나 '기러기 아빠 엄마'의 형태로 가족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있다. 통상적으로 1인가구는 20세 이상의 1인가구 거주자 중 5.5%의 규모이며 이들의 다수인 80.5%가 학업이나 직업의 이유로 3/4을 넘어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들의 3/4은 남성이, 30~50대에 정착한 것으로, 교육수준도 매우 높아 81.3%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고 있으며, 약 70%가 상용근로자임. 이러한 결과들은 유배우 1인가구 거주자들이 비교적 고소득의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생활하고 있는 남성이 대부분임을 보여주는 것임.
2. 1인가구 형성 관련 인식 및 태도

‘성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결혼 전이라도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매우 동의 19.1%, 동의하지 않음 12.2%, 전혀 동의하지 않음 4.2%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인인 경우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3점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인 경우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 결혼 전 부모와 따로 사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인 경우 가장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대체로 연령이 많은 경우 동의 정도가 낮아졌으나 20대인 경우 연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정도가 두 번째로 낮았다. 이에 대해서는 20대인 경우 결혼 전 독립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아 어느 정도 결혼 적령기가 지난 30대부터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는데, 미혼인 경우 20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취업여부별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의 정도가 높았다. 취업자 중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나 임시근로자인 경우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일용근로자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기구소득별로는 특별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表 4-3 일반특성별 ‘성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결혼 전이라도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4.2</td>
<td>12.2</td>
<td>18.7</td>
<td>45.8</td>
<td>19.1</td>
<td>100.0 (1,998)</td>
<td>3.63</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4.9</td>
<td>11.4</td>
<td>19.0</td>
<td>45.0</td>
<td>19.7</td>
<td>100.0 (939)</td>
<td>3.63</td>
</tr>
<tr>
<td>중소도시</td>
<td>3.2</td>
<td>11.6</td>
<td>18.4</td>
<td>48.0</td>
<td>18.7</td>
<td>100.0 (716)</td>
<td>3.67</td>
</tr>
<tr>
<td>농어촌</td>
<td>4.4</td>
<td>15.7</td>
<td>18.4</td>
<td>43.1</td>
<td>18.4</td>
<td>100.0 (343)</td>
<td>3.55</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5.4</td>
<td>13.9</td>
<td>18.7</td>
<td>42.7</td>
<td>19.3</td>
<td>100.0 (958)</td>
<td>3.57</td>
</tr>
<tr>
<td>여성</td>
<td>3.1</td>
<td>10.7</td>
<td>18.7</td>
<td>48.7</td>
<td>18.9</td>
<td>100.0 (1,040)</td>
<td>3.70</td>
</tr>
<tr>
<td>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2.4</td>
<td>10.1</td>
<td>29.0</td>
<td>43.3</td>
<td>15.2</td>
<td>100.0 (335)</td>
<td>3.59</td>
</tr>
<tr>
<td>30~39세</td>
<td>3.5</td>
<td>7.6</td>
<td>20.1</td>
<td>49.0</td>
<td>19.9</td>
<td>100.0 (433)</td>
<td>3.74</td>
</tr>
<tr>
<td>40~49세</td>
<td>3.5</td>
<td>13.0</td>
<td>18.0</td>
<td>46.2</td>
<td>19.3</td>
<td>100.0 (455)</td>
<td>3.65</td>
</tr>
<tr>
<td>50~59세</td>
<td>5.8</td>
<td>14.3</td>
<td>18.1</td>
<td>42.3</td>
<td>19.5</td>
<td>100.0 (364)</td>
<td>3.55</td>
</tr>
<tr>
<td>60~69세</td>
<td>4.4</td>
<td>18.9</td>
<td>8.8</td>
<td>48.7</td>
<td>19.3</td>
<td>100.0 (228)</td>
<td>3.60</td>
</tr>
<tr>
<td>70세 이상</td>
<td>7.7</td>
<td>12.6</td>
<td>11.5</td>
<td>45.4</td>
<td>23.0</td>
<td>100.0 (183)</td>
<td>3.63</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4.5</td>
<td>13.0</td>
<td>15.8</td>
<td>46.9</td>
<td>19.8</td>
<td>100.0 (1,312)</td>
<td>3.64</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4.8</td>
<td>13.2</td>
<td>16.8</td>
<td>43.1</td>
<td>22.2</td>
<td>100.0 (167)</td>
<td>3.65</td>
</tr>
<tr>
<td>미혼</td>
<td>3.3</td>
<td>9.8</td>
<td>26.6</td>
<td>43.9</td>
<td>16.4</td>
<td>100.0 (519)</td>
<td>3.60</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7.1</td>
<td>16.7</td>
<td>10.1</td>
<td>45.5</td>
<td>20.7</td>
<td>100.0 (198)</td>
<td>3.56</td>
</tr>
<tr>
<td>중학교</td>
<td>8.3</td>
<td>13.9</td>
<td>13.2</td>
<td>46.5</td>
<td>18.1</td>
<td>100.0 (144)</td>
<td>3.52</td>
</tr>
<tr>
<td>고등학교</td>
<td>4.2</td>
<td>13.9</td>
<td>19.2</td>
<td>45.8</td>
<td>16.8</td>
<td>100.0 (552)</td>
<td>3.57</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3.1</td>
<td>10.2</td>
<td>20.7</td>
<td>45.8</td>
<td>20.2</td>
<td>100.0 (1,098)</td>
<td>3.70</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4.7</td>
<td>12.4</td>
<td>19.5</td>
<td>43.8</td>
<td>19.6</td>
<td>100.0 (1,243)</td>
<td>3.61</td>
</tr>
<tr>
<td>비취업</td>
<td>3.4</td>
<td>11.9</td>
<td>17.4</td>
<td>49.0</td>
<td>18.3</td>
<td>100.0 (755)</td>
<td>3.67</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없는 자영주</td>
<td>4.4</td>
<td>13.3</td>
<td>19.6</td>
<td>41.8</td>
<td>20.9</td>
<td>100.0 (225)</td>
<td>3.61</td>
</tr>
<tr>
<td>고용원 있는 자영주</td>
<td>5.4</td>
<td>17.0</td>
<td>16.3</td>
<td>42.9</td>
<td>18.4</td>
<td>100.0 (147)</td>
<td>3.52</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3.4</td>
<td>9.7</td>
<td>21.8</td>
<td>45.5</td>
<td>19.6</td>
<td>100.0 (618)</td>
<td>3.68</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9.6</td>
<td>16.9</td>
<td>15.7</td>
<td>43.4</td>
<td>14.5</td>
<td>100.0 (83)</td>
<td>3.36</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4.3</td>
<td>9.8</td>
<td>20.7</td>
<td>44.6</td>
<td>20.7</td>
<td>100.0 (92)</td>
<td>3.67</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22.2</td>
<td>11.1</td>
<td>0.0</td>
<td>33.3</td>
<td>33.3</td>
<td>100.0 (9)</td>
<td>3.44</td>
</tr>
<tr>
<td>기타</td>
<td>7.4</td>
<td>22.1</td>
<td>10.3</td>
<td>38.2</td>
<td>22.1</td>
<td>100.0 (68)</td>
<td>3.46</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4.4</td>
<td>12.9</td>
<td>14.9</td>
<td>48.6</td>
<td>19.3</td>
<td>100.0 (249)</td>
<td>3.65</td>
</tr>
<tr>
<td>100-199만원</td>
<td>5.1</td>
<td>14.9</td>
<td>14.5</td>
<td>45.5</td>
<td>20.0</td>
<td>100.0 (275)</td>
<td>3.60</td>
</tr>
<tr>
<td>200-299만원</td>
<td>3.0</td>
<td>9.6</td>
<td>17.7</td>
<td>47.4</td>
<td>22.2</td>
<td>100.0 (333)</td>
<td>3.76</td>
</tr>
<tr>
<td>300-399만원</td>
<td>3.9</td>
<td>10.5</td>
<td>20.1</td>
<td>48.6</td>
<td>16.8</td>
<td>100.0 (333)</td>
<td>3.64</td>
</tr>
<tr>
<td>400-499만원</td>
<td>3.0</td>
<td>11.0</td>
<td>22.4</td>
<td>43.0</td>
<td>20.7</td>
<td>100.0 (237)</td>
<td>3.76</td>
</tr>
<tr>
<td>500-599만원</td>
<td>5.3</td>
<td>13.2</td>
<td>19.0</td>
<td>45.5</td>
<td>16.9</td>
<td>100.0 (189)</td>
<td>3.56</td>
</tr>
<tr>
<td>600-699만원</td>
<td>1.5</td>
<td>13.8</td>
<td>10.8</td>
<td>47.7</td>
<td>26.2</td>
<td>100.0 (65)</td>
<td>3.83</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5.9</td>
<td>16.5</td>
<td>20.6</td>
<td>38.2</td>
<td>18.8</td>
<td>100.0 (170)</td>
<td>3.48</td>
</tr>
</tbody>
</table>

주: 1) 80세 이상인 경우 46명이었으며, 70세 이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2)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3)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 29.5%, 동의하지 않음 27.0%, 전혀 동의하지 않음 17.5%, 매우 동의 8.1%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특성별로는 농어촌 거주자인 경우, 남성인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정도가 조금씩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동의 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별거.사별한 경우 동의 정도가 낮아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하는 것에 대해 더 부정적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자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 상용근로자, 일시근로자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 제4장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 85

#### 특성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그저 그렇다 | 동의 | 매우 동의 | 계(명) | 평균
---|---|---|---|---|---|---
전체 | 17.5 | 27.0 | 17.9 | 29.5 | 8.1 | 100.0 (1,983) | 2.84

#### 지역

대도시 | 15.8 | 26.5 | 19.6 | 29.1 | 9.1 | 100.0 (936) | 2.89
중소도시 | 17.5 | 26.1 | 17.7 | 30.9 | 7.8 | 100.0 (708) | 2.85
농어촌 | 22.1 | 30.4 | 13.9 | 27.4 | 6.2 | 100.0 (339) | 2.65

#### 성별

남성 | 23.1 | 31.8 | 17.2 | 21.5 | 6.4 | 100.0 (948) | 2.56
여성 | 12.4 | 22.7 | 18.6 | 36.7 | 9.7 | 100.0 (1,035) | 3.09

#### 연령

20~29세 | 15.3 | 25.4 | 24.9 | 27.2 | 7.2 | 100.0 (334) | 2.86
30~39세 | 16.2 | 22.5 | 18.7 | 34.7 | 8.0 | 100.0 (427) | 2.96
40~49세 | 11.4 | 25.5 | 17.6 | 34.5 | 11.0 | 100.0 (455) | 3.08
50~59세 | 15.7 | 29.0 | 18.2 | 28.2 | 8.8 | 100.0 (362) | 2.85
60~69세 | 23.1 | 34.2 | 10.7 | 25.3 | 6.7 | 100.0 (225) | 2.58
70세 이상 | 36.7 | 31.7 | 12.2 | 16.1 | 3.3 | 100.0 (180) | 2.18

#### 결혼상태

유배우(동거) | 17.8 | 29.2 | 15.9 | 28.7 | 8.4 | 100.0 (1,303) | 2.81
이혼·별거·사별 | 23.5 | 19.9 | 15.7 | 31.3 | 9.6 | 100.0 (166) | 2.84
미혼 | 14.8 | 23.7 | 23.7 | 30.7 | 7.0 | 100.0 (514) | 2.91

####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33.5 | 34.0 | 8.8 | 19.1 | 4.6 | 100.0 (194) | 2.27
중학교 | 22.7 | 29.1 | 17.7 | 24.8 | 5.7 | 100.0 (141) | 2.62
고등학교 | 16.3 | 27.8 | 16.6 | 29.6 | 9.7 | 100.0 (547) | 2.89
(전문)대학 이상 | 14.7 | 24.9 | 20.3 | 31.8 | 8.3 | 100.0 (1,095) | 2.94

#### 근로여부

취업 | 17.2 | 27.1 | 17.5 | 29.4 | 8.8 | 100.0 (1,232) | 2.85
비취업 | 18.0 | 26.9 | 18.5 | 29.6 | 7.1 | 100.0 (751) | 2.81

#### 종사상의 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17.5 | 27.4 | 15.2 | 30.9 | 9.0 | 100.0 (223) | 2.87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 | 18.5 | 20.5 | 18.5 | 33.6 | 8.9 | 100.0 (146) | 2.94
상용근로자 | 15.8 | 26.2 | 18.7 | 29.9 | 9.4 | 100.0 (615) | 2.91
일용근로자 | 23.2 | 32.9 | 12.2 | 26.8 | 4.9 | 100.0 (82) | 2.57
임시근로자 | 11.0 | 28.6 | 22.0 | 28.6 | 9.9 | 100.0 (91) | 2.98
무급가족종사자 | 12.5 | 37.5 | 25.0 | 25.0 | 0.0 | 100.0 (8) | 2.63
기타 | 28.8 | 39.4 | 10.6 | 15.2 | 6.1 | 100.0 (66) | 2.30

### <표 4-4> 일반특성별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가구소득</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99만원 이하</td>
<td>28.4</td>
<td>31.7</td>
<td>11.9</td>
<td>23.5</td>
<td>4.5</td>
<td>100.0 (243)</td>
<td>2.44</td>
</tr>
<tr>
<td>100-199만원</td>
<td>21.0</td>
<td>24.4</td>
<td>19.2</td>
<td>25.8</td>
<td>9.6</td>
<td>100.0 (271)</td>
<td>2.79</td>
</tr>
<tr>
<td>200-299만원</td>
<td>16.6</td>
<td>27.8</td>
<td>18.1</td>
<td>29.3</td>
<td>8.2</td>
<td>100.0 (331)</td>
<td>2.85</td>
</tr>
<tr>
<td>300-399만원</td>
<td>16.2</td>
<td>24.6</td>
<td>21.0</td>
<td>29.4</td>
<td>8.7</td>
<td>100.0 (333)</td>
<td>2.90</td>
</tr>
<tr>
<td>400-499만원</td>
<td>9.8</td>
<td>31.1</td>
<td>18.7</td>
<td>30.2</td>
<td>10.2</td>
<td>100.0 (235)</td>
<td>3.00</td>
</tr>
<tr>
<td>500-599만원</td>
<td>13.2</td>
<td>25.4</td>
<td>18.0</td>
<td>38.1</td>
<td>5.3</td>
<td>100.0 (189)</td>
<td>2.97</td>
</tr>
<tr>
<td>600-699만원</td>
<td>10.9</td>
<td>26.6</td>
<td>14.1</td>
<td>34.4</td>
<td>14.1</td>
<td>100.0 (170)</td>
<td>3.14</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21.8</td>
<td>22.4</td>
<td>18.2</td>
<td>28.8</td>
<td>8.8</td>
<td>100.0 (170)</td>
<td>2.81</td>
</tr>
</tbody>
</table>

주: 1) 80세 이상인 경우 46명이었으며, 70대 이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2)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3)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3.9%, 동의한다는 응답이 39.2%로 나타나 동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이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평균점수는 4.20점이다.

농어촌 거주자인 경우 여성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았고, 연령별로는 4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정도가 높아진 반면 40대 이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정도가 낮아졌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한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동의 정도가 높으며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의 정도가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사례수가 매우 적어 일반화하기 힘든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가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일용근로자나 임시근로자와 같이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 동의 정도가 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제4장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 87

(표 4-5) 일반특성별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1.8</td>
<td>3.8</td>
<td>11.4</td>
<td>39.2</td>
<td>43.9</td>
<td>100.0 (1,998)</td>
<td>4.20</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1.7</td>
<td>3.7</td>
<td>12.1</td>
<td>38.1</td>
<td>44.3</td>
<td>100.0 (939)</td>
<td>4.20</td>
</tr>
<tr>
<td>중소도시</td>
<td>1.3</td>
<td>3.2</td>
<td>9.9</td>
<td>42.0</td>
<td>43.6</td>
<td>100.0 (716)</td>
<td>4.23</td>
</tr>
<tr>
<td>농어촌</td>
<td>2.9</td>
<td>5.0</td>
<td>12.5</td>
<td>36.2</td>
<td>43.4</td>
<td>100.0 (343)</td>
<td>4.12</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6</td>
<td>3.0</td>
<td>11.1</td>
<td>35.6</td>
<td>48.7</td>
<td>100.0 (957)</td>
<td>4.27</td>
</tr>
<tr>
<td>여성</td>
<td>1.9</td>
<td>4.4</td>
<td>11.7</td>
<td>42.5</td>
<td>39.5</td>
<td>100.0 (1,041)</td>
<td>4.13</td>
</tr>
<tr>
<td>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0.6</td>
<td>3.6</td>
<td>19.8</td>
<td>43.5</td>
<td>32.4</td>
<td>100.0 (333)</td>
<td>4.04</td>
</tr>
<tr>
<td>30~39세</td>
<td>1.4</td>
<td>2.1</td>
<td>15.5</td>
<td>37.9</td>
<td>43.2</td>
<td>100.0 (433)</td>
<td>4.19</td>
</tr>
<tr>
<td>40~49세</td>
<td>0.4</td>
<td>1.5</td>
<td>5.9</td>
<td>37.3</td>
<td>54.8</td>
<td>100.0 (456)</td>
<td>4.45</td>
</tr>
<tr>
<td>50~59세</td>
<td>1.4</td>
<td>3.8</td>
<td>8.5</td>
<td>40.3</td>
<td>46.0</td>
<td>100.0 (365)</td>
<td>4.26</td>
</tr>
<tr>
<td>60~69세</td>
<td>2.6</td>
<td>6.6</td>
<td>8.8</td>
<td>42.1</td>
<td>39.9</td>
<td>100.0 (228)</td>
<td>4.10</td>
</tr>
<tr>
<td>70세 이상</td>
<td>7.7</td>
<td>9.8</td>
<td>9.3</td>
<td>33.3</td>
<td>39.9</td>
<td>100.0 (710)</td>
<td>3.88</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1.8</td>
<td>3.3</td>
<td>7.5</td>
<td>37.3</td>
<td>50.2</td>
<td>100.0 (1,314)</td>
<td>4.31</td>
</tr>
<tr>
<td>이혼, 별거, 사별</td>
<td>4.8</td>
<td>10.8</td>
<td>15.0</td>
<td>37.1</td>
<td>32.3</td>
<td>100.0 (167)</td>
<td>3.81</td>
</tr>
<tr>
<td>미혼</td>
<td>0.8</td>
<td>2.7</td>
<td>20.1</td>
<td>44.7</td>
<td>31.7</td>
<td>100.0 (517)</td>
<td>4.04</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6.6</td>
<td>9.6</td>
<td>11.1</td>
<td>34.8</td>
<td>37.9</td>
<td>100.0 (198)</td>
<td>3.88</td>
</tr>
<tr>
<td>중학교</td>
<td>1.4</td>
<td>6.9</td>
<td>9.0</td>
<td>42.4</td>
<td>40.3</td>
<td>100.0 (144)</td>
<td>4.13</td>
</tr>
<tr>
<td>고등학교</td>
<td>2.2</td>
<td>3.6</td>
<td>9.3</td>
<td>38.1</td>
<td>46.8</td>
<td>100.0 (551)</td>
<td>4.24</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0.7</td>
<td>2.4</td>
<td>12.9</td>
<td>39.9</td>
<td>44.0</td>
<td>100.0 (1,099)</td>
<td>4.24</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1.3</td>
<td>2.6</td>
<td>11.5</td>
<td>37.1</td>
<td>47.6</td>
<td>100.0 (1,245)</td>
<td>4.27</td>
</tr>
<tr>
<td>비취업</td>
<td>2.5</td>
<td>5.7</td>
<td>11.3</td>
<td>42.6</td>
<td>37.8</td>
<td>100.0 (753)</td>
<td>4.08</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1.8</td>
<td>4.8</td>
<td>10.6</td>
<td>33.9</td>
<td>48.9</td>
<td>100.0 (227)</td>
<td>4.23</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0.7</td>
<td>3.4</td>
<td>8.2</td>
<td>38.8</td>
<td>49.0</td>
<td>100.0 (147)</td>
<td>4.32</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1.3</td>
<td>1.1</td>
<td>12.6</td>
<td>37.7</td>
<td>47.2</td>
<td>100.0 (618)</td>
<td>4.28</td>
</tr>
<tr>
<td>임용근로자</td>
<td>1.2</td>
<td>4.8</td>
<td>13.3</td>
<td>39.8</td>
<td>41.0</td>
<td>100.0 (83)</td>
<td>4.14</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2.2</td>
<td>3.3</td>
<td>14.1</td>
<td>37.0</td>
<td>43.5</td>
<td>100.0 (92)</td>
<td>4.16</td>
</tr>
<tr>
<td>무급기족종사자</td>
<td>0.0</td>
<td>11.1</td>
<td>0.0</td>
<td>33.3</td>
<td>55.6</td>
<td>100.0 (9)</td>
<td>4.33</td>
</tr>
<tr>
<td>기타</td>
<td>0.0</td>
<td>1.5</td>
<td>7.4</td>
<td>36.8</td>
<td>54.4</td>
<td>100.0 (68)</td>
<td>4.44</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4.0</td>
<td>10.0</td>
<td>16.1</td>
<td>35.3</td>
<td>34.5</td>
<td>100.0 (249)</td>
<td>3.86</td>
</tr>
<tr>
<td>100~199만원</td>
<td>3.3</td>
<td>3.6</td>
<td>9.5</td>
<td>41.1</td>
<td>42.5</td>
<td>100.0 (275)</td>
<td>4.16</td>
</tr>
<tr>
<td>200~299만원</td>
<td>2.1</td>
<td>4.2</td>
<td>10.2</td>
<td>41.4</td>
<td>42.0</td>
<td>100.0 (333)</td>
<td>4.17</td>
</tr>
<tr>
<td>300~399만원</td>
<td>1.2</td>
<td>3.6</td>
<td>13.5</td>
<td>35.6</td>
<td>46.1</td>
<td>100.0 (334)</td>
<td>4.22</td>
</tr>
<tr>
<td>400~499만원</td>
<td>0.8</td>
<td>1.7</td>
<td>8.9</td>
<td>40.1</td>
<td>48.5</td>
<td>100.0 (237)</td>
<td>4.34</td>
</tr>
<tr>
<td>500~599만원</td>
<td>0.5</td>
<td>1.1</td>
<td>10.1</td>
<td>43.4</td>
<td>45.0</td>
<td>100.0 (189)</td>
<td>4.31</td>
</tr>
<tr>
<td>600~699만원</td>
<td>0.0</td>
<td>3.1</td>
<td>12.3</td>
<td>40.0</td>
<td>44.6</td>
<td>100.0 (170)</td>
<td>4.26</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1.2</td>
<td>2.4</td>
<td>5.3</td>
<td>32.9</td>
<td>58.2</td>
<td>100.0 (254)</td>
<td>4.45</td>
</tr>
</tbody>
</table>

주: 1) 80세 이상인 경우 46명이었으며, 70세 이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2)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3)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름.

다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별로 1인가구 형성에 대한 태도를 묻어본 결과, ‘미혼녀가 집에서 통학·통근이 가능한데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31.1%, 전혀 동의하지 않은 13.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동의한다는 응답에 비해 많았다. 평균점수는 2.72점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 남성인 경우 동의 정도가 더 높았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대체로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미혼인 경우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더 높았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곤란한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일용근로자가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400만원대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7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장 낮았다.
제4장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표 4-6] 일반특성별 ‘미혼남녀가 집에서 동학·동근이 가능한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13.5</td>
<td>31.1</td>
<td>29.2</td>
<td>22.1</td>
<td>4.2</td>
<td>100.0 (1,992)</td>
<td>2.72</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13.0</td>
<td>29.9</td>
<td>31.4</td>
<td>21.7</td>
<td>3.9</td>
<td>100.0 (938)</td>
<td>2.74</td>
</tr>
<tr>
<td>중소도시</td>
<td>12.6</td>
<td>32.0</td>
<td>29.5</td>
<td>21.8</td>
<td>4.2</td>
<td>100.0 (716)</td>
<td>2.73</td>
</tr>
<tr>
<td>농어촌</td>
<td>16.9</td>
<td>32.5</td>
<td>22.2</td>
<td>23.7</td>
<td>4.7</td>
<td>100.0 (338)</td>
<td>2.67</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4.6</td>
<td>31.7</td>
<td>29.3</td>
<td>20.3</td>
<td>4.2</td>
<td>100.0 (957)</td>
<td>2.68</td>
</tr>
<tr>
<td>여성</td>
<td>12.5</td>
<td>30.5</td>
<td>29.1</td>
<td>23.8</td>
<td>4.2</td>
<td>100.0 (1,035)</td>
<td>2.77</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6.9</td>
<td>18.8</td>
<td>46.3</td>
<td>24.8</td>
<td>3.3</td>
<td>100.0 (335)</td>
<td>2.99</td>
</tr>
<tr>
<td>30~39세</td>
<td>7.6</td>
<td>22.2</td>
<td>37.7</td>
<td>27.5</td>
<td>4.9</td>
<td>100.0 (432)</td>
<td>3.00</td>
</tr>
<tr>
<td>40~49세</td>
<td>14.5</td>
<td>34.0</td>
<td>24.6</td>
<td>21.7</td>
<td>5.3</td>
<td>100.0 (456)</td>
<td>2.69</td>
</tr>
<tr>
<td>50~59세</td>
<td>18.1</td>
<td>41.5</td>
<td>18.1</td>
<td>19.0</td>
<td>3.3</td>
<td>100.0 (364)</td>
<td>2.48</td>
</tr>
<tr>
<td>60~69세</td>
<td>18.9</td>
<td>39.2</td>
<td>21.1</td>
<td>18.5</td>
<td>2.2</td>
<td>100.0 (227)</td>
<td>2.46</td>
</tr>
<tr>
<td>70세 이상</td>
<td>21.3</td>
<td>36.5</td>
<td>20.8</td>
<td>15.7</td>
<td>5.6</td>
<td>100.0 (178)</td>
<td>2.48</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15.4</td>
<td>35.7</td>
<td>24.4</td>
<td>20.1</td>
<td>4.4</td>
<td>100.0 (1,310)</td>
<td>2.62</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19.0</td>
<td>28.2</td>
<td>24.5</td>
<td>24.5</td>
<td>3.7</td>
<td>100.0 (163)</td>
<td>2.66</td>
</tr>
<tr>
<td>미혼</td>
<td>6.9</td>
<td>20.2</td>
<td>42.8</td>
<td>26.4</td>
<td>3.7</td>
<td>100.0 (519)</td>
<td>3.00</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22.3</td>
<td>36.8</td>
<td>17.1</td>
<td>19.2</td>
<td>4.7</td>
<td>100.0 (193)</td>
<td>2.47</td>
</tr>
<tr>
<td>중학교</td>
<td>17.5</td>
<td>39.2</td>
<td>18.9</td>
<td>21.0</td>
<td>3.5</td>
<td>100.0 (143)</td>
<td>2.54</td>
</tr>
<tr>
<td>고등학교</td>
<td>14.4</td>
<td>33.3</td>
<td>28.4</td>
<td>19.1</td>
<td>4.9</td>
<td>100.0 (550)</td>
<td>2.67</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10.9</td>
<td>27.8</td>
<td>33.1</td>
<td>24.4</td>
<td>3.8</td>
<td>100.0 (1,100)</td>
<td>2.82</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13.4</td>
<td>31.5</td>
<td>29.5</td>
<td>21.8</td>
<td>3.9</td>
<td>100.0 (1,240)</td>
<td>2.71</td>
</tr>
<tr>
<td>비취업</td>
<td>13.7</td>
<td>30.5</td>
<td>28.6</td>
<td>22.6</td>
<td>4.7</td>
<td>100.0 (752)</td>
<td>2.74</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주</td>
<td>15.5</td>
<td>31.4</td>
<td>24.3</td>
<td>23.5</td>
<td>5.3</td>
<td>100.0 (226)</td>
<td>2.72</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주</td>
<td>19.0</td>
<td>33.3</td>
<td>24.5</td>
<td>19.0</td>
<td>4.1</td>
<td>100.0 (147)</td>
<td>2.56</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11.2</td>
<td>27.6</td>
<td>34.7</td>
<td>23.0</td>
<td>3.6</td>
<td>100.0 (617)</td>
<td>2.80</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14.6</td>
<td>40.2</td>
<td>26.8</td>
<td>17.1</td>
<td>1.2</td>
<td>100.0 (82)</td>
<td>2.50</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7.7</td>
<td>46.2</td>
<td>20.9</td>
<td>22.0</td>
<td>3.3</td>
<td>100.0 (91)</td>
<td>2.67</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11.1</td>
<td>66.7</td>
<td>22.2</td>
<td>0.0</td>
<td>0.0</td>
<td>100.0 (9)</td>
<td>2.11</td>
</tr>
<tr>
<td>기타</td>
<td>20.9</td>
<td>28.4</td>
<td>25.4</td>
<td>19.4</td>
<td>6.0</td>
<td>100.0 (67)</td>
<td>2.61</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99만원 이하</td>
<td>15.6</td>
<td>34.8</td>
<td>23.4</td>
<td>20.9</td>
<td>5.3</td>
<td>100.0 (244)</td>
</tr>
<tr>
<td>100-199만원</td>
<td>14.3</td>
<td>31.5</td>
<td>24.9</td>
<td>23.8</td>
<td>5.5</td>
<td>100.0 (273)</td>
<td>2.75</td>
</tr>
<tr>
<td>200-299만원</td>
<td>11.7</td>
<td>28.3</td>
<td>34.9</td>
<td>22.3</td>
<td>2.7</td>
<td>100.0 (332)</td>
<td>2.76</td>
</tr>
<tr>
<td>300-399만원</td>
<td>13.7</td>
<td>30.1</td>
<td>30.7</td>
<td>20.9</td>
<td>4.5</td>
<td>100.0 (335)</td>
<td>2.72</td>
</tr>
<tr>
<td>400-499만원</td>
<td>12.2</td>
<td>26.6</td>
<td>30.0</td>
<td>26.6</td>
<td>4.6</td>
<td>100.0 (237)</td>
<td>2.85</td>
</tr>
<tr>
<td>500-599만원</td>
<td>12.2</td>
<td>41.3</td>
<td>22.2</td>
<td>21.2</td>
<td>3.2</td>
<td>100.0 (189)</td>
<td>2.62</td>
</tr>
<tr>
<td>600-699만원</td>
<td>13.8</td>
<td>29.2</td>
<td>30.8</td>
<td>21.5</td>
<td>4.6</td>
<td>100.0 (165)</td>
<td>2.74</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20.6</td>
<td>38.2</td>
<td>22.4</td>
<td>16.5</td>
<td>2.4</td>
<td>100.0 (170)</td>
<td>2.42</td>
</tr>
</tbody>
</table>

주: 1) 80세 이상인 경우 44명이었으며, 70세 이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2)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3)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이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36.4%)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34.6%)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2.99점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인 경우 동의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낮았고,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동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다. 취업여부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나 임시근로자인 경우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가 곤란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일용근로자가 동의 정도가 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99만원 이하가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고, 600만원 대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표 4-7 일반특성별 ‘이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9.4</td>
<td>25.2</td>
<td>29.0</td>
<td>29.4</td>
<td>7.0</td>
<td>100.0 (1,978)</td>
<td>2.99</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8.8</td>
<td>25.2</td>
<td>30.4</td>
<td>29.0</td>
<td>6.5</td>
<td>100.0 (933)</td>
<td>2.99</td>
</tr>
<tr>
<td>중소도시</td>
<td>9.7</td>
<td>23.6</td>
<td>28.6</td>
<td>30.9</td>
<td>7.2</td>
<td>100.0 (711)</td>
<td>3.02</td>
</tr>
<tr>
<td>농어촌</td>
<td>10.2</td>
<td>28.7</td>
<td>26.0</td>
<td>26.9</td>
<td>8.1</td>
<td>100.0 (334)</td>
<td>2.94</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2.1</td>
<td>29.9</td>
<td>29.4</td>
<td>22.6</td>
<td>6.0</td>
<td>100.0 (952)</td>
<td>2.80</td>
</tr>
<tr>
<td>여성</td>
<td>6.8</td>
<td>20.9</td>
<td>28.7</td>
<td>35.7</td>
<td>8.0</td>
<td>100.0 (1,026)</td>
<td>3.17</td>
</tr>
<tr>
<td>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5.7</td>
<td>21.8</td>
<td>40.9</td>
<td>26.9</td>
<td>4.8</td>
<td>100.0 (335)</td>
<td>3.03</td>
</tr>
<tr>
<td>30-39세</td>
<td>7.2</td>
<td>16.0</td>
<td>33.4</td>
<td>35.3</td>
<td>8.1</td>
<td>100.0 (431)</td>
<td>3.21</td>
</tr>
<tr>
<td>40-49세</td>
<td>8.6</td>
<td>25.1</td>
<td>27.5</td>
<td>30.6</td>
<td>8.1</td>
<td>100.0 (454)</td>
<td>3.05</td>
</tr>
<tr>
<td>50-59세</td>
<td>9.2</td>
<td>33.1</td>
<td>23.3</td>
<td>26.9</td>
<td>7.5</td>
<td>100.0 (360)</td>
<td>2.91</td>
</tr>
<tr>
<td>60-69세</td>
<td>12.9</td>
<td>29.8</td>
<td>22.7</td>
<td>30.7</td>
<td>4.0</td>
<td>100.0 (225)</td>
<td>2.83</td>
</tr>
<tr>
<td>70세 이상</td>
<td>19.7</td>
<td>32.9</td>
<td>19.1</td>
<td>19.7</td>
<td>8.7</td>
<td>100.0 (173)</td>
<td>2.65</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10.0</td>
<td>27.8</td>
<td>28.8</td>
<td>25.3</td>
<td>8.1</td>
<td>100.0 (1,300)</td>
<td>2.96</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10.6</td>
<td>25.6</td>
<td>22.5</td>
<td>33.1</td>
<td>8.1</td>
<td>100.0 (160)</td>
<td>3.03</td>
</tr>
<tr>
<td>미혼</td>
<td>7.3</td>
<td>18.7</td>
<td>38.4</td>
<td>29.7</td>
<td>5.8</td>
<td>100.0 (518)</td>
<td>3.08</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16.1</td>
<td>28.0</td>
<td>22.6</td>
<td>25.3</td>
<td>8.1</td>
<td>100.0 (186)</td>
<td>2.81</td>
</tr>
<tr>
<td>중학교</td>
<td>15.6</td>
<td>29.1</td>
<td>21.3</td>
<td>27.0</td>
<td>7.1</td>
<td>100.0 (141)</td>
<td>2.81</td>
</tr>
<tr>
<td>고등학교</td>
<td>11.5</td>
<td>26.6</td>
<td>27.7</td>
<td>26.4</td>
<td>7.9</td>
<td>100.0 (546)</td>
<td>2.92</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6.4</td>
<td>23.7</td>
<td>31.8</td>
<td>31.8</td>
<td>6.4</td>
<td>100.0 (1,099)</td>
<td>3.08</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8.9</td>
<td>26.1</td>
<td>29.9</td>
<td>28.1</td>
<td>7.0</td>
<td>100.0 (1,237)</td>
<td>2.98</td>
</tr>
<tr>
<td>비취업</td>
<td>10.1</td>
<td>23.8</td>
<td>27.5</td>
<td>31.4</td>
<td>7.2</td>
<td>100.0 (741)</td>
<td>3.02</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지영자</td>
<td>10.2</td>
<td>29.3</td>
<td>23.1</td>
<td>26.2</td>
<td>11.1</td>
<td>100.0 (225)</td>
<td>2.99</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지영자·사업주</td>
<td>14.3</td>
<td>27.9</td>
<td>19.0</td>
<td>31.3</td>
<td>7.5</td>
<td>100.0 (147)</td>
<td>2.90</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6.7</td>
<td>23.4</td>
<td>34.7</td>
<td>29.1</td>
<td>6.2</td>
<td>100.0 (616)</td>
<td>3.05</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12.3</td>
<td>22.2</td>
<td>34.6</td>
<td>28.4</td>
<td>2.5</td>
<td>100.0 (81)</td>
<td>2.86</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4.3</td>
<td>30.4</td>
<td>29.3</td>
<td>28.3</td>
<td>7.6</td>
<td>100.0 (92)</td>
<td>3.04</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22.2</td>
<td>44.4</td>
<td>33.3</td>
<td>0.0</td>
<td>0.0</td>
<td>100.0 (9)</td>
<td>2.11</td>
</tr>
<tr>
<td>기타</td>
<td>13.6</td>
<td>33.3</td>
<td>27.3</td>
<td>21.2</td>
<td>4.5</td>
<td>100.0 (66)</td>
<td>2.70</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15.2</td>
<td>27.4</td>
<td>20.7</td>
<td>30.4</td>
<td>6.3</td>
<td>100.0 (237)</td>
<td>2.85</td>
</tr>
<tr>
<td>100~199만원</td>
<td>8.8</td>
<td>28.2</td>
<td>27.8</td>
<td>27.5</td>
<td>7.7</td>
<td>100.0 (273)</td>
<td>2.97</td>
</tr>
<tr>
<td>200~299만원</td>
<td>8.8</td>
<td>27.5</td>
<td>32.0</td>
<td>22.7</td>
<td>9.1</td>
<td>100.0 (331)</td>
<td>2.96</td>
</tr>
<tr>
<td>300~399만원</td>
<td>9.3</td>
<td>21.9</td>
<td>31.8</td>
<td>30.3</td>
<td>6.6</td>
<td>100.0 (333)</td>
<td>3.03</td>
</tr>
<tr>
<td>400~499만원</td>
<td>10.3</td>
<td>25.6</td>
<td>25.2</td>
<td>33.3</td>
<td>5.6</td>
<td>100.0 (234)</td>
<td>2.98</td>
</tr>
<tr>
<td>500~599만원</td>
<td>7.9</td>
<td>27.5</td>
<td>23.3</td>
<td>37.0</td>
<td>4.2</td>
<td>100.0 (189)</td>
<td>3.02</td>
</tr>
<tr>
<td>600~699만원</td>
<td>6.2</td>
<td>18.5</td>
<td>38.5</td>
<td>27.7</td>
<td>9.2</td>
<td>100.0 (65)</td>
<td>3.15</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7.6</td>
<td>25.9</td>
<td>29.4</td>
<td>28.8</td>
<td>8.2</td>
<td>100.0 (170)</td>
<td>3.04</td>
</tr>
</tbody>
</table>

주: 1) 80세 이상인 경우 43명이었으며, 70세 이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2)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음을 의미함.
3)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건강한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3.3% 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6.5%이 비해 훨씬 많았다. 평균점수는 3.33점이다.

농어촌인 경우, 여성인 경우 동의 정도가 높았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 할수록 동의 정도가 높아졌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한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미혼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음수록 동의 정도가 대체로 낮은 경향을 보이 며, 비취업자의 경우 동의 정도가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가 곤란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임시근로자가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 주인 경우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99만원 이하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200만원대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제4장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 93

표 4-8 일반특성별 '건강한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6.7</td>
<td>19.8</td>
<td>20.3</td>
<td>40.1</td>
<td>13.2</td>
<td>100.0 (1,998)</td>
<td>3.33</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6.4</td>
<td>20.0</td>
<td>22.4</td>
<td>38.2</td>
<td>13.0</td>
<td>100.0 ( 939)</td>
<td>3.31</td>
</tr>
<tr>
<td>중소도시</td>
<td>6.8</td>
<td>20.4</td>
<td>18.2</td>
<td>43.2</td>
<td>11.5</td>
<td>100.0 ( 716)</td>
<td>3.32</td>
</tr>
<tr>
<td>농어촌</td>
<td>7.0</td>
<td>17.8</td>
<td>19.0</td>
<td>39.1</td>
<td>17.2</td>
<td>100.0 ( 343)</td>
<td>3.42</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0.6</td>
<td>27.5</td>
<td>23.5</td>
<td>30.8</td>
<td>7.6</td>
<td>100.0 ( 957)</td>
<td>2.97</td>
</tr>
<tr>
<td>여성</td>
<td>3.1</td>
<td>12.7</td>
<td>17.3</td>
<td>48.7</td>
<td>18.3</td>
<td>100.0 (1,041)</td>
<td>3.66</td>
</tr>
<tr>
<td>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6.6</td>
<td>30.7</td>
<td>26.3</td>
<td>31.6</td>
<td>4.8</td>
<td>100.0 ( 335)</td>
<td>2.97</td>
</tr>
<tr>
<td>30-39세</td>
<td>6.9</td>
<td>20.1</td>
<td>25.9</td>
<td>37.6</td>
<td>9.5</td>
<td>100.0 ( 433)</td>
<td>3.23</td>
</tr>
<tr>
<td>40-49세</td>
<td>6.1</td>
<td>18.0</td>
<td>22.1</td>
<td>39.7</td>
<td>14.0</td>
<td>100.0 ( 456)</td>
<td>3.38</td>
</tr>
<tr>
<td>50-59세</td>
<td>7.7</td>
<td>14.0</td>
<td>14.8</td>
<td>49.2</td>
<td>14.3</td>
<td>100.0 ( 364)</td>
<td>3.48</td>
</tr>
<tr>
<td>60-69세</td>
<td>3.9</td>
<td>18.4</td>
<td>11.0</td>
<td>46.5</td>
<td>20.2</td>
<td>100.0 ( 228)</td>
<td>3.61</td>
</tr>
<tr>
<td>70세 이상</td>
<td>8.8</td>
<td>16.5</td>
<td>13.7</td>
<td>36.8</td>
<td>24.2</td>
<td>100.0 ( 182)</td>
<td>3.51</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6.5</td>
<td>17.8</td>
<td>17.3</td>
<td>44.0</td>
<td>14.4</td>
<td>100.0 (1,312)</td>
<td>3.42</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5.4</td>
<td>9.6</td>
<td>15.0</td>
<td>43.1</td>
<td>26.9</td>
<td>100.0 ( 167)</td>
<td>3.77</td>
</tr>
<tr>
<td>미혼</td>
<td>7.5</td>
<td>27.9</td>
<td>29.5</td>
<td>29.5</td>
<td>5.6</td>
<td>100.0 ( 519)</td>
<td>2.98</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7.6</td>
<td>14.6</td>
<td>11.1</td>
<td>43.9</td>
<td>22.7</td>
<td>100.0 ( 198)</td>
<td>3.60</td>
</tr>
<tr>
<td>중학교</td>
<td>7.6</td>
<td>17.4</td>
<td>10.4</td>
<td>44.4</td>
<td>20.1</td>
<td>100.0 ( 144)</td>
<td>3.52</td>
</tr>
<tr>
<td>고등학교</td>
<td>8.3</td>
<td>21.4</td>
<td>20.5</td>
<td>36.7</td>
<td>13.1</td>
<td>100.0 ( 551)</td>
<td>3.25</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5.5</td>
<td>20.2</td>
<td>23.1</td>
<td>40.6</td>
<td>10.6</td>
<td>100.0 (1,099)</td>
<td>3.31</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7.8</td>
<td>21.3</td>
<td>22.5</td>
<td>37.6</td>
<td>10.8</td>
<td>100.0 (1,244)</td>
<td>3.22</td>
</tr>
<tr>
<td>비취업</td>
<td>4.8</td>
<td>17.2</td>
<td>16.6</td>
<td>44.3</td>
<td>17.1</td>
<td>100.0 ( 754)</td>
<td>3.52</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8.4</td>
<td>23.3</td>
<td>22.0</td>
<td>38.3</td>
<td>7.9</td>
<td>100.0 ( 227)</td>
<td>3.14</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13.0</td>
<td>23.3</td>
<td>14.4</td>
<td>37.0</td>
<td>12.3</td>
<td>100.0 ( 146)</td>
<td>3.12</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6.5</td>
<td>22.2</td>
<td>26.1</td>
<td>35.9</td>
<td>9.4</td>
<td>100.0 ( 618)</td>
<td>3.20</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10.8</td>
<td>15.7</td>
<td>18.1</td>
<td>41.0</td>
<td>14.5</td>
<td>100.0 ( 83)</td>
<td>3.33</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6.5</td>
<td>18.5</td>
<td>17.4</td>
<td>40.2</td>
<td>17.4</td>
<td>100.0 ( 92)</td>
<td>3.43</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0.0</td>
<td>22.2</td>
<td>11.1</td>
<td>44.4</td>
<td>22.2</td>
<td>100.0 (  9)</td>
<td>3.67</td>
</tr>
<tr>
<td>기타</td>
<td>5.9</td>
<td>13.2</td>
<td>22.1</td>
<td>44.1</td>
<td>14.7</td>
<td>100.0 ( 68)</td>
<td>3.49</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6.5</td>
<td>16.1</td>
<td>15.3</td>
<td>41.5</td>
<td>20.6</td>
<td>100.0 (248)</td>
<td>3.54</td>
</tr>
<tr>
<td>100-199만원</td>
<td>6.9</td>
<td>17.1</td>
<td>20.7</td>
<td>40.4</td>
<td>14.9</td>
<td>100.0 (275)</td>
<td>3.39</td>
</tr>
<tr>
<td>200-299만원</td>
<td>10.8</td>
<td>22.8</td>
<td>18.6</td>
<td>36.3</td>
<td>11.4</td>
<td>100.0 (333)</td>
<td>3.15</td>
</tr>
<tr>
<td>300-399만원</td>
<td>5.1</td>
<td>21.5</td>
<td>22.4</td>
<td>38.5</td>
<td>12.5</td>
<td>100.0 (335)</td>
<td>3.32</td>
</tr>
<tr>
<td>400-499만원</td>
<td>5.9</td>
<td>20.3</td>
<td>19.0</td>
<td>41.4</td>
<td>13.5</td>
<td>100.0 (237)</td>
<td>3.36</td>
</tr>
<tr>
<td>500-599만원</td>
<td>5.3</td>
<td>17.5</td>
<td>22.2</td>
<td>45.5</td>
<td>9.5</td>
<td>100.0 (189)</td>
<td>3.37</td>
</tr>
<tr>
<td>600-699만원</td>
<td>3.1</td>
<td>21.5</td>
<td>23.1</td>
<td>36.9</td>
<td>15.4</td>
<td>100.0 (65)</td>
<td>3.40</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7.7</td>
<td>21.3</td>
<td>17.2</td>
<td>42.6</td>
<td>11.2</td>
<td>100.0 (169)</td>
<td>3.28</td>
</tr>
</tbody>
</table>

주: 1) 80세 이상인 경우 46명이었으며, 70대 이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2)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음을 의미함.
3) 무응답은 제외하였습니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8%로 동의한다는 응답 7.8%에 비해 훨씬 많았다. 평균점수는 1.98점으로 건강한 노인의 독거의 3.33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았으며,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정도가 높아졌다. 70대 이상인 경우 직접적으로 이 질문에 해당하는 대상자일 수 있어 동의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취업자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 상용근로자인 경우 동의 정도가 낮았으며 일용근로자나 임시근로자인 경우 동의 정도가 높았다.
제4장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 95

〈표 4-9〉 일반특성별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체 통계</th>
<th>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33.6</td>
<td>43.5</td>
<td>16.0</td>
<td>6.5</td>
<td>0.4</td>
<td>100.0 (940)</td>
<td>1.97</td>
<td></td>
</tr>
<tr>
<td>중소도시</td>
<td>31.7</td>
<td>47.2</td>
<td>13.1</td>
<td>6.0</td>
<td>2.0</td>
<td>100.0 (716)</td>
<td>1.99</td>
<td></td>
</tr>
<tr>
<td>농어촌</td>
<td>33.3</td>
<td>44.2</td>
<td>13.2</td>
<td>7.9</td>
<td>1.5</td>
<td>100.0 (342)</td>
<td>2.00</td>
<td></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40.9</td>
<td>42.3</td>
<td>10.9</td>
<td>4.9</td>
<td>1.0</td>
<td>100.0 (958)</td>
<td>1.83</td>
<td></td>
</tr>
<tr>
<td>여성</td>
<td>25.5</td>
<td>47.4</td>
<td>17.8</td>
<td>8.1</td>
<td>1.3</td>
<td>100.0 (1,040)</td>
<td>2.12</td>
<td></td>
</tr>
<tr>
<td>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36.1</td>
<td>48.7</td>
<td>13.4</td>
<td>1.8</td>
<td>0.0</td>
<td>100.0 (335)</td>
<td>1.81</td>
<td></td>
</tr>
<tr>
<td>30~39세</td>
<td>33.8</td>
<td>46.3</td>
<td>14.8</td>
<td>4.2</td>
<td>0.9</td>
<td>100.0 (432)</td>
<td>1.92</td>
<td></td>
</tr>
<tr>
<td>40~49세</td>
<td>30.0</td>
<td>45.4</td>
<td>19.3</td>
<td>4.4</td>
<td>0.9</td>
<td>100.0 (456)</td>
<td>2.01</td>
<td></td>
</tr>
<tr>
<td>50~59세</td>
<td>33.0</td>
<td>45.6</td>
<td>10.7</td>
<td>9.9</td>
<td>0.8</td>
<td>100.0 (364)</td>
<td>2.00</td>
<td></td>
</tr>
<tr>
<td>60~69세</td>
<td>24.6</td>
<td>43.4</td>
<td>12.3</td>
<td>16.2</td>
<td>3.5</td>
<td>100.0 (228)</td>
<td>2.31</td>
<td></td>
</tr>
<tr>
<td>70세 이상</td>
<td>42.1</td>
<td>34.4</td>
<td>13.7</td>
<td>7.7</td>
<td>2.2</td>
<td>100.0 (183)</td>
<td>1.93</td>
<td></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30.0</td>
<td>46.3</td>
<td>14.5</td>
<td>7.9</td>
<td>1.4</td>
<td>100.0 (1,312)</td>
<td>2.04</td>
<td></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38.3</td>
<td>34.1</td>
<td>15.0</td>
<td>10.2</td>
<td>2.4</td>
<td>100.0 (167)</td>
<td>2.04</td>
<td></td>
</tr>
<tr>
<td>미혼</td>
<td>38.3</td>
<td>45.1</td>
<td>14.3</td>
<td>2.1</td>
<td>0.2</td>
<td>100.0 (519)</td>
<td>1.81</td>
<td></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35.9</td>
<td>36.9</td>
<td>11.6</td>
<td>12.6</td>
<td>3.0</td>
<td>100.0 (198)</td>
<td>2.10</td>
<td></td>
</tr>
<tr>
<td>중학교</td>
<td>32.2</td>
<td>40.6</td>
<td>14.0</td>
<td>12.6</td>
<td>0.7</td>
<td>100.0 (143)</td>
<td>2.09</td>
<td></td>
</tr>
<tr>
<td>고등학교</td>
<td>34.4</td>
<td>43.1</td>
<td>13.2</td>
<td>8.0</td>
<td>1.3</td>
<td>100.0 (552)</td>
<td>1.99</td>
<td></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31.6</td>
<td>47.9</td>
<td>15.7</td>
<td>4.0</td>
<td>0.8</td>
<td>100.0 (1,099)</td>
<td>1.95</td>
<td></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35.2</td>
<td>46.1</td>
<td>12.5</td>
<td>5.1</td>
<td>1.1</td>
<td>100.0 (1,244)</td>
<td>1.91</td>
<td></td>
</tr>
<tr>
<td>비취업</td>
<td>29.0</td>
<td>43.1</td>
<td>17.6</td>
<td>9.0</td>
<td>1.2</td>
<td>100.0 (754)</td>
<td>2.10</td>
<td></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44.1</td>
<td>44.5</td>
<td>8.4</td>
<td>2.6</td>
<td>0.4</td>
<td>100.0 (227)</td>
<td>1.71</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38.1</td>
<td>45.6</td>
<td>12.2</td>
<td>3.4</td>
<td>0.7</td>
<td>100.0 (147)</td>
<td>1.83</td>
<td></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34.2</td>
<td>45.5</td>
<td>13.8</td>
<td>5.2</td>
<td>1.3</td>
<td>100.0 (617)</td>
<td>1.94</td>
<td></td>
</tr>
<tr>
<td>임용근로자</td>
<td>28.9</td>
<td>48.2</td>
<td>12.0</td>
<td>9.6</td>
<td>1.2</td>
<td>100.0 (83)</td>
<td>2.06</td>
<td></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21.7</td>
<td>52.2</td>
<td>16.3</td>
<td>7.6</td>
<td>2.2</td>
<td>100.0 (92)</td>
<td>2.16</td>
<td></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22.2</td>
<td>77.8</td>
<td>0.0</td>
<td>0.0</td>
<td>0.0</td>
<td>100.0 (9)</td>
<td>1.78</td>
<td></td>
</tr>
<tr>
<td>기타</td>
<td>36.8</td>
<td>42.6</td>
<td>11.8</td>
<td>7.4</td>
<td>1.5</td>
<td>100.0 (68)</td>
<td>1.94</td>
<td></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99만원 이하</td>
<td>33.7</td>
<td>39.8</td>
<td>12.9</td>
<td>11.6</td>
<td>2.0</td>
<td>100.0 (249)</td>
</tr>
<tr>
<td></td>
<td>100-199만원</td>
<td>37.5</td>
<td>40.0</td>
<td>12.4</td>
<td>8.7</td>
<td>1.5</td>
<td>100.0 (275)</td>
</tr>
<tr>
<td></td>
<td>200-299만원</td>
<td>31.8</td>
<td>48.6</td>
<td>13.8</td>
<td>5.7</td>
<td>0.0</td>
<td>100.0 (333)</td>
</tr>
<tr>
<td></td>
<td>300-399만원</td>
<td>32.6</td>
<td>46.1</td>
<td>14.4</td>
<td>5.1</td>
<td>1.8</td>
<td>100.0 (344)</td>
</tr>
<tr>
<td></td>
<td>400-499만원</td>
<td>33.8</td>
<td>44.7</td>
<td>15.2</td>
<td>5.9</td>
<td>0.4</td>
<td>100.0 (237)</td>
</tr>
<tr>
<td></td>
<td>500-599만원</td>
<td>27.7</td>
<td>50.0</td>
<td>16.5</td>
<td>5.3</td>
<td>0.5</td>
<td>100.0 (188)</td>
</tr>
<tr>
<td></td>
<td>600-699만원</td>
<td>35.4</td>
<td>36.9</td>
<td>24.6</td>
<td>3.1</td>
<td>0.0</td>
<td>100.0 (65)</td>
</tr>
<tr>
<td></td>
<td>700만원 이상</td>
<td>33.5</td>
<td>45.3</td>
<td>11.8</td>
<td>7.1</td>
<td>2.4</td>
<td>100.0 (170)</td>
</tr>
</tbody>
</table>

주: 1) 80세 이상인 경우 46명이었으며, 70세 이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2)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3)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전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혼자 생활하는 것이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4.20)가 가장 높았으며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는 것이 낫다’에 대한 동의 정도(2.84)가 가장 낮았다. 여러 상황별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건강한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3.33)가 가장 높았고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1.98)가 가장 낮았다. 집단별로는 여성, 도시 지역 거주자,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대체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3.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85.5%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
만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여성인 경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인 경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20대의 경우 응답이 적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은 반면 미혼인 경우 가장 낮았고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비취업자인 경우 동의의 정도가 낮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곤란한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고용인이 없는 지역이나 고용인이 있는 지역에 사업주, 상용근로자인 경우 관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높은 반면 임시근로자나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400만원대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높아졌으나, 그 이상인 경우 동의의 정도가 약간 감소했다.

〈표 4-10〉 일반특성별 1인가구 증가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만</th>
<th>그렇지 않다</th>
<th>그럴 필요 없다</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1.2</td>
<td>1.8</td>
<td>11.5</td>
<td>28.8</td>
<td>56.7</td>
<td>100.0 (1,992)</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1.6</td>
<td>1.5</td>
<td>10.9</td>
<td>30.5</td>
<td>55.5</td>
<td>100.0 (937)</td>
</tr>
<tr>
<td>중소도시</td>
<td>0.7</td>
<td>2.2</td>
<td>10.1</td>
<td>29.4</td>
<td>57.6</td>
<td>100.0 (715)</td>
</tr>
<tr>
<td>농어촌</td>
<td>1.2</td>
<td>1.8</td>
<td>16.5</td>
<td>22.6</td>
<td>57.9</td>
<td>100.0 (340)</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9</td>
<td>2.3</td>
<td>11.3</td>
<td>23.2</td>
<td>61.3</td>
<td>100.0 (956)</td>
</tr>
<tr>
<td>여성</td>
<td>0.6</td>
<td>1.4</td>
<td>11.8</td>
<td>33.9</td>
<td>52.4</td>
<td>100.0 (1,036)</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8</td>
<td>3.6</td>
<td>16.7</td>
<td>33.1</td>
<td>44.8</td>
<td>100.0 (335)</td>
</tr>
<tr>
<td>30~39세</td>
<td>0.7</td>
<td>1.4</td>
<td>14.1</td>
<td>30.5</td>
<td>53.3</td>
<td>100.0 (433)</td>
</tr>
<tr>
<td>40~49세</td>
<td>0.4</td>
<td>1.1</td>
<td>8.6</td>
<td>28.8</td>
<td>61.1</td>
<td>100.0 (455)</td>
</tr>
<tr>
<td>50~59세</td>
<td>2.2</td>
<td>0.8</td>
<td>5.8</td>
<td>27.6</td>
<td>63.5</td>
<td>100.0 (362)</td>
</tr>
<tr>
<td>60~69세</td>
<td>0.9</td>
<td>2.6</td>
<td>12.3</td>
<td>26.3</td>
<td>57.9</td>
<td>100.0 (228)</td>
</tr>
<tr>
<td>70세 이상</td>
<td>1.6</td>
<td>2.2</td>
<td>13.7</td>
<td>21.3</td>
<td>59.0</td>
<td>100.0 (179)</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그럴 필요 없다</th>
<th>그럴 필요 없다</th>
<th>그저 그렇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결혼상태</td>
<td>유배우(동거)</td>
<td>1.2</td>
<td>1.4</td>
<td>9.6</td>
<td>27.3</td>
<td>60.6</td>
<td>100.0 (1,308)</td>
</tr>
<tr>
<td></td>
<td>이혼,별거,사별</td>
<td>1.2</td>
<td>1.2</td>
<td>13.9</td>
<td>25.5</td>
<td>58.2</td>
<td>100.0 (165)</td>
</tr>
<tr>
<td></td>
<td>미혼</td>
<td>1.2</td>
<td>3.1</td>
<td>15.8</td>
<td>33.5</td>
<td>46.4</td>
<td>100.0 (519)</td>
</tr>
<tr>
<td>교육수준</td>
<td>초등학교 이하</td>
<td>2.6</td>
<td>2.6</td>
<td>14.0</td>
<td>25.4</td>
<td>55.4</td>
<td>100.0 (193)</td>
</tr>
<tr>
<td></td>
<td>중학교</td>
<td>1.4</td>
<td>2.8</td>
<td>7.0</td>
<td>32.2</td>
<td>56.6</td>
<td>100.0 (143)</td>
</tr>
<tr>
<td></td>
<td>고등학교</td>
<td>1.5</td>
<td>2.4</td>
<td>11.6</td>
<td>25.4</td>
<td>59.2</td>
<td>100.0 (551)</td>
</tr>
<tr>
<td></td>
<td>(전문)대학 이상</td>
<td>0.8</td>
<td>1.2</td>
<td>11.6</td>
<td>30.7</td>
<td>55.7</td>
<td>100.0 (1,099)</td>
</tr>
<tr>
<td>근로여부</td>
<td>취업</td>
<td>1.1</td>
<td>1.9</td>
<td>10.6</td>
<td>27.1</td>
<td>59.3</td>
<td>100.0 (1,242)</td>
</tr>
<tr>
<td></td>
<td>비취업</td>
<td>1.3</td>
<td>1.7</td>
<td>13.1</td>
<td>31.6</td>
<td>52.3</td>
<td>100.0 (750)</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1.3</td>
<td>2.2</td>
<td>7.0</td>
<td>25.1</td>
<td>64.3</td>
<td>100.0 (227)</td>
</tr>
<tr>
<td></td>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1.4</td>
<td>2.1</td>
<td>8.9</td>
<td>24.7</td>
<td>63.0</td>
<td>100.0 (146)</td>
</tr>
<tr>
<td></td>
<td>상용근로자</td>
<td>0.8</td>
<td>1.3</td>
<td>11.2</td>
<td>29.0</td>
<td>57.7</td>
<td>100.0 (617)</td>
</tr>
<tr>
<td></td>
<td>임용근로자</td>
<td>2.4</td>
<td>3.6</td>
<td>9.6</td>
<td>25.3</td>
<td>59.0</td>
<td>100.0 (83)</td>
</tr>
<tr>
<td></td>
<td>임시근로자</td>
<td>0.0</td>
<td>4.4</td>
<td>19.8</td>
<td>28.6</td>
<td>47.3</td>
<td>100.0 (91)</td>
</tr>
<tr>
<td></td>
<td>무급가족종사자</td>
<td>0.0</td>
<td>0.0</td>
<td>0.0</td>
<td>22.2</td>
<td>77.8</td>
<td>100.0 (9)</td>
</tr>
<tr>
<td></td>
<td>기타</td>
<td>2.9</td>
<td>0.0</td>
<td>11.8</td>
<td>20.6</td>
<td>64.7</td>
<td>100.0 (68)</td>
</tr>
<tr>
<td>가구소득</td>
<td>99만원 이하</td>
<td>2.0</td>
<td>2.9</td>
<td>12.7</td>
<td>29.4</td>
<td>53.1</td>
<td>100.0 (245)</td>
</tr>
<tr>
<td></td>
<td>100-199만원</td>
<td>1.8</td>
<td>1.5</td>
<td>14.7</td>
<td>27.8</td>
<td>54.2</td>
<td>100.0 (273)</td>
</tr>
<tr>
<td></td>
<td>200-299만원</td>
<td>1.5</td>
<td>1.2</td>
<td>9.6</td>
<td>29.7</td>
<td>58.0</td>
<td>100.0 (333)</td>
</tr>
<tr>
<td></td>
<td>300-399만원</td>
<td>0.9</td>
<td>2.7</td>
<td>9.9</td>
<td>29.0</td>
<td>57.5</td>
<td>100.0 (334)</td>
</tr>
<tr>
<td></td>
<td>400-499만원</td>
<td>1.3</td>
<td>0.8</td>
<td>6.8</td>
<td>30.0</td>
<td>61.2</td>
<td>100.0 (237)</td>
</tr>
<tr>
<td></td>
<td>500-599만원</td>
<td>0.5</td>
<td>2.1</td>
<td>11.1</td>
<td>28.0</td>
<td>58.2</td>
<td>100.0 (189)</td>
</tr>
<tr>
<td></td>
<td>600-699만원</td>
<td>0.0</td>
<td>0.0</td>
<td>20.0</td>
<td>23.1</td>
<td>56.9</td>
<td>100.0 (65)</td>
</tr>
<tr>
<td></td>
<td>700만원 이상</td>
<td>0.6</td>
<td>1.8</td>
<td>8.9</td>
<td>26.6</td>
<td>62.1</td>
<td>100.0 (169)</td>
</tr>
</tbody>
</table>

주: 1) 80세 이상인 경우 44명이었으며, 70대 이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2) 평균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많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그런 편이라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표기하였으며, 점수가 높음수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함.
3)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각 집단별로 혼자 살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지에 대해 20대 이상 성인 2,000명이 예상하여 응답한 내용은 <표 4-11>에 있다. 먼저 20~30대 청년층이 혼자 살 경우 경제적 불안정이 힘들 것이라는 응답이 2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 21.6%, 외로움 21.7%, 가사일 12.2%, 안전에 대한 걱정 7.5%,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6.3%, 노후에 대한 불안감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40~50대 중년층의 경우에는 외로움이 힘들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불안정 22.2%,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 20.7%, 노후에 대한 불안감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혼자 살 경우에는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이 4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외로움 26.1%, 경제적 불안정 18.2% 등의 순이다.

즉, 우리나라 성인은 청년층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 중년층 1인가구는 외로움, 노년층 1인가구는 건강 관련 사항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표 4-11 혼자 살 경우 예상되는 힘든 점(연령대별)

<table>
<thead>
<tr>
<th>예상되는 어려움</th>
<th>대상</th>
<th>20-30대 청년층</th>
<th>40-50대 중년층</th>
<th>60대 이상 노년층</th>
</tr>
</thead>
<tbody>
<tr>
<td>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td>
<td>21.6</td>
<td>20.7</td>
<td>41.2</td>
<td></td>
</tr>
<tr>
<td>가사일</td>
<td>12.2</td>
<td>5.1</td>
<td>3.1</td>
<td></td>
</tr>
<tr>
<td>경제적 불안정</td>
<td>26.0</td>
<td>22.2</td>
<td>18.2</td>
<td></td>
</tr>
<tr>
<td>안전에 대한 걱정</td>
<td>7.5</td>
<td>2.3</td>
<td>2.9</td>
<td></td>
</tr>
<tr>
<td>외로움</td>
<td>21.7</td>
<td>34.3</td>
<td>26.1</td>
<td></td>
</tr>
<tr>
<td>노후에 대한 불안감</td>
<td>4.8</td>
<td>11.7</td>
<td>8.1</td>
<td></td>
</tr>
<tr>
<td>사회의 부정적인 시각</td>
<td>6.3</td>
<td>3.6</td>
<td>0.4</td>
<td></td>
</tr>
<tr>
<td>계(명)</td>
<td>100.0(1,957)</td>
<td>100.0(1,974)</td>
<td>100.0(1,991)</td>
<td></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습니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2절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인식 및 태도 비교

1. 1인가구 형성관련 인식 및 태도 비교

1인가구와 관련한 기본적인 3가지 가치관과 1인가구 형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4가지 상황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 경제적 독립성을 가진 성인의 결혼 전 독립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높아 3.82점이며, 다음이 가능한 한 가족과의 동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가 3.79점, 1.21점으로 다음 순서이다. 또한 건강한 노인의 독거에 대해서는 동의정도가 3.32점으로 비교적 높으며 다음이 이혼 후 독거 3.01점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 2.86점, 근거리에 원가족이 있는 미혼남녀의 독거에 대하여 2.85점, 건강하지 않은 유자녀 노인의 독거에 대하여는 1.95점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인가구 거주자는 1인가구 형성에 대하여 상황별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1인가구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이지만, 1인가구의 경우는 가능한 한 가족과의 동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가 4.2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비1인가구는 3.79점으로 그 차이가 크며, 성인의 결혼 전 독립에 대한 동의 정도보다 낮다. 즉 1인가구로 생활하는가 여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보다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가능한 한 가족과의 동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1인가구 거주자에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항목별로 1인가구 거주 유무 및 연령군별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성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결혼 전이라도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좋은데ason_으론 서구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변화의 와중에 있는 가치관이다. 1인가구 거주자는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이 71.8%에 달하여 비1인가구 거주자의 64.3%에 7.5% 포인트 높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1인가구 거주자 내에서도 연령군별 차이가 있어 30대에 있어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높아 80.0%에 달하고 있고 40대까지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30% 내외이며,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합한 긍정적인 답변이 70% 이상이 반면 50대 이후부터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20% 내외이며, 긍정적인 답변이 60%대 이하로 연령군별 동의정도는 △형의 흐름을 보인다. 이러한 연령군별 인식의 경향성은 비1인가구의 경우도 유사하다.

그러나 50대까지는 1인가구 거주자가 비1인가구 거주자에 비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반면 60대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이 적고 평균점수도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60대 이후 연령대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1인가구를 현상하는 것이 선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가족주기 변화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대체적으로 60대 이후부터는 1인가구 거주 유무에 따른 차이가 적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4-1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성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결혼 전이라도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히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5 (127)</td>
<td>4.1 (414)</td>
<td>21.4 (2466)</td>
<td>44.0 (5055)</td>
<td>28.9 (3309)</td>
<td>100.0 (747)</td>
<td>3.95</td>
</tr>
<tr>
<td>30-39세</td>
<td>1.3 (112)</td>
<td>3.9 (351)</td>
<td>14.9 (1669)</td>
<td>44.1 (5055)</td>
<td>35.9 (3381)</td>
<td>100.0 (774)</td>
<td>4.09</td>
</tr>
<tr>
<td>40-49세</td>
<td>2.7 (241)</td>
<td>7.4 (840)</td>
<td>12.3 (1401)</td>
<td>45.5 (5191)</td>
<td>32.1 (3700)</td>
<td>100.0 (620)</td>
<td>3.97</td>
</tr>
<tr>
<td>50-59세</td>
<td>4.7 (417)</td>
<td>10.9 (1236)</td>
<td>16.5 (1859)</td>
<td>47.5 (5375)</td>
<td>20.5 (2290)</td>
<td>100.0 (552)</td>
<td>3.68</td>
</tr>
<tr>
<td>60-69세</td>
<td>5.6 (507)</td>
<td>9.0 (1077)</td>
<td>16.7 (1909)</td>
<td>46.9 (5259)</td>
<td>21.7 (2447)</td>
<td>100.0 (520)</td>
<td>3.70</td>
</tr>
<tr>
<td>70-79세</td>
<td>9.5 (870)</td>
<td>14.5 (1673)</td>
<td>11.7 (1319)</td>
<td>45.1 (5129)</td>
<td>19.2 (2137)</td>
<td>100.0 (557)</td>
<td>3.50</td>
</tr>
<tr>
<td>80세 이상</td>
<td>9.8 (911)</td>
<td>21.8 (2499)</td>
<td>10.2 (1159)</td>
<td>36.9 (4219)</td>
<td>21.3 (2327)</td>
<td>100.0 (225)</td>
<td>3.38</td>
</tr>
<tr>
<td>계</td>
<td>4.2 (392)</td>
<td>8.6 (993)</td>
<td>15.4 (1752)</td>
<td>44.9 (5122)</td>
<td>26.9 (2981)</td>
<td>100.0 (3,995)</td>
<td>3.82</td>
</tr>
<tr>
<td>비1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2.7 (207)</td>
<td>10.7 (1267)</td>
<td>28.9 (3282)</td>
<td>43.0 (5055)</td>
<td>14.8 (1714)</td>
<td>100.0 (291)</td>
<td>3.56</td>
</tr>
<tr>
<td>30-39세</td>
<td>3.9 (351)</td>
<td>8.5 (975)</td>
<td>20.4 (2273)</td>
<td>48.3 (5597)</td>
<td>18.9 (2083)</td>
<td>100.0 (387)</td>
<td>3.70</td>
</tr>
<tr>
<td>40-49세</td>
<td>3.8 (348)</td>
<td>12.8 (1476)</td>
<td>18.4 (2069)</td>
<td>47.3 (5375)</td>
<td>17.7 (1943)</td>
<td>100.0 (423)</td>
<td>3.62</td>
</tr>
<tr>
<td>50-59세</td>
<td>5.7 (521)</td>
<td>15.3 (1724)</td>
<td>17.7 (1989)</td>
<td>41.1 (4791)</td>
<td>20.1 (2257)</td>
<td>100.0 (333)</td>
<td>3.55</td>
</tr>
<tr>
<td>60-69세</td>
<td>4.1 (372)</td>
<td>20.3 (2317)</td>
<td>7.1 (807)</td>
<td>49.2 (5697)</td>
<td>19.3 (2137)</td>
<td>100.0 (197)</td>
<td>3.59</td>
</tr>
<tr>
<td>70-79세</td>
<td>8.8 (811)</td>
<td>8.8 (999)</td>
<td>10.8 (1229)</td>
<td>49.0 (5719)</td>
<td>22.5 (2427)</td>
<td>100.0 (102)</td>
<td>3.68</td>
</tr>
<tr>
<td>80세 이상</td>
<td>8.8 (811)</td>
<td>20.6 (2343)</td>
<td>5.9 (677)</td>
<td>41.2 (4947)</td>
<td>23.5 (2527)</td>
<td>100.0 (34)</td>
<td>3.50</td>
</tr>
<tr>
<td>계</td>
<td>4.4 (403)</td>
<td>12.7 (1439)</td>
<td>18.5 (2079)</td>
<td>45.8 (5279)</td>
<td>18.5 (2039)</td>
<td>100.0 (1,767)</td>
<td>3.61</td>
</tr>
</tbody>
</table>

주: 1) 평균 정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에 근거

한편,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성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결혼 전이라도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비하여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 모두 동의정도가 낮아 각각 2.86점과 2.84 점이며 1인가구 유무에 따른 차이도 매우 적다.

1인가구의 경우 앞서 살펴본 '성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결혼 전이라도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유사하게 30대가 가장
동의 정도가 높고 그 이후 낮아지는 ∇형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 1인가구의 경우는 연령군별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연령군별로 1인가구 거주 유무에 따른 차이가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20~30대의 경우는 1인가구 거주 유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동
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20대 33, 34% 30대는 43, 45%이다. 반면 40~
60대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1인가구에서 월등히 높은데, 이는 40~
60대에 혼자 생활하는 응답자의 다수가 이혼으로 인하여 혼자 살고 있
기 때문에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4-13〉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table>
<thead>
<tr>
<th>연령군</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7.0</td>
<td>23.1</td>
<td>26.7</td>
<td>23.4</td>
<td>9.8</td>
<td>100.0 (745)</td>
<td>2.86</td>
</tr>
<tr>
<td>30~39세</td>
<td>11.7</td>
<td>20.6</td>
<td>24.4</td>
<td>28.9</td>
<td>14.5</td>
<td>100.0 (772)</td>
<td>3.14</td>
</tr>
<tr>
<td>40~49세</td>
<td>10.5</td>
<td>17.3</td>
<td>22.3</td>
<td>34.3</td>
<td>15.5</td>
<td>100.0 (618)</td>
<td>3.27</td>
</tr>
<tr>
<td>50~59세</td>
<td>9.6</td>
<td>22.9</td>
<td>18.7</td>
<td>38.0</td>
<td>10.7</td>
<td>100.0 (550)</td>
<td>3.17</td>
</tr>
<tr>
<td>60~69세</td>
<td>17.1</td>
<td>26.9</td>
<td>18.0</td>
<td>28.1</td>
<td>9.9</td>
<td>100.0 (516)</td>
<td>2.87</td>
</tr>
<tr>
<td>70~79세</td>
<td>36.6</td>
<td>33.6</td>
<td>11.7</td>
<td>13.6</td>
<td>4.5</td>
<td>100.0 (557)</td>
<td>2.16</td>
</tr>
<tr>
<td>80세 이상</td>
<td>48.2</td>
<td>37.5</td>
<td>7.6</td>
<td>4.0</td>
<td>2.7</td>
<td>100.0 (224)</td>
<td>1.75</td>
</tr>
<tr>
<td>계</td>
<td>18.5</td>
<td>24.5</td>
<td>20.2</td>
<td>26.3</td>
<td>10.6</td>
<td>100.0 (3,982)</td>
<td>2.86</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연령군</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2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4.8</td>
<td>26.2</td>
<td>25.2</td>
<td>26.6</td>
<td>7.2</td>
<td>100.0 (290)</td>
<td>2.85</td>
</tr>
<tr>
<td>30~39세</td>
<td>15.2</td>
<td>22.3</td>
<td>17.8</td>
<td>36.7</td>
<td>7.9</td>
<td>100.0 (381)</td>
<td>3.00</td>
</tr>
<tr>
<td>40~49세</td>
<td>11.6</td>
<td>26.5</td>
<td>17.3</td>
<td>34.8</td>
<td>9.9</td>
<td>100.0 (423)</td>
<td>3.05</td>
</tr>
<tr>
<td>50~59세</td>
<td>16.3</td>
<td>30.8</td>
<td>18.1</td>
<td>25.4</td>
<td>9.4</td>
<td>100.0 (331)</td>
<td>2.81</td>
</tr>
<tr>
<td>60~69세</td>
<td>23.7</td>
<td>38.7</td>
<td>8.8</td>
<td>22.2</td>
<td>6.7</td>
<td>100.0 (194)</td>
<td>2.49</td>
</tr>
<tr>
<td>70~79세</td>
<td>30.0</td>
<td>35.0</td>
<td>16.0</td>
<td>15.0</td>
<td>4.0</td>
<td>100.0 (100)</td>
<td>2.28</td>
</tr>
<tr>
<td>80세 이상</td>
<td>35.3</td>
<td>29.4</td>
<td>5.9</td>
<td>26.5</td>
<td>2.9</td>
<td>100.0 (34)</td>
<td>2.32</td>
</tr>
<tr>
<td>계</td>
<td>16.7</td>
<td>28.2</td>
<td>17.6</td>
<td>29.4</td>
<td>8.1</td>
<td>100.0 (1,753)</td>
<td>2.84</td>
</tr>
</tbody>
</table>

주: 1)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음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다음으로 ‘혼자생활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1인가구 거주 유무와 연령군별 응답결과를 비교해보면 1인가구에 비하여 비1인가구의 동의정도가 높아 평균점수가 각각 3.79와 4.24점이다. 또한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66.2%와 85.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군별로 비교해보아도 모든 연령군에서 1인가구가 비1인가구에 비하여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 그러나 1인가구 생활자 역시 ‘혼자생활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66.2%가 동의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12.8%에 불과하여 가치적인 측면의 선호와 현재 거주형태간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4〉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혼자생활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table>
<thead>
<tr>
<th>연령</th>
<th>1인가구</th>
<th>비1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20~29세</td>
<td>1.3</td>
<td>0.3</td>
</tr>
<tr>
<td>30~39세</td>
<td>2.5</td>
<td>1.0</td>
</tr>
<tr>
<td>40~49세</td>
<td>3.2</td>
<td>1.5</td>
</tr>
<tr>
<td>50~59세</td>
<td>4.8</td>
<td>2.0</td>
</tr>
<tr>
<td>60~69세</td>
<td>8.2</td>
<td>6.9</td>
</tr>
<tr>
<td>70~79세</td>
<td>6.6</td>
<td>5.9</td>
</tr>
<tr>
<td>80세 이상</td>
<td>3.7</td>
<td>3.2</td>
</tr>
</tbody>
</table>

주: 1)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렇지 않으나 동의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미혼남녀가 집에서 통학·통근이 가능한데도 혼자사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1인가구 거주자의 31.1%가 동의하고 있고 평균점수는 2.85점이다. 1인가구 거주자의 태도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30대에서 가장 동의 정도가 높고 그 이후는 연령이 높은 연령군에서 동의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비1인가구의 경우도 유사하다. 또한 비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도 동의하는 비율이 26.2%이며 평균점수 2.71점으로 1인가구 거주여부에 따른 차이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미혼남녀가 집에서 통학·통근이 가능한데도 혼자사는 것에 대해서는 1인가구 거주자나 비1인가구 거주자 모두 아직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15〉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미혼남녀가 집에서 통학·통근이 가능한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table>
<thead>
<tr>
<th>연령</th>
<th>1인가구 거주자</th>
<th>비1인가구 거주자</th>
</tr>
</thead>
<tbody>
<tr>
<td>20-29세</td>
<td>9.0</td>
<td>6.5</td>
</tr>
<tr>
<td>30-39세</td>
<td>7.8</td>
<td>8.0</td>
</tr>
<tr>
<td>40-49세</td>
<td>8.4</td>
<td>14.4</td>
</tr>
<tr>
<td>50-59세</td>
<td>10.5</td>
<td>18.6</td>
</tr>
<tr>
<td>60-69세</td>
<td>16.2</td>
<td>25.6</td>
</tr>
<tr>
<td>70-79세</td>
<td>25.6</td>
<td>32.5</td>
</tr>
<tr>
<td>80세 이상</td>
<td>32.5</td>
<td>24.2</td>
</tr>
<tr>
<td>평균 점수</td>
<td>746</td>
<td>291</td>
</tr>
</tbody>
</table>

주: 1)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이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1인가구 거주자의 36.5%가 동의하고 있는데 비1인가구의 35.8%와 그리 큰 차이가 아니며 평균에 있어서도 3.01점과 2.98점으로 유사하다. 또한 30대에서 가장 동의정도가 높다가 그 이후 연령대에서는 연령이 높은 군에서 동의정도가 낮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16〉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이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 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7.4</td>
<td>22.4</td>
<td>41.4</td>
<td>23.3</td>
<td>5.5</td>
<td>100.0 (744)</td>
<td>2.97</td>
</tr>
<tr>
<td>30-39세</td>
<td>5.8</td>
<td>18.2</td>
<td>37.0</td>
<td>30.1</td>
<td>8.8</td>
<td>100.0 (773)</td>
<td>3.18</td>
</tr>
<tr>
<td>40-49세</td>
<td>8.4</td>
<td>19.8</td>
<td>30.5</td>
<td>31.8</td>
<td>9.4</td>
<td>100.0 (616)</td>
<td>3.14</td>
</tr>
<tr>
<td>50-59세</td>
<td>8.2</td>
<td>23.7</td>
<td>25.0</td>
<td>32.4</td>
<td>10.7</td>
<td>100.0 (549)</td>
<td>3.14</td>
</tr>
<tr>
<td>60-69세</td>
<td>9.6</td>
<td>26.7</td>
<td>24.6</td>
<td>28.9</td>
<td>10.2</td>
<td>100.0 (509)</td>
<td>3.03</td>
</tr>
<tr>
<td>70-79세</td>
<td>21.0</td>
<td>27.0</td>
<td>19.3</td>
<td>24.6</td>
<td>8.1</td>
<td>100.0 (544)</td>
<td>2.72</td>
</tr>
<tr>
<td>80세 이상</td>
<td>25.9</td>
<td>34.7</td>
<td>13.0</td>
<td>19.0</td>
<td>7.4</td>
<td>100.0 (216)</td>
<td>2.47</td>
</tr>
<tr>
<td>계</td>
<td>10.5</td>
<td>23.2</td>
<td>29.8</td>
<td>27.9</td>
<td>8.6</td>
<td>100.0 (3,951)</td>
<td>3.01</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비1인가구 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5.2</td>
<td>21.0</td>
<td>41.2</td>
<td>27.8</td>
<td>4.8</td>
<td>100.0 (291)</td>
<td>3.06</td>
</tr>
<tr>
<td>30-39세</td>
<td>7.0</td>
<td>16.1</td>
<td>32.5</td>
<td>36.1</td>
<td>8.3</td>
<td>100.0 (385)</td>
<td>3.23</td>
</tr>
<tr>
<td>40-49세</td>
<td>8.3</td>
<td>25.8</td>
<td>28.0</td>
<td>30.6</td>
<td>7.3</td>
<td>100.0 (422)</td>
<td>3.03</td>
</tr>
<tr>
<td>50-59세</td>
<td>9.7</td>
<td>33.7</td>
<td>23.4</td>
<td>25.5</td>
<td>7.6</td>
<td>100.0 (329)</td>
<td>2.88</td>
</tr>
<tr>
<td>60-69세</td>
<td>14.4</td>
<td>33.3</td>
<td>23.6</td>
<td>25.6</td>
<td>3.1</td>
<td>100.0 (195)</td>
<td>2.70</td>
</tr>
<tr>
<td>70-79세</td>
<td>17.3</td>
<td>34.7</td>
<td>18.4</td>
<td>19.4</td>
<td>10.2</td>
<td>100.0 (98)</td>
<td>2.70</td>
</tr>
<tr>
<td>80세 이상</td>
<td>27.3</td>
<td>27.3</td>
<td>18.2</td>
<td>21.2</td>
<td>6.1</td>
<td>100.0 (33)</td>
<td>2.52</td>
</tr>
<tr>
<td>계</td>
<td>9.3</td>
<td>25.7</td>
<td>29.1</td>
<td>29.0</td>
<td>6.8</td>
<td>100.0 (1,753)</td>
<td>2.98</td>
</tr>
</tbody>
</table>

주: 1)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다음으로 고령화에 따른 1인가구 증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하나는 건강한 노인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가 있으면서 건강하지 않은 노인 즉,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동거하면서 보호해야 하는 노인으로 여겨져 온 대상인 노인의 경우의 독거생활에 대한 질문이다. 조사결과 1인가구와 비1인가구 모두 노인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거주자는 건강한 노인의 독거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53.6%이며 평균점수가 3.40점으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자녀가 있으면서 건강하지 않은 노인의 독거에 대해서는 9.6%와 1.95점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도 동일하여 각각 53.6%와 3.32점, 7.5%와 1.99점이다. 즉 한국 성인이 건강한 노인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이루어져 있지만, 자녀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노인은 가족이 함께 살면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1인가구 거주자나 비1인가구 거주자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 또한 자녀가 있으면서 건강하지 않는 노인의 독거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 자체가 낮기는 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자신이 노인인 연령층이 자신과 동년배의 현실을 둘러보았을 때, 그렇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4-17〉 1인가구 가주자와 비1인가구 가주자의 연령군별 건강한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9.5</td>
<td>26.2</td>
<td>29.5</td>
<td>27.8</td>
<td>7.0</td>
<td>100.0</td>
<td>747</td>
</tr>
<tr>
<td>30-39세</td>
<td>8.3</td>
<td>23.9</td>
<td>32.1</td>
<td>28.1</td>
<td>7.6</td>
<td>100.0</td>
<td>773</td>
</tr>
<tr>
<td>40-49세</td>
<td>7.8</td>
<td>17.8</td>
<td>25.4</td>
<td>36.2</td>
<td>12.9</td>
<td>100.0</td>
<td>619</td>
</tr>
<tr>
<td>50-59세</td>
<td>4.2</td>
<td>16.7</td>
<td>16.5</td>
<td>47.8</td>
<td>14.9</td>
<td>100.0</td>
<td>552</td>
</tr>
<tr>
<td>60-69세</td>
<td>3.3</td>
<td>10.8</td>
<td>11.6</td>
<td>46.2</td>
<td>28.0</td>
<td>100.0</td>
<td>517</td>
</tr>
<tr>
<td>70-79세</td>
<td>4.1</td>
<td>8.2</td>
<td>13.6</td>
<td>40.2</td>
<td>33.9</td>
<td>100.0</td>
<td>560</td>
</tr>
<tr>
<td>80세 이상</td>
<td>4.4</td>
<td>11.9</td>
<td>15.0</td>
<td>38.5</td>
<td>30.1</td>
<td>100.0</td>
<td>226</td>
</tr>
<tr>
<td>계</td>
<td>6.4</td>
<td>17.8</td>
<td>22.2</td>
<td>36.7</td>
<td>16.9</td>
<td>100.0</td>
<td>3,994</td>
</tr>
<tr>
<td>비1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6.2</td>
<td>32.0</td>
<td>24.1</td>
<td>33.0</td>
<td>4.8</td>
<td>100.0</td>
<td>291</td>
</tr>
<tr>
<td>30-39세</td>
<td>6.5</td>
<td>20.2</td>
<td>24.0</td>
<td>39.8</td>
<td>9.6</td>
<td>100.0</td>
<td>387</td>
</tr>
<tr>
<td>40-49세</td>
<td>6.1</td>
<td>18.4</td>
<td>21.0</td>
<td>40.6</td>
<td>13.9</td>
<td>100.0</td>
<td>424</td>
</tr>
<tr>
<td>50-59세</td>
<td>8.1</td>
<td>13.8</td>
<td>15.0</td>
<td>48.6</td>
<td>14.4</td>
<td>100.0</td>
<td>333</td>
</tr>
<tr>
<td>60-69세</td>
<td>4.6</td>
<td>21.3</td>
<td>10.7</td>
<td>45.2</td>
<td>18.3</td>
<td>100.0</td>
<td>197</td>
</tr>
<tr>
<td>70-79세</td>
<td>11.9</td>
<td>19.8</td>
<td>10.9</td>
<td>38.6</td>
<td>18.8</td>
<td>100.0</td>
<td>101</td>
</tr>
<tr>
<td>80세 이상</td>
<td>8.8</td>
<td>11.8</td>
<td>14.7</td>
<td>44.1</td>
<td>20.6</td>
<td>100.0</td>
<td>34</td>
</tr>
<tr>
<td>계</td>
<td>6.8</td>
<td>20.4</td>
<td>19.2</td>
<td>41.1</td>
<td>12.5</td>
<td>100.0</td>
<td>1,767</td>
</tr>
</tbody>
</table>

주: 1)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음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4장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09

〈표 4-18〉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동의 정도

(단위: %, 명,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 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49.2</td>
<td>38.7</td>
<td>10.9</td>
<td>0.9</td>
<td>0.3</td>
<td>100.0 (746)</td>
<td>1.64</td>
</tr>
<tr>
<td>30-39세</td>
<td>49.3</td>
<td>38.0</td>
<td>10.2</td>
<td>1.8</td>
<td>0.6</td>
<td>100.0 (773)</td>
<td>1.66</td>
</tr>
<tr>
<td>40-49세</td>
<td>40.6</td>
<td>40.3</td>
<td>12.6</td>
<td>5.2</td>
<td>1.3</td>
<td>100.0 (620)</td>
<td>1.86</td>
</tr>
<tr>
<td>50-59세</td>
<td>34.4</td>
<td>41.8</td>
<td>14.1</td>
<td>7.8</td>
<td>1.8</td>
<td>100.0 (552)</td>
<td>2.01</td>
</tr>
<tr>
<td>60-69세</td>
<td>22.4</td>
<td>40.2</td>
<td>18.0</td>
<td>16.1</td>
<td>3.3</td>
<td>100.0 (517)</td>
<td>2.38</td>
</tr>
<tr>
<td>70-79세</td>
<td>32.3</td>
<td>30.6</td>
<td>17.2</td>
<td>14.9</td>
<td>5.0</td>
<td>100.0 (558)</td>
<td>2.30</td>
</tr>
<tr>
<td>80세 이상</td>
<td>34.5</td>
<td>30.5</td>
<td>12.8</td>
<td>17.7</td>
<td>4.4</td>
<td>100.0 (226)</td>
<td>2.27</td>
</tr>
<tr>
<td>계</td>
<td>39.2</td>
<td>37.9</td>
<td>13.4</td>
<td>7.6</td>
<td>2.0</td>
<td>100.0 (3,992)</td>
<td>1.95</td>
</tr>
<tr>
<td>비1인가구 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35.1</td>
<td>49.8</td>
<td>13.7</td>
<td>1.4</td>
<td>0.0</td>
<td>100.0 (291)</td>
<td>1.81</td>
</tr>
<tr>
<td>30-39세</td>
<td>32.4</td>
<td>46.9</td>
<td>15.0</td>
<td>4.7</td>
<td>1.0</td>
<td>100.0 (386)</td>
<td>1.95</td>
</tr>
<tr>
<td>40-49세</td>
<td>29.0</td>
<td>46.7</td>
<td>18.9</td>
<td>4.5</td>
<td>0.9</td>
<td>100.0 (424)</td>
<td>2.02</td>
</tr>
<tr>
<td>50-59세</td>
<td>31.8</td>
<td>47.1</td>
<td>10.5</td>
<td>9.9</td>
<td>0.6</td>
<td>100.0 (333)</td>
<td>2.00</td>
</tr>
<tr>
<td>60-69세</td>
<td>24.9</td>
<td>45.2</td>
<td>11.7</td>
<td>15.2</td>
<td>3.0</td>
<td>100.0 (197)</td>
<td>2.26</td>
</tr>
<tr>
<td>70-79세</td>
<td>42.2</td>
<td>39.2</td>
<td>12.7</td>
<td>3.9</td>
<td>2.0</td>
<td>100.0 (102)</td>
<td>1.84</td>
</tr>
<tr>
<td>80세 이상</td>
<td>38.2</td>
<td>35.3</td>
<td>8.8</td>
<td>14.7</td>
<td>2.9</td>
<td>100.0 (34)</td>
<td>2.09</td>
</tr>
<tr>
<td>계</td>
<td>31.7</td>
<td>46.5</td>
<td>14.3</td>
<td>6.4</td>
<td>1.1</td>
<td>100.0 (1,767)</td>
<td>1.99</td>
</tr>
</tbody>
</table>

주: 1)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2.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비교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 대 다수를 차지하여 1인가구 4.30점, 비1인가구 4.39점이며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4-19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1인가구 증가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하지 않음</th>
<th>그렇지 그렇다</th>
<th>동의</th>
<th>매우 동의</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 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2</td>
<td>4.3</td>
<td>17.2</td>
<td>37.8</td>
<td>39.5</td>
<td>100.0 (746)</td>
<td>4.10</td>
</tr>
<tr>
<td>30-39세</td>
<td>1.3</td>
<td>4.3</td>
<td>15.1</td>
<td>32.8</td>
<td>46.5</td>
<td>100.0 (774)</td>
<td>4.19</td>
</tr>
<tr>
<td>40-49세</td>
<td>1.9</td>
<td>2.7</td>
<td>11.9</td>
<td>28.4</td>
<td>55.0</td>
<td>100.0 (620)</td>
<td>4.32</td>
</tr>
<tr>
<td>50-59세</td>
<td>0.9</td>
<td>1.5</td>
<td>8.2</td>
<td>28.2</td>
<td>61.3</td>
<td>100.0 (550)</td>
<td>4.47</td>
</tr>
<tr>
<td>60-69세</td>
<td>0.8</td>
<td>2.9</td>
<td>9.6</td>
<td>23.5</td>
<td>63.2</td>
<td>100.0 (519)</td>
<td>4.45</td>
</tr>
<tr>
<td>70-79세</td>
<td>0.9</td>
<td>1.4</td>
<td>12.5</td>
<td>25.0</td>
<td>60.2</td>
<td>100.0 (553)</td>
<td>4.42</td>
</tr>
<tr>
<td>80세 이상</td>
<td>1.4</td>
<td>2.8</td>
<td>20.3</td>
<td>23.5</td>
<td>52.1</td>
<td>100.0 (217)</td>
<td>4.22</td>
</tr>
<tr>
<td>계</td>
<td>1.2</td>
<td>3.0</td>
<td>13.2</td>
<td>29.6</td>
<td>53.0</td>
<td>100.0 (3,979)</td>
<td>4.30</td>
</tr>
<tr>
<td>비1인가구 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2.1</td>
<td>3.4</td>
<td>16.8</td>
<td>32.3</td>
<td>45.4</td>
<td>100.0 (291)</td>
<td>4.15</td>
</tr>
<tr>
<td>30-39세</td>
<td>0.5</td>
<td>1.3</td>
<td>13.2</td>
<td>30.2</td>
<td>54.8</td>
<td>100.0 (387)</td>
<td>4.37</td>
</tr>
<tr>
<td>40-49세</td>
<td>0.5</td>
<td>1.2</td>
<td>8.5</td>
<td>28.8</td>
<td>61.0</td>
<td>100.0 (423)</td>
<td>4.49</td>
</tr>
<tr>
<td>50-59세</td>
<td>2.4</td>
<td>0.9</td>
<td>6.0</td>
<td>26.5</td>
<td>64.2</td>
<td>100.0 (332)</td>
<td>4.49</td>
</tr>
<tr>
<td>60-69세</td>
<td>1.0</td>
<td>2.5</td>
<td>11.2</td>
<td>27.4</td>
<td>57.9</td>
<td>100.0 (197)</td>
<td>4.39</td>
</tr>
<tr>
<td>70-79세</td>
<td>2.0</td>
<td>4.0</td>
<td>13.0</td>
<td>22.0</td>
<td>59.0</td>
<td>100.0 (100)</td>
<td>4.32</td>
</tr>
<tr>
<td>80세 이상</td>
<td>3.1</td>
<td>0.0</td>
<td>12.5</td>
<td>25.0</td>
<td>59.4</td>
<td>100.0 (32)</td>
<td>4.38</td>
</tr>
<tr>
<td>계</td>
<td>1.3</td>
<td>1.8</td>
<td>11.1</td>
<td>28.7</td>
<td>57.2</td>
<td>100.0 (1,762)</td>
<td>4.39</td>
</tr>
</tbody>
</table>

주: 1) 평균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음 2점, 그렇지 그렇다 3점,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음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그렇다면 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이유를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30대 청년층이 혼자 살 때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고, 경제적인 불안정이 예상되며, 외로움을 경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1인가구나 비1인가구 공통적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인가구는 혼자 살 때 예상되는 환경 중으로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25.9%), 경제적인 불안정(24.8%), 외로움(18.6%)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가사일 부담(12.2%), 안전에 대한 걱정 (8.3%),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5.4%), 노후에 대한 불안감(4.8%)이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70대 이후 연령군에서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을 뜻하는 응답이 월등히 높아 70대가 35.0%, 80세 이상이 42.3% 에 달하고 있다.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과 외로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20%대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경제적 불안감을 크게 느낄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비1인가구의 경우도 유사하다. 이는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중요하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다른 것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40~50대 중년층의 독거에 대해서는 1인가구 거주자의 응답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26.1%), 외로움(25.5%), 경제적인 불안정(22.7%)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는 20~30대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외로움이 두드러진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은 것이다. 또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응답은 13.7%로 20~30대의 4.8%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는 40~50대는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사일 부담(5.2%), 안전에 대한 걱정(2.4%),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4.5%)이라는 응답은 비교적 소수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을 뜻하는 응답과 외로움에 대해서는 연령군별로 U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감에 대해서는 ∩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은 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이는 응답자 자신이 아직 40~50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된다.

비1인가구의 경우 외로움이라는 응답이 35.1%로 1인가구의 25.5%에 비하여 10%포인트 정도 높다. 반면 경제적 불안정이 22.1%,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이 20.7%이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응답도 11.4%이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적 현실적인 문제를, 현재 1인가구가 아닌 응답자의 경우 외로움이라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이라는 응답과 외로움에 대해서는 연령군별 뚜렷한 경향성이 없는 반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은 층에서 높은 등에서 높은 등이 1인가구 응답자의 경우 도 동일하였다.

〈표 4-20〉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20-30대 청년층이 혼자 살 경우 예상되는 힘든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아울러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th>
<th>가사일</th>
<th>경제적 불안정</th>
<th>안전에 대한 걱정</th>
<th>외로움</th>
<th>노후에 대한 불안감</th>
<th>사회의 부정적인 시각</th>
<th>계 (명)</th>
</tr>
</thead>
<tbody>
<tr>
<td><strong>1인가구</strong></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25.9</td>
<td>15.7</td>
<td>19.9</td>
<td>11.5</td>
<td>21.3</td>
<td>2.8</td>
<td>2.8</td>
<td>100.0 (745)</td>
</tr>
<tr>
<td>30-39세</td>
<td>27.9</td>
<td>11.5</td>
<td>21.8</td>
<td>8.9</td>
<td>20.1</td>
<td>4.6</td>
<td>5.3</td>
<td>100.0 (767)</td>
</tr>
<tr>
<td>40-49세</td>
<td>21.1</td>
<td>11.7</td>
<td>32.9</td>
<td>7.7</td>
<td>14.5</td>
<td>4.9</td>
<td>7.1</td>
<td>100.0 (607)</td>
</tr>
<tr>
<td>50-59세</td>
<td>17.3</td>
<td>14.6</td>
<td>30.3</td>
<td>8.9</td>
<td>16.1</td>
<td>4.9</td>
<td>7.8</td>
<td>100.0 (548)</td>
</tr>
<tr>
<td>60-69세</td>
<td>21.3</td>
<td>13.4</td>
<td>25.9</td>
<td>9.7</td>
<td>16.0</td>
<td>6.5</td>
<td>7.1</td>
<td>100.0 (506)</td>
</tr>
<tr>
<td>70-79세</td>
<td>35.0</td>
<td>8.0</td>
<td>22.7</td>
<td>3.7</td>
<td>20.3</td>
<td>5.6</td>
<td>4.7</td>
<td>100.0 (537)</td>
</tr>
<tr>
<td>80세 이상</td>
<td>42.3</td>
<td>5.8</td>
<td>17.8</td>
<td>2.4</td>
<td>24.5</td>
<td>5.3</td>
<td>1.9</td>
<td>100.0 (208)</td>
</tr>
<tr>
<td>계</td>
<td>25.9</td>
<td>12.2</td>
<td>24.8</td>
<td>8.3</td>
<td>18.6</td>
<td>4.8</td>
<td>5.4</td>
<td>100.0 (3,918)</td>
</tr>
<tr>
<td><strong>비1인가구</strong></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7.9</td>
<td>15.5</td>
<td>28.6</td>
<td>9.3</td>
<td>22.1</td>
<td>3.4</td>
<td>3.1</td>
<td>100.0 (290)</td>
</tr>
<tr>
<td>30-39세</td>
<td>20.9</td>
<td>12.3</td>
<td>26.6</td>
<td>9.7</td>
<td>21.4</td>
<td>4.7</td>
<td>4.4</td>
<td>100.0 (383)</td>
</tr>
<tr>
<td>40-49세</td>
<td>20.7</td>
<td>11.0</td>
<td>26.6</td>
<td>7.6</td>
<td>21.5</td>
<td>4.1</td>
<td>8.5</td>
<td>100.0 (410)</td>
</tr>
<tr>
<td>50-59세</td>
<td>19.5</td>
<td>12.2</td>
<td>29.5</td>
<td>6.1</td>
<td>18.8</td>
<td>6.4</td>
<td>7.6</td>
<td>100.0 (329)</td>
</tr>
<tr>
<td>60-69세</td>
<td>23.4</td>
<td>10.9</td>
<td>24.5</td>
<td>5.7</td>
<td>28.1</td>
<td>3.6</td>
<td>3.6</td>
<td>100.0 (192)</td>
</tr>
<tr>
<td>70-79세</td>
<td>29.7</td>
<td>10.9</td>
<td>19.8</td>
<td>1.0</td>
<td>21.8</td>
<td>6.9</td>
<td>9.9</td>
<td>100.0 (101)</td>
</tr>
<tr>
<td>80세 이상</td>
<td>40.0</td>
<td>3.3</td>
<td>13.3</td>
<td>3.3</td>
<td>23.3</td>
<td>6.7</td>
<td>10.0</td>
<td>100.0 (30)</td>
</tr>
<tr>
<td>계</td>
<td>21.2</td>
<td>12.1</td>
<td>26.6</td>
<td>7.4</td>
<td>21.8</td>
<td>4.7</td>
<td>6.1</td>
<td>100.0 (1,735)</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4장 한국인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13

〈표 4-21〉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40~50대 중년층이 혼자 살 경우 예상되는 힘든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 없음</th>
<th>가사일 경제적 불안정</th>
<th>안전에 대한 걱정</th>
<th>외로움 경제적 불안정</th>
<th>노후에 대한 불안감</th>
<th>사회의 부정적인 시각</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 연령&lt;sup&gt;1)&lt;/sup&gt;</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21.6</td>
<td>4.0</td>
<td>15.2</td>
<td>1.6</td>
<td>31.5</td>
<td>20.1</td>
<td>5.9</td>
</tr>
<tr>
<td>30~39세</td>
<td>26.1</td>
<td>3.9</td>
<td>17.3</td>
<td>3.1</td>
<td>27.7</td>
<td>16.7</td>
<td>5.1</td>
</tr>
<tr>
<td>40~49세</td>
<td>26.9</td>
<td>5.2</td>
<td>18.6</td>
<td>3.1</td>
<td>24.8</td>
<td>16.3</td>
<td>5.2</td>
</tr>
<tr>
<td>50~59세</td>
<td>24.1</td>
<td>5.8</td>
<td>27.9</td>
<td>2.0</td>
<td>23.8</td>
<td>11.3</td>
<td>5.1</td>
</tr>
<tr>
<td>60~69세</td>
<td>24.0</td>
<td>6.0</td>
<td>34.4</td>
<td>2.7</td>
<td>21.9</td>
<td>10.9</td>
<td>2.7</td>
</tr>
<tr>
<td>70~79세</td>
<td>31.5</td>
<td>6.4</td>
<td>27.5</td>
<td>2.7</td>
<td>22.1</td>
<td>13.6</td>
<td>4.5</td>
</tr>
<tr>
<td>80세 이상</td>
<td>36.4</td>
<td>6.8</td>
<td>25.7</td>
<td>0.5</td>
<td>24.3</td>
<td>4.4</td>
<td>1.9</td>
</tr>
<tr>
<td>계</td>
<td>26.1</td>
<td>5.2</td>
<td>22.7</td>
<td>2.4</td>
<td>25.5</td>
<td>13.7</td>
<td>4.5</td>
</tr>
<tr>
<td>비1인가구 연령&lt;sup&gt;1)&lt;/sup&gt;</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21.2</td>
<td>3.8</td>
<td>14.2</td>
<td>3.1</td>
<td>39.6</td>
<td>13.9</td>
<td>4.2</td>
</tr>
<tr>
<td>30~39세</td>
<td>21.6</td>
<td>4.4</td>
<td>19.3</td>
<td>2.9</td>
<td>34.9</td>
<td>14.8</td>
<td>2.1</td>
</tr>
<tr>
<td>40~49세</td>
<td>16.6</td>
<td>5.5</td>
<td>23.8</td>
<td>1.7</td>
<td>35.4</td>
<td>12.1</td>
<td>5.0</td>
</tr>
<tr>
<td>50~59세</td>
<td>23.6</td>
<td>5.2</td>
<td>25.5</td>
<td>1.2</td>
<td>32.4</td>
<td>8.5</td>
<td>3.6</td>
</tr>
<tr>
<td>60~69세</td>
<td>17.6</td>
<td>4.7</td>
<td>26.0</td>
<td>2.1</td>
<td>35.8</td>
<td>8.5</td>
<td>3.6</td>
</tr>
<tr>
<td>70~79세</td>
<td>27.3</td>
<td>7.1</td>
<td>25.3</td>
<td>0.0</td>
<td>31.3</td>
<td>6.1</td>
<td>3.0</td>
</tr>
<tr>
<td>80세 이상</td>
<td>27.3</td>
<td>3.0</td>
<td>24.2</td>
<td>9.1</td>
<td>30.3</td>
<td>3.0</td>
<td>3.0</td>
</tr>
<tr>
<td>계</td>
<td>20.7</td>
<td>4.9</td>
<td>22.1</td>
<td>2.2</td>
<td>35.1</td>
<td>11.4</td>
<td>3.7</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노년층의 독거에 대해서는 1인가구 거주자의 약 절반인 47.4%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을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층에 대한 우려에 비하여 매우 깊게 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외로움으로 21.7%, 경제적 불안정이 15.4%의 순이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응답도 9.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비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도 동일하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
이 없음에 대한 우려가 크며, 경제적 불안정은 중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전에서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60대 이상 노년층이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우려하는 응답은 1% 미만으로 20~30대 청년층이나 40~50대의 경우 5% 내외의 응답률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즉 노년기의 독거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으로는 염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4-2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60대 이상 노년층이 혼자 살 경우 예상되는 힘든 점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아플때 간호해줄 사람없음</th>
<th>가사일 불안정</th>
<th>안전에 대한 걱정</th>
<th>외로움</th>
<th>노후에 대한 불안감</th>
<th>사회의 부정적인 시각</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 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48.1 2.0 8.4 4.3 26.1 10.5 0.5 100.0 (74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0-39세</td>
<td>49.5 0.5 12.0 4.9 21.9 9.9 1.3 100.0 (76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49세</td>
<td>44.6 1.8 15.3 2.3 23.4 11.8 0.8 100.0 (61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0-59세</td>
<td>45.0 1.6 14.3 2.2 23.8 12.0 1.1 100.0 (55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69세</td>
<td>43.7 2.5 23.7 1.7 19.2 8.7 0.4 100.0 (51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0-79세</td>
<td>52.8 3.8 20.8 1.6 15.4 5.2 0.4 100.0 (55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80세 이상</td>
<td>46.2 8.6 21.7 0.5 17.2 5.0 0.9 100.0 (22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47.4 2.3 15.4 2.9 21.7 9.5 0.8 100.0 (3,96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비1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 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42.3 2.4 11.7 4.5 29.6 8.9 0.7 100.0 (29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0-39세</td>
<td>43.8 2.3 16.8 3.6 24.9 8.0 0.5 100.0 (38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49세</td>
<td>34.7 3.1 21.4 2.1 29.5 9.0 0.2 100.0 (42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0-59세</td>
<td>42.6 2.1 22.2 3.3 23.1 6.6 0.0 100.0 (33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69세</td>
<td>32.5 7.1 22.3 0.5 31.0 6.1 0.5 100.0 (19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0-79세</td>
<td>47.1 4.9 16.7 1.0 24.5 5.9 0.0 100.0 (1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80세 이상</td>
<td>58.8 2.9 17.6 2.9 11.8 5.9 0.0 100.0 (3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40.4 3.2 18.7 2.8 26.8 7.8 0.3 100.0 (1,76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의 거주자의 특성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1인가구 거주자의 특징을 비1인가구(2인 이상 가구)의 거주자와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연령군별로 1인가구의 형성 원인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령군별로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연령군별 1인가구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분석에는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한국복지패널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전화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구총조사에 주택과 사회참여활동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좀더 폭 넓은 내용이 조사된 한국복지패널자료와 전화조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제1절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인구주택총조사

1. 일반특성

1인가구 거주자의 특징을 연령군별로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령대를 세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만 제시하고 10세간격과 5
세간적으로 분류한 결과는 부표에 제시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 5-1>은 2010년 현재 1인가구 거주자들의 연령군별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15~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1인가구 거주자들이 대체로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인구규모가 큰 서울 못지않게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등지에 1인가구 거주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5-1〉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연령3집단)별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 분포(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인가구 거주자(15세 이상 인구중)</th>
<th>2인이상 가구 거주자(15세 이상 인구중)</th>
</tr>
</thead>
<tbody>
<tr>
<td></td>
<td>15<del>39세 40</del>64세 65세이상</td>
<td>전체</td>
</tr>
<tr>
<td>서울</td>
<td>27.7 18.1 11.9 19.8</td>
<td>22.5 20.3 17.4 20.9</td>
</tr>
<tr>
<td>부산</td>
<td>5.8 8.6 7.4 7.3</td>
<td>7.6 8.2 7.6 7.9</td>
</tr>
<tr>
<td>대구</td>
<td>4.2 4.9 4.1 4.4</td>
<td>5.1 5.1 4.3 5.0</td>
</tr>
<tr>
<td>인천</td>
<td>5.0 5.7 3.7 4.9</td>
<td>6.2 5.9 4.5 5.8</td>
</tr>
<tr>
<td>광주</td>
<td>3.5 2.8 2.6 3.0</td>
<td>3.3 2.9 2.4 3.0</td>
</tr>
<tr>
<td>대전</td>
<td>4.7 3.0 1.8 3.3</td>
<td>3.5 3.2 2.4 3.2</td>
</tr>
<tr>
<td>울산</td>
<td>1.8 2.1 1.2 1.8</td>
<td>2.2 2.3 1.2 2.2</td>
</tr>
<tr>
<td>경기</td>
<td>19.5 17.9 11.6 16.7</td>
<td>23.1 21.1 16.6 21.4</td>
</tr>
<tr>
<td>강원</td>
<td>3.1 4.9 5.3 4.3</td>
<td>2.8 3.5 5.0 3.4</td>
</tr>
<tr>
<td>충북</td>
<td>3.7 3.5 4.3 3.8</td>
<td>3.0 3.3 4.2 3.3</td>
</tr>
<tr>
<td>충남</td>
<td>4.3 4.2 5.7 4.7</td>
<td>3.8 4.3 5.5 3.8</td>
</tr>
<tr>
<td>전북</td>
<td>3.2 4.5 7.8 5.0</td>
<td>3.4 4.0 5.9 4.0</td>
</tr>
<tr>
<td>전남</td>
<td>2.2 4.8 10.9 5.6</td>
<td>2.8 3.9 7.1 3.8</td>
</tr>
<tr>
<td>경북</td>
<td>5.9 6.5 10.5 7.4</td>
<td>4.3 5.4 8.0 5.3</td>
</tr>
<tr>
<td>경남</td>
<td>4.6 7.1 9.6 6.9</td>
<td>5.5 6.0 6.7 5.9</td>
</tr>
<tr>
<td>제주</td>
<td>0.9 1.4 1.5 1.2</td>
<td>1.2 1.2 1.2 1.2</td>
</tr>
</tbody>
</table>

지역

<table>
<thead>
<tr>
<th></th>
<th>동부</th>
<th>읍면부</th>
</tr>
</thead>
<tbody>
<tr>
<td></td>
<td>90.4</td>
<td>78.8</td>
</tr>
<tr>
<td></td>
<td>9.6</td>
<td>21.2</td>
</tr>
<tr>
<td>계</td>
<td>(28,838)</td>
<td>(28,094)</td>
</tr>
<tr>
<td>(명)</td>
<td>(22,406)</td>
<td>(79,338)</td>
</tr>
<tr>
<td></td>
<td>(270,034)</td>
<td>(282,347)</td>
</tr>
<tr>
<td></td>
<td>(81,933)</td>
<td>(634,314)</td>
</tr>
</tbody>
</table>

자료: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한편,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39세 이하 연령층에서 1인가구 거주자들은 대체로 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연령층의 1인가구 거주자가 동부에 있는 비율은 54.8%에 그치고 있다.

〈표 5-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연령3집단)별 성·결혼상태 및 교육수준 분포(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인가구 거주자(15세이상 인구중)</th>
<th>2인이상 가구 거주자(15세이상 인구중)</th>
</tr>
</thead>
<tbody>
<tr>
<td></td>
<td>15<del>39세 40</del>64세 65세이상 전체</td>
<td>15<del>39세 40</del>64세 65세이상 전체</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58.3 51.7 19.5 45.0</td>
<td>48.3 48.9 46.5 48.3</td>
</tr>
<tr>
<td>여성</td>
<td>41.7 48.3 80.5 55.0</td>
<td>51.7 51.1 53.5 51.7</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r>
<tr>
<td>미혼</td>
<td>90.4 26.6 1.8 42.8</td>
<td>58.5 2.8 0.3 26.2</td>
</tr>
<tr>
<td>유배우</td>
<td>5.8 24.2 8.1 13.0</td>
<td>40.1 88.3 72.7 65.8</td>
</tr>
<tr>
<td>사별</td>
<td>0.1 19.4 84.7 30.9</td>
<td>0.1 3.7 26.0 5.1</td>
</tr>
<tr>
<td>이혼</td>
<td>3.7 29.8 5.4 13.4</td>
<td>1.3 5.2 1.0 3.0</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0.4 20.6 79.1 29.8</td>
<td>0.3 12.5 60.2 13.5</td>
</tr>
<tr>
<td>중학교</td>
<td>1.6 17.9 8.9 9.4</td>
<td>4.4 14.6 14.8 10.3</td>
</tr>
<tr>
<td>고등학교</td>
<td>26.1 38.0 7.9 25.2</td>
<td>36.1 42.3 15.6 36.2</td>
</tr>
<tr>
<td>(전문대학이상)</td>
<td>71.9 23.6 4.1 35.6</td>
<td>59.2 30.5 9.4 40.0</td>
</tr>
<tr>
<td>계</td>
<td>100.0 100.0 100.0 100.0</td>
<td>100.0 100.0 100.0 100.0</td>
</tr>
</tbody>
</table>

자료: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1인가구 거주자들의 연령군별로 성·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위에 제시된 〈표 5-2〉와 같다. 39세 이하 1인가구 거주자에게서는 남성이 58.3%이지만, 노년층에서 그 비율은 19.5%에 그치고 있다. 노년층 1인가구 거주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나타난다. 결혼상태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젊은층의 1인가구 거주자들은 대체로 미혼이지만, 노년층에서는 사별의 비율이 매우 높다. 교육수준의 경우에
도 젊은 층의 1인가구 거주자들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노년층에서는 초등학교 이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5-3>은 1인가구 거주자들의 연령군별 주택유형, 거주지 변동 및 거주층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점유형태의 경우, 1인가구 거주자들 내에서 청년층에서는 월세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에서는 자가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노년층 내 자가의 비중은 2인 이상 가구의 거주자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1인가구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주거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5-3〉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연령3집단)별 점유형태 주택유형 거주지변동 및 거주층 분포(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인가구 거주자 (15세 이상 인구중)</th>
<th>2인이상 가구 거주자 (15세 이상 인구중)</th>
</tr>
</thead>
<tbody>
<tr>
<td>점유형태별</td>
<td></td>
<td></td>
</tr>
<tr>
<td>자가</td>
<td>11.2 34.4 66.5 35.1</td>
<td>55.7 68.1 80.5 64.4</td>
</tr>
<tr>
<td>전세</td>
<td>25.4 17.4 12.9 19.1</td>
<td>23.6 16.2 9.8 18.5</td>
</tr>
<tr>
<td>보증금있는 월세</td>
<td>46.9 30.1 10.4 30.6</td>
<td>14.3 10.6 5.9 11.6</td>
</tr>
<tr>
<td>보증금없는 월세</td>
<td>6.9 8.1 3.4 6.4</td>
<td>1.6 1.5 1.0 1.5</td>
</tr>
<tr>
<td>사글세</td>
<td>3.3 2.4 1.6 2.5</td>
<td>0.9 0.7 0.5 0.8</td>
</tr>
<tr>
<td>기타</td>
<td>6.2 7.5 5.1 6.3</td>
<td>3.9 2.8 2.3 3.2</td>
</tr>
<tr>
<td>주택유형별 분포</td>
<td></td>
<td></td>
</tr>
<tr>
<td>단독주택</td>
<td>58.3 55.1 70.1 60.5</td>
<td>28.8 34.5 56.0 34.8</td>
</tr>
<tr>
<td>아파트</td>
<td>21.9 30.0 21.2 24.6</td>
<td>57.5 52.8 33.4 52.3</td>
</tr>
<tr>
<td>연립주택</td>
<td>1.4 2.3 2.0 1.9</td>
<td>3.3 3.4 3.0 3.3</td>
</tr>
<tr>
<td>다세대</td>
<td>6.2 5.8 3.8 5.4</td>
<td>8.3 7.2 5.3 7.4</td>
</tr>
<tr>
<td>기타</td>
<td>12.2 6.8 2.9 7.7</td>
<td>2.1 2.1 2.2 2.1</td>
</tr>
<tr>
<td>1년전 거주지 변동</td>
<td></td>
<td></td>
</tr>
<tr>
<td>현재 살고있는집</td>
<td>53.5 77.3 92.5 73.0</td>
<td>78.5 87.6 92.4 84.3</td>
</tr>
<tr>
<td>같은 시군구 내 다른집</td>
<td>23.9 14.0 5.6 15.2</td>
<td>13.7 9.0 5.1 10.5</td>
</tr>
<tr>
<td>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시도</td>
<td>21.8 8.5 1.8 11.5</td>
<td>7.3 3.3 2.4 4.9</td>
</tr>
<tr>
<td>북한 또는 외국</td>
<td>0.7 0.2 0.0 0.3</td>
<td>0.6 0.2 0.1 0.3</td>
</tr>
</tbody>
</table>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인가구 거주자 (15세 이상 인구증)</th>
<th>2인이상 가구 거주자 (15세 이상 인구증)</th>
</tr>
</thead>
<tbody>
<tr>
<td></td>
<td>15-39세 40-64세 65세이상 전체</td>
<td>15-39세 40-64세 65세이상 전체</td>
</tr>
<tr>
<td>거주층</td>
<td></td>
<td></td>
</tr>
<tr>
<td>지하(반지하)</td>
<td>5.0 5.3 2.9 4.5</td>
<td>2.4 2.2 1.5 2.2</td>
</tr>
<tr>
<td>지상층</td>
<td>94.0 94.0 96.9 94.8</td>
<td>97.4 97.7 98.3 97.6</td>
</tr>
<tr>
<td>옥상(옥탑)</td>
<td>1.0 0.7 0.2 0.7</td>
<td>0.2 0.2 0.1 0.2</td>
</tr>
<tr>
<td>타지주택 소유여부</td>
<td></td>
<td></td>
</tr>
<tr>
<td>다른곳 주택소유</td>
<td>8.1 13.8 5.3 9.3</td>
<td>16.4 19.2 14.0 17.3</td>
</tr>
<tr>
<td>다른곳 주택미소유</td>
<td>91.9 86.2 94.7 90.7</td>
<td>83.6 80.8 86.0 82.7</td>
</tr>
<tr>
<td>계(명)</td>
<td>100.0 100.0 100.0 100.0</td>
<td>100.0 100.0 100.0 100.0</td>
</tr>
</tbody>
</table>

자료: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주택유형별 분포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에서 1인가구 거주자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1인가구 거주자들의 58.3%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2인 이상 가구 거주자들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노년층에서도 단독주택의 비중은 1인가구 거주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거주지 변동에 있어서는 1인가구 거주자나 2인 이상 가구 거주자 모두에게서 노년층의 변동이 적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서 1인가구 거주자들의 거주지 변동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거주층은 대체로 지상층으로 나타난다. 현재 거주지 외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1인가구 거주자 중에서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 러한 현상은 청년층에서 다소 높다.

2. 사회활동 참여 실태

다음의 <표 5-4>는 1인가구 거주자들의 사회활동참여율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인 이상 가구 거주자들에 비해 1인가구 거주자들이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다소 낮다.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데, 특히 1인가구 노년층에서는 그 비율이 79.2%에 달한다. 한편 가구규모와 상관없이 사회활동의 내용은 대체로 종교분야 단체활동이나 친목단체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친목단체 활동의 경우, 1인가구 거주자들은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표 5-4〉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사회활동참여율(2010년)

1) 1인가구 거주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인구수</th>
<th>환경</th>
<th>보수</th>
<th>문화</th>
<th>체육</th>
<th>경제</th>
<th>정치</th>
<th>지역</th>
<th>교육</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활동</td>
<td>분야</td>
<td>분야</td>
<td>단체</td>
<td>분야</td>
<td>단체</td>
<td>단체</td>
<td>단체</td>
<td>활동</td>
</tr>
<tr>
<td></td>
<td></td>
<td>없음</td>
<td>단체</td>
<td>단체</td>
<td>단체</td>
<td>단체</td>
<td>단체</td>
<td>단체</td>
<td>단체</td>
<td>동음</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체</td>
<td>79,338</td>
<td>74.0</td>
<td>2.2</td>
<td>1.8</td>
<td>5.1</td>
<td>0.2</td>
<td>8.6</td>
<td>1.1</td>
<td>11.7</td>
<td>1.2</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28,838</td>
<td>74.2</td>
<td>2.2</td>
<td>2.9</td>
<td>7.5</td>
<td>0.3</td>
<td>5.0</td>
<td>0.4</td>
<td>10.8</td>
<td>2.1</td>
</tr>
<tr>
<td>40~64세</td>
<td>28,094</td>
<td>69.5</td>
<td>3.0</td>
<td>2.2</td>
<td>5.2</td>
<td>0.3</td>
<td>9.8</td>
<td>1.5</td>
<td>16.1</td>
<td>1.2</td>
</tr>
<tr>
<td>65세이상</td>
<td>22,406</td>
<td>79.2</td>
<td>1.0</td>
<td>0.1</td>
<td>1.9</td>
<td>0.1</td>
<td>11.9</td>
<td>1.4</td>
<td>7.2</td>
<td>0.2</td>
</tr>
<tr>
<td>연령 10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29세</td>
<td>14,640</td>
<td>76.8</td>
<td>2.2</td>
<td>2.6</td>
<td>7.0</td>
<td>0.2</td>
<td>4.6</td>
<td>0.2</td>
<td>8.6</td>
<td>2.3</td>
</tr>
<tr>
<td>30~39세</td>
<td>14,198</td>
<td>71.6</td>
<td>2.2</td>
<td>3.1</td>
<td>8.1</td>
<td>0.4</td>
<td>5.4</td>
<td>0.6</td>
<td>13.0</td>
<td>2.0</td>
</tr>
<tr>
<td>40~49세</td>
<td>11,697</td>
<td>69.9</td>
<td>3.2</td>
<td>3.3</td>
<td>6.5</td>
<td>0.5</td>
<td>7.3</td>
<td>1.2</td>
<td>15.9</td>
<td>1.6</td>
</tr>
<tr>
<td>50~59세</td>
<td>11,307</td>
<td>69.0</td>
<td>3.0</td>
<td>1.9</td>
<td>4.6</td>
<td>0.2</td>
<td>10.8</td>
<td>1.8</td>
<td>16.9</td>
<td>1.0</td>
</tr>
<tr>
<td>60~69세</td>
<td>10,660</td>
<td>71.8</td>
<td>2.2</td>
<td>0.3</td>
<td>3.2</td>
<td>0.1</td>
<td>13.1</td>
<td>1.8</td>
<td>13.0</td>
<td>0.5</td>
</tr>
<tr>
<td>70~79세</td>
<td>11,852</td>
<td>78.6</td>
<td>1.0</td>
<td>0.1</td>
<td>1.9</td>
<td>0.1</td>
<td>12.3</td>
<td>1.4</td>
<td>7.3</td>
<td>0.1</td>
</tr>
<tr>
<td>80세이상</td>
<td>4,984</td>
<td>86.8</td>
<td>0.2</td>
<td>0.0</td>
<td>0.8</td>
<td>0.0</td>
<td>9.6</td>
<td>0.9</td>
<td>2.6</td>
<td>0.1</td>
</tr>
</tbody>
</table>

자료: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 123

2) 2인이상 가구 거주자

(단위: 명, %)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인구수</th>
<th>사회 활동</th>
<th>환경 보호</th>
<th>정교 분야</th>
<th>문화 분야</th>
<th>정치 분야</th>
<th>경제 분야</th>
<th>지역 단체</th>
<th>진축 단체</th>
<th>교육 단체</th>
<th>기타 활동</th>
</tr>
</thead>
<tbody>
<tr>
<td></td>
<td>634,314</td>
<td>66.8</td>
<td>2.8</td>
<td>2.1</td>
<td>5.6</td>
<td>0.3</td>
<td>10.5</td>
<td>1.9</td>
<td>17.7</td>
<td>2.2</td>
<td>0.2</td>
</tr>
<tr>
<td>연령 3집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39세</td>
<td>270,034</td>
<td>73.3</td>
<td>2.0</td>
<td>2.0</td>
<td>5.4</td>
<td>0.2</td>
<td>8.1</td>
<td>0.7</td>
<td>11.9</td>
<td>2.5</td>
<td>0.3</td>
</tr>
<tr>
<td>40-64세</td>
<td>282,347</td>
<td>58.9</td>
<td>4.0</td>
<td>2.8</td>
<td>6.6</td>
<td>0.5</td>
<td>12.5</td>
<td>3.1</td>
<td>24.3</td>
<td>2.5</td>
<td>0.2</td>
</tr>
<tr>
<td>65세이상</td>
<td>81,933</td>
<td>72.9</td>
<td>1.6</td>
<td>0.4</td>
<td>2.6</td>
<td>0.2</td>
<td>11.6</td>
<td>2.1</td>
<td>14.3</td>
<td>0.4</td>
<td>0.2</td>
</tr>
<tr>
<td>연령 10세간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29세</td>
<td>145,575</td>
<td>79.1</td>
<td>1.8</td>
<td>1.2</td>
<td>4.3</td>
<td>0.1</td>
<td>7.3</td>
<td>0.2</td>
<td>8.1</td>
<td>1.3</td>
<td>0.4</td>
</tr>
<tr>
<td>30-39세</td>
<td>124,459</td>
<td>66.5</td>
<td>2.2</td>
<td>2.9</td>
<td>6.6</td>
<td>0.3</td>
<td>9.0</td>
<td>1.2</td>
<td>16.3</td>
<td>3.9</td>
<td>0.1</td>
</tr>
<tr>
<td>40-49세</td>
<td>136,472</td>
<td>58.8</td>
<td>4.1</td>
<td>3.5</td>
<td>7.5</td>
<td>0.5</td>
<td>11.4</td>
<td>2.8</td>
<td>22.9</td>
<td>3.7</td>
<td>0.2</td>
</tr>
<tr>
<td>50-59세</td>
<td>109,385</td>
<td>58.0</td>
<td>4.2</td>
<td>2.5</td>
<td>6.1</td>
<td>0.5</td>
<td>13.6</td>
<td>3.4</td>
<td>25.9</td>
<td>1.5</td>
<td>0.2</td>
</tr>
<tr>
<td>60-69세</td>
<td>65,970</td>
<td>63.7</td>
<td>2.7</td>
<td>0.7</td>
<td>4.1</td>
<td>0.3</td>
<td>13.4</td>
<td>2.7</td>
<td>22.3</td>
<td>0.6</td>
<td>0.2</td>
</tr>
<tr>
<td>70-79세</td>
<td>39,550</td>
<td>73.8</td>
<td>1.4</td>
<td>0.3</td>
<td>2.4</td>
<td>0.2</td>
<td>11.4</td>
<td>2.1</td>
<td>13.2</td>
<td>0.4</td>
<td>0.2</td>
</tr>
<tr>
<td>80세이상</td>
<td>12,903</td>
<td>84.9</td>
<td>0.6</td>
<td>0.1</td>
<td>0.8</td>
<td>0.1</td>
<td>8.9</td>
<td>1.4</td>
<td>4.6</td>
<td>0.1</td>
<td>0.3</td>
</tr>
</tbody>
</table>

자료: 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
제2절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한국복지패널

1. 경제활동 실태

<표 5-5>는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종사상의 지위를 나타낸 표이다. 전체적으로 1인가구가 57.9\%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여 2인 이상 가구(6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속한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1인가구가 95.2\%로 2인 이상 가구(43.4\%)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40세 미만이 속한 가구에서도 1인가구가 94.3\%로 2인 이상 가구(72.7\%)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40세 이상이 속한 가구부터는 1인가구가 76.6\%로 2인 이상 가구(81.1\%)보다 작아지면서 이후에는 2인 이상 가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세 미만이 속한 가구까지는 1인가구의 상용직 비율이 60.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40세 이상이 속한 가구부터는 1인가구의 상용직 비율이 29.2\%로 크게 떨어졌으며, 반대로 임시직, 일용직비율은 40세 이상이 속한 가구에서 56.0\%로 나타나 40세 미만이 속한 가구(30.3\%)보다 크게 높았다.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 125

표 5-5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종사상의 지위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경제활동참가율</th>
<th>종사상의 지위</th>
</tr>
</thead>
<tbody>
<tr>
<td>평균</td>
<td>60.8</td>
<td>42.8 20.0 11.0 0.9 3.6 16.4 5.3 100.0 (7,065)</td>
</tr>
<tr>
<td></td>
<td>57.9</td>
<td>42.6 22.1 15.5 2.0 0.7 17.2 0.0 100.0 (457)</td>
</tr>
<tr>
<td></td>
<td>61.0</td>
<td>42.8 19.8 10.8 0.8 3.8 16.3 5.7 100.0 (6,608)</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연령군</th>
<th>경제활동참가율</th>
<th>종사상의 지위</th>
</tr>
</thead>
<tbody>
<tr>
<td>30세 미만</td>
<td>46.0</td>
<td>51.1 32.9 11.3 0.4 0.2 2.3 1.8 100.0 (901)</td>
</tr>
<tr>
<td></td>
<td>95.2</td>
<td>69.6 28.2 0.5 0.0 0.0 1.7 0.0 100.0 (98)</td>
</tr>
<tr>
<td></td>
<td>43.4</td>
<td>48.9 33.5 12.6 0.4 0.2 2.4 2.0 100.0 (803)</td>
</tr>
</tbody>
</table>

| 30-40세 미만 | 73.7           | 61.3 16.7 6.3 0.3 3.9 9.5 2.2 100.0 (1,570) |
|             | 94.3           | 60.7 21.2 9.1 0.0 1.0 8.0 0.0 100.0 (99) |
|             | 72.7           | 61.3 16.4 6.1 0.4 4.1 9.6 2.3 100.0 (1,471) |

| 40-50세 미만 | 81.0           | 42.8 17.9 12.1 1.0 5.7 15.6 5.0 100.0 (1,679) |
|             | 76.6           | 29.2 24.4 31.6 2.0 1.0 11.8 0.0 100.0 (47) |
|             | 81.1           | 43.2 17.7 11.5 0.9 5.8 15.7 5.2 100.0 (1,632) |

| 50-60세 미만 | 71.3           | 30.7 15.8 14.1 0.9 4.4 26.2 7.9 100.0 (1,201) |
|             | 56.6           | 19.9 23.3 34.8 6.7 1.4 13.9 0.0 100.0 (50) |
|             | 72.2           | 31.1 15.5 13.2 0.7 4.5 26.7 8.3 100.0 (1,201) |

| 60-70세 미만 | 45.2           | 8.4 21.1 15.0 2.1 2.9 36.1 14.4 100.0 (987) |
|             | 38.3           | 0.7 16.3 34.2 2.7 0.0 46.1 0.0 100.0 (91) |
|             | 46.0           | 9.1 21.6 13.1 2.1 3.2 35.0 15.9 100.0 (896) |

| 70-80세 미만 | 27.4           | 1.8 10.2 9.1 4.0 1.0 56.3 17.6 100.0 (657) |
|             | 23.7           | 3.4 8.2 12.8 6.1 1.5 68.0 0.0 100.0 (127) |
|             | 28.4           | 1.4 10.7 8.2 3.5 0.9 53.4 21.9 100.0 (530) |

| 80세이상    | 8.2            | 0.0 2.2 13.0 4.9 4.0 64.0 11.9 100.0 (70) |
|             | 11.8           | 0.0 5.3 29.0 9.3 0.0 56.3 0.0 100.0 (28) |
|             | 6.7            | 0.0 0.0 2.1 1.8 6.8 69.3 20.1 100.0 (42) |

주: 1)전체 응답자 15,625명 중 15세 미만 2,609명을 제외한 13,016명을 분석한 결과임.
2)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7,065명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2. 경제상태

<표 5-6>은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연령군별 가구의 균등화된 연간 경상소득을 정리한 표이다. 균등화 척도로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다. 전체 가구소득을 보면 평균이 1인가구가 2,023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2,731만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 가구에서만 1인가구의 소득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보다 높았으며, 40세 이후부터는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1인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40~50세 미만인 그룹에서는 평균소득이 2,109만원으로 30~40세 미만 그룹(3,845만원)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그 이후의 연령대에서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40대까지는 줄어들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년층 가구주의 경우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이면 소득활동이 있는 가구원이 1인 이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인가구보다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경우 40, 50대를 지나게 되면서 근로능력이 점차로 퇴어지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지만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근로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해도 가구소득의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 127

<table>
<thead>
<tr>
<th>연령군</th>
<th>특성</th>
<th>중위</th>
<th>평균</th>
<th>표준편차</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2,267</td>
<td>2,681</td>
<td>2,239</td>
<td></td>
</tr>
<tr>
<td>1인</td>
<td>1,303</td>
<td>2,023</td>
<td>3,624</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2,329</td>
<td>2,731</td>
<td>2,088</td>
<td></td>
</tr>
<tr>
<td>30세 미만</td>
<td>2,552</td>
<td>2,199</td>
<td>2,364</td>
<td></td>
</tr>
<tr>
<td>1인</td>
<td>2,568</td>
<td>3,377</td>
<td>6,062</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2,543</td>
<td>3,074</td>
<td>2,598</td>
<td></td>
</tr>
<tr>
<td>30~40세 미만</td>
<td>2,451</td>
<td>2,832</td>
<td>2,209</td>
<td></td>
</tr>
<tr>
<td>1인</td>
<td>2,683</td>
<td>3,845</td>
<td>5,240</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2,446</td>
<td>2,779</td>
<td>1,911</td>
<td></td>
</tr>
<tr>
<td>40~50세 미만</td>
<td>2,364</td>
<td>2,831</td>
<td>2,428</td>
<td></td>
</tr>
<tr>
<td>1인</td>
<td>1,703</td>
<td>2,109</td>
<td>1,893</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2,380</td>
<td>2,485</td>
<td>2,436</td>
<td></td>
</tr>
<tr>
<td>50~60세 미만</td>
<td>2,614</td>
<td>2,941</td>
<td>1,926</td>
<td></td>
</tr>
<tr>
<td>1인</td>
<td>1,074</td>
<td>1,551</td>
<td>1,607</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2,656</td>
<td>2,996</td>
<td>1,918</td>
<td></td>
</tr>
<tr>
<td>60~70세 미만</td>
<td>1,883</td>
<td>2,353</td>
<td>1,790</td>
<td></td>
</tr>
<tr>
<td>1인</td>
<td>958</td>
<td>1,172</td>
<td>826</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1,967</td>
<td>2,466</td>
<td>1,763</td>
<td></td>
</tr>
<tr>
<td>70~80세 미만</td>
<td>1,102</td>
<td>1,390</td>
<td>938</td>
<td></td>
</tr>
<tr>
<td>1인</td>
<td>745</td>
<td>897</td>
<td>571</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2,390</td>
<td>1,523</td>
<td>973</td>
<td></td>
</tr>
<tr>
<td>80세 이상</td>
<td>756</td>
<td>909</td>
<td>581</td>
<td></td>
</tr>
<tr>
<td>1인</td>
<td>642</td>
<td>730</td>
<td>426</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844</td>
<td>1,044</td>
<td>643</td>
<td></td>
</tr>
</tbody>
</table>

주: 소득의 경우 가구단위로 집계되었고 있어 6,033가구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5-7>은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연령군별 근로소득 유무를 보여주는 표이다. 전체적으로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비율은 1인가구가 54.6%로 2인 이상 가구(81.0%)보다 낮았으며, 사업 소득의 비율도 1인가구는 6.5%로 나타나 2인 이상 가구(25.3%)보다 크게 낮았다.

연령별로 확인해보면 대부분 연령에서 1인가구의 소득원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연령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가 활발한 30-40세 미만이 속한 가구에는 임금소득원이 있는 비율이 1인가구가 91.5%로 2인 이상 가구(89.9%)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연령에서는 역전되어 은퇴시기인 50-60세 미만이 속한 가구는 1인가구가 56.4%로 2인 이상 가구(88.6%)보다 약 32.2%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서 근로소득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면, 1인가구의 경우 높은 연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참가가 제소해지는 반면에 2인 이상 가구는 연령이 어린 가구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가구소득을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표 5-7〉 1인가구와 비1인가구의 연령군별 근로소득 유무(소득원이 있는 비율)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임금소득</th>
<th>사업소득</th>
<th>농림축어업 소득</th>
<th>부업소득</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75.7</td>
<td>21.5</td>
<td>6.9</td>
<td>2.6</td>
</tr>
<tr>
<td>1인</td>
<td>54.6</td>
<td>6.5</td>
<td>4.3</td>
<td>2.8</td>
</tr>
<tr>
<td>2인 이상</td>
<td>81.0</td>
<td>25.3</td>
<td>7.5</td>
<td>2.6</td>
</tr>
<tr>
<td>30세 미만</td>
<td>95.7</td>
<td>3.0</td>
<td>0.04</td>
<td>0.4</td>
</tr>
<tr>
<td>1인</td>
<td>95.5</td>
<td>1.5</td>
<td>0.0</td>
<td>0.5</td>
</tr>
<tr>
<td>2인 이상</td>
<td>96.0</td>
<td>5.6</td>
<td>0.1</td>
<td>0.0</td>
</tr>
<tr>
<td>30-40세 미만</td>
<td>90.2</td>
<td>17.6</td>
<td>0.9</td>
<td>0.3</td>
</tr>
<tr>
<td>1인</td>
<td>91.5</td>
<td>8.3</td>
<td>0.0</td>
<td>0.0</td>
</tr>
<tr>
<td>2인 이상</td>
<td>89.9</td>
<td>19.3</td>
<td>1.1</td>
<td>0.3</td>
</tr>
<tr>
<td>40-50세 미만</td>
<td>86.1</td>
<td>28.2</td>
<td>3.0</td>
<td>1.9</td>
</tr>
<tr>
<td>1인</td>
<td>73.0</td>
<td>12.3</td>
<td>0.0</td>
<td>1.0</td>
</tr>
<tr>
<td>2인 이상</td>
<td>87.2</td>
<td>30.0</td>
<td>3.2</td>
<td>1.9</td>
</tr>
<tr>
<td>50-60세 미만</td>
<td>84.9</td>
<td>30.9</td>
<td>8.4</td>
<td>3.3</td>
</tr>
<tr>
<td>1인</td>
<td>56.4</td>
<td>5.7</td>
<td>2.9</td>
<td>0.5</td>
</tr>
<tr>
<td>2인 이상</td>
<td>88.6</td>
<td>34.2</td>
<td>9.1</td>
<td>3.6</td>
</tr>
<tr>
<td>60-70세 미만</td>
<td>61.0</td>
<td>21.0</td>
<td>14.0</td>
<td>3.5</td>
</tr>
<tr>
<td>1인</td>
<td>33.4</td>
<td>7.1</td>
<td>10.9</td>
<td>3.9</td>
</tr>
<tr>
<td>2인 이상</td>
<td>68.1</td>
<td>24.6</td>
<td>14.8</td>
<td>3.4</td>
</tr>
<tr>
<td>70-80세 미만</td>
<td>32.8</td>
<td>9.6</td>
<td>17.1</td>
<td>5.6</td>
</tr>
<tr>
<td>1인</td>
<td>16.8</td>
<td>8.2</td>
<td>9.9</td>
<td>6.6</td>
</tr>
<tr>
<td>2인 이상</td>
<td>43.4</td>
<td>10.6</td>
<td>21.8</td>
<td>5.0</td>
</tr>
<tr>
<td>80세 이상</td>
<td>13.5</td>
<td>5.0</td>
<td>5.9</td>
<td>8.1</td>
</tr>
<tr>
<td>1인</td>
<td>7.5</td>
<td>4.5</td>
<td>1.8</td>
<td>6.3</td>
</tr>
<tr>
<td>2인 이상</td>
<td>23.3</td>
<td>5.7</td>
<td>12.5</td>
<td>11.0</td>
</tr>
</tbody>
</table>

주: 소득의 경우 가구단위로 집계되고 있어 6,033가구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 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5-8>은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연령군별 가구의 연간 근로 소득 외 소득의 유무를 보여주는 표이다. 전체적으로 재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원이 있는 비율 모두 1인가구가 17.6%, 15.1%로 2인 이상 가구(33.8%, 22.8%)보다 낮았으며 연령별로도 대부분 연령에서 2인 이상 가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비율은 1인가구가 13.6%로 2인 이상 가구(5.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의 경우는 30세 미만이 속한 가구에서부터 80세 이상이 속한 가구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험의 경우도 50~60세 미만이 속한 가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의 수급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세 이상에서 24.2%, 21.4%로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가 시작되며 근로능력이 상실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소득원이 없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재산소득의 경우는 앞서 보았던 <표 5-6>의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2인 가구가 더 높았으므로 충격된 재산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 131

(표 5-8) 1인가구와 비1인가구의 연령군별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 (소득원이 있는 비율)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재산 소득</th>
<th>사회 보험</th>
<th>민간 보험</th>
<th>가구원의 보조금</th>
<th>국민기초 생활보장</th>
<th>기타 정부 보조</th>
<th>기타 소득</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30.6</td>
<td>21.2</td>
<td>0.7</td>
<td>97.0</td>
<td>7.0</td>
<td>43.9</td>
<td>95.9</td>
</tr>
<tr>
<td>1인</td>
<td>17.6</td>
<td>15.1</td>
<td>0.1</td>
<td>96.1</td>
<td>13.6</td>
<td>42.0</td>
<td>89.7</td>
</tr>
<tr>
<td>2인 이상</td>
<td>33.8</td>
<td>22.8</td>
<td>0.8</td>
<td>97.2</td>
<td>5.3</td>
<td>44.3</td>
<td>97.5</td>
</tr>
<tr>
<td>30세 미만</td>
<td>15.5</td>
<td>3.3</td>
<td>0.3</td>
<td>94.0</td>
<td>0.5</td>
<td>20.3</td>
<td>72.9</td>
</tr>
<tr>
<td>1인</td>
<td>11.4</td>
<td>0.0</td>
<td>0.0</td>
<td>91.8</td>
<td>0.4</td>
<td>3.0</td>
<td>67.6</td>
</tr>
<tr>
<td>2인 이상</td>
<td>22.8</td>
<td>9.3</td>
<td>0.7</td>
<td>98.0</td>
<td>0.8</td>
<td>51.5</td>
<td>82.3</td>
</tr>
<tr>
<td>30-40세 미만</td>
<td>22.2</td>
<td>9.8</td>
<td>0.2</td>
<td>97.7</td>
<td>2.5</td>
<td>41.0</td>
<td>95.8</td>
</tr>
<tr>
<td>1인</td>
<td>14.7</td>
<td>4.0</td>
<td>0.0</td>
<td>96.7</td>
<td>1.7</td>
<td>3.1</td>
<td>90.3</td>
</tr>
<tr>
<td>2인 이상</td>
<td>23.5</td>
<td>10.8</td>
<td>0.2</td>
<td>97.9</td>
<td>2.6</td>
<td>47.9</td>
<td>96.8</td>
</tr>
<tr>
<td>40-50세 미만</td>
<td>28.3</td>
<td>6.4</td>
<td>0.4</td>
<td>95.6</td>
<td>6.4</td>
<td>34.8</td>
<td>97.4</td>
</tr>
<tr>
<td>1인</td>
<td>22.7</td>
<td>4.7</td>
<td>0.0</td>
<td>90.6</td>
<td>16.6</td>
<td>20.4</td>
<td>91.2</td>
</tr>
<tr>
<td>2인 이상</td>
<td>28.8</td>
<td>6.5</td>
<td>0.5</td>
<td>96.0</td>
<td>5.6</td>
<td>36.0</td>
<td>98.0</td>
</tr>
<tr>
<td>50-60세 미만</td>
<td>35.6</td>
<td>14.1</td>
<td>0.7</td>
<td>96.4</td>
<td>8.2</td>
<td>32.1</td>
<td>98.5</td>
</tr>
<tr>
<td>1인</td>
<td>15.4</td>
<td>18.0</td>
<td>0.0</td>
<td>95.8</td>
<td>24.2</td>
<td>32.0</td>
<td>97.9</td>
</tr>
<tr>
<td>2인 이상</td>
<td>38.2</td>
<td>13.6</td>
<td>0.8</td>
<td>96.5</td>
<td>6.1</td>
<td>32.1</td>
<td>98.6</td>
</tr>
<tr>
<td>60-70세 미만</td>
<td>42.9</td>
<td>68.7</td>
<td>2.3</td>
<td>98.5</td>
<td>8.4</td>
<td>55.1</td>
<td>97.4</td>
</tr>
<tr>
<td>1인</td>
<td>23.1</td>
<td>45.2</td>
<td>0.7</td>
<td>98.1</td>
<td>21.4</td>
<td>63.3</td>
<td>96.2</td>
</tr>
<tr>
<td>2인 이상</td>
<td>48.0</td>
<td>74.8</td>
<td>2.7</td>
<td>98.6</td>
<td>5.1</td>
<td>53.0</td>
<td>97.8</td>
</tr>
<tr>
<td>70-80세 미만</td>
<td>32.9</td>
<td>34.6</td>
<td>0.2</td>
<td>99.3</td>
<td>12.9</td>
<td>79.2</td>
<td>97.9</td>
</tr>
<tr>
<td>1인</td>
<td>21.5</td>
<td>21.4</td>
<td>0.0</td>
<td>99.4</td>
<td>17.3</td>
<td>84.6</td>
<td>96.3</td>
</tr>
<tr>
<td>2인 이상</td>
<td>40.5</td>
<td>43.3</td>
<td>0.2</td>
<td>99.3</td>
<td>10.0</td>
<td>75.7</td>
<td>99.0</td>
</tr>
<tr>
<td>80세 이상</td>
<td>23.8</td>
<td>9.9</td>
<td>0.0</td>
<td>99.1</td>
<td>18.3</td>
<td>89.9</td>
<td>97.5</td>
</tr>
<tr>
<td>1인</td>
<td>14.4</td>
<td>3.5</td>
<td>0.0</td>
<td>99.4</td>
<td>22.1</td>
<td>92.9</td>
<td>96.5</td>
</tr>
<tr>
<td>2인 이상</td>
<td>39.2</td>
<td>20.4</td>
<td>0.0</td>
<td>99.6</td>
<td>12.2</td>
<td>85.1</td>
<td>99.1</td>
</tr>
</tbody>
</table>

주: 소득의 경우 가구단위로 집계되고 있어 6,033가구를 분석한 결과임.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5-9는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연령군별 가구의 균등화된 월간 총지출을 보여주는 표이다. 균등화 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균등화 척도로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균등화된 평균지출은 1인가구가 131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197만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1인가구가 168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191만원)에 비해 더 낮았으며, 80세 이상에서도 1인가구(64만원)가 2인 이상 가구(87만원)보다 높아서,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지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는 40세 이상이 속한 가구부터 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인 이상 가구는 60세 이상이 속한 가구부터 지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표 5-6의 소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득이 감소하는 시점과 지출이 감소하는 시점이 비슷하지만 소득의 전환점이 조금 더 앞선다는 점에서 소득과 지출의 연령대별 패턴이 가구주의 은퇴행위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표 5-9〉 1인가구와 비1인가구의 연령군별 가구의 월간 총가계지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중위</th>
<th>평균</th>
<th>표준편차</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174</td>
<td>193</td>
<td>104</td>
</tr>
<tr>
<td>1인</td>
<td>105</td>
<td>131</td>
<td>97</td>
</tr>
<tr>
<td>2인 이상</td>
<td>178</td>
<td>197</td>
<td>103</td>
</tr>
<tr>
<td>30세 미만</td>
<td>177</td>
<td>181</td>
<td>65</td>
</tr>
<tr>
<td>1인</td>
<td>161</td>
<td>168</td>
<td>52</td>
</tr>
<tr>
<td>2인 이상</td>
<td>187</td>
<td>191</td>
<td>71</td>
</tr>
<tr>
<td>30~40세 미만</td>
<td>180</td>
<td>194</td>
<td>77</td>
</tr>
<tr>
<td>1인</td>
<td>182</td>
<td>202</td>
<td>120</td>
</tr>
<tr>
<td>2인 이상</td>
<td>177</td>
<td>194</td>
<td>74</td>
</tr>
<tr>
<td>40~50세 미만</td>
<td>190</td>
<td>207</td>
<td>103</td>
</tr>
<tr>
<td>1인</td>
<td>140</td>
<td>173</td>
<td>111</td>
</tr>
<tr>
<td>2인 이상</td>
<td>191</td>
<td>207</td>
<td>102</td>
</tr>
<tr>
<td>50~60세 미만</td>
<td>192</td>
<td>221</td>
<td>125</td>
</tr>
<tr>
<td>1인</td>
<td>94</td>
<td>123</td>
<td>108</td>
</tr>
<tr>
<td>2인 이상</td>
<td>195</td>
<td>225</td>
<td>124</td>
</tr>
<tr>
<td>60~70세 미만</td>
<td>143</td>
<td>165</td>
<td>96</td>
</tr>
<tr>
<td>1인</td>
<td>78</td>
<td>100</td>
<td>79</td>
</tr>
<tr>
<td>2인 이상</td>
<td>149</td>
<td>172</td>
<td>96</td>
</tr>
<tr>
<td>70~80세 미만</td>
<td>91</td>
<td>108</td>
<td>64</td>
</tr>
<tr>
<td>1인</td>
<td>63</td>
<td>82</td>
<td>66</td>
</tr>
<tr>
<td>2인 이상</td>
<td>149</td>
<td>172</td>
<td>96</td>
</tr>
<tr>
<td>80세 이상</td>
<td>60</td>
<td>77</td>
<td>53</td>
</tr>
<tr>
<td>1인</td>
<td>49</td>
<td>64</td>
<td>53</td>
</tr>
<tr>
<td>2인 이상</td>
<td>74</td>
<td>87</td>
<td>50</td>
</tr>
</tbody>
</table>

주: 자료의 경우 가구단위로 결계되고 있어, 6,033가구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자료.

<표 5-10>은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가구의 총 재산액과 총부채액을 비교하는 표이다. 전체적으로 1인가구가 총재산액이 1억 2,683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3억 7,611만원)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부채액도 1인가구가 1,102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4,627만원)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앞서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확인했던 소득과 지출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재산 및 부채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가구소득 및 지출뿐만 아니라 가구인원 및 세대구성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10 1인가구와 비1인가구의 연령군별 가구의 총재산액과 총부채액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총 재산액</th>
<th>총 부채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d>중위</td>
<td>평균</td>
</tr>
<tr>
<td>전반</td>
<td>13,120</td>
<td>32,578</td>
</tr>
<tr>
<td>1인</td>
<td>2,930</td>
<td>12,683</td>
</tr>
<tr>
<td>2인 이상</td>
<td>17,410</td>
<td>37,611</td>
</tr>
<tr>
<td>30세 미만</td>
<td>4,120</td>
<td>8,206</td>
</tr>
<tr>
<td>1인</td>
<td>2,000</td>
<td>4,634</td>
</tr>
<tr>
<td>2인 이상</td>
<td>8,860</td>
<td>14,615</td>
</tr>
<tr>
<td>30~40세 미만</td>
<td>12,480</td>
<td>23,784</td>
</tr>
<tr>
<td>1인</td>
<td>4,990</td>
<td>18,133</td>
</tr>
<tr>
<td>2인 이상</td>
<td>14,170</td>
<td>24,817</td>
</tr>
<tr>
<td>40~50세 미만</td>
<td>16,800</td>
<td>34,904</td>
</tr>
<tr>
<td>1인</td>
<td>2,250</td>
<td>11,135</td>
</tr>
<tr>
<td>2인 이상</td>
<td>17,971</td>
<td>36,487</td>
</tr>
<tr>
<td>50~60세 미만</td>
<td>18,300</td>
<td>38,605</td>
</tr>
<tr>
<td>1인</td>
<td>2,576</td>
<td>10,185</td>
</tr>
<tr>
<td>2인 이상</td>
<td>21,230</td>
<td>42,308</td>
</tr>
<tr>
<td>60~70세 미만</td>
<td>18,123</td>
<td>48,673</td>
</tr>
<tr>
<td>1인</td>
<td>3,578</td>
<td>19,686</td>
</tr>
<tr>
<td>2인 이상</td>
<td>23,290</td>
<td>56,160</td>
</tr>
<tr>
<td>70~80세 미만</td>
<td>8,000</td>
<td>26,503</td>
</tr>
<tr>
<td>1인</td>
<td>2,510</td>
<td>15,758</td>
</tr>
<tr>
<td>2인 이상</td>
<td>12,600</td>
<td>33,586</td>
</tr>
<tr>
<td>80세 이상</td>
<td>2,120</td>
<td>11,155</td>
</tr>
<tr>
<td>1인</td>
<td>980</td>
<td>5,588</td>
</tr>
<tr>
<td>2인 이상</td>
<td>6,890</td>
<td>20,216</td>
</tr>
</tbody>
</table>

주: 재산 및 부채의 경우 가구단위로 집계되고 있어 6,033가구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 자료.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135

<표 5-11>은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를 보여주는 표이다. 전체적으로 공적연금을 수급 받는 비율이 1인가구가 22.7%로 2인 이상 가구(12.1%)보다 10.6% 포인트 더 높았다. 연령별로 확인을 해보면 수급비율이 다른 연령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0~60세 미만이 속한 가구의 경우 1인가구는 16.5%가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냈고 2인 이상 가구에서 7.7%가 수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인 이상 가구보다는 1인가구가 연금을 수급 받는 시기가 좀 더 빨랐다.

〈표 5-11〉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수급</th>
<th>가입</th>
<th>수급하면서 가입</th>
<th>미가입</th>
<th>계</th>
<th>계 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12.9</td>
<td>84.3</td>
<td>0.3</td>
<td>2.6</td>
<td>100.0 (6,124)</td>
<td></td>
</tr>
<tr>
<td>1인</td>
<td>22.7</td>
<td>75.4</td>
<td>0.0</td>
<td>1.9</td>
<td>100.0 (460)</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12.1</td>
<td>85.0</td>
<td>0.3</td>
<td>2.6</td>
<td>100.0 (5,664)</td>
<td></td>
</tr>
<tr>
<td>30세 미만</td>
<td>0.2</td>
<td>94.1</td>
<td>0.1</td>
<td>5.7</td>
<td>100.0 (763)</td>
<td></td>
</tr>
<tr>
<td>1인</td>
<td>0.0</td>
<td>98.1</td>
<td>0.0</td>
<td>1.9</td>
<td>100.0 (90)</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0.3</td>
<td>93.5</td>
<td>0.1</td>
<td>6.2</td>
<td>100.0 (673)</td>
<td></td>
</tr>
<tr>
<td>30~40세 미만</td>
<td>0.1</td>
<td>97.4</td>
<td>0.3</td>
<td>2.2</td>
<td>100.0 (1,521)</td>
<td></td>
</tr>
<tr>
<td>1인</td>
<td>0.0</td>
<td>97.6</td>
<td>0.0</td>
<td>2.4</td>
<td>100.0 (103)</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0.1</td>
<td>97.4</td>
<td>0.3</td>
<td>2.2</td>
<td>100.0 (1,418)</td>
<td></td>
</tr>
<tr>
<td>40~50세 미만</td>
<td>0.7</td>
<td>96.5</td>
<td>0.2</td>
<td>2.6</td>
<td>100.0 (1,433)</td>
<td></td>
</tr>
<tr>
<td>1인</td>
<td>3.7</td>
<td>94.5</td>
<td>0.0</td>
<td>1.8</td>
<td>100.0 (53)</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0.6</td>
<td>96.6</td>
<td>0.2</td>
<td>2.6</td>
<td>100.0 (1,380)</td>
<td></td>
</tr>
<tr>
<td>50~60세 미만</td>
<td>8.2</td>
<td>89.3</td>
<td>0.7</td>
<td>1.8</td>
<td>100.0 (1,063)</td>
<td></td>
</tr>
<tr>
<td>1인</td>
<td>16.5</td>
<td>79.8</td>
<td>0.0</td>
<td>3.7</td>
<td>100.0 (68)</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7.7</td>
<td>89.9</td>
<td>0.8</td>
<td>1.6</td>
<td>100.0 (995)</td>
<td></td>
</tr>
<tr>
<td>60~70세 미만</td>
<td>96.9</td>
<td>2.8</td>
<td>0.4</td>
<td>0.0</td>
<td>100.0 (865)</td>
<td></td>
</tr>
<tr>
<td>1인</td>
<td>97.5</td>
<td>2.5</td>
<td>0.0</td>
<td>0.0</td>
<td>100.0 (93)</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96.8</td>
<td>2.8</td>
<td>0.4</td>
<td>0.0</td>
<td>100.0 (772)</td>
<td></td>
</tr>
<tr>
<td>70~80세 미만</td>
<td>100.0</td>
<td>0.0</td>
<td>0.0</td>
<td>0.0</td>
<td>100.0 (445)</td>
<td></td>
</tr>
<tr>
<td>1인</td>
<td>100.0</td>
<td>0.0</td>
<td>0.0</td>
<td>0.0</td>
<td>100.0 (89)</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100.0</td>
<td>0.0</td>
<td>0.0</td>
<td>0.0</td>
<td>100.0 (356)</td>
<td></td>
</tr>
<tr>
<td>80세 이상</td>
<td>100.0</td>
<td>0.0</td>
<td>0.0</td>
<td>0.0</td>
<td>100.0 (34)</td>
<td></td>
</tr>
<tr>
<td>1인</td>
<td>100.0</td>
<td>0.0</td>
<td>0.0</td>
<td>0.0</td>
<td>100.0 (6)</td>
<td></td>
</tr>
<tr>
<td>2인 이상</td>
<td>100.0</td>
<td>0.0</td>
<td>0.0</td>
<td>0.0</td>
<td>100.0 (28)</td>
<td></td>
</tr>
</tbody>
</table>

주: 전체 응답자 15,625명 중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9,501명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 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3. 건강실태와 의료 보장 실태

<표 5-12>는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만성질환율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표이다. 전체적으로 1인가구가 만성질환율이 52.0%로 2인 이상 가구(28.0%)보다 더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건강하지 않은 편과 아주 안좋은 비율이 1인가구가 30.9%로 2인 이상 가구(10.3%)보다 더 높아 상대적으로 1인가구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확인해보면 30세 미만이 속한 가구에서 1인가구의 만성질환율이 11.8%로 2인 이상 가구(10.2%)보다 높았으며 80세 이상이 속한 가구에서도 1인가구(87.4%)가 2인 이상 가구(79.0%)보다 높아 모든 연령에서 전체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의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이 속한 가구가 되면서 만성질환율이 1인가구는 57.6%, 2인 이상 가구는 48.8%로 모두 이전 연령대보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건강상태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비율이 1인가구는 36.6%, 2인 이상 가구는 16.7%로 나타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표 5-1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만성질환율 및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만성 1) 질환율</th>
<th>주관적 건강상태 2)</th>
<th>계 명</th>
</tr>
</thead>
<tbody>
<tr>
<td></td>
<td>아주 건강</td>
<td>건강한편</td>
<td>보통</td>
</tr>
<tr>
<td>전체</td>
<td>29.3</td>
<td>20.9</td>
<td>54.7</td>
</tr>
<tr>
<td>1인</td>
<td>52.0</td>
<td>15.6</td>
<td>34.4</td>
</tr>
<tr>
<td>2인 이상</td>
<td>28.0</td>
<td>21.3</td>
<td>55.9</td>
</tr>
<tr>
<td>30세 미만</td>
<td>10.3</td>
<td>30.9</td>
<td>61.1</td>
</tr>
<tr>
<td>1인</td>
<td>11.8</td>
<td>38.1</td>
<td>51.7</td>
</tr>
<tr>
<td>2인 이상</td>
<td>10.2</td>
<td>30.5</td>
<td>61.6</td>
</tr>
<tr>
<td>30~40세 미만</td>
<td>13.7</td>
<td>27.4</td>
<td>61.6</td>
</tr>
<tr>
<td>1인</td>
<td>14.6</td>
<td>31.7</td>
<td>53.4</td>
</tr>
<tr>
<td>2인 이상</td>
<td>13.7</td>
<td>27.1</td>
<td>62.0</td>
</tr>
<tr>
<td>40~50세 미만</td>
<td>29.1</td>
<td>16.9</td>
<td>61.1</td>
</tr>
<tr>
<td>1인</td>
<td>35.0</td>
<td>16.7</td>
<td>42.0</td>
</tr>
<tr>
<td>2인 이상</td>
<td>28.9</td>
<td>16.9</td>
<td>61.7</td>
</tr>
<tr>
<td>50~60세 미만</td>
<td>49.2</td>
<td>7.7</td>
<td>51.9</td>
</tr>
<tr>
<td>1인</td>
<td>57.6</td>
<td>11.5</td>
<td>27.8</td>
</tr>
<tr>
<td>2인 이상</td>
<td>48.8</td>
<td>7.4</td>
<td>53.3</td>
</tr>
<tr>
<td>60~70세 미만</td>
<td>74.2</td>
<td>2.5</td>
<td>34.1</td>
</tr>
<tr>
<td>1인</td>
<td>75.4</td>
<td>2.9</td>
<td>31.3</td>
</tr>
<tr>
<td>2인 이상</td>
<td>74.1</td>
<td>2.5</td>
<td>34.4</td>
</tr>
<tr>
<td>70~80세 미만</td>
<td>86.1</td>
<td>1.5</td>
<td>18.4</td>
</tr>
<tr>
<td>1인</td>
<td>87.3</td>
<td>1.6</td>
<td>15.2</td>
</tr>
<tr>
<td>2인 이상</td>
<td>85.7</td>
<td>1.4</td>
<td>19.3</td>
</tr>
<tr>
<td>80세 이상</td>
<td>81.3</td>
<td>0.7</td>
<td>20.6</td>
</tr>
<tr>
<td>1인</td>
<td>87.4</td>
<td>0.0</td>
<td>17.0</td>
</tr>
<tr>
<td>2인 이상</td>
<td>79.0</td>
<td>1.0</td>
<td>22.0</td>
</tr>
</tbody>
</table>

주: 1) 전체 응답자 15,625명 중 무응답 18명을 제외한 결과임.
2) 전체 응답자 15,625명 중 무응답 48명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5-13>은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보여주는 표이다. 우울의 경우 1인가구가 11.2점으로 2인 이상 가구(5.9점)보다 우울지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속한 가구에서는 우울지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0세 이상이 속한 가구부터 1인가구의 우울지수가 크게 높아져, 30세 미만에서 4.9점이었던 것이 10.5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10점 이상을 계속 보여 70~80세 미만이 속한 가구에서는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점수인 16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인 이상 가구는 연령이 증가함수록 점수가 증가하지만 70세 이상에서야 평균점수가 10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비교하여 2인 이상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울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다소 2인 이상 가구가 1인가구 보다 좀 더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경우 표준편차가 큰 편이다.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  139

(표 5-13)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우울 및 자아존중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우울에 대한 인식</th>
<th>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th>
</tr>
</thead>
<tbody>
<tr>
<td></td>
<td>중위</td>
<td>평균</td>
</tr>
<tr>
<td>전체</td>
<td>3.6</td>
<td>6.3</td>
</tr>
<tr>
<td>1인</td>
<td>7.3</td>
<td>11.2</td>
</tr>
<tr>
<td>2인 이상</td>
<td>3.6</td>
<td>5.9</td>
</tr>
<tr>
<td>30세 미만</td>
<td>1.8</td>
<td>4.6</td>
</tr>
<tr>
<td>1인</td>
<td>1.8</td>
<td>4.9</td>
</tr>
<tr>
<td>2인 이상</td>
<td>1.8</td>
<td>4.5</td>
</tr>
<tr>
<td>30~40세 미만</td>
<td>1.8</td>
<td>4.6</td>
</tr>
<tr>
<td>1인</td>
<td>3.6</td>
<td>6.2</td>
</tr>
<tr>
<td>2인 이상</td>
<td>1.8</td>
<td>4.5</td>
</tr>
<tr>
<td>40~50세 미만</td>
<td>3.6</td>
<td>5.6</td>
</tr>
<tr>
<td>1인</td>
<td>5.5</td>
<td>10.5</td>
</tr>
<tr>
<td>2인 이상</td>
<td>3.6</td>
<td>5.5</td>
</tr>
<tr>
<td>50~60세 미만</td>
<td>3.6</td>
<td>6.8</td>
</tr>
<tr>
<td>1인</td>
<td>10.9</td>
<td>13.5</td>
</tr>
<tr>
<td>2인 이상</td>
<td>3.6</td>
<td>6.4</td>
</tr>
<tr>
<td>60~70세 미만</td>
<td>5.5</td>
<td>8.7</td>
</tr>
<tr>
<td>1인</td>
<td>10.9</td>
<td>13.3</td>
</tr>
<tr>
<td>2인 이상</td>
<td>5.5</td>
<td>8.1</td>
</tr>
<tr>
<td>70~80세 미만</td>
<td>9.1</td>
<td>11.8</td>
</tr>
<tr>
<td>1인</td>
<td>14.6</td>
<td>16.2</td>
</tr>
<tr>
<td>2인 이상</td>
<td>7.3</td>
<td>10.5</td>
</tr>
<tr>
<td>80세 이상</td>
<td>10.9</td>
<td>13.8</td>
</tr>
<tr>
<td>1인</td>
<td>12.7</td>
<td>15.7</td>
</tr>
<tr>
<td>2인 이상</td>
<td>10.9</td>
<td>12.9</td>
</tr>
</tbody>
</table>

주 1) 우울점수는 60점이 최고점이며,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2) 자아존중감점수는 4점이 최고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 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5-14>는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과 주이용 의료기관을 보여주는 표이다. 전체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1인가구의 경우 38.2%로 나타나 2인 이상 가구 (67.0%)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확인해보면 30세 미만이 속한 가구의 경우는 1인가구가 62.6%, 2인 이상 가구가 67.1%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으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4.5% 포인트였던 격차가 11.9% 포인트, 18.2% 포인트로 커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60세 이상이 속한 가구부터는 다시 격차가 줄어들었다.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를 주이용기관으로 언급한 비율은 80대 1인가구에서 확연히 높다. 반면 50대에게서 지역내 병원 이용률이 높다.

한편, <표 5-15>는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연령군별 건강보험 가입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의 미가입비율의 경우 1인가구는 14.3%로 2인 이상 가구(4.1%)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이 속한 가구까지는 1인가구, 2인 이상 가구 모두 미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0세 이상부터 1인가구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17.5%, 24.7%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2인 이상 가구는 40세 이상에서도 4.9%, 4.4%로 미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 141

〈표 5-14〉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주이용 의료기관

<table>
<thead>
<tr>
<th>특성</th>
<th>민간의료보험 가입률(%)</th>
<th>주이용 의료기관①</th>
<th>계 방</th>
<th>명</th>
</tr>
</thead>
<tbody>
<tr>
<td></td>
<td>민간의료보험 가입률</td>
<td>지역 내 대학병원</td>
<td>지역 내 병원</td>
<td>보건소</td>
</tr>
<tr>
<td></td>
<td>10.2</td>
<td>87.4</td>
<td>1.5</td>
<td>0.9</td>
</tr>
<tr>
<td>전체</td>
<td>65.4</td>
<td></td>
<td></td>
<td></td>
</tr>
<tr>
<td>1인</td>
<td>38.2</td>
<td>14.3</td>
<td>79.9</td>
<td>3.4</td>
</tr>
<tr>
<td>2인 이상</td>
<td>67.0</td>
<td>9.9</td>
<td>87.9</td>
<td>1.4</td>
</tr>
<tr>
<td>30세 미만</td>
<td>66.9</td>
<td>6.5</td>
<td>92.3</td>
<td>1.1</td>
</tr>
<tr>
<td>1인</td>
<td>62.6</td>
<td>4.9</td>
<td>89.0</td>
<td>6.1</td>
</tr>
<tr>
<td>2인 이상</td>
<td>67.1</td>
<td>6.6</td>
<td>92.4</td>
<td>0.9</td>
</tr>
<tr>
<td>30~40세 미만</td>
<td>75.4</td>
<td>7.0</td>
<td>91.6</td>
<td>1.4</td>
</tr>
<tr>
<td>1인</td>
<td>64.1</td>
<td>7.9</td>
<td>92.1</td>
<td>0.0</td>
</tr>
<tr>
<td>2인 이상</td>
<td>76.0</td>
<td>6.9</td>
<td>91.5</td>
<td>1.5</td>
</tr>
<tr>
<td>40~50세 미만</td>
<td>73.1</td>
<td>9.6</td>
<td>88.0</td>
<td>2.0</td>
</tr>
<tr>
<td>1인</td>
<td>55.4</td>
<td>10.2</td>
<td>85.6</td>
<td>2.3</td>
</tr>
<tr>
<td>2인 이상</td>
<td>73.6</td>
<td>9.6</td>
<td>88.0</td>
<td>2.0</td>
</tr>
<tr>
<td>50~60세 미만</td>
<td>68.3</td>
<td>15.5</td>
<td>81.3</td>
<td>2.5</td>
</tr>
<tr>
<td>1인</td>
<td>43.0</td>
<td>22.3</td>
<td>72.2</td>
<td>4.4</td>
</tr>
<tr>
<td>2인 이상</td>
<td>69.8</td>
<td>15.1</td>
<td>81.8</td>
<td>2.3</td>
</tr>
<tr>
<td>60~70세 미만</td>
<td>37.2</td>
<td>19.2</td>
<td>75.8</td>
<td>2.0</td>
</tr>
<tr>
<td>1인</td>
<td>30.0</td>
<td>13.1</td>
<td>82.2</td>
<td>2.7</td>
</tr>
<tr>
<td>2인 이상</td>
<td>38.1</td>
<td>19.9</td>
<td>75.0</td>
<td>1.9</td>
</tr>
<tr>
<td>70~80세 미만</td>
<td>9.5</td>
<td>22.6</td>
<td>71.6</td>
<td>2.2</td>
</tr>
<tr>
<td>1인</td>
<td>8.4</td>
<td>19.6</td>
<td>73.0</td>
<td>4.1</td>
</tr>
<tr>
<td>2인 이상</td>
<td>9.8</td>
<td>23.5</td>
<td>71.2</td>
<td>1.6</td>
</tr>
<tr>
<td>80세 이상</td>
<td>1.5</td>
<td>17.4</td>
<td>74.1</td>
<td>1.9</td>
</tr>
<tr>
<td>1인</td>
<td>0.2</td>
<td>16.5</td>
<td>70.8</td>
<td>1.7</td>
</tr>
<tr>
<td>2인 이상</td>
<td>2.0</td>
<td>17.7</td>
<td>75.5</td>
<td>2.0</td>
</tr>
</tbody>
</table>

주: 1) 전체 응답자 15,625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한 결과임.
2) 질병이 있는 12,87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 자료.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5-15**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건강보험 가입실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직장보험</th>
<th>지역보험</th>
<th>미가입</th>
<th>계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62.9</td>
<td>31.0</td>
<td>6.2</td>
<td>100.0</td>
</tr>
<tr>
<td>1인</td>
<td>57.2</td>
<td>28.6</td>
<td>14.3</td>
<td>100.0</td>
</tr>
<tr>
<td>2인 이상</td>
<td>64.3</td>
<td>31.6</td>
<td>4.1</td>
<td>100.0</td>
</tr>
<tr>
<td>30세 미만</td>
<td>82.6</td>
<td>17.0</td>
<td>0.4</td>
<td>100.0</td>
</tr>
<tr>
<td>1인</td>
<td>84.1</td>
<td>15.6</td>
<td>0.4</td>
<td>100.0</td>
</tr>
<tr>
<td>2인 이상</td>
<td>79.9</td>
<td>19.5</td>
<td>0.5</td>
<td>100.0</td>
</tr>
<tr>
<td>30~40세 미만</td>
<td>73.2</td>
<td>24.6</td>
<td>2.3</td>
<td>100.0</td>
</tr>
<tr>
<td>1인</td>
<td>66.6</td>
<td>30.6</td>
<td>2.8</td>
<td>100.0</td>
</tr>
<tr>
<td>2인 이상</td>
<td>74.4</td>
<td>23.5</td>
<td>2.2</td>
<td>100.0</td>
</tr>
<tr>
<td>40~50세 미만</td>
<td>58.1</td>
<td>36.1</td>
<td>5.9</td>
<td>100.0</td>
</tr>
<tr>
<td>1인</td>
<td>30.1</td>
<td>52.4</td>
<td>17.5</td>
<td>100.0</td>
</tr>
<tr>
<td>2인 이상</td>
<td>60.4</td>
<td>34.7</td>
<td>4.9</td>
<td>100.0</td>
</tr>
<tr>
<td>50~60세 미만</td>
<td>59.0</td>
<td>34.3</td>
<td>6.8</td>
<td>100.0</td>
</tr>
<tr>
<td>1인</td>
<td>48.1</td>
<td>27.2</td>
<td>24.7</td>
<td>100.0</td>
</tr>
<tr>
<td>2인 이상</td>
<td>60.4</td>
<td>35.2</td>
<td>4.4</td>
<td>100.0</td>
</tr>
<tr>
<td>60~70세 미만</td>
<td>60.2</td>
<td>32.6</td>
<td>7.2</td>
<td>100.0</td>
</tr>
<tr>
<td>1인</td>
<td>48.2</td>
<td>30.8</td>
<td>21.0</td>
<td>100.0</td>
</tr>
<tr>
<td>2인 이상</td>
<td>63.3</td>
<td>33.0</td>
<td>3.7</td>
<td>100.0</td>
</tr>
<tr>
<td>70~80세 미만</td>
<td>58.0</td>
<td>30.8</td>
<td>11.1</td>
<td>100.0</td>
</tr>
<tr>
<td>1인</td>
<td>51.2</td>
<td>29.7</td>
<td>19.2</td>
<td>100.0</td>
</tr>
<tr>
<td>2인 이상</td>
<td>62.6</td>
<td>31.6</td>
<td>5.9</td>
<td>100.0</td>
</tr>
<tr>
<td>80세 이상</td>
<td>55.8</td>
<td>25.4</td>
<td>18.8</td>
<td>100.0</td>
</tr>
<tr>
<td>1인</td>
<td>54.1</td>
<td>23.6</td>
<td>22.2</td>
<td>100.0</td>
</tr>
<tr>
<td>2인 이상</td>
<td>58.6</td>
<td>28.3</td>
<td>13.1</td>
<td>100.0</td>
</tr>
</tbody>
</table>

주: 건강보험가입여부는 현재 가구별로 조사하고 있어 6,033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2010)』자료.
제3절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전화조사

1. 삶의 현황과 전망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삶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1인가구의 42.5%가 저축할 여유가 없고 1.1%는 벌려서 생활한다고 응답하여 56.4%는 저축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 경제적인 상황이 양분되고 있다. 비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는 65.3%가 저축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1인가구와 약 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30% 이상을 저축하는 비율은 1인가구가 28.3%로 비1인가구의 24.7%보다 3.6% 포인트 높다.

1인가구 거주자의 저축실태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20~30대 청년층에서는 50% 전후 수준으로 매우 높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1~2%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이 저축할 여유 없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비1인가구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러한 현제의 삶의 현황은 이들의 미래의 경제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인가구의 39.2%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43.2%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17.6%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비1인가구의 경우는 동 비율이 34.9%, 46.6%, 18.5%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이 3.4% 포인트 높은데, 이는 저축실태와 유사한 경향이다.

1인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전망은 급감하며 부정적인 전망이 높다.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 60% 이상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은 3~5%대인데 비하여, 60대 이후 고령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20% 미만인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30%대로 연령군별 차이가 분명하다. 비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5-16〉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저축실태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빌려서 생활</th>
<th>저축할 여유없음</th>
<th>10%미만 미만</th>
<th>10-20% 미만</th>
<th>20-30% 미만</th>
<th>30% 이상</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0.4</td>
<td>29.4</td>
<td>7.5</td>
<td>6.8</td>
<td>11.1</td>
<td>44.9</td>
<td>100.0  (722)</td>
</tr>
<tr>
<td>30-39세</td>
<td>0.1</td>
<td>12.6</td>
<td>9.3</td>
<td>11.1</td>
<td>15.1</td>
<td>51.7</td>
<td>100.0  (760)</td>
</tr>
<tr>
<td>40-49세</td>
<td>0.5</td>
<td>23.1</td>
<td>9.8</td>
<td>14.8</td>
<td>16.0</td>
<td>35.8</td>
<td>100.0  (614)</td>
</tr>
<tr>
<td>50-59세</td>
<td>2.6</td>
<td>39.6</td>
<td>11.2</td>
<td>14.7</td>
<td>12.1</td>
<td>20.0</td>
<td>100.0  (546)</td>
</tr>
<tr>
<td>60-69세</td>
<td>1.2</td>
<td>64.6</td>
<td>8.5</td>
<td>8.5</td>
<td>6.4</td>
<td>10.8</td>
<td>100.0  (517)</td>
</tr>
<tr>
<td>70-79세</td>
<td>2.1</td>
<td>85.6</td>
<td>5.9</td>
<td>2.3</td>
<td>2.0</td>
<td>2.1</td>
<td>100.0  (561)</td>
</tr>
<tr>
<td>80세 이상</td>
<td>1.3</td>
<td>86.7</td>
<td>7.1</td>
<td>2.7</td>
<td>0.9</td>
<td>1.3</td>
<td>100.0  (226)</td>
</tr>
<tr>
<td>계</td>
<td>1.1</td>
<td>42.5</td>
<td>8.6</td>
<td>9.3</td>
<td>10.3</td>
<td>28.3</td>
<td>100.0  (3,946)</td>
</tr>
<tr>
<td>비1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0</td>
<td>17.4</td>
<td>10.1</td>
<td>18.4</td>
<td>13.0</td>
<td>40.1</td>
<td>100.0  (207)</td>
</tr>
<tr>
<td>30-39세</td>
<td>0.8</td>
<td>19.0</td>
<td>14.3</td>
<td>20.6</td>
<td>15.6</td>
<td>29.6</td>
<td>100.0  (378)</td>
</tr>
<tr>
<td>40-49세</td>
<td>1.4</td>
<td>28.9</td>
<td>15.2</td>
<td>15.2</td>
<td>15.2</td>
<td>24.1</td>
<td>100.0  (415)</td>
</tr>
<tr>
<td>50-59세</td>
<td>2.1</td>
<td>36.5</td>
<td>10.1</td>
<td>10.4</td>
<td>18.4</td>
<td>22.4</td>
<td>100.0  (326)</td>
</tr>
<tr>
<td>60-69세</td>
<td>1.6</td>
<td>50.8</td>
<td>8.4</td>
<td>11.0</td>
<td>9.4</td>
<td>18.8</td>
<td>100.0  (191)</td>
</tr>
<tr>
<td>70-79세</td>
<td>4.1</td>
<td>76.5</td>
<td>8.2</td>
<td>5.1</td>
<td>3.1</td>
<td>3.1</td>
<td>100.0  (98)</td>
</tr>
<tr>
<td>80세 이상</td>
<td>0.0</td>
<td>87.1</td>
<td>9.7</td>
<td>3.2</td>
<td>0.0</td>
<td>0.0</td>
<td>100.0  (31)</td>
</tr>
<tr>
<td>계</td>
<td>1.5</td>
<td>33.2</td>
<td>12.0</td>
<td>14.6</td>
<td>14.0</td>
<td>24.7</td>
<td>100.0  (1,646)</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  

〈표 5-17〉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경제상태 전망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지금과 비슷</th>
<th>지금보다 나아질 것임</th>
<th>지금보다 나빠질 것임</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 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25.2</td>
<td>71.2</td>
<td>3.6</td>
<td>100.0 (746)</td>
</tr>
<tr>
<td>30-39세</td>
<td>30.1</td>
<td>64.3</td>
<td>5.6</td>
<td>100.0 (770)</td>
</tr>
<tr>
<td>40-49세</td>
<td>35.8</td>
<td>53.5</td>
<td>10.7</td>
<td>100.0 (617)</td>
</tr>
<tr>
<td>50-59세</td>
<td>47.4</td>
<td>30.8</td>
<td>21.7</td>
<td>100.0 (548)</td>
</tr>
<tr>
<td>60-69세</td>
<td>47.3</td>
<td>18.7</td>
<td>34.0</td>
<td>100.0 (509)</td>
</tr>
<tr>
<td>70-79세</td>
<td>52.9</td>
<td>11.2</td>
<td>35.9</td>
<td>100.0 (535)</td>
</tr>
<tr>
<td>80세 이상</td>
<td>56.0</td>
<td>9.1</td>
<td>34.9</td>
<td>100.0 (209)</td>
</tr>
<tr>
<td>계</td>
<td>39.2</td>
<td>43.2</td>
<td>17.6</td>
<td>100.0 (3,934)</td>
</tr>
<tr>
<td>비1인가구 연령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29.8</td>
<td>63.0</td>
<td>7.3</td>
<td>100.0 (289)</td>
</tr>
<tr>
<td>30-39세</td>
<td>29.4</td>
<td>62.0</td>
<td>8.6</td>
<td>100.0 (384)</td>
</tr>
<tr>
<td>40-49세</td>
<td>35.9</td>
<td>46.8</td>
<td>17.3</td>
<td>100.0 (421)</td>
</tr>
<tr>
<td>50-59세</td>
<td>37.8</td>
<td>38.1</td>
<td>24.2</td>
<td>100.0 (331)</td>
</tr>
<tr>
<td>60-69세</td>
<td>42.7</td>
<td>24.5</td>
<td>32.8</td>
<td>100.0 (192)</td>
</tr>
<tr>
<td>70-79세</td>
<td>40.6</td>
<td>15.6</td>
<td>43.8</td>
<td>100.0 (96)</td>
</tr>
<tr>
<td>80세 이상</td>
<td>41.9</td>
<td>25.8</td>
<td>32.3</td>
<td>100.0 (31)</td>
</tr>
<tr>
<td>계</td>
<td>34.9</td>
<td>46.6</td>
<td>18.5</td>
<td>100.0 (1,744)</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한편 현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살펴보면 1인가구 거주자가 5점 만점에 3.31점이며 만족한다는 응답이 43.0%이며, 비1인 가구 거주자의 경우는 3.50점과 52.1%로 1인가구 거주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비1인가구 거주자는 연령군별 만족도의 차이 가 그리 크지 않음에 비하여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는 노년층에서 만족
도가 매우 낮다. 20~30대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 비하여 40~50대 이후부터는 1인가구의 만족도가 낮고, 특히 60대 이후 노년기에서는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간의 만족도의 차이가 크다. 70대의 경우 만족도는 비율이 1인가구는 27.3%에 불과한데 비하여 비1인가구는 동 비율이 39.2%에 달하고 있다.

〈표 5-18〉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간의 만족도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매우만족</th>
<th>만족</th>
<th>그저 그렇다</th>
<th>만족하지 않음</th>
<th>전혀만족</th>
<th>만족도 평균</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 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0.7</td>
<td>47.4</td>
<td>34.4</td>
<td>6.3</td>
<td>1.2</td>
<td>100.0 (747) 3.60</td>
</tr>
<tr>
<td>30~39세</td>
<td>8.7</td>
<td>42.5</td>
<td>37.6</td>
<td>9.7</td>
<td>1.6</td>
<td>100.0 (774) 3.47</td>
</tr>
<tr>
<td>40~49세</td>
<td>7.1</td>
<td>39.5</td>
<td>39.7</td>
<td>10.6</td>
<td>3.1</td>
<td>100.0 (620) 3.37</td>
</tr>
<tr>
<td>50~59세</td>
<td>8.0</td>
<td>31.7</td>
<td>40.9</td>
<td>15.2</td>
<td>4.2</td>
<td>100.0 (552) 3.24</td>
</tr>
<tr>
<td>60~69세</td>
<td>7.5</td>
<td>25.8</td>
<td>47.5</td>
<td>12.7</td>
<td>6.5</td>
<td>100.0 (520) 3.15</td>
</tr>
<tr>
<td>70~79세</td>
<td>4.8</td>
<td>22.5</td>
<td>47.1</td>
<td>16.9</td>
<td>8.7</td>
<td>100.0 (561) 2.98</td>
</tr>
<tr>
<td>80세 이상</td>
<td>7.1</td>
<td>18.1</td>
<td>42.9</td>
<td>22.6</td>
<td>9.3</td>
<td>100.0 (226) 2.91</td>
</tr>
<tr>
<td>계</td>
<td>7.9</td>
<td>35.1</td>
<td>40.7</td>
<td>12.1</td>
<td>4.2</td>
<td>100.0 (4,000) 3.31</td>
</tr>
<tr>
<td>비1인가구 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3.1</td>
<td>44.3</td>
<td>34.0</td>
<td>6.2</td>
<td>2.4</td>
<td>100.0 (291) 3.59</td>
</tr>
<tr>
<td>30~39세</td>
<td>11.4</td>
<td>43.9</td>
<td>36.4</td>
<td>4.9</td>
<td>3.4</td>
<td>100.0 (387) 3.55</td>
</tr>
<tr>
<td>40~49세</td>
<td>10.2</td>
<td>44.5</td>
<td>35.8</td>
<td>7.1</td>
<td>2.4</td>
<td>100.0 (422) 3.53</td>
</tr>
<tr>
<td>50~59세</td>
<td>11.4</td>
<td>37.7</td>
<td>40.1</td>
<td>8.1</td>
<td>2.7</td>
<td>100.0 (334) 3.47</td>
</tr>
<tr>
<td>60~69세</td>
<td>6.1</td>
<td>38.6</td>
<td>44.2</td>
<td>7.1</td>
<td>4.1</td>
<td>100.0 (197) 3.36</td>
</tr>
<tr>
<td>70~79세</td>
<td>8.8</td>
<td>30.4</td>
<td>45.1</td>
<td>9.8</td>
<td>5.9</td>
<td>100.0 (102) 3.26</td>
</tr>
<tr>
<td>80세 이상</td>
<td>8.8</td>
<td>38.2</td>
<td>38.2</td>
<td>11.8</td>
<td>2.9</td>
<td>100.0 (34) 3.38</td>
</tr>
<tr>
<td>계</td>
<td>10.6</td>
<td>41.5</td>
<td>38.0</td>
<td>6.9</td>
<td>3.1</td>
<td>100.0 (1,767) 3.50</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2. 사회적 지원체계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비교해보면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 3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21.3%이며, 다음이 5명으로 18.2%, 2명이 18.1%이다. 6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5.2%이다. 반면 1명이라는 응답은 6.4%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비1인가구의 경우도 유사하지만 6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19.1%로 1인가구에 비하여 약간 높다. 즉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간의 그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부모 36.3%, 자녀 25.9%로 수직적 관계가 많다. 형제-자매라는 응답도 18.0%이다. 반면 비1인가구는 부모가 32.6%, 배우자가 34.7%이다. 즉 1인가구 거주자에게 있어서는 비1인가구 거주자에게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배우자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20~30대 1인가구에 있어서는 부모가 절대적인데, 이는 비1인가구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러나 다수가 결혼을 하는 연령대인 30대부터 비1인가구는 배우자가라는 응답이 높다. 40~50대의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는 형제자매의 역할이 매우 크다. 40대의 31.6%와 50대의 33.4%가 형제자매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 비1인가구 거주자의 40대와 50대의 경우는 각각 10.2%와 15.2%로 1인가구 거주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혼자 생활하는 중년층의 응답자에게는 형제자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이다. 또한 70대 이후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압도적이어서 모두 60%를 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70대 이후 고령자의 경우 85% 전후가 자녀라고 응답하고 있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5-19.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없음</th>
<th>1명</th>
<th>2명</th>
<th>3명</th>
<th>4명</th>
<th>5명</th>
<th>6명이상</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lt;sup&gt;1)&lt;/sup&gt;</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6</td>
<td>2.3</td>
<td>15.0</td>
<td>23.5</td>
<td>10.5</td>
<td>25.8</td>
<td>21.2</td>
<td>100.0 (740)</td>
</tr>
<tr>
<td>30~39세</td>
<td>2.1</td>
<td>3.7</td>
<td>19.0</td>
<td>24.4</td>
<td>9.7</td>
<td>22.8</td>
<td>18.3</td>
<td>100.0 (754)</td>
</tr>
<tr>
<td>40~49세</td>
<td>7.6</td>
<td>5.4</td>
<td>17.9</td>
<td>19.9</td>
<td>9.4</td>
<td>20.6</td>
<td>19.2</td>
<td>100.0 (608)</td>
</tr>
<tr>
<td>50~59세</td>
<td>11.3</td>
<td>6.9</td>
<td>20.5</td>
<td>20.1</td>
<td>8.4</td>
<td>17.7</td>
<td>15.0</td>
<td>100.0 (547)</td>
</tr>
<tr>
<td>60~69세</td>
<td>17.6</td>
<td>8.7</td>
<td>22.0</td>
<td>23.2</td>
<td>8.3</td>
<td>11.2</td>
<td>9.1</td>
<td>100.0 (518)</td>
</tr>
<tr>
<td>70~79세</td>
<td>23.4</td>
<td>11.4</td>
<td>17.3</td>
<td>16.9</td>
<td>12.8</td>
<td>10.2</td>
<td>8.0</td>
<td>100.0 (561)</td>
</tr>
<tr>
<td>80세 이상</td>
<td>31.9</td>
<td>13.3</td>
<td>13.3</td>
<td>16.4</td>
<td>9.3</td>
<td>9.3</td>
<td>6.6</td>
<td>100.0 (226)</td>
</tr>
<tr>
<td>계</td>
<td>10.9</td>
<td>6.4</td>
<td>18.1</td>
<td>21.3</td>
<td>9.9</td>
<td>18.2</td>
<td>15.2</td>
<td>100.0 (3,954)</td>
</tr>
<tr>
<td>비1인가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lt;sup&gt;1)&lt;/sup&gt;</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4.5</td>
<td>1.7</td>
<td>12.7</td>
<td>20.3</td>
<td>12.7</td>
<td>22.3</td>
<td>25.8</td>
<td>100.0 (291)</td>
</tr>
<tr>
<td>30~39세</td>
<td>8.8</td>
<td>3.6</td>
<td>12.9</td>
<td>24.8</td>
<td>13.7</td>
<td>19.6</td>
<td>16.5</td>
<td>100.0 (387)</td>
</tr>
<tr>
<td>40~49세</td>
<td>11.1</td>
<td>7.5</td>
<td>16.7</td>
<td>21.5</td>
<td>6.8</td>
<td>16.5</td>
<td>19.8</td>
<td>100.0 (424)</td>
</tr>
<tr>
<td>50~59세</td>
<td>11.4</td>
<td>11.1</td>
<td>13.2</td>
<td>22.2</td>
<td>10.5</td>
<td>14.1</td>
<td>17.7</td>
<td>100.0 (334)</td>
</tr>
<tr>
<td>60~69세</td>
<td>15.7</td>
<td>6.6</td>
<td>14.7</td>
<td>21.3</td>
<td>12.2</td>
<td>10.7</td>
<td>18.8</td>
<td>100.0 (197)</td>
</tr>
<tr>
<td>70~79세</td>
<td>12.7</td>
<td>8.8</td>
<td>17.6</td>
<td>17.6</td>
<td>16.7</td>
<td>13.7</td>
<td>12.7</td>
<td>100.0 (102)</td>
</tr>
<tr>
<td>80세 이상</td>
<td>5.9</td>
<td>17.6</td>
<td>23.5</td>
<td>14.7</td>
<td>8.8</td>
<td>11.8</td>
<td>17.6</td>
<td>100.0 (34)</td>
</tr>
<tr>
<td>계</td>
<td>10.1</td>
<td>6.6</td>
<td>14.5</td>
<td>21.8</td>
<td>11.2</td>
<td>16.8</td>
<td>19.1</td>
<td>100.0 (1,769)</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5장 비1인가구 거주자와 비교한 1인가구 거주자의 특성・149

〈표 5-20〉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군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종류

<table>
<thead>
<tr>
<th>특성</th>
<th>부모</th>
<th>자녀</th>
<th>형제</th>
<th>자매</th>
<th>학교</th>
<th>친구</th>
<th>동료</th>
<th>이웃 등</th>
<th>배우자</th>
<th>기타</th>
<th>(명)</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 연령 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77.1</td>
<td>0.0</td>
<td>8.7</td>
<td>7.6</td>
<td>1.2</td>
<td>1.6</td>
<td>1.0</td>
<td>2.9</td>
<td>100.0 (728)</td>
<td></td>
<td></td>
</tr>
<tr>
<td>30-39세</td>
<td>61.6</td>
<td>0.1</td>
<td>18.4</td>
<td>8.2</td>
<td>1.5</td>
<td>4.4</td>
<td>4.4</td>
<td>1.5</td>
<td>100.0 (735)</td>
<td></td>
<td></td>
</tr>
<tr>
<td>40-49세</td>
<td>36.8</td>
<td>2.1</td>
<td>31.6</td>
<td>13.2</td>
<td>2.7</td>
<td>6.4</td>
<td>5.9</td>
<td>1.3</td>
<td>100.0 (560)</td>
<td></td>
<td></td>
</tr>
<tr>
<td>50-59세</td>
<td>10.3</td>
<td>27.4</td>
<td>33.4</td>
<td>11.5</td>
<td>3.5</td>
<td>4.9</td>
<td>7.0</td>
<td>1.9</td>
<td>100.0 (485)</td>
<td></td>
<td></td>
</tr>
<tr>
<td>60-69세</td>
<td>1.6</td>
<td>60.4</td>
<td>16.4</td>
<td>9.1</td>
<td>0.7</td>
<td>8.0</td>
<td>2.8</td>
<td>0.9</td>
<td>100.0 (427)</td>
<td></td>
<td></td>
</tr>
<tr>
<td>70-79세</td>
<td>0.0</td>
<td>85.3</td>
<td>5.1</td>
<td>3.7</td>
<td>0.0</td>
<td>4.4</td>
<td>1.4</td>
<td>0.0</td>
<td>100.0 (430)</td>
<td></td>
<td></td>
</tr>
<tr>
<td>80세이상</td>
<td>0.0</td>
<td>91.6</td>
<td>1.9</td>
<td>0.0</td>
<td>0.0</td>
<td>5.8</td>
<td>0.6</td>
<td>0.0</td>
<td>100.0 (154)</td>
<td></td>
<td></td>
</tr>
<tr>
<td>계</td>
<td>36.3</td>
<td>25.9</td>
<td>18.0</td>
<td>8.5</td>
<td>1.6</td>
<td>4.7</td>
<td>3.6</td>
<td>1.5</td>
<td>100.0 (3,519)</td>
<td></td>
<td></td>
</tr>
<tr>
<td>비1인가구 연령 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80.6</td>
<td>0.0</td>
<td>5.8</td>
<td>8.6</td>
<td>0.0</td>
<td>2.2</td>
<td>2.9</td>
<td>0.0</td>
<td>100.0 (278)</td>
<td></td>
<td></td>
</tr>
<tr>
<td>30-39세</td>
<td>50.1</td>
<td>5.1</td>
<td>10.2</td>
<td>3.1</td>
<td>1.1</td>
<td>0.8</td>
<td>29.5</td>
<td>0.0</td>
<td>100.0 (353)</td>
<td></td>
<td></td>
</tr>
<tr>
<td>40-49세</td>
<td>25.3</td>
<td>3.7</td>
<td>15.2</td>
<td>7.2</td>
<td>0.8</td>
<td>2.1</td>
<td>45.6</td>
<td>0.0</td>
<td>100.0 (375)</td>
<td></td>
<td></td>
</tr>
<tr>
<td>50-59세</td>
<td>6.5</td>
<td>12.6</td>
<td>17.4</td>
<td>6.1</td>
<td>1.0</td>
<td>2.4</td>
<td>53.6</td>
<td>0.3</td>
<td>100.0 (293)</td>
<td></td>
<td></td>
</tr>
<tr>
<td>60-69세</td>
<td>1.2</td>
<td>37.3</td>
<td>9.6</td>
<td>1.8</td>
<td>0.0</td>
<td>1.8</td>
<td>47.0</td>
<td>1.2</td>
<td>100.0 (166)</td>
<td></td>
<td></td>
</tr>
<tr>
<td>70-79세</td>
<td>0.0</td>
<td>60.2</td>
<td>3.4</td>
<td>1.1</td>
<td>1.1</td>
<td>2.3</td>
<td>31.8</td>
<td>0.0</td>
<td>100.0 (88)</td>
<td></td>
<td></td>
</tr>
<tr>
<td>80세이상</td>
<td>0.0</td>
<td>84.4</td>
<td>3.1</td>
<td>0.0</td>
<td>0.0</td>
<td>0.0</td>
<td>12.5</td>
<td>0.0</td>
<td>100.0 (32)</td>
<td></td>
<td></td>
</tr>
<tr>
<td>계</td>
<td>32.6</td>
<td>13.3</td>
<td>11.4</td>
<td>5.3</td>
<td>0.7</td>
<td>1.8</td>
<td>34.7</td>
<td>0.2</td>
<td>100.0 (1,585)</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본 장에서는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조사결과를 통하여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현황을 살펴보았다. 생애주기별로 1인가구 거주자의 기본특성 및 1인가구 형성 이유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 장년층, 고령층별로 제출 성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절 조사대상자(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

전화조사가 이루어진 4,000명의 1인가구 거주자는 20~30대가 1,52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38.0%를, 40~50대는 29.3%, 60대 이상은 32.7%를 차지하고 있다. 각 연령대별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농어촌 거주율이 20~30대가 10.5%, 40~50대가 12.1%인데 비하여 60대 이상의 경우 31.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 구성 또한 60대 이전까지는 여성이 약 절반 정도이지만 60대 이후의 경우 약 3/4에 달하고 있다. 결혼상태 또한 큰 차이를 보여 20~30대는 대부분 미혼이 반면, 40~50대는 이혼·별거·사별과 같이 유배우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44.7%, 미혼 상태인 대상자가 43.6%를 차지하고 있다. 60대 이상자의 경우 대부분이 무배우상태이다.
교육수준 또한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30대는 약 90%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데 비하여, 40~50대는 동 비율이 57.9%로 낮지만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까지 합하면 이 역시 9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약 절반 정도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자이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고령자는 12.2%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 때문이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60대 이전의 청장년층 1인가구 거주자는 80% 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경우는 25.1%에 불과하다. 또한 종사상의 지위는 20~30대는 상용근로가 대부분인 반면 40~50대 는 상용근로자가 50% 수준인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15.8%, 임 시근로자 11.5%로 다양하다. 고령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자가 25.3%, 기타가 22.0%로 연령대별로 노동시장에서의 상이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20~30대는 200~299만원대의 소득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38.1%로 가장 많고 3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을 갖고 있는 응답 자도 22.3%에 달하고 있다. 40~50대의 경우는 동 비율이 23.9%와 35.2%이다. 이에 비하여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소 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3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경 우는 4.4%에 불과하여 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표 6-1) 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별 제특성

<table>
<thead>
<tr>
<th>특성</th>
<th>20〜30대</th>
<th>40〜50대</th>
<th>60대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50.4</td>
<td>48.8</td>
<td>35.4</td>
</tr>
<tr>
<td>중소도시</td>
<td>39.1</td>
<td>39.1</td>
<td>32.7</td>
</tr>
<tr>
<td>농어촌</td>
<td>10.5</td>
<td>12.1</td>
<td>31.8</td>
</tr>
<tr>
<td>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59.9</td>
<td>54.5</td>
<td>23.3</td>
</tr>
<tr>
<td>여성</td>
<td>40.1</td>
<td>45.5</td>
<td>76.7</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4.4</td>
<td>11.6</td>
<td>1.2</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2.8</td>
<td>44.7</td>
<td>96.2</td>
</tr>
<tr>
<td>미혼</td>
<td>92.8</td>
<td>43.6</td>
<td>2.6</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0.1</td>
<td>3.1</td>
<td>52.6</td>
</tr>
<tr>
<td>중학교</td>
<td>0.2</td>
<td>4.6</td>
<td>13.4</td>
</tr>
<tr>
<td>고등학교</td>
<td>11.3</td>
<td>34.4</td>
<td>21.8</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88.4</td>
<td>57.9</td>
<td>12.2</td>
</tr>
<tr>
<td>근로 여부</td>
<td></td>
<td></td>
<td></td>
</tr>
<tr>
<td>한대취업</td>
<td>81.6</td>
<td>83.4</td>
<td>25.1</td>
</tr>
<tr>
<td>안한대비취업</td>
<td>18.4</td>
<td>16.6</td>
<td>74.9</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5.0</td>
<td>15.8</td>
<td>18.9</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2.4</td>
<td>9.4</td>
<td>5.8</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78.4</td>
<td>50.2</td>
<td>9.5</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2.3</td>
<td>9.8</td>
<td>25.3</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9.0</td>
<td>11.5</td>
<td>18.6</td>
</tr>
<tr>
<td>기타</td>
<td>2.8</td>
<td>3.3</td>
<td>22.0</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16.4</td>
<td>16.8</td>
<td>73.7</td>
</tr>
<tr>
<td>100〜199만원</td>
<td>23.1</td>
<td>24.1</td>
<td>16.7</td>
</tr>
<tr>
<td>200〜299만원</td>
<td>38.1</td>
<td>23.9</td>
<td>5.2</td>
</tr>
<tr>
<td>300〜399만원</td>
<td>14.8</td>
<td>15.7</td>
<td>2.5</td>
</tr>
<tr>
<td>400〜499만원</td>
<td>3.6</td>
<td>7.7</td>
<td>0.8</td>
</tr>
<tr>
<td>500〜599만원</td>
<td>1.6</td>
<td>5.3</td>
<td>0.8</td>
</tr>
<tr>
<td>600〜699만원</td>
<td>0.8</td>
<td>1.6</td>
<td>0.1</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1.5</td>
<td>4.9</td>
<td>0.2</td>
</tr>
<tr>
<td>계</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r>
<tr>
<td>(명)</td>
<td>(1,521)</td>
<td>(1,172)</td>
<td>(1,307)</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2절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

1. 독거기간 및 이유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독거기간은 2~5년 미만이 3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10년 미만 (26.8%)이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인 2년 미만과 긴 기간인 10년 이상은 각각 20% 정도 수준이었고 평균 기간은 66.59개월로 약 5년 7개월 정도이다.

이들의 특성별 독거기간은 표 6-2와 같다. 거주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독거기간이 비교적 길었고, 성별로는 남성의 독거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었다. 연령별로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경우 독거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독거기간이 가장 짧았고 이혼이나 별거, 사별한 경우 독거기간이 가장 길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수준인 경우, 근로상태별로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대체로 독거기간이 길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연령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경우,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연령이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인 경우 독거기간이 길었고,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가 곤란한 무급기족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임시근로자인 경우 독거기간이 짧았다.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체</th>
<th>2년 미만</th>
<th>2-5년 미만</th>
<th>5-10년 미만</th>
<th>10년 이상</th>
<th>계(명)</th>
<th>평균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지역</td>
<td>20.0</td>
<td>31.5</td>
<td>26.8</td>
<td>21.7</td>
<td>100.0</td>
<td>1,516</td>
<td>66.59</td>
</tr>
<tr>
<td>대도시</td>
<td>20.3</td>
<td>32.2</td>
<td>25.0</td>
<td>22.4</td>
<td>100.0</td>
<td>763</td>
<td>65.66</td>
</tr>
<tr>
<td>중소도시</td>
<td>20.0</td>
<td>31.8</td>
<td>28.4</td>
<td>19.8</td>
<td>100.0</td>
<td>591</td>
<td>65.06</td>
</tr>
<tr>
<td>농어촌</td>
<td>18.8</td>
<td>26.3</td>
<td>30.0</td>
<td>25.0</td>
<td>100.0</td>
<td>160</td>
<td>75.98</td>
</tr>
<tr>
<td>성별</td>
<td>20.2</td>
<td>32.0</td>
<td>31.5</td>
<td>16.4</td>
<td>100.0</td>
<td>610</td>
<td>61.49</td>
</tr>
<tr>
<td>남성</td>
<td>19.9</td>
<td>31.1</td>
<td>23.7</td>
<td>25.3</td>
<td>100.0</td>
<td>906</td>
<td>70.03</td>
</tr>
<tr>
<td>여성</td>
<td>20.2</td>
<td>32.0</td>
<td>31.5</td>
<td>16.4</td>
<td>100.0</td>
<td>610</td>
<td>61.49</td>
</tr>
<tr>
<td>연령</td>
<td>20-24세</td>
<td>37.7</td>
<td>47.9</td>
<td>12.5</td>
<td>1.9</td>
<td>100.0</td>
<td>31.03</td>
</tr>
<tr>
<td>25-29세</td>
<td>22.3</td>
<td>33.6</td>
<td>36.5</td>
<td>7.5</td>
<td>100.0</td>
<td>479</td>
<td>52.29</td>
</tr>
<tr>
<td>30-34세</td>
<td>14.9</td>
<td>29.5</td>
<td>28.1</td>
<td>27.6</td>
<td>100.0</td>
<td>417</td>
<td>72.16</td>
</tr>
<tr>
<td>35-39세</td>
<td>9.6</td>
<td>18.6</td>
<td>23.1</td>
<td>48.7</td>
<td>100.0</td>
<td>355</td>
<td>105.89</td>
</tr>
<tr>
<td>결혼상태</td>
<td>40.9</td>
<td>36.4</td>
<td>18.2</td>
<td>4.5</td>
<td>100.0</td>
<td>66</td>
<td>39.32</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12.5</td>
<td>35.0</td>
<td>25.0</td>
<td>27.5</td>
<td>100.0</td>
<td>40</td>
<td>74.98</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19.2</td>
<td>31.1</td>
<td>27.3</td>
<td>22.3</td>
<td>100.0</td>
<td>1,410</td>
<td>67.63</td>
</tr>
<tr>
<td>미혼</td>
<td>19.2</td>
<td>31.1</td>
<td>27.3</td>
<td>22.3</td>
<td>100.0</td>
<td>1,410</td>
<td>67.63</td>
</tr>
<tr>
<td>교육수준1)</td>
<td>22.7</td>
<td>26.1</td>
<td>23.3</td>
<td>27.8</td>
<td>100.0</td>
<td>1,234</td>
<td>71.49</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19.6</td>
<td>32.2</td>
<td>27.3</td>
<td>20.9</td>
<td>100.0</td>
<td>1,340</td>
<td>65.66</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18.4</td>
<td>28.6</td>
<td>28.3</td>
<td>24.7</td>
<td>100.0</td>
<td>241</td>
<td>46.19</td>
</tr>
<tr>
<td>근로여부</td>
<td>18.4</td>
<td>28.6</td>
<td>28.3</td>
<td>24.7</td>
<td>100.0</td>
<td>1,234</td>
<td>71.49</td>
</tr>
<tr>
<td>취업</td>
<td>21.0</td>
<td>33.9</td>
<td>11.3</td>
<td>33.9</td>
<td>100.0</td>
<td>62</td>
<td>80.85</td>
</tr>
<tr>
<td>비취업</td>
<td>16.7</td>
<td>10.0</td>
<td>26.7</td>
<td>46.7</td>
<td>100.0</td>
<td>30</td>
<td>105.63</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18.3</td>
<td>28.3</td>
<td>30.4</td>
<td>23.0</td>
<td>100.0</td>
<td>1,000</td>
<td>69.65</td>
</tr>
<tr>
<td>고용원 없는 자영자</td>
<td>17.9</td>
<td>28.6</td>
<td>21.4</td>
<td>32.1</td>
<td>100.0</td>
<td>28</td>
<td>82.93</td>
</tr>
<tr>
<td>고용원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18.2</td>
<td>35.5</td>
<td>26.4</td>
<td>20.0</td>
<td>100.0</td>
<td>110</td>
<td>64.16</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17.9</td>
<td>28.6</td>
<td>21.4</td>
<td>32.1</td>
<td>100.0</td>
<td>28</td>
<td>82.93</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16.1</td>
<td>25.8</td>
<td>12.9</td>
<td>45.2</td>
<td>100.0</td>
<td>31</td>
<td>90.19</td>
</tr>
<tr>
<td>기타</td>
<td>27.1</td>
<td>44.0</td>
<td>20.2</td>
<td>8.7</td>
<td>100.0</td>
<td>277</td>
<td>45.16</td>
</tr>
<tr>
<td>가구소득</td>
<td>27.8</td>
<td>43.6</td>
<td>18.3</td>
<td>10.4</td>
<td>100.0</td>
<td>241</td>
<td>46.19</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23.7</td>
<td>28.4</td>
<td>30.2</td>
<td>17.8</td>
<td>100.0</td>
<td>338</td>
<td>62.81</td>
</tr>
<tr>
<td>100-199만원</td>
<td>15.7</td>
<td>32.0</td>
<td>29.1</td>
<td>23.2</td>
<td>100.0</td>
<td>560</td>
<td>70.17</td>
</tr>
<tr>
<td>200-299만원</td>
<td>17.2</td>
<td>20.9</td>
<td>27.4</td>
<td>34.4</td>
<td>100.0</td>
<td>215</td>
<td>84.37</td>
</tr>
<tr>
<td>300-399만원</td>
<td>18.3</td>
<td>27.5</td>
<td>23.9</td>
<td>30.3</td>
<td>100.0</td>
<td>109</td>
<td>77.17</td>
</tr>
<tr>
<td>400만원 이상</td>
<td>18.3</td>
<td>27.5</td>
<td>23.9</td>
<td>30.3</td>
<td>100.0</td>
<td>109</td>
<td>77.17</td>
</tr>
</tbody>
</table>

주: 1) 20-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2명, 중학교가 2명으로 사례수가 매우 적어 고등학교 이하로 합하였음.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한편 20~30대 1인가구 거주자가 혼자 사는 이유로는 나의 직장 또는 학업 때문에이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가 22.1%로 많았다.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나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는 각각 5% 이내의 응답을 보였다.

거주지역 별로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인 경우 직장이나 학업적인 이유가 더 많았으며, 반면 도시지역 거주자인 경우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와 같은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응답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응답이, 남성이 직장이나 학업,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와 같은 상황에 따른 1인가구 형성이라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거나, 혼자 살 경제력이 있다는 개인의 선택이 반영된 응답이 많았던 반면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동시에 많아져 나이가 증가할수록 개인의 선택과 함께 가족적인 문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인 경우 직장이나 학업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85%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이혼.별거.사별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가 42.9%,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가 11.9%로 많았다. 미혼인 경우에는 전체 응답과 대체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별로는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응답과 같이 살 가족이 없다는 응답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에 비해 많았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대체로 개인의 선택적인 측면이 많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인 경우 경제력이나 자유로운 생활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일용근로자인 경우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독거기간의 경우, 독거기간이 긴 경우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라는 응답과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9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표 6-3〉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사는 이유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혼자 살 경제력이 있어야</th>
<th>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th>
<th>직장 생활 때문에</th>
<th>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4.4</td>
<td>22.1</td>
<td>67.4</td>
<td>3.5</td>
<td>2.5</td>
<td>100.0 (1,517)</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4.7</td>
<td>22.7</td>
<td>66.6</td>
<td>3.4</td>
<td>2.6</td>
<td>100.0 (763)</td>
</tr>
<tr>
<td>중소도시</td>
<td>4.7</td>
<td>22.5</td>
<td>66.7</td>
<td>3.5</td>
<td>2.5</td>
<td>100.0 (592)</td>
</tr>
<tr>
<td>농어촌</td>
<td>1.9</td>
<td>18.1</td>
<td>74.4</td>
<td>3.8</td>
<td>1.9</td>
<td>100.0 (160)</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3.9</td>
<td>20.6</td>
<td>68.7</td>
<td>4.3</td>
<td>2.5</td>
<td>100.0 (908)</td>
</tr>
<tr>
<td>여성</td>
<td>5.3</td>
<td>24.5</td>
<td>65.5</td>
<td>2.3</td>
<td>2.5</td>
<td>100.0 (609)</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1.5</td>
<td>12.8</td>
<td>83.8</td>
<td>1.1</td>
<td>0.8</td>
<td>100.0 (266)</td>
</tr>
<tr>
<td>25~29세</td>
<td>4.2</td>
<td>15.4</td>
<td>75.8</td>
<td>3.3</td>
<td>1.3</td>
<td>100.0 (480)</td>
</tr>
<tr>
<td>30~34세</td>
<td>4.8</td>
<td>27.1</td>
<td>62.6</td>
<td>2.9</td>
<td>2.6</td>
<td>100.0 (417)</td>
</tr>
<tr>
<td>35~39세</td>
<td>6.5</td>
<td>32.5</td>
<td>49.4</td>
<td>6.2</td>
<td>5.4</td>
<td>100.0 (354)</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4.5</td>
<td>7.6</td>
<td>84.8</td>
<td>0.0</td>
<td>3.0</td>
<td>100.0 (66)</td>
</tr>
<tr>
<td>이혼, 별거, 사별</td>
<td>4.8</td>
<td>42.9</td>
<td>35.7</td>
<td>11.9</td>
<td>4.8</td>
<td>100.0 (42)</td>
</tr>
<tr>
<td>미혼</td>
<td>4.4</td>
<td>22.2</td>
<td>76.6</td>
<td>3.4</td>
<td>2.4</td>
<td>100.0 (1,409)</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3.4</td>
<td>42.4</td>
<td>39.5</td>
<td>10.2</td>
<td>4.5</td>
<td>100.0 (177)</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4.6</td>
<td>19.5</td>
<td>71.1</td>
<td>2.6</td>
<td>2.2</td>
<td>100.0 (1,340)</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5.1</td>
<td>23.5</td>
<td>65.4</td>
<td>3.8</td>
<td>2.2</td>
<td>100.0 (1,233)</td>
</tr>
<tr>
<td>비취업</td>
<td>1.4</td>
<td>16.1</td>
<td>76.3</td>
<td>2.2</td>
<td>3.9</td>
<td>100.0 (279)</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없는 자영업</td>
<td>1.6</td>
<td>31.1</td>
<td>60.7</td>
<td>4.9</td>
<td>1.6</td>
<td>100.0 (61)</td>
</tr>
<tr>
<td>고용원 있는 자영업</td>
<td>10.0</td>
<td>43.3</td>
<td>36.7</td>
<td>3.3</td>
<td>6.7</td>
<td>100.0 (30)</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5.2</td>
<td>21.0</td>
<td>68.0</td>
<td>3.4</td>
<td>2.4</td>
<td>100.0 (966)</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7.1</td>
<td>25.0</td>
<td>57.1</td>
<td>10.7</td>
<td>0.0</td>
<td>100.0 (28)</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4.5</td>
<td>30.9</td>
<td>59.1</td>
<td>4.5</td>
<td>0.9</td>
<td>100.0 (110)</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0.0</td>
<td>75.0</td>
<td>25.0</td>
<td>0.0</td>
<td>0.0</td>
<td>100.0 (4)</td>
</tr>
<tr>
<td>기타</td>
<td>6.5</td>
<td>32.3</td>
<td>54.8</td>
<td>6.5</td>
<td>0.0</td>
<td>100.0 (31)</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혼자 산 경제력이 있어서</th>
<th>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th>
<th>직장생활 때문에 같이 산 가족이 없어서</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99만원 이하</td>
<td>0.8</td>
<td>15.4</td>
<td>78.0</td>
<td>2.1</td>
</tr>
<tr>
<td></td>
<td>100-199만원</td>
<td>3.6</td>
<td>25.1</td>
<td>63.3</td>
<td>5.6</td>
</tr>
<tr>
<td></td>
<td>200-299만원</td>
<td>5.7</td>
<td>24.1</td>
<td>65.2</td>
<td>2.7</td>
</tr>
<tr>
<td></td>
<td>300-399만원</td>
<td>6.0</td>
<td>19.5</td>
<td>69.3</td>
<td>3.7</td>
</tr>
<tr>
<td></td>
<td>400만원 이상</td>
<td>3.6</td>
<td>25.5</td>
<td>62.7</td>
<td>4.5</td>
</tr>
</tbody>
</table>

독거기간

| 2년 미만 | 5.0 | 18.8 | 72.6 | 1.7 | 2.0 | 100.0 (303) |
| 2-5년 미만 | 3.4 | 20.4 | 70.4 | 3.2 | 2.7 | 100.0 (476) |
| 5-10년 미만 | 5.9 | 23.4 | 66.0 | 2.7 | 2.0 | 100.0 (406) |
| 10년 이상 | 3.6 | 26.4 | 60.2 | 6.4 | 3.3 | 100.0 (329) |

주: 1) 20~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2명, 중학교가 3명으로 사례수가 매우 적어 고등학교 이하로 합하였음.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2. 독거생활의 어려움 및 좋은 점

20~30대 1인가구 거주자가 혼자 살면서 힘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63.8%)보다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91.2%)이 더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인 경우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인 경우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은 적었고,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종사상 지위별로는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가 곤란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사업자가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고용원이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161

없는 자영자는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적었으나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도 적었다. 가구소득은 200만원 대인 경우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고 200만원 대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졌다.

독거기간별로는 5년 이상인 경우 대체로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적었고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 기간이 긴 경우 어느 정도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혼자 사는 이유별로는 경제력이 있어서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경우와 같이 자발적 선택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적었지만 직장이나 학업, 같이 살 가족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독거인 경우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앞으로의 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 힘든 점이 있는 비율이 낮았으나 이는 지금 경제적인 상태가 좋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으로 경제상태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이 적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경우 힘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점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특성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힘든 점이 있는지 여부는 특성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6-4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힘든 점 및 좋은 점 있는 비율

<table>
<thead>
<tr>
<th>특성</th>
<th>힘든 점 있음</th>
<th>(명)</th>
<th>좋은 점 있음</th>
<th>(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63.8</td>
<td>(1,515)</td>
<td>91.2</td>
<td>(1,516)</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65.0</td>
<td>( 762)</td>
<td>91.6</td>
<td>( 763)</td>
</tr>
<tr>
<td>중소도시</td>
<td>62.7</td>
<td>( 593)</td>
<td>90.7</td>
<td>( 592)</td>
</tr>
<tr>
<td>농어촌</td>
<td>62.7</td>
<td>( 158)</td>
<td>91.3</td>
<td>( 161)</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63.1</td>
<td>( 908)</td>
<td>88.8</td>
<td>( 907)</td>
</tr>
<tr>
<td>여성</td>
<td>64.9</td>
<td>( 607)</td>
<td>94.9</td>
<td>( 609)</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72.2</td>
<td>( 266)</td>
<td>91.0</td>
<td>( 266)</td>
</tr>
<tr>
<td>25~29세</td>
<td>63.0</td>
<td>( 479)</td>
<td>92.3</td>
<td>( 478)</td>
</tr>
<tr>
<td>30~34세</td>
<td>61.3</td>
<td>( 419)</td>
<td>91.4</td>
<td>( 418)</td>
</tr>
<tr>
<td>35~39세</td>
<td>61.5</td>
<td>( 351)</td>
<td>89.8</td>
<td>( 354)</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70.1</td>
<td>(  67)</td>
<td>83.6</td>
<td>(  67)</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61.9</td>
<td>(  42)</td>
<td>88.1</td>
<td>(  42)</td>
</tr>
<tr>
<td>미혼</td>
<td>63.6</td>
<td>(1,406)</td>
<td>91.7</td>
<td>(1,407)</td>
</tr>
<tr>
<td>교육수준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66.1</td>
<td>( 177)</td>
<td>89.8</td>
<td>( 177)</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63.5</td>
<td>(1,338)</td>
<td>91.4</td>
<td>(1,339)</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62.4</td>
<td>(1,231)</td>
<td>91.5</td>
<td>(1,234)</td>
</tr>
<tr>
<td>비취업</td>
<td>71.0</td>
<td>( 279)</td>
<td>89.9</td>
<td>( 278)</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없는 자영자</td>
<td>58.1</td>
<td>(  62)</td>
<td>87.1</td>
<td>(  62)</td>
</tr>
<tr>
<td>고용원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73.3</td>
<td>( 30)</td>
<td>93.3</td>
<td>( 30)</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62.2</td>
<td>( 963)</td>
<td>91.5</td>
<td>( 965)</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64.3</td>
<td>( 28)</td>
<td>92.9</td>
<td>( 28)</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61.3</td>
<td>(111)</td>
<td>93.7</td>
<td>(111)</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75.0</td>
<td>(  4)</td>
<td>100.0</td>
<td>(  4)</td>
</tr>
<tr>
<td>기타</td>
<td>73.3</td>
<td>( 30)</td>
<td>90.3</td>
<td>( 31)</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table>
<thead>
<tr>
<th>특성</th>
<th>힘든 점 있음</th>
<th>(명) 2</th>
<th>좋은 점 있음</th>
<th>(명) 3</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70.0</td>
<td>(240)</td>
<td>90.0</td>
<td>(239)</td>
</tr>
<tr>
<td>100~199만원</td>
<td>66.6</td>
<td>(338)</td>
<td>93.2</td>
<td>(338)</td>
</tr>
<tr>
<td>200~299만원</td>
<td>57.2</td>
<td>(558)</td>
<td>90.9</td>
<td>(559)</td>
</tr>
<tr>
<td>300~399만원</td>
<td>64.7</td>
<td>(215)</td>
<td>92.2</td>
<td>(217)</td>
</tr>
<tr>
<td>400만원 이상</td>
<td>71.2</td>
<td>(111)</td>
<td>89.2</td>
<td>(111)</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65.6</td>
<td>(302)</td>
<td>89.4</td>
<td>(303)</td>
</tr>
<tr>
<td>2~5년 미만</td>
<td>67.9</td>
<td>(477)</td>
<td>90.3</td>
<td>(476)</td>
</tr>
<tr>
<td>5~10년 미만</td>
<td>60.0</td>
<td>(405)</td>
<td>93.3</td>
<td>(405)</td>
</tr>
<tr>
<td>10년 이상</td>
<td>61.3</td>
<td>(326)</td>
<td>92.7</td>
<td>(327)</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55.2</td>
<td>(67)</td>
<td>89.6</td>
<td>(67)</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51.3</td>
<td>(335)</td>
<td>96.7</td>
<td>(336)</td>
</tr>
<tr>
<td>직장, 학업</td>
<td>67.3</td>
<td>(1,018)</td>
<td>90.0</td>
<td>(1,019)</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73.6</td>
<td>(53)</td>
<td>84.9</td>
<td>(53)</td>
</tr>
<tr>
<td>기타</td>
<td>78.9</td>
<td>(38)</td>
<td>89.2</td>
<td>(37)</td>
</tr>
<tr>
<td>경제상태 전망</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금과 비슷</td>
<td>63.6</td>
<td>(418)</td>
<td>88.3</td>
<td>(418)</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질 것임</td>
<td>64.0</td>
<td>(1,022)</td>
<td>92.7</td>
<td>(1,023)</td>
</tr>
<tr>
<td>지금보다 나빠질 것임</td>
<td>61.4</td>
<td>(70)</td>
<td>87.1</td>
<td>(70)</td>
</tr>
<tr>
<td>의지할 수 있는 사람</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없음</td>
<td>75.0</td>
<td>(28)</td>
<td>82.1</td>
<td>(28)</td>
</tr>
<tr>
<td>1명</td>
<td>73.3</td>
<td>(45)</td>
<td>91.1</td>
<td>(45)</td>
</tr>
<tr>
<td>2명</td>
<td>67.9</td>
<td>(252)</td>
<td>92.1</td>
<td>(252)</td>
</tr>
<tr>
<td>3명</td>
<td>60.5</td>
<td>(357)</td>
<td>91.3</td>
<td>(357)</td>
</tr>
<tr>
<td>4명</td>
<td>64.9</td>
<td>(151)</td>
<td>95.4</td>
<td>(151)</td>
</tr>
<tr>
<td>5명</td>
<td>63.1</td>
<td>(360)</td>
<td>90.6</td>
<td>(362)</td>
</tr>
<tr>
<td>6명 이상</td>
<td>62.7</td>
<td>(295)</td>
<td>90.5</td>
<td>(295)</td>
</tr>
</tbody>
</table>

주: 1) 20~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2명, 중학교가 3명으로 사례수가 매우 적어 고등학교 이하로 합하였음.
2) 각각 조사대상 전체수  
3)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혼자 살면서 힘든 점이 있는 경우 어떤 점이 힘든지에 대해서는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21.9%, 20.6%로 많았다. 경제적인 불안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2.1%,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7.0%로 나타났다.

특성별로는 농어촌 거주자인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인 경우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 처리에 대한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인 경우 가사일 등 일상생활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거나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응답하였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에는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나 경제적 불안감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에는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근로상태별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제적 불안감에 대한 응답이 취업중인 경우에 비해 많았다.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원 없는 자영자인 경우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처리의 어려움을, 상용근로자인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임시근로자는 경제적 불안감을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느끼고 있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 경제적 불안감을, 4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응답하였다.

독거기간별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를
힘든 점으로 많이 꼽았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혼자 사는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같이 살 가족이 없는 경우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위로 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 가사일 등 일상생활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 경제적 불안감을,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 경제적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라서는 의지할 사람이 적을수록 경제적 불안감이 컸으며 의지할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가사일 등 일상생활 처리가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6-5〉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힘든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아플때 간호해줄 사람없음</th>
<th>가사일등 일상생활 문제처리 어려움</th>
<th>경제적 불안감</th>
<th>안전에 대해 불안감</th>
<th>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20.6</td>
<td>35.7</td>
<td>12.1</td>
<td>7.0</td>
<td>21.9</td>
<td>2.7</td>
<td>100.0 (967)</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20.1</td>
<td>36.1</td>
<td>12.8</td>
<td>9.1</td>
<td>19.1</td>
<td>2.8</td>
<td>100.0 (493)</td>
</tr>
<tr>
<td>중소도시</td>
<td>21.4</td>
<td>37.3</td>
<td>12.1</td>
<td>4.0</td>
<td>23.3</td>
<td>1.9</td>
<td>100.0 (373)</td>
</tr>
<tr>
<td>농어촌</td>
<td>20.0</td>
<td>28.0</td>
<td>9.0</td>
<td>7.0</td>
<td>31.0</td>
<td>5.0</td>
<td>100.0 (100)</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9.4</td>
<td>43.3</td>
<td>7.5</td>
<td>0.3</td>
<td>26.9</td>
<td>2.6</td>
<td>100.0 (573)</td>
</tr>
<tr>
<td>여성</td>
<td>22.3</td>
<td>24.6</td>
<td>18.8</td>
<td>16.8</td>
<td>14.7</td>
<td>2.8</td>
<td>100.0 (394)</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13.2</td>
<td>43.2</td>
<td>13.7</td>
<td>6.3</td>
<td>21.6</td>
<td>2.1</td>
<td>100.0 (190)</td>
</tr>
<tr>
<td>25~29세</td>
<td>20.9</td>
<td>36.8</td>
<td>12.3</td>
<td>8.6</td>
<td>20.2</td>
<td>1.3</td>
<td>100.0 (302)</td>
</tr>
<tr>
<td>30~34세</td>
<td>22.1</td>
<td>36.4</td>
<td>8.9</td>
<td>7.4</td>
<td>22.1</td>
<td>3.1</td>
<td>100.0 (258)</td>
</tr>
<tr>
<td>35~39세</td>
<td>24.9</td>
<td>26.7</td>
<td>14.3</td>
<td>5.1</td>
<td>24.4</td>
<td>4.6</td>
<td>100.0 (217)</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아동배우</th>
<th>간호사출사람없음</th>
<th>가사일등</th>
<th>일상생활 문제처리 어려움</th>
<th>경제적 불안감 대가</th>
<th>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14.3</td>
<td>34.7</td>
<td>16.3</td>
<td>6.1</td>
<td>24.5</td>
<td>4.1</td>
<td>100.0 (49)</td>
<td></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11.5</td>
<td>23.1</td>
<td>15.4</td>
<td>3.8</td>
<td>46.2</td>
<td>0.0</td>
<td>100.0 (26)</td>
<td></td>
</tr>
<tr>
<td>미혼</td>
<td>21.2</td>
<td>36.1</td>
<td>11.8</td>
<td>7.2</td>
<td>21.1</td>
<td>2.7</td>
<td>100.0 (892)</td>
<td></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31.9</td>
<td>19.0</td>
<td>19.0</td>
<td>3.4</td>
<td>22.4</td>
<td>4.3</td>
<td>100.0 (116)</td>
<td></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19.0</td>
<td>38.0</td>
<td>11.2</td>
<td>7.5</td>
<td>21.9</td>
<td>2.5</td>
<td>100.0 (851)</td>
<td></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21.0</td>
<td>35.7</td>
<td>10.3</td>
<td>7.3</td>
<td>22.5</td>
<td>3.3</td>
<td>100.0 (768)</td>
<td></td>
</tr>
<tr>
<td>비취업</td>
<td>19.2</td>
<td>35.4</td>
<td>19.2</td>
<td>6.1</td>
<td>19.7</td>
<td>0.5</td>
<td>100.0 (198)</td>
<td></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없는 자영자</td>
<td>25.0</td>
<td>47.2</td>
<td>11.1</td>
<td>2.8</td>
<td>13.9</td>
<td>0.0</td>
<td>100.0 (36)</td>
<td></td>
</tr>
<tr>
<td>고용원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31.8</td>
<td>31.8</td>
<td>13.6</td>
<td>4.5</td>
<td>13.6</td>
<td>4.5</td>
<td>100.0 (22)</td>
<td></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20.0</td>
<td>34.9</td>
<td>9.0</td>
<td>8.0</td>
<td>24.9</td>
<td>3.2</td>
<td>100.0 (599)</td>
<td></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33.3</td>
<td>33.3</td>
<td>11.1</td>
<td>0.0</td>
<td>16.7</td>
<td>5.6</td>
<td>100.0 (18)</td>
<td></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19.1</td>
<td>42.6</td>
<td>19.1</td>
<td>7.4</td>
<td>8.8</td>
<td>2.9</td>
<td>100.0 (68)</td>
<td></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0.0</td>
<td>33.3</td>
<td>0.0</td>
<td>0.0</td>
<td>33.3</td>
<td>33.3</td>
<td>100.0 (3)</td>
<td></td>
</tr>
<tr>
<td>기타</td>
<td>27.3</td>
<td>22.7</td>
<td>13.6</td>
<td>4.5</td>
<td>27.3</td>
<td>4.5</td>
<td>100.0 (22)</td>
<td></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17.9</td>
<td>38.1</td>
<td>17.9</td>
<td>4.8</td>
<td>19.6</td>
<td>1.8</td>
<td>100.0 (168)</td>
<td></td>
</tr>
<tr>
<td>100~199만원</td>
<td>20.6</td>
<td>26.0</td>
<td>17.0</td>
<td>8.5</td>
<td>24.2</td>
<td>3.6</td>
<td>100.0 (223)</td>
<td></td>
</tr>
<tr>
<td>200~299만원</td>
<td>21.0</td>
<td>36.1</td>
<td>8.2</td>
<td>7.2</td>
<td>24.1</td>
<td>3.4</td>
<td>100.0 (319)</td>
<td></td>
</tr>
<tr>
<td>300~399만원</td>
<td>25.2</td>
<td>38.8</td>
<td>7.9</td>
<td>8.6</td>
<td>18.0</td>
<td>1.4</td>
<td>100.0 (139)</td>
<td></td>
</tr>
<tr>
<td>400만원 이상</td>
<td>16.0</td>
<td>49.4</td>
<td>8.6</td>
<td>3.7</td>
<td>21.0</td>
<td>1.2</td>
<td>100.0 (81)</td>
<td></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167

특성
아동대 간호혜출 사림없음
가사일등 일상생활 문제처리 어려움
경제적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기타
계(명)

독거기간

<table>
<thead>
<tr>
<th>독거기간</th>
<th>2년 미만</th>
<th>2-5년 미만</th>
<th>5-10년 미만</th>
<th>1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5.3 %</td>
<td>18.2 %</td>
<td>23.8 %</td>
<td>26.0 %</td>
<td></td>
</tr>
<tr>
<td>36.2 %</td>
<td>39.1 %</td>
<td>31.6 %</td>
<td>34.0 %</td>
<td></td>
</tr>
<tr>
<td>13.8 %</td>
<td>10.8 %</td>
<td>13.5 %</td>
<td>11.0 %</td>
<td></td>
</tr>
<tr>
<td>9.7 %</td>
<td>5.2 %</td>
<td>8.6 %</td>
<td>5.5 %</td>
<td></td>
</tr>
<tr>
<td>22.4 %</td>
<td>24.6 %</td>
<td>20.1 %</td>
<td>19.5 %</td>
<td></td>
</tr>
<tr>
<td>2.6 %</td>
<td>2.2 %</td>
<td>2.5 %</td>
<td>4.0 %</td>
<td></td>
</tr>
<tr>
<td>100.0 %</td>
<td>100.0 %</td>
<td>100.0 %</td>
<td>100.0 %</td>
<td></td>
</tr>
</tbody>
</table>

독거이유

<table>
<thead>
<tr>
<th>독거이유</th>
<th>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h>
<th>자유로운 생활</th>
<th>직장·학업</th>
<th>같이 살 가족 없음</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24.3 %</td>
<td>24.0 %</td>
<td>19.2 %</td>
<td>23.1 %</td>
<td>26.7 %</td>
<td></td>
</tr>
<tr>
<td>21.6 %</td>
<td>35.7 %</td>
<td>37.6 %</td>
<td>23.1 %</td>
<td>20.0 %</td>
<td></td>
</tr>
<tr>
<td>10.8 %</td>
<td>12.3 %</td>
<td>10.9 %</td>
<td>23.1 %</td>
<td>23.3 %</td>
<td></td>
</tr>
<tr>
<td>16.2 %</td>
<td>4.1 %</td>
<td>7.7 %</td>
<td>2.6 %</td>
<td>3.3 %</td>
<td></td>
</tr>
<tr>
<td>24.3 %</td>
<td>20.5 %</td>
<td>22.3 %</td>
<td>23.1 %</td>
<td>20.0 %</td>
<td></td>
</tr>
<tr>
<td>2.7 %</td>
<td>3.5 %</td>
<td>2.2 %</td>
<td>5.1 %</td>
<td>6.7 %</td>
<td></td>
</tr>
<tr>
<td>100.0 %</td>
<td>100.0 %</td>
<td>100.0 %</td>
<td>100.0 %</td>
<td>100.0 %</td>
<td></td>
</tr>
</tbody>
</table>

경제상태 전망

<table>
<thead>
<tr>
<th>경제상태 전망</th>
<th>지금과 비슷</th>
<th>지금보다 나아질것</th>
<th>지금보다 나빠질것</th>
</tr>
</thead>
<tbody>
<tr>
<td>18.8 %</td>
<td>21.3 %</td>
<td>20.9 %</td>
<td></td>
</tr>
<tr>
<td>27.8 %</td>
<td>39.9 %</td>
<td>20.9 %</td>
<td></td>
</tr>
<tr>
<td>18.0 %</td>
<td>9.2 %</td>
<td>14.0 %</td>
<td></td>
</tr>
<tr>
<td>9.0 %</td>
<td>5.8 %</td>
<td>20.9 %</td>
<td></td>
</tr>
<tr>
<td>23.7 %</td>
<td>21.1 %</td>
<td>2.3 %</td>
<td></td>
</tr>
<tr>
<td>2.6 %</td>
<td>2.8 %</td>
<td>100.0 %</td>
<td></td>
</tr>
</tbody>
</table>

의지할 수 있는 사람

<table>
<thead>
<tr>
<th>의지할 수 있는 사람</th>
<th>없음</th>
<th>1명</th>
<th>2명</th>
<th>3명</th>
<th>4명</th>
<th>5명</th>
<th>6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4.3 %</td>
<td>36.4 %</td>
<td>16.5 %</td>
<td>23.4 %</td>
<td>16.3 %</td>
<td>23.5 %</td>
<td>16.8 %</td>
<td></td>
</tr>
<tr>
<td>47.6 %</td>
<td>21.2 %</td>
<td>35.9 %</td>
<td>30.7 %</td>
<td>42.9 %</td>
<td>35.4 %</td>
<td>43.8 %</td>
<td></td>
</tr>
<tr>
<td>9.5 %</td>
<td>18.2 %</td>
<td>17.6 %</td>
<td>11.9 %</td>
<td>9.2 %</td>
<td>9.7 %</td>
<td>6.5 %</td>
<td></td>
</tr>
<tr>
<td>14.3 %</td>
<td>3.0 %</td>
<td>8.8 %</td>
<td>9.6 %</td>
<td>5.1 %</td>
<td>5.3 %</td>
<td>5.9 %</td>
<td></td>
</tr>
<tr>
<td>0.0 %</td>
<td>18.2 %</td>
<td>20.0 %</td>
<td>21.1 %</td>
<td>24.5 %</td>
<td>21.7 %</td>
<td>24.9 %</td>
<td></td>
</tr>
<tr>
<td>100.0 %</td>
<td>3.0 %</td>
<td>1.2 %</td>
<td>3.2 %</td>
<td>2.0 %</td>
<td>4.4 %</td>
<td>2.2 %</td>
<td></td>
</tr>
</tbody>
</table>

주: 1) 20-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1명, 중학교가 2명으로 사례수가 매우 적어 고등학교 이하로 합하였음.
2) 혼자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3) 응답이 1% 미만으로 나온 노후에 대한 불안함(0.3%), 결혼하라는 부모의 압력(0.8%), 사회와 부정적인 사과
   (0.6%)은 기타로 합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반면 혼자 살면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자유로움이 84.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여가-취미활동 등 나 자신에게만 투자할 수 있음 9.8%, 나의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음 5.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음은 0.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젊을수록 자유로움을 혼자 살면서 좋은 점으로 꼽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나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좋은 점으로 꼽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 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자유로움에 대한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반면 유예우인 경우에는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다거나 자신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가나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로움을 많이 응답하였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없는 자영자인 경우 자유로움을, 고용원 있는 자영자-업주인 경우 일-직장에 몰두할 수 있거나 여가나 취미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일용근로자인 경우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을 혼자 살면서 좋은 점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혼자 생활한지 2~5년 미만인 경우 자유로움을 좋은 점으로 많이 꼽았고, 2년 미만인 경우 일이나 직장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점을, 5~10년 미만인 경우 여가나 취미 등 자신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응답하였다.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혼자 사는 경우에는 여가나 취미 등 자신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살 가족이 없어 혼자 사는 경우에는 자유로움이나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을 높게 응답하였다. 앞으로 경제 상태에 대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혼자 살면서 여가나 취미 등 자신에게만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응답이 높았다.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표 6-6〉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좋은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자유로움</th>
<th>가족 부양 부담 없음</th>
<th>일·직장에 몰두할 수 있음</th>
<th>여가·취미 활동 등 자신의게만 투자할 수 있음</th>
<th>계 (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84.3 0.7 5.1 9.8</td>
<td>100.0 (1,382)</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85.8 0.4 5.0 8.7</td>
<td>100.0 (698)</td>
<td></td>
<td></td>
<td></td>
</tr>
<tr>
<td>중소도시</td>
<td>82.9 1.3 5.2 10.6</td>
<td>100.0 (537)</td>
<td></td>
<td></td>
<td></td>
</tr>
<tr>
<td>농어촌</td>
<td>82.2 0.0 5.5 12.3</td>
<td>100.0 (146)</td>
<td></td>
<td></td>
<td></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85.0 0.9 4.7 9.4</td>
<td>100.0 (805)</td>
<td></td>
<td></td>
<td></td>
</tr>
<tr>
<td>여성</td>
<td>83.4 0.5 5.7 10.4</td>
<td>100.0 (577)</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88.4 0.0 5.4 6.2</td>
<td>100.0 (242)</td>
<td></td>
<td></td>
<td></td>
</tr>
<tr>
<td>25~29세</td>
<td>85.3 0.7 3.6 10.4</td>
<td>100.0 (441)</td>
<td></td>
<td></td>
<td></td>
</tr>
<tr>
<td>30~34세</td>
<td>83.5 1.3 5.2 10.0</td>
<td>100.0 (381)</td>
<td></td>
<td></td>
<td></td>
</tr>
<tr>
<td>35~39세</td>
<td>80.8 0.6 6.9 11.6</td>
<td>100.0 (318)</td>
<td></td>
<td></td>
<td></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60.7 0.0 10.7 28.6</td>
<td>100.0 (56)</td>
<td></td>
<td></td>
<td></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70.3 2.7 8.1 18.9</td>
<td>100.0 (37)</td>
<td></td>
<td></td>
<td></td>
</tr>
<tr>
<td>미혼</td>
<td>85.7 0.7 4.8 8.8</td>
<td>100.0 (1,289)</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수준 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84.3 1.3 5.0 9.4</td>
<td>100.0 (159)</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84.3 0.7 5.2 9.9</td>
<td>100.0 (1,223)</td>
<td></td>
<td></td>
<td></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83.7 0.9 4.9 10.5</td>
<td>100.0 (1,128)</td>
<td></td>
<td></td>
<td></td>
</tr>
<tr>
<td>비취업</td>
<td>87.2 0.0 6.0 6.8</td>
<td>100.0 (250)</td>
<td></td>
<td></td>
<td></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없는 자영자</td>
<td>92.6 1.9 1.9 3.7</td>
<td>100.0 (54)</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67.9 0.0 17.9 14.3</td>
<td>100.0 (28)</td>
<td></td>
<td></td>
<td></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83.7 0.9 4.8 10.6</td>
<td>100.0 (883)</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근로자</td>
<td>76.9 3.8 11.5 7.7</td>
<td>100.0 (26)</td>
<td></td>
<td></td>
<td></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86.4 0.0 2.9 10.7</td>
<td>100.0 (103)</td>
<td></td>
<td></td>
<td></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25.0 0.0 25.0 50.0</td>
<td>100.0 (4)</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85.7 0.0 0.0 14.3</td>
<td>100.0 (28)</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자유로움</th>
<th>가족 부양 부담 없음</th>
<th>일직장에 몰두할 수 있음</th>
<th>가족·취미 활동 등 자산제한 투자할 수 있음</th>
<th>계 (명)</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88.8</td>
<td>0.5</td>
<td>5.1</td>
<td>5.6</td>
<td>100.0 (215)</td>
</tr>
<tr>
<td>100~199만원</td>
<td>81.5</td>
<td>1.3</td>
<td>4.5</td>
<td>12.7</td>
<td>100.0 (314)</td>
</tr>
<tr>
<td>200~299만원</td>
<td>85.2</td>
<td>0.6</td>
<td>5.1</td>
<td>9.1</td>
<td>100.0 (508)</td>
</tr>
<tr>
<td>300~399만원</td>
<td>80.5</td>
<td>1.0</td>
<td>7.0</td>
<td>11.5</td>
<td>100.0 (200)</td>
</tr>
<tr>
<td>400만원 이상</td>
<td>82.8</td>
<td>0.0</td>
<td>5.1</td>
<td>12.1</td>
<td>100.0 (99)</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81.2</td>
<td>0.4</td>
<td>6.6</td>
<td>11.8</td>
<td>100.0 (271)</td>
</tr>
<tr>
<td>2~5년 미만</td>
<td>88.1</td>
<td>0.9</td>
<td>4.2</td>
<td>6.7</td>
<td>100.0 (430)</td>
</tr>
<tr>
<td>5~10년 미만</td>
<td>81.5</td>
<td>0.8</td>
<td>5.0</td>
<td>12.7</td>
<td>100.0 (378)</td>
</tr>
<tr>
<td>10년 이상</td>
<td>85.1</td>
<td>0.7</td>
<td>5.3</td>
<td>8.9</td>
<td>100.0 (302)</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85.0</td>
<td>1.7</td>
<td>6.7</td>
<td>6.7</td>
<td>100.0 (60)</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83.4</td>
<td>1.2</td>
<td>4.0</td>
<td>11.4</td>
<td>100.0 (325)</td>
</tr>
<tr>
<td>직장·학업</td>
<td>84.3</td>
<td>0.2</td>
<td>5.7</td>
<td>9.8</td>
<td>100.0 (916)</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88.9</td>
<td>0.7</td>
<td>6.1</td>
<td>9.1</td>
<td>100.0 (45)</td>
</tr>
<tr>
<td>기타</td>
<td>84.8</td>
<td>0.0</td>
<td>6.1</td>
<td>9.1</td>
<td>100.0 (33)</td>
</tr>
<tr>
<td>경제상태 전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금과 비슷</td>
<td>84.8</td>
<td>1.1</td>
<td>4.9</td>
<td>9.2</td>
<td>100.0 (369)</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질것</td>
<td>84.8</td>
<td>0.6</td>
<td>5.0</td>
<td>9.6</td>
<td>100.0 (947)</td>
</tr>
<tr>
<td>지금보다 나빠질것</td>
<td>73.8</td>
<td>0.0</td>
<td>9.8</td>
<td>16.4</td>
<td>100.0 (61)</td>
</tr>
<tr>
<td>의지할 수 있는 사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없음</td>
<td>95.7</td>
<td>0.0</td>
<td>0.0</td>
<td>4.3</td>
<td>100.0 (23)</td>
</tr>
<tr>
<td>1명</td>
<td>82.9</td>
<td>0.0</td>
<td>4.9</td>
<td>12.2</td>
<td>100.0 (41)</td>
</tr>
<tr>
<td>2명</td>
<td>84.9</td>
<td>0.9</td>
<td>4.3</td>
<td>9.9</td>
<td>100.0 (232)</td>
</tr>
<tr>
<td>3명</td>
<td>81.9</td>
<td>1.5</td>
<td>5.2</td>
<td>11.3</td>
<td>100.0 (326)</td>
</tr>
<tr>
<td>4명</td>
<td>86.8</td>
<td>0.0</td>
<td>2.8</td>
<td>10.4</td>
<td>100.0 (144)</td>
</tr>
<tr>
<td>5명</td>
<td>85.1</td>
<td>0.3</td>
<td>5.2</td>
<td>9.5</td>
<td>100.0 (328)</td>
</tr>
<tr>
<td>6명 이상</td>
<td>83.5</td>
<td>0.8</td>
<td>7.5</td>
<td>8.3</td>
<td>100.0 (266)</td>
</tr>
</tbody>
</table>

주: 1) 20~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1명, 중학교가 2명으로 사례수가 매우 적어 고등학교 이상으로 합하였음.
2) 혼자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171

3. 독거생활 시 필요 사항 및 주요 관심사

20~30대 1인가구 거주자가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경제적 능력이 64.2%로 가장 많았고 독립적인 성격이나 가까운 친구는 각각 12.4%, 10.0%, 취미활동이 7.1%, 범죄로부터의 보호가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인 경우 가까운 친구나 취미활동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나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를 남성에 비해 중요하다고 꼽은 반면 남성은 가까운 친구나 취미활동과 같이 사회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 어릴수록 범죄로부터의 보호나 독립적인 성격을 많이 꼽은 반면 연령이 많은수록 가까운 친구나 취미활동과 같은 사회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나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미혼 집단에 비해 경제적 능력 보다는 가까운 친구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고등학교 이하인 경제적 능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고 (전문)대학 이상이거나 비취업인 경우 독립적인 성격을 더 많이 꼽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인 경우 가까운 친구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인 경우 경제적 능력이나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일용근로자는 취미활동을, 임시근로자는 경제적 능력을 많이 응답했다.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 독립적인 성격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까운 친구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독거기간별로는 5년 이상인 경우 경제적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기간이 짧은 경우 가까운 친구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 다. 혼자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혼자 사는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과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취미활동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갈이 살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구나 독립적인 성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6-7〉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경제적 능력</th>
<th>가까운 친구</th>
<th>취미 활동</th>
<th>범죄로 부터의 보호</th>
<th>독립적인 성격</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64.2</td>
<td>10.0</td>
<td>7.1</td>
<td>3.8</td>
<td>12.4</td>
<td>2.5</td>
<td>100.0 (1,508)</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65.5</td>
<td>9.2</td>
<td>5.7</td>
<td>4.5</td>
<td>12.8</td>
<td>2.4</td>
<td>100.0 (759)</td>
</tr>
<tr>
<td>중소도시</td>
<td>63.2</td>
<td>10.4</td>
<td>8.0</td>
<td>2.9</td>
<td>13.5</td>
<td>2.0</td>
<td>100.0 (587)</td>
</tr>
<tr>
<td>농어촌</td>
<td>61.3</td>
<td>12.5</td>
<td>10.6</td>
<td>4.4</td>
<td>6.9</td>
<td>4.4</td>
<td>100.0 (160)</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62.8</td>
<td>11.5</td>
<td>9.4</td>
<td>0.6</td>
<td>12.8</td>
<td>2.9</td>
<td>100.0 (903)</td>
</tr>
<tr>
<td>여성</td>
<td>66.3</td>
<td>7.8</td>
<td>3.6</td>
<td>8.8</td>
<td>11.7</td>
<td>1.8</td>
<td>100.0 (605)</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64.4</td>
<td>5.7</td>
<td>3.8</td>
<td>6.1</td>
<td>18.2</td>
<td>1.9</td>
<td>100.0 (264)</td>
</tr>
<tr>
<td>25~29세</td>
<td>66.3</td>
<td>6.5</td>
<td>7.5</td>
<td>5.0</td>
<td>13.1</td>
<td>1.7</td>
<td>100.0 (480)</td>
</tr>
<tr>
<td>30~34세</td>
<td>65.4</td>
<td>11.3</td>
<td>7.5</td>
<td>2.4</td>
<td>10.6</td>
<td>2.9</td>
<td>100.0 (416)</td>
</tr>
<tr>
<td>35~39세</td>
<td>59.8</td>
<td>16.7</td>
<td>8.6</td>
<td>2.3</td>
<td>9.2</td>
<td>3.4</td>
<td>100.0 (348)</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0.0</td>
<td>77.6</td>
<td>6.0</td>
<td>1.5</td>
<td>11.9</td>
<td>3.0</td>
<td>100.0 (67)</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0.0</td>
<td>80.5</td>
<td>2.4</td>
<td>4.9</td>
<td>7.3</td>
<td>4.9</td>
<td>100.0 (41)</td>
</tr>
<tr>
<td>미혼</td>
<td>69.1</td>
<td>4.7</td>
<td>7.3</td>
<td>3.9</td>
<td>12.6</td>
<td>2.4</td>
<td>100.0 (1,400)</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69.9</td>
<td>10.8</td>
<td>5.7</td>
<td>2.8</td>
<td>9.1</td>
<td>1.7</td>
<td>100.0 (176)</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63.4</td>
<td>9.9</td>
<td>7.3</td>
<td>4.0</td>
<td>12.8</td>
<td>2.6</td>
<td>100.0 (1,332)</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65.6</td>
<td>10.4</td>
<td>7.5</td>
<td>3.5</td>
<td>10.7</td>
<td>2.3</td>
<td>100.0 (1,226)</td>
</tr>
<tr>
<td>비취업</td>
<td>58.1</td>
<td>8.3</td>
<td>5.4</td>
<td>5.4</td>
<td>19.5</td>
<td>3.2</td>
<td>100.0 (277)</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경제적 능력</th>
<th>가까운 친구</th>
<th>취미 활동</th>
<th>범죄로부터의 보호</th>
<th>독립적인 성격</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56.9</td>
<td>5.9</td>
<td>6.7</td>
<td>5.4</td>
<td>20.9</td>
<td>4.2</td>
<td>100.0 (239)</td>
</tr>
<tr>
<td>100~199만원</td>
<td>68.2</td>
<td>5.6</td>
<td>6.2</td>
<td>5.6</td>
<td>12.5</td>
<td>1.8</td>
<td>100.0 (337)</td>
</tr>
<tr>
<td>200~299만원</td>
<td>65.6</td>
<td>9.2</td>
<td>7.6</td>
<td>3.2</td>
<td>11.5</td>
<td>2.9</td>
<td>100.0 (555)</td>
</tr>
<tr>
<td>300~399만원</td>
<td>65.1</td>
<td>15.8</td>
<td>7.9</td>
<td>1.9</td>
<td>7.9</td>
<td>1.4</td>
<td>100.0 (215)</td>
</tr>
<tr>
<td>400만원 이상</td>
<td>55.0</td>
<td>28.4</td>
<td>6.4</td>
<td>0.9</td>
<td>8.3</td>
<td>0.9</td>
<td>100.0 (109)</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없는 자영자</td>
<td>64.4</td>
<td>13.6</td>
<td>3.4</td>
<td>3.4</td>
<td>15.3</td>
<td>0.0</td>
<td>100.0 (59)</td>
</tr>
<tr>
<td>고용원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70.0</td>
<td>10.0</td>
<td>3.3</td>
<td>6.7</td>
<td>10.0</td>
<td>0.0</td>
<td>100.0 (30)</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65.3</td>
<td>10.6</td>
<td>7.9</td>
<td>3.3</td>
<td>10.3</td>
<td>2.5</td>
<td>100.0 (960)</td>
</tr>
<tr>
<td>임용근로자</td>
<td>64.3</td>
<td>10.7</td>
<td>10.7</td>
<td>0.0</td>
<td>7.1</td>
<td>7.1</td>
<td>100.0 (28)</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69.4</td>
<td>9.0</td>
<td>4.5</td>
<td>4.5</td>
<td>12.6</td>
<td>0.0</td>
<td>100.0 (111)</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50.0</td>
<td>0.0</td>
<td>25.0</td>
<td>0.0</td>
<td>25.0</td>
<td>0.0</td>
<td>100.0 (4)</td>
</tr>
<tr>
<td>기타</td>
<td>61.3</td>
<td>6.5</td>
<td>12.9</td>
<td>3.2</td>
<td>9.7</td>
<td>6.5</td>
<td>100.0 (31)</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59.9</td>
<td>15.2</td>
<td>5.0</td>
<td>2.6</td>
<td>13.6</td>
<td>3.6</td>
<td>100.0 (302)</td>
</tr>
<tr>
<td>2~5년 미만</td>
<td>61.6</td>
<td>10.1</td>
<td>6.3</td>
<td>5.3</td>
<td>14.6</td>
<td>2.1</td>
<td>100.0 (474)</td>
</tr>
<tr>
<td>5~10년 미만</td>
<td>68.5</td>
<td>8.0</td>
<td>7.5</td>
<td>5.3</td>
<td>9.3</td>
<td>1.5</td>
<td>100.0 (400)</td>
</tr>
<tr>
<td>10년 이상</td>
<td>67.3</td>
<td>6.7</td>
<td>9.5</td>
<td>1.2</td>
<td>12.2</td>
<td>3.1</td>
<td>100.0 (327)</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70.1</td>
<td>9.0</td>
<td>10.4</td>
<td>3.0</td>
<td>4.5</td>
<td>3.0</td>
<td>100.0 (67)</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67.8</td>
<td>7.5</td>
<td>8.4</td>
<td>2.7</td>
<td>11.0</td>
<td>2.7</td>
<td>100.0 (335)</td>
</tr>
<tr>
<td>직장·학업</td>
<td>62.9</td>
<td>10.6</td>
<td>6.6</td>
<td>4.4</td>
<td>13.1</td>
<td>2.4</td>
<td>100.0 (1,013)</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62.3</td>
<td>13.2</td>
<td>5.7</td>
<td>1.9</td>
<td>15.1</td>
<td>1.9</td>
<td>100.0 (53)</td>
</tr>
<tr>
<td>기타</td>
<td>59.5</td>
<td>13.5</td>
<td>5.4</td>
<td>2.7</td>
<td>16.2</td>
<td>2.7</td>
<td>100.0 (37)</td>
</tr>
</tbody>
</table>

주: 1) 20~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2명, 중학교가 3명으로 사례수가 매우 적어 고등학교 이하로 합하였음.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여유시간 시 우선시하는 활동은 운동이나 여행, 취미활동이 4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휴식 22.4%, 친구나 이성과의 만남 18.6%, 컴퓨터, 외국어 배우기 등 자기개발 활동이 10.3%, 가족과의 만남 4.1%, 가사일 1.9%, 봉사활동 또는 종교활동 1.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인 경우 가족과의 만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좀 더 많았고, 대도시인 경우 친구나 이성과의 만남이 약간 더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휴식을 많이 선택한 반면 남성은 운동이나 여행, 취미활동과 같은 활동적인 것을 많이 선택하였다. 연령별로는 20 대 초반인 경우 친구나 이성과의 만남과 자기개발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한 반면 30대 후반인 경우에는 운동이나 여행, 취미활동이나 가족과의 만남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과의 만남을 중요시하고 있었고 이혼·벌거·사별인 경우 가족과의 만남, 친구나 이성과의 만남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여유시간에 휴식을,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친구나 이성과의 만남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동이나 여행, 취미활동을 우선시하는 반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개발 활동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자인 경우 휴식을 우선시하고 있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는 가족 만남이나 운동·여행·취미활동, 봉사·종교활동을, 상용근로자는 친구나 이성 만남을, 일용근로자는 가사일을, 임시근로자는 컴퓨터나 외국어 등 자기개발활동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운동이나 여행, 취미활동과 가족과의 만남, 봉사나 종교활동을 상대적으로 우선시하고 있었으나 소득수준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자기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비취업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미
래 취업이나 커리어 개발 등을 위한 자기개발에 좀 더 중점을 두는 반면 나이가 많거나 취업중이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안정적 직업을 바탕으로 취미활동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자 산 기간이 짧은 경우 가족이나 친구, 이성과의 만남이나 자기개발을 우선시하는 반면 혼자 산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운동이나 여행등 취미활동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거나 정체력이 있어서 혼자 사는 경우에는 취미활동이나 친구 및 이성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는 반면 같이 살 가능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휴식이나 가사일, 봉사나 종교활동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여유시간 시 우선시하는 활동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가족 만남</th>
<th>친구 만남</th>
<th>이성 만남</th>
<th>취미</th>
<th>여행</th>
<th>외국어학습</th>
<th>컴퓨터</th>
<th>봉사</th>
<th>종교활동</th>
<th>가사일</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4.1</td>
<td>18.6</td>
<td>22.4</td>
<td>41.3</td>
<td>10.3</td>
<td>1.4</td>
<td>1.9</td>
<td>100.0</td>
<td>(1,518)</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3.5</td>
<td>20.8</td>
<td>20.8</td>
<td>42.3</td>
<td>9.8</td>
<td>1.3</td>
<td>1.4</td>
<td>100.0</td>
<td>(764)</td>
<td></td>
<td></td>
</tr>
<tr>
<td>중소도시</td>
<td>4.1</td>
<td>17.6</td>
<td>24.3</td>
<td>39.5</td>
<td>10.6</td>
<td>1.4</td>
<td>2.5</td>
<td>100.0</td>
<td>(592)</td>
<td></td>
<td></td>
</tr>
<tr>
<td>농어촌</td>
<td>6.9</td>
<td>11.9</td>
<td>22.5</td>
<td>43.1</td>
<td>11.9</td>
<td>1.9</td>
<td>1.9</td>
<td>100.0</td>
<td>(160)</td>
<td></td>
<td></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3.6</td>
<td>18.7</td>
<td>19.3</td>
<td>45.3</td>
<td>9.9</td>
<td>1.3</td>
<td>1.9</td>
<td>100.0</td>
<td>(909)</td>
<td></td>
<td></td>
</tr>
<tr>
<td>여성</td>
<td>4.8</td>
<td>18.4</td>
<td>27.1</td>
<td>35.3</td>
<td>11.0</td>
<td>1.5</td>
<td>2.0</td>
<td>100.0</td>
<td>(609)</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3.4</td>
<td>27.1</td>
<td>20.3</td>
<td>32.0</td>
<td>13.9</td>
<td>1.1</td>
<td>2.3</td>
<td>100.0</td>
<td>(266)</td>
<td></td>
<td></td>
</tr>
<tr>
<td>25-29세</td>
<td>2.5</td>
<td>22.0</td>
<td>23.1</td>
<td>37.8</td>
<td>10.8</td>
<td>1.7</td>
<td>2.1</td>
<td>100.0</td>
<td>(481)</td>
<td></td>
<td></td>
</tr>
<tr>
<td>30-34세</td>
<td>4.8</td>
<td>17.9</td>
<td>23.4</td>
<td>42.8</td>
<td>9.3</td>
<td>0.2</td>
<td>1.4</td>
<td>100.0</td>
<td>(418)</td>
<td></td>
<td></td>
</tr>
<tr>
<td>35-39세</td>
<td>5.9</td>
<td>8.2</td>
<td>21.8</td>
<td>51.3</td>
<td>8.2</td>
<td>2.5</td>
<td>2.0</td>
<td>100.0</td>
<td>(353)</td>
<td></td>
<td></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20.9</td>
<td>3.0</td>
<td>14.9</td>
<td>40.3</td>
<td>13.4</td>
<td>3.0</td>
<td>4.5</td>
<td>100.0</td>
<td>(67)</td>
<td></td>
<td></td>
</tr>
<tr>
<td>이혼·벌거·사별</td>
<td>17.1</td>
<td>29.3</td>
<td>22.0</td>
<td>24.4</td>
<td>4.9</td>
<td>2.4</td>
<td>0.0</td>
<td>100.0</td>
<td>(41)</td>
<td></td>
<td></td>
</tr>
<tr>
<td>미혼</td>
<td>2.9</td>
<td>19.0</td>
<td>22.8</td>
<td>41.8</td>
<td>10.4</td>
<td>1.3</td>
<td>1.8</td>
<td>100.0</td>
<td>(1,41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가족 만남</th>
<th>친구 만남</th>
<th>유식</th>
<th>운동</th>
<th>여행</th>
<th>취미</th>
<th>컴퓨터 외국어</th>
<th>종교</th>
<th>환경</th>
<th>가사일</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교육수준 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5.7</td>
<td>14.8</td>
<td>26.1</td>
<td>40.9</td>
<td>10.2</td>
<td>0.6</td>
<td>1.7</td>
<td>100.0</td>
<td>(176)</td>
<td></td>
<td></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3.9</td>
<td>19.1</td>
<td>21.9</td>
<td>41.4</td>
<td>10.4</td>
<td>1.5</td>
<td>1.9</td>
<td>100.0</td>
<td>(1,342)</td>
<td></td>
<td></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4.2</td>
<td>18.4</td>
<td>22.0</td>
<td>43.3</td>
<td>8.7</td>
<td>1.5</td>
<td>1.9</td>
<td>100.0</td>
<td>(1,235)</td>
<td></td>
<td></td>
</tr>
<tr>
<td>비취업</td>
<td>3.6</td>
<td>19.8</td>
<td>24.1</td>
<td>32.0</td>
<td>17.6</td>
<td>1.1</td>
<td>1.8</td>
<td>100.0</td>
<td>(278)</td>
<td></td>
<td></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없는 자영주</td>
<td>4.8</td>
<td>16.1</td>
<td>27.4</td>
<td>35.5</td>
<td>9.7</td>
<td>3.2</td>
<td>3.2</td>
<td>100.0</td>
<td>(62)</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있는 자영주-사업주</td>
<td>6.7</td>
<td>6.7</td>
<td>20.0</td>
<td>50.0</td>
<td>10.0</td>
<td>6.7</td>
<td>0.0</td>
<td>100.0</td>
<td>(30)</td>
<td></td>
<td></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4.3</td>
<td>19.1</td>
<td>22.0</td>
<td>43.5</td>
<td>8.2</td>
<td>0.9</td>
<td>1.9</td>
<td>100.0</td>
<td>(967)</td>
<td></td>
<td></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3.6</td>
<td>17.9</td>
<td>25.0</td>
<td>39.3</td>
<td>7.1</td>
<td>3.6</td>
<td>3.6</td>
<td>100.0</td>
<td>(28)</td>
<td></td>
<td></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2.7</td>
<td>18.2</td>
<td>19.1</td>
<td>41.8</td>
<td>12.7</td>
<td>2.7</td>
<td>2.7</td>
<td>100.0</td>
<td>(110)</td>
<td></td>
<td></td>
</tr>
<tr>
<td>무급가족종사자</td>
<td>0.0</td>
<td>25.0</td>
<td>25.0</td>
<td>50.0</td>
<td>0.0</td>
<td>0.0</td>
<td>0.0</td>
<td>100.0</td>
<td>(4)</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3.2</td>
<td>9.7</td>
<td>19.4</td>
<td>54.8</td>
<td>9.7</td>
<td>3.2</td>
<td>0.0</td>
<td>100.0</td>
<td>(31)</td>
<td></td>
<td></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2.9</td>
<td>20.8</td>
<td>22.9</td>
<td>31.3</td>
<td>17.9</td>
<td>2.1</td>
<td>2.1</td>
<td>100.0</td>
<td>(240)</td>
<td></td>
<td></td>
</tr>
<tr>
<td>100~199만원</td>
<td>5.0</td>
<td>16.2</td>
<td>26.8</td>
<td>38.3</td>
<td>10.3</td>
<td>1.2</td>
<td>2.1</td>
<td>100.0</td>
<td>(339)</td>
<td></td>
<td></td>
</tr>
<tr>
<td>200~299만원</td>
<td>3.2</td>
<td>19.5</td>
<td>21.8</td>
<td>45.1</td>
<td>7.7</td>
<td>1.1</td>
<td>1.6</td>
<td>100.0</td>
<td>(559)</td>
<td></td>
<td></td>
</tr>
<tr>
<td>300~399만원</td>
<td>4.2</td>
<td>20.4</td>
<td>20.4</td>
<td>45.8</td>
<td>7.4</td>
<td>0.5</td>
<td>1.4</td>
<td>100.0</td>
<td>(216)</td>
<td></td>
<td></td>
</tr>
<tr>
<td>400만원 이상</td>
<td>9.0</td>
<td>12.6</td>
<td>11.7</td>
<td>49.5</td>
<td>10.8</td>
<td>4.5</td>
<td>1.8</td>
<td>100.0</td>
<td>(111)</td>
<td></td>
<td></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6.3</td>
<td>20.5</td>
<td>22.8</td>
<td>32.7</td>
<td>12.9</td>
<td>1.7</td>
<td>3.3</td>
<td>100.0</td>
<td>(303)</td>
<td></td>
<td></td>
</tr>
<tr>
<td>2~5년 미만</td>
<td>2.3</td>
<td>21.6</td>
<td>21.0</td>
<td>39.6</td>
<td>11.7</td>
<td>1.5</td>
<td>2.3</td>
<td>100.0</td>
<td>(477)</td>
<td></td>
<td></td>
</tr>
<tr>
<td>5~10년 미만</td>
<td>4.4</td>
<td>16.8</td>
<td>24.4</td>
<td>43.2</td>
<td>9.4</td>
<td>0.7</td>
<td>1.0</td>
<td>100.0</td>
<td>(405)</td>
<td></td>
<td></td>
</tr>
<tr>
<td>10년 이상</td>
<td>3.7</td>
<td>14.9</td>
<td>21.6</td>
<td>50.0</td>
<td>7.0</td>
<td>1.5</td>
<td>1.2</td>
<td>100.0</td>
<td>(328)</td>
<td></td>
<td></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1.5</td>
<td>22.7</td>
<td>18.2</td>
<td>48.5</td>
<td>3.0</td>
<td>3.0</td>
<td>3.0</td>
<td>100.0</td>
<td>(66)</td>
<td></td>
<td></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3.3</td>
<td>17.3</td>
<td>22.7</td>
<td>46.3</td>
<td>9.3</td>
<td>0.3</td>
<td>0.9</td>
<td>100.0</td>
<td>(335)</td>
<td></td>
<td></td>
</tr>
<tr>
<td>직장, 학업</td>
<td>4.7</td>
<td>19.6</td>
<td>21.9</td>
<td>39.4</td>
<td>11.1</td>
<td>1.4</td>
<td>1.9</td>
<td>100.0</td>
<td>(1,023)</td>
<td></td>
<td></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0.0</td>
<td>9.6</td>
<td>34.6</td>
<td>36.5</td>
<td>7.7</td>
<td>5.8</td>
<td>5.8</td>
<td>100.0</td>
<td>(52)</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2.6</td>
<td>7.9</td>
<td>23.7</td>
<td>44.7</td>
<td>15.8</td>
<td>2.6</td>
<td>2.6</td>
<td>100.0</td>
<td>(38)</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1) 20~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2명, 중학교가 2명으로 사례수가 매우 적어 고등학교 이상으로 합하였음.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상태 및 인식조사」
다음으로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최근 가장 큰 걱정거리로는 생계비 마련 및 주택 구입 등 경제적 준비가 3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나의 결혼 28.5%, 가족에 대한 염려 15.0%, 나의 노후 준비 9.9%, 나의 건강 9.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인 경우 나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염려가, 중소도시인 경우 생계비 마련 및 주택 구입 등 경제적 준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인 경우 오히려 결혼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여성의 경우 건강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인 경우 경제적 준비에 대한 걱정이, 30대 초반인 경우 결혼이, 30대 후반인 경우 건강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결혼에 대한 걱정은 20대 초반의 경우 매우 낮다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점차 늘어지고 30대 초반에 극에 달하다가 30대 후반이 되면서 어느 정도 결혼보다는 건강이나 노후준비와 같은 다른 측면으로 걱정이 옮겨가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염려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고 이혼,별거,사별인 경우에는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미혼인 경우 결혼이나 생계비 등 경제적 준비에 대한 걱정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결혼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준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경제적 준비에 대한 걱정이,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결혼이나 노후준비,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하고 있는 경우 대체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고 가구소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혼자 생활한 기간이 짧은 경우 경제적 준비에 대한 걱정이 많은 반면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긴 경우 결혼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나 주택 구입 등과 같은 경제적 준비를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노후준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 반면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같이 살 가족이 없는 경우 혼자 사는 경우에는 결혼이나 생활비, 주택구입비 등 경제적 준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결혼에 대한 걱정이, 앞으로 경제상태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에는 생활비나 주택 구입 등 경제적 준비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본인의 결혼에 대해, 적은 경우에는 생활비나 주택 구입 등 경제적 준비나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표 6-9〉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가장 큰 걱정거리

<table>
<thead>
<tr>
<th>특성</th>
<th>나의결혼 및 주택구입 등 경제적준비</th>
<th>나의건강</th>
<th>나의노후준비</th>
<th>가족에 대한だと思う</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28.5</td>
<td>37.3</td>
<td>9.2</td>
<td>9.9</td>
<td>15.0</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30.0</td>
<td>36.3</td>
<td>9.2</td>
<td>10.1</td>
<td>14.5</td>
</tr>
<tr>
<td>중소도시</td>
<td>25.6</td>
<td>40.1</td>
<td>9.2</td>
<td>10.1</td>
<td>15.1</td>
</tr>
<tr>
<td>농어촌</td>
<td>33.1</td>
<td>32.4</td>
<td>9.0</td>
<td>8.3</td>
<td>17.2</td>
</tr>
<tr>
<td>생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32.6</td>
<td>38.5</td>
<td>6.9</td>
<td>8.2</td>
<td>13.9</td>
</tr>
<tr>
<td>여성</td>
<td>22.4</td>
<td>35.6</td>
<td>12.8</td>
<td>12.5</td>
<td>16.7</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12.0</td>
<td>59.1</td>
<td>8.0</td>
<td>6.7</td>
<td>14.2</td>
</tr>
<tr>
<td>25~29세</td>
<td>29.7</td>
<td>40.6</td>
<td>8.8</td>
<td>7.0</td>
<td>13.8</td>
</tr>
<tr>
<td>30~34세</td>
<td>35.8</td>
<td>31.9</td>
<td>7.0</td>
<td>9.7</td>
<td>15.7</td>
</tr>
<tr>
<td>35~39세</td>
<td>29.8</td>
<td>24.3</td>
<td>13.2</td>
<td>16.3</td>
<td>16.3</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0.0</td>
<td>30.0</td>
<td>8.3</td>
<td>18.3</td>
<td>43.3</td>
</tr>
<tr>
<td>이혼·벌가·사별</td>
<td>17.9</td>
<td>20.5</td>
<td>10.3</td>
<td>25.6</td>
<td>25.6</td>
</tr>
<tr>
<td>미혼</td>
<td>30.2</td>
<td>38.2</td>
<td>9.3</td>
<td>9.0</td>
<td>13.3</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179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생애비 마련 및 주거구입 등 경제적준비</th>
<th>나의결혼</th>
<th>나의건강</th>
<th>나의노후 준비</th>
<th>가족에 대한염려</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교육수준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25.3</td>
<td>38.3</td>
<td>12.6</td>
<td>9.3</td>
<td>14.8</td>
<td>100.0 (162)</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29.0</td>
<td>37.2</td>
<td>8.8</td>
<td>10.0</td>
<td>15.0</td>
<td>100.0 (1,212)</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32.4</td>
<td>32.7</td>
<td>9.4</td>
<td>10.4</td>
<td>15.1</td>
<td>100.0 (1,131)</td>
</tr>
<tr>
<td>비취업</td>
<td>10.9</td>
<td>58.6</td>
<td>8.8</td>
<td>7.1</td>
<td>14.6</td>
<td>100.0 (239)</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9.6</td>
<td>62.2</td>
<td>10.0</td>
<td>6.2</td>
<td>12.0</td>
<td>100.0 (290)</td>
</tr>
<tr>
<td>100~199만원</td>
<td>27.3</td>
<td>39.3</td>
<td>10.1</td>
<td>10.7</td>
<td>12.6</td>
<td>100.0 (326)</td>
</tr>
<tr>
<td>200~299만원</td>
<td>34.1</td>
<td>32.9</td>
<td>8.6</td>
<td>9.4</td>
<td>15.0</td>
<td>100.0 (513)</td>
</tr>
<tr>
<td>300~399만원</td>
<td>38.4</td>
<td>24.7</td>
<td>6.8</td>
<td>13.7</td>
<td>16.3</td>
<td>100.0 (190)</td>
</tr>
<tr>
<td>400만원 이상</td>
<td>31.6</td>
<td>18.9</td>
<td>10.5</td>
<td>12.6</td>
<td>26.3</td>
<td>100.0 (95)</td>
</tr>
<tr>
<td>독가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23.2</td>
<td>43.5</td>
<td>8.9</td>
<td>7.7</td>
<td>16.6</td>
<td>100.0 (271)</td>
</tr>
<tr>
<td>2~5년 미만</td>
<td>25.6</td>
<td>41.4</td>
<td>9.4</td>
<td>8.7</td>
<td>14.8</td>
<td>100.0 (425)</td>
</tr>
<tr>
<td>5~10년 미만</td>
<td>28.3</td>
<td>35.4</td>
<td>9.1</td>
<td>11.0</td>
<td>16.2</td>
<td>100.0 (364)</td>
</tr>
<tr>
<td>10년 이상</td>
<td>37.5</td>
<td>28.8</td>
<td>9.4</td>
<td>11.7</td>
<td>12.6</td>
<td>100.0 (309)</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24.1</td>
<td>20.7</td>
<td>15.5</td>
<td>22.4</td>
<td>17.2</td>
<td>100.0 (58)</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23.9</td>
<td>38.0</td>
<td>10.2</td>
<td>14.4</td>
<td>13.4</td>
<td>100.0 (305)</td>
</tr>
<tr>
<td>직장·학업</td>
<td>30.3</td>
<td>38.1</td>
<td>8.4</td>
<td>7.6</td>
<td>15.6</td>
<td>100.0 (924)</td>
</tr>
<tr>
<td>같이 사 가족 없음</td>
<td>32.7</td>
<td>40.4</td>
<td>7.7</td>
<td>7.7</td>
<td>11.5</td>
<td>100.0 (52)</td>
</tr>
<tr>
<td>기타</td>
<td>22.6</td>
<td>32.3</td>
<td>16.1</td>
<td>12.9</td>
<td>16.1</td>
<td>100.0 (31)</td>
</tr>
<tr>
<td>경제상태 전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금과 비슷</td>
<td>25.2</td>
<td>38.3</td>
<td>10.5</td>
<td>12.1</td>
<td>13.9</td>
<td>100.0 (389)</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질것</td>
<td>30.5</td>
<td>36.3</td>
<td>8.5</td>
<td>8.8</td>
<td>15.8</td>
<td>100.0 (917)</td>
</tr>
<tr>
<td>지금보다 나빠질것</td>
<td>21.9</td>
<td>45.3</td>
<td>9.4</td>
<td>12.5</td>
<td>10.9</td>
<td>100.0 (64)</td>
</tr>
<tr>
<td>의지할 수 있는 사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없음</td>
<td>11.5</td>
<td>53.8</td>
<td>7.7</td>
<td>15.4</td>
<td>11.5</td>
<td>100.0 (26)</td>
</tr>
<tr>
<td>1명</td>
<td>16.3</td>
<td>44.2</td>
<td>9.3</td>
<td>14.0</td>
<td>16.3</td>
<td>100.0 (43)</td>
</tr>
<tr>
<td>2명</td>
<td>22.7</td>
<td>38.6</td>
<td>12.4</td>
<td>12.0</td>
<td>14.2</td>
<td>100.0 (233)</td>
</tr>
<tr>
<td>3명</td>
<td>27.5</td>
<td>38.0</td>
<td>8.4</td>
<td>9.0</td>
<td>17.1</td>
<td>100.0 (334)</td>
</tr>
<tr>
<td>4명</td>
<td>27.8</td>
<td>39.1</td>
<td>8.3</td>
<td>13.5</td>
<td>11.3</td>
<td>100.0 (133)</td>
</tr>
<tr>
<td>5명</td>
<td>36.6</td>
<td>32.2</td>
<td>8.4</td>
<td>8.4</td>
<td>14.4</td>
<td>100.0 (320)</td>
</tr>
<tr>
<td>6명 이상</td>
<td>30.2</td>
<td>36.0</td>
<td>9.3</td>
<td>8.5</td>
<td>15.9</td>
<td>100.0 (258)</td>
</tr>
</tbody>
</table>

주: 1) 20~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2명, 중학교가 3명으로 사례수가 매우 적어 고등학교 이하로 합하였다.
2)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4. 독거생활의 만족도 및 향후 전망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다 27.9%, 매우 만족 12.1%, 만족하지 않음 6.5%, 전혀 만족하지 않음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5%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약 7%에 비해 훨씬 많았다. 평균 만족도 역시 3.69점으로 중간에서 만족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농어촌 거주자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대체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유배우자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지내야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기간별로는 2년 미만인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5~10년 미만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혼자 사는 이유가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인 경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반면 같이 살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았으며, 의지할 사람이 많을수록 독거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즉 개인적인 선택으로 혼자 사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으며, 혼자 살아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경제상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 독거생활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거생활
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며, 대체로 의지할 사람이 많아질수록 독거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10〉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생활 만족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만족하지 않음</th>
<th>만족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만족</th>
<th>매우 만족</th>
<th>계(명)</th>
<th>평균 만족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0.7</td>
<td>6.5</td>
<td>27.9</td>
<td>52.7</td>
<td>12.1</td>
<td>100.0</td>
<td>3.69</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0.4</td>
<td>5.9</td>
<td>26.5</td>
<td>55.2</td>
<td>12.0</td>
<td>100.0</td>
<td>3.73</td>
</tr>
<tr>
<td>중소도시</td>
<td>1.0</td>
<td>7.2</td>
<td>28.1</td>
<td>50.8</td>
<td>12.8</td>
<td>100.0</td>
<td>3.67</td>
</tr>
<tr>
<td>농어촌</td>
<td>1.3</td>
<td>6.9</td>
<td>33.8</td>
<td>48.8</td>
<td>9.4</td>
<td>100.0</td>
<td>3.69</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9.5</td>
<td>29.6</td>
<td>23.9</td>
<td>20.8</td>
<td>6.3</td>
<td>100.0</td>
<td>3.73</td>
</tr>
<tr>
<td>여성</td>
<td>1.0</td>
<td>7.1</td>
<td>32.2</td>
<td>51.2</td>
<td>8.6</td>
<td>100.0</td>
<td>3.59</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0.8</td>
<td>3.0</td>
<td>30.1</td>
<td>54.1</td>
<td>12.0</td>
<td>100.0</td>
<td>3.74</td>
</tr>
<tr>
<td>25~29세</td>
<td>0.8</td>
<td>7.7</td>
<td>23.7</td>
<td>54.7</td>
<td>13.1</td>
<td>100.0</td>
<td>3.72</td>
</tr>
<tr>
<td>30~34세</td>
<td>0.5</td>
<td>6.4</td>
<td>28.4</td>
<td>52.0</td>
<td>12.6</td>
<td>100.0</td>
<td>3.70</td>
</tr>
<tr>
<td>35~39세</td>
<td>0.8</td>
<td>7.6</td>
<td>31.5</td>
<td>49.9</td>
<td>10.1</td>
<td>100.0</td>
<td>3.61</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미혼</td>
<td>0.6</td>
<td>5.2</td>
<td>26.8</td>
<td>54.7</td>
<td>12.6</td>
<td>100.0</td>
<td>3.73</td>
</tr>
<tr>
<td>교육수준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1.2</td>
<td>7.9</td>
<td>26.0</td>
<td>52.0</td>
<td>12.4</td>
<td>100.0</td>
<td>3.66</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0.6</td>
<td>6.3</td>
<td>28.2</td>
<td>52.8</td>
<td>12.1</td>
<td>100.0</td>
<td>3.69</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0.7</td>
<td>6.5</td>
<td>28.1</td>
<td>52.5</td>
<td>12.0</td>
<td>100.0</td>
<td>3.69</td>
</tr>
<tr>
<td>비취업</td>
<td>0.7</td>
<td>6.5</td>
<td>27.2</td>
<td>53.0</td>
<td>12.5</td>
<td>100.0</td>
<td>3.70</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1.7</td>
<td>4.1</td>
<td>26.1</td>
<td>55.6</td>
<td>12.4</td>
<td>100.0</td>
<td>3.73</td>
</tr>
<tr>
<td>100~199만원</td>
<td>0.6</td>
<td>5.0</td>
<td>23.3</td>
<td>57.5</td>
<td>13.6</td>
<td>100.0</td>
<td>3.78</td>
</tr>
<tr>
<td>200~299만원</td>
<td>0.9</td>
<td>4.8</td>
<td>29.1</td>
<td>52.9</td>
<td>12.3</td>
<td>100.0</td>
<td>3.71</td>
</tr>
<tr>
<td>300~399만원</td>
<td>0.0</td>
<td>10.1</td>
<td>34.6</td>
<td>44.7</td>
<td>10.6</td>
<td>100.0</td>
<td>3.56</td>
</tr>
<tr>
<td>400만원 이상</td>
<td>0.0</td>
<td>16.2</td>
<td>26.1</td>
<td>48.6</td>
<td>9.0</td>
<td>100.0</td>
<td>3.50</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만족하지 않음</th>
<th>만족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만족</th>
<th>매우 만족</th>
<th>계(명)</th>
<th>평균 만족도</th>
</tr>
</thead>
<tbody>
<tr>
<td>독거기간</td>
<td>2년 미만</td>
<td>1.7</td>
<td>7.9</td>
<td>31.7</td>
<td>48.5</td>
<td>10.2</td>
<td>100.0 (303)</td>
</tr>
<tr>
<td></td>
<td>2-5년 미만</td>
<td>0.4</td>
<td>6.3</td>
<td>29.8</td>
<td>52.0</td>
<td>11.5</td>
<td>100.0 (477)</td>
</tr>
<tr>
<td></td>
<td>5-10년 미만</td>
<td>0.5</td>
<td>5.9</td>
<td>23.6</td>
<td>55.0</td>
<td>15.0</td>
<td>100.0 (407)</td>
</tr>
<tr>
<td></td>
<td>10년 이상</td>
<td>0.6</td>
<td>5.5</td>
<td>27.4</td>
<td>55.6</td>
<td>10.9</td>
<td>100.0 (329)</td>
</tr>
</tbody>
</table>

| 독거이유 | 0.0 | 6.0 | 25.4 | 46.3 | 22.4 | 100.0 (67) | 3.85 |
| | 0.3 | 1.2 | 14.0 | 63.4 | 21.1 | 100.0 (336) | 4.04 |
| | 0.6 | 7.9 | 31.6 | 50.9 | 9.0 | 100.0 (1,023) | 3.60 |
| | 3.8 | 11.3 | 35.8 | 39.6 | 9.4 | 100.0 (53) | 3.40 |
| | 5.3 | 7.9 | 42.1 | 42.1 | 2.6 | 100.0 (38) | 3.29 |

| 경제상태 전망 | 0.5 | 7.1 | 30.7 | 49.5 | 12.1 | 100.0 (420) | 3.66 |
| | 0.7 | 5.7 | 26.2 | 55.4 | 12.1 | 100.0 (1,026) | 3.73 |
| | 1.4 | 15.7 | 37.1 | 32.9 | 12.9 | 100.0 (70) | 3.40 |

| 의지할 수 있는 사람 | 10.7 | 10.7 | 42.9 | 21.4 | 14.3 | 100.0 (28) | 3.18 |
| | 0.0 | 11.1 | 33.3 | 37.8 | 17.8 | 100.0 (45) | 3.62 |
| | 0.8 | 8.3 | 26.0 | 54.3 | 10.6 | 100.0 (254) | 3.66 |
| | 0.8 | 6.4 | 29.9 | 50.6 | 12.3 | 100.0 (358) | 3.67 |
| | 0.0 | 6.6 | 27.8 | 54.3 | 11.3 | 100.0 (151) | 3.70 |
| | 0.8 | 7.2 | 25.9 | 55.6 | 10.5 | 100.0 (363) | 3.68 |
| | 0.0 | 3.4 | 27.8 | 54.2 | 14.6 | 100.0 (295) | 3.80 |

주: 1) 20-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2명, 중학교가 2명으로 사례수가 매우 적어 고등학교 이하로 합하였습니다.
2) 평균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 1점, 만족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3) 무응답은 제외하였습니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혼자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다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23~25%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5.0%,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0.7%로 나타나 평균 2.92점으로 앞으로 혼자 사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쪽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앞으로 혼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여성이 경우 앞으로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3.5% 낮았으며, 30대 초반이 되면서 향후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다소 높아졌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결혼창설기라고도 불 수 있는 30대 초반이 지나고 30대 후반이 되면서 결혼에 대한 포기나 개인의 선택 등의 이유로 이런 응답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인 경우 향후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 가족과의 결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적었는데 이는 연령의 효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혼자 생활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향후 혼자 생활하기를 희망하지 않았고 혼자 사는 이유가 개인의 선택에 해당되는 경우(혼자살 수 없는 경제력이 있어서,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앞으로 혼자 살기를 더 희망하는 반면 작년이나 학업,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경우에는 앞으로 혼자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상태를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앞으로 계속 혼자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족도에 따라서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심에 만족할수록 향후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6-11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향후 독거 희망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그저 그렇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15.0</td>
<td>25.1</td>
<td>23.5</td>
<td>25.8</td>
<td>10.7</td>
<td>100.0 (1,518)</td>
<td>2.92</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13.2</td>
<td>25.1</td>
<td>23.2</td>
<td>27.6</td>
<td>10.9</td>
<td>100.0 ( 764)</td>
<td>2.98</td>
</tr>
<tr>
<td>중소도시</td>
<td>16.0</td>
<td>23.9</td>
<td>23.8</td>
<td>24.8</td>
<td>11.5</td>
<td>100.0 ( 593)</td>
<td>2.92</td>
</tr>
<tr>
<td>농어촌</td>
<td>19.5</td>
<td>29.6</td>
<td>23.9</td>
<td>20.8</td>
<td>6.3</td>
<td>100.0 ( 159)</td>
<td>2.65</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20.6</td>
<td>30.9</td>
<td>23.0</td>
<td>19.4</td>
<td>6.1</td>
<td>100.0 ( 908)</td>
<td>2.59</td>
</tr>
<tr>
<td>여성</td>
<td>6.7</td>
<td>16.4</td>
<td>24.1</td>
<td>35.2</td>
<td>17.5</td>
<td>100.0 ( 610)</td>
<td>3.40</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24세</td>
<td>4.9</td>
<td>19.6</td>
<td>29.8</td>
<td>33.2</td>
<td>12.5</td>
<td>100.0 ( 265)</td>
<td>3.29</td>
</tr>
<tr>
<td>25~29세</td>
<td>13.9</td>
<td>24.1</td>
<td>24.9</td>
<td>26.8</td>
<td>10.2</td>
<td>100.0 ( 481)</td>
<td>2.95</td>
</tr>
<tr>
<td>30~34세</td>
<td>18.9</td>
<td>29.2</td>
<td>19.9</td>
<td>23.0</td>
<td>9.1</td>
<td>100.0 ( 418)</td>
<td>2.74</td>
</tr>
<tr>
<td>35~39세</td>
<td>19.5</td>
<td>25.7</td>
<td>20.9</td>
<td>22.0</td>
<td>11.9</td>
<td>100.0 ( 354)</td>
<td>2.81</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43.3</td>
<td>34.3</td>
<td>11.9</td>
<td>10.4</td>
<td>0.0</td>
<td>100.0 (  67)</td>
<td>1.90</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19.0</td>
<td>19.0</td>
<td>28.6</td>
<td>26.2</td>
<td>7.1</td>
<td>100.0 (  42)</td>
<td>2.83</td>
</tr>
<tr>
<td>미혼</td>
<td>13.6</td>
<td>24.8</td>
<td>23.8</td>
<td>26.5</td>
<td>11.3</td>
<td>100.0 (1,409)</td>
<td>2.97</td>
</tr>
<tr>
<td>교육수준(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 이하</td>
<td>15.3</td>
<td>26.0</td>
<td>20.3</td>
<td>26.6</td>
<td>11.9</td>
<td>100.0 ( 177)</td>
<td>2.94</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15.0</td>
<td>25.0</td>
<td>23.9</td>
<td>25.7</td>
<td>10.5</td>
<td>100.0 (1,341)</td>
<td>2.92</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16.0</td>
<td>25.7</td>
<td>23.1</td>
<td>24.7</td>
<td>10.5</td>
<td>100.0 (1,235)</td>
<td>2.88</td>
</tr>
<tr>
<td>비취업</td>
<td>10.4</td>
<td>23.0</td>
<td>24.8</td>
<td>30.6</td>
<td>11.2</td>
<td>100.0 ( 278)</td>
<td>3.09</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8.8</td>
<td>19.2</td>
<td>30.0</td>
<td>31.3</td>
<td>10.8</td>
<td>100.0 ( 240)</td>
<td>3.16</td>
</tr>
<tr>
<td>100~199만원</td>
<td>8.6</td>
<td>20.4</td>
<td>26.8</td>
<td>31.9</td>
<td>12.4</td>
<td>100.0 ( 339)</td>
<td>3.19</td>
</tr>
<tr>
<td>200~299만원</td>
<td>18.4</td>
<td>26.7</td>
<td>21.5</td>
<td>23.6</td>
<td>9.8</td>
<td>100.0 ( 559)</td>
<td>2.80</td>
</tr>
<tr>
<td>300~399만원</td>
<td>21.8</td>
<td>26.4</td>
<td>20.8</td>
<td>21.3</td>
<td>9.7</td>
<td>100.0 ( 216)</td>
<td>2.71</td>
</tr>
<tr>
<td>400만원 이상</td>
<td>20.7</td>
<td>39.6</td>
<td>14.4</td>
<td>14.4</td>
<td>10.8</td>
<td>100.0 ( 111)</td>
<td>2.55</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13.5</td>
<td>22.1</td>
<td>27.7</td>
<td>28.1</td>
<td>8.6</td>
<td>100.0 ( 303)</td>
<td>2.96</td>
</tr>
<tr>
<td>2~5년 미만</td>
<td>13.7</td>
<td>27.7</td>
<td>23.1</td>
<td>27.1</td>
<td>8.4</td>
<td>100.0 ( 476)</td>
<td>2.89</td>
</tr>
<tr>
<td>5~10년 미만</td>
<td>15.8</td>
<td>21.7</td>
<td>22.2</td>
<td>26.6</td>
<td>13.8</td>
<td>100.0 ( 406)</td>
<td>3.01</td>
</tr>
<tr>
<td>10년 이상</td>
<td>17.4</td>
<td>28.0</td>
<td>22.0</td>
<td>21.0</td>
<td>11.6</td>
<td>100.0 ( 328)</td>
<td>2.81</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그저 그렇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독거이유</td>
<td>7.5</td>
<td>22.4</td>
<td>20.9</td>
<td>25.4</td>
<td>23.9</td>
<td>100.0 ( 67)</td>
<td>3.36</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7.8</td>
<td>16.7</td>
<td>19.7</td>
<td>35.5</td>
<td>20.3</td>
<td>100.0 ( 335)</td>
<td>3.44</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17.0</td>
<td>27.9</td>
<td>24.8</td>
<td>23.2</td>
<td>7.1</td>
<td>100.0 (1,021)</td>
<td>2.75</td>
</tr>
<tr>
<td>직장·학업</td>
<td>26.4</td>
<td>22.6</td>
<td>30.2</td>
<td>13.2</td>
<td>7.5</td>
<td>100.0 ( 53)</td>
<td>2.53</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18.4</td>
<td>28.9</td>
<td>18.4</td>
<td>28.9</td>
<td>5.3</td>
<td>100.0 ( 38)</td>
<td>2.74</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경제상태 전망</th>
<th>지금과 비슷</th>
<th>지금보다 나아질 것</th>
<th>지금보다 나빠질 것</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지급과 비슷</td>
<td>13.1</td>
<td>25.2</td>
<td>22.9</td>
<td>26.4</td>
<td>12.4</td>
</tr>
<tr>
<td>지급보다 나아질 것</td>
<td>15.7</td>
<td>24.6</td>
<td>23.3</td>
<td>26.3</td>
<td>10.1</td>
</tr>
<tr>
<td>지급보다 나빠질 것</td>
<td>14.5</td>
<td>33.3</td>
<td>27.5</td>
<td>14.5</td>
<td>10.1</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의지할 수 있는 사람</th>
<th>없음</th>
<th>1명</th>
<th>2명</th>
<th>3명</th>
<th>4명</th>
<th>5명</th>
<th>6명 이상</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없음</td>
<td>18.5</td>
<td>25.9</td>
<td>29.6</td>
<td>11.1</td>
<td>14.8</td>
<td>100.0 ( 27)</td>
<td>2.78</td>
<td></td>
<td></td>
</tr>
<tr>
<td>1명</td>
<td>15.6</td>
<td>20.0</td>
<td>31.1</td>
<td>20.0</td>
<td>13.3</td>
<td>100.0 ( 45)</td>
<td>2.96</td>
<td></td>
<td></td>
</tr>
<tr>
<td>2명</td>
<td>14.6</td>
<td>25.6</td>
<td>19.7</td>
<td>28.0</td>
<td>12.2</td>
<td>100.0 ( 254)</td>
<td>2.98</td>
<td></td>
<td></td>
</tr>
<tr>
<td>3명</td>
<td>16.2</td>
<td>22.1</td>
<td>25.1</td>
<td>26.8</td>
<td>9.8</td>
<td>100.0 ( 358)</td>
<td>2.92</td>
<td></td>
<td></td>
</tr>
<tr>
<td>4명</td>
<td>13.9</td>
<td>27.2</td>
<td>23.2</td>
<td>25.2</td>
<td>10.6</td>
<td>100.0 ( 151)</td>
<td>2.91</td>
<td></td>
<td></td>
</tr>
<tr>
<td>5명</td>
<td>16.3</td>
<td>27.5</td>
<td>22.6</td>
<td>25.1</td>
<td>8.5</td>
<td>100.0 ( 363)</td>
<td>2.82</td>
<td></td>
<td></td>
</tr>
<tr>
<td>6명 이상</td>
<td>13.0</td>
<td>25.3</td>
<td>24.9</td>
<td>25.6</td>
<td>11.3</td>
<td>100.0 ( 293)</td>
<td>2.97</td>
<td></td>
<td></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삶의 만족도</th>
<th>전혀 만족하지 않음</th>
<th>만족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만족</th>
<th>매우 만족</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혀 만족하지 않음</td>
<td>23.8</td>
<td>19.0</td>
<td>14.3</td>
<td>28.6</td>
<td>14.3</td>
<td>100.0 ( 21)</td>
<td>2.90</td>
</tr>
<tr>
<td>만족하지 않음</td>
<td>16.5</td>
<td>27.3</td>
<td>24.0</td>
<td>23.1</td>
<td>9.1</td>
<td>100.0 ( 121)</td>
<td>2.81</td>
</tr>
<tr>
<td>그저 그렇다</td>
<td>16.1</td>
<td>26.0</td>
<td>23.2</td>
<td>26.7</td>
<td>8.0</td>
<td>100.0 ( 547)</td>
<td>2.85</td>
</tr>
<tr>
<td>만족</td>
<td>13.3</td>
<td>24.6</td>
<td>24.2</td>
<td>27.7</td>
<td>10.1</td>
<td>100.0 ( 682)</td>
<td>2.97</td>
</tr>
<tr>
<td>매우 만족</td>
<td>16.3</td>
<td>23.1</td>
<td>21.8</td>
<td>15.0</td>
<td>23.8</td>
<td>100.0 ( 147)</td>
<td>3.07</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독거생활 만족도</th>
<th>전혀 만족하지 않음</th>
<th>만족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만족</th>
<th>매우 만족</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혀 만족하지 않음</td>
<td>81.8</td>
<td>0.0</td>
<td>9.1</td>
<td>0.0</td>
<td>9.1</td>
<td>100.0 ( 11)</td>
<td>1.55</td>
</tr>
<tr>
<td>만족하지 않음</td>
<td>50.5</td>
<td>33.3</td>
<td>10.1</td>
<td>3.0</td>
<td>3.0</td>
<td>100.0 ( 99)</td>
<td>1.75</td>
</tr>
<tr>
<td>그저 그렇다</td>
<td>23.5</td>
<td>37.4</td>
<td>27.1</td>
<td>10.1</td>
<td>1.9</td>
<td>100.0 ( 425)</td>
<td>2.29</td>
</tr>
<tr>
<td>만족</td>
<td>6.8</td>
<td>21.9</td>
<td>25.1</td>
<td>38.1</td>
<td>8.1</td>
<td>100.0 ( 800)</td>
<td>3.19</td>
</tr>
<tr>
<td>매우 만족</td>
<td>8.2</td>
<td>7.7</td>
<td>15.8</td>
<td>21.9</td>
<td>46.4</td>
<td>100.0 ( 183)</td>
<td>3.91</td>
</tr>
</tbody>
</table>

주: 1) 20-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2명, 중학교가 2명으로 사례수가 매우 적어 고등학교 이상으로 합하였음.
2) 평균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음수록 향후 독거 희망이 높음을 의미함.
3)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3절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

본 절에서는 40~50대로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1,172명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독거기간 및 이유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독거기간은 2년 미만은 9.7%, 2~5년 미만이 21.7%, 5~10년 미만이 20.4%이고, 10~20년 미만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20년 이상도 18.3%에 달해 10년 이상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독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121.60개월, 중소도시 120.98개월, 110.79개월 순으로 나타나 도시에 살수록 독거기간이 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124.87개월)이 여성(114.27개월)에 비하여 독거 기간이 더 길고, 연령별로는 45~49세(132.51개월)가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상태의 경우는 미혼(162.82개월)이 유배우(61.88개월)나 이혼·별거·사별(93.34)보다 월등히 오랜 기간 혼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혼인 사람의 독거기간이 긴 것은 일반시기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지속적으로 1인가구로 살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156.22개월)을 가진 사람의 독거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중학교 학력(114.24개월)을 가진 사람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상태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가구 소득은 300~399만원인 경우(133.93개월) 대체로 독거 기간이 길었다. 직업에 따른 독거기간은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할 것이라 생각되는 고용인이 있는 자영주·사업주나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10년 이상이 각각 30.8%, 33.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혼자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187

살기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 독거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6-12〉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기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2년 미만</th>
<th>2-5년 미만</th>
<th>5-10년 미만</th>
<th>10-20년 미만</th>
<th>이상</th>
<th>계(명)</th>
<th>평균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9.7</td>
<td>21.7</td>
<td>20.4</td>
<td>29.9</td>
<td>18.3</td>
<td>100.0 (1,170)</td>
<td>120.05</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9.1</td>
<td>20.7</td>
<td>20.8</td>
<td>31.7</td>
<td>17.7</td>
<td>100.0 (571)</td>
<td>121.60</td>
</tr>
<tr>
<td>중소도시</td>
<td>9.0</td>
<td>22.9</td>
<td>19.9</td>
<td>28.6</td>
<td>19.7</td>
<td>100.0 (458)</td>
<td>120.98</td>
</tr>
<tr>
<td>농어촌</td>
<td>14.2</td>
<td>22.0</td>
<td>20.6</td>
<td>27.0</td>
<td>16.3</td>
<td>100.0 (141)</td>
<td>110.79</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0.2</td>
<td>20.7</td>
<td>20.2</td>
<td>29.2</td>
<td>19.7</td>
<td>100.0 (638)</td>
<td>124.87</td>
</tr>
<tr>
<td>여성</td>
<td>9.0</td>
<td>22.9</td>
<td>20.7</td>
<td>30.8</td>
<td>16.5</td>
<td>100.0 (532)</td>
<td>114.27</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44세</td>
<td>9.1</td>
<td>17.3</td>
<td>22.3</td>
<td>33.5</td>
<td>17.9</td>
<td>100.0 (364)</td>
<td>120.43</td>
</tr>
<tr>
<td>45-49세</td>
<td>8.2</td>
<td>23.1</td>
<td>16.9</td>
<td>28.6</td>
<td>23.1</td>
<td>100.0 (255)</td>
<td>132.51</td>
</tr>
<tr>
<td>50-54세</td>
<td>9.2</td>
<td>25.9</td>
<td>19.5</td>
<td>27.0</td>
<td>18.4</td>
<td>100.0 (293)</td>
<td>116.30</td>
</tr>
<tr>
<td>55-59세</td>
<td>12.4</td>
<td>21.7</td>
<td>22.5</td>
<td>29.5</td>
<td>14.0</td>
<td>100.0 (258)</td>
<td>111.47</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26.1</td>
<td>32.1</td>
<td>25.4</td>
<td>14.2</td>
<td>2.2</td>
<td>100.0 (134)</td>
<td>61.88</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10.5</td>
<td>28.4</td>
<td>23.1</td>
<td>29.6</td>
<td>8.4</td>
<td>100.0 (524)</td>
<td>93.34</td>
</tr>
<tr>
<td>미혼</td>
<td>4.5</td>
<td>12.1</td>
<td>16.2</td>
<td>34.4</td>
<td>32.7</td>
<td>100.0 (511)</td>
<td>162.82</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11.1</td>
<td>11.1</td>
<td>16.7</td>
<td>33.3</td>
<td>27.8</td>
<td>100.0 (36)</td>
<td>156.22</td>
</tr>
<tr>
<td>중학교</td>
<td>14.8</td>
<td>31.5</td>
<td>11.1</td>
<td>24.1</td>
<td>18.5</td>
<td>100.0 (54)</td>
<td>114.24</td>
</tr>
<tr>
<td>고등학교</td>
<td>8.3</td>
<td>23.8</td>
<td>22.5</td>
<td>27.3</td>
<td>18.3</td>
<td>100.0 (400)</td>
<td>117.94</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9.9</td>
<td>20.3</td>
<td>20.0</td>
<td>32.0</td>
<td>17.8</td>
<td>100.0 (675)</td>
<td>120.03</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9.0</td>
<td>20.5</td>
<td>20.6</td>
<td>31.0</td>
<td>18.9</td>
<td>100.0 (976)</td>
<td>122.38</td>
</tr>
<tr>
<td>비취업</td>
<td>12.9</td>
<td>27.8</td>
<td>19.6</td>
<td>24.2</td>
<td>15.5</td>
<td>100.0 (194)</td>
<td>108.36</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2년 미만</th>
<th>2~5년 미만</th>
<th>5~10년 미만</th>
<th>10~20년 미만</th>
<th>20년 이상</th>
<th>평균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직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7.1</td>
<td>20.8</td>
<td>27.3</td>
<td>24.0</td>
<td>20.8</td>
<td>100.0 (154)</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9.9</td>
<td>27.5</td>
<td>19.8</td>
<td>30.8</td>
<td>12.1</td>
<td>100.0 (91)</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10.2</td>
<td>17.6</td>
<td>18.4</td>
<td>33.9</td>
<td>19.8</td>
<td>100.0 (488)</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11.6</td>
<td>27.4</td>
<td>17.9</td>
<td>26.3</td>
<td>16.8</td>
<td>100.0 (95)</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3.6</td>
<td>21.4</td>
<td>25.9</td>
<td>29.5</td>
<td>19.5</td>
<td>100.0 (112)</td>
</tr>
<tr>
<td>기타</td>
<td>9.4</td>
<td>18.8</td>
<td>15.6</td>
<td>37.5</td>
<td>18.8</td>
<td>100.0 (32)</td>
</tr>
</tbody>
</table>

가구소득

<table>
<thead>
<tr>
<th>가구소득</th>
<th>99만원 이하</th>
<th>100~199만원</th>
<th>200~299만원</th>
<th>300~399만원</th>
<th>400~499만원</th>
<th>500~599만원</th>
<th>600~699만원</th>
<th>700만원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등급</td>
<td>12.8</td>
<td>22.6</td>
<td>20.0</td>
<td>24.6</td>
<td>20.0</td>
<td>100.0 (195)</td>
<td>122.79</td>
<td></td>
</tr>
<tr>
<td></td>
<td>9.3</td>
<td>25.0</td>
<td>20.4</td>
<td>27.5</td>
<td>17.9</td>
<td>100.0 (280)</td>
<td>112.55</td>
<td></td>
</tr>
<tr>
<td></td>
<td>6.8</td>
<td>21.9</td>
<td>19.1</td>
<td>33.5</td>
<td>18.7</td>
<td>100.0 (278)</td>
<td>124.83</td>
<td></td>
</tr>
<tr>
<td></td>
<td>7.7</td>
<td>17.6</td>
<td>20.9</td>
<td>30.2</td>
<td>23.6</td>
<td>100.0 (182)</td>
<td>133.93</td>
<td></td>
</tr>
<tr>
<td></td>
<td>14.6</td>
<td>10.1</td>
<td>15.7</td>
<td>41.6</td>
<td>18.0</td>
<td>100.0 (89)</td>
<td>130.29</td>
<td></td>
</tr>
<tr>
<td></td>
<td>11.3</td>
<td>25.8</td>
<td>24.2</td>
<td>30.6</td>
<td>8.1</td>
<td>100.0 (62)</td>
<td>95.68</td>
<td></td>
</tr>
<tr>
<td></td>
<td>29.4</td>
<td>29.4</td>
<td>5.9</td>
<td>23.5</td>
<td>11.8</td>
<td>100.0 (17)</td>
<td>89.53</td>
<td></td>
</tr>
<tr>
<td></td>
<td>7.1</td>
<td>28.6</td>
<td>32.1</td>
<td>26.8</td>
<td>5.4</td>
<td>100.0 (56)</td>
<td>92.14</td>
<td></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습니다.

40~50대 1인가구 거주자가 혼자 사는 이유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7.2%로 가장 많았고, 직장, 학업 때문이라는 이유가 26.9%,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가 21.1%, 혼자 살 경제력이 있어서가 10.0%를 보이고 있었다. 40~50대의 연령적 특성상 외부의 요인보다는 자신의 자율적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34.9%)이나 중소도시(42.5%)의 경우는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에 농어촌의 경우는 직장, 학업(32.6%)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자유로운 분위기가 더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의 경우는 남성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가 34.2%,
혼자 살 경제력이 있어서가 7.5%이고 직장·학업 때문이 31.4%,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가 22.2%로 타의적인 이유가 자의적인 이유에 비해 높은 반면에 여성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가 40.6%이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가 12.9%, 직장·학업 때문이라는 이유가 21.6%,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가 19.8%로 자의적인 이유가 타의적인 이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사이의 차이를 보였다. 40~50대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었고,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유배우자는 직장·학업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인 경우가 82.4%에 이르고 있었고, 이혼·별거·사별의 경우(35.3%)나 미혼의 경우(45.7%)는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이유를 가장 큰 독거이유로 꼽았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는 같이 살 가족이 없다(48.6%)를 가장 큰 이유로, 그 외의 학력을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답했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는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높은 편이었으나 취업자는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비취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한편 소득별로 살펴보면, 99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40.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나 100~199만원(43.9%), 200~299만원(39.4%), 300~399만원(39.1%)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소득이 더 높아지는 400만원 이상은 모두 직장·학업의 이유를 혼자 사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는 소득이 적을 경우 2인 이상의 가구로 지내는 것이 경제적이거나 같이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표 6-13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사는 이유

<table>
<thead>
<tr>
<th>특성</th>
<th>혼자 살 경제력이 있어서</th>
<th>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th>
<th>직장-학업 때문에</th>
<th>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10.0</td>
<td>37.2</td>
<td>26.9</td>
<td>21.1</td>
<td>4.9</td>
<td>100.0  (1,154)</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10.6</td>
<td>34.9</td>
<td>28.5</td>
<td>21.8</td>
<td>4.1</td>
<td>100.0  (564)</td>
</tr>
<tr>
<td>중소도시</td>
<td>9.6</td>
<td>42.5</td>
<td>22.9</td>
<td>19.8</td>
<td>5.1</td>
<td>100.0  (449)</td>
</tr>
<tr>
<td>농어촌</td>
<td>8.5</td>
<td>29.1</td>
<td>32.6</td>
<td>22.7</td>
<td>7.1</td>
<td>100.0  (141)</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7.5</td>
<td>34.2</td>
<td>31.4</td>
<td>22.2</td>
<td>4.6</td>
<td>100.0  (625)</td>
</tr>
<tr>
<td>여성</td>
<td>12.9</td>
<td>40.6</td>
<td>21.6</td>
<td>19.8</td>
<td>5.1</td>
<td>100.0  (529)</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44세</td>
<td>7.8</td>
<td>43.6</td>
<td>33.3</td>
<td>10.8</td>
<td>4.4</td>
<td>100.0  (360)</td>
</tr>
<tr>
<td>45~49세</td>
<td>11.5</td>
<td>34.8</td>
<td>28.1</td>
<td>23.7</td>
<td>2.0</td>
<td>100.0  (253)</td>
</tr>
<tr>
<td>50~54세</td>
<td>10.3</td>
<td>33.4</td>
<td>22.4</td>
<td>27.2</td>
<td>6.6</td>
<td>100.0  (290)</td>
</tr>
<tr>
<td>55~59세</td>
<td>11.2</td>
<td>34.7</td>
<td>21.5</td>
<td>26.3</td>
<td>6.4</td>
<td>100.0  (251)</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2.2</td>
<td>12.5</td>
<td>82.4</td>
<td>2.2</td>
<td>0.7</td>
<td>100.0  (136)</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12.2</td>
<td>35.3</td>
<td>15.0</td>
<td>30.9</td>
<td>6.6</td>
<td>100.0  (515)</td>
</tr>
<tr>
<td>미혼</td>
<td>9.7</td>
<td>45.7</td>
<td>24.1</td>
<td>16.3</td>
<td>4.2</td>
<td>100.0  (503)</td>
</tr>
<tr>
<td>교육수준[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5.7</td>
<td>25.7</td>
<td>8.6</td>
<td>48.6</td>
<td>11.4</td>
<td>100.0  (35)</td>
</tr>
<tr>
<td>중학교</td>
<td>3.7</td>
<td>38.9</td>
<td>9.3</td>
<td>35.2</td>
<td>13.0</td>
<td>100.0  (54)</td>
</tr>
<tr>
<td>고등학교</td>
<td>10.4</td>
<td>38.5</td>
<td>20.0</td>
<td>24.8</td>
<td>6.3</td>
<td>100.0  (395)</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10.4</td>
<td>36.8</td>
<td>33.4</td>
<td>16.4</td>
<td>3.0</td>
<td>100.0  (665)</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10.4</td>
<td>37.8</td>
<td>29.0</td>
<td>18.4</td>
<td>4.4</td>
<td>100.0  (969)</td>
</tr>
<tr>
<td>비취업</td>
<td>7.6</td>
<td>34.1</td>
<td>15.7</td>
<td>35.7</td>
<td>7.0</td>
<td>100.0  (185)</td>
</tr>
<tr>
<td>직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없는 자영자</td>
<td>11.1</td>
<td>37.9</td>
<td>24.2</td>
<td>19.6</td>
<td>7.2</td>
<td>100.0  (153)</td>
</tr>
<tr>
<td>고용원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13.6</td>
<td>42.0</td>
<td>28.4</td>
<td>12.5</td>
<td>3.4</td>
<td>100.0  (88)</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9.7</td>
<td>34.8</td>
<td>37.7</td>
<td>14.8</td>
<td>3.1</td>
<td>100.0  (486)</td>
</tr>
<tr>
<td>임용근로자</td>
<td>7.4</td>
<td>42.1</td>
<td>9.5</td>
<td>32.6</td>
<td>8.4</td>
<td>100.0  (95)</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14.3</td>
<td>42.9</td>
<td>16.1</td>
<td>23.2</td>
<td>3.6</td>
<td>100.0  (112)</td>
</tr>
<tr>
<td>기타</td>
<td>6.5</td>
<td>41.9</td>
<td>19.4</td>
<td>25.8</td>
<td>6.5</td>
<td>100.0  (31)</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191

특성 | 혼자 살 경제력이 있어서 |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 직장, 학업 때문에 같이 살 기족이 없어서 | 기타 | 계(명)
---|---|---|---|---|---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 3.2 | 36.3 | 13.2 | 40.5 | 6.8 | 100.0 (190)
100~199만원 | 10.4 | 43.9 | 18.0 | 21.2 | 6.5 | 100.0 (278)
200~299만원 | 13.5 | 39.4 | 25.2 | 18.2 | 3.6 | 100.0 (274)
300~399만원 | 10.6 | 39.1 | 31.3 | 13.4 | 5.6 | 100.0 (179)
400~499만원 | 7.9 | 37.1 | 38.2 | 14.6 | 2.2 | 100.0 (89)
500~599만원 | 14.8 | 23.0 | 47.5 | 13.1 | 1.6 | 100.0 (61)
600~699만원 | 5.6 | 5.6 | 72.2 | 11.1 | 5.6 | 100.0 (18)
700만원 이상 | 10.9 | 18.2 | 58.2 | 10.9 | 1.8 | 100.0 (55)

독거기간
2년 미만 | 3.6 | 30.9 | 40.9 | 21.8 | 2.7 | 100.0 (110)
2~5년 미만 | 10.4 | 36.0 | 32.0 | 16.4 | 5.2 | 100.0 (250)
5~10년 미만 | 12.7 | 30.9 | 27.5 | 25.8 | 3.0 | 100.0 (236)
10~20년 미만 | 8.4 | 43.8 | 24.9 | 17.7 | 5.2 | 100.0 (345)
20년 이상 | 12.3 | 38.4 | 15.2 | 27.0 | 7.1 | 100.0 (21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2. 독거생활의 어려움 및 좋은 점

40~50대 1인가구 거주자가 혼자 살면서 힘든 점과 좋은 점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64.8%)보다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85.1%)이 더 많아 1인가구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힘든 점도 적고 좋은 점이 많은 반면,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은 많아지고,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은 줄어들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많아지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혼 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높고,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이 낮은 반면, 미혼은 상대적으로 힘든 점은 높고, 좋은 점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을
한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든 점이 적고, 좋은 점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결부된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독거기간에 따라서는 년수가 늘어날수록 힘든 점이 증가하다가 10년을 넘어서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좋은 점은 독거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거기간이 늘어날수록 혼자 사는생활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독거이유별로 살펴보면,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거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힘든 점은 낮고, 좋은 점은 높은 반면에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경우는 힘든 점은 많고 좋은 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전망에 대해서는 힘든 점이 있다는 사람보다는 좋은 점이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의지할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 관해서는 없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률이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6-14)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힘든 점 및 좋은 점 있는 비율

<table>
<thead>
<tr>
<th>특성</th>
<th>힘든 점 있음 (명)</th>
<th>좋은 점 있음 (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64.8 (1,170)</td>
<td>85.1 (1,169)</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65.0 (571)</td>
<td>85.7 (572)</td>
</tr>
<tr>
<td>중소도시</td>
<td>61.7 (457)</td>
<td>84.4 (455)</td>
</tr>
<tr>
<td>농어촌</td>
<td>73.9 (142)</td>
<td>85.2 (142)</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66.8 (638)</td>
<td>80.1 (637)</td>
</tr>
<tr>
<td>여성</td>
<td>62.4 (532)</td>
<td>91.2 (532)</td>
</tr>
<tr>
<td>특성</td>
<td>힘든 점 있음</td>
<td>(명)</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r>
<tr>
<td>40~44세</td>
<td>59.8</td>
<td>(363)</td>
</tr>
<tr>
<td>45~49세</td>
<td>64.1</td>
<td>(256)</td>
</tr>
<tr>
<td>50~54세</td>
<td>66.9</td>
<td>(293)</td>
</tr>
<tr>
<td>55~59세</td>
<td>70.2</td>
<td>(258)</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71.3</td>
<td>(136)</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67.3</td>
<td>(523)</td>
</tr>
<tr>
<td>미혼</td>
<td>60.4</td>
<td>(510)</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83.3</td>
<td>(36)</td>
</tr>
<tr>
<td>중학교</td>
<td>70.4</td>
<td>(54)</td>
</tr>
<tr>
<td>고등학교</td>
<td>69.0</td>
<td>(400)</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60.9</td>
<td>(675)</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64.2</td>
<td>(977)</td>
</tr>
<tr>
<td>비취업</td>
<td>67.9</td>
<td>(193)</td>
</tr>
<tr>
<td>직업</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없는 자영자</td>
<td>66.9</td>
<td>(154)</td>
</tr>
<tr>
<td>고용원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56.5</td>
<td>(92)</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63.6</td>
<td>(489)</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67.0</td>
<td>(94)</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67.9</td>
<td>(112)</td>
</tr>
<tr>
<td>기타</td>
<td>62.5</td>
<td>(32)</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77.3</td>
<td>(194)</td>
</tr>
<tr>
<td>100~199만원</td>
<td>63.6</td>
<td>(280)</td>
</tr>
<tr>
<td>200~299만원</td>
<td>62.8</td>
<td>(277)</td>
</tr>
<tr>
<td>300~399만원</td>
<td>58.2</td>
<td>(182)</td>
</tr>
<tr>
<td>400~499만원</td>
<td>65.2</td>
<td>(89)</td>
</tr>
<tr>
<td>500~599만원</td>
<td>62.9</td>
<td>(62)</td>
</tr>
<tr>
<td>600~699만원</td>
<td>72.2</td>
<td>(18)</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59.6</td>
<td>(57)</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힘든 점 있음</th>
<th>(명)</th>
<th>좋은 점 있음</th>
<th>(명)</th>
</tr>
</thead>
<tbody>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65.5</td>
<td>(113)</td>
<td>72.6</td>
<td>(113)</td>
</tr>
<tr>
<td>2-5년 미만</td>
<td>65.7</td>
<td>(254)</td>
<td>84.2</td>
<td>(253)</td>
</tr>
<tr>
<td>5-10년 미만</td>
<td>71.0</td>
<td>(238)</td>
<td>87.4</td>
<td>(239)</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59.3</td>
<td>(349)</td>
<td>87.7</td>
<td>(349)</td>
</tr>
<tr>
<td>20년 이상</td>
<td>65.0</td>
<td>(21)</td>
<td>85.9</td>
<td>(213)</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55.7</td>
<td>(115)</td>
<td>92.2</td>
<td>(115)</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55.6</td>
<td>(428)</td>
<td>94.2</td>
<td>(429)</td>
</tr>
<tr>
<td>직장&amp;학업</td>
<td>65.5</td>
<td>(310)</td>
<td>83.8</td>
<td>(308)</td>
</tr>
<tr>
<td>같이 산 가족 없음</td>
<td>81.1</td>
<td>(243)</td>
<td>70.0</td>
<td>(243)</td>
</tr>
<tr>
<td>기타</td>
<td>80.4</td>
<td>(56)</td>
<td>80.4</td>
<td>(56)</td>
</tr>
<tr>
<td>미래전망</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금과 비슷</td>
<td>65.6</td>
<td>(480)</td>
<td>86.5</td>
<td>(481)</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짐</td>
<td>58.2</td>
<td>(498)</td>
<td>87.7</td>
<td>(496)</td>
</tr>
<tr>
<td>지금보다 나빠짐</td>
<td>79.5</td>
<td>(185)</td>
<td>75.1</td>
<td>(185)</td>
</tr>
<tr>
<td>의지할 사람수</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0명</td>
<td>75.9</td>
<td>(108)</td>
<td>74.8</td>
<td>(107)</td>
</tr>
<tr>
<td>1명</td>
<td>66.2</td>
<td>(71)</td>
<td>81.7</td>
<td>(71)</td>
</tr>
<tr>
<td>2명</td>
<td>68.6</td>
<td>(220)</td>
<td>87.8</td>
<td>(221)</td>
</tr>
<tr>
<td>3명</td>
<td>65.4</td>
<td>(231)</td>
<td>85.7</td>
<td>(231)</td>
</tr>
<tr>
<td>4명</td>
<td>66.0</td>
<td>(103)</td>
<td>83.5</td>
<td>(103)</td>
</tr>
<tr>
<td>5명</td>
<td>64.0</td>
<td>(222)</td>
<td>86.9</td>
<td>(222)</td>
</tr>
<tr>
<td>6명 이상</td>
<td>53.0</td>
<td>(198)</td>
<td>87.3</td>
<td>(197)</td>
</tr>
</tbody>
</table>

주: 1) 각각 조사대상 전체수
2) 무응답은 제외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혼자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든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플 때 간호해주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2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26.9%,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처리 어려움이 18.4%, 경제적 불안감이 15.1%,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5.6%,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3.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는 아플 때 간호해주 줄
사람이 없음이 가장 많은 반면, 농어촌은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을 꼽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을 가장 큰 힘든 요인이라 하였으나 여성은 아들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는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이혼·벌거·사별과 미혼은 아들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을 꼽았다. 근로여부에 따라서는 경제적 불안감은 비취업자가 높으나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은 취업자가 높았으며, 직업별로 일용근로자나 임시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불안감이 타 직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자영자나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상대적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99만원 이하와 100~199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아들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응답한 반면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이라 응답하였다. 독거기간에 따라서는 독거기간이 2~5년인 사람들은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처리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했고, 나머지 연수의 독거기간을 가진 사람들은 아들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과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을 꼽았다. 독거어유별로 살펴보면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혼자 살거나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 즉 자의적인 독거가구의 경우에는 아들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직장·학업이나 같이 살 기족이 없어서와 같이 타의적인 이유로 독거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하였다. 미래전망으로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들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을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6-15〉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힘든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아플때 간호해 줄 사람 없음</th>
<th>간호해 줄 사람이 부족</th>
<th>간호해 줄 사람이 모처럼</th>
<th>간호해 줄 사람이 힘들어</th>
<th>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안 전해</th>
<th>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안 전해</th>
<th>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안 전해</th>
<th>기타</th>
<th>기타</th>
<th>기타</th>
<th>기타</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28.0</td>
<td>18.4</td>
<td>15.1</td>
<td>3.1</td>
<td>5.6</td>
<td>26.9</td>
<td>2.9</td>
<td>100.0</td>
<td>754</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30.5</td>
<td>17.0</td>
<td>13.5</td>
<td>2.7</td>
<td>6.2</td>
<td>27.0</td>
<td>3.0</td>
<td>100.0</td>
<td>370</td>
<td></td>
<td></td>
<td></td>
</tr>
<tr>
<td>중소도시</td>
<td>26.4</td>
<td>17.1</td>
<td>17.5</td>
<td>3.6</td>
<td>6.4</td>
<td>26.4</td>
<td>2.5</td>
<td>100.0</td>
<td>280</td>
<td></td>
<td></td>
<td></td>
</tr>
<tr>
<td>농어촌</td>
<td>23.1</td>
<td>26.9</td>
<td>14.4</td>
<td>2.9</td>
<td>1.0</td>
<td>27.9</td>
<td>3.8</td>
<td>100.0</td>
<td>104</td>
<td></td>
<td></td>
<td></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24.1</td>
<td>27.4</td>
<td>7.8</td>
<td>0.7</td>
<td>3.5</td>
<td>34.5</td>
<td>1.9</td>
<td>100.0</td>
<td>423</td>
<td></td>
<td></td>
<td></td>
</tr>
<tr>
<td>여성</td>
<td>32.9</td>
<td>6.9</td>
<td>24.5</td>
<td>6.0</td>
<td>8.2</td>
<td>17.2</td>
<td>4.2</td>
<td>100.0</td>
<td>331</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44세</td>
<td>37.1</td>
<td>24.3</td>
<td>10.3</td>
<td>3.7</td>
<td>2.3</td>
<td>27.6</td>
<td>4.7</td>
<td>100.0</td>
<td>214</td>
<td></td>
<td></td>
<td></td>
</tr>
<tr>
<td>45-49세</td>
<td>25.0</td>
<td>20.7</td>
<td>10.4</td>
<td>2.4</td>
<td>5.5</td>
<td>31.7</td>
<td>4.3</td>
<td>100.0</td>
<td>164</td>
<td></td>
<td></td>
<td></td>
</tr>
<tr>
<td>50-54세</td>
<td>25.1</td>
<td>14.9</td>
<td>17.4</td>
<td>4.1</td>
<td>9.2</td>
<td>27.2</td>
<td>2.1</td>
<td>100.0</td>
<td>195</td>
<td></td>
<td></td>
<td></td>
</tr>
<tr>
<td>55-50세</td>
<td>34.8</td>
<td>13.3</td>
<td>22.7</td>
<td>1.7</td>
<td>5.5</td>
<td>21.5</td>
<td>0.6</td>
<td>100.0</td>
<td>181</td>
<td></td>
<td></td>
<td></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36.7</td>
<td>20.0</td>
<td>20.0</td>
<td>0.0</td>
<td>6.7</td>
<td>16.7</td>
<td>0.0</td>
<td>100.0</td>
<td>60</td>
<td></td>
<td></td>
<td></td>
</tr>
<tr>
<td>이혼‧벌자사별</td>
<td>36.7</td>
<td>20.0</td>
<td>20.0</td>
<td>0.0</td>
<td>6.7</td>
<td>16.7</td>
<td>0.0</td>
<td>100.0</td>
<td>60</td>
<td></td>
<td></td>
<td></td>
</tr>
<tr>
<td>미혼</td>
<td>28.8</td>
<td>19.6</td>
<td>10.5</td>
<td>3.6</td>
<td>6.5</td>
<td>26.1</td>
<td>4.9</td>
<td>100.0</td>
<td>306</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29.0</td>
<td>15.8</td>
<td>19.2</td>
<td>2.9</td>
<td>6.5</td>
<td>26.8</td>
<td>1.8</td>
<td>100.0</td>
<td>276</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td>
<td>27.3</td>
<td>21.9</td>
<td>10.8</td>
<td>3.7</td>
<td>4.4</td>
<td>28.0</td>
<td>3.9</td>
<td>100.0</td>
<td>407</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36.7</td>
<td>20.0</td>
<td>20.0</td>
<td>0.0</td>
<td>6.7</td>
<td>16.7</td>
<td>0.0</td>
<td>100.0</td>
<td>30</td>
<td></td>
<td></td>
<td></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26.8</td>
<td>19.7</td>
<td>13.8</td>
<td>2.4</td>
<td>5.1</td>
<td>29.2</td>
<td>2.9</td>
<td>100.0</td>
<td>623</td>
<td></td>
<td></td>
<td></td>
</tr>
<tr>
<td>비취업</td>
<td>33.6</td>
<td>12.2</td>
<td>21.4</td>
<td>6.1</td>
<td>7.6</td>
<td>16.0</td>
<td>3.1</td>
<td>100.0</td>
<td>131</td>
<td></td>
<td></td>
<td></td>
</tr>
<tr>
<td>직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없는 자영자</td>
<td>23.3</td>
<td>19.4</td>
<td>14.5</td>
<td>5.8</td>
<td>8.7</td>
<td>25.2</td>
<td>1.0</td>
<td>100.0</td>
<td>103</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33.3</td>
<td>21.6</td>
<td>7.8</td>
<td>2.0</td>
<td>2.0</td>
<td>33.3</td>
<td>0.0</td>
<td>100.0</td>
<td>51</td>
<td></td>
<td></td>
<td></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24.4</td>
<td>23.7</td>
<td>8.1</td>
<td>1.6</td>
<td>3.9</td>
<td>33.8</td>
<td>4.5</td>
<td>100.0</td>
<td>308</td>
<td></td>
<td></td>
<td></td>
</tr>
<tr>
<td>임용근로자</td>
<td>35.5</td>
<td>6.3</td>
<td>28.6</td>
<td>0.0</td>
<td>12.7</td>
<td>27.0</td>
<td>0.0</td>
<td>100.0</td>
<td>63</td>
<td></td>
<td></td>
<td></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25.4</td>
<td>6.3</td>
<td>28.6</td>
<td>0.0</td>
<td>12.7</td>
<td>27.0</td>
<td>0.0</td>
<td>100.0</td>
<td>63</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40.0</td>
<td>30.0</td>
<td>5.0</td>
<td>0.0</td>
<td>0.0</td>
<td>20.0</td>
<td>5.0</td>
<td>100.0</td>
<td>2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 없음 | 가사일 등 일상 생활 문제 처리 어려움 | 경제적 불안감 | 안전에 대한 불안감 | 노후에 대한 불안감 또는 외로움 | 기타 | 계(명)
---|---|---|---|---|---|---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 31.3 | 14.0 | 25.3 | 3.3 | 7.3 | 16.7 | 2.0 | 100.0 (150)
100~199만원 | 27.0 | 14.6 | 25.3 | 4.5 | 7.3 | 18.5 | 2.8 | 100.0 (178)
200~299만원 | 25.4 | 15.6 | 10.4 | 3.5 | 6.9 | 34.1 | 4.0 | 100.0 (173)
300~399만원 | 26.4 | 25.5 | 8.5 | 2.8 | 2.8 | 32.1 | 1.9 | 100.0 (106)
400~499만원 | 33.3 | 24.6 | 1.8 | 1.8 | 1.8 | 33.3 | 3.5 | 100.0 (57)
500~599만원 | 23.1 | 28.2 | 7.7 | 0.0 | 2.6 | 33.3 | 5.1 | 100.0 (39)
600~699만원 | 23.1 | 23.1 | 0.0 | 0.0 | 0.0 | 53.8 | 0.0 | 100.0 (13)
700만원 이상 | 30.3 | 30.3 | 0.0 | 0.0 | 3.0 | 36.4 | 0.0 | 100.0 (33)
독거기간
2년 미만 | 28.8 | 17.8 | 20.5 | 1.4 | 1.4 | 26.0 | 4.1 | 100.0 (73)
2~5년 미만 | 22.8 | 26.3 | 15.6 | 6.6 | 4.8 | 22.8 | 1.2 | 100.0 (167)
5~10년 미만 | 25.6 | 22.6 | 13.1 | 3.0 | 6.0 | 26.2 | 3.6 | 100.0 (168)
10~20년 미만 | 28.6 | 13.1 | 16.0 | 1.9 | 5.8 | 30.6 | 3.9 | 100.0 (206)
20년 이상 | 35.5 | 12.3 | 13.0 | 1.4 | 8.0 | 27.5 | 2.2 | 100.0 (138)
독거이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 | 42.2 | 12.5 | 9.4 | 3.1 | 6.3 | 25.0 | 1.6 | 100.0 (64)
자유로운 생활 | 31.6 | 16.5 | 13.9 | 3.4 | 6.3 | 24.1 | 4.2 | 100.0 (237)
직장-학업 | 20.4 | 25.9 | 10.9 | 4.5 | 4.0 | 31.8 | 2.5 | 100.0 (201)
같이 살 가족없음 | 26.4 | 16.8 | 20.8 | 1.0 | 6.6 | 26.4 | 2.0 | 100.0 (197)
기타 | 24.4 | 11.1 | 22.2 | 4.4 | 4.4 | 28.9 | 4.4 | 100.0 (45)
미래전망
지금과 비슷 | 29.8 | 17.6 | 15.1 | 2.9 | 6.7 | 23.7 | 4.2 | 100.0 (312)
지금보다 나아짐 | 26.9 | 19.3 | 11.4 | 3.4 | 4.1 | 32.4 | 2.4 | 100.0 (290)
지금보다 나빠짐 | 26.7 | 17.8 | 23.3 | 2.7 | 6.2 | 21.9 | 1.4 | 100.0 (146)
의지할 사람수
0명 | 30.5 | 15.9 | 17.1 | 1.2 | 6.1 | 29.3 | 0.0 | 100.0 (82)
1명 | 29.8 | 10.6 | 25.5 | 4.3 | 8.5 | 21.3 | 0.0 | 100.0 (47)
2명 | 29.1 | 17.2 | 21.2 | 5.3 | 3.3 | 21.9 | 2.0 | 100.0 (151)
3명 | 23.3 | 22.0 | 12.0 | 2.0 | 6.7 | 30.7 | 3.3 | 100.0 (150)
4명 | 29.9 | 17.9 | 16.4 | 1.5 | 7.5 | 25.4 | 1.5 | 100.0 (67)
5명 | 28.4 | 18.4 | 14.9 | 2.1 | 4.3 | 27.0 | 5.0 | 100.0 (141)
6명 이상 | 30.8 | 18.3 | 5.8 | 4.8 | 4.8 | 30.8 | 4.8 | 100.0 (104)

주: 1) 혼자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무응답은 제외하였습니다.
2)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혼하라는 부모의 압력(0.5%),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2.1%)은 기타로 합하였습니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반면에 혼자 살면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자유로움이 74.2%에 달해 가장 큰 장점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여가, 취미활동 등 나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음이 13.3%, 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음이 8.3%, 가족 부양 부담 없음 4.2%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로음을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자유롭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고, 가족부양부담이 없다는 의견은 없어서, 농어촌의 특성 상 가족 부양의 의무성이 강한 지역사회의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부양 부담이 없어서 좋다는 의견 비율이 높았고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는 자유로움이 타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일, 직장에 몰두할 수 있고 여가,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장점으로 자유로음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일, 직장에 몰두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없는 점은 타 집단과의 차이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부양 부담이 없어서 좋다는 응답이나 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 좋다는 응답률은 가구소득수준과 □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독거이유로 혼자살 수 있는 경제력을 뽑은 사람은 가족부양부담이 없어서 좋다는 의견에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서 부양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고, 자유로움을 독거이유로 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움을 가장 좋은 점으로, 직장, 학업을 독거이유로 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움 다음으로 일, 직장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의지할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자유로움을 장점으로 뽑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에 여가,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만 투자할 수 있다는 사람은 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지하고 지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표 6-16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좋은 점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자유로움</th>
<th>기족 부양 부담 없음</th>
<th>일/직장에 몹세할 수 있음</th>
<th>여가/취미 활동 등 자산매매 등 투자할 수 있음</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74.2</td>
<td>4.2</td>
<td>8.3</td>
<td>13.3</td>
<td>100.0 (995)</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74.5</td>
<td>3.3</td>
<td>8.4</td>
<td>13.9</td>
<td>100.0 (490)</td>
</tr>
<tr>
<td>중소도시</td>
<td>71.6</td>
<td>6.8</td>
<td>8.6</td>
<td>13.0</td>
<td>100.0 (384)</td>
</tr>
<tr>
<td>농어촌</td>
<td>81.0</td>
<td>0.0</td>
<td>7.4</td>
<td>11.6</td>
<td>100.0 (121)</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76.5</td>
<td>3.7</td>
<td>7.3</td>
<td>12.5</td>
<td>100.0 (510)</td>
</tr>
<tr>
<td>여성</td>
<td>71.8</td>
<td>4.7</td>
<td>9.5</td>
<td>14.0</td>
<td>100.0 (485)</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44세</td>
<td>79.0</td>
<td>2.4</td>
<td>4.9</td>
<td>13.7</td>
<td>100.0 (329)</td>
</tr>
<tr>
<td>45~49세</td>
<td>71.3</td>
<td>3.7</td>
<td>10.6</td>
<td>14.4</td>
<td>100.0 (216)</td>
</tr>
<tr>
<td>50~54세</td>
<td>73.3</td>
<td>5.8</td>
<td>10.0</td>
<td>10.8</td>
<td>100.0 (240)</td>
</tr>
<tr>
<td>55~59세</td>
<td>70.5</td>
<td>5.7</td>
<td>9.5</td>
<td>14.3</td>
<td>100.0 (210)</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58.7</td>
<td>5.5</td>
<td>18.3</td>
<td>17.4</td>
<td>100.0 (109)</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75.3</td>
<td>5.1</td>
<td>6.2</td>
<td>13.4</td>
<td>100.0 (433)</td>
</tr>
<tr>
<td>미혼</td>
<td>76.8</td>
<td>3.1</td>
<td>7.9</td>
<td>12.1</td>
<td>100.0 (453)</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86.4</td>
<td>4.5</td>
<td>0.0</td>
<td>9.1</td>
<td>100.0 (22)</td>
</tr>
<tr>
<td>중학교</td>
<td>86.1</td>
<td>2.8</td>
<td>0.0</td>
<td>11.1</td>
<td>100.0 (36)</td>
</tr>
<tr>
<td>고등학교</td>
<td>73.7</td>
<td>6.2</td>
<td>6.8</td>
<td>13.3</td>
<td>100.0 (339)</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73.2</td>
<td>3.2</td>
<td>9.9</td>
<td>13.7</td>
<td>100.0 (593)</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73.5</td>
<td>4.6</td>
<td>8.9</td>
<td>12.9</td>
<td>100.0 (843)</td>
</tr>
<tr>
<td>비취업</td>
<td>77.6</td>
<td>2.0</td>
<td>5.3</td>
<td>15.1</td>
<td>100.0 (152)</td>
</tr>
<tr>
<td>직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67.6</td>
<td>7.4</td>
<td>8.8</td>
<td>16.2</td>
<td>100.0 (136)</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75.9</td>
<td>3.8</td>
<td>6.3</td>
<td>13.9</td>
<td>100.0 (79)</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73.1</td>
<td>3.8</td>
<td>10.2</td>
<td>12.9</td>
<td>100.0 (420)</td>
</tr>
<tr>
<td>임용근로자</td>
<td>76.3</td>
<td>7.9</td>
<td>6.6</td>
<td>9.2</td>
<td>100.0 (76)</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78.4</td>
<td>3.9</td>
<td>6.9</td>
<td>10.8</td>
<td>100.0 (102)</td>
</tr>
<tr>
<td>기타</td>
<td>85.2</td>
<td>0.0</td>
<td>7.4</td>
<td>7.4</td>
<td>100.0 (27)</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자유로움</th>
<th>가족 부양 부담 없음</th>
<th>일/직장에 몰두할 수 있음</th>
<th>여가/취미활동 등 재산에 투자할 수 있음</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75.7</td>
<td>5.4</td>
<td>4.7</td>
<td>14.2</td>
<td>100.0 (148)</td>
</tr>
<tr>
<td>100-199만원</td>
<td>74.9</td>
<td>5.3</td>
<td>9.9</td>
<td>9.9</td>
<td>100.0 (243)</td>
</tr>
<tr>
<td>200-299만원</td>
<td>74.1</td>
<td>4.1</td>
<td>6.6</td>
<td>15.2</td>
<td>100.0 (243)</td>
</tr>
<tr>
<td>300-399만원</td>
<td>76.2</td>
<td>3.7</td>
<td>7.9</td>
<td>12.2</td>
<td>100.0 (164)</td>
</tr>
<tr>
<td>400-499만원</td>
<td>75.3</td>
<td>3.9</td>
<td>7.8</td>
<td>13.0</td>
<td>100.0 (77)</td>
</tr>
<tr>
<td>500-599만원</td>
<td>57.1</td>
<td>2.0</td>
<td>16.3</td>
<td>24.5</td>
<td>100.0 (49)</td>
</tr>
<tr>
<td>600-699만원</td>
<td>69.2</td>
<td>0.0</td>
<td>15.4</td>
<td>15.4</td>
<td>100.0 (13)</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74.0</td>
<td>2.0</td>
<td>12.0</td>
<td>12.0</td>
<td>100.0 (50)</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69.5</td>
<td>4.9</td>
<td>8.5</td>
<td>17.1</td>
<td>100.0 (82)</td>
</tr>
<tr>
<td>2-5년 미만</td>
<td>74.6</td>
<td>4.7</td>
<td>7.5</td>
<td>13.1</td>
<td>100.0 (213)</td>
</tr>
<tr>
<td>5-10년 미만</td>
<td>76.1</td>
<td>2.9</td>
<td>8.1</td>
<td>12.9</td>
<td>100.0 (209)</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75.5</td>
<td>3.6</td>
<td>7.5</td>
<td>13.4</td>
<td>100.0 (306)</td>
</tr>
<tr>
<td>20년 이상</td>
<td>71.6</td>
<td>6.0</td>
<td>10.4</td>
<td>12.0</td>
<td>100.0 (183)</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72.6</td>
<td>2.8</td>
<td>11.3</td>
<td>13.2</td>
<td>100.0 (106)</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77.2</td>
<td>4.0</td>
<td>5.0</td>
<td>13.9</td>
<td>100.0 (404)</td>
</tr>
<tr>
<td>직장/학업</td>
<td>69.0</td>
<td>3.9</td>
<td>14.3</td>
<td>12.8</td>
<td>100.0 (258)</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75.3</td>
<td>7.6</td>
<td>6.5</td>
<td>10.6</td>
<td>100.0 (170)</td>
</tr>
<tr>
<td>기타</td>
<td>73.3</td>
<td>0.0</td>
<td>6.7</td>
<td>20.0</td>
<td>100.0 (45)</td>
</tr>
<tr>
<td>미래전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금과 비슷</td>
<td>74.3</td>
<td>4.1</td>
<td>7.2</td>
<td>14.4</td>
<td>100.0 (416)</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짐</td>
<td>73.6</td>
<td>3.0</td>
<td>10.6</td>
<td>12.9</td>
<td>100.0 (435)</td>
</tr>
<tr>
<td>지금보다 나빠짐</td>
<td>74.8</td>
<td>8.6</td>
<td>5.0</td>
<td>11.5</td>
<td>100.0 (139)</td>
</tr>
<tr>
<td>의지할 사람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0명</td>
<td>87.5</td>
<td>2.5</td>
<td>3.8</td>
<td>6.3</td>
<td>100.0 (80)</td>
</tr>
<tr>
<td>1명</td>
<td>75.9</td>
<td>13.8</td>
<td>3.4</td>
<td>6.9</td>
<td>100.0 (58)</td>
</tr>
<tr>
<td>2명</td>
<td>77.8</td>
<td>3.1</td>
<td>6.7</td>
<td>12.4</td>
<td>100.0 (194)</td>
</tr>
<tr>
<td>3명</td>
<td>67.7</td>
<td>6.1</td>
<td>12.1</td>
<td>14.1</td>
<td>100.0 (198)</td>
</tr>
<tr>
<td>4명</td>
<td>77.9</td>
<td>3.5</td>
<td>5.8</td>
<td>12.8</td>
<td>100.0 (86)</td>
</tr>
<tr>
<td>5명</td>
<td>72.5</td>
<td>3.6</td>
<td>9.3</td>
<td>14.5</td>
<td>100.0 (193)</td>
</tr>
<tr>
<td>6명 이상</td>
<td>71.5</td>
<td>1.7</td>
<td>10.5</td>
<td>16.3</td>
<td>100.0 (172)</td>
</tr>
</tbody>
</table>

주: 1) 20~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1명, 중학교가 2명으로 사례수가 매우 적어 고등학교 이상으로 합하였음.
2) 혼자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201

3. 독거생활 시 필요 사항 및 주요 관심사

40~50대 1인가구 거주자가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 가까운 친구가 47.6%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능력을 31.1%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꼽아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취미활동이나 독립적인 성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각각 8.3%, 6.7%였고, 1.9%는 범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으로 갈수록 가까운 친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이고, 범죄로부터의 보호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의 경우 도시보다 더 정적인 면이 강하며, 범죄에 대한 무서움이 도시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능력의 비율은 줄고, 가까운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정서적인 안정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나 이혼, 별거, 사별은 약 80% 정도가 가까운 친구가 가장 중요하며 경제적 능력을 연립한 사람이 없으나, 미혼의 경우는 71.3%가 경제적 능력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 결혼 상태별로 사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능력과 취미활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응답이 높아졌으나 가까운 친구는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요소 보다는 본인의 생활을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로여부나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40~50대 1인가구는 가까운 친구를 가장 중요한 점으로 생각하고 있어 정서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거기간별로는 독거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능력의 중요성은 높아졌으나, 가까운 친구의 필요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독거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며 외로움에는 점차 적응해 나가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독거이유별로 살펴보면 독거이유를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도 응답한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가장 중요한 점으로, 독거이유를 자유로운 생활로 응답한 사람은 경제적 능력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경제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보다는 같이 누릴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직장·학업의 이유나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 독거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구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타 응답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의적인 독거선택에 따른 외로움을 해결해줄 친구가 필요해서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6-17〉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점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경제적 능력</th>
<th>가까운 친구</th>
<th>취미 활동</th>
<th>범죄로부터의 보호</th>
<th>독립적 성격</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31.1</td>
<td>47.6</td>
<td>8.3</td>
<td>1.9</td>
<td>6.7</td>
<td>4.4</td>
<td>100.0  (1,163)</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31.2</td>
<td>46.2</td>
<td>8.6</td>
<td>2.6</td>
<td>7.6</td>
<td>3.7</td>
<td>100.0  (567)</td>
</tr>
<tr>
<td>중소도시</td>
<td>33.8</td>
<td>47.9</td>
<td>7.0</td>
<td>1.3</td>
<td>5.7</td>
<td>4.2</td>
<td>100.0  (455)</td>
</tr>
<tr>
<td>농어촌</td>
<td>22.0</td>
<td>52.5</td>
<td>10.6</td>
<td>0.7</td>
<td>6.4</td>
<td>7.8</td>
<td>100.0  (141)</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32.0</td>
<td>45.3</td>
<td>10.0</td>
<td>0.5</td>
<td>7.3</td>
<td>5.1</td>
<td>100.0  (632)</td>
</tr>
<tr>
<td>여성</td>
<td>30.1</td>
<td>50.5</td>
<td>6.2</td>
<td>3.6</td>
<td>6.0</td>
<td>3.6</td>
<td>100.0  (531)</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44세</td>
<td>51.2</td>
<td>24.8</td>
<td>8.0</td>
<td>1.4</td>
<td>9.6</td>
<td>5.0</td>
<td>100.0  (363)</td>
</tr>
<tr>
<td>45~49세</td>
<td>36.1</td>
<td>44.0</td>
<td>7.5</td>
<td>1.6</td>
<td>6.7</td>
<td>4.0</td>
<td>100.0  (252)</td>
</tr>
<tr>
<td>50~54세</td>
<td>19.9</td>
<td>59.6</td>
<td>8.9</td>
<td>3.1</td>
<td>4.1</td>
<td>4.5</td>
<td>100.0  (292)</td>
</tr>
<tr>
<td>55~59세</td>
<td>10.5</td>
<td>69.9</td>
<td>8.6</td>
<td>1.6</td>
<td>5.5</td>
<td>3.9</td>
<td>100.0  (256)</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0.0</td>
<td>80.9</td>
<td>11.0</td>
<td>0.7</td>
<td>3.7</td>
<td>3.7</td>
<td>100.0  (136)</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0.0</td>
<td>79.6</td>
<td>7.7</td>
<td>1.5</td>
<td>6.7</td>
<td>4.4</td>
<td>100.0  (519)</td>
</tr>
<tr>
<td>미혼</td>
<td>71.3</td>
<td>6.1</td>
<td>8.1</td>
<td>2.6</td>
<td>7.5</td>
<td>4.5</td>
<td>100.0  (508)</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203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경제적 능력</th>
<th>가까운 친구</th>
<th>취미 활동</th>
<th>범죄로부터의 보호</th>
<th>독립적 성격</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교육수준 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11.1</td>
<td>69.4</td>
<td>2.8</td>
<td>0.0</td>
<td>8.3</td>
<td>8.3</td>
<td>100.0 (36)</td>
</tr>
<tr>
<td>중학교</td>
<td>13.0</td>
<td>72.2</td>
<td>5.6</td>
<td>5.6</td>
<td>5.6</td>
<td>1.9</td>
<td>1.9</td>
</tr>
<tr>
<td>고등학교</td>
<td>25.4</td>
<td>56.4</td>
<td>7.8</td>
<td>1.5</td>
<td>5.0</td>
<td>5.0</td>
<td>3.8</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37.0</td>
<td>39.5</td>
<td>8.9</td>
<td>1.9</td>
<td>7.9</td>
<td>4.8</td>
<td>4.8</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32.4</td>
<td>46.1</td>
<td>8.5</td>
<td>1.5</td>
<td>7.1</td>
<td>4.2</td>
<td></td>
</tr>
<tr>
<td>비취업</td>
<td>24.5</td>
<td>55.2</td>
<td>6.8</td>
<td>3.6</td>
<td>4.7</td>
<td>5.2</td>
<td>5.2</td>
</tr>
<tr>
<td>직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31.4</td>
<td>47.7</td>
<td>10.5</td>
<td>1.3</td>
<td>4.6</td>
<td>4.6</td>
<td>4.6</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21.3</td>
<td>49.4</td>
<td>16.9</td>
<td>1.1</td>
<td>5.6</td>
<td>5.6</td>
<td>5.6</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38.7</td>
<td>40.5</td>
<td>7.8</td>
<td>1.6</td>
<td>7.8</td>
<td>3.5</td>
<td></td>
</tr>
<tr>
<td>임용근로자</td>
<td>20.0</td>
<td>64.2</td>
<td>7.4</td>
<td>2.1</td>
<td>4.2</td>
<td>2.1</td>
<td></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29.5</td>
<td>50.0</td>
<td>5.4</td>
<td>1.8</td>
<td>8.9</td>
<td>4.5</td>
<td></td>
</tr>
<tr>
<td>기타</td>
<td>18.8</td>
<td>46.9</td>
<td>3.1</td>
<td>0.0</td>
<td>15.6</td>
<td>15.6</td>
<td>15.6</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22.7</td>
<td>56.7</td>
<td>7.7</td>
<td>2.6</td>
<td>5.7</td>
<td>4.6</td>
<td></td>
</tr>
<tr>
<td>100~199만원</td>
<td>29.6</td>
<td>50.4</td>
<td>7.5</td>
<td>2.5</td>
<td>6.1</td>
<td>3.9</td>
<td>3.9</td>
</tr>
<tr>
<td>200~299만원</td>
<td>36.7</td>
<td>42.9</td>
<td>6.9</td>
<td>1.8</td>
<td>7.6</td>
<td>4.0</td>
<td>4.0</td>
</tr>
<tr>
<td>300~399만원</td>
<td>45.0</td>
<td>37.2</td>
<td>6.7</td>
<td>0.6</td>
<td>7.8</td>
<td>2.8</td>
<td>2.8</td>
</tr>
<tr>
<td>400~499만원</td>
<td>26.1</td>
<td>46.6</td>
<td>10.2</td>
<td>2.3</td>
<td>8.0</td>
<td>6.8</td>
<td>6.8</td>
</tr>
<tr>
<td>500~599만원</td>
<td>25.8</td>
<td>41.9</td>
<td>16.1</td>
<td>3.2</td>
<td>6.5</td>
<td>6.5</td>
<td>6.5</td>
</tr>
<tr>
<td>600~699만원</td>
<td>11.1</td>
<td>61.1</td>
<td>11.1</td>
<td>0.0</td>
<td>5.6</td>
<td>11.1</td>
<td>11.1</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10.7</td>
<td>67.9</td>
<td>14.3</td>
<td>0.0</td>
<td>1.8</td>
<td>5.4</td>
<td>5.4</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14.2</td>
<td>61.9</td>
<td>8.8</td>
<td>1.8</td>
<td>3.5</td>
<td>9.7</td>
<td></td>
</tr>
<tr>
<td>2-5년 미만</td>
<td>15.5</td>
<td>62.9</td>
<td>9.6</td>
<td>3.2</td>
<td>7.2</td>
<td>1.6</td>
<td>1.6</td>
</tr>
<tr>
<td>5-10년 미만</td>
<td>27.8</td>
<td>52.7</td>
<td>10.1</td>
<td>1.3</td>
<td>3.8</td>
<td>4.2</td>
<td>4.2</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33.3</td>
<td>44.8</td>
<td>7.2</td>
<td>2.0</td>
<td>8.9</td>
<td>3.7</td>
<td>3.7</td>
</tr>
<tr>
<td>20년 이상</td>
<td>59.0</td>
<td>20.3</td>
<td>6.1</td>
<td>0.9</td>
<td>7.5</td>
<td>6.1</td>
<td>6.1</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34.5</td>
<td>46.9</td>
<td>9.7</td>
<td>0.0</td>
<td>7.1</td>
<td>1.8</td>
<td></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38.6</td>
<td>37.9</td>
<td>8.2</td>
<td>3.3</td>
<td>8.2</td>
<td>4.0</td>
<td>4.0</td>
</tr>
<tr>
<td>직장-학업</td>
<td>28.2</td>
<td>50.8</td>
<td>10.4</td>
<td>1.3</td>
<td>6.8</td>
<td>2.6</td>
<td>2.6</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22.3</td>
<td>59.5</td>
<td>5.4</td>
<td>1.7</td>
<td>5.0</td>
<td>6.2</td>
<td>6.2</td>
</tr>
<tr>
<td>기타</td>
<td>21.8</td>
<td>56.4</td>
<td>3.6</td>
<td>0.0</td>
<td>1.8</td>
<td>16.4</td>
<td>16.4</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여유시간에 우선시하는 활동은 운동.여행.취미활동이 4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휴식 17.2%, 친구.이성만남이 9.8%, 컴퓨터, 외국어 등 자기개발이 9.1%, 봉사.종교활동이 8.3%, 가족만남이 7.2%, 가사일이 1.6%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운동.여행.취미를 더 많이 선택하였고, 여성은 남성보다 봉사.종교활동을 주로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는 활동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수록 컴퓨터, 외국어 등 자기개발의 비중은 낮아지나 봉사.종교활동의 자기수양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 비하여 가족과의 만남(14.7%)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혼, 별거, 사별인 경우는 친구.이성만남이나 봉사.종교활동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운동.여행.취미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에 휴식이나 봉사.종교활동에 대한 비중은 적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직업에 상관없이 운동.여행.취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친구.이성의 만남이 타 직업에 비해 높아, 이는 근무시간의 유연함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가족소득에 따라서도 대체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운동.여행.취미에 대한 비중이 높으나 소득이 600~699만원인 경우는 운동.여행.취미와 함께 휴식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99만원 미만은 사람들은 봉사.종교활동에 대한 비중이,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들들은 가족만남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독거이유별로는 독거이유에 상관없이 모두 운동.여행.취미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으나 독거이유가 직장,학업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친구.이성만남의 중요성이 낮고, 휴식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표 6-18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여유시간 시 우선시하는 활동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가족 만남</th>
<th>친구 만남</th>
<th>취미</th>
<th>운동</th>
<th>여행</th>
<th>컴퓨터</th>
<th>외국어활용</th>
<th>자기개발</th>
<th>봉사</th>
<th>종교</th>
<th>가사일</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7.2</td>
<td>9.8</td>
<td>17.2</td>
<td>46.8</td>
<td>9.1</td>
<td>8.3</td>
<td>1.6</td>
<td>100.0</td>
<td>1,168</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7.9</td>
<td>8.4</td>
<td>17.4</td>
<td>48.4</td>
<td>9.5</td>
<td>6.8</td>
<td>1.6</td>
<td>100.0</td>
<td>570</td>
<td></td>
<td></td>
<td></td>
</tr>
<tr>
<td>중소도시</td>
<td>6.6</td>
<td>11.8</td>
<td>15.6</td>
<td>46.7</td>
<td>8.3</td>
<td>10.1</td>
<td>0.9</td>
<td>100.0</td>
<td>456</td>
<td></td>
<td></td>
<td></td>
</tr>
<tr>
<td>농어촌</td>
<td>6.3</td>
<td>8.5</td>
<td>21.8</td>
<td>40.8</td>
<td>9.9</td>
<td>8.5</td>
<td>4.2</td>
<td>100.0</td>
<td>142</td>
<td></td>
<td></td>
<td></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6.0</td>
<td>9.7</td>
<td>17.0</td>
<td>51.6</td>
<td>8.6</td>
<td>5.3</td>
<td>1.7</td>
<td>100.0</td>
<td>636</td>
<td></td>
<td></td>
<td></td>
</tr>
<tr>
<td>여성</td>
<td>8.6</td>
<td>9.8</td>
<td>17.5</td>
<td>41.2</td>
<td>9.6</td>
<td>11.8</td>
<td>1.5</td>
<td>100.0</td>
<td>532</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44세</td>
<td>6.6</td>
<td>8.8</td>
<td>21.5</td>
<td>46.6</td>
<td>11.3</td>
<td>3.0</td>
<td>2.2</td>
<td>100.0</td>
<td>363</td>
<td></td>
<td></td>
<td></td>
</tr>
<tr>
<td>45-49세</td>
<td>7.8</td>
<td>8.2</td>
<td>18.4</td>
<td>48.0</td>
<td>9.8</td>
<td>6.6</td>
<td>1.2</td>
<td>100.0</td>
<td>256</td>
<td></td>
<td></td>
<td></td>
</tr>
<tr>
<td>50-54세</td>
<td>6.8</td>
<td>12.0</td>
<td>12.7</td>
<td>49.7</td>
<td>7.5</td>
<td>9.6</td>
<td>1.7</td>
<td>100.0</td>
<td>292</td>
<td></td>
<td></td>
<td></td>
</tr>
<tr>
<td>55-59세</td>
<td>7.8</td>
<td>10.1</td>
<td>15.2</td>
<td>42.8</td>
<td>7.0</td>
<td>16.0</td>
<td>1.2</td>
<td>100.0</td>
<td>257</td>
<td></td>
<td></td>
<td></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14.7</td>
<td>5.9</td>
<td>18.4</td>
<td>47.8</td>
<td>8.8</td>
<td>2.9</td>
<td>1.5</td>
<td>100.0</td>
<td>136</td>
<td></td>
<td></td>
<td></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8.3</td>
<td>11.5</td>
<td>14.6</td>
<td>42.5</td>
<td>8.8</td>
<td>11.5</td>
<td>2.7</td>
<td>100.0</td>
<td>520</td>
<td></td>
<td></td>
<td></td>
</tr>
<tr>
<td>미혼</td>
<td>4.1</td>
<td>9.0</td>
<td>19.6</td>
<td>50.9</td>
<td>9.4</td>
<td>6.5</td>
<td>0.6</td>
<td>100.0</td>
<td>511</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수준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13.9</td>
<td>11.1</td>
<td>25.0</td>
<td>25.0</td>
<td>2.8</td>
<td>19.4</td>
<td>2.8</td>
<td>100.0</td>
<td>36</td>
<td></td>
<td></td>
<td></td>
</tr>
<tr>
<td>중학교</td>
<td>3.7</td>
<td>14.8</td>
<td>20.4</td>
<td>35.2</td>
<td>7.4</td>
<td>16.7</td>
<td>1.9</td>
<td>100.0</td>
<td>54</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td>
<td>5.5</td>
<td>10.1</td>
<td>19.6</td>
<td>41.5</td>
<td>10.1</td>
<td>10.3</td>
<td>3.0</td>
<td>100.0</td>
<td>398</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8.0</td>
<td>9.0</td>
<td>15.3</td>
<td>52.3</td>
<td>8.9</td>
<td>5.8</td>
<td>0.7</td>
<td>100.0</td>
<td>675</td>
<td></td>
<td></td>
<td></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6.8</td>
<td>10.0</td>
<td>18.4</td>
<td>48.0</td>
<td>8.5</td>
<td>6.7</td>
<td>1.6</td>
<td>100.0</td>
<td>976</td>
<td></td>
<td></td>
<td></td>
</tr>
<tr>
<td>비취업</td>
<td>9.4</td>
<td>8.3</td>
<td>10.9</td>
<td>41.1</td>
<td>12.0</td>
<td>16.7</td>
<td>1.6</td>
<td>100.0</td>
<td>192</td>
<td></td>
<td></td>
<td></td>
</tr>
<tr>
<td>직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6.5</td>
<td>14.9</td>
<td>15.6</td>
<td>46.1</td>
<td>7.8</td>
<td>7.8</td>
<td>1.3</td>
<td>100.0</td>
<td>154</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6.5</td>
<td>8.7</td>
<td>15.2</td>
<td>59.8</td>
<td>4.3</td>
<td>4.3</td>
<td>1.4</td>
<td>100.0</td>
<td>92</td>
<td></td>
<td></td>
<td></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7.2</td>
<td>8.2</td>
<td>19.3</td>
<td>51.1</td>
<td>8.4</td>
<td>4.3</td>
<td>1.4</td>
<td>100.0</td>
<td>487</td>
<td></td>
<td></td>
<td></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2.1</td>
<td>16.8</td>
<td>24.2</td>
<td>35.8</td>
<td>6.3</td>
<td>12.6</td>
<td>2.1</td>
<td>100.0</td>
<td>95</td>
<td></td>
<td></td>
<td></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8.9</td>
<td>7.1</td>
<td>14.3</td>
<td>43.8</td>
<td>14.3</td>
<td>8.9</td>
<td>2.7</td>
<td>100.0</td>
<td>112</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6.3</td>
<td>6.3</td>
<td>25.0</td>
<td>28.1</td>
<td>12.5</td>
<td>18.8</td>
<td>3.1</td>
<td>100.0</td>
<td>32</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가족 만남</th>
<th>친구 만남</th>
<th>여행 취미</th>
<th>컴퓨터 외국어 배우기</th>
<th>봉사 활동</th>
<th>가사일 계(명)</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8.3</td>
<td>9.3</td>
<td>14.0</td>
<td>35.8</td>
<td>11.9</td>
<td>17.6</td>
<td>3.1</td>
</tr>
<tr>
<td>100~199만원</td>
<td>5.4</td>
<td>10.0</td>
<td>21.1</td>
<td>44.3</td>
<td>9.3</td>
<td>8.6</td>
<td>1.4</td>
</tr>
<tr>
<td>200~299만원</td>
<td>5.4</td>
<td>12.3</td>
<td>16.2</td>
<td>46.6</td>
<td>10.8</td>
<td>7.6</td>
<td>1.1</td>
</tr>
<tr>
<td>300~399만원</td>
<td>4.9</td>
<td>6.6</td>
<td>15.9</td>
<td>58.8</td>
<td>7.1</td>
<td>4.9</td>
<td>1.6</td>
</tr>
<tr>
<td>400~499만원</td>
<td>11.4</td>
<td>12.5</td>
<td>18.2</td>
<td>43.2</td>
<td>6.8</td>
<td>5.7</td>
<td>2.3</td>
</tr>
<tr>
<td>500~599만원</td>
<td>12.9</td>
<td>4.8</td>
<td>11.3</td>
<td>62.9</td>
<td>6.5</td>
<td>1.6</td>
<td>0.0</td>
</tr>
<tr>
<td>600~699만원</td>
<td>5.6</td>
<td>16.7</td>
<td>33.3</td>
<td>33.3</td>
<td>5.6</td>
<td>5.6</td>
<td>0.0</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17.5</td>
<td>5.3</td>
<td>14.0</td>
<td>57.9</td>
<td>1.8</td>
<td>1.8</td>
<td>1.8</td>
</tr>
</tbody>
</table>

독거기간

<table>
<thead>
<tr>
<th>독거기간</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2년 미만</td>
<td>12.4</td>
<td>9.7</td>
<td>20.4</td>
<td>33.6</td>
<td>13.3</td>
<td>8.8</td>
<td>1.8</td>
</tr>
<tr>
<td>2~5년 미만</td>
<td>6.7</td>
<td>11.5</td>
<td>15.1</td>
<td>48.0</td>
<td>8.7</td>
<td>9.1</td>
<td>0.8</td>
</tr>
<tr>
<td>5~10년 미만</td>
<td>9.6</td>
<td>10.9</td>
<td>16.7</td>
<td>47.3</td>
<td>7.1</td>
<td>6.7</td>
<td>1.7</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5.7</td>
<td>7.7</td>
<td>18.3</td>
<td>47.6</td>
<td>8.9</td>
<td>10.0</td>
<td>1.7</td>
</tr>
<tr>
<td>20년 이상</td>
<td>4.7</td>
<td>9.9</td>
<td>16.4</td>
<td>51.2</td>
<td>9.9</td>
<td>6.1</td>
<td>1.9</td>
</tr>
</tbody>
</table>

독거이유

<table>
<thead>
<tr>
<th>독거이유</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9.6</td>
<td>11.3</td>
<td>13.9</td>
<td>47.0</td>
<td>7.0</td>
<td>11.3</td>
<td>0.0</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4.0</td>
<td>11.2</td>
<td>17.5</td>
<td>52.3</td>
<td>6.8</td>
<td>6.8</td>
<td>1.4</td>
</tr>
<tr>
<td>직장·학업</td>
<td>11.9</td>
<td>7.4</td>
<td>19.0</td>
<td>43.5</td>
<td>10.3</td>
<td>5.8</td>
<td>1.9</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6.6</td>
<td>9.1</td>
<td>17.4</td>
<td>42.1</td>
<td>10.7</td>
<td>12.0</td>
<td>2.1</td>
</tr>
<tr>
<td>기타</td>
<td>3.6</td>
<td>14.5</td>
<td>14.5</td>
<td>40.0</td>
<td>14.5</td>
<td>9.1</td>
<td>3.6</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나의 건강이 30.8%로 가장 많았고, 나의 노후준비가 26.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가족에 대한 염려는 20.3%, 생계비, 주택구입 등의 경제적 준비는 15.5%, 나의 결혼은 6.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화가 급속히 생활비, 주택구입 등 경제적 준비에 대한 걱정과 가족에 대한 염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는 나의 결혼, 생계비 주택구입 등 경제적 준비, 가족에 대한 염려가 여성보다 더 큰 걱정거리였고, 여성의 경우는 나의 건강, 나의 노후준비를 남성보다 더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서 남녀성향에 따른 차이라 생각되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나이가 들수록 나의 건강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의 비율이 커지고, 나의 결혼이나 생계비, 주택구입 등 경제적 준비에 대한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는 경우는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으나, 이혼·별거·사별이나 미혼의 경우는 나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은 나의 건강이 가장 큰 염려거리였으나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타났다.

독거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독거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결혼이나 나의 건강과 같이 자신에 관한 문제에 대한 걱정은 늘고, 가족에 대한 염려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이유와 관련해서는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경우와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혼자 사는 경우는 나의 건강이 가장 염려되는데 문제이고 직장·학업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다. 그리고 같이 살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나의 건강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미래전망을 지금보다 나쁘지거나 비슷할 것이라 응답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었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6-19>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가장 큰 걱정거리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나의 결혼</th>
<th>생계비</th>
<th>주거구입 등 경제적 준비</th>
<th>나의 건강</th>
<th>나의 노후준비</th>
<th>가족에 대한 염려</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6.9</td>
<td>15.5</td>
<td>30.8</td>
<td>26.5</td>
<td>20.3</td>
<td>100.0 (1,111)</td>
<td></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6.5</td>
<td>18.6</td>
<td>29.4</td>
<td>24.3</td>
<td>21.2</td>
<td>100.0 (538)</td>
<td></td>
</tr>
<tr>
<td>중소도시</td>
<td>5.9</td>
<td>13.0</td>
<td>32.6</td>
<td>28.5</td>
<td>19.9</td>
<td>100.0 (438)</td>
<td></td>
</tr>
<tr>
<td>농어촌</td>
<td>11.9</td>
<td>11.1</td>
<td>30.4</td>
<td>28.1</td>
<td>18.5</td>
<td>100.0 (135)</td>
<td></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0.8</td>
<td>16.8</td>
<td>25.7</td>
<td>24.3</td>
<td>22.4</td>
<td>100.0 (602)</td>
<td></td>
</tr>
<tr>
<td>여성</td>
<td>2.4</td>
<td>13.9</td>
<td>36.7</td>
<td>29.1</td>
<td>17.9</td>
<td>100.0 (509)</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44세</td>
<td>15.6</td>
<td>20.1</td>
<td>21.6</td>
<td>22.5</td>
<td>20.1</td>
<td>100.0 (333)</td>
<td></td>
</tr>
<tr>
<td>45-49세</td>
<td>6.9</td>
<td>18.4</td>
<td>26.1</td>
<td>25.3</td>
<td>23.3</td>
<td>100.0 (245)</td>
<td></td>
</tr>
<tr>
<td>50-54세</td>
<td>1.8</td>
<td>13.1</td>
<td>39.4</td>
<td>28.7</td>
<td>17.0</td>
<td>100.0 (282)</td>
<td></td>
</tr>
<tr>
<td>55-59세</td>
<td>1.2</td>
<td>9.2</td>
<td>37.8</td>
<td>30.3</td>
<td>21.5</td>
<td>100.0 (251)</td>
<td></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0.8</td>
<td>15.3</td>
<td>21.0</td>
<td>25.0</td>
<td>37.9</td>
<td>100.0 (124)</td>
<td></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2.8</td>
<td>13.0</td>
<td>33.2</td>
<td>30.1</td>
<td>21.0</td>
<td>100.0 (509)</td>
<td></td>
</tr>
<tr>
<td>미혼</td>
<td>12.8</td>
<td>18.2</td>
<td>30.8</td>
<td>23.1</td>
<td>15.1</td>
<td>100.0 (477)</td>
<td></td>
</tr>
<tr>
<td>교육수준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2.9</td>
<td>17.1</td>
<td>31.4</td>
<td>22.9</td>
<td>25.7</td>
<td>100.0 (35)</td>
<td></td>
</tr>
<tr>
<td>중학교</td>
<td>1.9</td>
<td>15.1</td>
<td>32.1</td>
<td>34.0</td>
<td>17.0</td>
<td>100.0 (53)</td>
<td></td>
</tr>
<tr>
<td>고등학교</td>
<td>6.1</td>
<td>13.7</td>
<td>34.5</td>
<td>28.2</td>
<td>17.6</td>
<td>100.0 (380)</td>
<td></td>
</tr>
<tr>
<td>전문대학 이하</td>
<td>8.2</td>
<td>16.3</td>
<td>28.5</td>
<td>25.2</td>
<td>21.8</td>
<td>100.0 (638)</td>
<td></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7.6</td>
<td>15.9</td>
<td>28.4</td>
<td>26.4</td>
<td>21.8</td>
<td>100.0 (924)</td>
<td></td>
</tr>
<tr>
<td>비취업</td>
<td>3.7</td>
<td>13.4</td>
<td>42.8</td>
<td>26.7</td>
<td>13.4</td>
<td>100.0 (187)</td>
<td></td>
</tr>
<tr>
<td>직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6.3</td>
<td>22.2</td>
<td>27.1</td>
<td>23.6</td>
<td>20.8</td>
<td>100.0 (144)</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4.5</td>
<td>14.8</td>
<td>37.5</td>
<td>17.0</td>
<td>26.1</td>
<td>100.0 (88)</td>
<td></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10.3</td>
<td>13.6</td>
<td>26.2</td>
<td>26.4</td>
<td>23.5</td>
<td>100.0 (455)</td>
<td></td>
</tr>
<tr>
<td>업무근로자</td>
<td>3.2</td>
<td>12.6</td>
<td>29.5</td>
<td>40.0</td>
<td>14.7</td>
<td>100.0 (95)</td>
<td></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3.7</td>
<td>21.1</td>
<td>30.3</td>
<td>29.4</td>
<td>15.6</td>
<td>100.0 (109)</td>
<td></td>
</tr>
<tr>
<td>기타</td>
<td>6.9</td>
<td>17.2</td>
<td>34.5</td>
<td>10.3</td>
<td>31.0</td>
<td>100.0 (29)</td>
<td></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209

<table>
<thead>
<tr>
<th>특성</th>
<th>나의 결혼</th>
<th>생계비</th>
<th>주택구입 등 경제적 준비</th>
<th>나의 건강</th>
<th>나의 노후준비</th>
<th>가족에 대한 염려</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3.2</td>
<td>20.0</td>
<td>32.1</td>
<td>30.5</td>
<td>14.2</td>
<td>100.0 ( 190)</td>
<td></td>
</tr>
<tr>
<td>100-199만원</td>
<td>4.8</td>
<td>16.0</td>
<td>36.1</td>
<td>29.4</td>
<td>13.8</td>
<td>100.0 ( 269)</td>
<td></td>
</tr>
<tr>
<td>200-299만원</td>
<td>7.1</td>
<td>17.5</td>
<td>32.5</td>
<td>27.2</td>
<td>15.7</td>
<td>100.0 ( 268)</td>
<td></td>
</tr>
<tr>
<td>300-399만원</td>
<td>10.8</td>
<td>15.0</td>
<td>26.3</td>
<td>18.6</td>
<td>29.3</td>
<td>100.0 ( 167)</td>
<td></td>
</tr>
<tr>
<td>400-499만원</td>
<td>10.8</td>
<td>6.0</td>
<td>28.9</td>
<td>26.5</td>
<td>27.7</td>
<td>100.0 (  83)</td>
<td></td>
</tr>
<tr>
<td>500-599만원</td>
<td>16.1</td>
<td>5.4</td>
<td>17.9</td>
<td>28.6</td>
<td>32.1</td>
<td>100.0 (  56)</td>
<td></td>
</tr>
<tr>
<td>600-699만원</td>
<td>0.0</td>
<td>20.0</td>
<td>20.0</td>
<td>26.7</td>
<td>33.3</td>
<td>100.0 (  15)</td>
<td></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3.8</td>
<td>13.2</td>
<td>26.4</td>
<td>13.2</td>
<td>43.4</td>
<td>100.0 (  53)</td>
<td></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3.8</td>
<td>14.2</td>
<td>29.2</td>
<td>25.5</td>
<td>27.4</td>
<td>100.0 ( 106)</td>
<td></td>
</tr>
<tr>
<td>2-5년 미만</td>
<td>5.9</td>
<td>13.0</td>
<td>29.7</td>
<td>27.2</td>
<td>24.3</td>
<td>100.0 ( 239)</td>
<td></td>
</tr>
<tr>
<td>5-10년 미만</td>
<td>6.1</td>
<td>19.6</td>
<td>25.7</td>
<td>28.7</td>
<td>20.0</td>
<td>100.0 ( 230)</td>
<td></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7.5</td>
<td>15.3</td>
<td>32.0</td>
<td>26.9</td>
<td>18.3</td>
<td>100.0 ( 334)</td>
<td></td>
</tr>
<tr>
<td>20년 이상</td>
<td>10.0</td>
<td>15.0</td>
<td>36.5</td>
<td>23.0</td>
<td>15.5</td>
<td>100.0 ( 200)</td>
<td></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7.5</td>
<td>14.0</td>
<td>36.4</td>
<td>23.4</td>
<td>18.7</td>
<td>100.0 ( 107)</td>
<td></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4.6</td>
<td>11.7</td>
<td>36.3</td>
<td>31.0</td>
<td>16.3</td>
<td>100.0 ( 410)</td>
<td></td>
</tr>
<tr>
<td>직장-학업</td>
<td>10.3</td>
<td>18.2</td>
<td>19.2</td>
<td>21.2</td>
<td>31.2</td>
<td>100.0 ( 292)</td>
<td></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6.4</td>
<td>19.1</td>
<td>33.9</td>
<td>25.0</td>
<td>15.7</td>
<td>100.0 ( 236)</td>
<td></td>
</tr>
<tr>
<td>기타</td>
<td>4.1</td>
<td>18.4</td>
<td>20.4</td>
<td>36.7</td>
<td>20.4</td>
<td>100.0 (  49)</td>
<td></td>
</tr>
<tr>
<td>미래전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금과 비슷</td>
<td>4.6</td>
<td>11.6</td>
<td>34.1</td>
<td>29.5</td>
<td>20.3</td>
<td>100.0 ( 458)</td>
<td></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짐</td>
<td>9.7</td>
<td>19.2</td>
<td>26.9</td>
<td>23.3</td>
<td>20.9</td>
<td>100.0 ( 464)</td>
<td></td>
</tr>
<tr>
<td>지금보다 나빠짐</td>
<td>4.9</td>
<td>16.5</td>
<td>32.4</td>
<td>27.5</td>
<td>18.7</td>
<td>100.0 ( 182)</td>
<td></td>
</tr>
<tr>
<td>의지할 사람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0명</td>
<td>6.6</td>
<td>19.8</td>
<td>39.6</td>
<td>21.7</td>
<td>12.3</td>
<td>100.0 ( 106)</td>
<td></td>
</tr>
<tr>
<td>1명</td>
<td>11.9</td>
<td>23.9</td>
<td>26.9</td>
<td>20.9</td>
<td>16.4</td>
<td>100.0 (  67)</td>
<td></td>
</tr>
<tr>
<td>2명</td>
<td>3.7</td>
<td>16.3</td>
<td>29.8</td>
<td>30.7</td>
<td>19.5</td>
<td>100.0 ( 215)</td>
<td></td>
</tr>
<tr>
<td>3명</td>
<td>6.8</td>
<td>12.3</td>
<td>28.2</td>
<td>31.4</td>
<td>21.4</td>
<td>100.0 ( 220)</td>
<td></td>
</tr>
<tr>
<td>4명</td>
<td>7.1</td>
<td>13.3</td>
<td>34.7</td>
<td>23.5</td>
<td>21.4</td>
<td>100.0 (  98)</td>
<td></td>
</tr>
<tr>
<td>5명</td>
<td>8.2</td>
<td>16.9</td>
<td>29.5</td>
<td>24.6</td>
<td>20.8</td>
<td>100.0 ( 207)</td>
<td></td>
</tr>
<tr>
<td>6명 이상</td>
<td>7.7</td>
<td>11.5</td>
<td>33.0</td>
<td>23.6</td>
<td>24.2</td>
<td>100.0 ( 182)</td>
<td></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4. 독거생활의 만족도 및 향후 전망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저 그렇다 34.1%, 만족하지 않음이 11.2%, 매우만족이 9.5%, 전혀 만족하지 않음이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만족도는 3.4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농어촌거주자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44세는 3.57점인데 반해, 55~59세는 3.33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가 만족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으며, 유부우자인 경우는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1인가구로 살아가는데 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취업해있는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취업이 경제력과 미래준비 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독거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독거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독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독거생활에 적응하여 1인가구의 긴장적인 부분을 극대화하여 지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혼자 사는 이유가 경제력이 있어서거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인 경우는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경우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직장이나 학업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혼자 사는 경우에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전망이 지금과 비슷하
거나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나빠질 것이라 예상할 사람에 비하여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았다. 의지할 사람이 많아질수록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적으로 높아 혼자 살아도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6-20〉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 생활 만족도 (단위: %, 명,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만족하지 않음</th>
<th>만족하지 않음</th>
<th>그렇지 그렇다</th>
<th>만족</th>
<th>매우 만족</th>
<th>계(명)</th>
<th>평균 만족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3.3</td>
<td>11.2</td>
<td>34.1</td>
<td>41.9</td>
<td>9.5</td>
<td>100.0 (1,171)</td>
<td>3.43</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3.5</td>
<td>11.7</td>
<td>34.3</td>
<td>41.1</td>
<td>9.4</td>
<td>100.0 (572)</td>
<td>3.41</td>
</tr>
<tr>
<td>중소도시</td>
<td>3.3</td>
<td>9.8</td>
<td>33.5</td>
<td>43.5</td>
<td>9.8</td>
<td>100.0 (457)</td>
<td>3.47</td>
</tr>
<tr>
<td>농어촌</td>
<td>2.8</td>
<td>13.4</td>
<td>35.2</td>
<td>40.1</td>
<td>8.5</td>
<td>100.0 (142)</td>
<td>3.38</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5.2</td>
<td>16.5</td>
<td>37.3</td>
<td>33.1</td>
<td>8.0</td>
<td>100.0 (638)</td>
<td>3.22</td>
</tr>
<tr>
<td>여성</td>
<td>1.1</td>
<td>4.9</td>
<td>30.2</td>
<td>52.5</td>
<td>11.3</td>
<td>100.0 (533)</td>
<td>3.68</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44세</td>
<td>2.2</td>
<td>8.5</td>
<td>29.2</td>
<td>49.9</td>
<td>10.2</td>
<td>100.0 (363)</td>
<td>3.57</td>
</tr>
<tr>
<td>45~49세</td>
<td>3.1</td>
<td>14.5</td>
<td>32.0</td>
<td>40.2</td>
<td>10.2</td>
<td>100.0 (256)</td>
<td>3.40</td>
</tr>
<tr>
<td>50~54세</td>
<td>4.1</td>
<td>12.2</td>
<td>35.0</td>
<td>39.5</td>
<td>9.2</td>
<td>100.0 (294)</td>
<td>3.37</td>
</tr>
<tr>
<td>55~59세</td>
<td>4.3</td>
<td>10.5</td>
<td>41.9</td>
<td>35.3</td>
<td>8.1</td>
<td>100.0 (258)</td>
<td>3.33</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5.1</td>
<td>33.1</td>
<td>34.6</td>
<td>24.3</td>
<td>2.9</td>
<td>100.0 (136)</td>
<td>2.87</td>
</tr>
<tr>
<td>이혼, 별거, 사별</td>
<td>3.3</td>
<td>11.3</td>
<td>38.2</td>
<td>39.4</td>
<td>7.8</td>
<td>100.0 (523)</td>
<td>3.37</td>
</tr>
<tr>
<td>미혼</td>
<td>2.7</td>
<td>5.3</td>
<td>29.7</td>
<td>49.3</td>
<td>12.9</td>
<td>100.0 (511)</td>
<td>3.64</td>
</tr>
<tr>
<td>교육수준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16.7</td>
<td>11.1</td>
<td>41.7</td>
<td>16.7</td>
<td>13.9</td>
<td>100.0 (36)</td>
<td>3.00</td>
</tr>
<tr>
<td>중학교</td>
<td>3.7</td>
<td>20.4</td>
<td>38.9</td>
<td>22.2</td>
<td>14.8</td>
<td>100.0 (54)</td>
<td>3.24</td>
</tr>
<tr>
<td>고등학교</td>
<td>3.2</td>
<td>13.2</td>
<td>36.2</td>
<td>39.4</td>
<td>8.0</td>
<td>100.0 (401)</td>
<td>3.36</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2.7</td>
<td>9.3</td>
<td>32.3</td>
<td>45.9</td>
<td>9.8</td>
<td>100.0 (675)</td>
<td>3.51</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2.8</td>
<td>11.2</td>
<td>33.3</td>
<td>42.7</td>
<td>9.9</td>
<td>100.0 (978)</td>
<td>3.46</td>
</tr>
<tr>
<td>비취업</td>
<td>6.2</td>
<td>10.9</td>
<td>37.8</td>
<td>37.8</td>
<td>7.3</td>
<td>100.0 (193)</td>
<td>3.29</td>
</tr>
<tr>
<td>직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주</td>
<td>3.2</td>
<td>11.0</td>
<td>39.0</td>
<td>40.3</td>
<td>6.5</td>
<td>100.0 (154)</td>
<td>3.36</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주-사업주</td>
<td>4.3</td>
<td>12.0</td>
<td>26.1</td>
<td>43.5</td>
<td>14.1</td>
<td>100.0 (92)</td>
<td>3.51</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2.2</td>
<td>11.5</td>
<td>34.2</td>
<td>42.7</td>
<td>9.4</td>
<td>100.0 (489)</td>
<td>3.46</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만족하지 않음</th>
<th>만족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만족</th>
<th>매우 만족</th>
<th>계(명)</th>
<th>평균 만족도</th>
</tr>
</thead>
<tbody>
<tr>
<td>일용근로자</td>
<td>2.1</td>
<td>10.5</td>
<td>41.1</td>
<td>37.9</td>
<td>8.4</td>
<td>100.0 (95)</td>
<td>3.40</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2.7</td>
<td>11.6</td>
<td>23.2</td>
<td>50.0</td>
<td>12.5</td>
<td>100.0 (112)</td>
<td>3.58</td>
</tr>
<tr>
<td>기타</td>
<td>6.3</td>
<td>6.3</td>
<td>25.0</td>
<td>43.8</td>
<td>18.8</td>
<td>100.0 (32)</td>
<td>3.63</td>
</tr>
</tbody>
</table>

가구소득

<table>
<thead>
<tr>
<th>소득대분류</th>
<th>99만원 이하</th>
<th>100~199만원</th>
<th>200~299만원</th>
<th>300~399만원</th>
<th>400~499만원</th>
<th>500~599만원</th>
<th>600~699만원</th>
<th>700만원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td>
<td>7.7</td>
<td>11.3</td>
<td>41.2</td>
<td>33.5</td>
<td>6.2</td>
<td>100.0 (194)</td>
<td>3.19</td>
<td></td>
</tr>
<tr>
<td></td>
<td>1.4</td>
<td>9.3</td>
<td>36.4</td>
<td>41.4</td>
<td>11.4</td>
<td>100.0 (280)</td>
<td>3.52</td>
<td></td>
</tr>
<tr>
<td></td>
<td>1.4</td>
<td>9.7</td>
<td>36.7</td>
<td>42.4</td>
<td>9.7</td>
<td>100.0 (278)</td>
<td>3.49</td>
<td></td>
</tr>
<tr>
<td></td>
<td>1.6</td>
<td>12.1</td>
<td>26.4</td>
<td>48.4</td>
<td>11.5</td>
<td>100.0 (182)</td>
<td>3.56</td>
<td></td>
</tr>
<tr>
<td></td>
<td>3.4</td>
<td>11.2</td>
<td>36.0</td>
<td>46.1</td>
<td>3.4</td>
<td>100.0 (89)</td>
<td>3.35</td>
<td></td>
</tr>
<tr>
<td></td>
<td>8.1</td>
<td>14.5</td>
<td>24.2</td>
<td>43.5</td>
<td>9.7</td>
<td>100.0 (62)</td>
<td>3.32</td>
<td></td>
</tr>
<tr>
<td></td>
<td>5.6</td>
<td>44.4</td>
<td>27.8</td>
<td>11.1</td>
<td>11.1</td>
<td>100.0 (18)</td>
<td>2.78</td>
<td></td>
</tr>
<tr>
<td></td>
<td>3.5</td>
<td>12.3</td>
<td>24.6</td>
<td>47.4</td>
<td>12.3</td>
<td>100.0 (57)</td>
<td>3.53</td>
<td></td>
</tr>
</tbody>
</table>

독거기간

<table>
<thead>
<tr>
<th>기간</th>
<th>2년 미만</th>
<th>2~5년 미만</th>
<th>5~10년 미만</th>
<th>10~20년 미만</th>
<th>2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td>
<td>7.1</td>
<td>13.3</td>
<td>45.1</td>
<td>32.7</td>
<td>1.8</td>
</tr>
<tr>
<td></td>
<td>3.2</td>
<td>18.6</td>
<td>33.6</td>
<td>39.5</td>
<td>5.1</td>
</tr>
<tr>
<td></td>
<td>2.9</td>
<td>9.6</td>
<td>37.7</td>
<td>39.3</td>
<td>10.5</td>
</tr>
<tr>
<td></td>
<td>1.7</td>
<td>7.7</td>
<td>33.4</td>
<td>46.3</td>
<td>10.9</td>
</tr>
<tr>
<td></td>
<td>4.7</td>
<td>8.4</td>
<td>26.2</td>
<td>45.3</td>
<td>15.4</td>
</tr>
</tbody>
</table>

독거이유

<table>
<thead>
<tr>
<th>이유</th>
<th>0.9</th>
<th>5.2</th>
<th>30.4</th>
<th>50.4</th>
<th>13.0</th>
<th>100.0 (115)</th>
<th>3.70</th>
</tr>
</thead>
<tbody>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0.2</td>
<td>4.0</td>
<td>24.5</td>
<td>56.6</td>
<td>14.7</td>
<td>100.0 (429)</td>
<td>3.82</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3.9</td>
<td>18.1</td>
<td>38.2</td>
<td>35.6</td>
<td>4.2</td>
<td>100.0 (309)</td>
<td>3.18</td>
</tr>
<tr>
<td>직장, 학업</td>
<td>7.8</td>
<td>15.6</td>
<td>45.9</td>
<td>26.2</td>
<td>4.5</td>
<td>100.0 (244)</td>
<td>3.04</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3.6</td>
<td>19.6</td>
<td>46.4</td>
<td>16.1</td>
<td>14.3</td>
<td>100.0 (56)</td>
<td>3.18</td>
</tr>
</tbody>
</table>

미래전망

<table>
<thead>
<tr>
<th>전망</th>
<th>1.9</th>
<th>13.5</th>
<th>36.2</th>
<th>41.0</th>
<th>7.5</th>
<th>100.0 (481)</th>
<th>3.39</th>
</tr>
</thead>
<tbody>
<tr>
<td>지금과 비슷</td>
<td>2.8</td>
<td>8.4</td>
<td>28.3</td>
<td>47.0</td>
<td>13.5</td>
<td>100.0 (498)</td>
<td>3.60</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짐</td>
<td>8.1</td>
<td>13.0</td>
<td>43.8</td>
<td>31.4</td>
<td>3.8</td>
<td>100.0 (185)</td>
<td>3.10</td>
</tr>
</tbody>
</table>

의지할 사람수

<table>
<thead>
<tr>
<th>사람수</th>
<th>11.1</th>
<th>22.2</th>
<th>31.5</th>
<th>26.9</th>
<th>8.3</th>
<th>100.0 (108)</th>
<th>2.99</th>
</tr>
</thead>
<tbody>
<tr>
<td>0명</td>
<td>5.6</td>
<td>11.3</td>
<td>53.5</td>
<td>22.5</td>
<td>7.0</td>
<td>100.0 (71)</td>
<td>3.14</td>
</tr>
<tr>
<td>1명</td>
<td>3.2</td>
<td>10.4</td>
<td>36.7</td>
<td>39.8</td>
<td>10.0</td>
<td>100.0 (221)</td>
<td>3.43</td>
</tr>
<tr>
<td>2명</td>
<td>1.3</td>
<td>8.2</td>
<td>36.8</td>
<td>48.5</td>
<td>5.2</td>
<td>100.0 (231)</td>
<td>3.48</td>
</tr>
<tr>
<td>4명</td>
<td>1.0</td>
<td>14.6</td>
<td>36.9</td>
<td>41.7</td>
<td>5.8</td>
<td>100.0 (103)</td>
<td>3.37</td>
</tr>
<tr>
<td>5명</td>
<td>2.7</td>
<td>11.7</td>
<td>26.6</td>
<td>49.1</td>
<td>9.9</td>
<td>100.0 (222)</td>
<td>3.52</td>
</tr>
<tr>
<td>6명 이상</td>
<td>2.5</td>
<td>7.1</td>
<td>29.3</td>
<td>44.4</td>
<td>16.7</td>
<td>100.0 (198)</td>
<td>3.66</td>
</tr>
</tbody>
</table>

주: 1) 평균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 1점, 만족하지 않음 2점, 그저 그렇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213

40~50대 1인가구 거주자들에게 앞으로도 혼자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저 그렇다가 23.4%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가 37.4%, 그런 편이라도 매우 그렇다가 39.2%로 나타났으며 평균 3.00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이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혼자 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혼자 살고 싶다는 의견이 남성이 비해 강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살고 싶다는 의견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제력도 갖추게 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 상태별로 보면 유배우자인 경우는 이혼,별거,사별이나 미혼에 비하여 향후 혼자살기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 가족과의 동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과 관련하여서는 대체적으로 고학력의 사람들이 저학력의 사람들에 비해서 독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높은 학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생활면에서도 안정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독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났으며 독거기간이 길어질수록 향후 지속적으로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1인가구의 삶에 적용을 했으며 결혼을 포기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독거이유로는 혼자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거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계속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직장,학업의 이유나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인 경우와 같이 타의적인 경우는 지속적인 1인가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전망을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향후에도 독거를 희망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
은 그렇지 않다고 가장 응답을 많이 하여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향후에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독거생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독거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지속적인 독거생활을 원하고 독거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음수록 향후 독거생활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향후 독거 희망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14.2</td>
<td>23.2</td>
<td>27.3</td>
<td>11.9</td>
<td>100.0 (1,166)</td>
<td>3.00</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14.9</td>
<td>24.1</td>
<td>29.0</td>
<td>11.1</td>
<td>100.0 (569)</td>
<td>2.97</td>
</tr>
<tr>
<td>중소도시</td>
<td>12.3</td>
<td>21.3</td>
<td>25.7</td>
<td>11.6</td>
<td>100.0 (455)</td>
<td>3.06</td>
</tr>
<tr>
<td>농어촌</td>
<td>16.9</td>
<td>26.1</td>
<td>26.1</td>
<td>14.8</td>
<td>100.0 (142)</td>
<td>2.87</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22.8</td>
<td>31.4</td>
<td>23.1</td>
<td>16.0</td>
<td>100.0 (636)</td>
<td>2.52</td>
</tr>
<tr>
<td>여성</td>
<td>3.8</td>
<td>13.4</td>
<td>28.4</td>
<td>40.8</td>
<td>100.0 (530)</td>
<td>3.56</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0-44세</td>
<td>16.3</td>
<td>22.1</td>
<td>23.5</td>
<td>27.6</td>
<td>10.5</td>
<td>100.0 (362)</td>
</tr>
<tr>
<td>45-49세</td>
<td>19.2</td>
<td>25.9</td>
<td>21.6</td>
<td>23.9</td>
<td>9.4</td>
<td>100.0 (255)</td>
</tr>
<tr>
<td>50-54세</td>
<td>9.6</td>
<td>27.1</td>
<td>22.7</td>
<td>28.2</td>
<td>12.4</td>
<td>100.0 (291)</td>
</tr>
<tr>
<td>55-59세</td>
<td>11.2</td>
<td>17.8</td>
<td>26.0</td>
<td>29.1</td>
<td>15.9</td>
<td>100.0 (258)</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34.8</td>
<td>38.5</td>
<td>14.8</td>
<td>9.6</td>
<td>2.2</td>
<td>100.0 (135)</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9.4</td>
<td>23.4</td>
<td>25.7</td>
<td>28.9</td>
<td>12.6</td>
<td>100.0 (522)</td>
</tr>
<tr>
<td>미혼</td>
<td>13.4</td>
<td>19.1</td>
<td>23.4</td>
<td>30.3</td>
<td>13.8</td>
<td>100.0 (508)</td>
</tr>
<tr>
<td>교육수준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14.3</td>
<td>17.1</td>
<td>25.7</td>
<td>22.9</td>
<td>20.0</td>
<td>100.0 (35)</td>
</tr>
<tr>
<td>중학교</td>
<td>11.1</td>
<td>20.4</td>
<td>20.4</td>
<td>31.5</td>
<td>16.7</td>
<td>100.0 (54)</td>
</tr>
<tr>
<td>고등학교</td>
<td>13.8</td>
<td>25.6</td>
<td>20.3</td>
<td>28.6</td>
<td>11.8</td>
<td>100.0 (399)</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14.7</td>
<td>22.6</td>
<td>25.6</td>
<td>26.0</td>
<td>11.1</td>
<td>100.0 (673)</td>
</tr>
</tbody>
</table>
##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특성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그리저 그렇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14.2</td>
<td>24.8</td>
<td>22.6</td>
<td>26.1</td>
<td>12.3</td>
<td>100.0 (973)</td>
<td>2.98</td>
</tr>
<tr>
<td>비취업</td>
<td>14.0</td>
<td>15.5</td>
<td>27.5</td>
<td>33.2</td>
<td>9.8</td>
<td>100.0 (193)</td>
<td>3.09</td>
</tr>
</tbody>
</table>

### 직업

<table>
<thead>
<tr>
<th>직업</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13.7</td>
<td>19.6</td>
<td>24.2</td>
<td>32.7</td>
<td>9.8</td>
<td>100.0 (153)</td>
<td>3.05</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18.7</td>
<td>24.2</td>
<td>20.9</td>
<td>20.9</td>
<td>9.8</td>
<td>100.0 (91)</td>
<td>2.96</td>
</tr>
<tr>
<td>상근근로자</td>
<td>16.4</td>
<td>28.7</td>
<td>23.0</td>
<td>22.5</td>
<td>9.4</td>
<td>100.0 (488)</td>
<td>2.80</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4.3</td>
<td>26.6</td>
<td>24.5</td>
<td>35.1</td>
<td>9.6</td>
<td>100.0 (94)</td>
<td>3.19</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10.8</td>
<td>15.3</td>
<td>19.8</td>
<td>34.2</td>
<td>19.8</td>
<td>100.0 (111)</td>
<td>3.37</td>
</tr>
<tr>
<td>기타</td>
<td>12.5</td>
<td>12.5</td>
<td>21.9</td>
<td>25.0</td>
<td>28.1</td>
<td>100.0 (32)</td>
<td>3.44</td>
</tr>
</tbody>
</table>

### 가구소득

<table>
<thead>
<tr>
<th>가구소득</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99만원 이하</td>
<td>13.3</td>
<td>18.5</td>
<td>26.2</td>
<td>28.2</td>
<td>13.8</td>
<td>100.0 (195)</td>
<td>3.11</td>
</tr>
<tr>
<td>100-199만원</td>
<td>7.1</td>
<td>21.4</td>
<td>25.4</td>
<td>31.4</td>
<td>14.6</td>
<td>100.0 (280)</td>
<td>3.25</td>
</tr>
<tr>
<td>200-299만원</td>
<td>13.6</td>
<td>20.1</td>
<td>18.7</td>
<td>36.6</td>
<td>11.0</td>
<td>100.0 (273)</td>
<td>3.11</td>
</tr>
<tr>
<td>300-399만원</td>
<td>15.4</td>
<td>27.5</td>
<td>25.8</td>
<td>20.3</td>
<td>11.0</td>
<td>100.0 (182)</td>
<td>2.84</td>
</tr>
<tr>
<td>400-499만원</td>
<td>15.7</td>
<td>31.5</td>
<td>29.2</td>
<td>15.7</td>
<td>7.9</td>
<td>100.0 (89)</td>
<td>2.69</td>
</tr>
<tr>
<td>500-599만원</td>
<td>22.6</td>
<td>25.8</td>
<td>19.4</td>
<td>21.0</td>
<td>11.3</td>
<td>100.0 (62)</td>
<td>2.73</td>
</tr>
<tr>
<td>600-699만원</td>
<td>41.2</td>
<td>35.3</td>
<td>17.6</td>
<td>0.0</td>
<td>5.9</td>
<td>100.0 (17)</td>
<td>1.94</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26.3</td>
<td>35.1</td>
<td>19.3</td>
<td>12.3</td>
<td>7.0</td>
<td>100.0 (57)</td>
<td>2.39</td>
</tr>
</tbody>
</table>

### 독거기간

<table>
<thead>
<tr>
<th>독거기간</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2년 미만</td>
<td>21.4</td>
<td>26.8</td>
<td>27.7</td>
<td>17.9</td>
<td>6.3</td>
<td>100.0 (112)</td>
<td>2.61</td>
</tr>
<tr>
<td>2-5년 미만</td>
<td>16.3</td>
<td>28.6</td>
<td>23.0</td>
<td>25.4</td>
<td>6.7</td>
<td>100.0 (252)</td>
<td>2.78</td>
</tr>
<tr>
<td>5-10년 미만</td>
<td>12.1</td>
<td>20.5</td>
<td>25.9</td>
<td>29.3</td>
<td>12.1</td>
<td>100.0 (239)</td>
<td>3.09</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11.7</td>
<td>22.9</td>
<td>21.2</td>
<td>31.5</td>
<td>12.6</td>
<td>100.0 (349)</td>
<td>3.10</td>
</tr>
<tr>
<td>20년 이상</td>
<td>14.1</td>
<td>18.3</td>
<td>22.5</td>
<td>25.4</td>
<td>19.7</td>
<td>100.0 (213)</td>
<td>3.18</td>
</tr>
</tbody>
</table>

### 독거이유

<table>
<thead>
<tr>
<th>독거이유</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혼자 살 수 있는 장대력</td>
<td>7.0</td>
<td>19.1</td>
<td>28.7</td>
<td>31.3</td>
<td>13.9</td>
<td>100.0 (115)</td>
<td>3.26</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4.4</td>
<td>15.7</td>
<td>23.0</td>
<td>37.7</td>
<td>19.2</td>
<td>100.0 (427)</td>
<td>3.52</td>
</tr>
<tr>
<td>직장/학업</td>
<td>23.0</td>
<td>32.0</td>
<td>21.4</td>
<td>17.8</td>
<td>5.8</td>
<td>100.0 (309)</td>
<td>2.51</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22.4</td>
<td>25.3</td>
<td>23.7</td>
<td>22.0</td>
<td>6.6</td>
<td>100.0 (241)</td>
<td>2.65</td>
</tr>
<tr>
<td>기타</td>
<td>16.1</td>
<td>32.1</td>
<td>25.0</td>
<td>16.1</td>
<td>10.7</td>
<td>100.0 (56)</td>
<td>2.73</td>
</tr>
</tbody>
</table>

### 미래전망

<table>
<thead>
<tr>
<th>미래전망</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지금과 비슷</td>
<td>10.7</td>
<td>22.0</td>
<td>27.2</td>
<td>28.7</td>
<td>11.5</td>
<td>100.0 (478)</td>
<td>3.08</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짐</td>
<td>17.5</td>
<td>23.0</td>
<td>21.4</td>
<td>27.0</td>
<td>11.1</td>
<td>100.0 (496)</td>
<td>2.91</td>
</tr>
<tr>
<td>지금보다 나빠짐</td>
<td>13.0</td>
<td>27.6</td>
<td>19.5</td>
<td>24.9</td>
<td>15.1</td>
<td>100.0 (185)</td>
<td>3.02</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그저 그렇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의지할 사람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0명</td>
<td>24.1</td>
<td>17.6</td>
<td>27.8</td>
<td>18.5</td>
<td>12.0</td>
<td>100.0 (108)</td>
<td>2.77</td>
</tr>
<tr>
<td>1명</td>
<td>15.5</td>
<td>18.3</td>
<td>25.4</td>
<td>12.7</td>
<td>100.0 (71)</td>
<td>3.01</td>
<td></td>
</tr>
<tr>
<td>2명</td>
<td>13.7</td>
<td>23.3</td>
<td>22.8</td>
<td>11.9</td>
<td>100.0 (219)</td>
<td>3.01</td>
<td></td>
</tr>
<tr>
<td>3명</td>
<td>10.4</td>
<td>22.9</td>
<td>27.3</td>
<td>10.8</td>
<td>100.0 (231)</td>
<td>3.06</td>
<td></td>
</tr>
<tr>
<td>4명</td>
<td>11.9</td>
<td>25.7</td>
<td>24.8</td>
<td>7.9</td>
<td>100.0 (101)</td>
<td>2.96</td>
<td></td>
</tr>
<tr>
<td>5명</td>
<td>14.0</td>
<td>25.7</td>
<td>18.0</td>
<td>30.2</td>
<td>12.2</td>
<td>100.0 (222)</td>
<td>3.01</td>
</tr>
<tr>
<td>6명 이상</td>
<td>15.2</td>
<td>23.9</td>
<td>21.8</td>
<td>23.9</td>
<td>15.2</td>
<td>100.0 (197)</td>
<td>3.00</td>
</tr>
<tr>
<td>삶의 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매우만족</td>
<td>15.9</td>
<td>12.5</td>
<td>10.2</td>
<td>21.6</td>
<td>39.8</td>
<td>100.0 (88)</td>
<td>3.57</td>
</tr>
<tr>
<td>만족</td>
<td>11.5</td>
<td>20.8</td>
<td>19.9</td>
<td>34.7</td>
<td>13.2</td>
<td>100.0 (418)</td>
<td>3.17</td>
</tr>
<tr>
<td>그저 그렇다</td>
<td>13.2</td>
<td>24.1</td>
<td>30.3</td>
<td>23.9</td>
<td>8.3</td>
<td>100.0 (468)</td>
<td>2.90</td>
</tr>
<tr>
<td>만족하지 않음</td>
<td>17.3</td>
<td>34.0</td>
<td>21.3</td>
<td>23.3</td>
<td>4.0</td>
<td>100.0 (150)</td>
<td>2.63</td>
</tr>
<tr>
<td>전혀 만족하지 않음</td>
<td>35.7</td>
<td>21.4</td>
<td>16.7</td>
<td>16.7</td>
<td>9.5</td>
<td>100.0 (42)</td>
<td>2.43</td>
</tr>
<tr>
<td>독거생활 만족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매우만족</td>
<td>4.5</td>
<td>4.5</td>
<td>8.2</td>
<td>20.9</td>
<td>61.8</td>
<td>100.0 (110)</td>
<td>4.31</td>
</tr>
<tr>
<td>만족</td>
<td>4.3</td>
<td>15.0</td>
<td>24.0</td>
<td>44.7</td>
<td>12.1</td>
<td>100.0 (488)</td>
<td>3.45</td>
</tr>
<tr>
<td>그저 그렇다</td>
<td>14.6</td>
<td>32.2</td>
<td>33.2</td>
<td>17.6</td>
<td>2.5</td>
<td>100.0 (398)</td>
<td>2.61</td>
</tr>
<tr>
<td>만족하지 않음</td>
<td>39.2</td>
<td>46.2</td>
<td>10.8</td>
<td>3.8</td>
<td>-</td>
<td>100.0 (130)</td>
<td>1.79</td>
</tr>
<tr>
<td>전혀 만족하지 않음</td>
<td>76.9</td>
<td>10.3</td>
<td>2.6</td>
<td>5.1</td>
<td>5.1</td>
<td>100.0 (39)</td>
<td>1.51</td>
</tr>
</tbody>
</table>

주: 1) 평균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향후 독거 희망이 높음을 의미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4절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

1. 독거기간 및 독거 이유

본 절에서는 60세 이상자로 홀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1,307명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기 1인가구의 평균 독거기간은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독거기간은 약 12년이다. 특히 연령
이 높은 평균 기간이 간네, 이는 일반 혼인 생활기 시작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 80세 이상인 경우 평균 독거기간이 17년이다. 이외에도 지역별로는 거주지역이 농어촌 지역수록, 교육수준이 낮수록 독거기간이 길네 이는 농어촌 지역 거주 고령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표 6-22〉60대 이상 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기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2년 미만</th>
<th>2-5년 미만</th>
<th>5-10년 미만</th>
<th>10-20년 미만</th>
<th>이상</th>
<th>계(명)</th>
<th>평균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9.3</td>
<td>17.8</td>
<td>22.2</td>
<td>27.7</td>
<td>23.0</td>
<td>(1,307)</td>
<td>142.64</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9.7</td>
<td>21.2</td>
<td>21.0</td>
<td>28.5</td>
<td>19.7</td>
<td>(463)</td>
<td>131.21</td>
</tr>
<tr>
<td>중소도시</td>
<td>8.6</td>
<td>17.5</td>
<td>23.4</td>
<td>26.6</td>
<td>23.8</td>
<td>(428)</td>
<td>143.98</td>
</tr>
<tr>
<td>농어촌</td>
<td>9.6</td>
<td>14.2</td>
<td>22.4</td>
<td>27.9</td>
<td>26.0</td>
<td>(416)</td>
<td>153.99</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1.5</td>
<td>21.3</td>
<td>23.3</td>
<td>25.9</td>
<td>18.0</td>
<td>(305)</td>
<td>121.21</td>
</tr>
<tr>
<td>여성</td>
<td>8.7</td>
<td>16.7</td>
<td>21.9</td>
<td>28.2</td>
<td>24.6</td>
<td>(1,002)</td>
<td>149.17</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64세</td>
<td>11.4</td>
<td>22.7</td>
<td>25.9</td>
<td>23.5</td>
<td>16.5</td>
<td>(255)</td>
<td>112.80</td>
</tr>
<tr>
<td>65-69세</td>
<td>12.8</td>
<td>20.4</td>
<td>20.0</td>
<td>27.5</td>
<td>19.2</td>
<td>(265)</td>
<td>126.99</td>
</tr>
<tr>
<td>70-74세</td>
<td>9.9</td>
<td>16.7</td>
<td>27.9</td>
<td>28.6</td>
<td>17.0</td>
<td>(294)</td>
<td>122.87</td>
</tr>
<tr>
<td>75-79세</td>
<td>5.6</td>
<td>17.2</td>
<td>21.3</td>
<td>28.5</td>
<td>27.3</td>
<td>(267)</td>
<td>157.89</td>
</tr>
<tr>
<td>80세 이상</td>
<td>6.6</td>
<td>11.1</td>
<td>14.2</td>
<td>30.5</td>
<td>37.6</td>
<td>(226)</td>
<td>202.39</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7.6</td>
<td>13.2</td>
<td>21.8</td>
<td>27.5</td>
<td>29.8</td>
<td>(687)</td>
<td>166.32</td>
</tr>
<tr>
<td>중학교</td>
<td>14.3</td>
<td>20.6</td>
<td>21.7</td>
<td>25.7</td>
<td>17.7</td>
<td>(175)</td>
<td>125.05</td>
</tr>
<tr>
<td>고등학교</td>
<td>8.4</td>
<td>25.3</td>
<td>21.4</td>
<td>30.2</td>
<td>14.7</td>
<td>(285)</td>
<td>114.27</td>
</tr>
<tr>
<td>전문대학 이하</td>
<td>13.2</td>
<td>20.0</td>
<td>25.8</td>
<td>26.4</td>
<td>14.7</td>
<td>(159)</td>
<td>111.25</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10.4</td>
<td>18.9</td>
<td>25.6</td>
<td>24.4</td>
<td>20.7</td>
<td>(328)</td>
<td>127.57</td>
</tr>
<tr>
<td>비취업</td>
<td>8.9</td>
<td>17.4</td>
<td>21.1</td>
<td>28.8</td>
<td>23.8</td>
<td>(978)</td>
<td>147.83</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8.0</td>
<td>15.2</td>
<td>21.0</td>
<td>29.7</td>
<td>26.1</td>
<td>(955)</td>
<td>155.18</td>
</tr>
<tr>
<td>100만원 이상</td>
<td>13.2</td>
<td>24.9</td>
<td>25.5</td>
<td>22.6</td>
<td>13.8</td>
<td>(341)</td>
<td>106.46</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그렇다면 이들 고령자가 혼자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가 함께 살고 있던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혼자 살게 된 상황이 가장 많아 47.8%에 달하고 있다. 다음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17.2%,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 싫어서가 8.4%의 순이다. 또한 혼자 살 경제력이 있어서라는 이유가 7.0%, 건강해서가 4.0%로, 고령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독거가 36.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해서가 5.5%, 기족의 직장 또는 학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2.8%로 비자발적인 독거는 8.3%에 불과하다. 즉 고령자의 독거는 대부분 사망 또는 결혼 등의 자연스러운 가족상황의 변화로 인한 것이거나 고령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의 제특성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가 높은 반면 농어촌의 경우는 삶고 있는 곳을 떠나기 싫어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세대의 학업과 결혼 등으로 인하여 도시로 이주한 후 자녀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평생 살던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는 고령자가 11.3%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노인에 비하여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혼자 살고 있다는 응답이 높다. 또한 이러한 응답도 연령이 높음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교육수준의 경우는 이러한 응답률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기 싫어서 또는 자녀가 따로 살기 위해서는 응답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음수록 혼자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또는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것과 대조된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낮음수록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혼자 살게 되었다는 응답률이 높다.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219

표 6-23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이유

<table>
<thead>
<tr>
<th>특성</th>
<th>혼자 살 경제력 있어서</th>
<th>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th>
<th>나의 직장 학업 때문에 같이 살 기죽이 있어서</th>
<th>살고 있는 곳을 따로 살기 원해서</th>
<th>자녀가</th>
<th>건강해서 기타 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7.0 17.2 2.8 47.8 8.4 5.5 4.0 7.4 100.0 (1,3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td>
<td>대도시 8.3 19.2 4.1 45.4 5.5 5.2 4.6 7.6 100.0 (45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중소도시 7.9 15.9 2.6 47.7 8.6 5.8 4.0 7.5 100.0 (42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농어촌 4.6 16.4 1.4 50.6 11.3 5.3 3.4 7.0 100.0 (41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성별</td>
<td>남성 7.6 21.2 4.6 36.4 8.3 4.3 5.3 12.3 100.0 (3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여성 6.8 16.0 2.2 51.3 8.4 5.8 3.6 5.9 100.0 (99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60-64세 11.0 33.5 14.2 31.1 0.0 0.0 0.0 10.2 100.0 (25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5-69세 9.2 18.7 0.0 42.0 6.5 7.3 7.3 9.2 100.0 (26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0-74세 7.5 12.3 0.0 50.5 12.6 6.5 3.8 6.8 100.0 (29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5-79세 3.4 10.9 0.0 53.9 12.7 5.6 6.7 6.7 100.0 (26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80세 이상 3.6 11.1 0.0 62.7 9.3 8.0 1.8 3.6 100.0 (2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수준</td>
<td>초등학교이하 3.2 14.7 1.2 55.2 10.8 7.4 2.6 4.8 100.0 (68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중학교 9.1 17.7 2.3 43.4 9.1 4.0 4.0 10.3 100.0 (17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학교 10.2 20.4 4.9 40.4 4.6 3.2 7.4 9.1 100.0 (28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대학)이상 15.5 21.9 6.5 33.5 3.9 2.6 3.9 12.3 100.0 (15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근로여부</td>
<td>취업 11.0 17.5 8.3 39.0 6.1 4.6 3.4 10.1 100.0 (32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비취업 5.6 17.1 0.9 50.8 9.1 5.7 4.2 6.4 100.0 (97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가구소득</td>
<td>99만원 이하 3.5 15.0 1.0 53.3 9.3 6.7 3.6 7.6 100.0 (95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00만원 이상 16.0 23.7 7.4 32.9 5.6 2.1 5.3 6.8 100.0 (3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2. 독거생활의 어려움 및 좋은 점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의 72.2%가 힘든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힘들다는 응답률이 높다. 또한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해 할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다. 이렇게 힘든 점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40.4%이며, 다음이 경제적인 불안감으로 25.7%,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 처리의 어려움이 15.0%,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이 14.3%이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고령자의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성별 차이는 두드러진다. 즉, 남성고령자의 경우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 처리의 어려움을 언급한 비율이 28.9%로 제일 높으며 여성고령자의 10.8%의 약 3배 규모에 달하고 있다. 반면 여성고령자의 경우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0%로 남성고령자의 28.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고령자에 비하여 남성고령자의 경우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21.6%와 12.1%로 남녀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고령자의 경우는 경제적 불안감이라는 응답이 29.0%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남성고령자의 14.7%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고령자의 경우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 처리의 어려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이라는 응답이 각각 28.9%, 28.4%, 21.6% 등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고령자의 경우는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이 압도적인 어려움으로 44.0%에 달하고 있고 다
음이 경제적 불안감으로 29.0%,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12.1%, 가사일 등 일상생활문제 처리의 어려움이 10.8%의 순이다. 즉 여성고령자는 주요 수발자인 배우자가 없는데서 발생하는 수발자 부재와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성이 큰 어려움인 것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은수록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노인연령기준이 65세 미만인 경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언급한 비율도 14.4%에 달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시간이 짧은 편이며 사회참여에의 욕구가 높을 전기고령자는 사회적 고립감을, 심리적 의존성 중대에 따라 후기고령자는 신체적인 수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은수록 가사일 등 일상생활문제 처리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적인 불안감을 언급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30.3%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에는 12.1%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수준별로는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언급한 비율은 비례하는 반면 경제적 불안감을 언급한 비율은 반비례하여 교육수준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독거이유별로도 어려운 점이 상이한데, 자녀가 따로 살기 원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이들에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가사일 등 일상생활문제처리의 어려움을 언급한 비율은 매우 낮다. 반면 가족의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는 일상생활문제 처리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높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독자성을 독거 이유로 언급한 고령자의 경우는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자족할 여유가 없는 경우 경제적 불안감이라는 응답이 높고 자족률이 높은 경우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을 언급한 비율이 높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낮
올수록 경제적 불안감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고령자에게서는 일상생활 문제처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률이 높다. 경제 상태에 대한 미래전망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가진 경우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고령자의 경우는 심리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응답이 많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진 고령자는 심리적인 문제를 경제적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고령자는 경제적인 문제를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독거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독거 자체보다는 이들 고령자가 일생동안 경험해온 경험과 축적되어 있는 자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6-24〉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힘든 점과 좋은 점이 있는 비율

<table>
<thead>
<tr>
<th>특성</th>
<th>힘든 점 있음</th>
<th>(명)¹</th>
<th>좋은 점 있음</th>
<th>(명)²</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72.2</td>
<td>(1,306)</td>
<td>61.4</td>
<td>(1,296)</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69.3</td>
<td>(463)</td>
<td>69.0</td>
<td>(458)</td>
</tr>
<tr>
<td>중소도시</td>
<td>73.5</td>
<td>(427)</td>
<td>62.4</td>
<td>(426)</td>
</tr>
<tr>
<td>농어촌</td>
<td>74.0</td>
<td>(416)</td>
<td>51.9</td>
<td>(412)</td>
</tr>
<tr>
<td>생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71.5</td>
<td>(305)</td>
<td>55.9</td>
<td>(304)</td>
</tr>
<tr>
<td>여성</td>
<td>72.4</td>
<td>(1,001)</td>
<td>63.1</td>
<td>(992)</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64세</td>
<td>70.9</td>
<td>(254)</td>
<td>75.5</td>
<td>(253)</td>
</tr>
<tr>
<td>65-69세</td>
<td>69.8</td>
<td>(265)</td>
<td>70.5</td>
<td>(264)</td>
</tr>
<tr>
<td>70-74세</td>
<td>74.8</td>
<td>(294)</td>
<td>61.1</td>
<td>(293)</td>
</tr>
<tr>
<td>75-79세</td>
<td>72.7</td>
<td>(267)</td>
<td>52.3</td>
<td>(264)</td>
</tr>
<tr>
<td>80세 이상</td>
<td>72.6</td>
<td>(226)</td>
<td>45.9</td>
<td>(222)</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75.9</td>
<td>(686)</td>
<td>53.2</td>
<td>(679)</td>
</tr>
<tr>
<td>중학교</td>
<td>74.3</td>
<td>(175)</td>
<td>66.3</td>
<td>(175)</td>
</tr>
<tr>
<td>고등학교</td>
<td>67.4</td>
<td>(285)</td>
<td>69.6</td>
<td>(283)</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62.3</td>
<td>(159)</td>
<td>76.6</td>
<td>(158)</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223

<table>
<thead>
<tr>
<th>특성</th>
<th>힘든 점 있음</th>
<th>(명)</th>
<th>좋은 점 있음</th>
<th>(명)</th>
</tr>
</thead>
<tbody>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72.9 (328)</td>
<td>66.2 (325)</td>
<td></td>
<td></td>
</tr>
<tr>
<td>비취업</td>
<td>72.0 (977)</td>
<td>59.9 (970)</td>
<td></td>
<td></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77.8 (954)</td>
<td>55.4 (945)</td>
<td></td>
<td></td>
</tr>
<tr>
<td>100-199만원</td>
<td>57.5 (341)</td>
<td>77.4 (340)</td>
<td></td>
<td></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71.1 (121)</td>
<td>50.8 (122)</td>
<td></td>
<td></td>
</tr>
<tr>
<td>2-5년 미만</td>
<td>65.1 (232)</td>
<td>66.5 (230)</td>
<td></td>
<td></td>
</tr>
<tr>
<td>5-10년 미만</td>
<td>69.7 (290)</td>
<td>61.8 (288)</td>
<td></td>
<td></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73.8 (362)</td>
<td>63.9 (360)</td>
<td></td>
<td></td>
</tr>
<tr>
<td>20년 이상</td>
<td>78.7 (301)</td>
<td>58.4 (296)</td>
<td></td>
<td></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63.7 (91)</td>
<td>79.1 (91)</td>
<td></td>
<td></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60.3 (224)</td>
<td>83.0 (224)</td>
<td></td>
<td></td>
</tr>
<tr>
<td>직장·학업때문에</td>
<td>69.4 (36)</td>
<td>74.3 (35)</td>
<td></td>
<td></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77.3 (622)</td>
<td>54.1 (616)</td>
<td></td>
<td></td>
</tr>
<tr>
<td>거주지 탈나기 싫어서</td>
<td>70.6 (109)</td>
<td>57.9 (107)</td>
<td></td>
<td></td>
</tr>
<tr>
<td>재택근로로 살기 원함</td>
<td>78.9 (71)</td>
<td>39.4 (71)</td>
<td></td>
<td></td>
</tr>
<tr>
<td>건강해서</td>
<td>51.9 (52)</td>
<td>64.7 (51)</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82.1 (95)</td>
<td>54.7 (95)</td>
<td></td>
<td></td>
</tr>
<tr>
<td>경제상태 전망</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금과 비슷</td>
<td>65.0 (640)</td>
<td>62.5 (635)</td>
<td></td>
<td></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질 것임</td>
<td>64.4 (174)</td>
<td>80.3 (173)</td>
<td></td>
<td></td>
</tr>
<tr>
<td>지금보다 나빠질 것임</td>
<td>85.4 (438)</td>
<td>53.3 (435)</td>
<td></td>
<td></td>
</tr>
<tr>
<td>의지할 수 있는 사람</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없음</td>
<td>88.8 (294)</td>
<td>46.6 (292)</td>
<td></td>
<td></td>
</tr>
<tr>
<td>1명</td>
<td>76.3 (139)</td>
<td>51.4 (138)</td>
<td></td>
<td></td>
</tr>
<tr>
<td>2명</td>
<td>74.3 (241)</td>
<td>65.0 (237)</td>
<td></td>
<td></td>
</tr>
<tr>
<td>3명</td>
<td>66.1 (251)</td>
<td>69.4 (248)</td>
<td></td>
<td></td>
</tr>
<tr>
<td>4명</td>
<td>63.2 (136)</td>
<td>68.4 (136)</td>
<td></td>
<td></td>
</tr>
<tr>
<td>5명</td>
<td>61.0 (136)</td>
<td>64.7 (136)</td>
<td></td>
<td></td>
</tr>
<tr>
<td>6명 이상</td>
<td>57.0 (107)</td>
<td>74.8 (107)</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1) 각각 조사대상 전체수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해: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61.6%가 좋은 점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 지역에서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서,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률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또는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해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에는 응답률이 매우 낮다. 이는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거주 형태 결정에 있어서의 자발성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지역으로 측정된 경제적 충분성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이 높고, 미래 전망이 부정적일수록 좋은 점이 있다는 응답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 특성 | 아플때 간호해줄 사람없음 가사일등 일상생활 문제처리 어려움 경제적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기타 계(명) |
|------|-----------------------------------|-----------------------------------|-----------------------------------|-----------------------------------|-----------------------------------|-----------------------------------|-----------------------------------|-----------------------------------|-----------------------------------|-----------------------------------|-----------------------------------|-----------------------------------|-----------------------------------|-----------------------------------|
| 전체 | 40.4 | 15.0 | 25.7 | 1.2 | 2.8 | 14.3 | 0.7 | 100.0 (943)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9.3 | 14.0 | 25.5 | 1.9 | 2.2 | 16.2 | 0.9 | 100.0 (321) |
| 중소도시 | 40.4 | 14.0 | 25.5 | 1.3 | 4.5 | 14.3 | 0.0 | 100.0 (314) |
| 농어촌 | 41.6 | 16.9 | 26.0 | 0.3 | 1.6 | 12.3 | 1.3 | 100.0 (308) |
| 성별 |  |  |  |  |  |  |  |  |
| 남성 | 28.4 | 28.9 | 14.7 | 1.8 | 3.7 | 21.6 | 0.9 | 100.0 (218) |
| 여성 | 44.0 | 10.8 | 29.0 | 1.0 | 2.5 | 12.1 | 0.7 | 100.0 (725) |
| 연령 |  |  |  |  |  |  |  |  |
| 60-64세 | 29.8 | 14.9 | 19.9 | 2.2 | 14.4 | 18.2 | 0.6 | 100.0 (181) |
| 65-69세 | 34.2 | 14.1 | 29.3 | 1.1 | 0.0 | 20.1 | 1.1 | 100.0 (184) |
| 70-74세 | 43.6 | 14.5 | 28.6 | 0.9 | 0.0 | 11.4 | 0.9 | 100.0 (220) |
| 75-79세 | 46.4 | 16.5 | 25.3 | 1.0 | 0.0 | 10.3 | 0.5 | 100.0 (194) |
| 80세 이상 | 47.6 | 14.6 | 24.4 | 0.6 | 0.0 | 12.2 | 0.6 | 100.0 (164) |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아플때 간호해줄 사람없음</th>
<th>가사일등</th>
<th>일상생활 문제처리 어려움</th>
<th>경제적 불안감</th>
<th>안전에 대한 불안감</th>
<th>노후에 대한 불안감</th>
<th>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46.4</td>
<td>11.5</td>
<td>30.3</td>
<td>0.6</td>
<td>1.0</td>
<td>9.4</td>
<td>0.8</td>
<td>100.0(521)</td>
<td></td>
</tr>
<tr>
<td>중학교</td>
<td>32.3</td>
<td>18.5</td>
<td>26.2</td>
<td>0.0</td>
<td>1.5</td>
<td>20.8</td>
<td>0.8</td>
<td>100.0(130)</td>
<td></td>
</tr>
<tr>
<td>고등학교</td>
<td>34.9</td>
<td>18.2</td>
<td>19.3</td>
<td>3.1</td>
<td>6.3</td>
<td>17.2</td>
<td>1.0</td>
<td>100.0(192)</td>
<td></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30.3</td>
<td>22.2</td>
<td>12.1</td>
<td>2.0</td>
<td>7.1</td>
<td>26.3</td>
<td>0.0</td>
<td>100.0(99)</td>
<td></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33.6</td>
<td>19.7</td>
<td>21.0</td>
<td>1.3</td>
<td>7.1</td>
<td>16.4</td>
<td>0.8</td>
<td>100.0(238)</td>
<td></td>
</tr>
<tr>
<td>비취업</td>
<td>42.8</td>
<td>13.2</td>
<td>27.3</td>
<td>1.1</td>
<td>1.3</td>
<td>13.6</td>
<td>0.7</td>
<td>100.0(704)</td>
<td></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42.0</td>
<td>12.9</td>
<td>30.3</td>
<td>0.5</td>
<td>1.9</td>
<td>11.6</td>
<td>0.7</td>
<td>100.0(742)</td>
<td></td>
</tr>
<tr>
<td>100만원 이상</td>
<td>34.7</td>
<td>21.4</td>
<td>8.2</td>
<td>3.6</td>
<td>6.1</td>
<td>25.0</td>
<td>1.0</td>
<td>100.0(196)</td>
<td></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25.3</td>
<td>29.9</td>
<td>20.7</td>
<td>2.3</td>
<td>0.0</td>
<td>18.4</td>
<td>3.4</td>
<td>100.0(87)</td>
<td></td>
</tr>
<tr>
<td>2~5년 미만</td>
<td>41.1</td>
<td>16.6</td>
<td>20.5</td>
<td>2.0</td>
<td>2.0</td>
<td>17.2</td>
<td>0.7</td>
<td>100.0(151)</td>
<td></td>
</tr>
<tr>
<td>5~10년 미만</td>
<td>38.6</td>
<td>15.3</td>
<td>24.8</td>
<td>1.0</td>
<td>4.5</td>
<td>15.3</td>
<td>0.5</td>
<td>100.0(202)</td>
<td></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41.6</td>
<td>13.5</td>
<td>25.8</td>
<td>1.1</td>
<td>3.4</td>
<td>14.2</td>
<td>0.4</td>
<td>100.0(267)</td>
<td></td>
</tr>
<tr>
<td>20년 이상</td>
<td>45.8</td>
<td>9.7</td>
<td>31.4</td>
<td>0.4</td>
<td>2.1</td>
<td>10.2</td>
<td>0.4</td>
<td>100.0(236)</td>
<td></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것에</td>
<td>31.0</td>
<td>20.7</td>
<td>10.3</td>
<td>1.7</td>
<td>6.9</td>
<td>27.6</td>
<td>1.7</td>
<td>100.0(58)</td>
<td></td>
</tr>
<tr>
<td>경제적 여유</td>
<td>43.0</td>
<td>13.3</td>
<td>19.3</td>
<td>1.5</td>
<td>6.7</td>
<td>15.6</td>
<td>0.7</td>
<td>100.0(135)</td>
<td></td>
</tr>
<tr>
<td>직장·학업 때문에</td>
<td>28.0</td>
<td>32.0</td>
<td>16.0</td>
<td>0.0</td>
<td>16.0</td>
<td>8.0</td>
<td>0.0</td>
<td>100.0(25)</td>
<td></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39.2</td>
<td>14.4</td>
<td>30.2</td>
<td>1.3</td>
<td>1.5</td>
<td>12.7</td>
<td>0.8</td>
<td>100.0(480)</td>
<td></td>
</tr>
<tr>
<td>거주지 떠나기 싫어서</td>
<td>44.2</td>
<td>20.8</td>
<td>23.4</td>
<td>0.0</td>
<td>0.0</td>
<td>10.4</td>
<td>1.3</td>
<td>100.0(77)</td>
<td></td>
</tr>
<tr>
<td>자녀가 따로 살기 원함</td>
<td>62.5</td>
<td>1.8</td>
<td>19.6</td>
<td>0.0</td>
<td>0.0</td>
<td>16.1</td>
<td>0.0</td>
<td>100.0(56)</td>
<td></td>
</tr>
<tr>
<td>건강해서</td>
<td>40.7</td>
<td>11.1</td>
<td>29.6</td>
<td>7.4</td>
<td>0.0</td>
<td>11.1</td>
<td>0.0</td>
<td>100.0(27)</td>
<td></td>
</tr>
<tr>
<td>기타</td>
<td>30.4</td>
<td>17.7</td>
<td>30.4</td>
<td>0.0</td>
<td>2.5</td>
<td>19.0</td>
<td>0.0</td>
<td>100.0(79)</td>
<td></td>
</tr>
<tr>
<td>경제상태 전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금과 비슷</td>
<td>43.4</td>
<td>16.3</td>
<td>21.6</td>
<td>1.4</td>
<td>2.2</td>
<td>14.6</td>
<td>0.5</td>
<td>100.0(417)</td>
<td></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질 것임</td>
<td>34.8</td>
<td>19.6</td>
<td>18.8</td>
<td>0.9</td>
<td>5.4</td>
<td>18.8</td>
<td>1.8</td>
<td>100.0(112)</td>
<td></td>
</tr>
<tr>
<td>지금보다 나빠질 것임</td>
<td>37.3</td>
<td>12.1</td>
<td>31.9</td>
<td>1.1</td>
<td>2.9</td>
<td>13.9</td>
<td>0.8</td>
<td>100.0(373)</td>
<td></td>
</tr>
<tr>
<td>의지할 수 있는 사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없음</td>
<td>39.8</td>
<td>13.0</td>
<td>33.0</td>
<td>1.5</td>
<td>1.1</td>
<td>11.5</td>
<td>0.0</td>
<td>100.0(261)</td>
<td></td>
</tr>
<tr>
<td>1명</td>
<td>41.5</td>
<td>11.3</td>
<td>33.0</td>
<td>0.9</td>
<td>0.9</td>
<td>10.4</td>
<td>1.9</td>
<td>100.0(106)</td>
<td></td>
</tr>
<tr>
<td>2명</td>
<td>37.4</td>
<td>12.3</td>
<td>27.4</td>
<td>1.7</td>
<td>3.4</td>
<td>16.8</td>
<td>1.1</td>
<td>100.0(179)</td>
<td></td>
</tr>
<tr>
<td>3명</td>
<td>36.1</td>
<td>19.9</td>
<td>22.3</td>
<td>1.2</td>
<td>4.2</td>
<td>15.1</td>
<td>1.2</td>
<td>100.0(166)</td>
<td></td>
</tr>
<tr>
<td>4명</td>
<td>44.2</td>
<td>15.1</td>
<td>22.1</td>
<td>1.2</td>
<td>3.5</td>
<td>14.0</td>
<td>0.0</td>
<td>100.0(86)</td>
<td></td>
</tr>
<tr>
<td>5명</td>
<td>42.2</td>
<td>21.7</td>
<td>10.8</td>
<td>0.0</td>
<td>4.8</td>
<td>20.5</td>
<td>0.0</td>
<td>100.0(83)</td>
<td></td>
</tr>
<tr>
<td>6명 이상</td>
<td>54.1</td>
<td>14.8</td>
<td>11.5</td>
<td>0.0</td>
<td>3.3</td>
<td>14.8</td>
<td>1.6</td>
<td>100.0(61)</td>
<td></td>
</tr>
</tbody>
</table>

주: 1) 무응답은 제외하였습니다.
2) 응답률이 0.1%인 사회적 부정적인 시각은 기타로 합치ました.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독거고령자에게서 좋은 점으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로움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어서 85.1%이다. 다음이 여가·취미활동 등 나 자신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가 9.5%,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다가 5.3% 등이다. 제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독거기간이 길수록 자유로음을 언급하는 비율이 높아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 경우 여가·취미활동 등 나 자신에게 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두 배 정도의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삶의 여유가 다양한 자아실현 활동과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26〉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혼자 살면서 좋은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자유로움</th>
<th>가족부양부담없음</th>
<th>자신에게집중</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85.1%</td>
<td>5.3%</td>
<td>9.5%</td>
<td>100.0% (794)</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85.4%</td>
<td>4.1%</td>
<td>10.5%</td>
<td>100.0% (315)</td>
</tr>
<tr>
<td>중소도시</td>
<td>82.0%</td>
<td>5.6%</td>
<td>12.4%</td>
<td>100.0% (266)</td>
</tr>
<tr>
<td>농어촌</td>
<td>88.7%</td>
<td>6.6%</td>
<td>4.7%</td>
<td>100.0% (213)</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80.6%</td>
<td>4.7%</td>
<td>14.7%</td>
<td>100.0% (170)</td>
</tr>
<tr>
<td>여성</td>
<td>86.4%</td>
<td>5.4%</td>
<td>8.2%</td>
<td>100.0% (624)</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64세</td>
<td>76.8%</td>
<td>5.3%</td>
<td>17.9%</td>
<td>100.0% (190)</td>
</tr>
<tr>
<td>65~69세</td>
<td>84.4%</td>
<td>6.5%</td>
<td>9.1%</td>
<td>100.0% (186)</td>
</tr>
<tr>
<td>70~74세</td>
<td>88.3%</td>
<td>6.1%</td>
<td>5.6%</td>
<td>100.0% (179)</td>
</tr>
<tr>
<td>75~79세</td>
<td>88.3%</td>
<td>5.1%</td>
<td>6.5%</td>
<td>100.0% (137)</td>
</tr>
<tr>
<td>80세이상</td>
<td>92.2%</td>
<td>2.0%</td>
<td>5.9%</td>
<td>100.0% (102)</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이하</td>
<td>90.0%</td>
<td>4.7%</td>
<td>5.3%</td>
<td>100.0% (360)</td>
</tr>
<tr>
<td>중학교</td>
<td>77.6%</td>
<td>8.6%</td>
<td>13.7%</td>
<td>100.0% (116)</td>
</tr>
<tr>
<td>고등학교</td>
<td>83.7%</td>
<td>6.1%</td>
<td>10.3%</td>
<td>100.0% (196)</td>
</tr>
<tr>
<td>전문대학이상</td>
<td>80.2%</td>
<td>2.5%</td>
<td>17.4%</td>
<td>100.0% (121)</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자유로움</th>
<th>가족 부양 부담 없음</th>
<th>자신에게 집중 계(명)</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78.5</td>
<td>7.9</td>
<td>13.5</td>
<td>100.0 (214)</td>
</tr>
<tr>
<td>비취업</td>
<td>87.6</td>
<td>4.3</td>
<td>8.1</td>
<td>100.0 (580)</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87.4</td>
<td>5.0</td>
<td>7.6</td>
<td>100.0 (522)</td>
</tr>
<tr>
<td>100만원 이상</td>
<td>80.6</td>
<td>6.1</td>
<td>13.3</td>
<td>100.0 (263)</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80.6</td>
<td>9.7</td>
<td>9.7</td>
<td>100.0 (62)</td>
</tr>
<tr>
<td>2~5년 미만</td>
<td>83.7</td>
<td>5.2</td>
<td>11.1</td>
<td>100.0 (153)</td>
</tr>
<tr>
<td>5~10년 미만</td>
<td>85.3</td>
<td>4.5</td>
<td>10.1</td>
<td>100.0 (177)</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85.2</td>
<td>5.2</td>
<td>9.6</td>
<td>100.0 (230)</td>
</tr>
<tr>
<td>20년 이상</td>
<td>87.8</td>
<td>4.7</td>
<td>7.6</td>
<td>100.0 (172)</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79.2</td>
<td>8.3</td>
<td>12.5</td>
<td>100.0 (72)</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84.9</td>
<td>3.8</td>
<td>11.3</td>
<td>100.0 (186)</td>
</tr>
<tr>
<td>직장·학업때문에</td>
<td>80.8</td>
<td>3.8</td>
<td>15.4</td>
<td>100.0 (26)</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85.8</td>
<td>6.3</td>
<td>7.9</td>
<td>100.0 (331)</td>
</tr>
<tr>
<td>거주지 떠나기 싫어서</td>
<td>88.7</td>
<td>4.8</td>
<td>6.5</td>
<td>100.0 (62)</td>
</tr>
<tr>
<td>재외가 따로 살기 원함</td>
<td>82.1</td>
<td>3.6</td>
<td>14.3</td>
<td>100.0 (28)</td>
</tr>
<tr>
<td>건강해서</td>
<td>93.9</td>
<td>0.0</td>
<td>6.1</td>
<td>100.0 (33)</td>
</tr>
<tr>
<td>기타</td>
<td>82.7</td>
<td>5.8</td>
<td>11.5</td>
<td>100.0 (52)</td>
</tr>
<tr>
<td>경제상태 전망</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금과 비슷</td>
<td>87.4</td>
<td>4.3</td>
<td>8.3</td>
<td>100.0 (396)</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질 것임</td>
<td>79.1</td>
<td>2.9</td>
<td>18.0</td>
<td>100.0 (139)</td>
</tr>
<tr>
<td>지금보다 나빠질 것임</td>
<td>84.0</td>
<td>9.1</td>
<td>6.9</td>
<td>100.0 (231)</td>
</tr>
<tr>
<td>의지할 수 있는 사람</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없음</td>
<td>88.1</td>
<td>4.4</td>
<td>7.4</td>
<td>100.0 (135)</td>
</tr>
<tr>
<td>1명</td>
<td>91.4</td>
<td>0.0</td>
<td>8.6</td>
<td>100.0 (70)</td>
</tr>
<tr>
<td>2명</td>
<td>80.5</td>
<td>6.5</td>
<td>13.0</td>
<td>100.0 (154)</td>
</tr>
<tr>
<td>3명</td>
<td>80.2</td>
<td>9.9</td>
<td>9.9</td>
<td>100.0 (172)</td>
</tr>
<tr>
<td>4명</td>
<td>89.2</td>
<td>4.3</td>
<td>6.5</td>
<td>100.0 (93)</td>
</tr>
<tr>
<td>5명</td>
<td>84.1</td>
<td>4.5</td>
<td>11.4</td>
<td>100.0 (88)</td>
</tr>
<tr>
<td>6명 이상</td>
<td>90.0</td>
<td>1.3</td>
<td>8.8</td>
<td>100.0 (80)</td>
</tr>
</tbody>
</table>

주: 1)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2) 응답률이 0.1%인 사회의 부정적인 사각은 기타로 합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3. 독거생활 시 필요 사항 및 주요 관심사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가 생각하는 혼자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3.8%가 본인의 건강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이 경제적 능력으로 20.2%, 가까운 친구가 16.4%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건강이라는 응답률이 특히 높은데 이는 농어촌 거주 노인의 연령이 높은 경향이 있어 건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높게 언급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고령자의 경우 건강의 중요성을 언급한 비율이 남성고령자에 비하여 높아 각각 56.5%와 44.7%이다. 반면 남성고령자는 가까운 친구라는 응답이 23.2%로 여성고령자의 14.3%에 비하여 약 9% 포인트 높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이 중요하다는 응답과 경제적 능력이라는 응답은 낮은 반면 가까운 친구라는 응답과 취미활동이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저축실태의 경우도 유사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독거고령자의 경우, 좀 더 상위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친구, 취미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거기간이 길수록 건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독거기간이 긴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나 경제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경우, 본인의 건강과 가까운 친구, 취미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독거고령자의 경우는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월등히 높다.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229

표 6-27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생활시 가장 중요한 점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경제적 능력</th>
<th>가까운 친구</th>
<th>취미 활동</th>
<th>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th>
<th>본인의 건강</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20.2</td>
<td>16.4</td>
<td>2.8</td>
<td>2.8</td>
<td>53.8</td>
<td>4.0</td>
<td>100.0 (1,292)</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19.3</td>
<td>17.8</td>
<td>3.9</td>
<td>3.3</td>
<td>50.8</td>
<td>5.0</td>
<td>100.0 (461)</td>
</tr>
<tr>
<td>중소도시</td>
<td>21.1</td>
<td>17.1</td>
<td>2.6</td>
<td>2.1</td>
<td>53.1</td>
<td>4.0</td>
<td>100.0 (426)</td>
</tr>
<tr>
<td>농어촌</td>
<td>20.1</td>
<td>14.0</td>
<td>1.7</td>
<td>3.1</td>
<td>57.9</td>
<td>3.1</td>
<td>100.0 (413)</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6.9</td>
<td>23.2</td>
<td>5.3</td>
<td>4.3</td>
<td>44.7</td>
<td>5.6</td>
<td>100.0 (302)</td>
</tr>
<tr>
<td>여성</td>
<td>21.1</td>
<td>14.3</td>
<td>2.0</td>
<td>2.4</td>
<td>56.5</td>
<td>3.6</td>
<td>100.0 (998)</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64세</td>
<td>4.8</td>
<td>73.6</td>
<td>9.2</td>
<td>0.0</td>
<td>0.0</td>
<td>12.4</td>
<td>100.0 (250)</td>
</tr>
<tr>
<td>65-69세</td>
<td>28.3</td>
<td>3.8</td>
<td>2.3</td>
<td>3.0</td>
<td>60.8</td>
<td>1.9</td>
<td>100.0 (265)</td>
</tr>
<tr>
<td>70-74세</td>
<td>24.1</td>
<td>1.4</td>
<td>1.0</td>
<td>3.4</td>
<td>67.7</td>
<td>2.4</td>
<td>100.0 (294)</td>
</tr>
<tr>
<td>75-79세</td>
<td>22.2</td>
<td>2.6</td>
<td>1.1</td>
<td>2.3</td>
<td>70.7</td>
<td>1.1</td>
<td>100.0 (266)</td>
</tr>
<tr>
<td>80세 이상</td>
<td>20.0</td>
<td>3.6</td>
<td>0.4</td>
<td>5.8</td>
<td>67.1</td>
<td>3.1</td>
<td>100.0 (225)</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22.7</td>
<td>8.2</td>
<td>0.7</td>
<td>2.9</td>
<td>63.3</td>
<td>2.2</td>
<td>100.0 (684)</td>
</tr>
<tr>
<td>중학교</td>
<td>17.9</td>
<td>19.7</td>
<td>3.5</td>
<td>4.0</td>
<td>48.6</td>
<td>6.3</td>
<td>100.0 (173)</td>
</tr>
<tr>
<td>고등학교</td>
<td>17.0</td>
<td>28.6</td>
<td>5.3</td>
<td>2.1</td>
<td>41.3</td>
<td>5.7</td>
<td>100.0 (283)</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17.0</td>
<td>26.4</td>
<td>6.3</td>
<td>2.5</td>
<td>40.9</td>
<td>6.9</td>
<td>100.0 (159)</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14.4</td>
<td>30.7</td>
<td>4.9</td>
<td>1.2</td>
<td>41.7</td>
<td>7.1</td>
<td>100.0 (326)</td>
</tr>
<tr>
<td>비취업</td>
<td>22.1</td>
<td>11.6</td>
<td>2.1</td>
<td>3.3</td>
<td>57.9</td>
<td>3.1</td>
<td>100.0 (973)</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22.9</td>
<td>12.4</td>
<td>1.2</td>
<td>3.3</td>
<td>57.6</td>
<td>2.7</td>
<td>100.0 (952)</td>
</tr>
<tr>
<td>100만원 이상</td>
<td>12.5</td>
<td>27.3</td>
<td>7.1</td>
<td>1.5</td>
<td>44.2</td>
<td>7.4</td>
<td>100.0 (337)</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20.7</td>
<td>24.0</td>
<td>5.0</td>
<td>2.5</td>
<td>47.1</td>
<td>0.8</td>
<td>100.0 (121)</td>
</tr>
<tr>
<td>2-5년 미만</td>
<td>11.7</td>
<td>22.6</td>
<td>3.0</td>
<td>2.2</td>
<td>53.9</td>
<td>6.5</td>
<td>100.0 (230)</td>
</tr>
<tr>
<td>5-10년 미만</td>
<td>18.3</td>
<td>18.3</td>
<td>2.8</td>
<td>2.4</td>
<td>52.9</td>
<td>5.2</td>
<td>100.0 (289)</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21.6</td>
<td>12.7</td>
<td>1.9</td>
<td>3.6</td>
<td>55.1</td>
<td>5.0</td>
<td>100.0 (361)</td>
</tr>
<tr>
<td>20년 이상</td>
<td>26.4</td>
<td>11.0</td>
<td>2.7</td>
<td>3.0</td>
<td>55.5</td>
<td>1.3</td>
<td>100.0 (299)</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경제적 능력</th>
<th>가까운 친구</th>
<th>취미 활동</th>
<th>대한 사회적 관심</th>
<th>본인의 건강</th>
<th>기타</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17.6</td>
<td>23.1</td>
<td>3.3</td>
<td>2.2</td>
<td>45.1</td>
<td>8.8</td>
<td>100.0 (91)</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16.0</td>
<td>24.7</td>
<td>6.4</td>
<td>0.5</td>
<td>44.3</td>
<td>8.2</td>
<td>100.0 (219)</td>
</tr>
<tr>
<td>직업·학업때문에</td>
<td>0.0</td>
<td>77.8</td>
<td>13.9</td>
<td>0.0</td>
<td>0.0</td>
<td>8.3</td>
<td>100.0 (36)</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20.5</td>
<td>12.6</td>
<td>1.3</td>
<td>2.7</td>
<td>59.8</td>
<td>3.1</td>
<td>100.0 (620)</td>
</tr>
<tr>
<td>거주지 따나기 싫어서</td>
<td>19.3</td>
<td>2.8</td>
<td>0.9</td>
<td>4.6</td>
<td>71.6</td>
<td>0.9</td>
<td>100.0 (109)</td>
</tr>
<tr>
<td>독거가 따로 살기 원할</td>
<td>26.8</td>
<td>4.2</td>
<td>2.8</td>
<td>7.0</td>
<td>57.7</td>
<td>1.4</td>
<td>100.0 (71)</td>
</tr>
<tr>
<td>건강에서</td>
<td>28.8</td>
<td>3.8</td>
<td>3.8</td>
<td>3.8</td>
<td>59.6</td>
<td>0.0</td>
<td>100.0 (52)</td>
</tr>
<tr>
<td>기타</td>
<td>29.2</td>
<td>25.0</td>
<td>1.0</td>
<td>4.2</td>
<td>37.5</td>
<td>3.1</td>
<td>100.0 (96)</td>
</tr>
</tbody>
</table>

주: 1)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2) 응답률이 0.1%인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기타로 합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가 여유시간이 있을 때 우선시 하는 활동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표 6-28>에 의해 운동·여행 및 취미활동이 28.9%, 친구·이성과의 만남이 19.6%, 봉사활동 또는 종교활동 18.3%, 휴식 16.0%의 순이다. 컴퓨터 배우기 등의 자기개발활동 등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매우 소수인 3.3%이다. 고령자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취미활동이라는 응답이 타 지역 거주자보다 높고, 남성고령자의 경우 여성고령자에 비하여 취미활동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이 약 20% 포인트 높고 봉사활동 또는 종교활동 참여를 우선시 한다는 응답은 7.9%로 여성고령자의 21.4%에 비하여 매우 낮다. 또한 친구·이성과의 만남이라는 응답 또한 15.9%로 여성고령자의 20.7%에 비하여 낮다. 즉 성별로 우선시 하는 활동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남성고령자는 취미활동을 우선시 하는데 비하여 여성고령자는 봉사활동 또는 종교활동 참여와 친구·이성과의 만남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활동을 우선시 하고 있다.
제6장 1인가구 가족의 생활실태와 전망

교육수준별 차이도 큰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과의 만남이나 친구·이성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는데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고령자는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의 경우 자기개발활동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10.1%로 초등학교 이하의 1.2%에 비하여 약 8배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아표현과 관련된 활동에 관심이 높고, 그러한 관심을 구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혼자 생활하는 이유에 따른 응답유형에도 차이가 있다.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경우 취미활동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평균인 28.9%보다 월등히 높은 46.1%이며, 가족원의 취업, 결혼, 사망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는 친구·이성과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가사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높아 12.9%에 달하고 있다.

저축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는 친구·이성과의 만남이나 휴식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수입의 일정부분을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는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활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도 만족도가 낮을수록 휴식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높고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또는 종교활동 응답은 낮다. 또한 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응답자는 봉사활동 또는 종교활동을 중요시하는 반면,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취미활동이 라는 응답률이 낮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하면 경제적 안정성이 있는 고령자는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또는 종교활동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고령자는 대인관계나 휴식과 같이 많은 경제적 자원 없이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6-28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여유시간 우선활동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가족 만남</th>
<th>친구 이상 만남</th>
<th>휴식</th>
<th>운동, 여행, 컴퓨터, 봉사 활동</th>
<th>종교, 가사일</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7.5</td>
<td>19.6</td>
<td>16.0</td>
<td>28.9</td>
<td>3.3</td>
<td>18.3</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7.2</td>
<td>15.0</td>
<td>13.1</td>
<td>33.8</td>
<td>6.1</td>
<td>21.1</td>
</tr>
<tr>
<td>중소도시</td>
<td>5.7</td>
<td>19.0</td>
<td>14.7</td>
<td>30.2</td>
<td>2.1</td>
<td>20.7</td>
</tr>
<tr>
<td>농어촌</td>
<td>9.7</td>
<td>25.2</td>
<td>20.6</td>
<td>22.1</td>
<td>1.5</td>
<td>12.6</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5.3</td>
<td>15.9</td>
<td>15.2</td>
<td>45.0</td>
<td>6.3</td>
<td>7.9</td>
</tr>
<tr>
<td>여성</td>
<td>8.2</td>
<td>20.7</td>
<td>16.3</td>
<td>23.9</td>
<td>2.4</td>
<td>21.4</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64세</td>
<td>6.3</td>
<td>15.4</td>
<td>9.8</td>
<td>43.3</td>
<td>7.5</td>
<td>14.2</td>
</tr>
<tr>
<td>65-69세</td>
<td>8.4</td>
<td>14.1</td>
<td>14.9</td>
<td>36.6</td>
<td>3.1</td>
<td>17.6</td>
</tr>
<tr>
<td>70-74세</td>
<td>8.2</td>
<td>21.2</td>
<td>15.4</td>
<td>24.2</td>
<td>2.0</td>
<td>21.8</td>
</tr>
<tr>
<td>75-79세</td>
<td>5.7</td>
<td>24.0</td>
<td>20.6</td>
<td>19.5</td>
<td>3.1</td>
<td>19.1</td>
</tr>
<tr>
<td>80세 이상</td>
<td>9.0</td>
<td>23.5</td>
<td>19.9</td>
<td>20.4</td>
<td>0.9</td>
<td>18.1</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9.4</td>
<td>24.8</td>
<td>20.6</td>
<td>17.3</td>
<td>1.2</td>
<td>18.0</td>
</tr>
<tr>
<td>중학교</td>
<td>5.8</td>
<td>16.3</td>
<td>16.3</td>
<td>35.5</td>
<td>2.3</td>
<td>17.4</td>
</tr>
<tr>
<td>고등학교</td>
<td>6.0</td>
<td>15.6</td>
<td>9.6</td>
<td>41.5</td>
<td>5.3</td>
<td>18.8</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3.8</td>
<td>8.2</td>
<td>6.9</td>
<td>49.1</td>
<td>10.1</td>
<td>19.5</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7.4</td>
<td>17.0</td>
<td>14.8</td>
<td>34.3</td>
<td>4.3</td>
<td>15.1</td>
</tr>
<tr>
<td>비취업</td>
<td>7.5</td>
<td>20.5</td>
<td>16.4</td>
<td>27.0</td>
<td>3.0</td>
<td>19.3</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8.2</td>
<td>21.8</td>
<td>18.9</td>
<td>22.9</td>
<td>2.2</td>
<td>18.3</td>
</tr>
<tr>
<td>100만원이상</td>
<td>5.0</td>
<td>14.1</td>
<td>8.5</td>
<td>44.6</td>
<td>6.5</td>
<td>18.2</td>
</tr>
<tr>
<td>독가구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8.3</td>
<td>17.4</td>
<td>13.2</td>
<td>35.5</td>
<td>3.3</td>
<td>13.2</td>
</tr>
<tr>
<td>2-5년 미만</td>
<td>8.3</td>
<td>20.4</td>
<td>10.9</td>
<td>33.0</td>
<td>2.6</td>
<td>19.6</td>
</tr>
<tr>
<td>5-10년 미만</td>
<td>9.5</td>
<td>18.2</td>
<td>13.7</td>
<td>34.0</td>
<td>3.9</td>
<td>15.8</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5.0</td>
<td>19.2</td>
<td>15.8</td>
<td>29.4</td>
<td>3.3</td>
<td>19.7</td>
</tr>
<tr>
<td>20년 이상</td>
<td>7.8</td>
<td>21.6</td>
<td>23.6</td>
<td>17.2</td>
<td>3.4</td>
<td>19.9</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233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가족 만남</th>
<th>친구 만남</th>
<th>농사</th>
<th>취미</th>
<th>비주</th>
<th>승용차</th>
<th>가사일</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독거이유</td>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10.1</td>
<td>10.1</td>
<td>12.4</td>
<td>46.1</td>
<td>3.4</td>
<td>15.7</td>
<td>2.2</td>
</tr>
<tr>
<td></td>
<td>자유로운 생활</td>
<td>7.6</td>
<td>18.8</td>
<td>11.2</td>
<td>34.8</td>
<td>5.4</td>
<td>16.5</td>
<td>5.8</td>
</tr>
<tr>
<td></td>
<td>직장-학업때문에</td>
<td>13.9</td>
<td>11.1</td>
<td>13.9</td>
<td>44.4</td>
<td>2.8</td>
<td>11.1</td>
<td>2.8</td>
</tr>
<tr>
<td></td>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6.0</td>
<td>22.1</td>
<td>18.7</td>
<td>23.1</td>
<td>2.8</td>
<td>20.0</td>
<td>7.2</td>
</tr>
<tr>
<td></td>
<td>거주지 떠나기 싫어서</td>
<td>12.1</td>
<td>24.3</td>
<td>17.8</td>
<td>20.6</td>
<td>1.9</td>
<td>15.0</td>
<td>8.4</td>
</tr>
<tr>
<td></td>
<td>재난이 따로 살기 원함</td>
<td>10.0</td>
<td>20.0</td>
<td>14.3</td>
<td>24.3</td>
<td>0.0</td>
<td>18.6</td>
<td>12.9</td>
</tr>
<tr>
<td></td>
<td>건강해서</td>
<td>7.7</td>
<td>17.3</td>
<td>21.2</td>
<td>40.4</td>
<td>0.0</td>
<td>13.5</td>
<td>0.0</td>
</tr>
<tr>
<td></td>
<td>기타</td>
<td>4.3</td>
<td>12.8</td>
<td>11.7</td>
<td>37.2</td>
<td>7.4</td>
<td>21.3</td>
<td>5.3</td>
</tr>
</tbody>
</table>

주: 1)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2) 응답률이 0.1%인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기타로 합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는 본인의 건강을 가장 걱정하고 있어 응답률이 48.1%이며 다음이 가족에 대한 염려로 23.3%, 본인의 노후준비 14.1%, 경제적 준비가 13.9%이다. 이를 계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농어촌지역 거주자, 연령이 높은 고령자, 비취업 고령자에게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두드러진다. 이는 연령이 높은 고령자는 농어촌 거주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는 것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고령자에 비하여 여성고령자에게 있어서 가족에 대한 염려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있다. 더불어 경제적 독자성이 있어서 혼자 살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가족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반면 현재 건강에서 혼자살고 있는 고령자는 본인의 건강약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들 응답자가 신체적 독립이 혼자 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걱정거리는 현재의 생활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저축을 하지 못하는 고령자의 경우는 경제적 준비가 가장 큰 관심사라는 응답이 높으며 가족에 대한 염려라는 응답은 정반
대의 경향성을 보인다. 더불어 경제상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준비라는 응답률이 높고, 가족에 대한 염려라는 응답률이 낮다. 즉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협에 거위 타 가족원의 안위에 대한 염려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은 경제적 준비라는 응답과 반비례하고 있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으면 본인의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염려라는 응답률이 높다. 더불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경제적 준비에 대한 염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자원의 부족이 모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29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걱정거리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생계비</th>
<th>나의 결혼</th>
<th>주택구입 등</th>
<th>나의 건강</th>
<th>나의 노후준비</th>
<th>가족에 대한 염려</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전형</td>
<td>0.6</td>
<td>13.9</td>
<td>48.1</td>
<td>14.1</td>
<td>23.3</td>
<td>100.0 (1,234)</td>
<td></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0.5</td>
<td>15.7</td>
<td>48.1</td>
<td>13.9</td>
<td>21.9</td>
<td>100.0 (439)</td>
<td></td>
</tr>
<tr>
<td>중소도시</td>
<td>0.7</td>
<td>13.3</td>
<td>44.7</td>
<td>16.5</td>
<td>24.7</td>
<td>100.0 (405)</td>
<td></td>
</tr>
<tr>
<td>농어촌</td>
<td>0.8</td>
<td>12.3</td>
<td>51.5</td>
<td>11.8</td>
<td>23.6</td>
<td>100.0 (390)</td>
<td></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2.5</td>
<td>14.3</td>
<td>46.1</td>
<td>18.6</td>
<td>18.6</td>
<td>100.0 (280)</td>
<td></td>
</tr>
<tr>
<td>여성</td>
<td>0.1</td>
<td>13.7</td>
<td>48.6</td>
<td>12.8</td>
<td>24.7</td>
<td>100.0 (954)</td>
<td></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64세</td>
<td>0.8</td>
<td>13.4</td>
<td>41.1</td>
<td>26.4</td>
<td>18.3</td>
<td>100.0 (246)</td>
<td></td>
</tr>
<tr>
<td>65-69세</td>
<td>1.6</td>
<td>14.1</td>
<td>47.4</td>
<td>18.9</td>
<td>18.1</td>
<td>100.0 (249)</td>
<td></td>
</tr>
<tr>
<td>70-74세</td>
<td>0.4</td>
<td>15.1</td>
<td>46.1</td>
<td>11.3</td>
<td>27.1</td>
<td>100.0 (284)</td>
<td></td>
</tr>
<tr>
<td>75-79세</td>
<td>0.0</td>
<td>12.2</td>
<td>55.9</td>
<td>5.7</td>
<td>26.1</td>
<td>100.0 (245)</td>
<td></td>
</tr>
<tr>
<td>80세 이상</td>
<td>0.5</td>
<td>14.3</td>
<td>50.5</td>
<td>7.6</td>
<td>27.1</td>
<td>100.0 (210)</td>
<td></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0.2</td>
<td>15.7</td>
<td>50.5</td>
<td>8.7</td>
<td>24.9</td>
<td>100.0 (654)</td>
<td></td>
</tr>
<tr>
<td>중학교</td>
<td>0.6</td>
<td>10.3</td>
<td>45.5</td>
<td>16.4</td>
<td>27.3</td>
<td>100.0 (165)</td>
<td></td>
</tr>
<tr>
<td>고등학교</td>
<td>1.9</td>
<td>12.4</td>
<td>45.3</td>
<td>23.2</td>
<td>17.2</td>
<td>100.0 (267)</td>
<td></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0.7</td>
<td>11.6</td>
<td>45.6</td>
<td>19.0</td>
<td>23.1</td>
<td>100.0 (147)</td>
<td></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235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생계비</th>
<th>나의 결혼 추락구입 등 나의 건강</th>
<th>나의 노후준비</th>
<th>가족에 대한 염려</th>
<th>계(명)</th>
</tr>
</thead>
<tbody>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1.3</td>
<td>13.8</td>
<td>37.0</td>
<td>22.5</td>
<td>25.4</td>
</tr>
<tr>
<td>비취업</td>
<td>0.4</td>
<td>13.9</td>
<td>51.8</td>
<td>11.3</td>
<td>22.6</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0.4</td>
<td>16.0</td>
<td>48.8</td>
<td>12.5</td>
<td>22.3</td>
</tr>
<tr>
<td>100만원 이상</td>
<td>1.3</td>
<td>7.9</td>
<td>46.5</td>
<td>18.7</td>
<td>25.6</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0.0</td>
<td>15.4</td>
<td>47.0</td>
<td>11.1</td>
<td>26.5</td>
</tr>
<tr>
<td>2~5년 미만</td>
<td>0.5</td>
<td>9.9</td>
<td>54.5</td>
<td>13.1</td>
<td>22.1</td>
</tr>
<tr>
<td>5~10년 미만</td>
<td>0.7</td>
<td>13.8</td>
<td>44.7</td>
<td>15.3</td>
<td>25.5</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1.5</td>
<td>15.6</td>
<td>47.9</td>
<td>13.8</td>
<td>21.2</td>
</tr>
<tr>
<td>20년 이상</td>
<td>0.0</td>
<td>14.3</td>
<td>46.8</td>
<td>15.4</td>
<td>23.6</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1.2</td>
<td>8.1</td>
<td>36.0</td>
<td>20.9</td>
<td>33.7</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1.0</td>
<td>11.5</td>
<td>48.8</td>
<td>13.9</td>
<td>24.9</td>
</tr>
<tr>
<td>직장:학업때문에</td>
<td>0.0</td>
<td>11.4</td>
<td>37.1</td>
<td>22.9</td>
<td>28.6</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0.3</td>
<td>15.7</td>
<td>51.7</td>
<td>11.6</td>
<td>20.6</td>
</tr>
<tr>
<td>거주지 떠나기 싫어서</td>
<td>2.0</td>
<td>8.9</td>
<td>45.5</td>
<td>14.9</td>
<td>28.7</td>
</tr>
<tr>
<td>재직자로 살기 원함</td>
<td>0.0</td>
<td>15.7</td>
<td>50.0</td>
<td>10.0</td>
<td>24.3</td>
</tr>
<tr>
<td>건강해서</td>
<td>0.0</td>
<td>4.2</td>
<td>60.4</td>
<td>14.6</td>
<td>20.8</td>
</tr>
<tr>
<td>기타</td>
<td>1.1</td>
<td>22.3</td>
<td>33.0</td>
<td>22.3</td>
<td>21.3</td>
</tr>
<tr>
<td>경제상태 전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금과 비슷</td>
<td>0.5</td>
<td>10.2</td>
<td>53.2</td>
<td>11.5</td>
<td>24.7</td>
</tr>
<tr>
<td>지금보다 나아질 것임</td>
<td>2.5</td>
<td>12.3</td>
<td>41.4</td>
<td>16.7</td>
<td>27.2</td>
</tr>
<tr>
<td>지금보다 나빠질 것임</td>
<td>0.2</td>
<td>18.7</td>
<td>43.7</td>
<td>18.0</td>
<td>19.4</td>
</tr>
</tbody>
</table>

| 의지할 수 있는 사람 |  |  |  |  |  |
| 없음 | 1.1  | 19.9  | 47.9  | 12.1  | 19.1  | 100.0 (282) |
| 1명 | 1.5  | 19.4  | 44.8  | 11.2  | 23.1  | 100.0 (134) |
| 2명 | 0.4  | 12.3  | 48.7  | 18.4  | 20.2  | 100.0 (228) |
| 3명 | 0.8  | 11.4  | 47.3  | 14.3  | 26.2  | 100.0 (237) |
| 4명 | 0.0  | 9.4  | 50.4  | 9.4  | 30.7  | 100.0 (127) |
| 5명 | 0.0  | 9.7  | 43.5  | 19.4  | 27.4  | 100.0 (124) |
| 6명 이상 | 0.0  | 9.9  | 56.4  | 11.9  | 21.8  | 100.0 (101) |

주: 1)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2) 응답률이 0.1%인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기타로 합하였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4. 독거생활의 만족도 및 향후 전망

고령 독거생활자의 3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고 43.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5%로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 수준을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대도시지역 거주자, 여성고령자, 연령이 낮은 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수록, 독거기간이 길수록 높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거이유별로는 경제적 독립성이 있어서 혼자 사는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아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5%에 불과하며 평균 만족도가 3.70점인 반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혼자 살아 되는 고령자의 경우 25.0%가 불만족하고 있고 평균만족도가 2.98점에 불과하다. 또한 삶의 만족도와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가 클수록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와는 관련성이 없어, 사회적 관계의 내용보다는 규모가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6-30〉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독거생활 만족도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형만족하지 않음</th>
<th>만족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만족</th>
<th>매우 만족</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7.4</td>
<td>12.1</td>
<td>43.8</td>
<td>28.3</td>
<td>8.4</td>
<td>100.0 (1,305)</td>
<td>3.18</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5.4</td>
<td>9.5</td>
<td>43.3</td>
<td>30.3</td>
<td>11.5</td>
<td>100.0 (462)</td>
<td>3.33</td>
</tr>
<tr>
<td>중소도시</td>
<td>6.1</td>
<td>11.2</td>
<td>47.1</td>
<td>28.8</td>
<td>6.8</td>
<td>100.0 (427)</td>
<td>3.19</td>
</tr>
<tr>
<td>농어촌</td>
<td>11.1</td>
<td>15.9</td>
<td>41.1</td>
<td>25.5</td>
<td>6.5</td>
<td>100.0 (416)</td>
<td>3.00</td>
</tr>
</tbody>
</table>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 237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만족하지 않음</th>
<th>만족하지 않음</th>
<th>그렇지 그렇다</th>
<th>만족</th>
<th>매우 만족</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9.5</td>
<td>15.4</td>
<td>43.3</td>
<td>24.3</td>
<td>7.5</td>
<td>100.0 (305)</td>
<td>3.05</td>
</tr>
<tr>
<td>여성</td>
<td>6.8</td>
<td>11.1</td>
<td>44.0</td>
<td>29.5</td>
<td>8.6</td>
<td>100.0 (1,000)</td>
<td>3.22</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64세</td>
<td>3.5</td>
<td>10.6</td>
<td>42.4</td>
<td>35.7</td>
<td>7.8</td>
<td>100.0 (255)</td>
<td>3.34</td>
</tr>
<tr>
<td>65~69세</td>
<td>3.4</td>
<td>9.1</td>
<td>46.2</td>
<td>29.5</td>
<td>11.7</td>
<td>100.0 (264)</td>
<td>3.37</td>
</tr>
<tr>
<td>70~74세</td>
<td>7.5</td>
<td>11.6</td>
<td>44.6</td>
<td>29.9</td>
<td>6.5</td>
<td>100.0 (294)</td>
<td>3.16</td>
</tr>
<tr>
<td>75~79세</td>
<td>11.3</td>
<td>11.3</td>
<td>44.4</td>
<td>25.2</td>
<td>7.9</td>
<td>100.0 (266)</td>
<td>3.07</td>
</tr>
<tr>
<td>80세 이상</td>
<td>11.9</td>
<td>19.0</td>
<td>41.2</td>
<td>19.9</td>
<td>8.0</td>
<td>100.0 (226)</td>
<td>2.93</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9.8</td>
<td>14.6</td>
<td>45.3</td>
<td>22.7</td>
<td>7.6</td>
<td>100.0 (686)</td>
<td>3.04</td>
</tr>
<tr>
<td>중학교</td>
<td>5.1</td>
<td>11.4</td>
<td>42.3</td>
<td>32.6</td>
<td>8.6</td>
<td>100.0 (175)</td>
<td>3.28</td>
</tr>
<tr>
<td>고등학교</td>
<td>6.3</td>
<td>7.0</td>
<td>41.9</td>
<td>35.6</td>
<td>9.2</td>
<td>100.0 (284)</td>
<td>3.34</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1.9</td>
<td>11.3</td>
<td>42.8</td>
<td>34.0</td>
<td>10.1</td>
<td>100.0 (159)</td>
<td>3.39</td>
</tr>
<tr>
<td>근로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4.0</td>
<td>11.6</td>
<td>46.6</td>
<td>30.2</td>
<td>7.6</td>
<td>100.0 (328)</td>
<td>3.26</td>
</tr>
<tr>
<td>비취업</td>
<td>8.6</td>
<td>12.2</td>
<td>42.9</td>
<td>27.7</td>
<td>8.6</td>
<td>100.0 (976)</td>
<td>3.15</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9.6</td>
<td>13.5</td>
<td>46.1</td>
<td>24.1</td>
<td>6.6</td>
<td>100.0 (954)</td>
<td>3.05</td>
</tr>
<tr>
<td>100만원 이상</td>
<td>1.5</td>
<td>8.5</td>
<td>37.4</td>
<td>39.7</td>
<td>12.9</td>
<td>100.0 (340)</td>
<td>3.54</td>
</tr>
<tr>
<td>독거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9.1</td>
<td>13.2</td>
<td>46.3</td>
<td>23.1</td>
<td>8.3</td>
<td>100.0 (121)</td>
<td>3.08</td>
</tr>
<tr>
<td>2~5년 미만</td>
<td>7.8</td>
<td>9.1</td>
<td>45.3</td>
<td>31.5</td>
<td>6.5</td>
<td>100.0 (232)</td>
<td>3.20</td>
</tr>
<tr>
<td>5~10년 미만</td>
<td>5.5</td>
<td>12.8</td>
<td>43.4</td>
<td>30.7</td>
<td>7.6</td>
<td>100.0 (290)</td>
<td>3.22</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6.9</td>
<td>12.4</td>
<td>43.6</td>
<td>27.9</td>
<td>9.1</td>
<td>100.0 (362)</td>
<td>3.20</td>
</tr>
<tr>
<td>20년 이상</td>
<td>9.0</td>
<td>13.0</td>
<td>42.3</td>
<td>26.0</td>
<td>9.7</td>
<td>100.0 (300)</td>
<td>3.14</td>
</tr>
<tr>
<td>독거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2.2</td>
<td>3.3</td>
<td>31.9</td>
<td>47.3</td>
<td>15.4</td>
<td>100.0 (91)</td>
<td>3.70</td>
</tr>
<tr>
<td>자유로운 생활</td>
<td>1.8</td>
<td>4.5</td>
<td>31.3</td>
<td>45.1</td>
<td>17.4</td>
<td>100.0 (224)</td>
<td>3.72</td>
</tr>
<tr>
<td>직장·학업 때문에</td>
<td>0.0</td>
<td>13.9</td>
<td>55.6</td>
<td>25.0</td>
<td>5.6</td>
<td>100.0 (36)</td>
<td>3.22</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9.5</td>
<td>15.5</td>
<td>47.2</td>
<td>23.0</td>
<td>4.8</td>
<td>100.0 (621)</td>
<td>2.98</td>
</tr>
<tr>
<td>거주지 떠나기 싫어서</td>
<td>7.3</td>
<td>8.3</td>
<td>55.0</td>
<td>22.0</td>
<td>7.3</td>
<td>100.0 (109)</td>
<td>3.14</td>
</tr>
<tr>
<td>재취업으로 살기 원함</td>
<td>14.1</td>
<td>21.1</td>
<td>42.3</td>
<td>16.9</td>
<td>5.6</td>
<td>100.0 (71)</td>
<td>2.79</td>
</tr>
<tr>
<td>건강해서</td>
<td>3.8</td>
<td>9.6</td>
<td>38.5</td>
<td>40.4</td>
<td>7.7</td>
<td>100.0 (52)</td>
<td>3.38</td>
</tr>
<tr>
<td>기타</td>
<td>12.6</td>
<td>14.7</td>
<td>49.5</td>
<td>14.7</td>
<td>8.4</td>
<td>100.0 (95)</td>
<td>2.92</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만족하지 않음</th>
<th>만족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만족</th>
<th>매우 만족</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경제상태 전망</td>
<td>지급과 비슷</td>
<td>4.8</td>
<td>8.9</td>
<td>45.5</td>
<td>32.0</td>
<td>8.8</td>
<td>100.0 (640)</td>
</tr>
<tr>
<td>지급보다 나아질 것임</td>
<td>2.9</td>
<td>8.6</td>
<td>33.3</td>
<td>35.6</td>
<td>19.5</td>
<td>100.0 (174)</td>
<td>3.60</td>
</tr>
<tr>
<td>지급보다 나빠질 것임</td>
<td>12.4</td>
<td>17.4</td>
<td>46.7</td>
<td>20.1</td>
<td>3.4</td>
<td>100.0 (437)</td>
<td>2.85</td>
</tr>
<tr>
<td>의지할 수 있는 사람</td>
<td>없음</td>
<td>16.0</td>
<td>18.4</td>
<td>43.7</td>
<td>18.8</td>
<td>3.1</td>
<td>100.0 (293)</td>
</tr>
<tr>
<td>1명</td>
<td>10.8</td>
<td>12.2</td>
<td>45.3</td>
<td>21.6</td>
<td>10.1</td>
<td>100.0 (139)</td>
<td>3.08</td>
</tr>
<tr>
<td>2명</td>
<td>3.7</td>
<td>13.7</td>
<td>49.4</td>
<td>27.0</td>
<td>6.2</td>
<td>100.0 (241)</td>
<td>3.18</td>
</tr>
<tr>
<td>3명</td>
<td>2.8</td>
<td>7.6</td>
<td>44.6</td>
<td>35.9</td>
<td>9.2</td>
<td>100.0 (251)</td>
<td>3.41</td>
</tr>
<tr>
<td>4명</td>
<td>8.1</td>
<td>7.4</td>
<td>43.4</td>
<td>26.5</td>
<td>14.7</td>
<td>100.0 (136)</td>
<td>3.32</td>
</tr>
<tr>
<td>5명</td>
<td>2.2</td>
<td>11.8</td>
<td>41.2</td>
<td>36.0</td>
<td>8.8</td>
<td>100.0 (136)</td>
<td>3.38</td>
</tr>
<tr>
<td>6명 이상</td>
<td>4.7</td>
<td>8.4</td>
<td>32.7</td>
<td>41.1</td>
<td>13.1</td>
<td>100.0 (107)</td>
<td>3.50</td>
</tr>
</tbody>
</table>

주: 1)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2) 응답률이 1.1%인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기타로 합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58.2%가 향후 계속 혼자 생활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25.5%는 그리 그렇다. 16.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은 향후도 계속 혼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16.2%라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혼자 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는 혼자 생활하고 싶지 않는다는 응답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높고 남성 고령자에게서 높은데, 남성 고령자는 35.0%로 여성 고령자의 12.1%보다 17.9%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향후는 혼자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으며, 가족의 혼합이나 취업으로 또는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하여 혼자 살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향후는 혼자 생활하고 싶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다.

또한 현재 삶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경우 향후는 혼자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아 약 25%를 넘고 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
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는 혼자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아 약 25%에 달하고 있다.

〈표 6-31〉 60대 이상 1인가구 거주자의 일반특성별 향후 독거 희망

(단위: %, 명)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6.3</td>
<td>9.9</td>
<td>25.5</td>
<td>35.1</td>
<td>23.1</td>
<td>100.0 (1,292)</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6.8</td>
<td>8.3</td>
<td>25.0</td>
<td>34.4</td>
<td>25.4</td>
<td>100.0 (462)</td>
</tr>
<tr>
<td>중소도시</td>
<td>5.0</td>
<td>9.9</td>
<td>29.2</td>
<td>34.0</td>
<td>21.9</td>
<td>100.0 (424)</td>
</tr>
<tr>
<td>농어촌</td>
<td>7.3</td>
<td>11.7</td>
<td>22.3</td>
<td>36.9</td>
<td>21.8</td>
<td>100.0 (412)</td>
</tr>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12.8</td>
<td>17.2</td>
<td>25.3</td>
<td>26.0</td>
<td>18.6</td>
<td>100.0 (296)</td>
</tr>
<tr>
<td>여성</td>
<td>4.4</td>
<td>7.7</td>
<td>25.6</td>
<td>37.8</td>
<td>24.5</td>
<td>100.0 (996)</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0-64세</td>
<td>9.4</td>
<td>12.5</td>
<td>25.1</td>
<td>33.7</td>
<td>19.2</td>
<td>100.0 (255)</td>
</tr>
<tr>
<td>65-69세</td>
<td>2.7</td>
<td>11.8</td>
<td>26.6</td>
<td>31.9</td>
<td>27.0</td>
<td>100.0 (263)</td>
</tr>
<tr>
<td>70-74세</td>
<td>5.8</td>
<td>10.3</td>
<td>23.3</td>
<td>37.3</td>
<td>23.3</td>
<td>100.0 (292)</td>
</tr>
<tr>
<td>75-79세</td>
<td>5.4</td>
<td>5.4</td>
<td>27.4</td>
<td>36.3</td>
<td>25.5</td>
<td>100.0 (259)</td>
</tr>
<tr>
<td>80세</td>
<td>9.0</td>
<td>9.4</td>
<td>25.6</td>
<td>35.9</td>
<td>20.2</td>
<td>100.0 (223)</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6.0</td>
<td>8.5</td>
<td>25.5</td>
<td>35.2</td>
<td>24.7</td>
<td>100.0 (679)</td>
</tr>
<tr>
<td>중학교</td>
<td>5.9</td>
<td>7.1</td>
<td>22.9</td>
<td>38.2</td>
<td>25.9</td>
<td>100.0 (170)</td>
</tr>
<tr>
<td>고등학교</td>
<td>4.6</td>
<td>12.0</td>
<td>27.5</td>
<td>36.3</td>
<td>19.7</td>
<td>100.0 (284)</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11.4</td>
<td>15.2</td>
<td>24.7</td>
<td>29.1</td>
<td>19.6</td>
<td>100.0 (158)</td>
</tr>
<tr>
<td>근로이야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취업</td>
<td>7.1</td>
<td>12.6</td>
<td>26.8</td>
<td>32.0</td>
<td>21.5</td>
<td>100.0 (325)</td>
</tr>
<tr>
<td>비취업</td>
<td>6.0</td>
<td>9.0</td>
<td>25.2</td>
<td>36.1</td>
<td>23.7</td>
<td>100.0 (966)</td>
</tr>
<tr>
<td>가구소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6.3</td>
<td>9.4</td>
<td>26.1</td>
<td>35.5</td>
<td>22.7</td>
<td>100.0 (943)</td>
</tr>
<tr>
<td>100만원 이상</td>
<td>6.8</td>
<td>10.7</td>
<td>24.3</td>
<td>34.6</td>
<td>23.7</td>
<td>100.0 (338)</td>
</tr>
<tr>
<td>독자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 미만</td>
<td>8.3</td>
<td>14.0</td>
<td>21.5</td>
<td>32.2</td>
<td>24.0</td>
<td>100.0 (121)</td>
</tr>
<tr>
<td>2-5년 미만</td>
<td>6.6</td>
<td>9.2</td>
<td>32.5</td>
<td>29.8</td>
<td>21.9</td>
<td>100.0 (228)</td>
</tr>
<tr>
<td>5-10년 미만</td>
<td>3.1</td>
<td>10.8</td>
<td>25.5</td>
<td>40.9</td>
<td>19.6</td>
<td>100.0 (286)</td>
</tr>
<tr>
<td>10-20년 미만</td>
<td>5.6</td>
<td>8.9</td>
<td>25.8</td>
<td>35.3</td>
<td>24.4</td>
<td>100.0 (360)</td>
</tr>
<tr>
<td>20년 이상</td>
<td>9.4</td>
<td>9.1</td>
<td>21.5</td>
<td>34.3</td>
<td>25.6</td>
<td>100.0 (297)</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h>계(명)</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독거이유</td>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7.8</td>
<td>8.9</td>
<td>18.9</td>
<td>30.0</td>
<td>34.4</td>
<td>100.0 (90)</td>
</tr>
<tr>
<td></td>
<td>자유로운 생활</td>
<td>1.8</td>
<td>3.6</td>
<td>19.9</td>
<td>41.6</td>
<td>33.0</td>
<td>100.0 (221)</td>
</tr>
<tr>
<td></td>
<td>직장·학업때문에</td>
<td>13.9</td>
<td>19.4</td>
<td>30.6</td>
<td>27.8</td>
<td>8.3</td>
<td>100.0 (36)</td>
</tr>
<tr>
<td></td>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6.7</td>
<td>10.5</td>
<td>27.8</td>
<td>36.3</td>
<td>18.8</td>
<td>100.0 (612)</td>
</tr>
<tr>
<td></td>
<td>거주지 떠나기 싫어서</td>
<td>2.8</td>
<td>10.2</td>
<td>25.0</td>
<td>37.0</td>
<td>25.0</td>
<td>100.0 (108)</td>
</tr>
<tr>
<td></td>
<td>자녀가 따로 살기 원함</td>
<td>11.3</td>
<td>12.7</td>
<td>31.0</td>
<td>28.2</td>
<td>16.9</td>
<td>100.0 (71)</td>
</tr>
<tr>
<td></td>
<td>건강해서</td>
<td>7.7</td>
<td>3.8</td>
<td>30.8</td>
<td>34.6</td>
<td>23.1</td>
<td>100.0 (52)</td>
</tr>
<tr>
<td></td>
<td>기타</td>
<td>10.4</td>
<td>18.8</td>
<td>20.8</td>
<td>22.9</td>
<td>27.1</td>
<td>100.0 (96)</td>
</tr>
<tr>
<td></td>
<td>경제상태 전망</td>
<td>지금과 비슷</td>
<td>4.9</td>
<td>8.2</td>
<td>25.2</td>
<td>38.5</td>
<td>23.1</td>
</tr>
<tr>
<td></td>
<td>지금보다 나아질 것임</td>
<td>6.9</td>
<td>12.1</td>
<td>20.2</td>
<td>34.7</td>
<td>26.0</td>
<td>100.0 (173)</td>
</tr>
<tr>
<td></td>
<td>지금보다 나빠질 것임</td>
<td>7.6</td>
<td>11.5</td>
<td>28.5</td>
<td>30.3</td>
<td>22.1</td>
<td>100.0 (435)</td>
</tr>
<tr>
<td></td>
<td>의지할 수 있는 사람</td>
<td>없음</td>
<td>14.1</td>
<td>10.7</td>
<td>24.1</td>
<td>30.7</td>
<td>20.3</td>
</tr>
<tr>
<td></td>
<td></td>
<td>1명</td>
<td>6.5</td>
<td>15.2</td>
<td>22.5</td>
<td>30.4</td>
<td>25.4</td>
</tr>
<tr>
<td></td>
<td></td>
<td>2명</td>
<td>3.4</td>
<td>8.8</td>
<td>27.3</td>
<td>36.6</td>
<td>23.9</td>
</tr>
<tr>
<td></td>
<td></td>
<td>3명</td>
<td>4.4</td>
<td>8.4</td>
<td>28.4</td>
<td>36.8</td>
<td>22.0</td>
</tr>
<tr>
<td></td>
<td></td>
<td>4명</td>
<td>4.5</td>
<td>8.3</td>
<td>25.6</td>
<td>34.6</td>
<td>27.1</td>
</tr>
<tr>
<td></td>
<td></td>
<td>5명</td>
<td>3.0</td>
<td>8.2</td>
<td>30.6</td>
<td>36.6</td>
<td>21.6</td>
</tr>
<tr>
<td></td>
<td></td>
<td>6명 이상</td>
<td>2.8</td>
<td>11.2</td>
<td>15.9</td>
<td>43.9</td>
<td>26.2</td>
</tr>
<tr>
<td></td>
<td>살의 만족도</td>
<td>매우 만족</td>
<td>7.6</td>
<td>6.3</td>
<td>8.9</td>
<td>20.3</td>
<td>57.0</td>
</tr>
<tr>
<td></td>
<td></td>
<td>만족</td>
<td>4.7</td>
<td>7.0</td>
<td>16.7</td>
<td>47.3</td>
<td>24.3</td>
</tr>
<tr>
<td></td>
<td></td>
<td>그저 그렇다</td>
<td>4.1</td>
<td>9.1</td>
<td>32.7</td>
<td>35.2</td>
<td>18.8</td>
</tr>
<tr>
<td></td>
<td></td>
<td>만족하지 않음</td>
<td>10.2</td>
<td>15.6</td>
<td>25.9</td>
<td>29.8</td>
<td>18.5</td>
</tr>
<tr>
<td></td>
<td></td>
<td>전혀 만족하지 않음</td>
<td>15.5</td>
<td>14.6</td>
<td>21.4</td>
<td>20.4</td>
<td>28.2</td>
</tr>
<tr>
<td></td>
<td>독거생활 만족도</td>
<td>매우 만족</td>
<td>0.9</td>
<td>1.9</td>
<td>6.5</td>
<td>13.1</td>
<td>77.6</td>
</tr>
<tr>
<td></td>
<td></td>
<td>만족</td>
<td>1.6</td>
<td>4.1</td>
<td>12.3</td>
<td>56.9</td>
<td>25.1</td>
</tr>
<tr>
<td></td>
<td></td>
<td>그저 그렇다</td>
<td>3.4</td>
<td>11.3</td>
<td>39.1</td>
<td>31.4</td>
<td>14.7</td>
</tr>
<tr>
<td></td>
<td></td>
<td>만족하지 않음</td>
<td>15.5</td>
<td>23.9</td>
<td>20.6</td>
<td>25.8</td>
<td>14.2</td>
</tr>
<tr>
<td></td>
<td></td>
<td>전혀 만족하지 않음</td>
<td>33.7</td>
<td>10.5</td>
<td>25.3</td>
<td>12.6</td>
<td>17.9</td>
</tr>
</tbody>
</table>

주: 1) 무응답은 제외하였습니다.
2) 응답률이 0.1%인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기타로 합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Pivot (1인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제5절 종합

1인가구의 생활실태에 관한 전화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1인가구 생활실태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서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다. 20~30대의 경우 농어촌 거주율이 낮기는 하지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1인가구 거주자의 상대적인 독거기간이 길고 심리적인 불안감,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 반면 40~50대의 경우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가족의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처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이들 연령대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유배우 상태에서 소위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는 사람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60대 이후 고령자의 경우 농어촌 거주 비율이 약 1/3에 달할 뿐만 아니라 독거기간도 긴데, 이는 이들 상당수가 자녀의 학업,취업,결혼 등으로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였지만 평생 살아온 지역사회를 떠나기 싫어서 독거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 거주하는 1인가구 고령자는 비하여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다. 한편, 이들 농어촌 지역 고령 1인가구 거주자는 여유시각이 있을 때 운동,여행,취미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 보다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소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 차이 또한 크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적인 남녀차이와 더불어 생애단계별 남녀차이의 양상이 상이한 측면 또한 존재한다. 모든 연령대에 있어 공통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여유시간이 있으 면 운동,여행,취미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다. 반면 여성은 봉사 및 종교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편인데 그러한 경향은 40대 이후부터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두드러진다.

한편, 60대 이전 연령대의 경우 남성의 독거기간이 여성에 비하여 긴 반면 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 여성의 독거기간이 남성에 비하여 길다. 이는 평균수명에 있어 남녀차이와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40~50대 중년층의 경우 혼자 생활하고 있는 이유에 있어 남녀차이가 두드러져, 남성은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혼자 생활하고 있고, 여성은 자유롭고 싶거나 경제력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한 경우가 많다.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내용에 있어서도 남녀차이가 크다. 20~30대의 남성은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을, 20~30대의 여성은 경제적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40~50대의 경우 남성은 가사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심리적 불안감·외로움, 여성은 경제적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60대 이상의 경우 남성은 가사 등 일상생활 문제 처리의 어려움을, 여성은 이들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즉 60대 이전의 남성은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40대 이후의 중노년층 남성 1인가구 거주자는 일상생활 수행상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성은 도구적인 측면, 즉 경제적, 수발 등의 도움과 관련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20~30대의 미혼여성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60대 초반까지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혼자 생활하는데 있어 가까운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60대 후반부터는 자신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60대 후반부터 여유시간이 있을 때 운동·여행·취미활동을 한다는 응답률이 감소하여 노년기의 생활의 활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한편, 55~59세 연령군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노후준비를 걱정거리라는 응답률이 □형
제6장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전망  243

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40~50대의 중년층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다. 40~50대의 중년층의 경우 미혼과 결혼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별, 이혼, 별거상태인 응답자의 규모가 비슷한데, 이들간의 독거기간과 독거이유에 있어 차이가 크다. 미혼의 경우 독거기간이 유배우자에 비하여 훨씬 길며 (각각 162.82개월과 93.34개월), 미혼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별, 이혼, 별거의 경우는 함께 살 가족이 없어서라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은 배우자 상실뿐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동거할 수 있는 가족성원도 없는 상황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중년의 미혼 1인가구 거주자는 일상생활 수행상의 어려움을 사별, 이혼, 별거상태인 중년의 1인가구 거주자는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한편 중년의 미혼 1인가구 거주자는 혼자 생활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사별, 이혼, 별거인 경우는 가까운 친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실제 제3자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요소와 현재의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다.
7장

인가구 대표유형의 삶과 생활세계
본 장에서는 질적 접근을 통하여 파악된 대표적인 1인가구 거주자의 삶과 생활세계를 살펴보고 주요하게 도출된 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각 연령대별로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된 주요 이유가 상이하며, 라이프 스타일과 주요 관심사, 향후 1인가구 거주 유지 여부에 대한 전망도 상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령대별로 대표적인 1인가구 거주자에 집중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제7장 1인가구 대표유형의 삶과 생활세계

제1절 30대 미혼 1인가구 거주자의 삶과 생활세계

1. 개요

본 절에서는 30대 미혼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로서의 생활, 라이프스타일, 결혼에 대한 생각, 사회관계망 등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0~30대 1인가구의 유형도 연령대와 이혼경험 등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대상을 특정화하였다. 2011년 평균 초혼연령이 남성 31.9세, 여성 29.1세이므로 20대보다는 30대 미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40~50대 1인가구 연구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이혼자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서는 결혼 경험이 없는 30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 3월, 30대 미혼 1인가구 남녀 6명을 집단면접(FGI)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면접의 대상, 주제 등을 결정하였다. 심층면접은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였으며, 남성 7명과 여성 5명을 일대일 심층면접 하였다.

가. 집단면접 참여자의 기본특성

집단면접 참여자는 남성 2명, 여성 4명 총 6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 1명과 여성 2명은 이혼자이고 나머지는 미혼자이다. 참여자를 모집할 때 30대 1인가구라는 조건 외에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혼자 비율이 반이 되었다.

집단면접에서는 남성은 30대 초반이고 여성은 30대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와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잘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들은 대체로 결혼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1인가구로서의 생활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여성들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혼자들 중에서도 남성 이혼자는 다시 재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 이혼자는 그러한 전망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차이가 성별에 따른 차이인지, 연령대에 따른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다양한 연령대의 심층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나. 심층면접 참여자의 기본특성

심층면접 참여자는 남성 7명, 여성 5명 총 12명이었으며, 연령대는 만 29세에서 만 39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만 연령을 기준으로 33세 이하가 4명, 34~36세가 4명, 37~39세가 4명이었다. 30대 후반 참여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4명, 대학 졸업자가 7명,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1명이었다.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독립하여 1인가구로 살고 있는 경우는 3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고향이 지방이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울 9명, 경기도(고양, 의왕, 용인) 3명이었는데 경기도에 사는 사례는 모두 남성이었다. 30대 1인가구들이 사는 곳은 주로 원룸이나 빌라인데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7명,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4명, 부모님 명의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가 1명이었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직업은 회사원 4명, 어린이집 교사 1명, 기술직 1명, 고시준비생 1명, 커피숍 아르바이트 1명, 자영업 1명, 약사 1명, 비정규직 용역업체 근무 2명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하나도 없는 사례 1명, 200만원 미만이 7명, 300~400만원대로 4명이었다.

독거기간은 5년 미만이 2명, 5~9년이 6명, 10년 이상이 4명으로 장
기간 독거생활을 하는 1인가구들이 주로 표집되었다. 이러한 독거기간은 연령대와 고향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지방 출신들은 20대 초반부터, 서울 출신은 30대 이후부터 1인가구로서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30대 1인가구 심층면접 참여자의 기본 특성

<table>
<thead>
<tr>
<th>사례번호</th>
<th>성별</th>
<th>만연령</th>
<th>학력</th>
<th>고향</th>
<th>직업</th>
<th>월수입</th>
<th>거주지</th>
<th>거주 형태</th>
</tr>
</thead>
<tbody>
<tr>
<td>사례A1</td>
<td>여</td>
<td>36</td>
<td>고졸</td>
<td>서울</td>
<td>회사원</td>
<td>200미만</td>
<td>종로구</td>
<td>원룸 (전세)</td>
</tr>
<tr>
<td>사례A2</td>
<td>남</td>
<td>38 (10)</td>
<td>대졸</td>
<td>대구</td>
<td>고시 준비</td>
<td>-</td>
<td>관악구</td>
<td>원룸 (월세)</td>
</tr>
<tr>
<td>사례A3</td>
<td>여</td>
<td>35 (10)</td>
<td>석사</td>
<td>광주</td>
<td>약사</td>
<td>약350</td>
<td>강동구</td>
<td>오피스텔 (자가)</td>
</tr>
<tr>
<td>사례A4</td>
<td>여</td>
<td>33 (1)</td>
<td>고졸</td>
<td>서울</td>
<td>비정규직 회사</td>
<td>200미만</td>
<td>동작구</td>
<td>원룸 (월세)</td>
</tr>
<tr>
<td>사례A5</td>
<td>남</td>
<td>35 (5)</td>
<td>대졸</td>
<td>충남보령</td>
<td>회사원</td>
<td>약300</td>
<td>서초구</td>
<td>방배동 (전세)</td>
</tr>
<tr>
<td>사례A6</td>
<td>남</td>
<td>34 (10)</td>
<td>대졸</td>
<td>서울</td>
<td>보험사</td>
<td>약350</td>
<td>노원구</td>
<td>원룸 (전세)</td>
</tr>
<tr>
<td>사례A7</td>
<td>여</td>
<td>29 (6)</td>
<td>대졸</td>
<td>충남예산</td>
<td>어린이집 교사</td>
<td>약150</td>
<td>양천구</td>
<td>빌라 (전세)</td>
</tr>
<tr>
<td>사례A8</td>
<td>남</td>
<td>38 (6)</td>
<td>고졸</td>
<td>전남강성</td>
<td>사영업</td>
<td>약150</td>
<td>용인시</td>
<td>빌라 (전세)</td>
</tr>
<tr>
<td>사례A9</td>
<td>여</td>
<td>30 (8)</td>
<td>대졸</td>
<td>대전</td>
<td>카페숍 알바</td>
<td>약140</td>
<td>용산구</td>
<td>원룸 (월세)</td>
</tr>
<tr>
<td>사례A10</td>
<td>남</td>
<td>38 (5)</td>
<td>대졸</td>
<td>지방</td>
<td>APT 관리소</td>
<td>약190</td>
<td>경기도</td>
<td>빌라 (전세)</td>
</tr>
<tr>
<td>사례A11</td>
<td>남</td>
<td>39 (3)</td>
<td>대졸</td>
<td>서울</td>
<td>의류회사</td>
<td>약400</td>
<td>노원구</td>
<td>전체</td>
</tr>
<tr>
<td>사례A12</td>
<td>남</td>
<td>33 (10)</td>
<td>고졸</td>
<td>울진</td>
<td>비정규직 유동</td>
<td>약150</td>
<td>용인시</td>
<td>원룸 (월세)</td>
</tr>
</tbody>
</table>
제7장 1인가구 대표유형의 삶과 생활세계  •  251

2. 30대 미혼 1인가구의 형성과정과 경제적 독립

가. 30대 미혼 1인가구의 형성과정

30대 미혼 1인가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1인가구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된 가장 빈번한 사유는 취업과 관련되어 있었다. 고향이 지방인데 서울로 대학 진학하면서 올라온 경우는 한 명 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 근처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결정을 하면서 1인가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향이 서울인 사람들을 중에는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 지방으로 옮겨 혹은 이사를 하게 되면서 혼자 서울에 남게 된 사례들도 있었고, 서른이 넘으면서 부모님과 지속적인 갈등이 생겨서 독립한 사례들도 있었다.

지방에서 취업 때문에 서울로 이주한 경우에는 처음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살거나 친척집에서 산 경우도 있었지만, 형제가 결혼한 후 자연스럽게 혼자 살게 되거나 친척집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여 결국에는 독립하였다.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불편한 일이라고 얘기하였다. 연세가 든 부모님과 생활습관이나 리듬이 다르고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계속 일상생활에 간섭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였다.

스물여섯 살, 스물일곱 살 때부터 나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침 일곱시에 일어나야 하면 아침밥도 드시면서 저יחה 왜 아침밥을 안 먹냐면, 왜 아침을 안 먹느냐고 일요일에 일곱시부터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계조금. 그런데 지금은 주말에 늦게까지 자겨도. 그런계 좋은 거 같아요(사례A4).
개인적인 공간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존중은 1인가구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고, 1인가구로 살게 된 후 가장 좋은 점 역시 혼자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신의 생활리듬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좁아도 자신의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혼자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절대하는 사람이 없다. 1인가구들이 말하는 생활리듬이라는 것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TV 보고 싶을 때 보고, TV 채널가지고 싸울 필요 없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스케줄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편하다.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스케줄 짜 수 있다. 야구중계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본다(사례A2).

 굉장히 자유로움. TV 보고 싶을 때 보고, 채널가지고 싸울 일 없고(사례A3).

그 공간 안에서는 다 내 공간이니까. 욕실도 같이 안 써도 되고. 다 내공간이라는 그런 게 좋았다(사례A9).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리듬은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1인가구로서 사는 가장 큰 장점이며 혜택이다. 참여자 12명 중 8명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살아 본 경험이 있다. 형이나 남동생, 여동생, 고모네 식구들, 룸메이트, 회사 숙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 본 경험이 있다. 그 때의 경험상 마음편하게 잠을 잘 수 없고, 써는 게 불편하고, 먹는 것이 불편했다.

혼자 사는 라이프스타일과 생활리듬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진다. 형제자매도 예외는 아니다. 참여자 중 세 사람이 현재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 이들은 모두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같이 살 계획은 없다.

현재 고시준비를 하고 있는 사례A2는 형이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
다가 형이 결혼하면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 형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되었지만 같이 살지 않는다.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받아 실정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지만 만약 지금 생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면 같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부모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는데, 형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요. 아무래도 저는 아까 말 속도였다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고, 형님도 아무래도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사례A2).

1인가구들은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간이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본인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공간이나 시간에 다른 사람이 침범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후배나 친구들이 집에 와 먹칠씩 있는 것도 점점 불편해지고, 새로 사귄 여자친구가 자신의 스케줄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자친구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하던 활동들이 축소되는 것도 싫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30대 1인가구들은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크게 생겨서 부모님에게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집에 와 있고 그러하던 누가 오래 있으면 같이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음. 혼자 있으니까 성격이 괴팍해 지는 것 같아. 내 중심적으 로, 불편하게 느끼지고, 내 기준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사례A8).

간접, 상대방, 주변의 간섭이 없다는 점. 질 때는 편히 쉬고 여자친구 생기면서 ‘지금 어디져 있어?’ 확인하고, 스케줄 없고 그렇게 불편하다(사례A5).
나. 30대 미혼 1인가구의 경제적 독립

30대 미혼 1인가구들은 주로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이들이 1인가구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6명이었다. 약사를 하고 있는 사례A3은 전세로 산다가 현재는 부모님의 명의로 산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다.

사업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례A2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으며, 부모님에게 가끔 용돈을 드리는 정도의 부양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 현재 스스로 전세금을 마련하여 사는 경우는 네 명(사례A1, 사례A8, 사례A10, 사례A11)인데 이들은 모두 30대 후반이며 그 중 두 명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

사례A2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상태이지만, 1인가구로 살면서 급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카페에서 근무하는 사례A9는 카드대금이 연체될 때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례A11의 경우에는 예전에 주식투자를 할 때 부모님에게 큰 신세를 진 적이 있다.

혼자 살면서, 아무리도 경제적으로 사고를 많이 찔라가 힘들면 계속 엄마한테 기대너가 공공 달다가 가벼고 이렇게 솔직히 많이요. 제가 좀 창피한 일이지만 카드 값이 감당이 안 되고, 대출 받는 것도 많고, 오죽하면 여성우대 대출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요. 제 주변에 대출 안 받은 친구는 가족이랑 같이 사는 친구 Kai 사례A9

현재는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상태이지만 사례A9나 사례A12처럼 직업이 자주 바뀌고 불안정한 사례들은 경제적 독립 자체도 위태롭다. 이 두 사례는 현재 약 월 15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월세로 각각 40만원과 35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관리비나 공공요금 포함하면 평균 50만원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
원을 지출한다. 교통비로 약 10만원, 핸드폰비가 6~10만원이 기본적으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고, 여기에 식비를 30만원 정도 사용한다. 사례A9의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전 빚을 갚는 형식으로 월 30~50만원을 송금하고 사례A12는 월 30만원을 적금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적으로 1인가구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세후 소득이 190만원에서 200만원 초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50만원 가지고 집세라도 나머지 관리비라도, 공과금 같은 걸 50만원으로 해결해요. 그리고 30만원을 식대로 쏟니다. 그리고 10만원 가지고 교통비, 나머지 핸드폰비라도 나머지. 그러면 40만원 정도가 잘 봐 50정도가 남아요. 그게 갖고 한 30만원은 적금 넣고 적금 넣고 20만원 갖고 개인적인 여유. 한 달에 쓰는 게 그 정도 근데 안 쓴 것 쓰면 돈 남아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안 나가면 안 쓰게 되니까(사례A12).

비슷한 수준의 수입이 있는 사례A7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라는 정규직 직업이 있고 서울로 올라올 때 부모님이 전세금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월세의 부담이 없다. 사례A7은 월 평균 150만원 수입에서 자기개발이나 여행, 취미활동을 위해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카페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례A9는 월평균 수입이 140만원으로 10만원 차이지만, 아직은 편이라 경제적 부담감을 크게 안고 있으며 심층 면접 내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소득이 없는 사례를 제외하고 1인가구들은 모두 연금이나 적금, 보험등에 가입하여 적제는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월 100만원 이상의 저축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도 50~90만원 사이의 저축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향후 결혼준비를 위해서도 계속 혼자 살게 된다면 경제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현재 수준에서 그 대비를 하고 있었다.
가. 1인가구 생활의 어려움

30대 미혼 1인가구는 1인가구로서 생활하는 장점과 혜택 때문에 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려움이나 힘든 점도 있다고 하였다.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부모님과 같이 살 때에 비해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점, 특히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식재료나 생활용품 모두 소단위로 판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가격 때문에 대용량을 사면 식재료는 남아서 버리고 생활용품은 들고 가기 힘들었다고 호소하였다.

혼자 있는 보니가 정말 아쉬운 게 될 해먹고, 요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혼자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는 경우가 거의 적어요. 인스턴트 냉동식품 돼 있지만 잘라서 판다고는 하지만 신선도나 가격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이다보니까 사놓는다고 해도 그렇가 하루가 그렇게 앞서고 한다고 해서 먹지를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해보니가 버리는 음식물의 양이 쓰레기기와 더 많은데 그냥 친구들과 연락해서 많이 저녁 먹고 들어가거나 간단히 먹고, 아니면 데인트 한다고 저녁 들고(사례A7).

왜 난 이만큼 밖에 안 싨는데, 이제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환지도 네 팩짜리 여섯 팩짜리가 더 비싸고 그러느냐 30가지에 팩을 사는데, 2000원 차이인데 나는 이러고 혼자 사는데 이걸 나눠먹고 갖고 가는 그런, 발생율을 다 하게 되더라도 요(사례A9).

남성들은 식사준비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 청소, 빨래 등 집안 일을 혼자 다하고, 모든 덮리를 혼자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도 1인 가구의 힘든 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남성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집안일을 하지 않다가 혼자 살면서 직접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사례A8)”를 느끼게 된다.

여성들 중에는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하는 것을 어려운 일로 언급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대신 여성들은 안전 문제를 많이 언급하였다.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집을 구할 때 안전한 곳인지지를 일차적으로 따지고, 밤에 다닐 때 조심하고, 문단속도 철저히 하고, 밤에 일찍 잠들지 않고, 배달도 가급적 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성들이 혼자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조심하였다.

밤에 아무래도 혼자 산다는 것을 무서워서 일찍 잠들기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녀가 주택가이고 아파트단지가 아니면 조금 덜할텐데 경비가 있다거나 그런 텐데, 결국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는데, 약간 놀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뉴스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누가 따라오는 거 같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밤에 되면 소리가 예민해졌어요(사례A7).

나. 정서적 문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어려움 외에도 1인가구로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남성들, 특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남성들이었다. 혼자 살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기델 곳이 없고 외로울 때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결에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하였다. 불편함이나 우울증, 대인경피증 때문에 약을 먹거나 전문 상담사를 찾아간 경우도 세 명이나 있었다(사례A2, 사례A10, 사례A12).

고시준비를 하는 사례A2는 일 년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식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가족과 같이 살 때는 다른 사람들 잘 때 자기도 자 chave 되지만, 혼자 살면
잠이 안 오면 벌더라도 가다리다가 결국 밤을 새게 되는 일이 혼하다고
하였었다. 신기하게도 고향에 내려가면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는데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였다.

1인가구 중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남성들은 “기분 좋은 때는 팬
 RuntimeException 체플러가 기대하고 싶을 때는 마음이 우울하고 불
거진 집에 들어오기 싫으며(사례A8)”,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아프고 찌그라보고
(사례A10),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내 스스로가 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거야(사례A12)”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진다.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 모임의 회비도 부담스럽고, 외식비도 부담스럽다. 친구들에게 매
번 신세를 지는 것도 미안하고 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니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약간 멀리하는 것이 같고, 그래서 자기도 선뜻 못 따라
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사례A12).

한편, 혼자 살면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도 어려운 일 중에 하
나겠지만 남성도, 여성도 이를 먼저 언급한 경우에는 없었다. 남성들은 지
금은 욕구가 크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20대도 아니고, 욕구가 치솟는다
그럼진 않고(사례A6),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는 여자친구와 2주일에 한
번은 여행을 가고 그 때 성관계를 가지고(사례A6), 동호회에서 만난
“편한 친구 같은 여성들과, 기본이 좋으면 할 수도 있고(사례A8)”, 아니
면 혼자 자위를 통해서 해소한다(사례A10).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1인가구 남성들은 다른 사람들인 1인가구를 부
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다른 1인가구에게서
는 표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례A8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청승스럽다”고 하였고, 사례A10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
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직업이나 소
득 등의 측면에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1인가구로서의 삶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혼자 산다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1인가구로 사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을 때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잖아.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것에요. 혼자서 뭐가 좋을까?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살아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에요. 나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사례A12).

다. 사회적 관계와 여가

1인가구로 생활하는 30대 미혼 남녀에게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과 빈번하게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으며 같이 살 때 있었던 갈등도 따로 살면서 오히려 감소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같이 살 때는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지만, 따로 살면서 그럴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가족관계 외에 사회적 관계는 더욱 중요하다. 1인가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1인가구들은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진짜 세상에 나 혼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혼자 살수록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다(사례A8)”고 말한다. 특히 여성들은 주중에도 거의 매일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정도로(사례A1, 사례A3, 사례A7)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다.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거나 영화나 공연을 보러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이들의 큰 즐거움이다. 등등의 측면에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1인가구로서의 삶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혼자 산다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1인가구로 사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을 때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잖아.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것에요. 혼자서 뭐가 좋을까?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살아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에요. 나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사례A12).

다. 사회적 관계와 여가

1인가구로 생활하는 30대 미혼 남녀에게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과 빈번하게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으며 같이 살 때 있었던 갈등도 따로 살면서 오히려 감소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같이 살 때는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지만, 따로 살면서 그럴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가족관계 외에 사회적 관계는 더욱 중요하다. 1인가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1인가구들은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진짜 세상에 나 혼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혼자 살수록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다(사례A8)”고 말한다. 특히 여성들은 주중에도 거의 매일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정도로(사례A1, 사례A3, 사례A7)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다.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거나 영화나 공연을 보러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이들의 큰 즐거움이다. 등등의 측면에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1인가구로서의 삶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혼자 산다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1인가구로 사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재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례A9를 제외하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연이나 전시회를 자주 다니고, 국내 여행뿐 아니라 외국 여행도 다닌다. 여성들 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남성들도 친구들과의 만남이 자주 있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도 높다. 주말에 주로 술자리 형태로 모여서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일로 지출도 많다고 하였다.

자녀는 약속이 일주일에 2~3번씩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나서 다음 달에는 어디로 놀러갈지 얘기하고, '친구알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주말에는 산에 가요 친구랑. 둘째첩이나 삼이나 걸으라. (하나도 안 심심하시겠어요). 안 심심해요. 그러니 결혼 생각이 없죠. 돈을 버니가 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 보니까 놀리도 많이 다니고 (사례A1).

휴가가 일주일 막 이뤄지기 때문에 일본, 중국, 일본을 되게 여러 번 갔다 왔고, 저번에 한번은 너무 유럽여행이 가고 싶어서 친한 언니랑 한 달 정도 여행하고 돌아오고 나가보니까 혼자 30대 초반에서 20대 대학생들, 여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시례A7).

연구에 참여한 30대 미혼남녀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 이상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례A1은 팬클럽과 과연 모임, 사례A4는 영어토론모임과 영어잡지모임, 사례A6은 라틴댄스동호회와 자동차 동호회, 사례A7은 사진동호회, 사례A8은 조기축구모임, 사례A10은 자전거 동호회와 사회인 야구클럽, 사례A11은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동호회 모임을 열심히 하는 사례A6은 매 주 두 번씩 밴스연습을 하려고 하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 나간다. 사례A7은 매 주말 사진동호회 모임에 나가 사진을 찍거나 사진 찍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카페 등을 찾아다닌다.

동호회 모임은 3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 비슷한 취미를 공유하는, 그러나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또한 사교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상을 만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가 별로 없는데, 동호회 활동에는 거의 미혼자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많이 있다. 동호회를 통해 취미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를 넓히면서 이성교제의 기회를 찾기도 한다.

동호회 활동하면서 의로움을 넘기죠. 동호회에서도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 많은 그런 사람 중 많은 거 같아요. 결혼도 좀 늦게 하고, 나이도 30대 중반이 제일 많아요(사례A6).

1인가구들은 자기관리나 계발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이다. 30대 1인가구로 사는 미혼남녀는 혼자 살면서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쓴다. 1인가구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때는 혼자 아이를 둔 때이다. 그런 데 혼자 살아서 지독할 경우에도 식사를 제때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주로 밖에서 먹는 경우도 많아서 건강관리를 하기 어렵다. 그 대신 등산, 요가, 운동, 자전거 타기, 헬스클럽,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특히 운동은 건강관리 뿐 아니라 오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도 필요하다.

그래서 출퇴근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거리는 8km 정도 됩니다. 직장까지 가는 4k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8km 맞춰서 출근을 해요. 운동은 여러 가지 해요. 일주일에 주말근무나 낑같은 때 따분하다 이런 때는 주위에 선에 한 번 올려요. 내려오고, 코스는 하루 시간 정도 잡아서 그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아니면 헬스클럽 가는데, 근육운동이라든지 무리한 운동은 자제하는 편이고, 건강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사례A10).
4. 30대 미혼 1인가구 거주자의 결혼에 대한 기대와 생각

가. 결혼에 대한 주위의 기대

30대 미혼 1인가구들은 결혼에 대한 주위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을까? 이들은 결혼에 대한 주위의 기대나 압력이 연령대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진다고 하였다.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이라는 발달과정을 성취해야 하는 연령규범이 아직 존속하고 있어서 그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압력이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초산연령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연령규범에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그 연령대를 넘어서면 오히려 기대와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결혼에 대해서도 반포기 상태가 된다. 여성들은 이 연령대가 약 30대 중반이라고 보았다.

안 그래도 독립하기 전에도 조금 한 서른두 살 이릴 때쯤에는 엄마가 굉장히 강요가 심하셨어요. 선을 보라고 하시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두시면 알아서 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어요.(사례A1).)


부모님 세대가 아닌 당사자들은 어떤 연령규범을 가지고 있을까? 당
사자들의 연령규범은 부모님 세대의 연령규범과 차이가 있을까? 만29세 여성인 사례A7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기대 연령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며, 사전동호회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성은 35세가 넘으면, 남성은 40세가 넘으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있었다.

근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분들 얘기기 들어보면 서른 섯 안에는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서른넷 이상은 잘 이성으로, 저는 보는데 나이가 삼십대 후반인 사람들이 삼십대 중반까지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남성은 마흔 넘으면 아무래도 삼십대 후반은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게 생각에는, 근데 마흔 넘으면 진짜 혼들어지는 거 같아요. 서른넷 이상은 잘 이성으로, 보기는 보는데 나이가 삼십대 후반이나 삼십대 중반까지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남성은 마흔 넘으면, 삼십대 후반이나 삼십대 중반까지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남성은 마흔 넘으면 진짜 혼들어지는 거 같아요. 40이라는, 앞에 30이 아닌 4자로 바뀌는 순간부터 조금 그렇지. 여성은 서른다섯 살이 넘어가면 좀 혼들어지는 거 같아요(사례A7).

사회적 기대와 압력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만35세 여성인 사례A3은 "부모님이 걱정은 하시지만 스트레스 받을 수준은 아니며, 서울에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아서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없는 것 같다"고 하는 반면, 만33세 여성인 사례A4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혼자 산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혼자 살면 유혹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이 남성들에게는 혼자 산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참여자들 중에는 손윗 형제나 자매가 이혼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들의 결혼압력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사례A2, 사례A8). 고시준비를 하고 있는 사례A2는 고시준비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형님이 이혼을 하면서 조카를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예전에 사귀던 여성을 종교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현재 제 상황이 좋지 않고, 향남이 이혼한 후 자녀를 부모가 카우시기 때문에 크게 압력을 주지는 않으신 편이다(사례A2).

나. 결혼에 대한 여성의 기대

먼저 여성들 중에 결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우는 직장이 안정되어 있는 30대 초반의 사례A7뿐이었다. 직장이 불안정한 30대 초반의 사례A4나 사례A9는 결혼이 경제적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지 않음에 기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않다. 이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골드미스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A9에게는 경제적인 것이 결혼 결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카페 창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혼자 살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되게 좋은 케이스는 같이 살던 친구는 결혼할 때 대출 있던 걸 남편이 갚아 줬어요. 그런 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갚아줬는데. 그런 경우 아니서는, 그경 우가 되면 저도 남성이랑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례A9에게는 경제적인 것이 결혼 결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카페 창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혼자 살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30대 중반이나 후반의 여성들은 결혼 그 자체에 대해 꼭 해야 하는 것도, 그렇다고 안해도 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이다. 이들의 동등은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아서 만남이 이루어지기기 때문에 있다(사례A9).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건 아닌데,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야죠. 자연스럽게. 여기 때문에 최소한 2~3년 안 에는 늦어도 가야 되지 않을까(사례A3)

30대 중반이 넘은 여성들은 오랫동안 혼자 생활한 삶에 익숙해져있어서 지금의 평행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나 부담감이 있다. 그들은 한 편으로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변화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개인마다 다르다.

30대 중반의 여성 사례A3은 “혼자 산지 10년이 되어보니 그 생활이 너무 적응이 된 거예요. 가족이 같이 살 때 냅킨 느낌이 다르잖아요. 혼자 지내다가 어느 순간 누구가와 같이 지내게 되면 불편해 질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산게 되면 그런 여철 수 없는 일이니까 맞춰가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하였다. 반면 30대 후반 여성인 사례A2는 몇 년 전 자신을 좋아한 남성이 있었는데, 마음 그 때 이사를 해야 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문자오면 답장해야 하고, 전화오면 통화해야 하는 등 신경 쓰는 것이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그만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집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변화가 깊게서 삶의

결혼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은 아직도 전통적인 부분이 남아있다. 1인 가구로서 혼자 독립해서 오래 살았던 여성들도 결혼을 하면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이 주부양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럴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업과 집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
다. 여성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거나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사례A9).

나이를 이번만큼 먹고, 돈도 벌고, 세상이 이번만큼 바뀌었는데, 그럼 내가 너보다 한참 늦게 결혼했는데 너희 신랑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난 무슨 고생이겠니? 집 한 채 있어야 하고, 직장은 안정적이고, 이사 다닐 걱정 없는 집 한 채 정도 있어야 하는 그런 정도(사례A1).

d. 결혼에 대한 남성의 기대

심층면접에 참여한 30대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는 연령보다는 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남성 7명 중 3명은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이었다. 이들은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를 빌로 받고 있지 않으며 주위에서도 별로 심각하게 결혼을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여자친구를 사귄지 1년 이상 된 경우는 없고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였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생각은 안했던 거 같고요. 남들이 얘기 해도 그래도 나니, 친구들 이 가족동반해서 음식 마시면, 얘기가 제롬부릴 때, 얘기가 잡히면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면 부럽게 하는 이 정도. 해어지고 나서 일상으로 오면 똑같이 지고 그랬었어 요. 우선 불편한 게 없으나요. 외부로 와 담고,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불편한 게 없으니가. 주위에서, 특히 부모님도 제촉한 적 없으시나? (사례A5)

30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경제적 준비는 작은 아파트 한 채는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 남성 사례A10인 현재 전세금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약 2억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동생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였다.

지금 2억 있다고 해도 만약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 그리고 절반 이상 날아간다고 보아, 한방에. 그럼 결코 많은 돈이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한 상태도 아니고, 미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결혼자금으로 들어가야 되죠. 집을 또 장만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가 힘든 입장이 돼 버렸어요(사례A10).

이에 비해 30대 초반이거나 비정규직 등 경제적으로 아직 불안정한 남성들은 결혼을 아직 멀리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준비가 되어야 결혼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는 도달하기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의 경제적 준비였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의 비정규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례A12는 현재 수입이 약 150만원 정도였는데,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연봉은 5천만원 정도였으며 30대 후반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스스로 기대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해본적도 있으니까. 당연히 안 해본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주위 친구들 보면 거북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준비는 해봐야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돈으로 하면 급여를 받으면 한 5000 목표 했을 때 결혼 좀 생각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론여미다 서론아홉까지는 대야 할 거 같아요(사례A12)

고시준비를 하다가 현재는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후반 사례A2는 결혼은 아예 ‘반포가’ 상태라고 하면서 상황이 되면 하겠지만 군이 결혼을 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며 소위 국제결혼 같은 것을 찾아보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다. 사례A2는 기업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라도 나이를 생각하면 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년 뿐이며 그 이
후에는 고향에 내려가 핸드폰가게를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하였다.
특히 사례A2는 형님의 이혼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결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30대 남성들은 결혼에 대한 기대를 형편에 맞춰 스스로 조절하고 있
으며, 경제적인 것만 강조되는 사회문화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거스르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생각
하는 게 다 돈이 우선이야요. 자기 행복보다는 그러냐 누가 외도 야야기를 하고
있어도 그렇고, 그러부터 판단하려고 그러고, 나는 혼자 살아도 행복한데, 남이 보
기에 그게 아니에요. 옷가게도 지금은 내가 생각을 180도 바꾼다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합디다.’ 이라고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살면서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건
아닌 거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바꾸면 나도 편하게 적장 생활을 하고 나머지
노는 시간이나가 마음대로 자기계발 하고 종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살면
안 그렇거든요. 반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사례A10).

네가 능력이 있어 혼자 사는 거면 말은 않겠다고.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 ‘능력이 있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혼자 사는 거 같아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때 봐서는 거
같으니까(사례A7)

5. 30대 미혼 1인가구 거주자의 정책에 대한 요구

면접에 참여한 30대 1인가구들은 예전에 비해 1인가구가 살기 편해지고
1인가구를 위한 시장서비스도 확대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 1인가구가 차별받는 영역이 있으며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가장 반복하게 언급되는 것은 주거에 대한 지원이다. 1인가구들은 생활비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자주 이사를 다닌 경험이 있다. 이들은 장기 전세나 월세가 저렴한 아파트, 기숙사 같은 것이 공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정 기간 나라에서 주거를 지원해주면 돈을 모으기도 쉽고 그 이후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지원 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약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사례A4).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거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문제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잠자리인이요. 원수입 얼마 안되면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정해주는 임대주택, 대신에 그걸 평생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있는거. 돈을 내가 좀 더 모을 수 있으니까 (사례A12).

그 외에도 세제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을 통해 혜택을 받는데 1인가구는 그런 면에서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도 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며, 자산비용 같은 것도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1인가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사회적 분위기도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 제한적이라는 불만도 있었다. 식당을 가거나 극장을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것은 제한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예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서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1인가구들이 눈치 보지 않고 권리로서 사회적 공간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요즘엔 극장을 가도 1인석이 있든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조금씩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해택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다.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더라도 혼자 자리가 없는 것도 처음에 굉장히 민폐인 것 같았다(사례A10).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1인가구를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시각은 부족하며 이러한 부정적 편견이나 시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6. 소결

20~30대 미혼 1인가구들은 대체로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 부모님이 살고 있는 가정을 떠나 1인가구로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30대 미혼의 경우, 부모님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나 일상에 대한 간섭을 피하고자 독립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 연령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나 주거상으로 독립해야 할 욕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통해 독립할 시기가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할 제기를 찾게 되고, 부모님의 은퇴나 이사, 형제의 결혼 등 가능한 제기를 동원하여 독립을 선택한다. 이렇게 볼 때 20~30대 1인가구의 증가는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나타나는 의도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초혼연령이 낮아지지 않는 한 20~30대 1인가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1인가구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사적 독점이다. 경제적 부담, 안전문제, 외로움 등의 여러 가지 단점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면 이러한 특권을 포기하기 어렵다.
부모, 형제자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 영역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 이들은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집을 같이 쓰면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관계상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30대 미혼 남녀는 가족과 친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과 연락을 빈번히 하는 편이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저녁에 친구들을 만난다. 실제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구는 일상생활의 개인화를 의미하며, 이는 생활세계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자유를 반영한다.


20~30대 미혼 1인가구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의 개인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들이 새로운 규범과문화의 창출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일부 선양연구에서는 결혼관이 개방적이며, 결혼외적 요소에 가치를 부여할 수록,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비혼이 자발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또한 본 연구에서도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1인가구로 독립할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다소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소위 ‘트렌드 세터’로의 1인가구로서의 삶을 향유하고 있다. 이들은 사진, 댄스, 자동차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취미가 유사한 동 연령층의 미혼남녀와의 사회적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관계를 누리고, 친구들과의 빈번한 국내외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은 사회적 통념처럼 소득수준이 아주 높은 '골드미스나 골드미스터' 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는 월 150만 원의 정규직 직업을 가진 여성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거나 주거비로 인한 대출이 없는 한 이러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생활 향유가 결혼, 출산, 가족,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을 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연구에 참여한 20-30대 미혼 1인가구들은 대체로 동거, 필요에 의한 성관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겸지하였다. 남성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 대를 이어야 한다 등).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는 다소 양극적이었다. 결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자연스러운 인연을 강조한다. 자연스러운 인연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알콩달콩 같이 살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 30대 미혼남녀들은 한편으로는 경제력이 되어야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력이 되면 혼자 살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에 대한 양극적인 생각은 이들의 비혼이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 사이의 경계에 있음을 뒷받침한다. 자발적 비혼을 '학업이나 경력, 자기계발 등의 이유에서 혹은 결혼에 반대하거나 종교적 이유 등에서 독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Stein, 1981)'으로 정의한다면 본 연구 참여자들(30대)은 자발적 비혼은 아니다. 이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향후 2~3년 안에 결혼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나, 혹은 결혼을 생각하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서 '반포기' 상태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결혼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며, 본인의 현재 상태가 의사결정의 타이밍을 놓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빨리 (결정) 못 지었으니까 이황계까지 된 거죠. 빨리 결정내리고 했어야 되는데, 나와 살다 보니까 그런 관념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계속 혼자 살면서도 후회하고 싶어요(사례A6).

이들이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데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부담과 비현실적인 목표와 상관이 있다. 현재 약 200만원의 수입과 약 2억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사례A10)은 “만약에 여성을 만나 이런 얘기를 하면 피식 웃어요. 많은 돈이 아니라 이거죠”라고 하면서 결혼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약 150만원의 월수입을 가진 30대 후반 남성(사례A8)은 결혼해서 아이를 둘 놓으려면 “1년에 나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금액이 1억5천에서 2억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갇혀 있는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와 목표는 1인가구의 증가가 아직도 새로운 규범과 관계성의 출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제2절 40~50대 이혼 1인가구 거주자의 삶과 생활세계

1. 개요

본 절에서는 이혼을 경험하고 혼자서 생활하는 4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1인가구의 생활하에 대한 사유와 이로 인한 생활세계의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년세대 1인가구의 특징 및 이들 생활상태가 갖는 정책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중년세대 1인가구는 제도적인 결혼경험 없이 취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독신생활을 하는 청년세대와 배우자의 사별이나 자녀들의 분가로 혼자서 생활하는 노인세대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집단이다.

중년세대들은 오늘날의 만혼 및 독신경향이 주요한 트렌드로 부각되는 청년세대와는 구분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결혼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생활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특정 시점에서 이혼을 선택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생활세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질적이고 다양한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1인가구를 크게 3세대별로 정형화하여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자, '이혼'이라는 결혼관계의 해체를 통해 현재 독신으로 생활하는 40-50대 남녀의 삶의 방식과 생활상태를 통해 중년기 1인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2년 3월, 40~50대 1인가구 남녀 6명을 집단면접(FGI)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층면접의 대상과 주제 등을 설정하였다. 일대일 심층면접은 여성 7명과 남성 5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다.

5) 실제로 2010년도 센서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파르게 증가해온 1인가구는 연령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내부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컨대 20,30세의 1인가구는 미혼자 집단, 60,70세대는 사별, 40,50세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유배우 상태에서의 분거나 별거로 인한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은지, 2012).

6) 이들 집단이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사실이다. 40-50대는 인생주기에 있어 중장년기로 분류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본다면 40대 초반은 청년기에 88올림픽 이후 빠르게 보급된 정보통신기술을 체득한 정보화 세대이거나 이들과 가장 가까이 마주한 연령층인 반면,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의 경우에는 정치영역에서의 민주화가 가장 뜨거웠던 세대, 50대 초반 이후는 전형적인 배우자부여로 산업화의 고도성장을 목도하거나 직접 참여한 세대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행위규범이나 가치지향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가. 집단면접 참여자의 기본특성

집단면접에 참여한 대상은 남성 3명, 여성 3명 총 6명이었으며, 미혼, 이혼, 사별이 각각 2명씩이었다. 집단면접시 결혼 상태가 다양했기 때문에 1인가구 형성 과정이나 경험하는 문제점, 향후 전망이 상이하여 핵심 주제가 도출되기 어려웠다. 특히 미혼은 30대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층에 대한 일대일 심층면접은 이혼한 1인가구 거주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혼한 경우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대일 심층면접에서 성별 차이는 집중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주제로 도출되었다.

〈표 7-3〉 40~50대 1인가구 집단면접(FGI) 참여 대상자의 특성

<table>
<thead>
<tr>
<th>참여자</th>
<th>성</th>
<th>연령(세)</th>
<th>결혼상태</th>
<th>1인가구 생활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FGI-B1</td>
<td>남</td>
<td>45</td>
<td>이혼</td>
<td>3년</td>
</tr>
<tr>
<td>FGI-B2</td>
<td>남</td>
<td>41</td>
<td>미혼</td>
<td>독거와 미독거 반복</td>
</tr>
<tr>
<td>FGI-B3</td>
<td>여</td>
<td>50</td>
<td>사별</td>
<td>10년</td>
</tr>
<tr>
<td>FGI-B4</td>
<td>남</td>
<td>48</td>
<td>미혼</td>
<td>12년</td>
</tr>
<tr>
<td>FGI-B5</td>
<td>여</td>
<td>49</td>
<td>이혼</td>
<td>-</td>
</tr>
<tr>
<td>FGI-B6</td>
<td>여</td>
<td>57</td>
<td>사별</td>
<td>7년</td>
</tr>
</tbody>
</table>

나. 심층면접 참여자의 기본특성

중년기 1인가구는 결혼 관계의 해체를 기점으로 배우자와 자녀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1인가구의 삶은 이혼 전 결혼생활의 질과 이혼사유, 자녀출산 및 양육의 경험은 물론 현재 자녀 들과의 관계적 특성에 의해 상당 부분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심층면접에 참여한 중년 남녀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자녀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그들 자녀와의 관계는 1인가구의 성별이나 이혼시점의 자녀연령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지만, 대체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한 경험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혼 후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생활고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전배우자에게 자녀를 보내기도 하지만, 전배우자의 양육환경이 열악해지거나 자녀가 성인기로 접어든 경우에는 자녀와 재결합한 경험이 적지 않았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의 결혼이나 군입대로 1인가구로 생활하는 등 이들의 가구형성은 시기마다 변화하는 유동성이 발견된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례(사례B8)의 경우만이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자녀의 군입대로 1인가구의 삶을 살고 있을 뿐, 대체로 남성들은 전배우자에게 자녀 양육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thead>
<tr>
<th>번호</th>
<th>연령</th>
<th>성별</th>
<th>교육수준</th>
<th>직업</th>
<th>자녀유무</th>
<th>결혼경험</th>
</tr>
</thead>
<tbody>
<tr>
<td>사례B1</td>
<td>49</td>
<td>여</td>
<td>고졸</td>
<td>구직중</td>
<td>유</td>
<td>유</td>
</tr>
<tr>
<td>사례B2</td>
<td>45</td>
<td>남</td>
<td>대졸</td>
<td>회사원</td>
<td>유</td>
<td>유</td>
</tr>
<tr>
<td>사례B3</td>
<td>57</td>
<td>여</td>
<td>대졸</td>
<td>무직</td>
<td>유</td>
<td>유</td>
</tr>
<tr>
<td>사례B4</td>
<td>54</td>
<td>남</td>
<td>고졸</td>
<td>일용직 노동자</td>
<td>유</td>
<td>유</td>
</tr>
<tr>
<td>사례B5</td>
<td>47</td>
<td>여</td>
<td>대졸</td>
<td>복잡설계사</td>
<td>유</td>
<td>유</td>
</tr>
<tr>
<td>사례B6</td>
<td>43</td>
<td>남</td>
<td>고졸</td>
<td>운전</td>
<td>유</td>
<td>유</td>
</tr>
<tr>
<td>사례B7</td>
<td>44</td>
<td>여</td>
<td>고졸</td>
<td>요양보호사</td>
<td>유</td>
<td>유</td>
</tr>
<tr>
<td>사례B8</td>
<td>49</td>
<td>남</td>
<td>대졸</td>
<td>병원사무직</td>
<td>유</td>
<td>유</td>
</tr>
<tr>
<td>사례B9</td>
<td>43</td>
<td>여</td>
<td>대졸</td>
<td>연극인</td>
<td>유</td>
<td>유</td>
</tr>
<tr>
<td>사례B10</td>
<td>42</td>
<td>남</td>
<td>대졸</td>
<td>회사원</td>
<td>유</td>
<td>유</td>
</tr>
<tr>
<td>사례B11</td>
<td>44</td>
<td>여</td>
<td>고졸</td>
<td>회사장</td>
<td>유</td>
<td>유</td>
</tr>
<tr>
<td>사례B12</td>
<td>46</td>
<td>여</td>
<td>고졸</td>
<td>건설현장사무직</td>
<td>유</td>
<td>유</td>
</tr>
</tbody>
</table>
2. 이혼의 주요 계기와 생활세계의 변화

가. 결혼관계의 해체와 가족의 재구성

통상 결혼관계의 해체는 일상적인 결혼생활을 통해 성격의 차이나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긴장이나 갈등이 누적된 결과이나 특정 시점에서 일방 혹은 쌍방의 결정적 과오로 인한 관계의 해소, 혹은 양자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대체로 상호간의 견해 차이 등에 의한 순차적 이혼을 경험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 배우자나 본인의 결정적인 유책사유에 의해 더 이상 결혼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진 시점에서 일종의 마지막 선택으로 결혼관계의 해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생활의 지속의지를 꺾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부부갈등의 해소방안으로 이혼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비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출산을 한 걸 보고 제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사례B1).

...그런 게 있으면 벌써 자기 호주머니, 가정은 등안시하고, 그렇잖아요. 회려하게 살고, 영화 일을 하나가. 그런데 이제 벌 좋은 개살구였던 거죠. 처음 낳이시면서 살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감수록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그런 사람 아닌데도 혼들게 하나가, 혼들어지니가 폭행어도 폭행까지 하나가. 이것이나 다실죠. 헛 yourselves 돈 달라. 안 주면 손짜림을 한다던가, 영화에서 본건 있어서 싸이코처럼 변하는 거예요. 밤새 술 먹고 와서 목 조르고, 다리미 꽂아서 얼굴 지진다고 하고(사례B3).

처음엔 헤어질 생각이 아니라, 아이 아빠가 한국에서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자리 잡으면 가졌거나 했는데, 가서 남성들 혼자 있나 보니까 안 돼서 헤어졌죠... 배신감도 느끼고 해서 혼자 한국에서 재판이혼을 했어요(사례B5).
그래서 와이프가 그런 부분에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나서 생활이 없었던 거야. 이 여성도 만나보고 싶고, 저 여성도 만나보고 싶고 했던 것 사실이야(사례B6).

그래서 생활, 일하면서 벌어 먹이지마시다며 한 거죠. 이 남성은 생활력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물여덟인가 아홉에 이 남성이 바람이 난 거예요(사례B7).

왜 이혼했느냐는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 머리가 생각하려면 복잡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컸어요. 와이프가 일을 하다가 좀 안되어 가지고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저야 직장생활 했으니가 맛있을 일이 없는데, 집사랑이 좀 빼앗기는 걸 하는 바람에 많이 맛있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빚이 많죠. 집도 철도 없고... (사례B8).

그래서도 밥이 싸가. 집안 내력인 거 같아. OO에서 체 부자, OO에서 택시타고 거기 거주요 하면 다 갈 정도로... 그러고선 다 망했지(사례B11).

하지만 대체로 이들이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 경제적 무능력 등과 연관된 일회적인 사건 발생을 계기로 곧 바로 부부관계의 해체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 직장생활 포기 등이 수차례 혹은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서 그들의 신뢰나 관계 개선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적지 않음이 그것이다. 이는 40~50대의 경우, 결혼관계로 부터의 탈주, 그리고 이로 인한 가족관계 및 생활세계의 변화 등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사회의 비우호적인 시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기 진술은 일부분 인터뷰어를 의식한 자기방어 혹은 자기합리화의 가능성 역시 적지 않으나 실제 이들 배우자의 폭력적 행위나 악의적인 일탈행동의 발생시점과 이들의 이혼 시점 사이에 분명한 시간 격차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관계까지 갔었나하면 그 여성은 떠들고 남편인가까지가 본적 도 있고요, ...그런데도 들어서 도망가더라도요...그래서 따로 제가 생활전선에서 사누이가 애를 빼주면서 몇 년이 흘렀어요...이혼 안 한 상태에서....(사례 B1).

...그런데 그것도 애 때문에 결정이 쉽게 안 되더라도...그 안에 몇 번 사연이 있죠. 해야하고 여러 가지 했다가, 다시 만나서 친정에 가겠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 되었다가 최종으로 결론 난 건 그 때 결론 난거죠(사례 B3).

도박, 여성. 다 있었어요. 강남에 살림 차린 것까지 제가 와서 보고 다 했으니까...오래된 얘기라...평장히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고, 이혼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애에, 제 머릿속에도...머릿속에도 안 앛어도 이혼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벌써 놓고 간 일이 내 학원에까지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빚을 저 놓고 갔던 일이(사례 B5).

...이 남성은 생활력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월급 10만원 받으면서, 빚어 먹인 거나 마찬가지에요...애기 낳고 잘 데도 없고 하나가. (그런데) 이제 스물여덟이가 아홉에 이 남성이 바람에 난가요...그날부터 벌리고 난리가 났다고 기분만 나쁨에 벌리고, 순절점도하고, 애들 보는 앞에서 벌리고 하는데, 진짜 이 남성한테 벌어나고 살다라고(사례 B7).

안이폭력이 OOO 이런 정도면 까짓것, 아니 그 정도면 애교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할 때는 진짜 괴롭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이런 욕을 친정서도 안 들어본 그런 욕을....자는 일선 벌거리를 했다가 제가 저는 이혼한다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군이 내가 이혼 할 필요도 없었고...1년 뒤에 다시 또 하자고 그러기에 그래 또 하자. 그 때는 진짜 한 거죠(사례 B12).

이에 비해, 서로의 가치관 차이나 이질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면서 점차 이혼의 수순을 밟은 경우는 무 사례에 불과하다. 이 두 사례 모두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일상에서 자주 표출되는 가치관충돌이 점차 복합적인 갈등관계로 이어지면서 그들의 부부관계를 되돌아 보게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나름의 이질적인 이혼의 과정으로 귀결되고 있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저는 일단 배우자랑은 성격차로 이혼을 했고요.... 살아보니 저도 강한 성질이고, 서로 싸움이 나면 서로 옛날에 있던 일까지 배우자가 얘기하는 바람에 자꾸 불만이 쌓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녀문제. 저는 자녀를 풀어놓고,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지만 전 그렇게 키우긴 싫어요.... 그런 가치관이 배우자랑 저랑 좀 달랐어요. 그 다음에 와이프가 저와 집에 불만이 많았고, ...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녀 문제, 사례 문제, 친정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격해지는 거죠. 그렇게 몇 번 싸우다 보면 누가 되시는 '나랑 나랑은 잘 안 맞는 구나' 그래서 그때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서로 재갈길 가기로 하고, 지금은 이혼을 해서(사례5).

갈라서 살게 된 그 이유가 장모님의 자에 대한 시야마니의 간섭보다 장모 간섭이 여성은 시집살이라고 하잖아요. 처가살이? 처가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지만 그런 게 좀 심혔어요.... 결혼생활도 오래됐지만, 떨어져 있는 것도 오래 됐증... 그게 떨어져 사는 것도 이혼하는 방법이 있고, 결단적인 것은 아내랑 합의가 있었어요(사례4).

하지만, 이들의 이혼사유나 이혼 방식이 현재 그들 자녀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대부분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자녀와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남성들 가운데 봉급생활자들은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들의 경우에는 해어진 배우자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비록 결혼관계는 해체되었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각기 부모로서의 공동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현대적 가족가치가 내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이러한 태도는 대다수 감정적 이혼의 경우, 전배우자의 부모식할 자체를 거부하는 정향이 높후했던 과거의 가족문화와는 상당히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7장 1인가구 대표유형의 삶과 생활세계 • 281

나는 마음속으로 남편이 잘돼야 아이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주하는 마음을 가져본다던가 못되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뭐라 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살아야 우리 아들한테 고통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냐 라고 말하죠. ... 그래서 나는 안 봐도 되지만 아인한테도 그래요. `내(본인)는 안 봐도 되지만 내(아이)는 다나라 그러죠...` (사례B1)

인부 전화정도는 하고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아차지 연락을 안 할 순 없거든요. 자녀 들도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제가 있는 집으로 제가 이밀려서 하루 여유도 고서 어디 놀리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해야 할 때 문에 양육비는 매달 자동이체로 빠지게 해봤거든요. (사례B2)

... 좋게도 말 안 하지만 나쁘게도 말 안 해요. 아이는 만나게 해주요, 아빠를. 1년에 한번, 2년에 한 번씩 미국에 제가 보내어요. ... 틈틈은 끝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가면 만나고 오죠 (사례B5)

...그게 최고로 먹어 차는 게 싫은 뒤에 애들 때문에 이렇게 애들을 보기 위해서 너무 애들이 보고 싶어지고 애들을 만나면서... 내가 100만원씩 줄지 애들 100만 원씩 줄어. 100만원씩 주다가 어느 순간에... (사례B6)

아이들이 더 바쁘다고요. 주말에 기끔 보는 것들이 다 예요. 그런 식이예요... 근데 아이들을 먹어가니까 이제 왜였든지 생각지도 않게 나가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노후를 준비하고, 대학등록금 비싸요. 애 대학등록금 정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연금 같은 거 들여놓고, 아이에게 조금씩 준비만 하고 있어요. (사례B10)

한편,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배우자 없이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고 양육하는 고단한 일상으로 인해 자녀를 전배우자에게 보낸거나 아예 이혼 당시 생계기반이 없이 자녀를 배우자에게 맡기고 나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러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나(사례B1, 사례B5), 이혼으로 해어진 자녀들 이 성인이 되어 우연히 재상봉하거나 적극적으로 엄마를 찾는 경우에는 기꺼이 부모역할을 자임하거나 자녀 미래를 위한 생애설계를 재구성하는 등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B7, 사례B12).
...그래서 아빠한테 보내게 됐는데, 아빠한테 보냈을 때 아이가 거기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그래서 여기에서 의정부까지 통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까지 가라고 했는데, 공부가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안 갔어요. 그래서 직업군인으로...(사례B1).

저도 마지막으로 실수한 게... 아이를 보내놓고 믿었어요. 아 아빠니까. 엄마를 불법체류자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학비가 싸잡아요, 유학생 비자로 있으면 비싸니까... 그 얘기 듣고, '너 돌아가고 그랬어 그냥... 너 불법체류자 만들어 봐요.' 아는 거지 백날 공부 해봐야 소용없어. 취업하기도 힘들어... 너 아이 아직 20대니까 엄마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엄마가 음직이나가 걱정하지 말라고 들어오라고 했어요.(사례B5).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요. 지금도 엄마인데 괴에 안 주려고 돈 양쪽으로 벌어서 엄마 보험도 넣어주고 내 보험도 넣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사례B7).

어떤 엄마들은 그렇게 안 카는 엄마도 있고, 다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물론 더 좋은 가정에서 기르는 엄마이지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 주고 있으니까...(사례B11).

제가 잘못한 건데, 그렇게 되더라도요. 지금은 딸내미 하고도 매일 폼에 전화해, 만약에 딸내미 한 단에 두세 번 분다고 하면 아들 같은 경우는 통화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은 한번 딸내미 절반 정도...(사례B12).

나. 이혼 후 생활세계의 변화와 성별화된 적응

40~50대 여성들은 작금의 청년세대들과 같이 전 생애에 걸친 직장생활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남성들은 오랜 성별분업의 유제에 의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이혼이 갖는 의미와 이혼 후 봉착한 어려움은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심층면접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를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자신이 생계를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적 자립의 부담감을, 남성들은 감작스
럼게 자신이나 자녀의 의식주 관련 재생산노동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생활의 부담감은 이혼 후 시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생활형편과는 무관하게 이혼 직후에는 대체로 극심한 생활고와 이로 인한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들의 경우에는 주된 이혼사유가 배우자들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경제적 무능과 동반되는 폭행이나 외도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마지막 출구로서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의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은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무력감이나 상실감에 압도될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이들의 심리・정서적 방어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는 모순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허전함 그런 걸 느낄 겨를도 없이 생활고에서 벗어나야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침에 여덟시쯤 나가서, 식당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사례B1).

그 때 돈도 없을 때에요. 서울을 올라오는 데 차비가 없어서 두 번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무직자도 망사치지 않았어요. ...딸을 데리고 애기만 업고 온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부산역에서 돈을 얻었죠. 어쩌면 그렇게 된 사람인데, 내가 생각하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게 가르치고 생활을 하니까. 저는 살면서 잠도 들어볼 시간도 없이 사는 거예요(사례B3).

얼受到了. 입학준 13년 5개월 막 하고, 그게 내가 하고 쉬어서 일을 할 때 하고 난편하고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도 이제 내 경제적 해결을 해야 되는 생계형이 되버렸죠. ...그 때부터 일어요. 그 전까지는 빚이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솔직히. 해야지만 순번에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빚겠어요. 이런 일하면서 이제 내가 생계형이 되고, 바로 IMF 터졌어요. 데어나서 처음 벌이라는 지어봤어요(사례B5).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적금 넣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해약을 해야 되잖아요,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근데 해약을 돈을 찾아다니 나한테 30만원을 주면서 애기를, 아들을 내리고 가라는 거야. 걱정도 구하지도 않고, 내가 사다버리해서 먹고살 돈 12만원, 15만원 벌으면서 여성 혼자서 어떻게 사회를 극복할지도 모르는데, ... 돈 30만원,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사례B7).

그러면서 제가 제 일을 찾았으니까. 아직 뭐든 나 혼자 먹고 사는 데에 자장 없을 거라는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 보여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사례B9).

금전적인게 세일 힘들어요. 한 일주일동안 뭐만 먹고 산지도 있어요. 제가 왔을 때 사람에 허어져서 외롭고 어 тож고, 몸이 아프고 어 тож고저 тож고, 돈이 없는 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나도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도 있는데, 돈 없는 고통에 비하면 다 그런 거짓말이거 같아. 그러면서 카드 독촉 오잖아. 진짜 그때 돈 버리는 줄 알았네(사례B11).

그렇게 자도 나올 때 맹전 한 푼 없이 나왔거든요. 그때 나올 때 상황이 완전히 악화가 있었기에 맹전한 푼 없이 나왔고 그래서 말 그대로 돈 빚어 빌려서 방 열고 이런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모았어요(사례B12).

이에 비해 남성들은 배우자의 결별에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규칙적인생활패턴이 유지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당혹감과 심리적인 고독감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직업불안정성이 높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에 더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부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는 여성들에 비해 심리적 불안정성이나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낙 건강한 체질이라 잘 아프진 않는데, 한번 감기가 독감을 앓으면 심하게 앓아요. 그냥 떠 정말 약을 누가 사서 챙겨주 사람도 없고, 그럴 때는 제가 하는 염증이 엽분이 높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돈이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지(사례B2)
"나쁜 거는 애가 아무래도 제가 데리고 있으니까... 챙겨야 되니까... 그 런 게 제 일. 힘들지 힘든 거는, 경제적인 거 빼놓고는... 하다못해 밥 먹는 것 까지 먹으라고 챙겨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먹고, 그런 게 힘들죠(사례B8).

근데 가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뭐라도 안 좋으면 옵적거리고 싶지도 않고, 좀 쌓이고, 어쩌면은 가끔 누군가가 터치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죠. 혼자 집에 앉아 주그리고 소주 먹어본 적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정말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싸움때가 연절가 하면 저지분하니까 차려야 되니까. 모르서 주말에 하지, 빨래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돌리지 이런 생각으로(사례B10).

이러한 성별 차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제도적인 혼인관계에 대한 기대격차로 표출되기도 한다. 즉 남성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혼 혹은 전배우자와의 결합을 통한 '정상가족'에 대한 희구를 표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들은 대체로 현재의 상태, 딱히 불안하지만 적어도 극적인 위기의 요소가 적은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홍미로운 점은 심층면접에 응한 재혼에 대한 남녀의 차별적 기대감은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서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갖추고 재혼에 대한 기대가 낮음에 비해 남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재혼에 대한 기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여성들의 재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불안정하지만, 혼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 역시 지속적으로 혼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안감과 고독감의 해법으로서 제도적 혼인관계를 희구하는 경향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들은 구태여 제도적인 결혼보다는 대체로 안
정적인 친구나 대화상대자로서의 이상교제를 원하거나 어렵고 곤란한 일을
의논할 수 있는 협력적인 파트너십 차원에서 남성의 교제를 수용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친구처럼 애인처럼, 내가 아픔 때 마음 한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고, 경
제적으로도 서로 같이 합심해서 살면 더 좋은 거지만 그런 거, 저는 혼자 살 때가
더 좋아요. 경제적인 근심걱정도 혼자 삶면 더 없고(사례B1).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세상에 나�名 그건 일이 있으면? 한 번도 그런 성
격을 해 본적이 없어요. 외롭다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 그래서 나는 재혼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와 생각이 같고, 사람이 궁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
면 친구로,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허물없이, 그 사람도 저가 있을 거고, 그런
결과로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으면 더욱 난리가 난다면서요... 그런 친
구, 친구 같이 대화도 나누고, 연극도 같이 보러가고, 쇼핑도 같이 가고, 여유가 되
서. 그런 사람이라면 부담없이 가까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아닌 사람
이라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사례B3).

그러나 사설 사랑을 만난다는 거?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도 없었지만, 한다한들
사람 관계하고, 다시 시작 되는 거. 그래서 50년에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다 아예 키워 넣고, 나도 각자 아이들 때문에 숙 석을 일 없을 때, 정말 친구 같
은 사람이 서로 필요하면 그 때는 생각해 보겠어요...(사례B5).

아직 젊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한번 실패를 하다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사람이, 사람이 보기에 짝하다 생각하지만, 내 자신이 자꾸 묻는 거야. 사랑을 해하는 게...
진정한 마음이 없어지지 (사례B7).

내가 이러다가 나이 더 먹고 힘없어지고 이러면 누가, 내가 언제까지 돈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
데 그런 것만 따져보면 그런 좋은데 다시 뒤어서 이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끝나면은 내가 내 가게 이런 걸 하면서 끝까지 전 이렇게. 아직은
그러죠. 물라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래요...(사례B12).
특히 모성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으로 인해 여성로서의 욕구를 우선시하거나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이 확인된다. 즉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려위하거나 자녀들의 결혼에 자신의 재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면서 구태여 여성로서의 행복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만족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엄마가 혼자 사니까 딸이 신경 쓰게 하는 거 그런 거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돈을 더 쓰고... (내가 흥겨운 댄스도 못하고, 자제하죠. 사례B3).

중간에 선을 본적이 30대 때 선을 한 일곱 번 본적 있어요. 그 때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도 애 아빠가 재혼을 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아버지가 결혼을 하라고 그 때는 그러시키라고요. 그래서 선을 한 7번 됐어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안 되겠더라구요. ...그 때 사춘기였거든요, 애가 막 울고, 찾아갔는데, 안 되겠더라구요. ...사춘기, 만약에 내가 재혼을 했으면 애가 뭐하나 되겠네요, 진짜로(사례B5).

그런데 1순위는 애들이야. 이 사람은 2순위야. 애들이 재혼을 반대를 하면 이 사람은 바로 떠나는 거야(사례B6). 7)

이에 비해 남성들은 현재 교제중인 상대의 유무는 물론 자녀연령이나 동거 등에 구애받을 없이 재혼에 대한 의사름 내비치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지지금 지급 재가 살을 맞대고 있는 부부도 아닌데, 부부는 해어지면 남남이라고 하지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밝고 원한이 있고 이런 건

7) 이혼한 남성이 이혼 후 혼자서 생활하는 자신의 전배우자상황에 관한 진술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에게,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재혼 사례2).

와이프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 100%. 100%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모든 있는 돈을 다 작년 12월 말에 싹 까먹고(사례B6).

결혼정보 회사 같은 걸 인터넷으로 한번 가입을 해봤는데,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나려고 시도를 했어요...(사례B10).

하지만, 남성들의 경우 결혼이나 새로운 파트너와의 만남에 있어 상당한 경제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직업지위에 대한 초초함이나 좌절감이 표출되기도 한다. 즉 중년세대의 경우 새로운 만남에 있어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욕구는 남녀 모두 크게 나타나지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욕구는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훨씬 구체적이며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층면접에 응한 이혼 남성들은 대체로 제도 적인 혼인관계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성파트너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이것 역시 일정한 경제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는 현실인식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기는 사례 역시 발견되고 있다.

죄책감도 들고, 정 여자가 생각이 나면 차라리 아직까지 그런 생각도 많이 안 나지 만 그런 쪽에 신경이 안 써더라도요.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 능력이 있겠다면 만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자신감이 없어 지죠, 여자한테 여자들을 만나려면 돈을 싹 야 하는데.....(사례B4).

생각은 해봤죠. 근데 경제적으로나 아까 말한 애나 말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진도를 못나가는 거죠...(사례B8)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더 그렇다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주말에 손잡고 장보러 가면 그런 거 조금 보기 좋다. 그런 모습들...했는데 내가 전 왜이
제7장 1인가구 대표유형의 삶과 생활세계 • 289

프랑 비교를 해서 그런지 물라도 쉽게 안 만나지더라라고요... 원가 경쟁력 있는 걸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달랑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건 아닌 거 같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사례B10)

다. 이혼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과 원가족의 지지

과거에 비해 이혼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독신인구 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가족구성방식에 대한 한국인의 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차별감이나 성공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위축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혼자들의 이러한 자격지심은 실제로 대인관계의 축소나 소극적인 태도로 표출되기도 한다.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긴 한 거 같아요. 남들은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 거 같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제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들이 친절한 것도 파인 친절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평소 같으면 화를 냅을 거 같는데, 그런 점이, 제가 자격지심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분들은 그런 행동하신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 같아요. 내가 이혼을 했으니까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사례B2).

'저 여자 혼자 산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속으로는 혼자 살던 말던 어제라고 그러는데 '그래?' 그런 식으로 호응을 해줬어요... 혼자 산다는 이유로 저 여자가 되는 거겠어요...그런 소리 접해 누구한테 이만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는 거죠. 저는 이만한 일도 안 들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절제하게 살았으니까, 제 태두리를,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고 보면 되죠(사례B3).

학원하는 동안도 학교하고 동기들이나 교수들하고 유대관계가 좋게 돼 있다가 사실 오곤을 안 했었거든요, 이혼을 했어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지금은 당당하게 오곤을 한다지만... 그 때 당시에는 아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혼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놀라움이었어요(사례B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좀 안 하고 싶죠, 사실은. 그러나가 비밀로 하는 게 최고 좋죠...비밀은 없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향상 강추하고 싶은 게 있다면 표현을 안 해...주변에 마트 언니들은 내가 혼자 사는 줄을 몰라서...일단은 단체생활에서는 혼자 살면 혼자서 독성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보니까. 차라리 돌아가셨다면 다행이야. 봉성하게 여겨 사람들이... (사례B7).

있죠. 그게 뭐나면 제 스스로 갖는 자격지심 그게 제일 큰 거 같죠. 그게 제일 크고 '너 지금 내가 혼히 결혼했던 사람이니까 이러는 거야?'는 그 자격지심이 제일 크고. 지금은 사실은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난다던 남성친구 혹은 선배가 나한테나 남편 있을 때는 그런 농담하고 다 받아주고 이렇게 했었어. 그런데 얘기 내가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런 농담을 못 받는 거야. 제가 못 받는 거예요. 에는 변한 게 없는데, ...'나 만만하게 봐? 나가 원하는 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례B9).

옆 사무실에서 일하다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줌마지. 걔는 하는 말이 '언니 혼자된 거 얘기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تد니 그럴 사람들만 일단 무시하고, 가정 있는 여자랑 넘어 있는 여자랑 혼자 있는 여자랑 일단 남성들이 아래 걸고 들어간다고 얘기할 하더라구요. '어디 설마.' 그 때는 제가 몰랐죠. 일단은 그런 건 더더라고요. 쉽게 보는 건 있어요. (사례B12).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구려가는 과정에서 신변의 불안을 느끼거나 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교제하는 경우에서 조차 안전을 위협받는 경험을 숙죄하고 있어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유별나게. 그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더라구요. 합포를 해요. 내가 이거 처분해야겠다. 좋은 분 있으면 알선해달라고 했더 hexatrigesimal 빼려고 하더라구요. 음식을 듣고 싶고, 재료를 주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빠를 할 때는 동생 명으로 하고, 동업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사업자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사례B3).

적했다는 데, 괜히 해고지를 한다거나. 그렇게하려. 면날 전화 데리를 한데거나 침대 쫓아 와서. 물래 와서. 미안을 했더다가 동네에서 고생방물을 한데가나 그런 어떤게 살아 창피해서...한두 번이 아닌데... (사례B11).
한편, 이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은 역시 원가족의 배려와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가족 지지의 효과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혼이라는 생애사건의 기점으로 커다란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족제도에 익숙한 주변인으로부터의 날선 시선을 경험해야 하는 이혼 남녀들에게 원가족은 가장 중요한 지지망으로 기능하게 된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혼으로 오롯이 혼자서 당장의 생계마련이나 자녀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원가족들은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표현해주지만, 이러한 원가족의 개입과 정서적 지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임을 아래의 심층면접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은 가까이 원가족의 개입과 친밀한 유대를 통해 치유받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 비해 (사례 B5, 사례 B9, 사례 B11, 사례 B12), 남성의 경우에는 원가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신과 체면의식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사례 B4, 사례 B10).

그렇죠. 장남이니까 부모님들께서 더 상처가 크셨죠. 처음엔 화를 많이 내시죠. 불같이 화를 내고... 유교적인 사상이 깊으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이혼이라는 건 많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몇 년 지났으니까 수긍을 하세요. 그 당시에는 반대를 엄청나게 하셨죠 (사례 B2).

가족들하고 쌓아 되게 가깝게 지내서 많이 많이 보살핌을 받는 편이죠. 뭐가 간다 하고 혼자 있으면 밥 안 해먹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신경 쓰시고. 그리고 동생들은 다 결혼했어. 동생들이 신경 많이 써주고, 거의 식구들하고 제가 이렇게 앉히지 않는 시간에는 식구들하고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은 거 같아요. 많이 채워주는 거 같아요... (사례 B9).

부모님이 아무래도 많이 그러시죠. 형제들이라고 해봤자. 다 동생들이니까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눈치만 보는 거죠... 한 2주에 한번 정도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식사하며... 진짜 자주 와시네요. 상황이 안되는 사람들은 자주 가면 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하나카 전화나 드리고 명절 때나 제사 같은 거 자네면 저녁에 가서, 부모님 생신 때나 그 때만 찾아 봤고 (사례B10).

내가 이혼을 하고 엄마네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거기서 몇이 살다가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고향(안성)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이 갈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살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나마 (사례B11).

그래서 그런 얘기 전부 다하고, 욕설이며 이런 것도 다 했으나 처음에 말려든 오빠들이 막, 그냥 이혼하라고, 하더라고 얘기한 거... 친정식구들도 그냥 가라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가라 (사례B12).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원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이기는 하나 완고한 결혼가치나 가부장적 자의식이 강한 부모의 경우에는 이혼을 선택한 자녀를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심층면접 결과 이혼여성인 사례B5는 부모로부터 이혼에 대한 질책과 함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주위의 눈을 이유로 거절 받은 경험을 토로하고 있다.

아니, 친정에서 또 좀 상처를 받았어요. 고지식한 부모님 말리아 아้าย 카우는 개 너무 혼들어가지고 친정 쪽으로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야마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한집에서 저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시거든요. 동네 창포하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라고요 (사례B5).

3. 40~50대 이혼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

가. 가구구성의 유동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1인가구는 특정한 관계나 유대에 의해 2인 이상이 함께 동거하는 여타 가구에 비해 가구 경계는 더욱 유동적이다. 특히 본 절의 연구대상자들과
같이 유자녀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점동안 자녀들과 동거 하기도 하고, 혼자서 생활하다가 자녀와 조우하여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한 부모로서 자녀양육과 생계부양의 이중고의 해법으로서 원가족과의 결합을 통해 2,3세대 가구를 형성하다가 자립기반의 확보와 함께 혹은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해 다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등 가구구 성의 역동성이 확인된다. 또한 이들의 연령대를 고려한다면 자녀와 동거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미지아니 곧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으로 이들은 다시 홀로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인터뷰에 참여한 이혼 남녀 역시 일정한 기간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자녀를 전 배우자에게 보내거나, 혹은 계속 함께 생활하다가 자녀의 결혼이나 군입대 등으로 현재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이들이 이혼 후 계속해서 1인가구로 생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가 보살피긴 했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여성이니까 대부분 없잖아요. 없다보니까 일을 할 때에도 시누이가 어리어 봤어요....제가 재혼을 하기 전이니까 그 때는 시누이가 봤는데, ...서류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이혼을 하면 예를 안 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야 돌아오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보내게 됐는데, 아빠한테 보냈을 때 아이가 거기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의정부까지 통학을 해야요.(사례B1).

...외롭고 하니까, 살면서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살았었어요. ... 그런데 제가 독립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시켜봐야겠어요(사례B3).

...이봐야 매어지며 지난 7년 정도 됐죠. 혼자서 97년도 혼자 했으니까 ...초등 학교 못 합니까? 한 5~6학년쯤 됐을 때면, 깊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인애 방청 소를 하는데 매어 밖에서 아빠사진이 나오더라구요...아빠한테 보냈어요...아들한테 꼭작한 사람인걸 알기 위해서알아보고... 그리고 지금은 (군대간 지) 1년 안 됐고, 작년 11 월 말에 갔으니까 (사례B7).

(아이가) 스물 넘어서 (이혼 후 처음)만난 거죠. ...그래서 난 잡은 게 석가탄신일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날 짜는 거야. 그 때 쉬는 날이 내가 집에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가서 만났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날 뒤에서 막 잡는 거야. OOO씨 아니고 그래서 '누구세요? 그려나가 OOO여야. (사회자: 뭐?) 응. ..., 가슴이 묽 내려갔고. 그래서 내가 친구들 있니까 보내려고, 잠깐 있으라고 또 자 거나고 그러려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친구들 보내고. 눈물밖에 안 나온지. 지 친구하고 있다. 어떻게 알았나고, 하나가... ...거기서 봤나.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네(사례B7).

그럼요. 처음에는 친절에 와 있었나? 아니지. 오피스텔을 들어갔던 거 같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있고 그러다. 들어갔다가...일단은 할머니 집 삼고. 아직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물어봤어요. '서울 가서 같이 살래? 아니면 너 엄마랑 떨어져서 살래?' 그랬나? 싶은 것도 있는데 엄마. 엄마랑 같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엄마 신소리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그냥 난 지금이 좋아.' ...일상이 너무 재밌고, 엄마는 주말에만 보면 막 좋대. 엄마가 필요한 거 다 사주고 가고...(사례B11).

한편, 이들의 심층면접은 이혼의 상처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아물어 가기도 하지만, 특히 이혼한 중년세대는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비교적 배우자 없는 생활에 빠지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생별을 넘어 혼자서 생활하는 중년의 남녀들은 모두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 못지않게 질병발생 등의 위급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혼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있어 감각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곧 위기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현재 건강상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고 몸이 아픈 경우에는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더욱이 이들은 노년기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겪는 불안감은 단순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고독사, 사고사에 대한 공포까지 내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년기와 노년기를 포괄하는 독거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도 여사서 병원을 다녀요. 그때 당시에 그 사장님의 배려를 많이 해주셔 퇴근을 조금 늦리거나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고 거기에서도 일 년을 하다가 또 매장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일을 계속 하면서 쉬면서 생활을 해다가 최종적으로 직원에 제가 퇴근도 조금 안 좋아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 년 삼 개월을 쭉 쉬고 있는 거예요.(사례B1).

...아픔 때 내가 죽을 거 같은데, 새벽이거나, '나 이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연락할 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얼마나 연락을 하기도 그렇고, 그 시간에 동생한테 연락을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가 온전히 제가 혼자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때 전짜 삼조 '나 이리다 119 부르러 가겠구나. 119 부르러 가겠다.' 언제 이런 생각할 때(사례B9).

여기에 더해 여성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사례B12 여성의 경우,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여성대상 폭력피해를 언급하며, 혼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노출여부에 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네. ( преж) 되요. 근데 복도식이고 밖에 사시 처져서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내가 자기 여성 혼자 산다 이거를 또 알면 안해 걱정이 되거든. 오래 같은 경우는 세상이 무서워서 술 먹고 들여가면서도 조심스럽고 걱정, 전까 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 뉴스 볼 때마다 섬뜩 섬뜩해요.(사례B12).

이들이 평상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발생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은 곧 이들이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거주 지역 중심의 근린 네트워크...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가족구조 변화는 사실상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삶의면서에 응한 중년 1인 가구들의 경우 기존의 네트워크, 친구나 직장동료들의 모임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혼자서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고충은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여 혼자서 생활하는 동년배들과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동호회 중심의 네트워크는 취미를 공유하거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는 유용하지만, 위기 시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심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거리가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근린 중심의 자조망 구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모임을 가죠. 회사 내에서도 스포츠 모임도 있고요. 또 인터넷 온라인 쪽으로 모임도 있고 해서 그런 모임에 자주 모여서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라면 주말에 바갈은데 가서 위스키도 한잔 마시고, 와인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같은데 쌓죠. 솔로들의 모임, 이런 여성분들은 돌싱이라고 하더라도요. 만나서 서로 살아가는 얘기, 취미생활이 같으신 분들은 같이 주말에 스케줄 짜서 여행도 한 번씩 가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사례B1).

저는 고등학교 동창, 주로 고등학교 동창이예요. 사회 친구 한 두 명 있고, 다 고등학교 친구지 뭐...(사례B8).

저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 있는 OOOOO라고 아실래나? OOOOO? 인터넷에 카페예요. 집 꾸고, 음식하고, 살림하고 그런... 그 카페랑 산악회랑 하나는 일반 친구 모임 비밀모임... 같은 동갑내기끼리가 아니라도 채팅하는지 알아요. 같은 동갑이라는 자제를 만나면 친해져요. 그렇게도 개대들과 막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모이거나 정기적인 모임이고, 가끔 변개치면 변개나가고 그렇게 톡으로 주거나 받거나 안부주고 받고 그 정도예요...(사례B12).
다음에 이러한 자조망을 활용하게 이용하지 않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성별을 떠나 주기적으로 자기만의 고립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우울증이나 심각한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의 전환가능성 또한 멈지 않을 수 있다.

...과로우나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몇 년 살면 하루 24시간인데 몇 시간 자면 몇 년을 잠을 자는데 통계를 듣고 하는데도 정말 죽음의 시간인데 돈을 좀 벌고 싶은 생각도 있고, 보람 있게 생활 하고 싶은데, 내가 길을 못 찾았는지 사회가 그런 현상인지 모르는데 우선 돈 벌고 싶고 괴로우니까 잠이 많이 오더라 고요. (사례B4).

...남자친구 있어도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 같이 있는 거 하고 전화로 따뜻한 말이야 쉽지. 나도 자기 아픔 때 잘 못 가겠지만... (사례B7).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는 어느 기간 정도는 잠수 타는 기간도 있어요... (사례B9).

...우울증 나도 몰랐는데, 우울증이 만 개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험 했던 게 움직이기도 하고, 벽지 않아도 무서워서 이 생각까지 생각 하고 그런데 일어나기는 또 싶어요. 그럼 매 나이야 되는데, 사람 만나고 귀찮고, 그러면 이렇게 심하게 우울증을 겪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극한상황에 갈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사례B10).

나. 불안정한 성적 친밀성의 추구

다른 연령의 1인가구와 달리 이혼을 경험한 40~50대 남녀의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통해 정서적, 육체적 친밀성을 충분히 경험해 왔다는 점에 이혼 이후 친밀성의 단절은 또 다른 어려움으로도 다가오게 된다. 특히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계층이나 가부장적 성문화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일부 남성의 경우에는 다소 과탈적인
행위로 평가되는 방식으로 성적 긴장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갖는 문제점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백하기도 한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성불구자도 아니고요, 한참 그런 욕구가 있을 나이인데,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면 그렇잖아요. 남성들끼리 모임에 가면 단련주점 갈 때도 있어요....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돈 주고 하는 업소를 이용할 때도 있고요.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연으로 알게 되어서 서로 결혼을 목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필요하다가 그렇게 해서 한 번씩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됩니다....그렇다고 아무 사람이랑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그런 점이 달라붙습니다(사례B2).

여자야 오늘 같은 날 여관에서 한번 자보면 좋지만 경제적인 게 안 되니까 잡는 거죠. 잡는 거고, 후회스럽죠. 인생 돈이 있으면 줄거고 줄겁겠는데, 이렇게 안 줄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여설프게 잘못 사귀어서, 여자 경험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꽃뱀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려들고(사례B4).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협법적은 아니지만 그런 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 내가 필요할 때는 젊으니까 젊다기보다는 아직 왕성하니까 활동이. 그래서 성을 사요(사례B10).

이들 세대는 노년세대에 비해 가족주의적 가치가 다소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제도화된 결혼관계와 협법적인 남녀관계의 우선성을 인정해온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해체를 경험한 이후 이들은 상당부분 제도적인 남녀관계나 형식적인 부부관계보다는 상당히 기능적인 남녀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재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나름 안정적인 남녀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공유하고 성적인 친밀감을 누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이다.
매일 만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되면 그렇게도 보고, 안 그릴 일주일 넘어서 만날 때도 있고, 전화통화 한 번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도... (재혼일반 여건이 예약한지 하니까... 둘다 예가 빨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방분간은 생각안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더 외로워지면 할 수도 있었죠. 더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랑 할 수도 있는거죠. 그거는 서로 간보고 있는 거죠). (사례B1).

...어차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일주일에 한번 만나면 거의 같이 있다고 보아요. 어릴 때는 주말 내내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재혼일반 여건이 예약한지 하니까... 둘다 예가 빨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방분간은 생각안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더 외로워지면 할 수도 있었죠. 더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랑 할 수도 있는거죠. 그거는 서로 간보고 있는 거죠). (사례B1).

...그 사이에는 남자친구가 있긴 했는데, 있긴 있었는데 많이 나이 차이가 난어요. 나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결혼을 하자고 해도 남의 눈이 의식되더라도요. 남의 눈 이... 는, 늘은 아님지 물라도 꾸준히, 의식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어. 아다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에 대한 거는. 그렇다고 나이트 가서 원나잇 그 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요즘 같이 무서운 세상에 잘 일도 없고... 그러면은 불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사례B11).

...갈 의결. 더군다나 동갑이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편하긴 해요. 같이 하는 우리가 보는 건 일주일에 한 많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지방에 가 있어서 일하는 게 지방 쪽이라서 전화만 자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참 들어가기 싫어요. ... (사례B12).

4. 소결

이혼 후 혼자서 생활하는 중년남녀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예의한 예의한다, 중년세대의 경우 서로간의 견해나 생활방식의 차이가 누적되어 부부관계의 파국을 맞기 보다는 배우자나 본인의 결정적인 유책사유에 의해 결혼관계가 해체된 사례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 경제적 무능력 등의 일회적인 사건이 바로 관계의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해체로 이어지기 보다는 이러한 사건이 수차례 혹은 수년에 걸쳐 반복되어 더 이상 생활유지가 어렵게 되어 최종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40~50대의 경우, 결혼관계의 탈주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그로 인한 비우호적인 결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태에서 이혼을 선택함으로써 이들은 이혼이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심층면접에 응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활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여성들의 경우, 주된 이혼사유가 배우자들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경제적 무능과 동반되는 폭행이나 외도가 일상화되는 상황에 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마지막 출구로서 이혼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생애계획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은 곧 이들의 홀로서기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최근 이혼한 가족의 변화된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과거에 비해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하게 차단되기 보다는 경기적으로 만나거나 배우자와의 감정적 대립과는 무관하게 자녀양육을 둘러싼 상호 협의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이혼 후,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와 주기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봉급생활자의 경우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그들이 양육하는 자녀를 하여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꺾는 단절을 요구하기 보다는 소식이나 정기적인 만남을 지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혼이라는 생애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전배우자에게 위임한 일부 여성 1인가구조자 특정한 계기를 통해 자녀와 상봉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전배우자의 양육환경이 열악해지면 가까이 양육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적극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규칙적인 생활패턴이 유지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당혹감과 실리적인 고독감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재혼에 대한 기대격차로 표출되는데,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재혼이나 전배우자와의 결합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재혼에 대한 남녀의 차별적 기대감은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상황 일수록 재혼에 대한 기대가 낮은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재혼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재혼에 대한 기대격차로 표출되는데,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재혼이나 전배우자와의 결합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재혼에 대한 남녀의 차별적 기대감은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상황 일수록 재혼에 대한 기대가 낮은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재혼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다양한 가족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자들이 체감하는 차별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혼자의 이러한 자격지심은 실제로 대인관계의 축소나 소극적인 태도로 표출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여성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변의 불안을 느끼거나 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교제하는 경우에서 조차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은 역시 원 가족의 배려와 지지이며, 이러한 원가족 지지의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혼 이후 혼자서 생계부양과 자녀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원가족의 지원과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삶의면접 결과 원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배려가 적지 않으나, 남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위선과 체면, 혹은 남성 다음의 신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과 원가족과의 환반은 만들지 못한 구체적인 생활밀착적인 교류는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정한 관계에 의해 2인 이상이 함께 동거하는 여타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경계는 더욱 유동적임을 알 수 있는데, 예컨대 이들은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전배우자에게 자녀를 보내거나 한 부모로서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족과 결합하는 등의 역동성이 확인되었다. 이같이 일정한 시점에서는 1인가구로, 다른 시점에서는 2인 혹은 2~3세대 가구를 형성하다가 자립기반 마련되거나 혹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다시 1인가구로 이행하는 등 이들의 생애주기에 가구형성의 유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연령대를 고려한다면, 자녀와 동거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곧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으로 이들은 다시 혼자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성별을 막론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감각소리운 질병 등의 위급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가지지 못한 1인가구는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우울증이나 심각한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는 이들의 심리정서 및 성적 친밀성의 추구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는 여느 세대와 달리 이혼을 경험한 40~50대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통해 정서적, 육체적 친밀성을 충분히 경험해 왔다는 점에 이혼 이후 친밀성의 단절은 이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지인이 어려운 계층이나 가부장적 성문화를 남성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실제로 일부 남성의 경우에는 다소 일탈적인 방식으로 성적 긴장을 해소하면서도 그러한 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회의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중년 1인가구는 혼인관계의 해체 이후 제도적인 남녀관계가 형식적인 부부관계보다는 상당히 기능적인 남녀관계를 통해 심리정서적, 성적 친밀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재혼에
대한 확신이 없이도 나름의 안정적인 남녀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간의 고충을 공유하고 성적인 친밀감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세대가 한국의 기성세대의 핵심이지만,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친밀성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터부시하기 보다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수용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녀 및 섹슈얼리티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제3절 70대 이상 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삶과 생활세계

1. 개요

본 절에서는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1인가구가 된 과정과 1인가구로서의 구체적인 생활현황과 향후 생활에 대한 전망 등을 질적연구를 통한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령자들의 삶의 현황과 관련된 사례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고령자 6명에 대한 집단면접(FGI)를 실시하였다. 집단면접 결과와 선행연구결과 등에 기초하여 면접조사 대상자는 70대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최근 조사결과(정경희 외, 2012)에 의하면 1인가구의 비중이 70대를 넘어가면서 증대하고, 평균 독거기간이 13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풍부한 내용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3월 60대와 70대 남녀 고령자 6명을 집단면접(FGI)하여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관심사를 파악하였으며 심층면접대상자 선정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연구질문 등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은 2012년 3월~8월 기간 중 전국에서 거주하는 11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가. 집단면접(FGI) 참여자의 기본 특성

개별 사례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한 집단면접(FGI)에 참여한 고령 참여자는 6명으로 서울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로 남성와 여성 각각 3명과 70대 전후의 고령자이다.

집단면접에 참여한 고령자는 대체적으로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자라는 편향성이 있어 관점과 논의의 주제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노년기에는 건강상태의 변화가 크고, 활동적인 노화를 영위하고 있는 고령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 해 볼 때, 심층면접을 위한 사례는 고령자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5〉 70대 이상 고령 1인가구 집단면접(FGI) 참여 대상자의 특성

<table>
<thead>
<tr>
<th>사례</th>
<th>성</th>
<th>연령</th>
<th>결혼상태</th>
<th>1인가구 생활 기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FGI-C1</td>
<td>남성</td>
<td>73</td>
<td>사별</td>
<td>13년</td>
<td>1남1녀</td>
</tr>
<tr>
<td>FGI-C2</td>
<td>남성</td>
<td>68</td>
<td>사별</td>
<td>첫째 부인 사망 후 자녀 없음</td>
<td></td>
</tr>
<tr>
<td>FGI-C3</td>
<td>남성</td>
<td>69</td>
<td>이혼</td>
<td>35년</td>
<td>1남 3녀</td>
</tr>
<tr>
<td>FGI-C4</td>
<td>여성</td>
<td>70</td>
<td>사별</td>
<td>40년</td>
<td>3형제</td>
</tr>
<tr>
<td>FGI-C5</td>
<td>여성</td>
<td>71</td>
<td>사별</td>
<td>-</td>
<td>-</td>
</tr>
<tr>
<td>FGI-C6</td>
<td>여성</td>
<td>71</td>
<td>사별</td>
<td>16년</td>
<td>재혼</td>
</tr>
</tbody>
</table>

나. 심층면접 참여자의 기본특성

고령 1인가구 거주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실시한 심층 면접 참여자의 기본특성은 〈표 7-6〉과 같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선정은 성, 연령, 지역, 생활수준과 기능상태를 감안하여 이루어졌다. 연령은 70대와 80대를 모두 인터뷰하되 80대를 좀 더 많이 선정하였는데, 이는
후기로 갈수록 독거생활기간이 길고 노화의 진전에 따른 독거생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가능한 한 수도 권뿐만 아니라 충청, 강원, 전라, 경상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를 면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이는 현 고령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애사가 상이하고 현재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같은 비공식지지 집단의 성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례대상자의 연령은 70대와 4명과 80대 7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명 남성이 5명인데, 이는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의 비중이 높고 독거노인 중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5명, 읍지역 3명, 면지역 3명이다. 또한 경제상태의 경우 국민기초보장대상자인 고령자가 3명, 국민기초보장대상자는 아니지만 경제수준이 65세 이상의 하위 70%에 속하는 고령자가 4명, 경제수준이 65세 이상의 상위 30%에 속하는 고령자가 4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기능상태의 경우 전혀 제한이 없는 건강한 상태의 고령자가 8명, 기능상태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고령자가 3명이다.

〈표 7-6〉 70대 이상 고령 1인가구 심층면접 참여자의 기본 특성

<table>
<thead>
<tr>
<th>사례</th>
<th>성</th>
<th>연령</th>
<th>지역</th>
<th>(시군구)</th>
<th>독거기간</th>
<th>자녀수</th>
<th>학력</th>
<th>경제 및 기능상태</th>
<th>기능상의 제한</th>
</tr>
</thead>
<tbody>
<tr>
<td>사례C1</td>
<td>여성</td>
<td>70 (도시)</td>
<td>서울시 관악구</td>
<td>10년</td>
<td>4명</td>
<td>중졸</td>
<td>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td>
<td>없음</td>
<td></td>
</tr>
<tr>
<td>사례C2</td>
<td>여성</td>
<td>84</td>
<td>경북</td>
<td>중층</td>
<td>65세 이상의 하위 70%에 속하는 고령자</td>
<td>있음</td>
<td></td>
<td></td>
<td></td>
</tr>
<tr>
<td>사례C3</td>
<td>남성</td>
<td>71 (도시)</td>
<td>경기도 산본</td>
<td>3년</td>
<td>3명</td>
<td>초졸</td>
<td>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아니 기초생활보전급 수급자</td>
<td>없음</td>
<td></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table>
<thead>
<tr>
<th>사례</th>
<th>성</th>
<th>연령</th>
<th>지역 (시군구)</th>
<th>독거 기간</th>
<th>자녀수</th>
<th>학력</th>
<th>경제 및 기능상태</th>
<th>기능상의 제한</th>
</tr>
</thead>
<tbody>
<tr>
<td>C4</td>
<td>여성</td>
<td>84</td>
<td>읍(농어촌) 전남 나주</td>
<td>10년</td>
<td>9명 (7명은 전처 자식)</td>
<td>무학</td>
<td>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아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td>
<td>없음</td>
</tr>
<tr>
<td>C5</td>
<td>남성</td>
<td>81</td>
<td>동(도시) 강원 원주</td>
<td>2년</td>
<td>6명</td>
<td>초졸</td>
<td>기초노령연금 수급자</td>
<td>있음</td>
</tr>
<tr>
<td>C6</td>
<td>남성</td>
<td>78</td>
<td>동(도시) 서울시 성북구</td>
<td>3년</td>
<td>5명</td>
<td>무학</td>
<td>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아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td>
<td>없음</td>
</tr>
<tr>
<td>C7</td>
<td>여성</td>
<td>82</td>
<td>면(농어촌) 경기 황성군</td>
<td>15년</td>
<td>5명 (3남 2녀, 1명 사망)</td>
<td>무학</td>
<td>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아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td>
<td>없음</td>
</tr>
<tr>
<td>C8</td>
<td>여성</td>
<td>85</td>
<td>읍(농어촌) 울산 울주군</td>
<td>10년</td>
<td>6명 (전처 자녀 3명)</td>
<td>무학</td>
<td>기초노령연금 수급자</td>
<td>있음</td>
</tr>
<tr>
<td>C9</td>
<td>여성</td>
<td>86</td>
<td>동(도시) 경기 고양시</td>
<td>20년</td>
<td>6명</td>
<td>중졸</td>
<td>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td>
<td>없음</td>
</tr>
<tr>
<td>C10</td>
<td>남성</td>
<td>80</td>
<td>읍(농어촌) 강원 정선</td>
<td>25년</td>
<td>1남 4녀</td>
<td>초졸</td>
<td>기초노령연금 수급자</td>
<td>없음</td>
</tr>
<tr>
<td>C11</td>
<td>남성</td>
<td>76</td>
<td>면(농어촌) 전남 장성</td>
<td>20년</td>
<td>3남 4녀</td>
<td>무학</td>
<td>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td>
<td>없음</td>
</tr>
</tbody>
</table>

주: 1)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에게 정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2012년 현재 최고 월 94,600원이 지급되고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2. 고령 1인가구의 형성과정과 적응

가. 1인가구 형성 과정

노년기를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독거로 이행하는 대표적인 과정은 단순하다. 자녀를 독립시킨 후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게 되는 경우와 무배우 상태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게 되는 경우로 배우자의 사망과 자녀의 독립의 선후 관계가 다를 뿐이다. 전자는 혼자 생활하기 시작할 때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스트레스를 함께 해결하고 적응해야 했던 반면 후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데도 독자적 가구를 형성하고자 하는 자녀세대의 결정과 그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함께 갖는다는 차이가 있기에 한다. 현 고령자는 대부분이 결혼 후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함께 부부관계를 유지한 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별로 인하여 무배우 상태가 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차이와 남편과의 나이차이로 인하여 많은 여성고령자의 독거기간이 길다.

막내까지 다 시집 장가 보내고...돌어서 살다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사례C1).

저는 일찍 혼자 됐어요. 40년 정도 됐어요. 3형제를 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신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다 결혼시키고는 그냥 저 혼자 하는 것은 없어요. 교회 다니고 그냥 운동도 조금씩 다니고 병원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사례C5).

이들 1인가구 거주 고령자들이 혼자 생활하게 될 때 큰 갈등을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이들이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성인자녀의 역할이 동거부양에서 별거부양 쪽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적 혼란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적극적인 동조라기보다 내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포기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태에 대한 적응은 자녀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말이면 저희 자식들이 오고, 저희 식구끼리 지내야지 여기 올 수도 없고, 어째든 무슨 때나 왔으면 오고, 못올 때는 못 오고 그날 그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움에 살아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말들이...바쁘게 사니까. 오면 돈을 줘야 하나가 아니라. 우리니까 오면 다만 2~3만원이라도 주고 가야할 텐데, 그러니까 그냥 못 오고 그래서 난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는 와요 (사례 C9).

간혹 자녀들이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함께 살 것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다시 동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의 삶에 이물질로 편입되어야 하거나, 오히려 자녀에게 다양한 도구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현실도 이들이 독거 생활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들은 그러저, 저의 집 외서 있으라 그러저. '살아, 난 경로당에 가지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좋야' 그러저. 친구가 더 좋지 거기 앉아서 같이 먹고, 놀고, 드러누웠다. 앉았더, 테레비, 화투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지... 아들네 가도 내가 다 해야지. 직장에 가면 내가 밥해 먹어야 되고, 치우고 다 해야지... 여기서 나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그냥이고, 찐밥이라도 있으면 한술 먹고, 없으면 그냥이고 그렇게 (사례 C7).

나. 적응과정

혼자 생활하게 되면 함께 생활하던 가족이 있던 생활과는 많은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적응력과 속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먼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혼자 생활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배우자
와 생활하다가 혼자 생활하게 된 고령자는 배우자 없이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깊은 외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노년기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그렇게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노년기에 적응해야할 과업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혼자 산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글쎄 그렇게 어떻게 적응이 됐다고 그렇게. 그냥 혼자 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다ались. 처음에는 조금 혼들어. 아무래도 같이 있던가 혼자 있으니까. 혼들다가 이제는 적응이 조금 됐어. 적응이 됐고 그래 사는데 불편함은 없지(사례C1).

사실 제일 혼들었던 것은 갑자기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할 때 그래가 가망 혼들었던 것 같는데 모든 것이 시간이 해결한다고 그래그대 손가락에 넘어가겠다고요...(사례C6).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사례C10).

이러한 점진적인 적응은 노년기에 배우자 없이 생활하는 주위사람이 많을 때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여성고령자의 경우 주위사람들도 모두 혼자 사니까 ‘나만’ 혼들게 산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것도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혼자요. 거의 혼자요... (그래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사례C7)

또한, 자녀들이 신경을 쓰다고 느끼면 비교적 적응속도가 빨리지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고령자 자신의 성격이 긍정적인 경우 좀 더 용이하게 혼사는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혼자 살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신들이 더 신경을 쓰졌다(사례C1).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어두레도 들이 있다 흔자 있으니까 마음 아팠지...그냥 이렇게 사니까, 우리 친정이 여기니까... 동생이 있으니까 가지치지. 한결 낫지.(사례C7).

그런(외로운 것에 면역) 거 걸더라도 그 때는 진짜 노래만 부르고, 콧노래라도 부르고 무지하게 울었지 울기는. 그런데 그것이 지구 없어지더라도 어쨌든 건강해도 다만 몇 년이라도 누구한테 야쉬운 소리 안 하고 길을 찾는 것 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내가 작심을 하고 있어(사례C3).

사람의 성격이 여러 층이 있는가요. 우리는 성격이 낙천적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좋게 생각하고 아침에도 즐거운 것만 생각하고 납하고 싸우는 것 싫어하고 편하게 사는데 (FGI-C2).

취미를 가져보려고 나가보니까. 내가 또 술이라도 먹고 담배라도 좀 피우고 딸랑딸랑하는 성격이면 모르는데, 성격이 또 그렇지도 않거나... (그러니까 남성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요. 내 성격이가요. 자금, 누구하고 쓸데없이 말 잘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내성적이라고... (사례C6).

3. 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

가. 1인가구 생활의 어려움과 좋은 점

혼자 산다는 것이 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외로움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외로움은 아울 때 증폭된다.

(혼자 지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외롭고 슬픈 것이지...외롭기야 한이 없지.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고, 내가 뼈 쓰리지어서 이나나.(사례C11).

돌이 살 때는 잡혔는데 혼자 삶고부터는 그걸 안 잡.Quit. 누구든지 올 수 있게 안 잡.Quit. (아픈게) 제일 걱정이에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아프면 못 잔다. 아프면 어떻게 하냐? 그거 한 가지 밖에 없어요(사례C1).
외롭고, 그렇지. 혼자 이렇게 살아보니까 몸 안 아프고 편한걸 때는 친구들이 외서 같이 놀고 어린가 편하게, 몸이 좀 아프면 그렇지고 또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단지 아프다고 해도 먹을 것 해주는 사람 없이 내가 해 먹으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 고 못 먹는거지. 못 먹고 자내고 그러고, 나도 아프기는 좀 아프고. (사례 C1).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경험한 어려움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성고령자는 대부분 심리적인 측면만을 언급할 뿐 대부분 구체적인 불편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배우자가 해주던 도 구적 도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음을 불편한 점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남편이 죽고) 뭐가 불편하냐하면 일이 불편하다. 농사짓고 사나가 불편하고, 돌아 가신 이후로 담배도 혼자 키웠고, 한 3년. 그런 일이 불편했지... 논두렁에 풀을 베어 농사를 짓는데. 예전에는 그냥 내가 슬슬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 하겠고, 에들 오면 낫이나 갈아놓고 가라고 하려고. 그런 게 제일 불편해.(사례 C4).

반면 남성고령자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불편함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분담 속에서 평생을 생활해온 고령자에게는 당연한 성별 차이일 것이다. 또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대화대상자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남성 고령자에게 있어서 배우자를 대체할 수 있는 대화대상자가 부재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누가 해 줄 수 없잖아. ...혼자 있는 게 외롭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고 생각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생활하기는 혼자서 하나면 밥해 먹어야지 첫째, 그 다음에 람해는 람해해야지. 샛에는 몸도 대워 먹어야지 생활 많야. ... 또 매월 25일이면 연금 타고 오고(사례 C10).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혼자서 살면서 괴로울 때는 옛날에 마누라랑 살 때는 술 왕창 먹고 들어가서 아침에 해장국 끓여주는데 혼자 살 때는 밤새 술 먹어도 해장국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것은 잔소리도 않고 그게 제일 괴롭더라고요.(FGL-C2).

한편 혼자 살기 때문에 좋은 점으로는 자유로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청장년층 1인가구 거주자가 언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즉, 다른 가구성원과 생활을 공유하는 것에서 오는 긴장은 모든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머느리하고 같이 사는 집은 못 가니깐, 눈치 보아야. 혼자 살 때는 그게 제일 좋아. 그리고 사람도 자꾸 모이지. 밥도 해먹고, 국수도 해먹고 이것저것 해먹으면서 고스톱도 치고, 그렇게 하루 보낼 때도 있고(사례C1).

나. 활기찬 일상생활 vs 고립된 생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의 일상생활은 두 가지 대조되는 유형을 갖고 있다. 첫째는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노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참여등과 같은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고령자이다.

저는 5시경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1시간 30분 동안 운동하고 그 다음에 6시 30분, 7시 사이에 아침을 먹고 조금 TV를 보다가 복지관에 가요. 복지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일찍 가는 편이에요.(FGL-C1).

고독할 것 없어요. 바빠요. 노는 것도 게임도 많고 PC방 가서 두들겨 봐야 되고 당구도 차야 되고 바둑도 봐야 되고 왕좌도 해야 되고 경마도 가고 포커도 하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뭐가 TV에서 저녁에 바둑도 봐야 되고 중권 영화도 보고 요새 재미있는 거 많잖아요. 밤에 나가면 술집에서 여기저기에서 오라고 하고요(FGL-C2).
이러한 활력찬 생활은 고령자 본인의 삶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안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봉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오늘 어디 갈 수 있다는 것, 나를 이런만큼이라도 필요로 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표정도 밝아졌고 또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FGI-C5).

반면 다른 사람들과 고립하여 생활하는 고령자들도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이 없고 특별한 취미생활이나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매일 매일의 생활패턴이 반복되어 삶이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무료해지는 것이다.

저녁에 텔레비보고 어제구 잡이 안 오니까 열한시에도 자고, 열두시에도 자고이래. 그러나 아침에 여섯시도 깨고 다섯시에도 깨고 그래요. (중략)...사람 게 지루한 거죠. (아직도 아내 생각이 난다는 것보다는)... 지루하니까 죽겠어요. 지루해서 (사례C6).

잠만 자지. 바깥에 나가서 쪼까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낮에 다니기나 나가면 어지러워서...왜 담배를 피우냐, 이렇게 누웠다가가 문득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들면 담배를 피우야 마음이 차분해지고 도라누워서 잡을 잘 자. 그러나나 담배를 피우면, 피어나서 시작한제가 한 10년 됐어...어디놀러갈래야 갈 딱이야아, 지루해서. 잠을 잘 자고 나서 앞으로가고, 앞동산이나 올라서 자기가 쪼까 앉았다 내려오고(사례C11).

주로 경로당에서...난 가끔 집심 해먹고, 놀이하고, 재미로 노는 것도 있어요...장 기도 두고 맘대로 하는 거죠. 고수록도 치고, 그런 거지 뒤 만 게 뭐 있었어...낮은 시간을, 집에 있는 거지 뭐, (사례C10).

(제일 힘든 것은) 혼자 있으니까 담담한거죠. 지루한거죠.(사례C6).
다. 비고령자와 다른 시간개념: 주중과 주말의 구분이 없는 생활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는 본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주중과 주말생활에 큰 차이가 없다. 절대로 다수가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일을 하더라도 전 일체로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사회의 생활주기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은퇴자를 중심으로 하여 주중과 주말로 형 성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오히려 주말이 더 외로움을 느끼는 기간이 되곤 한다. 일하느라 바쁜 자녀들이 그래도 주말에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며, 주말을 여유 있게 즐기고 있을 지인들의 삶에 방해가 될까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말이 넘으면 기다려저도 올려나 어쩌려나 기다려 지다가 안 오면 서운하고 또 오면은 시끄럽고 그렇죠. (사례 C1)

사실 공휴일 하고 일요일이 더 외로워요, 그래도 전화할 때가 없어요. 다 기죽이 있고 자주에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함부로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그렇게 삶았는데 나도 내 부모한테 그렇게 못하고 삶았는데 애들한테 전전히는 것도 육심이하 하면서도 기다려지고 바래는 그 심정은 어쩔 수 없다고요 (FGL-C6).

(쓸쓸하다 고독하다 생각한다...) 실일전처리든지, 청초나,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가끔씩 친구들이 삶아서 나를 놓쳐왔는데, 그러던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때가 조금 쓸쓸하고 (사례 5).

라. 생애사의 누적적인 영향

1) 경제적 의존성의 복합적 영향: 심리적 사회적 위축

연금을 받고 있거나 (사례 C5, 사례 C6, 사례 C8) 농어촌 지역에서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사례 C4) 등을 제
외한 다수의 고령 1인가구 주민들은 경제적인 불안감 또는 의존성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도는 갑 아름사, 돈이 한 40만 원 정도 나오면 전화باء금 5만 원 정도 떨고, 35만원 가지고 병원 다니면 차비하고, 그러나 아랍지, 그러나가 죽고 싶다고 하자(사례 C2).

애들이 조급식 취요, 그러나게 삶아, 혼자 살아도 먹는 거 이런 거, 사 먹지 않아요, 언제 무슨 전기세도 내고, 그런 거 자가지, 내가 여기서 이런 때 생각해, 내 목구멍이 아무것도 없는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해프냐는... 애들이 주니계 살지, 내가 어디가 돈 한 푼이나 받아요, 그러나게 애들이 주니계 사는 거지, 그거 그렇게 해도 내 먹 수 먹지 않는데 그렇게 해프요(사례 C7).

나는 (혼자 사시니가 제일 힘든 점)이 첫째가 돈이 문제지 뒷 첫째는 돈만 있으면 착착 하는데, 돈이 없으니가 쓰레없이 이런 거하고, 다나기도 힘들고(사례 C9).

이러한 불안감은 기본적인 주거의 불안정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거의 불안정은 도시지역에서 더 분명한데 임대료의 증대로 인하여 향후 주거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례 C3은 전형적인 도시빈민형 고령자 1인가구의 전형적인 예이다. 현재 사례 C3은 일시적으로 미혼딸의 집에 '옛이' 살고 있으며 자신의 직업적 전망도 부정적이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내가 2000만원에 15만원씩을 줬거든. 그런데 1000만원에 40만원씩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5만원 더 올려달라고 했어도 내가 바㎢을지 모르는데, 월세를 40만원 올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운영이 안되겠어. 하여튼 임자리도 사망하고 그래서 결론은 10월로 어디가서 변잡이나 얻어가지고 지말까 그렇게 그런 생각도 일부 있고, 여기서 다만 임자리라도 생기면 방 한 칸이라도 살아볼까 저금 마음이 갈리고 있지... 지금 아파트 경비를 하는데... (월 96만원정도 봉급인데), 내가 지금 39년생이건, 지금 아파트 경비도 자꾸 사람을 줘하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이 연령계한을 해 그래서.. 좀 99%는 확률이 없다는 견적이 나와(사례 C3).
또한 이러한 경제상황은 고령자의 여가생활의 위축이나 심리적 위축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가활동에 수반되는 지출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격차로 인한 자격지심이 이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특히 '옛날'의 경제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고령자의 경우 현재의 녹어지지 않은 상황이 더욱 더 타인과의 연계와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로당도 안 가요...돈 내야야(사례C9).

(동네에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많죠. 그런데 각자 생활이 다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친구할 사람도 비슷해야 맞아야 하니까 친구도 자취지 못하는 거죠(사례C6).

책보고 그렇게 하고 살지 않는데 마음을 가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마음 다나는 것도 싶고, 맞는 사람도 없고, 또 조금 통하는 사람은 자손들 하고 사니까. 자손들하고 사는데 가면 누가 자기 시야미도 없는데 누가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아래 안 가고, 자취 안 가고, 마음을 안 가는 편이에요(사례C9).

옛날에는 그래도 영감님에 자수성가해서 괜찮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남분에 손가락질 안 받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그래도 부녀회장을 내가 10년을 더 봤어요(사례C9).

2) 전통적인 성역할의 지속적인 영향

1인가구로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라이프 스타일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전통적인 성역할 속에 생활해왔던 고령자는 혼자 생활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성역할 속에서 결핍되었던 요소에 의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 남성 고령자의 경우 일생동안 가사노동을 비롯한 가족 내 돌봄 역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제7장 1인가구 대표유형의 삶과 생활세계  317

(아내가 있을 때는 다 해주었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는...) 전부 (내가 해야 하나가) 힘들지만 어쩔 수 있나요? 밥도 혼자 해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전부 내가 해야죠 (반찬 같은 것은) 힘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귀찮고, 할 줄도 모르고, 한 가지 가지고 먹다 보면 먹는 것도 물리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건데 어쩔 수 없는거죠(사례C6).

또한 일터 중심의 생활을 해온 남성 고령자의 경우 일 외에 자신을 표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없어 지루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젊어서 늦이나 일에만 신경쓰다보니까 저는 취미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세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작업에만 열중 하다 보니까 내 몸이 펌통하고, 작업이라는 거 하나로 취미라는 게 없이 젊어서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래 되니까 더 지루한 거죠. 일 할 때보다 더 지루해요(사례C6).

또한 직장동료 외의 사회적 연계가 없기 때문에 일터를 떠났을 때 이들의 사회적 연계망도 동시에 약화된다. 반면 여성고령자는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식사준비 등의 남편부양의 번거로움으로부터의 해방감을 가져와 외부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친구가 없어요. 그냥 직장에 있던 친구는 거기 나오면 그만이고... 남성들은 친구 사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성을 갈지 않아요. 남성은 친구를 어느 정도 사귀려면 돈을 많이 써야 해요. 무조건 사주고 서로 그런 대화가 있기 전에는, 만나서 만날 친구는 되지 못해요. 만날 만하다보면 또 만날 돈을 써야 되고, 그러나 혼자 맡기니까 돈 쓸 일이 없고 어렵다고요(사례C6).

(건강 체험장) 주로 그런 곳을 많이 가지... 문화센터 노래하는 곳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나... 할아버지 있을 때는 다녀도 그렇게 많이 못 다녔죠. 식사도 차리드려야 하고 그러니가.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밥 한번 하면 미칠정 먹어도 되고... 자유로움을 느끼지. 힘든 자유롭지(사례C1).
한편, 여성고령 1인가구의 경우 빈곤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본인이 낳은 자녀가 없는 경우(사례C2)나 자녀의 사업 실패 등으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사례C3의 배우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빈곤여성고령자의 경우 국민기초보장제도가 매우 의미있는 사회적 보호망이 되고 있다(사례C2와 사례C9). 사례C3의 배우자의 경우 자녀의 부도사건 후 경제적 자원을 거의 다 상실한 부부는 아내가 독거노인으로 기초보장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상의 이혼을 하게 된바 있다. 이러한 서류상의 이혼은 결국 실질적인 이혼으로 이어졌다.

그 여성은 독거노인 되는 거야. 아무 자녀도 없이. 그러나 내가 내가 말년이라도 능력이 없으니까 벌어먹을 힘이 없으니까 말년이라도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정부 혜택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라고 사정하더라도 .... (이혼 후) 1년간은 전화 통화는 몇 번씩 했지. 그랬는데 한번은 그러더라고 이제 인연이 끝을 때는 끝이야 하나가 앞으로 멀지 않아서 전화 통화도 못하니까, 보험이라도 하나 있으면 외서 정리 해주더라도, 그 뒤부터 끊나버렸어. (사례C3).

저소득층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하여 기초보장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못한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다.

......돌짜발이 집을 샀다고 돈을 안 주는 거야 작년에. 두 달을 안 주고 저거 해요. 이런 벌이 아니라고 늘어 끊어 주리라는 거지, 연여먹는 사람이 연여먹을 적에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오죽하면 연여먹고 살겠다고. 그런데 그래 수가 안나고 했더니 할머니 사는 게 정발 형태이 그나, 돌짜 달이 집 갔으니 집 산데 대해서 돈을 대부를 받아서 사고 전세를 놓고 그래서 그걸 때어 오래요. 그래 갖고 그걸 때 갔더니 그 때문부터 한 달에 쌀 나오는 달은 13만원 조금 더 나오고, 쌀 안 나오는 달에는 15만원 조금 더 나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사례C9).
실제 빈곤고령자에게 있어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밥 해 오는 게, 복지관에서 해오는 게) 많이 도움 되죠 (이집은 주택공사에서 싸게 주는 거예요(사례C9).

마. 사회적 연계망의 작동 실태

교제 및 정보의 교환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원인 사회적 연계망(Campbell, Marsden and Hurbert, 1986; Lin, 1982)은 크게 배우자와 자녀와 같은 1차 비공식 관계, 친척, 친구, 이웃과 같은 2차 비공식적 관계와 공식적 관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Cantor, 1979). 면접을 통하여 파악된 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비공식적 관계의 현황과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C1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비공식 관계인 자녀의 경우 경제적 도움과 정서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애들이)...오기도 하고, 가기고 하고, 만나지. 아들과 별하均匀 같이 모여서 먹고 그렇지...매주 모이는 편이지...한 달에 한번 정도 병원비 같은 경우도 아들이 카드 주면 그걸로 끊는 거야... (살고 있는 집은) 아들 주지 뭐... 집은 생활비를 안 주고...용돈은 가끔 주지. 면접 때도 주고 조금씩 주는 거지...(사례C1).

(아들이 오면) 일 할 거 있으면 일 하고, 없으면 앉았다 밥 먹고 가는 거 그렇죠 뭐...자식 사외요, 사다가 해주지... 큰아들이 고등어도 사고, ...그날은 안 먹던 거 먹는 날이지 (사례C7).

(큰딸은) 서울에 있는데 자주 와요. 차다러 와서 한 아들 여기서 자고, 여기서 밥 좀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주고 올라가죠. 자주 오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번은 왔어요.
일주일에 한번 끓는 데요.....물게는 못 와요. 하나는 서울에 있는 애는 잘 오는데, 교원으로 있는 애는 늘 바쁘다는 소리만 하고(사례C5).

그러나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안정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자녀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와 연락 등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자녀라는 형제는 있으나 내용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 장가, 시집을 안 가지고 전부 지금 즐ThanOr들 현상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지금 노후대책이 안되어가고 어だと思う데 조금 기대를 가졌는데, 전부 잘못 풀려가지고(사례C3).

자주 오는 거? 아프다고 하면 오고, 병원에 간다고 하면 병원비 주고 그래는데... (자주는 못오자) 즐벘 즐봐 즐먹고(사례C8).

이러한 상황은 해준 것이 별로 없고 해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못한 부모로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이나 빈번한 방문 등을 기대하는 것은 부모된 자로서의 욕심이라는 것이다.

(딸들이 용돈 안 주면) ....할 수 없지. 서운한 건 욕심이지(사례C9).

(말리 사는 이들은) 얼굴은 잘 하면 이놈은 자주 만나지만 얼굴은 많이 만나면 1년에 두 서번 만나지. 벌써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들은 큰 아들 하나 있는들, 전부 고달리고, 먹고 살기가 복잡하니까 무엇이 세간 살아가 낌짜해야 서로 남매간에 다 담구지한다... (사례C11).

게들 고등학교만 마치면 가버렸어. 자들끼리 가서 생활하고 젊은 아들 먹고 살 거야, 아이들은 괜찮고, 나도 이제 괜찮고,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 아버지가 이래 연금 다 타고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쓸 일 없지(사례C10).
제7장 1인가구 대표유형의 삶과 생활세계 • 321

그러나 역시 가장 가까운 관계인 자녀와 손자녀의 방문이 삶에 활기를 주는 요인임을 숨길 수는 없다. 사례 C7의 표현이 현재 1인가구 거주 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자 전체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연서) 기분이 뭐 좋겠슈. 다 늙어서, 애들 오고 그러면 좋지. 손주들 오고(사례 C7).

한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례 C9에서 보듯이 부모의 경제적 안정까지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본인의 노후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었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례 C9는 아들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노년기 이전까지 유지해왔던 생활수준과 현재의 생활의 격차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적응에 힘들어하고 있다. 사례 C9의 경우 다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과 본인은 다르다는 생각을 강화하며 어울리지 않고 있다.

그냥 집 한 채 있고, 논 900평 있어서 그거 받고, 그래 귀가 가지고 나온 거지... 그냥 아들 노나 주고, 아들주고, 영감님 돌아가니까 조금 있는 거 그냥 아들 노나 주고, 나하고 쫓아 노나가지고 살아가. (아들이 망해서)....집은 또 머느라던 이 친구의 남편을 뭐 하는데 보증을 서가지고 집을 졌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갑니까 집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고, 아들 내가 기르고 그러느라고 내가 이렇게(국민기초생활수급자) 된 거지(사례 C9).

괜히 그렇게 칙칙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난 수준이 안 맞아. 살아 그런 사람 살아. 하루를 살더라도 깨끗하게 산 사람 그런 사람이 좋지(사례 C9).

한편, 형제자매의 경우 노화에 따라서 형제자매의 다수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노령이 관계로 간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우리 오빠도 돌아가고, 우리 올케는 시방 요양원에 재시고, 집도 비고, 우리 동생만 여기 잡지에서 살고(사례C7).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생활의 활력과 지지세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C1과 같은 여성고령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형제자매가 가까운 유대를 갖고 있는 경우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에 비싼 자녀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도구적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노화나 사망 등에 따라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기 진입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형제자매나 친구의 축소를 보완해줄 수 있는 비공식적 연계망의 개발과 강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사회와 종교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해온 지역을 떠나 잘 알고 생활하는 지역주민이 없는 경우 사회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각해진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고령자는 혼자 생활하게 되었을 때 ‘부유하는 방랑인’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C6이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를 떠나 생활해온 고령자가 경험하게 되는 사회통합의 약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강원도 oo이어요...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왔죠). 시골에서 애들, 그 때 우리 민이 가 어릴 적에 왔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아주 일을 쉽게 하면서도 만날 부족하고, 살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거죠(사례C6).

반면 지역주민과 끈끈한 유대를 갖고 있는 경우 혼자생활을 하여도 사회적 통합, 유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립감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는 여성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40년 살고 있고 (동네 친구와) 제일 친해. 고항 친구들도 어릴 때 친구들이나가 그렇게 안 친하지. 동네 친구들이 제일 친해(사례C1).

여기? 26년 살았지... (그래도) (속에 있는 애기는) 친구들이나가 하면 소문이 안 나지만, 몇 할배하면는 못한다, 일절 못하지. 하면 마을회관에 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못하지(사례C2).

우리 친장이 여기에... (동생 있으면나)... 의지 되지. 한결 낮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지. 여기가 고항이나가 많은(사례C7).

(경로당에 모여서) 예기도 하고, 테레비보고, 화투도 하고 10원 내기도 하고... 그러나 지녀들에게 집에 와서 밥 해먹고... 저녁엔 안 가지고 집에서 테레비전보고... (경로당) 친구만 해도...한 30명 해요... 다 모이면 그렇고, 다 모이지 않으면 20명 넘이요...(사례C7).
(그 젊은 사람에게) 나는 의지하고 사는 건데, 죽어서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몰라요...('살아 있을 때는') 많이 도와주고... 어디서 돋움장이 와도 나는 한글을 모르니 까 가져가서 때서 삼살이 잘 알려주고 그랬어요(사례C7).

여기 동네 이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 가지 내가 부탁하면 감사 같은 것도 갖다 주고(사례C10).

종교생활을 하는 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서 삶이 무란하지 않고 외로움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큰 일이야.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좋으니까 지금은 토요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그냥 다.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니까요 (FGI-사례C5).

4. 생애주기상 노년기의 특수성

가. 연령차별적 문화로 인한 노년기의 쓸쓸함

우리사회에서의 고령자의 주변화가 고령자로 하여금 고립감과 무기력 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적인 문화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일반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다.

말에도 가면은 젊은 애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노인들만 이렇게 보아니 그 중에 하나가 저가요. 그러니 아디를 가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항상 있고 옷에 나이가 한 살 더하면 옷에부터는 두 발짝을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겠구나. 내 얼굴이 나도 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한테 얼굴 들이대면 얼이나 저 사람이 내 얼굴이 보기 싫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가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작히 손자들도 돈 주면 좋아라 하고 그러잖아요(FGI-C6).
오면 나한테 접근 안 해요.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하나가.... 애들은 할아버지 절에 있어서 잔소리를 듣고 그런 걸 살아해야요 (사례 C5).

아래가지고 처음에는 수급자 하는데 하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비참해져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면 말 더했지. 이제는 요양원에 갈 수 밖에 없다 (사례 C2).

그런데 이러한 편견은 고령자 자신들도 받아들이고 있다.

눈물만 나. 이대로 살다 뒤져버리고 말아버리지. 뭐하러 다녀라 (사례 C11).

(요즘은 100세까지 살아요.) 그런 자식 있는 사람 얘기고, 자식 있는 사람 얘기고, 성가시는 사람 다느는 거 보면 아주 틀어져 있어. 나는 더 살기도 살아. 내 나이 비슷한 사람들 귀신같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보기 싫다 (사례 C2).

나. 노년기의 피할 수 없는 고독감

고령자들은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생의 마지막 단계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혼자 살아가 언제 죽을지 모를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앓이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지금 사태가 이렇게지기 때문에, 제가 혼자 있다가가는 거죠.. (죽음에 대비해서 특별한 준비하는 거 없어요). 매 되면 죽겠죠. 나이가 많으면 죽는 데는 생각이 많이 따울려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 었으니까 언제 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FGI-C1)

그러나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는 태도를 보이는 고령자는 소수였다. 이 에는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화, 현재 걱정 때문에 사후에 대하여 걱정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이틀하고 하루 쉬고 하니까, 절대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래서 괜찮아요. 나는 아직까지 괜찮은 건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이가 자꾸 많아가니까 병도 생길 거고, 지금 83이에요. 83인데 나쁜 데는 별로 없어요.(사례C10).

여유가 있어야 그것을 생각할 힘을 가지지 못한 집에서도 걱정거리가 많다. 밥 걱정은 안 하지만 이 걱정, 저 걱정 별 걱정이 곧데는 걱정은 지금 빨리 못 해요. 다 른 걱정하기 바쁜데, 지금 죽는 걱정하는 사람은 편한 사람이에요.(FGI-C2).

반면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자녀에게 장례 등에 소요될 비용을 전달해놓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상관적 여유를 가진 고령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나도 묘를 영감 죽었을 때 같이 생포를 해서 기모를 해 봤거든. 수의도 해 봤고. 그러면 유언장 같은 것은 (안 썼어요.. 재산이 그렇게 없으니까).(사례C1).

아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아들이 보험이지... 조사대상자 수의도 환갑 때 다 해 봤어. 한 15년 정도 됐어.(사례C2).

내가 죽으면 집은... 아들이 처분해겠죠..해 놓긴 밥 해나요. 난 죽으면 볼 속으로 들어갈거요...화장하지. 내 땅도 없는데 물 저기 해유(사례C7).

내가 죽으면 돈이 얼마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작은 애들한테 해졌죠..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서. 장기예금으로다가...(사례C5).

(애들이) 같이 사는 그런 말 없어요..하나뿐인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도 그런 대책이 되지아.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다 해놓고 있어도 있으니까.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사례C10).
또한 자녀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 자신의 미래보다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건강. 아니 그리고 그냥 저렇게 자식들이 아들들이 못살아서 어떻게 하면 지키 잘 사나 남은 짓 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저 그런 걱정이지. 자식들 건강. 내 건강보다는 자식들 건강이 더 문제가 그 다음에는 내 건강이고 그령자(사례C9).

다.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의존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

고령자는 죽음은 예견되는 것이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건강상태는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기능저하로 인하여 자녀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특히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가장 노인분들의 고민이 차라리 꽤 죽으면 팍 합해도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요. 그런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우리는 지금 광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죠. 자지를 다 움직일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요(FGI-C3).

이젠 우리 생각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죽을 때 어떻게 죽냐 그것이 고민이야(사례C3).

(나중에 돈이 아프게 되면) 요양원으로 가야지. 만일 정신이 없을 때 되면 애들한테 미리 부탁을 하는 거지. 만일 내가 아프면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그래야지. 내가 정신이 있어도 집에 있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훨씬 나이아... (그런 얘기)해봤지만 우리 아들은 어둠도 없다고 하지... 집에서 모신다고 하지. 그런데 그것도 헛 끝이지 못 모셔. 우리 동생 남편 같은 경우도 젊지언제, 안 되더라도 대체에 보내자고 하더라... 다 가는 시대같아. 시대가 그래니까 팬처럼. 난 팬처럼 거 거기서(서운하지 않 을 것 같아) (사례C1).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가치관의 변화: 자발적 VS 적응

고령자들은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서라기 보다는, 바뀌어가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노년기의 배우자의 역할 및 재혼 등에 대한 태도에 있어 변화가 감지되는 데도 있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관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점도 있다. 고령자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보다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욕구가 있어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주로 남자고령자들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고령자의 경우는 오히려 이성교제가 추가적인 보호기제로 연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본인이 평생 세화해온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가능성의 저하가 예견되는 노년기의 이성교제와 결혼이 현실생활에서의 부담과 본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겠다.

(결혼하고 싶다고 느낀 적) 저는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놀람으로 가끔 한 번씩 그러지만 저는 원래 그런 데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좋으니까(사례C4).

결혼은 한 번 했으니까 결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니가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성이라는 것은 항상 서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내 생활에 여기도 있을 뿐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FGI-C1).

나이 들어서 돈이 아닐 거에요. 그러나가 좋은 남성도 소개서켜 줄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동양적이라서 아직도 그런 것이 폐쇄되어 있고 혹시라도 좋은 남성이라도 만나면 나이 먹어서 된 졸례없는 남성을 만나서 집안에 풍파를 일으킬려고 그러느냐 우리 애들 보기에 손자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애기를 해서 더 그런 것이 지금은 많다는 거죠(FGI-C1).

이후 난 그런 사람 보면 어저께 원일아요. 우리는 70awah어서 60노 inherit혼자 왔어서 그러저래 살아놓고, 그런 일이 절대 없어서 남의 남성 향다도 안 보는 데 저것도 사람만가 이렇게 생각이 돼다구(사례C9).

70살 넘어서 연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몇수발하기 싫거든, 나이 먹어서, 지금 나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면 영가 있으면 맨날 밝혀주고, 빨래 해주어야 하나가. 지금도 남편 있는 사람은 지금 막에 나기도 저녁밥 해주러 집에 들어가거든.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이 없다가 말야(사례C1).

5. 소결

급속한 고령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고령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독거라는 현상은 노년기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성인자녀의 노년기 부모에 대한 독거부양이 더 이상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다. 자녀의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독립으로 인하여 부부가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백수자의 사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혼자 생활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볼 때, 청장년층의 1인가구에 비하여 그 생애주기에 있어 예외적인 거주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인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령자들은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독거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주요 관심사는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고 있는가이다. 경제적 의존성과 불안정성은 심리적인 위축과 사회활동의 쩔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년기의 삶의 질 저하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일상을 활기있게 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유형과 무력한 생활을 하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향후 노년기의 1인가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과제는 1인가구 고령자의 사회적 유대와 사회참여활동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제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령자들은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독거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주요 관심사는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고 있는가이다. 경제적 의존성과 불안정성은 심리적인 위축과 사회활동의 쩔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년기의 삶의 질 저하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일상을 활기있게 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유형과 무력한 생활을 하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향후 노년기의 1인가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과제는 1인가구 고령자의 사회적 유대와 사회참여활동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제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수어 이들의 삶에 있어 이들이 평생 경험해온 성역할에 의하여 이들이 노년기 독거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르다는 점에서 성인자녀의 접근이 요구된다. 남성노인들은 심리적인 고립감과 일상적인 가사노동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반면 여성노인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남성노인들은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 및 빨래보다는 기술이 요구되는 요리 등에 있어 취약하다. 반면 여성고령자는 자녀가 없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력 여력이 없는 경우 기본적인 소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 놓인 여성고령자에게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갖는 의미는 크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하여 여
성고령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가야 할 것이다.

한편, 노년기 삶에 있어 지역사회의 기능이 중요하다. 자녀들은 멀리서 생활하고 형제자매나 친구들은 노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지인이 있는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 간의 삶의 모습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1인가구 거주자의 모습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자들이다.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들의 생활을 위축시킨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인가구 거주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결론
제8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다양한 양적 자료의 분석과 질적 접근을 통하여 파악된 연구내용을 주요 주제별로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의 증가추세

본 연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1인가구의 증가추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즉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30년간 지역, 성, 결혼상태, 교육수준별 1인가구의 증가추이를 인구단위와 가구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980년에는 해당 인구 중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현재에는 그 비율이 11.1%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가구단위로는 1980년의 5.1%에서 2010년 24.6%로 급증한 것이다.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동부와 읍면부 모두에서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이 증가하지만, 이 현상은 읍면부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농촌에 남은 노부모 세대가 1인가구를 형성하는 현상을 도시지역에서는 미혼 남녀 및 이혼자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서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으며, 특히 노
남성 1인가구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청년층 1인가구는 대체로 미혼이다. 동부에 거주하는 고학력의 미혼 1인가구, 읍면부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고령 1인가구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15~39세 이하 연령층의 1인가구 거주자는 서울에 집중해 있어 서울거주 비율이 27.7%에 달하고 있다.

2. 1인가구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본 연구는 이러한 급격한 1인가구의 증가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관심정도는 어떠하며 1인가구의 구체적 형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1인가구 증가와 관련된 가치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1인가구 증가가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하는 사회적 이슈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사회문제로의 정립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1인가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가능 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가 이상적인 생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인가구가 비1인가구에 비하여 일반 1인가구로 생활하면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규범적 구속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군에 있어 1인가구의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비1인가구에 비하여 낮다.

다음으로 결혼 전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독립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서구화된 가치관 또한 종합에서 급증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향후 미혼 1인가구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임을 예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구체적인 가구형성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1인가구 형성 상황에 대한 동의 정도는 대부분 5점 만점에 3점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외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혼자 사는 것이 대한 동의 정도는 3.33점으로 노년기에 건강한 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건강이 좋지 않아 보호가 필요하고 자녀가 있어 그러한 보호가 가능한데도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를 종합하면 노년기의 거주 형태는 고령자가 건강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남녀가 집에서 통학,통근이 가능한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가 여부보다는 연령군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동의 정도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전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독립하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생각해보면, 미혼이라도 경제력이 있으면 독립하는 경향이 향후 강화될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8-1 1인가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종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성인 전체</th>
<th>1인가구</th>
<th>비1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td>
<td>4.38</td>
<td>4.30</td>
<td>4.39</td>
</tr>
<tr>
<td>가족관련 가치관</td>
<td></td>
<td></td>
<td></td>
</tr>
<tr>
<td>-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결혼전이라도 독립하는 것이 좋다</td>
<td>3.63</td>
<td>3.82</td>
<td>3.61</td>
</tr>
<tr>
<td>- 부부문제 해결 불가능시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는 것이 낫다</td>
<td>2.84</td>
<td>2.86</td>
<td>2.84</td>
</tr>
<tr>
<td>-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td>
<td>4.20</td>
<td>3.79</td>
<td>4.24</td>
</tr>
<tr>
<td>구체적인 1인가구 형성상황에 대한 동의 정도</td>
<td></td>
<td></td>
<td></td>
</tr>
<tr>
<td>- 미혼남녀가 집에서 통학·통근이 가능하다면 혼자 사는 것</td>
<td>2.72</td>
<td>2.85</td>
<td>2.71</td>
</tr>
<tr>
<td>- 이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것</td>
<td>2.99</td>
<td>3.01</td>
<td>2.98</td>
</tr>
<tr>
<td>- 건강한 노인이 혼자 사는 것</td>
<td>3.33</td>
<td>3.40</td>
<td>3.32</td>
</tr>
<tr>
<td>-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노인이 혼자 사는 것</td>
<td>1.98</td>
<td>1.95</td>
<td>1.99</td>
</tr>
</tbody>
</table>

주: 5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 조사』

표 8-2 연령군 및 1인가구 거주 여부별 1인가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종합

<table>
<thead>
<tr>
<th>연령군</th>
<th>1인가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th>
<th>가족관련 가치관</th>
<th>구체적인 1인가구 형성 상황에 대한 동의 정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결혼전 독립</td>
<td>자녀가 있어도 이혼 가능</td>
</tr>
<tr>
<td>1인가구</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4.10</td>
<td>3.95</td>
<td>2.86</td>
</tr>
<tr>
<td>30~39세</td>
<td>4.19</td>
<td>4.09</td>
<td>3.14</td>
</tr>
<tr>
<td>40~49세</td>
<td>4.32</td>
<td>3.97</td>
<td>3.27</td>
</tr>
<tr>
<td>50~59세</td>
<td>4.47</td>
<td>3.68</td>
<td>3.17</td>
</tr>
<tr>
<td>60~69세</td>
<td>4.45</td>
<td>3.70</td>
<td>2.87</td>
</tr>
<tr>
<td>70~79세</td>
<td>4.42</td>
<td>3.50</td>
<td>2.16</td>
</tr>
<tr>
<td>80세 이상</td>
<td>4.22</td>
<td>3.38</td>
<td>1.75</td>
</tr>
<tr>
<td>계</td>
<td>4.30</td>
<td>3.82</td>
<td>2.86</td>
</tr>
<tr>
<td>비1인가구</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4.15</td>
<td>3.56</td>
<td>2.85</td>
</tr>
<tr>
<td>30~39세</td>
<td>4.37</td>
<td>3.70</td>
<td>3.00</td>
</tr>
<tr>
<td>40~49세</td>
<td>4.49</td>
<td>3.62</td>
<td>3.05</td>
</tr>
<tr>
<td>50~59세</td>
<td>4.49</td>
<td>3.55</td>
<td>2.81</td>
</tr>
<tr>
<td>60~69세</td>
<td>4.39</td>
<td>3.59</td>
<td>2.49</td>
</tr>
<tr>
<td>70~79세</td>
<td>4.32</td>
<td>3.68</td>
<td>2.28</td>
</tr>
<tr>
<td>80세 이상</td>
<td>4.38</td>
<td>3.50</td>
<td>2.32</td>
</tr>
<tr>
<td>계</td>
<td>4.39</td>
<td>3.61</td>
<td>2.84</td>
</tr>
</tbody>
</table>

주: 5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인가구 실태 및 인식 조사』
3. 1인가구로 생활시 예상되는 어려움

1인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화조사를 통하여 1인가구 거주자가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파악해보았다.

1인가구나 비1인가구 거주자 모두 공통적으로 20~30대 청년층의 혼자살이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고, 경제적인 불안정이 예상되며, 외로움을 경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40~50대 중년층의 독거에 대해서는 1인가구 거주자는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26.1%), 외로움(25.5%), 경제적인 불안정(22.7%)의 순으로 응답하여 20~30대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외로움일 것이라는 응답이 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응답도 13.7%로 20~30대의 4.8%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비1인가구의 경우 외로움이라는 응답이 35.1%로 1인가구의 25.5%에 비하여 10%포인트 정도 높다. 반면 경제적 불안정 22.1%,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이 20.7%이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응답도 11.4%이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현실적인 문제를, 현재 1인가구가 아닌 응답자의 경우 외로움이라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노년층의 독거에 대해서는 1인가구 거주자의 약 절반인 47.4%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층에 대한 우려에 비하여 매우 깊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외로움(21.7%), 경제적 불안정(15.4%)의 순이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응답도 9.5%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성은 비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도 동일하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4. 1인가구와 비1인가구의 삶의 현황 비교

2인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에 비하여 1인가구가 갖는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에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 전화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대별로 1인가구 거주자가 비1인가구 거주자에 비하여 갖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분석에 의하면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에 비해 1인가구 거주자들은 월세와 단독주택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의 비율은 24.6%에 불과하다. 특히 청년층 1인가구 거주자의 단독주택 거주율이 높아 58.3%에 달하고 있다. 비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는 동 비율이 28.8%에 불과하다.

청년층 1인가구 거주자의 거주지 변동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 1년간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비율이 46.5%로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21.5%보다 월등히 높으며, 중년층 1인가구 거주자의 22.7%, 고령층 1인가구 거주자의 7.5%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 거주자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다소 낮으며, 연령이 높음수록 사회활동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고령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 비참여율이 79.2%에 달하고 있다.

30세 미만의 경우 1인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5.2%인데 비하여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경우 동 비율이 43.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 등으로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된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30대의 경우도 1인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4.3%인데 비하여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경우 동 비율이 72.7%로 21.6%포인트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여 40대 이후부터는 1인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하여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거주자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율이 1인가구의 29.2%보다 14%포인트 높은 43.2%이다.

소득수준, 지출수준 모두 1인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낮으며, 1인가구는 40대부터, 2인 이상 가구는 50대 이후부터 지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또한 재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은 1인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낮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은 1인가구의 수급률이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은 특히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수급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세 미만의 경우 만성질환율이 11.8%로 2인 이상 가구의 10.2%보다 높은 등 모든 연령군에서 1인가구의 만성질환율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높다. 우울의 경우 1인가구가 11.2%점으로 2인 이상 가구의 5.9%보다 더 높다. 40세 미만의 경우는 유사하지만 40세를 넘으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화조사결과 분석결과 1인가구의 42.5%가 저축할 여유가 없고 1.1%는 빌려서 생활한다고 응답하여 56.4%는 저축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 경제적인 상황이 양분되고 있다. 비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는 65.3%가 저축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1인가구와 약 9%포인트의 차이를 보인 반면, 30% 이상을 저축하는 비율은 1인가구가 28.3%로 비1인가구의 24.7%보다 3.6% 높다.

현재의 삶의 만족도는 1인가구 거주자가 5점 만점에 3.31점이며 만족한다는 응답이 43.0%이며, 비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는 3.50점과 52.1%로 1인가구 거주자에 비하여 높다.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 의지할 만한 사람의 규모는, 3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23.6%이며, 다음이 5명으로 20.2%, 2명이 20.1%, 6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8.1%이다. 반면 1명이라는 응답은 7.1%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비1인가구의 경우도 유사하지만 6명이라는 응답은 21.2%로 1인가구에 비하여 약간 높다. 즉 의지할 수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가. 1인가구 형성 이유 및 생활실태

1인가구 거주자에 대한 전화조사에 의하면, 연령대별 1인가구 형성의 이유가 상이하다. 20~30대 1인가구 거주자가 혼자 사는 이유로는 ‘나의 직장 또는 학업 때문에’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로 22.1%이다. 반면 40~50대는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7.2%로 가장 많았고, 직장/학업 때문이라는 이유가 26.9%,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가 21.1%, 혼자 살 경제력이 있어서가 10.0%이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함께 살고 있던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혼자 살게 된 상황이 가장 많아 47.8%에 달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17.2%,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 싫어서가 8.4%의 순이다. 혼자 살 경제력이 있어서라는 이유가 7.0%, 건강
제8장 결론

村党支部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독거가 36.6%를 차지한다. 반면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해서가 5.5%, 가족의 직장 또는 학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2.8%로 비자발적인 독거는 8.3%에 불과하다. 즉 고령자의 독거는 대부분 사망 또는 결혼 등의 자연스러운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거나 고령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연령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둘째,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63.8%가 힘든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1.2%는 좋은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0~50대 경우 64.8%가 힘든 점이 있다. 85.1%가 좋은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령자의 72.2%가 힘든 점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군의 1인가구 거주자보다 힘들다는 응답률이 높고, 좋은 점도 있다는 응답률은 61.5%로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힘든 점으로는 20~30대는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 아픔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21.9%, 20.6%이다. 경제적인 불안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2.1%,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7.0%이다. 40~50대의 경우는 힘든 점으로는 아픔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2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26.9%,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처리 어려움이 18.4%, 경제적 불안감이 15.1%,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5.6%,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3.1% 순이다. 고령자의 경우 아픔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40.4%, 경제적 불안감이 25.7%이다. 혼자 살면서 좋은 점으로는 모든 연령에서 자유로움이 제일 많이 지적되고 있다.

20~30대 1인가구 거주자가 혼자 살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경제적 능력(64.2%)이 가장 많았고 독립적인 성격(12.4%)이나 가까운 친구(10.0%), 취미활동(7.1%), 범죄로 부터의 보호(3.8%)의 순이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40~50대는 가까운 친구라는 응답(47.6%)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능력이 31.1%이며, 고령자의 경우 절반 이상인 53.8%가 본인의 건강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이 경제적 능력으로 20.2%, 가까운 친구가 16.4%로 연령군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성별차이가 모든 연령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걱정거리로는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생계비 마련 및 주택 구입 등 경제적 준비가 3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나의 결혼(28.5%), 가족에 대한 염려(15.0%), 나의 노후 준비(9.9%), 나의 건강(9.2%)의 순이며, 40~50대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커 나의 건강이 30.8%로 가장 많았고, 나의 노후준비(26.5%)가 그 뒤를 이었으며 가족에 대한 염려(20.3%), 생계비, 주택구입 등의 경제적 준비(15.5%), 나의 결혼(6.9%)의 순이다.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는 본인의 건강을 가장 걱정하고 있어 응답률이 48.1%이며 다음이 가족에 대한 염려(23.3%), 본인의 노후준비(14.1%), 경제적 준비(13.9%) 순이다.

1인가구 거주자의 여유시간 시 우선시하는 활동은 모든 연령군에서 운동이나 여행, 취미활동이 가장 많았다.

나.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전망

20~30대 1인가구 거주자의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9점이며 40~50대 1인가구 거주자는 3.43점으로 20~30대의 3.69점에 비하여 약간 낮은 수준이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고령 독거거주자의 만족도는 평균 3.18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대도시 지역 거주자, 여성고령자,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독거기간이 길수록 높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거이유별로는
경제적 독립성이 있어서 혼자 사는 경우 만족도가 높다. 모든 연령군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가 클수록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도 혼자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20~30대 1인가구 거주자는 그런 편이다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25%전후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평균 2.92점이다. 혼자 사는 이유가 개인의 선택에 해당되는 경우(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앞으로 혼자 살기를 더 희망하는 반면 직장이나 학업,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경우에는 앞으로 혼자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경제상태를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앞으로 계속 혼자 살아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는 그저 그렇다가 23.4%이고 혼자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이 37.4%, 계속 혼자 살고 싶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9.2%로 나타났으며 평균 3.00점으로 20~30대의 2.92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남성은 혼자 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혼자 살고 싶다는 의견이 남성이 비해 강하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살고 싶다는 의견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58.2%가 향후 계속 혼자 생활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25.5%는 그저 그렇다, 16.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은 향후도 계속 혼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평균은 3.59점이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표 8-3 연령군별 1인가구 거주자의 생활실태 및 특징 종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30대 1인가구 거주자</th>
<th>40~50대 1인가구 거주자</th>
<th>60대 이상 고령 1인가구 거주자</th>
</tr>
</thead>
<tbody>
<tr>
<td>교육수준</td>
<td>(전문)대학 이상</td>
<td>고등학교 이상</td>
<td>초등학교 이하</td>
</tr>
<tr>
<td>주거</td>
<td>단독주택(58.3%)</td>
<td>단독주택(55.1%)</td>
<td>단독주택(70.1%)</td>
</tr>
<tr>
<td></td>
<td>보증금 월세(46.9%)</td>
<td>자가(34.4%)</td>
<td>자가(66.5%)</td>
</tr>
<tr>
<td>경제상황</td>
<td>약 절반이 소득의 30% 이상 저축</td>
<td>약 30%가 소득의 30% 이상 저축</td>
<td>대다수가 저축할 여유 없음. 국민기초보장 대상 비율 높음.</td>
</tr>
<tr>
<td></td>
<td>다수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td>
<td>지금과 비슷 또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td>
<td>지금과 비슷 또는 나빠질 것으로 전망</td>
</tr>
<tr>
<td>경제활동</td>
<td>참가율, 상용적 비율 높음.</td>
<td>참가율, 상용적 비율 높음.</td>
<td>참가율, 상용적 비율 높음.</td>
</tr>
<tr>
<td>독거기간</td>
<td>66.59개월</td>
<td>120.05개월</td>
<td>142.64개월</td>
</tr>
<tr>
<td>주요 독거이유</td>
<td>직장 또는 학업 문제</td>
<td>자유롭게 살기 위해</td>
<td>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td>
</tr>
<tr>
<td>힘든 점</td>
<td>힘든 점 있음: 63.8% 주요 이유: 가사일 등 일상생활처리</td>
<td>힘든 점 있음: 64.8% 주요 이유: 어플 때 간호해줄 사람 없음</td>
<td>힘든 점 있음: 72.2% 주요 이유: 어플 때 간호해줄 사람 없음</td>
</tr>
<tr>
<td>좋은 점</td>
<td>좋은 점 있음: 91.2% 주요 이유: 자유로움</td>
<td>좋은 점 있음: 85.1% 주요 이유: 자유로움</td>
<td>좋은 점 있음: 61.4% 주요 이유: 자유로움</td>
</tr>
<tr>
<td>독거생활에 중요한 요소</td>
<td>경제적 능력</td>
<td>가까운 친구</td>
<td>본인의 건강</td>
</tr>
<tr>
<td>경제거리</td>
<td>생계비 마련 및 주택구입 등 경제적인 준비</td>
<td>나의 건강 (나의 노후준비)</td>
<td>나의 건강 (가족에 대한 열려)</td>
</tr>
<tr>
<td>우선시하는 여가활동</td>
<td>운동,여행,취미활동</td>
<td>운동,여행,취미활동</td>
<td>운동,여행,취미활동</td>
</tr>
<tr>
<td>독거생활 만족도</td>
<td>3.69점 (5점 만점)</td>
<td>3.43점 (5점 만점)</td>
<td>3.18점 (5점 만점)</td>
</tr>
<tr>
<td>항후 유지 희망</td>
<td>2.92점 (5점 만점)</td>
<td>3.00점 (5점 만점)</td>
<td>3.59점 (5점 만점)</td>
</tr>
<tr>
<td>대표적인 결혼상태</td>
<td>미혼</td>
<td>이혼</td>
<td>사별</td>
</tr>
</tbody>
</table>
## 제8장 결론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30대 1인가구 거주자</th>
<th>40~50대 1인가구 거주자</th>
<th>60대 이상 고령 1인가구 거주자</th>
</tr>
</thead>
<tbody>
<tr>
<td>초혼연령 상승에 따른 의도적인 선택</td>
<td>배우자 또는 본인의 유착사유에 의한 이혼</td>
<td>독거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td>
<td>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경우 삶의 질기의 위축과 사회 활동 축소</td>
</tr>
<tr>
<td>일상생활의 개인화</td>
<td>반복적 발생에 의한 여려운 결정</td>
<td>경제적 준비 부족으로 여성의 독자적 삶 선택</td>
<td>죽음에 익숙하며 사별을 노년기 과업의 하나로 간주</td>
</tr>
<tr>
<td>아직 새로운 규정과 문화의 창출자 역할은 미수행</td>
<td>경제적 준비 부족으로 여성의 독자적 삶 선택</td>
<td>활동적 노화와 무력한 생활자로 양분</td>
<td></td>
</tr>
<tr>
<td>결혼에 대한 박연한 부담과 비현실적인 목표로 인한 결혼에 대한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경계</td>
<td>비향응 부모와 자녀의 완만한 관계 유지</td>
<td>경제적 준비 부족으로 여성의 독자적 삶 선택</td>
<td></td>
</tr>
<tr>
<td>사례연구의 주요 결과</td>
<td>독거생활 적응에 있어서의 남녀차이</td>
<td>독거생활 적응에 있어서의 남녀차이</td>
<td>성서행에 기초한 남녀 간의 독거생활의 어려움의 차이 발생</td>
</tr>
<tr>
<td></td>
<td>남성: 계혼, 전배우자와의 결합 육구 높음, 여성: 경제상황의 안정적 수단 제공에 대한 기대 낮음</td>
<td>남성: 계혼, 전배우자와의 결합 육구 높음, 여성: 경제상황의 안정적 수단 제공에 대한 기대 낮음</td>
<td>일터 중심의 사회관계로 인하여 남성고령자의 연계망 취약</td>
</tr>
<tr>
<td></td>
<td>이혼자에 대한 차별감 제갈도 높음</td>
<td>지역사회와의 독거생활자의 사회생활에 가려도 높음</td>
<td></td>
</tr>
<tr>
<td></td>
<td>이혼자 자신도 자격지심으로 생활방정 촉소</td>
<td>노년기의 존재론적 고독감,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td>
<td></td>
</tr>
<tr>
<td></td>
<td>1인가구의 경제적 유동적</td>
<td></td>
<td>죽음보다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td>
</tr>
<tr>
<td></td>
<td>성적 성능을 기능적인 남녀관계로 대응</td>
<td></td>
<td></td>
</tr>
</tbody>
</table>

- 단독주택 거주율 높음
- 거주의 불안정성과 빈번한 거주자 변동
- 사회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질병률 및 우울도 높음
- 삶의 만족도가 비1인가구보다 약간 낮음
- 사회적 지원계체 규모는 크거나 많으나 대상상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의존도 높음, 또한 중년층의 경우 형제·자매의 의미가 큽
- 간접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음
6. 대표적인 1인가구 유형의 생활세계

각 연령대별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1인가구가 있다. 30대 미혼의 1인가구 거주자는 향후 한국에서의 결혼과 출산동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다. 또한 40~50대에 이혼하고 혼자사는 대상자의 경우 우리사회의 가족 안정성과 더불어 예비노인세대의 노후생활의 안정성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미를 갖는다 하겠다. 더불어 고령화에 따라 그 규모가 증대하여 독거노인 정책대상자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는 고령 1인가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시된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30대 미혼 1인가구 거주자

20~30대 1인가구의 증가는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나타나는 의도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초혼연령이 낮아지지 않는 한 20~30대 1인가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1인가구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사적 독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경제적 부담, 안 전문제, 외로움 등의 여러 가지 단점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인가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면 이러한 특권을 포기하기 어려워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구는 일상생활의 개인화를 의미하며, 이는 생활세계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자유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의 개인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들이 새로운 규범과 문화의 창출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렸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1인가구로 독립할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다소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소위 ‘트렌드 세터’로의 1인가구로서의 삶을 향유하고 있으나 그나마 아직은 이러한 생활 향유가 결혼, 출산, 가족,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을 향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체로 동거, 필요에 의한 성관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남성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 대를 이어야 한다 등),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는 다소 양가적이었다. 결혼의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위해 노력하는 않으며 자연스러운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30대 미혼남녀들은 한편으로는 경제력이 되어야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력이 되면 혼자 살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의 비혼이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 사이의 경계에 있으며, 이들이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데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부담과 비현실적인 목표와 상관이 있다. 이들이 갇혀 있는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와 목표는 1인가구의 증가가 아직은 새로운 규범과 관계성의 출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나. 40~50대 이혼 1인가구 거주자

중년세대의 경우 서로간의 견해나 생활방식의 차이가 누적되어 부부 관계의 파국을 맞기 보다는 배우자나 본인의 결정적인 유책사유에 의해 결혼관계가 해체된 사례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수차례 혹은 수년에 걸쳐 반복되어 더 이상 생활유지가 어렵게 되어 최종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의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함으로써 이들은 이혼 이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활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 비해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하게 차단되기 보다는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배우자와의 감정적 대립과는 무관하게 자녀양육을 둘러싼 상호 협의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도 발견되었다.

이혼 후 독거생활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의 적응실태에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성들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규칙적인 생활패턴이 유지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당혹감과 심리적인 고독감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재혼에 대한 기대적차로 표출되는데,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재혼이나 전배우자와의 결합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재혼에 대한 남성의 차별적 기대감은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상황 일수록 재혼에 대한 기대가 낮은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재혼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다양한 가족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자들이 체감하는 차별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혼자들의 이러한 자격지심은 실제로 대인관계의 충돌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표출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여성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변의 불안을 느끼거나 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은 역시 원가족의 배려와 지지이며, 이러한 원가족 지지의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타 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경계는 더욱 유동적이어서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전배우자에게 자녀를 보내거나 한 부모로서의 이중관을 해결하기 위해 원가족과의 결합하는 등의 역동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령대를 고려한다면, 자녀와 동거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곧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으로 이들은 다시 혼로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갑작스러운 질병 등의 위급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못한 1인가구는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우울증이나 심각한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의 심리정서 및 성적 친밀성의 추구방식을 살펴보면, 일부 남성의 경우에는 다소 일탈적인 방식으로 성적 긴장을 해소하면서도 그러한 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희의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중년 1인가구는 혼인관계의 해체 이후 제도적인 남녀관계나 형식적인 부부관계보다는 상당히 기능적인 남녀관계를 통해 심리정서적, 성적 친밀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재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나름의 안정적인 남녀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간의 고충을 공유하고 성적인 친밀감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친밀성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터부시하기 보다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수용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녀 및 섹슈얼리티의 변화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 70대 이상 고령 1인가구 거주자

독거라는 현상은 노년기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성인 자녀의 노년기 부모에 대한 동거부양이 더 이상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즉,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고령자들은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독거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하려 주요 관심사는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고 있는 가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의존성과 불안정성은 심리적인 위축과 사회활동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어, 노년기의 삶의 질 저하와 연계되어 있다.

혼자 생활하게 된 고령자는 배우자 없이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깊은 외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노년기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그렇게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노년기에 적응해야 할 과업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생의 마지막 단계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나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는 태도를 보이는 고령자는 소수이며, 자녀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 자신의 미래보다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일상을 활기있게 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유형과 무력한 생활을 하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향후 노년기의 1인가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과제는 1인가구 고령자의 사회적 유대와 사회참여활동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제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들의 삶에 있어 이들이 평생 경험해온 성역할을 인하여 이들이 노년기 독거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성이 상이하다. 남성노인들은 심리적인 고립감과 일상적인 가사노동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반면 여성노인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남성노인들은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 및 빌레보다
는 기술이 요구되는 요리 등에 있어 취약하고, 여성고령자는 특히 자신이 낳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력 여력이 없는 경우 기본적인 소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남자고령자의 경우 직장동료 외의 사회적 연계가 없기 때문에 일터를 떠났을 때 이들의 사회적 연계망도 동시에 약화되었다. 반면 여성고령자는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식사준비 등의 남편부양의 번거로움으로 부터의 해방감을 가져와 외부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한편, 노년기 삶에 있어 지역사회의 기능이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자녀들은 빌리서 생활하고 형제자매나 친구들은 노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지인이 있는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 간의 삶의 모습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1인가구 거주자의 모습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자들이다.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들의 생활을 위축시킨다는 점도 확 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인가구 거주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 1인가구 대상 정책적 기반 마련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해왔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정책의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제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3~4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염두에 둔 정책만으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없으며, 가족은 고착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이상의 편견에서 1인가구를 포괄하기 위한 무엇보다 먼저 제도적 및 문화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1인가구라는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가족정책 개입대상으로 포괄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제도 설계에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되는 사회구성원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모든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인가구 거주자들 중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을 통해 혜택을 받는데 1인가구는 그런 면에서 혜택이 전혀 없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이 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을 높여가도록 한다. 만혼화가 진행되고 이혼율이 증대하며,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편견을 느낀다는 일정규모의 1인가구 거주자가 있고 스스로도 그러한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1인가구가 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1인가구 증가는 개별화된 주거공간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장년,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
의 1인가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다세대 공동주거의 마련 또한 가능할 대안일 것이다.

넷째,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들의 이야기를 듣어줄 수 있는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 또한 필요하다. 특히 1인가구 거주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상의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이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1인가구를 위한 지원방안

1인가구는 공통의 욕구와 연령별로 특화된 욕구를 갖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인가구는 공통적으로 주거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빈번한 거주지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편의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이 많은 단독주택 거주율이 높다. 따라서 주거의 안정과 편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1인가구 거주자는 모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1인가구 거주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질병률 및 우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1인가구 거주자가 사회에서 고립되어 정신적인 건강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함께 생활하시는 않아도 가족유대감이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과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간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켜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정책과제는 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에 따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연령대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30대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

1) 주거지원 및 주택정책

20~30대 미혼 1인가구들이 일자적으로 기대하는 정책은 주거정책이다. 30대 1인가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경우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월세를 사는 경우에는 주거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월세를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사례A9)는 1인 가구로 사는 지난 8년 동안 7번의 이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와 같은 보급자 리주택정책이나 전세임대 등 주거복지정책, 장기 전세와 같은 전월세지원 등이 대표적이며, 이 중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유자녀(임신포함) 신혼부 부에게 입주자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특별공급 정책이 있다8).

그러나 1인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정책은 없으며,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고려한 소형주거공간에 대한 정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2005년에 비해 2010년 자가의 증가는 미미하고 보증부월세의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져 이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김리영·노희순, 2011).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30대 1인가구들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장기간을 1인가구로 생활할 확률이 높으며, 이들 중 일부는 그 이상의 기간을 1인가구로 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 거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8)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시작된 임대주택으로 전용 26.34~42.68㎡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공공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50년 공공임대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는 전용 85㎡ 이하의 5년(10년)공공임대가 있음.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30년 임대 주택임.
1인가구로 생활하는 기간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이 시기를 생애주기의 한 단계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주택을 확대하여 입주기회를 제공해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최근 소형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금이나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로써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구증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김리영・노희순, 2011). 1인가구의 주거욕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보급도 필요하다.

2) 지역사회 안전

20~30대 1인가구 미혼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요구도 높다. 최근 여성들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안전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거주 지역 내 기초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본 안전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는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도입을 통해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주택가,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투시형 엘리베이터, 사각지대 안전거울 설치 등 건축과 디자인에 범죄예방 목적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계는 뉴타운 설계 등에서 주로 적용되었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도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다. 대도시 뿐 아니라 중소도시 지역에서도 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일상생활 속의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노인,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다양한 패트롤 활동들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통제 수준과 집합적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1인가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여성 안전 에도 기여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3)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한 사회서비스 개발

1인가구의 증가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시장이다. '싱글족'을 거냥한 49.58㎡ 이하의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침대, 소파, 탁자 등을 판매하는 원룸 전문 인테리어나 가구 브랜드가 생기고, 1인용 밥솥이나 벽걸이 세탁기, 미니 정수기 등 소형 가전제품들이 개발되며, 채소나 과일도 한 번 먹을 수 있는 소포장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커피전문점이나 레스토랑과 같은 외식업계에서도 칸막이를 설치한 1인용 전용좌석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서비스의 증가는 1인가구가 가진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노인이 아닌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는 아직 미 개발 상태이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일과 가족생활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30대 1인가구들도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양립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인가구들 중에는 지속적인 외식이나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에 영양 불균형, 만성위염 등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경우도 있다.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재무설계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1인가구들의 자기돌봄 역량강화, 건강관리, 정신건강, 재정설계 및 관리, 생활도우미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1인가구들의 육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결혼 진입 장벽 해소와 결혼문화 개선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30대 미혼 1인가구들 중 다수는 비자발적 미혼이다. 결혼 진입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결혼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문제 해결은 결혼 진입 장벽 해소에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정책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20~30대의 경제적 자립도와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는 경우나 부모님의 지원이 없는 20~30대 1인가구들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누리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스스로 성격이 내향적이라고 얘기하거나 점점 내향적으로 변화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생활의 축소로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이나 약이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연구에 참여한 30대 미혼 1인가구들은 우리 사회의 결혼제도와 결혼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하는 상태이다. ‘결혼의 끝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라는 말로 요약하듯이 이들은 현재의 결혼제도나 문화가 인간됨이나 애정, 친밀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과 교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질서를 따라 경제적 여건을 갖춘 때까지 결혼을 늦추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것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이다.
결혼문화의 개선은 당사자들이 일차적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이지만 동시에 전반적인 사회문화의 변화가 없이 개인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선택의 존중, 소비주의적 예식과 결혼문화 극복은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한 결혼(식)문화 캠페인처럼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범사회적인 참여와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결혼문화가 1인가구의 결혼 뿐 아니라 그 부모세대의 생활실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혼문화의 개선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이다. 범사회적 캠페인 뿐 아니라 실제 결혼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혼인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결혼식 모형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결혼문화는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렵다. 결혼이나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앞 둔 대학생이나 청년층은 물론 중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직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합리적 결혼과 결혼문화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인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40~50대 중년세대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

중년세대의 1인가구는 가구적 특성이 따라 상당한 이질성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 지점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년의 1인가구는 이혼이라는 생애사건을 통해 혼로 생활하거나 자녀, 혹은 원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특정한 이유로 다시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 등 가구구성 사유의 복합성과 이질성에 더해 소득수준별로 상당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방식은 대단히 포괄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의 우선성은 소득수준이 낮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열악한 집단에게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이혼 후 혼자서 생활하는 중년의 1인가구를 염두에 두고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고령자 취업훈련 및 직업알선 연계 활성화

세대 특성에 비추어보면, 중년세대의 결혼생활은 남성의 경우 생계 부양자, 여성은 자녀 돌봄자라고 하는 성질이가 유효하게 작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들은 소득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자녀성장과 함께 가족질서로 완전히 편입되었거나 노동시장에 남아있고 할지라도 충분한 자기 부양보다는 가계부양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 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이 이혼을 통해 올로 혹은 자녀들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의 확보와 그러한 일자리의 유지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이혼 여성들의 일자리는 그 이동이 잦고, 불안정하며 소득수준 또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가나 중고령자 층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훈련과 일자리 연계서비스 등은 향후에도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고 이용자 눈높이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알선제공 서비스는 중년기 남성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 전화조사결과에서도 40~50대 1인가구의 거주자가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 가까운 친구가 47.6%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능력은 31.1%로 2순위에 둘어 있고 있음은 바로 정서적, 경제적인 스스로의 부양이 1인가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축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IMF로 실직한 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혼을 경험한 50대 남성은 중년남성들 역시 안정된 일자리 찾기는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자리구조와 복지정책의 특성은 남성의 가정 내
위치를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타당한 측면 또한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다양한 자녀돌봄 인프라의 구축 및 정보제공

안정적인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의 구축과 이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이다. 결혼경험이 없는
청년세대나 자녀분가로 독거생활을 하는 노인 1인가구와 달리, 이혼한
중년기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적 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감내해야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혼자서 생계부양에
전념하는 동안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위임할 수 있는 지역인프라는 남녀
1인가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생계가 막연한 상황에서 여성
이나 남성 모두 혼자서의 몸으로 자녀를 충분히 양육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즉 자녀를 안심하고 저렴하게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은 곧 이혼을 앞둔
남녀 모두에게 자녀양육의 자신감과 함께 이중부담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있어 부모가 갖는 다양한 정서적, 인성적
함의를 고려해보면 결혼관계의 해체가 부모자녀관계의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 및 가족생
활은 더욱 유연해지고 개인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녀연령별
돌봄 시스템이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돌봄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제고방안은 향후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아닐
수 없다.
제8장 결론

3) 긴급 위기지원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은 바로 1인가구들이 느끼는 노년기 불안감과 건강에 관한 것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해 1인 가구에서 자신들의 노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심층면접 뿐만 아니라 전화조사결과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즉 조사결과에 의하면 혼자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든가에 대해 응답자의 28.0%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 26.9%,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처리의 어려움, 18.4%, 경제적 불안감이 15.1%,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5.6%,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심층면접에서는 혼자서 살아가는 중년세대들이 앞으로의 질병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이 노년기에 갖는 불안함은 비단 질병에 대한 공포에 의한 열려만은 아니다. 즉 자녀세대가 확실히 부모를 부양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를 부양해야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화조사 결과에 의하면, 40~50대 1인가구 거주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의 건강이 가장 많았고, 나의 노후준비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노년기 자기 부양은 비단 1인가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노인 정책이 확대되어 이들이 안심하고 실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노인서비스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없는 한, 노년기를 눈앞에 둔 50대의 1인가구는 불안감을 안고 노년기 진입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1인가구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에서 주요 언급되는 다양한 폭력위험의 가능성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 여성들에게는 배가될 뿐이 기능이 높추하다. 이혼 후 다양한 일자리를 전전하지만, 대체로 여성들의 소득수준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및 자신의 노후를 위한 대비 등으로 이들이 거주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노후하고 취약한 지역의 불량주택에서 여성이 혼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다양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안전망이 꼼꼼하게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4) 가부장적 성역할 및 가족문화의 전환 캠페인 확산

우리사회에서 공고하게 유지되어온 성차별적 문화가 새로운 가족 및 사회문화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은 비단 1인가구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혼 후 남녀가 경험하는 삶의 질 하락이 합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곧 성별구조가 이로인한 한국사회의 경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즉 여성들은 스스로의 부양이나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을, 남성들은 고착적인 생활패턴이 유지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당혹감과 심리적인 고독감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녀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대의 차이는 재혼에 대한 기대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즉 남성은 재혼을, 여성은 구태여제도적인 남녀관계로의 발전될 원치 않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적어도 결혼생활이 갖는 불평등성이 남녀 간에 다르게 인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향후 성분업이 보다 유연해진다면 재혼을 둘러싼 현재와 같은 남녀의 기대격차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육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확산과 돌봄노동의 성별공유가 사
회의 일상적 문화로 정착되지 않는 한, 현재의 초저출산이나 여성의 만혼화 현상을 제어하기 어렵다(김혜영, 선보영 외, 2010). 성별을 떠나 모든 개인에게 있어 직업경력의 유지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결혼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는 상황에서 결혼해제 후 시장경력이 부재하거나 경쟁력 없는 여성가구주들은 쉽게 빈곤의 덫으로 빠지고 있으며, 나날이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곧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5) 다양한 가족의 삶을 수용하는 성숙한 사회문화 조성

다양한 가족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자들이 체감하는 차별감과 위축감은 여전하다. 특히 가부장적 시선이 강한 조직문화나 남성문화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이혼 여성이나 이혼한 남성을 '실패한 자로 혹은 '가족 밖의 사람으로 분류하여 백인시하거나 '쉬운 여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의해 1인가구가 느끼는 자격지심은 대인관계의 축소나 소극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혼자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희롱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위축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남녀가 때가 되어 결혼하고, 자녀출산 및 양육이라는 인생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정형화된 가족인식에서 벗어나 각각의 욕구와 주기에 맞춘 삶의 방식이 어디러질 수 있는 유연한 문화적 환경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 노년층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

1) 현재 시행중인 독거노인 지원서비스의 범위 확대


보편적 가구 형태로 정립되어가고 있는 고령 1인가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의 확대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해 가도록 한다. 고독감 해소, 사고나 긴급상황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감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즉 서비스 대상을 현재의 취약 독거노인에서 전 독거노인으로 확대해가며, 안전취약 노인가구 및 희망하는 독거노인(자녀)가구에 대해 화재가스활동 감지기 부착,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확대(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의 기본서비스) 등을 현재의 취약 노인가구에서 희망 독거노인(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해가도록 한다.

더불어 서비스의 내용 확대도 필요하다. 독거노인 식품안전 및 결식 방지를 위한 도시락 서비스 및 급식소를 확대(실비 또는 유료)해가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고독사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2) 증대하는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 참여 촉진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정부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점차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독거노인 안전 확보와 사회통합체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역공동체의 강화가 필요하다.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독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전 확보 체계의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기·취약 독거노인(약 30 만명) 전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관심필요 독거노인의 경우는 민간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자원봉사자와의 1:1결연을 추진해가도록 한다. 또한 노인자신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농촌형) 및 독거노인 자조모임(도시형) 활성화 등 사회적 가족 구성을 지원해가도록 한다.

한편, 독거노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서비스(고령친화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지원(예: 식사서비스, 영양서비스, 가정관리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혼자서 식사준비, 청소 및 빨래 등의 가사를 수행하기 어려거나 공동 구매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증가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요구된다.

3)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년기 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동거와 비동거 부양을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저소득노인의 경우 부양기준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초보장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자녀의 동거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어 동거 및 별거 부양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며, 자녀의 부양 의무를 기반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이다.

4) 고령 1인가구의 가족유대감 유지 강화 및 사회적 통합 제고 노력

독거노인과 자녀간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별거하더라도 가족의 유대 및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빈번한 접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로의 친밀성과 이해에 기초한 밀도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가족적인 유대를 개발해가야 할 것이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은 공극적으로 노부모와의 관계유지나 돌봄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규모 노인클럽의 활성화 및 지원,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독거노인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

현재의 빈곤노인 중심의 정책에서 전 독거노인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독거노인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독거노인은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대책, 즉 도시형과 농어촌형을 구분해가야 할 것이다. 독거노인의 규모뿐만 아니라 특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초보장
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수정 보완을 통한 빈곤노인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를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표 8-4〉 독거노인의 유형

<table>
<thead>
<tr>
<th>기능상태</th>
<th>경제상태</th>
<th>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th>
<th>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비수급자로 기초노령연금수급</th>
<th>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th>
</tr>
</thead>
<tbody>
<tr>
<td>제한 있음</td>
<td>3.4</td>
<td>11.0</td>
<td>2.3</td>
<td></td>
</tr>
<tr>
<td>제한 없음</td>
<td>11.0</td>
<td>55.0</td>
<td>17.2</td>
<td></td>
</tr>
</tbody>
</table>

주: 1) 기능상태: ADL 또는 IADL에 제한이 있는가 여부로 구분  
2) 경제상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노인으로 구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참고문헌

강은영·진미정·옥선화(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pp.135-144. 주택산업연구원.


김리영·노희순(2011). 1~2인 가구의 주거선호를 고려한 소형주택 공급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김혜영·선보영·김상돈(2010). 여성의 민론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비혼여성의 일가족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철·김연수·김인경(2011).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문소정(2008). 한국가족 다양화담론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47(2), pp.73-107.
2012년 4월호. 노동연구원.
변미리·신상영·조권중(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2012. 5. 11).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보도자료.
오영희·석재은·권중돈·김정석·박영란·임정기 (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영주 외(2000). 가족관계학. 경기: 교문사
이성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경희(2011.01.28).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아슈앤포카스, 제7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복지부(2010). 국내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Silverstein, M., Lawton, L. and Bengtson, V. L.(1994). "Types of

부록

[부록 1] 1인가구 전화조사 설문지

1인가구 실태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인 가구 증가로 대표되는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전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 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02)380-8167 정은지, (02)380-8264 이지혜

조사원

<table>
<thead>
<tr>
<th>번호</th>
<th>조사표 일련번호</th>
<th>사도</th>
<th>사·군·구</th>
<th>읍·면·동</th>
<th>성</th>
<th>만연령</th>
<th>거주 형태</th>
</tr>
</thead>
</table>

거주 지역 | _시·도_시·군·구_읍면동 ① 읍 ② 면 ③ 동

응 답 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만 연령: __________ 세

거주형태

1인가구 여부: □① 1인 가구 □② 비1인 가구

전화번호 (______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가치관

다음은 귀하의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able>
<thead>
<tr>
<th></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 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美术馆</th>
<th>매우 동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성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결혼 전이라도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좋다.</td>
<td>□ ① □ ② □ ③ □ ④ □ ⑤</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는 것이 낫다.</td>
<td>□ ① □ ② □ ③ □ ④ □ ⑤</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td>
<td>□ ① □ ② □ ③ □ ④ □ ⑤</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able>
<thead>
<tr>
<th></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동의 하지 않음</th>
<th>그저 그렇다</th>
<th>동의美术馆</th>
<th>매우 동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미혼남녀가 집에서 통학통근이 가능하기도 좋은 혼자 사는 것</td>
<td>□ ① □ ② □ ③ □ ④ □ ⑤</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이혼 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는데 혼자 사는 것</td>
<td>□ ① □ ② □ ③ □ ④ □ ⑤</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건강한 노인이 혼자 사는 것</td>
<td>□ ① □ ② □ ③ □ ④ □ ⑤</td>
<td></td>
<td></td>
<td></td>
</tr>
<tr>
<td>(4)</td>
<td>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이 혼자 사는 것</td>
<td>□ ① □ ② □ ③ □ ④ □ ⑤</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1인가구 증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다음은 1인가구 증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3. 귀하는 우리사회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table>
<thead>
<tr>
<th></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냥 그렇다</th>
</tr>
</thead>
</table>
4. 귀하는 혼자 살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모든 연령군별로 하나씩 말씀해주십시오.

<table>
<thead>
<tr>
<th>연령군</th>
<th>문제점</th>
</tr>
</thead>
<tbody>
<tr>
<td>20~30대 청년층</td>
<td>①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 □ ② 가사일 □ ③ 경제적 불안정 □ ④ 안전에 대한 걱정 □ ⑤ 외로움 □ ⑥ 노후에 대한 불안감 □ ⑦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td>
</tr>
<tr>
<td>40~50대 중년층</td>
<td>①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 □ ② 가사일 □ ③ 경제적 불안정 □ ④ 안전에 대한 걱정 □ ⑤ 외로움 □ ⑥ 노후에 대한 불안감 □ ⑦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td>
</tr>
<tr>
<td>60대 이상 노년층</td>
<td>①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 □ ② 가사일 □ ③ 경제적 불안정 □ ④ 안전에 대한 걱정 □ ⑤ 외로움 □ ⑥ 노후에 대한 불안감 □ ⑦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td>
</tr>
</tbody>
</table>

응답자 일반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유배우자(동거) □ ② 사별이혼별거 □ ③ 미혼

6. 귀댁의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은 총 몇 명입니까?

   _____________ 명

7.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함.)
□ ①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전문)대학 이상(대학교/대학원 포함)

8. 귀하께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한다(근로자) (질문 8-1로 가시오) □ ② 안한다(비근로자) (질문 9로 가시오)

8-1.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통계청 종사상위분류에 따라 구분)
□ 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 □ ③ 상용근로자 □ ④ 일용근로자 □ ⑤ 임시근로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기타 ____________

9. 귀댁의 월소득은 어느정도 이십니까?
(※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 ① 99만원 이하 □ ② 100~199만원 □ ③ 200~299만원 □ ④ 300~399만원 □ ⑤ 400~499만원 □ ⑥ 500~599만원 □ ⑦ 600~699만원 □ ⑧ 700만원 이상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귀댁은 소득의 몇 %를 저축하고 계십니까?

□ ① 벌려서 생활하고 있다 □ ② 저축할 여유가 없다 □ ③ 10% 미만
□ ④ 10~20% 미만 □ ⑤ 20~30% 미만 □ ⑥ 30% 이상

귀하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② 만족하지 않음 □ ③ 그렇다고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귀하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의논상대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가족, 친인척, 친구 모두 포함)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 ① 부모 □ ② 자녀 □ ③ 형제, 자매 □ ④ 학교 친구 □ ⑤ 직장 동료 □ ⑥ 이웃 등 지인 □ ⑦ 배우자
□ ⑧ 기타

귀하는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 ②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 ③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혼자 생활하고 있는 응답자에게만 아래 질문을 계속하시오.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인가구의 생활실태

다음은 귀하의 생활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혼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 ②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 ③ 나의 직장 또는 학업 때문에
□ ④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 □ ⑤ 기타

귀하가 혼자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 ②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 ③ 나의 직장 또는 학업 때문에
□ ④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 □ ⑤ 기타

□ 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 ②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 ③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 ④ 할애 살고 있던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 ⑤ 기타

15-1. (64세 이하, 미혼, 응답자만)

□ 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 ②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 ③ 나의 직장 또는 학업 때문에
□ ④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 □ ⑤ 기타

15-2. (64세 이하, 기혼, 응답자만)

□ 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 ②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 ③ 나, 배우자, 자녀의 직장 또는
학생 때문에 □ ④ 같이 살 가족이 없어서 □ ⑤ 기타

15-3. (65세 이상, 응답자만)

□ 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서 □ ② 개인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 ③ 전망에서
□ ④ 친구 사망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 ⑤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해서 □ ⑥ 기타

혼자 사시의 경우, 혼자 사시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혼자 사시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 질문 13으로 가시오.
16. 귀하는 혼자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 있습니까?
   □ ① 있다 (질문 16-1을 질문하시오)   □ ② 없다 (질문 17로 가시오)

16-1.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십니까?

<table>
<thead>
<tr>
<th>16-1-1. (64세 이하, 미혼 응답자만)</th>
<th>16-1-2. (64세이하 기혼 응답자만)</th>
<th>16-1-3. (65세 이상 응답자만)</th>
</tr>
</thead>
<tbody>
<tr>
<td>□ ①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td>
<td>□ ①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td>
<td>□ ①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td>
</tr>
<tr>
<td>□ ②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움</td>
<td>□ ②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움</td>
<td>□ ② 가사일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움</td>
</tr>
<tr>
<td>□ ③ 경제적 불안감</td>
<td>□ ③ 경제적 불안감</td>
<td>□ ③ 경제적 불안감</td>
</tr>
<tr>
<td>□ ④ 안전에 대한 불안감</td>
<td>□ ④ 안전에 대한 불안감</td>
<td>□ ④ 안전에 대한 불안감</td>
</tr>
<tr>
<td>□ ⑤ 노후에 대한 불안감</td>
<td>□ ⑤ 노후에 대한 불안감</td>
<td>□ ⑤ 노후에 대한 불안감</td>
</tr>
<tr>
<td>□ ⑥ 심리적 불안감 또는 의료용</td>
<td>□ ⑥ 심리적 불안감 또는 의료용</td>
<td>□ ⑥ 심리적 불안감 또는 의료용</td>
</tr>
<tr>
<td>□ ⑦ 결혼하라는 부모의 압력</td>
<td>□ ⑦ 결혼하라는 부모의 압력</td>
<td>□ ⑦ 결혼하라는 부모의 압력</td>
</tr>
<tr>
<td>□ ⑧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td>
<td>□ ⑧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td>
<td>□ ⑧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td>
</tr>
<tr>
<td>□ ⑨ 기타</td>
<td>□ ⑨ 기타</td>
<td>□ ⑨ 기타</td>
</tr>
</tbody>
</table>

17. 귀하는 혼자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있습니까?
   □ ① 있다 (질문 17-1을 질문하시오)   □ ② 없다 (질문 18로 가시오)

17-1.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십니까?
   □ ① 자유로움
   □ ②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음
   □ ③ 나의 일과 직장에 몰두 할 수 있음
   □ ④ 여가취미 활동 등 나 자신에게만 투자할 수 있음

18. 귀하는 현재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시는가?
   □ ① 전히 만족하지 않음   □ ② 만족하지 않음   □ ③ 그저 그렇다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19. 귀하는 앞으로도 혼자 살고 싶으십니까?
   □ ① 전히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20. 혼자서 생활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thead>
<tr>
<th>20-1. (64세 이하 미혼 응답자만)</th>
<th>20-2. (64세이하 기혼 응답자만)</th>
<th>20-3. (65세 이상 응답자만)</th>
</tr>
</thead>
<tbody>
<tr>
<td>□ ① 경제적 능력</td>
<td>□ ① 경제적 능력</td>
<td>□ ① 본인의 건강</td>
</tr>
<tr>
<td>□ ② 가까운 친구</td>
<td>□ ② 가족과 친구와의 왕래</td>
<td>□ ② 경제적 능력</td>
</tr>
<tr>
<td>□ ③ 취미활동</td>
<td>□ ③ 취미활동</td>
<td>□ ③ 가족과 친구와의 왕래</td>
</tr>
<tr>
<td>□ ④ 범죄로부터의 보호</td>
<td>□ ④ 범죄로부터의 보호</td>
<td>□ ④ 취미활동</td>
</tr>
<tr>
<td>□ ⑤ 독립적인 성격</td>
<td>□ ⑤ 독립적인 성격</td>
<td>□ ⑤ 범죄로부터의 보호</td>
</tr>
<tr>
<td>□ ⑦ 기타</td>
<td>□ ⑦ 기타</td>
<td>□ ⑥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td>
</tr>
<tr>
<td>□ ⑧ 기타</td>
<td></td>
<td>□ ⑦ 기타</td>
</tr>
</tbody>
</table>

21. 귀하는 여유시간에 가장 우선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가족과의 만남             | ② 친구이성과의 만남                 | ③ 휴식                  |
| ④ 운동, 여행 및 취미활동     | ④ 운동, 여행 및 취미활동             | ⑤ 컴퓨터(인터넷), 외국어 배우기 등 자기계발 활동 |
| ⑥ 봉사활동 또는 종교활동   | ⑦ 가사일                          | ⑧ 기타                 |

22. 귀하의 최근의 가장 큰 걱정거리是什么呢?

| ① 나의 결혼           | ② 생계비 마련 및 주택 구입 등 경제적 준비 |
| ③ 나의 건강          | ④ 나의 노후 준비                    |
| ⑤ 가족에 대한 열려(자녀의 결혼, 부모의 노후 등) |

☞ 긴 시간동안 설문에 응해주시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록 2] 부표

제목: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10세 간격별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 분포(2010년))

<table>
<thead>
<tr>
<th>특성</th>
<th>1인가구 거주자(15세이상인구중)</th>
<th>2인이상 가구 거주자(15세이상 인구중)</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28.1</td>
<td>27.3</td>
</tr>
<tr>
<td>부산</td>
<td>6.0</td>
<td>5.7</td>
</tr>
<tr>
<td>대구</td>
<td>4.3</td>
<td>4.2</td>
</tr>
<tr>
<td>인천</td>
<td>4.3</td>
<td>5.7</td>
</tr>
<tr>
<td>경상북도</td>
<td>3.8</td>
<td>3.2</td>
</tr>
<tr>
<td>경상남도</td>
<td>5.4</td>
<td>3.9</td>
</tr>
<tr>
<td>대전</td>
<td>1.3</td>
<td>2.3</td>
</tr>
<tr>
<td>울산</td>
<td>16.4</td>
<td>22.6</td>
</tr>
<tr>
<td>경기</td>
<td>3.5</td>
<td>2.6</td>
</tr>
<tr>
<td>강원</td>
<td>4.4</td>
<td>2.9</td>
</tr>
<tr>
<td>충청북도</td>
<td>5.0</td>
<td>3.5</td>
</tr>
<tr>
<td>충청남도</td>
<td>3.5</td>
<td>2.8</td>
</tr>
<tr>
<td>전라북도</td>
<td>2.1</td>
<td>2.3</td>
</tr>
<tr>
<td>전라남도</td>
<td>6.8</td>
<td>5.0</td>
</tr>
<tr>
<td>경상도</td>
<td>4.2</td>
<td>5.0</td>
</tr>
<tr>
<td>제주</td>
<td>0.7</td>
<td>1.0</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지역</th>
<th>동부</th>
<th>중부</th>
<th>서부</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91.1</td>
<td>89.7</td>
<td>83.8</td>
</tr>
<tr>
<td>부산</td>
<td>8.9</td>
<td>10.3</td>
<td>16.2</td>
</tr>
<tr>
<td>대구</td>
<td>76.8</td>
<td>68.2</td>
<td>53.4</td>
</tr>
<tr>
<td>인천</td>
<td>47.0</td>
<td>76.2</td>
<td>88.1</td>
</tr>
<tr>
<td>경상북도</td>
<td>85.6</td>
<td>84.7</td>
<td>73.6</td>
</tr>
<tr>
<td>강원</td>
<td>81.1</td>
<td>73.6</td>
<td>63.7</td>
</tr>
<tr>
<td>충청북도</td>
<td>63.6</td>
<td>82.1</td>
<td>81.1</td>
</tr>
<tr>
<td>충청남도</td>
<td>73.6</td>
<td>63.7</td>
<td>82.1</td>
</tr>
<tr>
<td>전라북도</td>
<td>85.6</td>
<td>84.7</td>
<td>81.1</td>
</tr>
<tr>
<td>전라남도</td>
<td>73.6</td>
<td>63.7</td>
<td>82.1</td>
</tr>
<tr>
<td>경상남도</td>
<td>63.6</td>
<td>82.1</td>
<td>81.1</td>
</tr>
<tr>
<td>제주도</td>
<td>82.1</td>
<td>81.1</td>
<td>73.6</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명)</th>
<th>16,440</th>
<th>14,198</th>
<th>11,697</th>
</tr>
</thead>
<tbody>
<tr>
<td>(원)</td>
<td>(11,307)</td>
<td>(10,660)</td>
<td>(11,852)</td>
</tr>
<tr>
<td>(위)</td>
<td>(4,984)</td>
<td>(79,338)</td>
<td>(145,575)</td>
</tr>
<tr>
<td>(대)</td>
<td>(14,640)</td>
<td>(12,903)</td>
<td>(634,314)</td>
</tr>
</tbody>
</table>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부표 2〉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연령대(5세 간격)별 16개 시·도 및 거주지역 분포(2010년)

1) 1인가구 거주자

| 연령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 15~19세  | 17.2 | 4.9  | 5.4  | 3.4  | 4.6  | 8.0  | 1.0  | 13.8 | 6.8  | 5.7  | 6.8  | 6.1  | 6.0  | 8.0  | 4.1  | 1.0  | 100.0 |
| 20~24세  | 24.4 | 7.3  | 4.3  | 4.1  | 3.7  | 6.6  | 0.7  | 11.8 | 4.7  | 6.7  | 6.5  | 4.0  | 3.0  | 4.7  | 6.5  | 0.7  | 100.0 |
| 25~29세  | 31.2 | 5.4  | 4.3  | 4.6  | 3.8  | 4.5  | 1.7  | 19.2 | 3.1  | 2.6  | 3.9  | 3.5  | 3.2  | 3.9  | 4.6  | 1.7  | 100.0 |
| 30~34세  | 28.9 | 5.3  | 4.0  | 5.2  | 3.4  | 3.8  | 2.2  | 22.6 | 2.5  | 2.6  | 3.5  | 3.5  | 2.7  | 3.5  | 4.6  | 2.2  | 100.0 |
| 35~39세  | 25.5 | 6.1  | 4.3  | 6.3  | 2.9  | 3.9  | 2.4  | 22.6 | 2.5  | 3.1  | 3.5  | 3.5  | 2.9  | 3.5  | 4.6  | 3.9  | 100.0 |
| 40~44세  | 21.6 | 7.0  | 4.9  | 6.4  | 2.9  | 3.1  | 2.4  | 20.1 | 3.8  | 3.3  | 3.7  | 3.5  | 2.9  | 3.3  | 4.7  | 3.8  | 100.0 |
| 45~49세  | 18.3 | 8.2  | 5.1  | 6.6  | 2.8  | 2.8  | 2.4  | 17.8 | 4.7  | 3.5  | 4.7  | 4.3  | 4.7  | 4.7  | 4.7  | 2.5  | 100.0 |
| 50~54세  | 17.2 | 8.7  | 4.6  | 6.0  | 3.1  | 2.9  | 2.4  | 14.8 | 5.0  | 3.8  | 4.7  | 5.0  | 4.7  | 5.0  | 4.7  | 2.3  | 100.0 |
| 55~59세  | 16.5 | 9.3  | 5.2  | 5.1  | 2.4  | 2.4  | 2.2  | 13.7 | 5.7  | 3.5  | 4.3  | 5.7  | 5.7  | 5.7  | 5.7  | 2.0  | 100.0 |
| 60~64세  | 16.4 | 10.1 | 4.7  | 5.1  | 2.3  | 2.3  | 2.2  | 13.7 | 5.5  | 3.9  | 4.3  | 5.5  | 5.5  | 5.5  | 5.5  | 1.8  | 100.0 |
| 65~69세  | 15.0 | 7.6  | 4.2  | 4.1  | 1.8  | 2.0  | 1.8  | 11.9 | 5.6  | 3.9  | 4.3  | 5.6  | 5.6  | 5.6  | 5.6  | 1.4  | 100.0 |
| 70~74세  | 12.1 | 7.1  | 3.9  | 3.7  | 1.8  | 2.1  | 1.8  | 10.9 | 4.9  | 4.2  | 4.3  | 5.6  | 5.6  | 5.6  | 5.6  | 1.2  | 100.0 |
| 75~79세  | 10.6 | 5.8  | 3.2  | 3.5  | 1.4  | 1.8  | 1.4  | 9.8  | 4.9  | 4.4  | 4.6  | 5.9  | 5.9  | 5.9  | 5.9  | 1.0  | 100.0 |
| 80세 이상| 9.7  | 7.3  | 4.7  | 4.4  | 1.2  | 1.3  | 1.2  | 9.4  | 4.3  | 4.6  | 4.6  | 6.5  | 6.5  | 6.5  | 6.5  | 1.2  | 100.0 |
| 전체     | 19.8 | 7.3  | 4.4  | 4.9  | 3.8  | 3.3  | 3.3  | 7.6  | 5.0  | 4.9  | 5.0  | 5.0  | 5.0  | 5.0  | 5.0  | 2.5  | 100.0 |

지역

<table>
<thead>
<tr>
<th>지역</th>
<th>동부</th>
<th>용역부</th>
</tr>
</thead>
<tbody>
<tr>
<td>동부</td>
<td>89.0</td>
<td>90.7</td>
</tr>
<tr>
<td>용역부</td>
<td>11.0</td>
<td>9.3</td>
</tr>
<tr>
<td>합계</td>
<td>1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2) 2인 이상 가구 거주자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서울·본토</td>
<td>20.4</td>
<td>23.8</td>
<td>25.3</td>
<td>23.0</td>
<td>20.9</td>
<td>19.4</td>
<td>19.8</td>
<td>20.5</td>
<td>21.4</td>
<td>21.2</td>
<td>19.4</td>
<td>16.7</td>
<td>15.5</td>
<td>16.5</td>
<td>20.9</td>
</tr>
<tr>
<td>부산</td>
<td>7.5</td>
<td>8.5</td>
<td>8.2</td>
<td>7.4</td>
<td>6.7</td>
<td>6.7</td>
<td>7.6</td>
<td>8.7</td>
<td>9.7</td>
<td>9.3</td>
<td>8.7</td>
<td>7.8</td>
<td>6.4</td>
<td>6.4</td>
<td>7.9</td>
</tr>
<tr>
<td>대구</td>
<td>5.5</td>
<td>5.6</td>
<td>5.0</td>
<td>4.8</td>
<td>4.9</td>
<td>5.1</td>
<td>5.1</td>
<td>5.2</td>
<td>4.9</td>
<td>4.5</td>
<td>4.3</td>
<td>4.2</td>
<td>4.1</td>
<td>5.0</td>
<td></td>
</tr>
<tr>
<td>인천</td>
<td>6.6</td>
<td>6.6</td>
<td>6.1</td>
<td>5.9</td>
<td>6.0</td>
<td>6.4</td>
<td>6.4</td>
<td>5.8</td>
<td>5.2</td>
<td>4.7</td>
<td>4.5</td>
<td>4.5</td>
<td>4.6</td>
<td>4.2</td>
<td>5.8</td>
</tr>
<tr>
<td>광주</td>
<td>3.4</td>
<td>3.7</td>
<td>3.2</td>
<td>3.2</td>
<td>3.2</td>
<td>3.1</td>
<td>3.0</td>
<td>2.9</td>
<td>2.6</td>
<td>2.9</td>
<td>2.3</td>
<td>2.3</td>
<td>2.4</td>
<td>2.6</td>
<td>3.0</td>
</tr>
<tr>
<td>대전</td>
<td>3.6</td>
<td>3.5</td>
<td>3.3</td>
<td>3.5</td>
<td>3.5</td>
<td>3.2</td>
<td>3.2</td>
<td>2.9</td>
<td>2.8</td>
<td>2.6</td>
<td>2.3</td>
<td>2.2</td>
<td>2.6</td>
<td>3.2</td>
<td></td>
</tr>
<tr>
<td>울산</td>
<td>2.5</td>
<td>1.9</td>
<td>2.2</td>
<td>2.3</td>
<td>2.2</td>
<td>2.5</td>
<td>2.5</td>
<td>2.4</td>
<td>2.3</td>
<td>1.8</td>
<td>1.4</td>
<td>1.1</td>
<td>1.2</td>
<td>1.2</td>
<td>2.2</td>
</tr>
<tr>
<td>경기</td>
<td>23.1</td>
<td>22.4</td>
<td>22.1</td>
<td>23.4</td>
<td>24.1</td>
<td>24.0</td>
<td>22.7</td>
<td>20.4</td>
<td>18.5</td>
<td>17.0</td>
<td>16.7</td>
<td>16.7</td>
<td>16.3</td>
<td>17.0</td>
<td>21.4</td>
</tr>
<tr>
<td>경원</td>
<td>3.0</td>
<td>2.3</td>
<td>2.4</td>
<td>2.8</td>
<td>3.0</td>
<td>3.2</td>
<td>3.4</td>
<td>3.8</td>
<td>3.7</td>
<td>3.5</td>
<td>4.8</td>
<td>5.2</td>
<td>4.8</td>
<td>4.9</td>
<td>3.4</td>
</tr>
<tr>
<td>충북</td>
<td>3.1</td>
<td>2.9</td>
<td>2.9</td>
<td>3.2</td>
<td>3.2</td>
<td>3.2</td>
<td>3.2</td>
<td>3.5</td>
<td>3.2</td>
<td>3.9</td>
<td>4.1</td>
<td>4.3</td>
<td>4.7</td>
<td>3.3</td>
<td></td>
</tr>
<tr>
<td>충남</td>
<td>3.3</td>
<td>3.3</td>
<td>3.2</td>
<td>3.6</td>
<td>3.9</td>
<td>3.6</td>
<td>3.6</td>
<td>3.6</td>
<td>4.2</td>
<td>4.7</td>
<td>5.5</td>
<td>6.3</td>
<td>6.2</td>
<td>3.8</td>
<td></td>
</tr>
<tr>
<td>전북</td>
<td>3.8</td>
<td>3.3</td>
<td>3.1</td>
<td>3.3</td>
<td>3.6</td>
<td>3.6</td>
<td>3.6</td>
<td>3.8</td>
<td>4.3</td>
<td>5.1</td>
<td>5.1</td>
<td>5.7</td>
<td>6.9</td>
<td>6.5</td>
<td>4.0</td>
</tr>
<tr>
<td>전남</td>
<td>3.1</td>
<td>2.5</td>
<td>2.4</td>
<td>2.8</td>
<td>3.0</td>
<td>3.3</td>
<td>3.4</td>
<td>3.8</td>
<td>4.3</td>
<td>5.3</td>
<td>6.2</td>
<td>7.3</td>
<td>8.0</td>
<td>7.4</td>
<td>3.8</td>
</tr>
<tr>
<td>경북</td>
<td>4.4</td>
<td>4.1</td>
<td>4.2</td>
<td>4.3</td>
<td>4.5</td>
<td>4.7</td>
<td>5.1</td>
<td>5.6</td>
<td>6.0</td>
<td>6.5</td>
<td>7.2</td>
<td>8.3</td>
<td>9.0</td>
<td>8.4</td>
<td>5.3</td>
</tr>
<tr>
<td>경남</td>
<td>5.6</td>
<td>4.8</td>
<td>5.2</td>
<td>5.5</td>
<td>6.1</td>
<td>6.0</td>
<td>6.0</td>
<td>6.0</td>
<td>6.1</td>
<td>6.4</td>
<td>6.8</td>
<td>6.9</td>
<td>6.6</td>
<td>6.6</td>
<td>5.9</td>
</tr>
<tr>
<td>제주</td>
<td>1.2</td>
<td>0.9</td>
<td>1.2</td>
<td>1.2</td>
<td>1.2</td>
<td>1.2</td>
<td>1.2</td>
<td>1.1</td>
<td>1.1</td>
<td>1.2</td>
<td>1.2</td>
<td>1.3</td>
<td>1.2</td>
<td>1.1</td>
<td>1.2</td>
</tr>
</tbody>
</table>

지역

| 동부 | 87.5 | 88.8 | 88.1 | 86.1 | 85.2 | 85.3 | 84.2 | 82.0 | 79.8 | 75.7 | 71.0 | 64.9 | 61.8 | 63.6 | 82.1 |
| 울릉부 | 12.5 | 11.2 | 11.9 | 13.9 | 14.8 | 14.7 | 15.8 | 18.0 | 20.2 | 24.3 | 29.0 | 35.1 | 38.2 | 36.4 | 17.9 |

계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부표 3〉 1인가구 거주자와 비1인가구 거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thead>
<tr>
<th>특성</th>
<th>전체</th>
<th>1인가구</th>
<th>비1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td>
<td>유배우</td>
<td>사별이혼별거</td>
<td>미혼</td>
</tr>
<tr>
<td>지역</td>
<td></td>
<td></td>
<td></td>
</tr>
<tr>
<td>대도시</td>
<td>45.0</td>
<td>47.9</td>
<td>38.7</td>
</tr>
<tr>
<td>중소도시</td>
<td>45.0</td>
<td>34.2</td>
<td>35.0</td>
</tr>
<tr>
<td>농어촌</td>
<td>18.0</td>
<td>17.8</td>
<td>26.3</td>
</tr>
<tr>
<td>성</td>
<td></td>
<td></td>
<td></td>
</tr>
<tr>
<td>남성</td>
<td>46.4</td>
<td>74.4</td>
<td>29.0</td>
</tr>
<tr>
<td>여성</td>
<td>53.6</td>
<td>25.6</td>
<td>71.0</td>
</tr>
<tr>
<td>연령</td>
<td></td>
<td></td>
<td></td>
</tr>
<tr>
<td>20-29세</td>
<td>18.7</td>
<td>4.6</td>
<td>0.1</td>
</tr>
<tr>
<td>30-39세</td>
<td>19.4</td>
<td>26.0</td>
<td>2.2</td>
</tr>
<tr>
<td>40-49세</td>
<td>15.5</td>
<td>34.7</td>
<td>8.7</td>
</tr>
<tr>
<td>50-59세</td>
<td>13.8</td>
<td>27.4</td>
<td>20.0</td>
</tr>
<tr>
<td>60-69세</td>
<td>13.0</td>
<td>7.3</td>
<td>26.2</td>
</tr>
<tr>
<td>70-79세</td>
<td>14.0</td>
<td>0.0</td>
<td>30.4</td>
</tr>
<tr>
<td>80세 이상</td>
<td>5.7</td>
<td>0.0</td>
<td>12.3</td>
</tr>
<tr>
<td>결혼상태</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배우(동거)</td>
<td>5.5</td>
<td>-</td>
<td>-</td>
</tr>
<tr>
<td>이혼·별거·사별</td>
<td>45.6</td>
<td>-</td>
<td>-</td>
</tr>
<tr>
<td>미혼</td>
<td>48.9</td>
<td>-</td>
<td>-</td>
</tr>
<tr>
<td>교육수준</td>
<td></td>
<td></td>
<td></td>
</tr>
<tr>
<td>초등학교 이하</td>
<td>18.2</td>
<td>0.0</td>
<td>38.8</td>
</tr>
<tr>
<td>중학교</td>
<td>5.8</td>
<td>1.4</td>
<td>12.0</td>
</tr>
<tr>
<td>고등학교</td>
<td>21.5</td>
<td>17.4</td>
<td>27.3</td>
</tr>
<tr>
<td>전문대학 이상</td>
<td>54.6</td>
<td>81.3</td>
<td>21.9</td>
</tr>
<tr>
<td>근로 여부</td>
<td></td>
<td></td>
<td></td>
</tr>
<tr>
<td>한다(취업)</td>
<td>63.7</td>
<td>88.1</td>
<td>41.0</td>
</tr>
<tr>
<td>안한다(비취업)</td>
<td>36.3</td>
<td>11.9</td>
<td>59.0</td>
</tr>
<tr>
<td>종사상의 지위</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용원이 없는 자영자</td>
<td>11.0</td>
<td>13.0</td>
<td>17.6</td>
</tr>
<tr>
<td>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사업주</td>
<td>5.6</td>
<td>10.9</td>
<td>8.4</td>
</tr>
<tr>
<td>상용근로자</td>
<td>58.7</td>
<td>69.3</td>
<td>26.1</td>
</tr>
<tr>
<td>일반근로자</td>
<td>8.1</td>
<td>2.6</td>
<td>19.7</td>
</tr>
<tr>
<td>임시근로자</td>
<td>11.2</td>
<td>3.1</td>
<td>16.4</td>
</tr>
<tr>
<td>기타</td>
<td>5.5</td>
<td>1.0</td>
<td>11.8</td>
</tr>
<tr>
<td>특성</td>
<td>전체</td>
<td>1인가구</td>
<td>비1인가구</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strong>가구소득</strong></td>
<td></td>
<td></td>
<td></td>
</tr>
<tr>
<td>99만원 이하</td>
<td>35.4</td>
<td>5.1</td>
<td>58.4</td>
</tr>
<tr>
<td>100~199만원</td>
<td>21.3</td>
<td>6.0</td>
<td>20.8</td>
</tr>
<tr>
<td>200~299만원</td>
<td>23.1</td>
<td>20.3</td>
<td>10.2</td>
</tr>
<tr>
<td>300~399만원</td>
<td>11.0</td>
<td>23.0</td>
<td>4.7</td>
</tr>
<tr>
<td>400~499만원</td>
<td>3.9</td>
<td>12.0</td>
<td>2.5</td>
</tr>
<tr>
<td>500~599만원</td>
<td>2.4</td>
<td>12.9</td>
<td>1.5</td>
</tr>
<tr>
<td>600~699만원</td>
<td>0.8</td>
<td>6.0</td>
<td>0.4</td>
</tr>
<tr>
<td>700만원 이상</td>
<td>2.1</td>
<td>14.7</td>
<td>1.3</td>
</tr>
<tr>
<td><strong>독거이유</strong></td>
<td></td>
<td></td>
<td></td>
</tr>
<tr>
<td>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td>
<td>7.1</td>
<td>3.7</td>
<td>8.3</td>
</tr>
<tr>
<td>자유롭게 살고 싶음</td>
<td>25.8</td>
<td>11.5</td>
<td>22.9</td>
</tr>
<tr>
<td>직장, 학업</td>
<td>35.7</td>
<td>79.4</td>
<td>6.7</td>
</tr>
<tr>
<td>같이 살 가족 없음</td>
<td>24.0</td>
<td>2.3</td>
<td>42.8</td>
</tr>
<tr>
<td>건강함</td>
<td>1.4</td>
<td>0.0</td>
<td>2.8</td>
</tr>
<tr>
<td>살고 있는곳 떠나기 싫음</td>
<td>2.8</td>
<td>0.0</td>
<td>6.0</td>
</tr>
<tr>
<td>기타</td>
<td>3.1</td>
<td>3.3</td>
<td>10.5</td>
</tr>
<tr>
<td><strong>독거기간</strong></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미만</td>
<td>13.5</td>
<td>31.0</td>
<td>9.7</td>
</tr>
<tr>
<td>2~5년</td>
<td>24.1</td>
<td>32.4</td>
<td>21.4</td>
</tr>
<tr>
<td>5~10년</td>
<td>23.4</td>
<td>22.2</td>
<td>22.9</td>
</tr>
<tr>
<td>10~20년</td>
<td>25.3</td>
<td>12.0</td>
<td>28.4</td>
</tr>
<tr>
<td>20년 이상</td>
<td>13.8</td>
<td>2.3</td>
<td>17.6</td>
</tr>
<tr>
<td>계</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r>
<tr>
<td>(명)</td>
<td>(4,000)</td>
<td>(219)</td>
<td>(1,823)</td>
</tr>
</tbody>
</table>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습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총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table>
<thead>
<tr>
<th>연구보고서 발간목록</th>
</tr>
</thead>
<tbody>
<tr>
<td><strong>발간번호</strong></td>
</tr>
<tr>
<td>연구 2011-01</td>
</tr>
<tr>
<td>연구 2011-02</td>
</tr>
<tr>
<td>연구 2011-03</td>
</tr>
<tr>
<td>연구 2011-04</td>
</tr>
<tr>
<td>연구 2011-05</td>
</tr>
<tr>
<td>연구 2011-06</td>
</tr>
<tr>
<td>연구 2011-07</td>
</tr>
<tr>
<td>연구 2011-08</td>
</tr>
<tr>
<td>연구 2011-09</td>
</tr>
<tr>
<td>연구 2011-10</td>
</tr>
<tr>
<td>연구 2011-11</td>
</tr>
<tr>
<td>연구 2011-12</td>
</tr>
<tr>
<td>연구 2011-13</td>
</tr>
<tr>
<td>연구 2011-14</td>
</tr>
<tr>
<td>연구 2011-15</td>
</tr>
<tr>
<td>연구 2011-16-1</td>
</tr>
<tr>
<td>연구 2011-16-2</td>
</tr>
<tr>
<td>연구 2011-17-1</td>
</tr>
<tr>
<td>연구 2011-17-2</td>
</tr>
<tr>
<td>연구 2011-17-3</td>
</tr>
<tr>
<td>연구 2011-17-4</td>
</tr>
<tr>
<td>연구 2011-17-5</td>
</tr>
<tr>
<td>연구 2011-17-6</td>
</tr>
<tr>
<td>연구 2011-17-7</td>
</tr>
<tr>
<td>연구 2011-18</td>
</tr>
<tr>
<td>연구 2011-19</td>
</tr>
<tr>
<td>연구 2011-20</td>
</tr>
<tr>
<td>연구 2011-21</td>
</tr>
<tr>
<td>연구 2011-22</td>
</tr>
<tr>
<td>연구 2011-23</td>
</tr>
<tr>
<td>연구 2011-24</td>
</tr>
<tr>
<td>연구 2011-25</td>
</tr>
<tr>
<td>연구 2011-26</td>
</tr>
<tr>
<td>연구 2011-27</td>
</tr>
<tr>
<td>연구 2011-28</td>
</tr>
<tr>
<td>발간번호</td>
</tr>
<tr>
<td>----------</td>
</tr>
<tr>
<td>연구 2011-29</td>
</tr>
<tr>
<td>연구 2011-30</td>
</tr>
<tr>
<td>연구 2011-31</td>
</tr>
<tr>
<td>연구 2011-32</td>
</tr>
<tr>
<td>연구 2011-33</td>
</tr>
<tr>
<td>연구 2011-34</td>
</tr>
<tr>
<td>연구 2011-35</td>
</tr>
<tr>
<td>연구 2011-36</td>
</tr>
<tr>
<td>연구 2011-37-1</td>
</tr>
<tr>
<td>연구 2011-37-2</td>
</tr>
<tr>
<td>연구 2011-37-3</td>
</tr>
<tr>
<td>연구 2011-37-4</td>
</tr>
<tr>
<td>연구 2011-37-5</td>
</tr>
<tr>
<td>연구 2011-37-6</td>
</tr>
<tr>
<td>연구 2011-37-7</td>
</tr>
<tr>
<td>연구 2011-37-8</td>
</tr>
<tr>
<td>연구 2011-37-9</td>
</tr>
<tr>
<td>연구 2011-37-10</td>
</tr>
<tr>
<td>연구 2011-37-11</td>
</tr>
<tr>
<td>연구 2011-37-12</td>
</tr>
<tr>
<td>연구 2011-37-13</td>
</tr>
<tr>
<td>연구 2011-37-14</td>
</tr>
<tr>
<td>연구 2011-37-15</td>
</tr>
<tr>
<td>연구 2011-37-16</td>
</tr>
<tr>
<td>연구 2011-37-17</td>
</tr>
<tr>
<td>연구 2011-37-18</td>
</tr>
<tr>
<td>연구 2011-37-19</td>
</tr>
<tr>
<td>연구 2011-37-20</td>
</tr>
<tr>
<td>연구 2011-37-21</td>
</tr>
<tr>
<td>연구 2011-37-22</td>
</tr>
<tr>
<td>연구 2011-38</td>
</tr>
<tr>
<td>연구 2011-39-1</td>
</tr>
<tr>
<td>연구 2011-39-2</td>
</tr>
<tr>
<td>연구 2011-39-3</td>
</tr>
<tr>
<td>연구 2011-39-4</td>
</tr>
<tr>
<td>연구 2011-40-1</td>
</tr>
<tr>
<td>연구 2011-40-2</td>
</tr>
<tr>
<td>연구 2011-41-1</td>
</tr>
<tr>
<td>연구 2011-41-2</td>
</tr>
<tr>
<td>발간번호</td>
</tr>
<tr>
<td>----------</td>
</tr>
<tr>
<td>연구 2011-42</td>
</tr>
<tr>
<td>연구 2011-43</td>
</tr>
<tr>
<td>연구 2011-44-1</td>
</tr>
<tr>
<td>연구 2011-44-2</td>
</tr>
<tr>
<td>연구 2011-45</td>
</tr>
<tr>
<td>연구 2011-46</td>
</tr>
<tr>
<td>연구 2011-47</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발간번호</th>
<th>2012년도 보고서명</th>
<th>연구책임자</th>
</tr>
</thead>
<tbody>
<tr>
<td>연구 2012-01</td>
<td>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td>
<td>정기혜</td>
</tr>
<tr>
<td>연구 2012-02</td>
<td>보건의료분야 사업배정 개선방안 연구: 한미FTA 중심으로</td>
<td>김광석</td>
</tr>
<tr>
<td>연구 2012-03</td>
<td>초음파 및 고장학 교육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연구</td>
<td>김경린</td>
</tr>
<tr>
<td>연구 2012-04</td>
<td>식품안전교육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td>
<td>박성수</td>
</tr>
<tr>
<td>연구 2012-05</td>
<td>교육과정수집방안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정방안</td>
<td>김상호</td>
</tr>
<tr>
<td>연구 2012-06</td>
<td>안전기준 적용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외의 국가법 비교 연구</td>
<td>박상호</td>
</tr>
<tr>
<td>연구 2012-07</td>
<td>재무상품 구조분석과 발전방향</td>
<td>윤상주</td>
</tr>
<tr>
<td>연구 2012-08</td>
<td>신간성장성장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담체계 개선방안</td>
<td>신호성</td>
</tr>
<tr>
<td>연구 2012-09</td>
<td>신간성장성장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담체계 개선방안</td>
<td>이성철</td>
</tr>
<tr>
<td>연구 2012-10</td>
<td>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td>
<td>김혜권</td>
</tr>
<tr>
<td>연구 2012-11</td>
<td>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td>
<td>김동진</td>
</tr>
<tr>
<td>연구 2012-12</td>
<td>정책간호학적 하위 분류 연구</td>
<td>정길준</td>
</tr>
<tr>
<td>연구 2012-13</td>
<td>식품안전분야 안전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td>
<td>김상호</td>
</tr>
<tr>
<td>연구 2012-14</td>
<td>신간성장성장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존 구축 연구</td>
<td>김경호</td>
</tr>
<tr>
<td>연구 2012-15</td>
<td>보건 환경강화를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td>
<td>김특수</td>
</tr>
<tr>
<td>연구 2012-16</td>
<td>국민연금 적정자산 수준에 관한 연구</td>
<td>윤성철</td>
</tr>
<tr>
<td>연구 2012-17</td>
<td>건강보험 치료비의 효율적 관리 방안</td>
<td>신형호</td>
</tr>
<tr>
<td>연구 2012-18</td>
<td>신골노인병동보건간 급여의 현장성 제고방안 연구</td>
<td>신형호</td>
</tr>
<tr>
<td>연구 2012-19</td>
<td>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정책 운용방향</td>
<td>유근호</td>
</tr>
<tr>
<td>연구 2012-20</td>
<td>사회개선에 따른 지자체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td>
<td>윤성철</td>
</tr>
<tr>
<td>연구 2012-21</td>
<td>복지지출수준에 따른 사회참여와 정책과제</td>
<td>고경환</td>
</tr>
<tr>
<td>연구 2012-22</td>
<td>전달과 자원의 사회복지 재정분석</td>
<td>최성호</td>
</tr>
<tr>
<td>연구 2012-23</td>
<td>지방자치의 복지정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정부의 복지수준과 유구의 대응성 분석</td>
<td>고경환</td>
</tr>
<tr>
<td>연구 2012-24</td>
<td>2012년 사회예산 분석</td>
<td>최성호</td>
</tr>
<tr>
<td>연구 2012-25</td>
<td>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td>
<td>윤성철</td>
</tr>
<tr>
<td>연구 2012-26</td>
<td>폐기물재활 및 치료연금 이정착화와 정책분석</td>
<td>윤성철</td>
</tr>
<tr>
<td>연구 2012-27</td>
<td>OECD 국가의 사회복지재정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td>
<td>윤성철</td>
</tr>
<tr>
<td>연구 2012-28</td>
<td>국민건강보험재정화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td>
<td>김길수</td>
</tr>
<tr>
<td>연구 2012-29</td>
<td>농어촌 근로면 민간 및 지원정부 연구</td>
<td>김동진</td>
</tr>
<tr>
<td>연구 2012-30</td>
<td>중고급차의 소득자산 분석</td>
<td>남상호</td>
</tr>
<tr>
<td>발간번호</td>
<td>2012년도 보고서명</td>
<td>연구책임자</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 2012-31</td>
<td>현대화 노인의 반공 삶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td>
<td>감미곤</td>
</tr>
<tr>
<td>연구 2012-32</td>
<td>반공에 대한 대학적 접근 육구방주를 고려한 다자원성에 대한 분석</td>
<td>이현주</td>
</tr>
<tr>
<td>연구 2012-33</td>
<td>반공중 비라브론스본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게이 제공방안 연구</td>
<td>영문철</td>
</tr>
<tr>
<td>연구 2012-34</td>
<td>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연구, 아사타 국가를 중심으로 1(터키)</td>
<td>이현주</td>
</tr>
<tr>
<td>연구 2012-35</td>
<td>연구구조변화가 병무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td>
<td>김인철</td>
</tr>
<tr>
<td>연구 2012-36</td>
<td>한국복지정책 연구 결과물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실증분석</td>
<td>김성희</td>
</tr>
<tr>
<td>연구 2012-37</td>
<td>2012년 반공동개념보</td>
<td>감미곤</td>
</tr>
<tr>
<td>연구 2012-38</td>
<td>사회서비스 구조체계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td>
<td>강해균</td>
</tr>
<tr>
<td>연구 2012-39</td>
<td>아동복지중심대 및 적정 아동복지중심 구조 주체</td>
<td>김미숙</td>
</tr>
<tr>
<td>연구 2012-40</td>
<td>주요사 중앙 장애아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실증분석</td>
<td>김성희</td>
</tr>
<tr>
<td>연구 2012-41</td>
<td>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td>
<td>김수경</td>
</tr>
<tr>
<td>연구 2012-42</td>
<td>장애차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통합 및 정책대책</td>
<td>박수정</td>
</tr>
<tr>
<td>연구 2012-43</td>
<td>보건복지부문의 소외지역 환경 현행 및 정책대책</td>
<td>강점철</td>
</tr>
<tr>
<td>연구 2012-44</td>
<td>한국의 보건복지 정향 2012</td>
<td>장성철</td>
</tr>
<tr>
<td>연구 2012-45</td>
<td>의료보험 통계평가 분석과 관련 연구</td>
<td>도세록</td>
</tr>
<tr>
<td>연구 2012-46</td>
<td>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td>
<td>손상균</td>
</tr>
<tr>
<td>연구 2012-47-1</td>
<td>미래 성장 위한 재출산부분의 국가계획 강화 방안</td>
<td>이용석</td>
</tr>
<tr>
<td>연구 2012-47-2</td>
<td>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td>
<td>신영철</td>
</tr>
<tr>
<td>연구 2012-47-3</td>
<td>중장년부대장래정부의 저출산정책연계방안</td>
<td>이상철</td>
</tr>
<tr>
<td>연구 2012-47-4</td>
<td>이상근요한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td>
<td>김건희</td>
</tr>
<tr>
<td>연구 2012-47-5</td>
<td>전자폐기물 재활재활 및 적응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및 정책대책</td>
<td>이현진</td>
</tr>
<tr>
<td>연구 2012-47-6</td>
<td>한국가정 경제구조와 저출산문제의 저출산정책연계방안</td>
<td>김건희</td>
</tr>
<tr>
<td>연구 2012-47-7</td>
<td>미래나사 동작성플러스 기업과 출산간 간 연관성 분석</td>
<td>이용희</td>
</tr>
<tr>
<td>연구 2012-47-8</td>
<td>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안</td>
<td>황대미</td>
</tr>
<tr>
<td>연구 2012-47-9</td>
<td>산학협회 저출산사례연구 및 사례발표회와 관리방안</td>
<td>최정수</td>
</tr>
<tr>
<td>연구 2012-47-10</td>
<td>동해나서 출산목산과 요인분석과 정책방안</td>
<td>정호희</td>
</tr>
<tr>
<td>연구 2012-47-11</td>
<td>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td>
<td>김건희</td>
</tr>
<tr>
<td>연구 2012-47-12</td>
<td>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대책</td>
<td>(이현진)</td>
</tr>
<tr>
<td>연구 2012-47-13</td>
<td>부녀의 통합통(여성+아동) 안전과 대응방안</td>
<td>이상철</td>
</tr>
<tr>
<td>연구 2012-47-14</td>
<td>2012년도 노인실태조사 실증분석</td>
<td>장경희</td>
</tr>
<tr>
<td>연구 2012-47-15</td>
<td>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 영국, 일본, 한국</td>
<td>이정희</td>
</tr>
<tr>
<td>연구 2012-47-16</td>
<td>선진화의 고령화(안전) 관련 한국의 저출산국가(Active Ageing) 정책사항을 중심으로</td>
<td>손상균</td>
</tr>
<tr>
<td>연구 2012-47-17</td>
<td>저출산-고령화 대응 국민인식 연구(II)</td>
<td>오영희</td>
</tr>
<tr>
<td>발간번호</td>
<td>2012년도 보고서명</td>
<td>연구책임자</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 2012-47-25</td>
<td>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td>
<td>정경희</td>
</tr>
<tr>
<td>연구 2012-47-26</td>
<td>출산력향상방안 구축 및 분석</td>
<td>신창우, 이선석</td>
</tr>
<tr>
<td>연구 2012-47-27</td>
<td>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전반체계 개편 방안 :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td>
<td>정홍원</td>
</tr>
<tr>
<td>연구 2012-47-28</td>
<td>부모에 대한 정책적 의존과 자녀의 만족</td>
<td>(아난수)</td>
</tr>
<tr>
<td>연구 2012-47-29</td>
<td>출산에 대한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방안</td>
<td>신용징</td>
</tr>
<tr>
<td>연구 2012-47-30</td>
<td>노동인력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td>
<td>(최경원)</td>
</tr>
<tr>
<td>연구 2012-47-31</td>
<td>출산 고통화 대응 : 노인복지업계 생활실태 연구</td>
<td>박종서</td>
</tr>
<tr>
<td>연구 2012-48</td>
<td>보건의료벤처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td>
<td>오영호</td>
</tr>
<tr>
<td>연구 2012-49-1</td>
<td>중장년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td>
<td>이상영</td>
</tr>
<tr>
<td>연구 2012-49-2</td>
<td>자영자단체의 건강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td>
<td>김남현</td>
</tr>
<tr>
<td>연구 2012-49-3</td>
<td>아동, 노인의 건강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td>
<td>최은진</td>
</tr>
<tr>
<td>연구 2012-49-4</td>
<td>보건영양정책에 대한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td>
<td>최은진</td>
</tr>
<tr>
<td>연구 2012-50-1</td>
<td>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정책 실태 발전방안</td>
<td>김남균</td>
</tr>
<tr>
<td>연구 2012-50-2</td>
<td>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위생정책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td>
<td>김성현</td>
</tr>
<tr>
<td>연구 2012-51</td>
<td>이사회 사례 : 사회정책 비고전략</td>
<td>홍석표</td>
</tr>
<tr>
<td>연구 2012-52</td>
<td>자립, 외자적 의존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적설명</td>
<td>김효성</td>
</tr>
<tr>
<td>연구 2012-53</td>
<td>사회서비스 감시감독 전략 II : 영유아돌봄 및 초등학교육을 중심으로</td>
<td>김성균</td>
</tr>
<tr>
<td>연구 2012-54</td>
<td>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td>
<td>김성관</td>
</tr>
<tr>
<td>연구 2012-55-1</td>
<td>2012년 한국복지실태조사 :: 영유아돌봄 및 초등학교육을 중심으로</td>
<td>최한수</td>
</tr>
<tr>
<td>연구 2012-55-2</td>
<td>2012년 한국복지실태조사 :: 영유아돌봄 및 초등학교육을 중심으로</td>
<td>최한수</td>
</tr>
<tr>
<td>연구 2012-56-1</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1)</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56-2</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2)</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57</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3)</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58</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4)</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59</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5)</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0</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6)</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1</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7)</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2</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8)</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3</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9)</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4</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10)</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5</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11)</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6</td>
<td>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 합의</td>
<td>김대웅</td>
</tr>
<tr>
<td>연구 2012-67</td>
<td>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 합의</td>
<td>김대웅</td>
</tr>
<tr>
<td>연구 2012-68</td>
<td>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 합의</td>
<td>김대웅</td>
</tr>
<tr>
<td>협동 2012-1</td>
<td>사회보장 재정부담금과 균형화 및 정책편향에 관한 연구</td>
<td>신영석</td>
</tr>
<tr>
<td>협동 2012-2</td>
<td>사회보장 재정부담금과 균형화 및 정책편향에 관한 연구</td>
<td>신영석</td>
</tr>
<tr>
<td>협동 2012-3</td>
<td>사회보장 재정부담금과 균형화 및 정책편향에 관한 연구</td>
<td>신영석</td>
</tr>
<tr>
<td>협동 2012-4</td>
<td>사회보장 재정부담금과 균형화 및 정책편향에 관한 연구</td>
<td>신영석</td>
</tr>
</tbody>
</table>

6. 간행물회원제 안내 및 발간목록

<table>
<thead>
<tr>
<th>발간번호</th>
<th>2012년도 보고서명</th>
<th>연구책임자</th>
</tr>
</thead>
<tbody>
<tr>
<td>연구 2012-47-25</td>
<td>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td>
<td>정경희</td>
</tr>
<tr>
<td>연구 2012-47-26</td>
<td>출산력향상방안 구축 및 분석</td>
<td>신창우, 이선석</td>
</tr>
<tr>
<td>연구 2012-47-27</td>
<td>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전반체계 개편 방안 :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td>
<td>정홍원</td>
</tr>
<tr>
<td>연구 2012-47-28</td>
<td>부모에 대한 정책적 의존과 자녀의 만족</td>
<td>(아난수)</td>
</tr>
<tr>
<td>연구 2012-47-29</td>
<td>출산에 대한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방안</td>
<td>신용징</td>
</tr>
<tr>
<td>연구 2012-47-30</td>
<td>노동인력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td>
<td>(최경원)</td>
</tr>
<tr>
<td>연구 2012-47-31</td>
<td>출산 고통화 대응 : 노인복지업계 생활실태 연구</td>
<td>박종서</td>
</tr>
<tr>
<td>연구 2012-48</td>
<td>보건의료벤처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td>
<td>오영호</td>
</tr>
<tr>
<td>연구 2012-49-1</td>
<td>중장년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td>
<td>이상영</td>
</tr>
<tr>
<td>연구 2012-49-2</td>
<td>자영자단체의 건강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td>
<td>김남현</td>
</tr>
<tr>
<td>연구 2012-49-3</td>
<td>아동, 노인의 건강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td>
<td>최은진</td>
</tr>
<tr>
<td>연구 2012-49-4</td>
<td>보건영양정책에 대한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td>
<td>최은진</td>
</tr>
<tr>
<td>연구 2012-50-1</td>
<td>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정책 실태 발전방안</td>
<td>김남균</td>
</tr>
<tr>
<td>연구 2012-50-2</td>
<td>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위생정책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td>
<td>김성현</td>
</tr>
<tr>
<td>연구 2012-51</td>
<td>이사회 사례 : 사회정책 비고전략</td>
<td>홍석표</td>
</tr>
<tr>
<td>연구 2012-52</td>
<td>자립, 외자적 의존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적설명</td>
<td>김효성</td>
</tr>
<tr>
<td>연구 2012-53</td>
<td>사회서비스 감시감독 전략 II : 영유아돌봄 및 초등학교육을 중심으로</td>
<td>김성균</td>
</tr>
<tr>
<td>연구 2012-54</td>
<td>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td>
<td>김성관</td>
</tr>
<tr>
<td>연구 2012-55-1</td>
<td>2012년 한국복지실태조사 :: 영유아돌봄 및 초등학교육을 중심으로</td>
<td>최한수</td>
</tr>
<tr>
<td>연구 2012-55-2</td>
<td>2012년 한국복지실태조사 :: 영유아돌봄 및 초등학교육을 중심으로</td>
<td>최한수</td>
</tr>
<tr>
<td>연구 2012-56-1</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1)</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56-2</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2)</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57</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3)</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58</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4)</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59</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5)</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0</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6)</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1</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7)</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2</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8)</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3</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9)</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4</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10)</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5</td>
<td>2012년 한국의료정책 :: 기본신호보고서(11)</td>
<td>정영호</td>
</tr>
<tr>
<td>연구 2012-66</td>
<td>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 합의</td>
<td>김대웅</td>
</tr>
<tr>
<td>연구 2012-67</td>
<td>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 합의</td>
<td>김대웅</td>
</tr>
<tr>
<td>연구 2012-68</td>
<td>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 합의</td>
<td>김대웅</td>
</tr>
</tbody>
</table>

6. 간행물회원제 안내 및 발간목록